조선중앙년감

1980

조 선 중 앙 통 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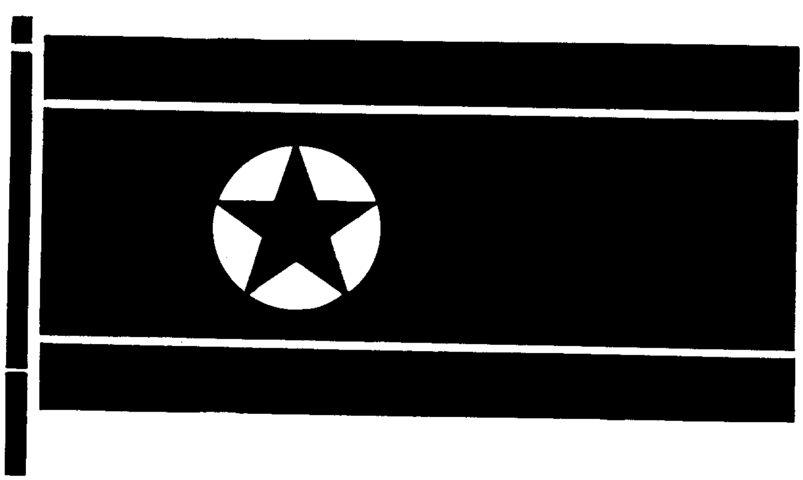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 일 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 일 성장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신년사
1979년 1월 1일 ···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11일 ··· 5

베닌인민공화국 내무안전및민족방향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9년 6월 30일 ··· 12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27일 ··· 17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조선인민군특무장강습폐강식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25일 ··· 24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인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3월 20일 ···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을 위하여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각하와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3월 22일 ··· 30

유엔사무총장 쿠르트 왈트하임각하를 위하여 마련하신 오찬회에서 하신 축배사
1979년 5월 3일 ··· 31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20일 ··· 32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26일 ··· 3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등영초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31일 ··· 36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10월 9일 ··· 37

기네—비싸우공화국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동지를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11월 1일 ··· 40

축하전문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 42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 동지앞 ··· 42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 앞 ··· 44

회답편지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새 돈을 발행할데 대하여 ··· 4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진행된 주요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 전원회의……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5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53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56
전국농업대회……57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58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페강식……59
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대회……59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5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남포항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6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남흥애국곡산공장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6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대안시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6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63
조선로동당 청진시위원회 및 함경북도위원회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65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6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7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72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7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와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7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7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북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79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82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8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8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방문하시였다……8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홰불》공연을 보시였다……8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였다…8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령도 및 대외활동일지(1979년)……88

외국국가수반들과 지도자들의 우리 나라 방문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의 우리 나라 방문……97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97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98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98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99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

무산지구전투……101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1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제막식…103
신사동혁명사적비와 청봉헌시비 제막식……105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106
삼지연은 로천혁명박물관……107
혁명전통주요기념일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전사 오중흡동지……110
무산지구에 아로새겨진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자욱……111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85돐……112
청수동혁명사적관……113
의주혁명사적관……114
제1차북만원정 45돐……114
대부대선회작전승리 40돐……115
류파송, 쟈신즈전투승리 40돐……116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주요년대표……117

민족최대의 명절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뜻깊게 기념……11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 축하편지……120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을 재일동포들이 뜻깊게 기념……120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을 뜻깊게 기념……121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123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127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의 강화……128
시, 군 인민회의대의원선거 진행……129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회의 및 모임……129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모임들……131
주요기념일 및 기념행사
위대한 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15년……134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을 기념……135
통일혁명당창건 10돐기념 평양시보고대회……137
《6.25미제반대투쟁의 날》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138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138
3.1인민봉기 60돐 평양시기념보고회……139
주요 대회 및 회의
전국무역일군대회……140
전국통계일군회의……140
전국열관리원회의……140
전국기자대회……141
전국철도기관차부문열성자회의……141
철도운수부문청년열성자회의……141
전국농촌경리기계화부문일군회의……142
전국설비관리일군회의……142
발명가, 창의고안명수회의……142
근로단체회의……142

사회주의경제건설

공업……145
농업……146
교통운수……147

기본건설 ……148
수산업 ……149
국가예산 ……150

사회주의문화건설

사회주의교육 ……152
주체과학 ……155
혁명적문학예술 ……157
소설및 시문학……157
영화예술 ……158
무대예술 ……163
주체미술 ……164
우리 나라 예술단들의 외국방문공연……166
군중문화교양 ……171
주체체육 ……174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체육의 위력을 시위……176
우리 나라에 온 외국선수단들과의 친선경기들 ……178
출판 ……180
인민생활의 향상……184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그 실현을 위하여
4개항목의 구국방안 제의……188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의 재확인,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공식태도의 표명 ……189
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의……190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190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을 만들어 출전할데 대한 제의……193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성이시다……196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창건 10돐……198
통일혁명당 주요활동일지……200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파쑈와 민주세력사이의 대립의 첨예화 ……201
반《정부》폭동 ……202
반독재련합전선운동과 련대투쟁, 공동투쟁의 강화……203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205
해외교포들의 애국투쟁……206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의 강화
4개항목의 통일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208
국제적련대성운동의 조직화와 규모의 확대……210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괴뢰도당의 책동 ……214
분렬과 반공책동 ……214
파쑈적폭압책동 ……215
군사적도발책동 ……216
식민지경제의 파국적위기……217
반동적《예산》……217
석유파동과 물가의 폭등……218
공업생산의 감퇴와 기업의 파산……219
《출혈》무역 ……219
늘어나는 빚더미 ……220
농업생산의 파탄과 식량위기……220
썩고 병든 사회상……221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활동

주체의 사상체계가 선 힘있는 조직으로…224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227
성인교육사업 ……228
조선대학교 새 교사준공 20돐……228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228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230
평양애국옥당공장 ……231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231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자주시대의 조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233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지역 대학토론회……………………………234
제2차단마르크전국주체사상토론회………234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파키스탄토론회…235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235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제3차전국집회…236
제7차오사까주체사상연구집회……………236
제3차긴끼지방주체사상연구집회…………236
주체사상에 대한 인도북부지역토론회…236

국제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23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확대회의와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23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237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238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238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239
쁠럭불가담국가 조정위원회 비상회의……239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교부장회의……………………………………239
쁠럭불가담국가 기구회의……………………240
유엔총회 제34차회의…………………………240
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회의………………240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들과 전선국가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241
아프리카통일기구 제6차수뇌자회의………241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비상회의……………………………242

아 세 아

중국 ……………………………………243
홍콩 ……………………………………245
마카오 …………………………………246
몽골 ……………………………………247
웰남 ……………………………………248
라오스 …………………………………249
캄보쟈 …………………………………250
일본 ……………………………………252
필리핀 …………………………………255
브루네이 ………………………………256
인도네시아 ……………………………257
싱가포르 ………………………………258
말레이시아 ……………………………259
타이 ……………………………………260
버마 ……………………………………261
부탄 ……………………………………263
네팔 ……………………………………264
방글라데슈 ……………………………265
인도 ……………………………………266
파키스탄 ………………………………269
스리랑카 ………………………………271
말디브 …………………………………272
아프가니스탄 …………………………273
이란 ……………………………………274
이라크 …………………………………276
수리아 …………………………………278
레바논 …………………………………280
요르단 …………………………………282
이스라엘 ………………………………283
사우디 아라비아………………………284
쿠웨이트 ………………………………285
바레인 …………………………………286
까타르 …………………………………287
아랍추장국 ……………………………288
오　만 …………………………………289
예　멘 …………………………………290
민주예멘 ………………………………291
토이기 …………………………………292
끼쁘로스 ………………………………293

아프리카

애급 ……………………………………295

수단 ……296
리비아 ……298
류니지 ……299
알제리 ……300
마로끄 ……303
서부사하라 ……304
모리따니 ……305
말리 ……306
세네갈 ……308
감비아 ……309
기네—비싸우 ……310
베르데갑 ……312
기네 ……313
시에라레온 ……314
리베리아 ……315
상아해안 ……316
상부볼따 ……317
가나 ……318
또고 ……320
베닌 ……321
나이제리아 ……323
니제르 ……325
챠드 ……326
까메룬 ……328
중앙아프리카 ……329
적도기네 ……330
산토메 프린시페 ……331
가봉 ……332
콩고 ……333
자이르 ……334
부룬디 ……335
르완다 ……337
우간다 ……338
에티오피아 ……339
지부티 ……341
소말리아 ……342
케니아 ……343
탄자니아 ……344
모잠비끄 ……346
말라위 ……348
잠비아 ……349
짐바브웨 ……351
앙골라 ……353
나미비아 ……354
보쯔와나 ……355
남아프리카 ……357
스워질랜드 ……358
레소토 ……359
말가슈 ……359
모리셔스 ……362
꼬모르 ……363
세이쉘 ……363
레유니옹 ……365
쎈트헬레나 ……365
까나리아 ……366

라틴아메리카

꾸바 ……367
메히꼬 ……369
과떼말라 ……370
쌀바도르 ……371
온두라스 ……372
니까라과 ……373
꼬스따 리까 ……375
빠나마 ……376
바하마 ……378
자메이카 ……378
아이띠 ……379
도미니까 ……380
도미니카 ……381
쎄인트 루씨아 ……382
쎈트 빈쎈트 ……383
바베이도즈 ……384
그레네이더 ……384
트리니대드 토바고 ……385
꼴롬비아 ……386
베네수엘라 ……387
가이아나 ……389
수리남 ……391
에꽈도르 ……392
뻬루 ……393
브라질 ……394
볼리비아 ……396
빠라과이 ……397
칠레 ……398
아르헨띠나 ……399
우루과이 ……400
벨리제 ……401
버무다 ……402
뿌에르또 리꼬 ……402
앙길라 ……403
버진 ……403

안티구아 ……403
파들루쁘 ……404
마르띠니끄 ……404
화란령서인도제도 ……404
기아나 ……404
말빈제도 ……405

구 라 파

쏘련 ……406
뽈스까 ……408
독일민주주의공화국 ……410
체스꼬슬로벤스꼬 ……412
웽그리아 ……413
로므니아 ……415
벌가리아 ……417
알바니아 ……419
유고슬라비아 ……421
핀란드 ……423
스웨리예 ……424
노르웨이 ……425
이슬란드 ……427
단마르크 ……428
서부독일 ……429
오지리 ……431
희랍 ……432
리히텐슈타인 ……433
스위스 ……434
이딸리아 ……435
바띠까노 ……437
싼 마리노 ……438
말 따 ……438
영국 ……439
아일랜드 ……441
화란 ……442
벨지끄 ……443
룩셈부르그 ……444
프랑스 ……445
모나꼬 ……447
안도라 ……447
에스빠냐 ……448
뽀르뚜갈 ……449
지브랄타르 ……451

북 미

카나다 ……452
미국 ……453
그린랜드 ……457

대 양 주

오스트랄리아 ……458
뉴질랜드 ……459
파푸아 뉴기니아 ……460
솔로몬제도 ……461
나우루 ……461
키리바티 ……462
투발루 ……462
피지 ……462
서부사모아 ……463
통가 ……464
괌섬 ……464
뉴헤브리디즈제도 ……464
누벨 깔레도니아 ……464
동부사모아 ……465

량극 지방

북극권 ……465
남극권 ……466

자 료

우리 나라의 력사 ……467
우리 나라에서 가장 뛰여난
지리대상 ……471
력사적인 화폐교환사업 ……472
1979년에 수여된 국가표창 ……474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 ……475
새로 제정된 명예칭호, 절 ……475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
안전원 칭호 ……475
공훈계산원칭호 ……476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 ……476
화학공업절 ……476
군사정전관계 ……477
조약, 콤뮤니케, 공동보도,
협정, 성명 ……480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대표단 ……486

국제회의, 토론회, 축전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487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488
세계및아세아지역
주요선수권대회……494
1979년에 수립된 세계신기록……495
세계인구……496
인구가 많은 나라……497
자본주의나라들의 실업자수……497
세계원유매장량……497
주요원유생산국들의 생산량과
매장량……497
세계적인 원유소비량……498
세계알곡총생산량……498
세계주요농산물생산량……498
세계주요집짐승마리수……498
1979년도 우리 나라 기상개관……498
이상기후현상과 1979년
세계기상상태……501
일식 및 월식 현상……503
1979년도 세계지진일람……504
국내주요일지……507
남조선주요일지……513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활동일지……519
국제주요일지……521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 저작집 1
김일성 저작집 2
김일성 저작집 3
김일성 저작집 4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저작집 1
김일성 저작집 2
김일성 저작집 3
김일성 저작집 1
김일성 저작집 2
김일성 저작집 3
김일성 저작집 4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
저작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세계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 학습하고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있다.

신 년 사

1979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될 희망찬 새해 1979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으며 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새해 첫전투에 달라붙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원쑤들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보냅니다.

1978년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남조선인민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전인민적인 정치행사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비할바없이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끝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습니다.

1978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77년에 비하여 117%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년평균 공업생산 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장성으로 됩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채굴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모든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운수부문에서는 다시한번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벌려 수송의 긴장성을 풀었으며 길주—혜산사이, 대동강—신성천사이의 철도전기화를 완공하고 남포항과 해주항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습니다.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1977년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10%, 강철생산은 127%, 화학비료생산은 123%, 세멘트생산은 132%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동해안지대농사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전진이 있었습니다. 교육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조국보위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놓았습니다.

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1979년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는 1979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토의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채취공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연료, 동력의 기본자원이며 주체공업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석탄이 있어야 전기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가며 여러가지 공업제품이 나올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구호입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많이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특히 매장량이 많고 전망이 좋은 안주지구탄광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지구 탄광들에서 올해에 석탄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이며 가까운 앞날에 석탄생산능력을 1,500만톤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전망성있는 광산들을 개건확장하여 철광석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기간공업부문들에서는 올해에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압연강재, 세멘트, 마그네샤크링카, 공작기계, 채굴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짐배를 생산하는데 힘을 넣어 그 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매우 넓어지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고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수산물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어로활동을 과학화하며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적극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외수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집중수송, 련대수송, 짐함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철도수송,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다그치고 철길을 보강하며 전기기관차와 화차생산을 늘여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거리자동차수송대를 널리 조직하여 소소한 짐들과 긴급히 요구되는 짐들은 자동차로 많이 실어나르며 짐배들을 늘이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하여 배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우물을 더 많이 파고 졸짱을 대대적으로 박아 어떠한 왕가물도 이겨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미리부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였다가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나라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자체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야금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당면한 과업은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정치적방법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빨리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신성한 민족적의무입니다. 올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에 따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11일

동지들!

나는 먼저 전국농업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1979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동지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농업문제를 토론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나라 농업전선에서 영용한 투쟁을 벌린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력사에 드문 왕가물을 잘 이겨냈으며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을 성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 가을부터 지난해 7월초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 농업에 리용되는 저수지가 약 1,500개 있는데 그가운데서 300개의 저수지가 완전히 말랐으며 나머지 저수지들에도 물이 30%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혹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물을 끌어다 저수지를 채우는 투쟁을 영용하게 벌리고 당이 내세운 지하수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에 드문 왕가물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하여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힘을 다하여 해안방조제와 강하천제방들을 튼튼히 쌓음으로써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을 순조롭게 막아내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이 매우 정당하며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와 제13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이 매우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우리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전체 인민들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우리 로동당시대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인민들앞에 떳떳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난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하고있으며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이 농업생산에서 해마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며 농촌테제를 훌륭히 관철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전선에서 영웅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보고에서 지난해농사에 대한 총화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또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해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명백히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벼를 정보당 겨우 2～3톤, 기껏하여 4톤밖에 내지 못하였으며 강냉이는 정보당 1.5～2톤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벼 정보당 수확고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앞섰으며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도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매우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수리화, 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도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이러한 현실은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훨씬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험주의적으로 농사를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된 오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받는 사람이나 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이 없이는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을 지도할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한걸음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하여 토양관리와 모판관리,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들을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치지 못한다면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일군들은 모두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벼포기와 강냉이포기를 다루며 비료와 농약을 치는 일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농업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발전하는 현실과 주체농법의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도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한데로부터 지난해농사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평안남도에서는 여름철에 제일 더울 때 대기온도가 34～36도까지 올라갔으며

그때 논물온도는 38～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논물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물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이 있는 일군들은 더운물을 빼고 찬물을 대주었지만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한 일군들은 더운물을 빼지 않고 그냥두었습니다. 더운물을 빼고 찬물을 갈아준데서는 정보당 벼를 7톤 700키로그람～8톤씩 냈는데 더운물을 빼지 않고 그냥둔데서는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입어 정보당 벼를 7톤 내나마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지도한데서는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도한데서보다 정보당 벼를 700키로그람～1톤씩 더 생산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하였지만 농작물에 규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 3요소비료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대로 친데서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지난날 동해안지대에서는 랭해가 심하고 일조률이 낮기때문에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날씨타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동해안지대에서 규소비료도 많이 치고 린비료도 제대로 쳐서 랭해와 일조률이 낮은것을 극복하였으며 그전에 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랭해때문에 동해안지대에서 농사를 잘 지을수 없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론조를 완전히 짓부셔버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를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려면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협동농장 농장원들과 분조장, 작업반장들로부터 농업위원회 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협동농장들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협동농장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농업과학기술 도서들과 잡지들도 많이 출판하여 보내주고 선진영농경험자료와 농업과학연구기관에서 만든 과학실험자료 같은것도 보내주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영화도 많이 만들고 환등 같은것도 널리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을 생동하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농업과학원에 전시관을 꾸려놓고 농업대회참가자들에게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실물로 보여준것처럼 도와 군,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실물교육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예비가 많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면 우리 나라 농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전체 농업전사들은 낡은 경험주의를 버리고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농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부문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은 농업부문계획화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농촌경리부문에서 계획화사업을 하여왔으나 그것이 잘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아직 계획의 세부화를 바로 실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원래 농업부문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가운데서 계획화사업을 잘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공업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대체로 짧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데는 몇시간 걸릴수도 있고 몇분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생산과정이 옹근 한해동안에 걸쳐 진행되며 그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벼농사 한가지

를 놓고보더라도 겨우내 농사차비를 하여가지고 봄에 모판을 만들고 씨를 뿌린 다음 모를 길러 논에 옮겨심어야 하며 여름에는 물을 대고 김을 매며 비료와 농약을 쳐야 하고 가을에는 벼를 베여 실어들이고 낟알을 털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모든 공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여 정확히 맞물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우기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실현되기전까지는 분산적인 개인농민경리를 대상으로 한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한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일정한 기간은 농촌의 전반적기술수준이 낮고 협동농장들의 경제적토대와 발전정도가 각이한 조건에서 농업부문의 계획을 공업부문과 같이 완전히 일원화, 세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시기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도 거의 완성되여가고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토지정리를 더 하여 기계화를 새로 하여야 할데도 있지만 지금 기계가 일할수 있는데는 다 기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를 비롯한 농약들도 농촌에서 요구하는대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은 협동농장들의 발전수준도 대체로 고르로와졌습니다. 물론 아직 협동농장들이 전인민적소유가 아니라 협동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수준이 꼭같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가지고 모든 협동농장들의 힘든 일을 해주고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영농자재들을 협동농장들에 골고루 공급하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는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계획을 완전히 일원화할수 있고 세부화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계획을 세부화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서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습니다. 벼농사를 하는데서 비료나 농약을 반드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량을 쳐야지 아무때나 되는대로 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모를 내거나 김을 매는것도 반드시 적당한 때에 하여야지 하루 늦게 하여도 안되고 하루 일찍 하여도 안됩니다.

지난해에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일군들이 계획화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농사일을 주먹치기로 한 결과 알곡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는것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데서는 포기수가 많이 늘어난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전처럼 비료를 적게 주어 벼가 제대로 자랄수 없게 하였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포기수는 적게 넣고 비료를 너무 많이 쳐서 벼가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낡은 경험주의에 매달려 농사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앞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농업부문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농업생산계획을 철저히 세부화할데 대한 과업을 농업위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위원회에서 올해계획을 세운것을 보면 아직도 세부화가 바로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 계획화사업을 바로하려면 계획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구체적인 토양분석표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토양분석표라는것은 다시말하면 땅의 리력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의 병을 바로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병력서가 있어야 하는것과 같이 협동농장들에서 계획을 바로세우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포전별 토양분석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땅은 어느 정도 산성화되였고 어느 땅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것을 포전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기록한 토양분석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어느 포전에는 무슨 비료를 얼마나 치고 어느 포전에는 어떤 미량원소를 어느 정도 보충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농기계와 생산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탈곡기라면 그 회전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달린 전동기는 몇마력짜리이고 언제 생산한것인가 하는것과 같은것을 다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장원들의 기술수준과 지식수준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하며 상세한 영농일지도 있어야 합니다. 영농일지에는 어느 골짜기에 어느날 비가 얼마나 왔으며 봄서리는 어느날 끝나고 가을서리는 어느날 시작되였으며 겨울에 눈은 얼마나 오고 땅은 얼마나 얼었다는것, 씨뿌리기는 어느날 시작하여 어느날 끝냈고 모내기는 어느날 시작하여 어느날 끝냈다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적어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계획화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여놓고 그에 기초하여 철저히 세부화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농사일을 정확히 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보장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승리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오늘의 조건에서 그전과 같이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원칙이나 제시해주고 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행정적방법으로부터 기업적방법으로 전환한 것은 농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습니다. 지난날 농업생산을 행정적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농업발전에서 적지 않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지도체계를 대담하게 개편하여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영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한 다음부터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 따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일군들이 수준이 높고 일을 잘하는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만 그렇지 못한 협동농장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업생산에서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논물관리를 잘하지 않아 벼농사에서 피해를 본것도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농산작업은 다 자기 철이 있는것만큼 농사에서 하루라도 철을 놓치면 그만큼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 강원도안의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발랭상모를 100% 한다고 하면서 물원천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든 비탈밭에 랭상모판을 만들었다가 씨붙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판을 새로 만들고 모를 다시 붓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모판면적이 많이 늘어났을 뿐아니라 벼모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모내기철을 놓쳐 알곡생산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아래실정을 모르고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였으며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대로 적당한 땅에 적당한 작물을 심고 농업생산에서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관료주의를 없애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들의 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는 조건에서 마땅히 농업부문에 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농업생산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사령체계를 세운다고 하여 기구를 더 늘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에서 아래실정을 제때에 장악하고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도록 산업전화나 놓아주면 농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기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령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이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설비관리 그리고 토지관리와 물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는것입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농업생산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조직을 잘하고 자재보장사업을 잘하며 설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며 토지보호관리사업과 물관리사업을 잘하도록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잘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사에서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경지면적은 제한되여있는데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지리용률을 높여 지금 있는 경지면적에서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야 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은 올해에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토지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알곡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지금 남새농사와 담배농사를 잘하지 못하다보니 남새밭과 담배밭 면적이 매우 많으며 토지리용률이 높지 못합니다. 남새농사와 담배농사를 잘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면 지금보다 그 생산량을 훨씬 늘이면서도 알곡생산면적을 적지 않게 얻어낼수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남새농사를 잘하여 남새를 정보당 250톤씩 내지만 다른 도들에서는 숱한 남새밭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남새를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만일 모든 도들에서 남새농사를 잘하여 남새를 정보당 200톤씩만 내면 지금보다 남새밭면적을 한 4만정보 줄이고도 전체 인민들에게 사철 남새를 넉넉히 공급할수 있습니다. 평양시에서와 같이 남새밭에 관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치며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잘하면 정보당 남새를 200톤이 아니라 300톤도 낼수 있습니다. 원그루남새밭면적을 4만정보 줄여 거기에 강냉이를 심으면 여기에서만도 강냉이를 30만톤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담배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으면 담배밭면적을 더 늘이지 않고 담배를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담배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담배밭을 잘 가꾸며 담배잎을 제때에 따면 담배를 정보당 4톤씩은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담배를 한 2만정보 심어 정보당 4톤씩 내도 8만톤의 담배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한해에 담배를 8만톤 생산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고도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할수 있습니다.

알곡생산면적을 늘이는데서 다수확작물생산면적을 늘이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 콩의 정보당 수확고가 낮은 조건에서 콩농사를 잘할 때까지 당분간은 콩을 많이 심지 말고 그대신 강냉이를 더 심어 강냉이생산량을 늘여야 합니다.

밭머리에 역삼 같은것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밭머리에 역삼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밭머리에 역삼을 심으면 소가 곡식을 먹지 않아서 좋으며 역삼껍질로는 바줄을 꼬아쓸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다락밭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새땅을 많이 얻어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내놓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새땅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는 철길주변과 강하천부지들을 다 정리하여야 합니다. 지금 철길옆과 강하천주변에 묵은 땅이 많은데 거기에 흙갈이를 하고 잘 정리하면 그것을 농경지로 쓸수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철길옆과 강하천주변을 다 정리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는 한편 거기에 인차 곡식을 심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락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 아직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알곡수확고가 낮은 비탈밭이 많은데 그것을 다 다락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락밭을 건설하는것이 간석지를 개간하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힘이 좀 들더라도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면 좋은 밭이 될수 있으며 알곡수확고를 몇배 더 높일수 있습니다. 강동군에서는 강냉이를 정보당 600～800키로그람밖에 내지 못하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강냉이를 정보당 6～7톤씩 내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식량이 넉넉하여야 민족의 자주성도 지킬수 있고 나라의 발언권도 세울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게 되면 자주성도 지킬수 없고 발언권도 가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때문에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농사를 잘 지어 계속 식량을 자급자족할뿐아니라 더 많은 식량예비를 축적함으로써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에도 농사제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어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리라고 믿습니다.

베닌인민공화국 내무안전및민족방향부 연구계획 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9년 6월 30일

물음: 주석각하, 저는 여러번 아름다운 귀국을 방문하여 당신을 만나뵙고 접견을 받는 특전을 지니였으며 당신의 친우이신 베닌인민공화국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동지의 특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베닌인민공화국 대사와 함께 아름다운 귀국에 다시 왔습니다.

주석각하, 당신께서 주의를 돌리시는 베닌과의 협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베닌인민에게 말씀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나는 당신이 마티어 께레꾸대통령특사의 일행으로 이번에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에 대한 베닌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의 표시로 되며 그것은 조선과 베닌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베닌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특히 1976년 7월에 마티어 께레꾸대통령각하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다음부터 조선과 베닌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친선적인 래왕과 접촉이 늘어나고있으며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은 서로 적극 지지하며 새 사회 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베닌인민공화국 정부와 베닌인민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견결히 지지하여주고 있습니다. 베닌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베닌정부와 베닌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침략과 전복파괴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베닌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베닌인민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는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조선과 베닌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호상존중과 참다운 우애의 정신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정치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합니다. 조선과 베닌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제3세계나라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베닌인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좋은 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물음: 최근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새로운 공장들이 창설되고 다른 분야들이 발전되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귀국의 경제를 어떻게 건설하고계십니까?

대답: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연료난, 원료난이 심하기때문에 연료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나라들은 모두 커다란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련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있으며 위기를 모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은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잘해나갈수 있는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놓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으며 우리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용감하게 투쟁하여 마침내 자체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당신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돌아보는 과정에 직접 느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제2차7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기초한것이며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야금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우리 나라의 원료와 우리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더 잘 맞게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의 투쟁과업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인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발전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순조롭게 잘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세로 계속 나간다면 제2차7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튼튼하여질것이며 우리 나라는 지금보다 한계단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입니다.

물음: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제3세계나라들에서 보급되고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주체사상이 제3세계에 있어서 세번째길의 철학으로 될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주석동지,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하고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인민들은 다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권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생독립국가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부 자본주의나라들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통제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이 오늘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지금 신생독립국가들은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이러한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입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됩니다.

정치적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정치적독립은 자립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이 있어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날 가난하고 뒤떨어진 식민지나라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 인민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사상이지마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당신이 제3세계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이 널리 보급되고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주체사상이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도 맞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이 어떤 사상을 따르며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는것

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간다면 반드시 휘황한 미래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물음: 다음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꾸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귀국은 이 회의에 반드시 참가하게 될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이 회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올해 9월에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자기의 대표단을 보낼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회의의 성과를 보장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수억만 인구와 수많은 나라들을 포괄하고있는 가장 폭넓은 국제적운동이며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있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은 국제정세발전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파괴하기 위하여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복활동과 분렬, 리간 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자기의 지배권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쟁탈전을 벌리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쁠럭불가담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쁠럭불가담운동을 보위하며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단결할 때 우리는 승리할것이며 분렬될 때 우리는 패배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충동과 꾀임수에 넘어가 서로 싸우는 어리석은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들사이의 단결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개별적나라들사이에 발생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도 단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과 새생활창조과정에 이룩한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공평한 경제질서입니다. 낡은 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빈궁을 면할수 없으

며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신흥세력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군대와 군사기지를 완전히 철거시키며 세계 여러곳에 평화지대와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침략적인 쁠럭들과 군사동맹들을 해체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토의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에 맞게 진행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지금 전세계는 조선과 조선의 통일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주석동지, 당신께서는 미국사람들이 남조선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시하신 원칙들에 근거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리라고 생각하고계십니까?

대답: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온 민족의 공통된 념원과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의 수많은 벗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렸으며 마침내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당국자들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기대와 세계인민들의 관심속에 열렸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응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채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새롭게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협상도 역시 중단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행동과 비방중상을 그만둘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에 미국군대와 합동하여 남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소동을 벌리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담장에 나와서도 전혀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측은 협상마당에 나와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북과 남사이의 협상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그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 쌍방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의 립장은 나라를 통일하려는 립장이 아니라 분렬하려는 립장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립장은 미국의 립장을 반영한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이 만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있습니다. 미국은 《두개 조선》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분렬을 위한 대화에로 이끌어가도록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기고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두개 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을 분렬에로 부추기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진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두개 조선》 정책을 버려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분렬책동에로 부추기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함께 미국군대를 완전히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남북조선인민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27일

동지들！

나는 먼저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로동행정부문에서 일하는 전체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로동행정일군들은 지난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는 로동행정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투쟁업적이 크게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1946년에 벌써 로동자들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로동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부터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가 한사람도 없을뿐아니라 일하지 않고 노는 건달군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일하며 골고루 잘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로동과 학습, 휴식을 배합하면서 문화적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일하면서 공부하고있으며 아들딸들을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에 둘도 없는《배움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무료로 료양과 휴양을 보장받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할 걱정, 세금낼 걱정, 빚물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근로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걱정과 고통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상락원을 건설할것을 념원하였는데 그 념원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 실현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가장 휘황찬란한 승리입니다.

지난날 력사적으로 뒤떨어져있었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로 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였기때문이며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받들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적극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행정일군들이 쌓아올린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당의 정책을 받들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해에 사회주의로동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1946년에 발포된 로동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로동법을 가진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기때문입니다.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단순히 로력자대렬을 보충해주고 직업이나 알선해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로동행정기관을 마치 직업소개소처럼 여기면서 모자라는 로력이나 채워주고 로동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로

동행정일군들은 로력을 조절해주고 학교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을 배치하는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업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요구이며 방침입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목적은 바로 우리 당의 이 요구와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맡은바 사업에서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이 하여야 할 중요한 정치사업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근로자들속에 끊임없이 해석침투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에 대한 해석침투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자기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국가의 법령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규정한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들이 있지만 로동행정일군들이 그것을 해석침투하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에 대한 해석침투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일할수 있으며 로동과 학습, 휴식을 옳게 배합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좋은 구호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용감히 싸웠으며 언제나 규률있고 질서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다 동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었으며 그들에게는 관료주의, 주관주의가 없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의 이러한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계승하고 따라배워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력랑비현상을 없애며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설비를 애호하고 자재를 절약하는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가 창조되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래일의 보다 넉넉한 생활이 마련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선전일군들앞에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근로자들

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당의 꾸준한 교양과 노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로동과 생활기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조선인민은 모두 부지런히 일하며 씩씩하고 희망에 넘쳐 질서정연하게 생활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세상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인민으로 되게 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교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낳은 응당한 열매이며 자랑할만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오늘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게 된 조건에서 근로자들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 일하지 않으며 로동을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싫든 좋든 일을 합니다. 남조선의 현실을 놓고보더라도 로동자들이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것이 없게 되며 가족들을 살릴수 없게 됩니다. 남조선어민들은 좋은날 궂은날을 가리지 않고 사철 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다문 몇마리라도 잡아야 그것을 팔아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먹일수 있으며 앓는 부모에게 약한첩이라도 사다 대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민들은 생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살고있습니다. 지난날 굶주리고 헐벗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먹고 입는데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있으며 지난날에는 학질을 앓아도 학질약 한알 사먹을수 없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병치료할 걱정을 모르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해주고 세금도 받지 않기때문에 로동자들이 며칠만 출근하여 일하여도 한달동안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어로공들이 얼마동안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밥을 먹을수 있고 병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아이들을 공부시킬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이 넉넉하여지고 근심걱정이 없게 되니 일부 근로자들속에서는 일을 열성껏 하지 않으며 또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헐한 일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물론 통제도 하고 일정한 제재도 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오직 꾸준한 교양을 통해서만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로동을 계속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고된 로동을 강요하며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힘든 로동이라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힘든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높은 능률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과 기본건설부문을 비롯하여 일부 인민경제부문들에는 아직도 힘든 로동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로력이 모자라는 문제도 풀수 있고 사회주의로동법도 철저히 관철할수 있습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로력랑비현상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로동규률을 세우는데서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고있는데 그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와 공구, 지구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입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직맹조직들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 꾸린 표준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올해 모내기전투때 지방공업부문에서는 25%이상의 로력을 농촌지원사업에 동원하고도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업부문에서 25%이상의 로력을 필요이상 더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의 한달생산정형을 분석하여보면 대체로 상순과 중순에는 생산을 얼마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하순에 가서 돌격전을 하여 월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데 이것도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필요이상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랑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생산을 이와 같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월말에 돌격식으로 하니 많은 로력을 랑비할뿐아니라 설비를 혹사하게 되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없게 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는것은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고 협동생산규률이 문란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력을 고착시키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겠습니다.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설비를 잘 관리할수 있으며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삭주직물공장의 로동자들은 모두 가정부인들이지만 한공장에 오래 고착되여 일하기때문에 기술기능수준이 높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로력을 자꾸 늘이려고 합니다. 당조직들과 직맹조직들 그리고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력을 고착시키지 않고 자주 이동시키며 로력을 무턱대고 늘이려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비를 잘 관리하며 자재를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원료, 자재가 많아야 로동자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고 생산을 높일수 있습니다.

설비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설비를 직접 다루는 로동자들이 설비를 사랑하고 알뜰히 거두며 설비를 표준조작법대로 움직이고 제때에 점검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보수자재를 제때에 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보수자재를 제대로 대주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면서 해주제련소에 가보니 린비료생산설비를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생산을 계속할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정무원에서 설비보수자재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설비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공장, 기업소들에 제때에 대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정확히 받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정량을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잘못된것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며 로동정량을 1～2년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로동정량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동정량이 높아지는것을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자들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높여주면 로동자들자신이 기술혁신을 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로동정량을 높이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더 높일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가 비교적 잘 실시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황해남도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 가보았는데 이 농장에서는 100정보당 3대의 뜨락또르를 가지고 한사람이 논밭을 0.8정보씩 다루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지원로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농장자체의 로력으로 농사를 지어 올해에 벼를 정보당 9.7톤씩 내게 되였습니다. 이 협동농장의 농장원 한사람당 생산액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런 모범적인 사실이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가 잘 실시되지 않고있습니다. 로동자들이 설비를 잘 관리하고 자재를 절약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을 많이 내면 그들에게 차례지는 로동보수가 그만큼 많아져야 하겠는데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로동자들이 로동정량을 높이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건설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높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바로 로동정량사업을 잘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로동정량을 높이 정하고 모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표준조작법을 잘 지키며 자재를 아껴쓰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도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로동조직을 잘하여 노는 사람이 없이 모든 로동자들이 다 능력껏 일하도록 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훨씬 높아지게 될것입니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1만 5,000원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의 임무일뿐아니라 로동행정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며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적인 생활비등급제를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개별적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정량을 높이는 경우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적용하는데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로동행정부에서 로동정량을 정확히 검토하여보고 개별적 공장, 기업소에 대해서도 종업원들의 로동보수를 올릴 필요가 있는것은 올리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지 않은것만큼 로동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동행정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 관료주의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내리먹여서는 로동행정사업이 잘될수 없습니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고 일하여야 하며 생산자대중과의 협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것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일평가사업을 잘하고있습니다. 협동농장 분조들에서는 협동농장기준규약에 따라 매일 모여 로동정량은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이라는것을 알려준 다음 누구는 어떻게 일하였기때문에 몇로력일이고 누구는 어떻게 일하였기때문에 몇로력일이라는것을 농장원별로 평가하며 그것을 로력일수첩에 기록하여주고있습니다. 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협동농장들에서처럼 매일 대중적으로 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첩에 기록하여주며 작업반별로 한주일에 한번씩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매일 로동에 대한 평가를 할때 그날 계획수행정형과 함께 로동자들이 자재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인 정형, 새 기술을 받아들인 정형도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더욱 창발성을 내여 일할수 있으며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에게 로동수첩을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로동수첩을 내주는 주요한 목적은 로동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로동수첩은 로동자가 매일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기록하는것이기때문에 사람의 력사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로동수첩을 보면 그가 력사적으로 당과 인민정권 앞에

서, 사회와 인민 앞에서 맡은 영예로운 과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들에게 로동수첩을 내주고 거기에 매일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것을 기록하면 그들이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간직하고 맡겨진 일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하여 잘 평가하여줄뿐아니라 일을 잘한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잘 대우하여야 하며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력혁신자들은 영웅이 되고 영웅은 2중영웅, 3중영웅, 4중영웅, 5중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웅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로력영웅이 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일것입니다.

지금 세계사람들은 우리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 영웅이 되면 더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두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영웅이 되고 나아가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다 영웅이 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정권기관들 그리고 로동행정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어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을 가지고있으며 이번에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나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과 전국의 로동행정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빛내여나갈것을 바랍니다.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폐강식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25일

동지들!

나는 먼저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하전사들의 만형으로서 중대의 살림살이와 중대관리를 일상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중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로고를 다 바치고있는 전체 특무장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내무규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규정들에는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가 똑똑히 밝혀져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군대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에 비추어볼 때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중대는 인민군대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대를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들이 튼튼해야 하는것처럼 인민군대가 강화되려면 인민군대의 세포조직인 중대가 강화되여야 합니다.

중대를 강화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는것이며 기본전투단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인민군대의 모든 기층조직, 기본전투단위가 강화될 때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입니다.

중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특무장의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특무장은 매일 하전사들과 생활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는 중대전투원들의 맏형입니다.

특무장은 단순히 군인들의 식사나 보장하는 경리일군이 아닙니다. 특무장은 일상적으로 중대를 관리할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며 또 중대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자이기도 합니다. 특무장은 중대장이 없을 때 중대장을 대신하여 중대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중대정치지도원이 없을 때 중대정치지도원을 대신하여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하는 정치일군입니다. 특무장들이 중대군인들의 물질생활이나 보장하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특무장은 중대군인들의 물질생활을 보장할뿐아니라 대렬관리사업도 하고 정치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특무장은 중대의 대렬관리사업, 정치사업, 경리사업을 다 책임진 사람입니다. 특무장은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매우 큰 임무를 맡고있습니다.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가 중요하기때문에 특무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하는데 따라 중대가 강화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사령관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무장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특무장들은 중대에서 일상적으로 하전사들과 같이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무장들은 언제나 하전사들의 맏형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혁명적동지애를 가지고 하전사들을 친동생을 사랑하듯이 아끼고 사랑하며 꾸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무장들은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중대관리사업과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더 잘하겠는가 하는것을 늘 연구하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이 중대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무장들이 지난날에는 주로 경리사업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문제는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제기됩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잘할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기본입니다.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혁명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에서는 명령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훈련과 행군을 하거나 휴식과 숙영을 하거나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군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부대관리도 잘할수 있고 부대앞에 맡겨진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 하나가 열을 움직이고 열이 백을 움직이고 백이 천을 움직이고

천이 만을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특무장들은 당의 방침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먼저 하사관들을 발동하고 우수한 병사들을 발동하며 나아가서 인민군대의 모든 하사관들과 병사들을 발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중대안의 하사관들과 병사들의 사상과 성격, 체질과 문화수준, 습관 같은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것을 다 정확히 알아야 매 사람에게 그에 맞는 교양방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서 병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그 병에 맞는 처방을 낼수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무장들은 하사관들과 병사들을 정확히 안 기초우에서 사상의식수준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사상교양사업을 더 강화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력을 더 단련시키며 문화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사관들과 병사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그들의 성격과 습관에 맞는 생활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특히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입니다.

특무장들은 하사관들과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잘 해설해주어 그들이 모두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모든 하사관들과 병사들이 사업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무장들이 중대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항일유격대에서는 대원들과 지휘관들사이에 간격이 없었고 유격대원들이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하였으며 모두다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결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는 고정된 병영도 일정한 지역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오늘은 동쪽으로, 래일은 북쪽으로 매일같이 이동해다니면서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때 물질적조건은 이루 말할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항일유격대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강철같은 사상의지의 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오직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하여, 근로인민의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15년동안이나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용감히 싸울수 있었습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군대입니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여전히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남아있으며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군대에서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관료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것입니다.

관료주의는 혁명군대의 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몽둥이질과 욕설, 강압

적방법은 오직 자본주의군대에서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혁명군대의 사업방법인 해설과 설복, 교양의 방법으로 부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모든 하사관들과 병사들이 군사규정에 정통하고 규정의 요구대로 움직이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이 잘한것은 찬양해주고 잘못한것은 일깨워주어 스스로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여 동지들의 잘못을 제때에 고쳐주며 모든 군인들이 동지적으로 굳게 단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특무장들은 전사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특무장은 전사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특무장들은 만형의 심정으로 전사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전사들을 잘 먹이고 잘 재워야 하며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휴식할 때에는 전사들이 문화적으로 휴식하도록 문화생활을 잘 조직해주어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또한 부대의 무기와 전투기술기재, 생활기재를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전사들이 언제나 전투준비와 훈련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잘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무장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몸을 깨끗이 거두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내무규정을 비롯한 모든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며 모든 사업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특무장들은 모든 면에서 전사들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이 이신작칙하려면 전사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하며 이렇게 하려면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특무장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전사들이 그 모범을 따라 군무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과 시위가 련이어 일어나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괴뢰군무력까지 동원하여 파쑈폭압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한주일에 두번씩 괌도에 있는 《비—52》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폭격연습을 하고있습니다. 미제침략군 폭격기들이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는 기본목적은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하게 만들려는데 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으로 보아 그들이 언제 우리에게 덤벼들지 알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식민지파쑈통치의 위기가 극도에 달하면 적들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정세가 긴장한것만큼 인민군군인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절대로 안일해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인민군군인들이 적들과 오래동안 대치하여있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해이되거나 권태증에 사로잡혀 졸게 되면 적들이 우리에게 덤벼들수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졸것을 바라고있으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이 어느때 어느곳으로 쳐들어와도 제때에 맞받아나가 싸울수 있도록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어야 하며 언제나 긴장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있는 특무장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특무장들이 오래동안 복무하다가 제대될 때에는 인민경제대학과 공산대학을 비롯한 각급 양성기관들에 보내여 공부를 시킬것이며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수준과 능력에 따라 당, 정치기관이나 국가, 경제기관들에 배치하

여 사업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당중앙이 특무장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특무장들은 자기의 전도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념려하지 말고 특무장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무장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특무장들이 당의 방침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중대관리를 잘하며 군인들의 물질생활을 잘 보장하여 중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것을 바랍니다.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인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3월 20일

존경하는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각하와 부인!

부룬디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1979년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친선적인 나라의 첫 국가수반으로서 부룬디공화국의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대통령인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각하를 맞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신임의 표시로 되는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한 형제적감정을 가지고 먼길을 떠나 우리를 찾아준 당신들의 성의에 사의를 표합니다.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손잡고나가는 친선적인 나라 지도자들이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호상 리해를 더욱 깊이하고 변화되는 정세에서 공통된 견해와 립장을 굳혀나가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부룬디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조선과 부룬디는 다같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형제적친선관계를 맺고있습니다.

부룬디인민은 존경하는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단결하여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의 로동으로 새생활창조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가고있습니다.

1976년 11월 당신에 의하여 제2공화국이 선포된후 귀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서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애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들이 실시되고있으며 당을 꾸리고 민족적통일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 교육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습니다.

부룬디공화국 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에 기초하여 린접한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부룬디인민이 나라의 재건과 새 사회 건설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제3세계나라들의 공동의 성과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부룬디인민의 투쟁은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의 한 구성부분으로 됩니다.

오늘 남부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도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으며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빈번히 감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린접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과 그들을 지원하고있는 전선국가들의 견결한 립장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대통령각하!

조선인민과 부룬디인민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한대렬에 서있는 친근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부룬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확고히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잊지 않고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또하나의 큰 고무로 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력사를 빛내이는 중요한 사변으로 됩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곳에서 분쟁문제들이 생겨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더 절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조선인민은 부룬디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들의 해방을 완전하고 종국적인것으로 되게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나는 오늘저녁 부룬디인민의 존경하는 지도자인 대통령각하를 우리의 친근한 벗으로서 맞이하게 된 커다란 기쁨을 다시한번 표시하면서

조선인민과 부룬디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부룬디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부룬디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을 위하여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각하와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3월 22일

존경하는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동지와 바가자부인!

부룬디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조선과 부룬디 두 나라를 련결시키고있는 자주와 친선의 공통된 리념을 더욱 빛내인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성과적으로 끝나가고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 친선과 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시위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위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의의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상봉과정에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우리들사이의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였으며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만족스러운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에 맞게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자주적인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대통령동지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지성원을 귀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부룬디인민이 대통령동지의 옳바른 령도밑에 1976년 11월 1일운동이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를 자신의 성과와 같이 여기면서 당신들에게 보다 빛나는 미래가 있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부룬디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대통령각하!

이번에 우리 두 나라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입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으로 조선과 부룬디사이의 친선의 길은 더욱 넓게 열려지게 되

였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당신을 친우로 사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형제적친선의 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조국에 돌아가면 새생활창조를 위한 부룬디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과 친선의 정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이 우리 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이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조선인민과 부룬디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부룬디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부룬디인민의 존경하는 지도자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대통령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바가자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부룬디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유엔사무총장 쿠르트 왈트하임각하를 위하여 마련하신 오찬회에서 하신 축배사

1979년 5월 3일

유엔사무총장각하!

손님여러분!

나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왈트하임각하를 맞이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과 당신의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에 대한 친선적인 감정으로부터 나온것이며 우리들사이의 리해를 두터이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당신은 이번에 먼길을 떠나 아세아려행을 하고있습니다.

오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아세아에서는 지금 진보와 문명에로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은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은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이 시대적추세에 역행하는 세력들이 나라들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나라들사이에 자주성을 호상 존중하고 령토완정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며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왈트하임각하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엔의 헌장과 목적을 실현하며 복잡한 국제문

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당신은 조선문제에도 주의를 돌리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리해와 동정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3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분렬된 상태에 있으며 조국통일은 의연히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공통의 념원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위업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기간 유엔에서 우리의 친선적인 벗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으며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국제적벗들의 지지성원속에서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문제해결에서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영구분렬을 막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나라에 머무른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유익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우리는 만족하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유엔사무총장각하가 자기의 책임적인 직무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면서 당신과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20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나는 오늘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오랜 우정을 잊지 않고 우리 나라를 찾아준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들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당신을 다시 만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되니 당신과 친교를 맺고 우정을 두터이하여온 지난날의 일들이 감회깊이 회상됩니다.

우리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서로 손잡고 싸우면서 깨뜨릴수 없는 친분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1965년 4월, 해빛뜨거운 쟈까르따에서 반둥회의 10돐행사때에 있은 당신과

의 뜻깊은 첫상봉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들사이의 친교는 날을 따라 깊어졌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친근한 벗으로서, 전우로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길을 개척하며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은 오늘도 빛나고있습니다.

일찌기 캄보쟈왕국 정부가 안팎의 강한 압력을 물리치고 아세아의 신생독립국가들가운데서 선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을 때 그것은 탁월한 정치가로서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용감성과 과단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여주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많은 일을 하여준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의 참다운 애국자로서 캄보쟈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당신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사랑을 지니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쁠럭불가담원칙을 견지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오늘 캄보쟈인민은 준엄한 시련과 커다란 불행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캄보쟈인민은 반드시 자주와 해방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우정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당신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어길수 없는 신성한 의무로, 본분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며 일련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협의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 하여주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쁜 시각에 당신이 우리 나라를 친형제의 집과 같이 여기고 즐겁고 유쾌하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될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캄보쟈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26일

존경하는 등영초동지!

중국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등영초동지를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등영초동지와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등영초동지는 중국인민의 존경받는 오랜 녀성혁명가이며 주은래동지와 함께 일찍부터 우리와 깊은 우정을 맺고있는 친근한 벗입니다.

이번에 당신은 위대한 중국인민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조중 두 나라는 강과 산이 잇닿아있는 린방이며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공동투쟁을 통하여 끊을수 없는 전투적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은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친선단결이며 그것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오랜 친분관계로 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국봉주석동지와 등소평부주석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중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이번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우정을 더욱 두터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로 맞이한 지금 당신이 일생을 함께 싸워온 혁명동지였으며 우리의 친근한 전우였던 주은래동지에 대하여 회상하게 됩니다.

주은래동지는 자기의 수령 모택동동지에게 끝까지 충실하였으며 중국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낡은 중국을 사회주의 새 중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중국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주은래동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원하는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심성의로 노력하였습니다.

주은래동지는 지금 비록 우리의 곁에 없지만 그가 이 땅우에 남긴 친선의 자욱은 력력히 빛나고있으며 그는 잊을수 없는 혁명전우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새겨진 주은래동지의 불멸의 공적을 돌이켜보면서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더욱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조중친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는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오늘 형제적중국인민은 화국봉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길, 프로레타리아독재, 공산당의 령도,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적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 시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정책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적이웃인 중국에서 일이 잘 되여나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력이 강화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4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있을것을 진심으로 축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형제적중국인민과 굳게 손잡고 오랜 전우로서의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켜나갈것이며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등영초동지!

당신은 지금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즐겁고 보람있는 친선의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바랍니다.

나는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영구불멸할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화국봉동지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존경하는 등영초동지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중국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등영초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5월 31일

존경하는 등영초동지！

중국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우리의 친근한 벗인 등영초동지가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에게 그처럼 감동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여기에서 다시금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당신의 이번 방문기간은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준 의의깊은 나날이였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과 상봉도 하고 여러 곳을 참관도 하였으며 또한 우리와 형제적인 분위기속에서 지난날의 감명깊은 일들에 대한 회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등영초동지를 위대한 중국인민이 보낸 친선의 사절로서 반가이 맞이하였을뿐아니라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우리의 친근한 전우였던 주은래동지를 회상하며 그를 경모하는 심정에서 친형제와 같이 뜨겁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이와 같은 심정은 오늘 있은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 제막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를 세운것은 그의 력사적공적을 길이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한것입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주은래동지가 이 땅우에 남긴 친선의 자욱을 빛내이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나는 중국 당과 정부가 당신을 우리 나라에 보냄으로써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이 더욱 활짝 피여나게 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사이에 피로써 맺어지고 시대의 온갖 풍파속에서 공고화된 조중친선이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등영초동지！

나는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무를 주고 훌륭한 성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친근한 벗인 당신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며 당신이 남기고가는 두터운 우정을 가슴깊이 간직할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조국에 돌아가면 존경하는 화국봉주석동지와 엽검영위원장동지, 등소평부주석동지와 그밖의 중국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제적중국인민이 화국봉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사회주의적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축원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몸으로 중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사이의 영구불멸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화국봉주석동지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존경하는 등영초동지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중국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10월 9일

존경하는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와 앙드레 투레부인!

기네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커다란 기쁨속에서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대통령이며 기네국가—당 총비서이며 기네혁명의 최고책임자인 아호메드 세쿠 투레각하가 인솔하는 당및국가대표단을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아호메드 세쿠 투레각하와 앙드레 투레부인 그리고 대통령각하와 함께 온 기네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동지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기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오지만 우리들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이 맺어져있습니다.

기네는 아프리카나라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선참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친선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지난날 식민지통치밑에서 시련을 겪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친선의 뉴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습니다.

기네는 아직 아프리카대륙의 대부분이 식민지로 남아있던 1950년대에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동지의 지도밑에 일찌기 독립을 선포한 나라들중의 하나입니다.

기네의 독립은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에 해방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것을 알리는 힘있는 시위로 되였습니다.

독립후 기네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들의 거듭되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기네민주당이 내놓은 혁명적로선에 따라 진정으로 독립되고 자주적인 나라, 착취없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힘차게 전진하여왔습니다.

기네인민이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기네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반제자주적인 대외정책은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과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위업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귀국에서 이룩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당신들에게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이 시대적흐름속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은 계속 장성하고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거의 100개 나라를 망라한 위대한 정치력량으로 자라났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날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동지와 우리 나라 대표단이 다같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추세를 폭넓게 반영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분렬을 막고 단결을 고수하였으며 이 운동의 고유한 특성과 원칙을 재확인한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군사쁠럭들을 해체하며 외국의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세계 여러곳에 비핵지대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구우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성스러운 위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부아프리카는 의연히 식민지적예속에서 해방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있으며 인종주의자들은 이 지역 인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할뿐아니라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이 서방제국주의자들과의 공모밑에 감행하

고있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린접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과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빼앗긴 령토를 되찾고 중근동문제의 포괄적이며 공정한 해결과 독립국가의 창건을 포함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완전한 민족적권리의 회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평화와 중립,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아세안나라들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민족적자주권과 령해권,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침략과 전쟁이 없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반드시 건설하고야말것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기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행동을 넓혀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와 기네 정부와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우리 수도시민들은 오늘 기네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온 당신들을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앙드레 투레녀사는 이미 1965년에 대통령각하의 특별한 분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와 친선적인 상봉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동지가 부인과 함께 우리 나라에 온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기네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기네인민혁명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동지와 앙드레 투레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기네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동지를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9년 11월 1일

존경하는 루이스 까브랄위원장동지!

기네—비싸우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온 견결한 반제투사이며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루이스 까브랄위원장동지를 비롯한 기네—비싸우의 손님들과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루이스 까브랄동지와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풍년의 기쁨이 차넘치는 우리 나라 가을을 더욱 흥성거리게 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줍니다.

조선인민과 기네—비싸우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기네—비싸우혁명의 선구자인 용감한 아밀까르 까브랄동지는 일찌기 항전시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초석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기네—비싸우인민은 간고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긍지높은 인민이며 우리 인민에 대하여 매우 친선적인 감정을 품고있는 견실한 벗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기네—비싸우인민의 용감한 투쟁은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다그치는 성스러운 위업의 한 부분이였으며 기네—비싸우의 독립은 자주성을 위한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독립후 기네—비싸우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루이스 까브랄동지의 령도밑에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면한 기네—비싸우인민이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최근년간 계속된 자연재해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동요없이 반제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새생활창조와 민족적번영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는것은 반제자주의 공동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기네—비싸우 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일관하게 반대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루이스 까브랄위원장동지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과 기네—비싸우는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이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은 자주성에 기초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의 중요한 고리로 됩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분렬, 리간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동지!

당신들이 이번에 기네—비싸우인민의 친선의 사절로서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자주성을 옹호하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기네—비싸우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기네—비싸우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루이스 까브랄위원장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기네—비싸우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축 하 전 문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수산부문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방대한 지난해 수산물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특히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12월에는 하루평균 1만 5,000톤, 최고 2만 5,000톤이상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불리한 바다날씨와 어황조건을 이겨내면서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수산물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수산부문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과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새해 첫날부터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두번째해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9년 1월 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 덕 수 의 장 동 지 앞

나는 희망찬 새해 1979년을 맞이하여 한덕수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1978년은 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민족적긍지를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은 《유신》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으며 원쑤들의 온갖 반동공세를 물리치고 주권국가해외공민단체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일군들과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총련조직을 생활력있고 강력한 애국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였습니다.

지난해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신성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운동을 활발히 벌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간부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새해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1979년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며 핵심진지를 믿음직하게 꾸리고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있는 새로운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부단히 개선하여 민족허무주의와 사대풍조를 배격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지키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동포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새해에 총련이 자기앞에 나선 성스러운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가리라고 믿으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간부들의 건강과 전체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9년 1월 1일

평 양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 앞

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조직앞에 더욱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재일동포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와 조국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서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가 열리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총련 제13차분회열성자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분회열성자 여러분들은 총련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적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고상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의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조국과 동포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싸워온 여러분들의 높은 충성심과 애국적열성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분회열성자여러분들이 총련조직의 믿음직한 고임돌이 되여 자기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과 숨은 공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있지만 대세의 흐름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총련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분회들이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져야 총련이 강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동포들속에서 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분회일군들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과의 사업,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총련앞에 제기된 모든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사람과의 사업,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분회일군들은 언제나 동포들속에 들어가 각계각층 동포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주체사상을 열렬히 옹호하고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분회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동포대중을 깨우침으로써 그들이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분회일군들은 또한 군중의 친근한 동지로서 동포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며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동포들의 애로와 요구를 성실하게 해결해주는 동포들의 진정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나는 직접 동포군중속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동포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끝으로 대회가 분회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는 중요한 리정표로 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9년 5월 29일

평 양

회 답 편 지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나는 동무들이 고등중학교를 나온 다음 집단적으로 협동농장에 진출하여 첫해농사를 잘 짓고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매우 감동되였습니다.

고향땅 은하리에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열렬한 희망과 크나큰 포부를 안고 자진하여 협동농장에 진출한 동무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지난날 한톤도 못내던 자갈밭과 모래밭에서 정보당 강냉이를 7톤 200키로그람을 생산하는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첫해농사의 귀중한 열매인 자기들의 분배몫을 나라에 바칠것을 결의해나섰습니다.

동무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몸바쳐나선 젊은 세대들의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투지를 훌륭히 과시하였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로동당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훌륭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무들과 같이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인 새세대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전도를 위하여 매우 기쁜일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사상, 기술, 문

화의 3대혁명기치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유서깊은 은하리를 더욱 살기좋고 문명한 공산주의농촌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사회주의농촌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전초병답게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어김없이 관철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알곡생산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선진 농업과학과 영농기술을 적극 습득하고 보급하여 모두가 유능한 농업 전문가, 기술자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업전선을 지켜선 새세대의 농업전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9년 1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새 돈을 발행할데 대하여

나라의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화폐류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확대재생산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59년에 화폐교환이 있은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의 화폐제도는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의하여 그 공고성과 자주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였으며 인민소비품의 값이 계통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주민들의 화폐수입과 상품류통, 인민봉사의 규모가 날로 장성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원》의 구매력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고 화폐류통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상예술적내용이 풍부하며 인쇄기술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새로운 주체화폐를 발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의 자주적인 화폐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폐류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1979년 4월 7일부터 새로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짜리 돈 (이 아래부터는 새 돈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류통시킬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1959년에 발행하여 지금까지 써오던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짜리 돈(이 아래부터는 낡은 돈이라고 한다)을 1979년 4월 7일부터 1979년 4월 12일까지 금액에 제한없이 새 돈과 바꾸어줄것이며 바꾸는 비례는 낡은 돈 1원에 대하여 새 돈 1원으로 할것이다.

3. 1979년 4월 7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지역에서 새 돈을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하며 낡은 돈은 효력을 없앤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료품값과 사회급양망 및 려관의 식사비, 숙박료, 여러가지 관람료, 운임, 체신 료금지불에서만 1979년 4월 8일까지 낡은 돈의 류통을 허용하며 지금까지 써오던 10전, 5전, 1전짜리 돈은 앞으로도 계속 류통시킬것이다.

4.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5. 정무원은 이 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9년 4월 6일

평 양 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박사 칭호를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백설희연구사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1979.10.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박영철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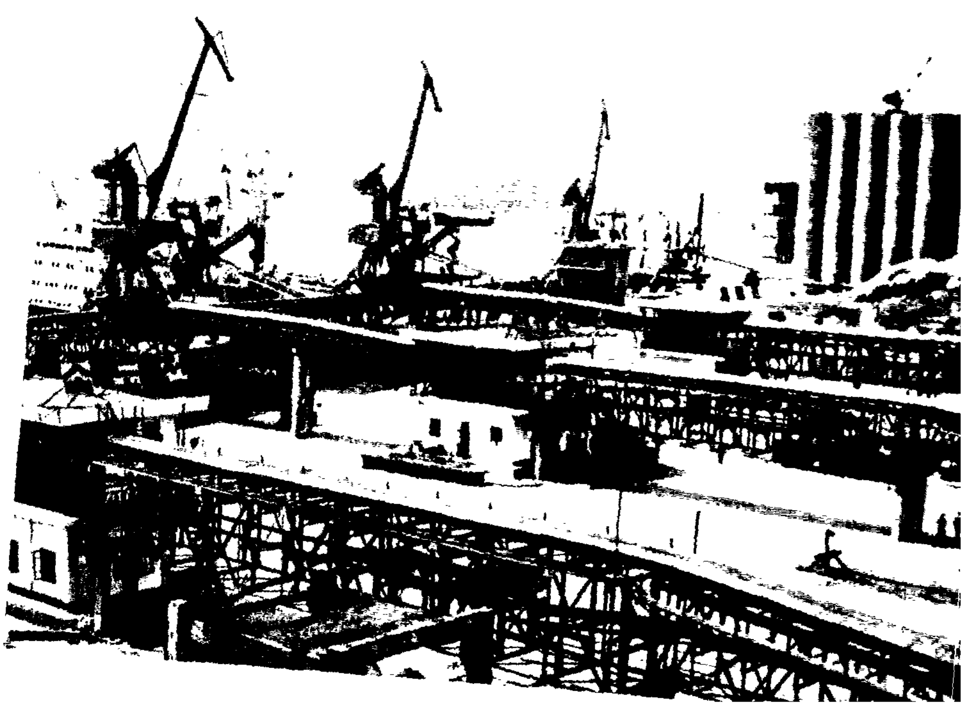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산하 농장지배인
김상련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신문을 독보하며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는 로동자, 기술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항의 벨트콘베아수송선종합지령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항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남포시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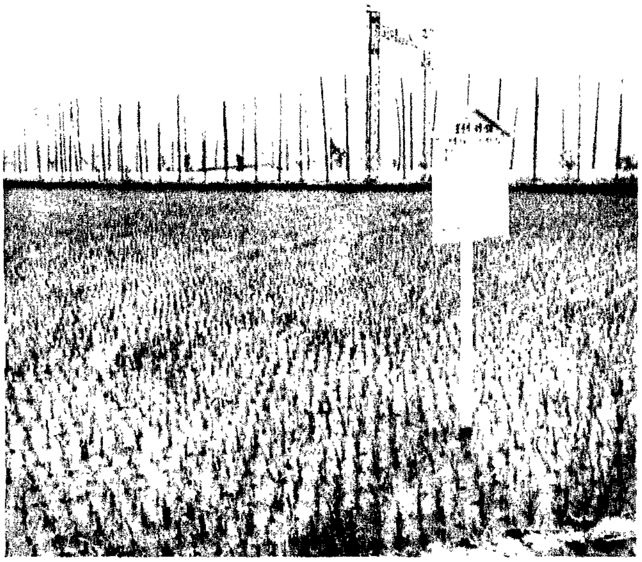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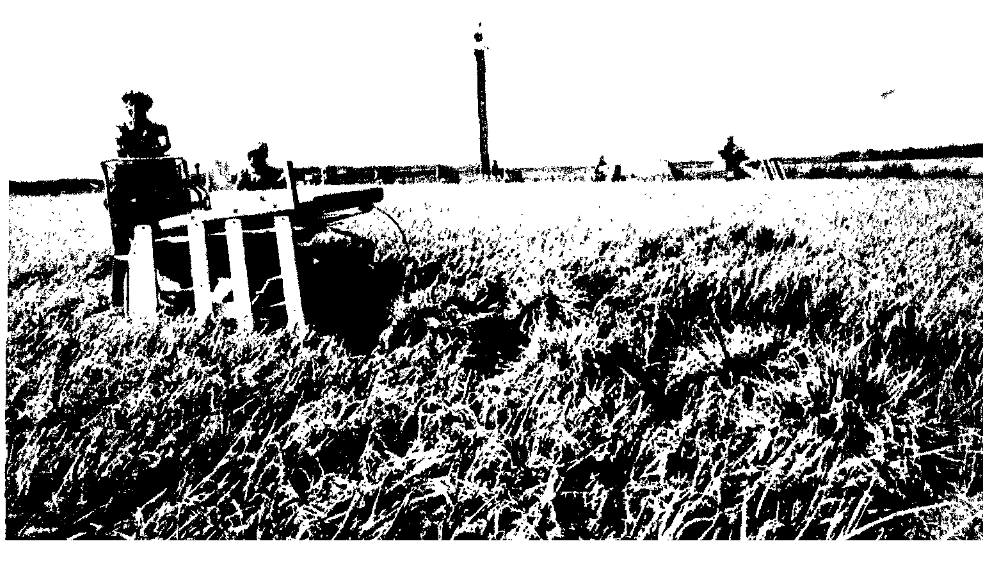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따사로운 해발아래 만풍년을 이룩한
우리의 사회주의 협동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단군 화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외서협동농장의
풍작이룬 강냉이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 혜산분원
백무고원시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룡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김순화작업반장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79. 8.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룡진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봉산군
청계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담배농사를 잘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외서협동농장의
길가에 심은 줄당콩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등영초동지는 함흥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등영초동지에게
녀대학생들이 꽃묶음을 드리였다.



등영초동지는 함경남도에 남기는 선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여드리였다.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 제막식장 전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 바프띠스뜨바가자대통령각하와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루이스 까브랄위원장각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루이스 까브랄각하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진행된 주요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 책임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일군들과 지배인들이 전원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3대수송방침을 관철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 집행정형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인 정무원 부총리 겸 철도부장이 보고하였으며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과 부장들, 도당책임비서들과 교통운수부문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비서들과 지배인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3대수송방침을 관철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수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우리 당의 수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가 있은후 2년동안에 많은 집중화물장들이 건설되고 전기기관차와 중량짐차, 짐을 싣고 부리는 기계설비들과 여러가지 짐함들이 많이 생산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한것보다 더 긴 구간의 철길이 전기화됨으로써 당의 집중수송, 짐함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여러가지 자동차대수와 짐배척수가 늘어났으며 고속도도로들이 새로 건설되고 무역항들이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됨으로써 당의 련대수송방침을 더 잘 관철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수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이미 마련된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적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 집행정형을 총화하시고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교통운수사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워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따라세우는것은 생산과 수송간의 균형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급속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송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도에서 혁명적인 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영에서 강한 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수송에서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철도를 질서있게 운영하여 긴장한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없애고 모든 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 서서 일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의 모든 부문들에서 규률규정과 운행규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정들을 새로 만들며 모든 철도일군들이 규정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일군들이 규정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철도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오직 규률규정과 다님표의 요구대로만 움직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수송조직에서 당면하여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당의 집중수송, 짐함수송, 련대수송의 3대수송방침과 관수송, 삭도수송, 콘베아수송의 3화수송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강조하고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

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역수송과 반복수송을 없애는것은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역수송과 반복수송을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서는 수송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수송수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수송세부계획을 잘 세우고 각 도 지구계획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수송행정의 모든 고리들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중수송렬차수를 늘여 집중수송의 비중을 끊임없이 높이며 집중수송렬차의 운행을 개선하여 그 회귀일수를 훨씬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집중수송의 요구에 맞게 짐차의 운영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중수송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단한 렬차를 편성하여 조금씩 실어가도 될것을 집중수송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큰 공장, 기업소들에 한번에 많이 실어갈것만 집중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함수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집함을 빨리 돌려보내게 하는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곳에서 창고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수송의 관화, 삭도화, 콘베아화는 힘들이지 않고 실현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3화수송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무산—청진사이에서 정광을 관으로 수송하여 연유를 쓰지 않으면서 수송의 긴장성을 푼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사업을 개선하고 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길보강사업을 잘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며 철도지선들을 전기화하며 역구내선들을 확장하며 전용선들을 정비하고 기관차와 화차들의 보수를 제때에 하며 조차장들의 현대화, 자동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빈 물동수송을 없애며 철도수송에서 사령지휘체계의 무선화, 텔레비죤화를 다그쳐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송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이자 수송이고 수송이자 곧 생산이며 수송은 생산의 련속과정이라는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수송문제는 단순히 철도운수부문일군들에게만 맡겨진 사업이 아니라 전당, 전국, 전민의 공동의 사업인것만큼 모든 생산자들은 자기부문, 자기 단위에 맡겨진 생산과제와 함께 수송문제부터 먼저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옳은 립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동원되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당, 전국, 전민이 철도의 긴장성을 풀고 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대하고 영예로운 사업에 총동원될것을 호소하였다.

전원회의는 정무원 위원회, 부들과 각급 당조직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요구하는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 한편 구내선을 확장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창고를 건설하고 집함을 만드는 등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특히 철도운수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 당조직들에서는 행정대행과 관료주의적인 낡은 사업방법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동맥인 철도를 지켜선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자기의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 당조직들이 철도의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사업하며 자기 단위에 맡겨진 수송계획을 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완수할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과 총화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기관사, 사령원, 역장을 비롯한 모든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유능한 철도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 각급 학교들에서 교육내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며 교원들의 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교통운수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전망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륙지방에 동서를 련결하는 새 철길을 놓고 철길의 전기화를 완성하며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에 더 많이 건설하여 원료와 연료 수송을 줄일데 대하여서와 조선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해상운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륜전기재 생산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당의 3대수송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전용선리용에서 훌륭한 경험을 창조한 강선제강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 감사를 보내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그리고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행정, 경제기관 책임일군들, 공장, 기업소 당비서들과 지배인들이 또한 전원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을 토의하였다.

1. 1980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2.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으며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3.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소집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인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전력공업부장이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의정 첫째문제와 둘째문제에 대하여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과 부장들, 도당책임비서들, 공장, 기업소 당비서들과 지배인 등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를 토의하면서 1980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며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1980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첫째로,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둘째로, 대외무역을 강화하며

셋째로,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넷째로, 협동생산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채취공업, 대외무역, 수송, 협동생산 문제를 옳바로 푸는것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며 이 네가지 문제를 바로 풀어야 이미 있는 공장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석탄공업은 전당이 계속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주되는 공격전선이라고 하면서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대규모탄광들을 개건확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중소규모탄광들을 적극 개발하여 다음해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순천지구 탄광들과 안주지구 탄광들에 국가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설비를 대주며 북부지구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유색광물을 많이 생산하여야 기계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철도전기화를 완성할수 있다고 하면서 유색광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광산들을 개건확장하며 새 광산개발을 다그쳐 여러가지 유색광물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취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며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탄광, 광산들에서 갱건설력량을 강화하고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확보 탄량파 광량을 계속 늘이는 동시에 큰 탄광들의 갱도콩크리트화, 갱도영구화를 적극 다그치며 여러가지 콩크리트동발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탄광, 광산들에서 비바람피해막이와 겨울나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계절에 관계없이 석탄파 광물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석탄파 광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현대적인 채취설비들을 많이 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질탐사부문에서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의 앞장을 열어놓기 위한 현행탐사에 힘을 넣으면서 석탄, 유색광물에 대한 전망탐사를 강화하며 탐사사업의 과학성파 탐사효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고 하고있는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면서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시작하며 군중적운동으로 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가지 규격강재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고 흑색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다그쳐 철강재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더 많은 유색금속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지금있는 기계공장들을 더욱 완비하며 기계설비생산에서 대형화, 고속도화, 정밀화 방향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며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할데 대하여서와 종이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내화물파 일반건재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조림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해서와 기본건설부문에서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설정하고 중요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앞당기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데 대해서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대외무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기관들의 역할파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교통운수의 발전에 힘을 넣어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운수수단의 현대화, 중량화와 렬차운행의 고속도화를 적극 다그치고 철도전기화를 계속 내밀며 《5.18무사고정시견인초파운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운수를 발전시켜 화물수송량을 더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파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켜 배에 의한 화물수송량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조선소들을 정비보강하여 더많은 대형짐배를 생산하며 모든 무역항들을 적극 현대화하여 무역항통파량을 훨씬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파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농촌경리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알곡을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영농작업을 파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제철에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새땅을 개간하고 간석지와 갈밭을 농경지로 전환하며 다락밭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새땅을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담배와 누에고치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살림집파 학교를 더 많이 건설하고 문화시설들을 알뜰히 꾸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농촌경리를 화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설비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잘하여 1979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전체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문제를 토의하면서 수력자원을 개발하고 물을 옳게 다스리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파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수력발전소건설에서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파 창발성을 내며 간고분투하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제힘으로 이겨내면서 경제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일군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고 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하고 자재공급체계를 바로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자재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모든 자재가 공장기업소들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철저히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3대기술혁명은 당의 로선이라고 하면서 기술혁명수행에서 선풍을 일으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제지도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셋째문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소집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각급 당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의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것으로 맞이할것을 호소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 결정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강화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본 전원회의는 위대한 력사적전환이 이룩되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1980년 10월에 소집한다.

2.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선거

3.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파견할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원 1,000명에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000명에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1979년 12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가 있었다.

련합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쁠럭불가담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이 운동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련합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혁명발전에서 수행해온 커다란 역할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쁠럭불가담운동은 일관하게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

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으며 인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해방투쟁을 촉진시키고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의 전횡을 막으며 국제문제들을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련합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며 분쟁과 충돌을 야기시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 운동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며 말살하려 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사이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분쟁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일부경우에 분쟁문제들은 무장충돌로 번져지고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분쟁과 충돌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치렬한 쟁탈전을 벌리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지금 일련의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이 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은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수호하며 쁠럭불가담정책과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이 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어기고 저마끔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외세를 끌어들이고 이 운동을 그 어떤 쁠럭에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

특히 쁠럭불가담운동이 쁠럭밖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수정하려고 할때 끊임없이 복잡한 사태를 야기시킬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결코 어느 한 쁠럭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 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렬강들의 쁠럭에 끌려들어가지 않는것을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련합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은 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라고 하면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것은 운동성원국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과 관련하여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시기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발생하고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저애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사회제도, 신앙과 신념에서 차이가 있고 정치적견해도 다르며 그의 발전정도와 리해관계도 각이한 조건에서 그들사이에 의견상이들이 있을수 있으며 분쟁문제들이 생길수 있다.

그러나 이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아무리 심각하다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며 무력을 행사하거나 더우기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하수인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배세력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나라가 없어지면 남을 지배하려는 나라들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둘째로,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특성을 고수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운동안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 운동을 어느한 쁠럭에로 이끌어가려는 시도도 배격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을 진보적나라이니 비진보적나라이니 하면서 이편 저편으로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결국 운동안에서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진보성의 표징을 놓고 편을 가르며 이러저러한 리유를 걸고 성원국들을 서로 떼버릴내기를 한다면 운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셋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충동과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싸우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개별적성원국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당사자들이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성원국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의 해결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립장에 서야 하며 그것을 조장하는데 부채질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분쟁문제에서 어느 한편에 가담한다면 분쟁을 더욱 확대하고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은 분쟁문제를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회담의 방법으로 미리 해결하거나 하다못해 일정하게 완화라도 시킴으로써 아바나수뇌자회의를 끝없는 론쟁의 마당이 아니라 통일과 단결의 마당으로 되게 하도록 힘써야 할것이다.

넷째로,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특권행세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운동안에서 특권행세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국가 조정위원회구성에서 지역비례원칙과 륜번제원칙이 존중되여야 하며 그의 활동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한다.

군사쁠럭들과 군사동맹들에 언급하여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의 전쟁정책이 계속되고 렬강들의 군사쁠럭과 군사동맹들이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지구의 여러대륙에 식민지가 남아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렬강들의 군사쁠럭의 존재는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군사쁠럭의 존재는 세계적규모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매개 나라에서의 평화적건설에 지장을 주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은 결코 군사쁠럭이나 이른바 렬강들의 《세력균형》에 의하여 담보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모든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쁠럭불가담운동은 모든 군사 쁠럭의 해체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지난시기 지역적군사동맹체에 참가하여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나라들은 세계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여기에서 떨어져나와 모든 쁠럭을 해체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에 합류하여야 한다.

둘째로,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와 외국군대는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들은 제거되여야 하며 외국군대들은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군사기지와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힘있는 지지를 주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야 한다.

비핵지대들에서는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 및 그 사용이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로 장비된 비행기, 함선의 령공, 령해 통과와 공항과 항구의 사용이 금지되여야 한다.

또한 평화지대들에는 어떠한 외국군대와 외국의 전쟁수단들, 외국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의 배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독립, 자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독립, 자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의 공동의 의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싸워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정치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주어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국들의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여야 한다.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79년 5월 마닐라에서 진행된 제5차 유엔무역개발회의 전과정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순순히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련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둘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개별적 및 집단적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리용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경제협조를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문별협조기구들의 사업

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경제기술협조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보게 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경제기술교류쎈터같은것을 내오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쎈터는 부문별 경제협조 조절국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이 기구들의 사업을 정상화하며 경제협조행동강령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이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단결과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는 력사적인 회의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련합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는 의안 《197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1978년 국가예산이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전투의 승리를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였다고 지적하고 1979년 국가예산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해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있게 보장할수 있도록 편성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를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97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197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하였다.

토론들에서는 1978년 국가예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방침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였으며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들에서는 1978년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과 재정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들에서는 1979년 국가예산이 이해의 사회주의 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워졌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지지찬동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이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맡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토론들에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기업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서 자재와 로력, 자금을 극력 아껴쓰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1979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이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등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국가축적을 끊임없이 늘일데 대하여서와 지방예산제를 더 잘 실시하며 재정규률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로동행정규률을 강화하고 기능공들을 한 직종에 오래 고착시키는것이 현시기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을 쓸데없이 류동시키지 말고 로동자들 특히 기능공들을 한 기대에 오래 고착시키며 그들이 대를 이어가며 한 직종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설비관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힘과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모든 경제기관들과 로동행정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행정규률을 강화하고 로력후비를 잘 키우며 로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기능공들을 고착시켜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훌륭한 모범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전국농업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대회가 1월 11일과 12일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과 리당비서들,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국영농업기업소와 농업을 지원하고있는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 도, 시, 군급기관책임일군들과 중앙기관일군들 1만 3천여명이 참가하였다.

11일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농업발전의 현실태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앞당기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1978년 영농사업총화와 올해과업에 대하여》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였다.

보고는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는데 대하여서와 수령님께서 농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보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년에 함경북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도들과 서해안 각 도의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촌사업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막대한 국가투자를 농촌경리부문에 돌려주시고 농사일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년초에 분조장이상 농장관리일군들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을 위한 전국적인 주체농법대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농촌에서 주체농법학습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주심으로써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년 3월초에 함경북도내의 당 및 농업부문 책임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랭해가 심한 함경북도에서 벼모판씨뿌리기와 모내기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강냉이농사에서는 서리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밝혀주시고 뒤이어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들에서 벼모판씨뿌리기를 일찍 끝내며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끼고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는 시기를 새롭게 정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취하여주신 이 혁명적조치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더욱 심해지는 조건에서 벼모를 튼튼히 길러내고 벼농사와 강냉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영농방침이라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1978년에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벼랭상모판 씨뿌리기를 그 전해보다 훨씬 앞당겨끝내고 벼모를 튼튼히 키워 모내기를 지난 시기보다 앞당겨 짧은 시일안에 해제낀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은 1978년에 우리 농촌에서 일어난 벼모기르기와 모내기에서의 또하나의 일대전환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1979년 농업부문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보고는 농업전선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며 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우리 혁명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이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88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이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 과일과 누에고치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이해를 주체농법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의 해로, 만풍년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가물피해와 큰물피해를 막을데 대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및 품종배치를 더욱 개선하고 토지리용률을 높일데 대하여, 농촌경리의 화학화,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심화시키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강화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면한 경제과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동관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함경남도 오로군 전동협동농장 기사장,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 평안북도 정주군 침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안남도 증산군 청산협동농장 기사장, 평안북도 창성군 금야협동농장 관리위원장, 7호농장 농산지도원,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리초급당비서, 평양시 사동구역 동창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 함경북도 웅기군 종합농장 부포분장장, 량강도 포태종합농장 제2작업반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함경남도 덕성군 니망지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안남도 개천군 봉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함경북도 회령군 성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자강도 전천군 중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안북도 의주군 룡운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강원도 고성군 순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해남도 은률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대안시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양시 삼석구역 도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평안북도 벽동군 남중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참가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랭전선의 영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하게 미친 조건에서도 높은 농업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자기농장과 지방들의 구체적실례를 가지고 뜨겁게 이야기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주체농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강조되였다.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태와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업을 새로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연설을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대회에는 중앙 및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로동행정일군들, 도, 시, 군급 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 초급당비서들, 중앙기관 일군들 5,8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로동행정부장이 보고하였다.

대회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 지배인, 11월 8일광산 기사장, 평양종합방직공장 초급당비서,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 검덕광산지배인, 신천담배공장 만답배직장장, 청진화학섬유공장 지배인, 대안전기공장 초급당비서, 개성시 당교식료종합상점 지배인, 평양화력발전소 로동행정과장, 정주군 침향협동농장 초급당비서, 혜산시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해남도지질조사측량대 로동지도원, 신의주화장품공장 로동정량원, 신포수산사업소 로동행정과장, 황해북도행정위원회 로동행정처장, 청진철도국 길주철길대 초급당비서, 5월 18일공장 청년가공직장 부직장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은률광산 로동행정과 지도원,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태향탄광 청년갱 굴진공, 주을휴양소 소장, 성진제강소 행정부지배인, 제31화학공장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평양시 동대원피복공장 지배인, 무산광산 채광자동차사업소 소대장, 량림림산사업소 로동행정과장, 서흥군식료생산협동조합 생산지도원, 문평제련소 지배인, 4월 3일공장 행정부지배인, 강선제강련합기업소 분괴압연직장장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밝혀주시며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폐강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폐강식이 10월 25일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폐강식에서 항일유격대식 부대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하전사들의 맏형으로서 중대의 모든 살림살이와 중대관리를 일상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로고를 바치고있는 전체 특무장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대회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인민군대내 사로청전임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군대내의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전군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사로청일군들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전군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한 조선인민군대내 사로청일군들과 인민군대내 전체 사로청원들을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당정책집행에서 가장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강유력한 혁명적조직으로서 당의 군사로선을 집행하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인민군대내의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성원들과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그리고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많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남포항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1월 21일 남포시와 남포항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항이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웅장하게 건설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항구내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행부선이 짐을 싣고 큰 짐배를 세운데까지 가는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중기의 능력과 자행부선의 속도와 능력, 큰 짐배까지의 왕복 거리와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풍년》호뜨락또르기관을 개조하여 자행부선의 기관으로 쓸데 대하여서와 파도가 쳐도 바다물이 들어오지 않게 자행부선의 량쪽벽을 더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부두에서 짐을 빨리 실어주고 큰 짐배를 들어올수 있는데까지 부두가까이에 들여다대게 하여 자행부선의 왕복회수를 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부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건설을 빨리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무역사업을 강화하며 남포항을 잘 운영할데 대하여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외무역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남포항 건설과 항운영사업을 잘하며 철도수송을 따라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생산된 수출품들을 제때에 내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남포항, 해주항, 송림항을 잘 꾸리고 그것을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남포항을 잘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포항에 새로 건설하는 부두들을 말끔하게 잘 꾸리고 수송수단들을 많이 보장하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제품운반을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하여 남포항에서는 구내운반작업을 잘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된 추레라와 자행부선 생산을 1.4분기안으로 끝내여 남포항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구내에서 물동량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짐차들의 륜환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차들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게 길을 잘 째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행부선에 짐을 싣고부리는데 필요한 기중기는 지내 크게 하지말고 레루를 놓고 쓰는 소형기중기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 기중기를 빨리 생산보장하여 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에 산업텔레비죤화를 실현하며 창고도 더 짓고 벨트콘베아수송과 관수송도 더 조직하여 항설비들을 적극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을 현대화하자면 일군들의 관점과 사업방법을 고쳐야 하며 항을 적극 현대화할데 대한 안을 가지고 설계를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대외무역이 장성하고있는데 맞게 항능력을 더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있는 항에 창고를 더 지어 짐보관능력을 높이고 항안에서의 짐운반작업과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항통과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운영문제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항운영학과 항운영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항일군들이 항운영에 대한 선진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항과 창고와의 관계문제를 바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고는 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며 철길을 끌어

오기 좋고 시내를 횡단하지 않는곳에 크게 지어야 하며 배에 실을 짐과 배에서 부리는 짐을 다 창고에 보관하게 하여 항안에 짐을 쌓아두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안에 짐을 쌓아놓고 물건을 취급하면 항안이 복잡하고 항운영이 힘들게 된다고 하시면서 짐을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짐배가 들어오면 창고에서부터 벨트콘베아나 관, 추레라로 부두까지 제꺽 운반하여 싣도록 함으로써 부두를 창고삼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항내 길을 내고 포장할데 대하여서도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일, 배를 떠나보내고 받는 일을 지휘하는데서 통신을 무전화하고 지령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을 항에 제때에 실어오고 배에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하여서는 짐함수송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무역이 강화되고 짐배가 늘어나는 실정에서 도크건설을 빨리 다그쳐끝냄으로써 짐배들의 수리를 제때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는 항구문화도시일뿐아니라 평양의 관문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남포시를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에는 항만로동자들과 선원들이 많이 살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보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잘 지어주며 그들이 충분한 문화휴식생활을 할수 있게 극장, 영화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을 더 많이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내의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꾸리며 고기, 알, 물고기,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보다 풍족하게 공급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면 당 및 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남흥애국곡산공장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월 20일 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남흥애국곡산공장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뇨소비료공장, 폴리에틸렌공장, 아닐론공장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면서 건설을 빨리 다그쳐끝내며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뇨소비료공장의 비료생산정형과 설비상태를 알아보시면서 생산을 더욱 늘이고 언제나 새 공장 맛이 나게 공장을 깨끗이 거두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고 설비 관리와 운전을 잘하여야 하며 설비들과 시설물들에 대한 도색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되는 비료를 제때에 실어보내는데서 포장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포장제를 충분히 공급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폴리에틸렌공장을 찾으시고 압축기실과 반응기, 나프샤열분해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복잡한 공정들을 우리식으로 빨리 건설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능력을 더욱 늘이는동시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설비, 기대들에 대한 점검보수기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닐론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생산에 들어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웅장하게 일떠선 여러 공장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라에 또하나의 큰 화학공업지구가 새로 생겨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공장들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흥애국곡산공

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의 건설정형과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들에게 기름을 비롯한 식료품을 더욱 풍족히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공장건설을 다그쳐끝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기름의 실수률을 더욱 높이자면 조직사업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잘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술일군들을 보내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술적지도를 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화학공업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화학공업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산하 화학공장들의 건설정형을 전면적으로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지금 하고있는 건설을 이해안으로 완전히 끝내고 제품생산을 빨리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소비료공장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나프샤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부속품들을 제때에 대주어 노소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하고 폴리에틸렌공장과 아닐론공장의 시운전을 빨리 하여 제품생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성소다생산을 급속히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하는 조건에서 더 많은 가성소다가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성소다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그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기업소에 원료, 자재를 더 많이 대주어 설비에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더욱 급속히 늘어나는 가성소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서해안에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해에 준비를 잘했다가 1980년부터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가성소다생산기지를 건설할 지구에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들을 건설하여 또하나의 대화학공업기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대안시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월 14일 남포시와 대안시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항 사업, 남포시의 도시건설사업과 상업류통부문사업, 대안중기계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남포항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확장된 부두들을 돌아보시면서 항을 훌륭하게 잘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멘트싸이로건설장을 보시면서 여기에 싸이로를 건설하면 벨트콘베아와 관 수송은 물론 다른 짐수송에 지장을 주지 않을뿐아니라 부두까지의 운반거리도 가깝고 운반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하시면서 세멘트싸이로들을 빨리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량의 화물은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반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중으로는 벨트콘베아를 놓아 짐을 나르고 그 밑으로는 관을 늘여 관수송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벨트콘베아와 수송관 건설을 빨리 해야 더 많은 짐을 나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해안으로 이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밀싸이로를 질적으로 잘 지으며 제분공장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하여 남포시와 주변시들에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첩선 《건설》호를 보시면서 이 준첩선은 남포항의 준첩을 위해 보내준것만큼 조선소에서 수리정비를 잘해주어 남포항의 준첩을 계속하게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구포천갑문다리를 돌아보시면서 아주 잘 건설하였다고 건설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구포천일대를 보통강유원지처럼 아름답게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배에서 륙지로 오르기 편리하게 다리를 잘 놓아주며 항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산등성이에 항종합지령실을 새로 짓고 거기에서 항운영을 지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1호부두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대상선기의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지대상선기의 팔을 경사지게 하여 짐을 실을 때 지대가 파손되지 않게 하며 배를 멀리에 대고도 싣고 가까이 대고도 실을수 있도록 상선기의 팔을 신축성있게 하라고 교시하시였으며 짐하차기도 보다 합리적인것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을 계속 잘 꾸리는것과 함께 배수송을 더욱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삼화천다리에서 새로 형성되는 와우도지구 살림집건설장을 바라보시면서 남포시에 집도 많이 건설되고 도시도 더욱 깨끗이 꾸려져 새 도시, 새 남포로 전변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남포시 건설에 대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에 록지를 더 잘 형성하고 아동공원들을 건설하며 주택건설은 범산기슭을 비롯한 와우도지구에 집중하여 거리를 령남리와 련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으며 지반도 튼튼한 이곳에 높은 층수의 살림집을 여러 모양으로 짓고 승강기와 상하수도를 잘 놓아주어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와우도지구형성도를 보아주시면서 이 지구에 해상동물원과 현대화된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을 더 건설하여 남포시가 항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양어장을 보시면서 알깨우기장을 만들어 새끼고기를 많이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그것들을 해결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와우도지구에 건설되는 살림집들을 남포시내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에게 주며 로동자들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더 많이 생산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 남산상점 식료품매대와 공업품매대를 돌아보시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지방특산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며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포장을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의 도시관리와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중기계공장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종합가공직장에 들리시여 기계설비들의 조립정형을 알아보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중기계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이 공장 건설을 더 빨리 추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돌아보시고 협의회를 소집하시였으며 도내의 각 부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제1작업반의 논벼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내여 좋은 작황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소출이 높은 좋은 종자를 골라 모를 붓고 제철에 모내기를 하여 봄파 이른여름의 날씨가 찬 동해안의 특성에 맞게 물온도를

높여주어 훌륭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업반 강냉이밭에서 강냉이발육정형과 비료시비량을 료해하시고 강냉이를 빨리 키워 좋은 결실을 맺게 하자면 가꾸기를 잘하는 동시에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에서 길가에 심은 줄당콩을 돌아보시고 줄당콩을 많이 심은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영양분이 많은 줄당콩을 많이 심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봄날씨가 찬 함주군의 경우에 논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찬물을 흐름식으로 대지 말고 가두어두어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남도의 이해 전반적인 농사형편을 료해하시고 벼모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제철에 하고 계속해서 논밭가꾸기에 힘을 집중하여 훌륭한 작황을 마련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있을수 있는 모든 자연기후적난관을 극복하고 이해 또다시 대풍을 마련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6월 4일 함경남도, 함흥시 및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련합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함경남도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화학공업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공업부문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함흥지구에는 큰 화학공장들이 많은 조건에서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민정권이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활동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특히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이고 함흥지구는 로동계급의 지구인것만큼 도당위원회와 함흥시당 및 시내의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뿐아니라 위생문화적인 환경속에서 일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1년사이에 비날론, 염화비닐, 가성소다, 농약을 비롯한 화학제품의 량과 질을 훨씬 높였으며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보수정비를 잘하고 긴장한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여 이해 시비년도 비료생산과제를 앞당겨넘쳐수행하였으며 전력소비기준을 훨씬 떨구고 제품원가를 현저히 낮춘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영웅하게 투쟁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농사에 복무하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에 복무하는 기업소들로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만큼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나 2.8비날론련합기업소들에 원료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업소들의 생산과 련결되여있는 부래산광산, 만덕광산, 동암광산, 운곡탄광을 비롯한 광산, 탄광들에 자동차, 굴착기, 불도젤 등 설비와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여 질좋은 석회석, 류화철, 린회석,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을 급격히 늘인것은 바로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잘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했다가 시비년도가 끝난 다음 짧은 기간에 총 정전보수작업을 하고 새 시비년도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보수를 잘하고 기술을 부단히 개선하여 비날론, 염화비닐, 가성소다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당면하여 농약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에 더 많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농약과 성장촉진제를 더 많이 연구하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도 효능높은 농약을 더 많이 연구하여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새로 연구한 모비론, 혼합방사비날론, 비날론강력사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며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성기계공장의 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성기계공장이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매달 초과완수하고 화학공장들에서 요구되는 설비들을 생산보장하는데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룡성기계공장 당위원회와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가공능력을 높여 명년에 더 많은 대상설비를 가공함으로써 늘어나는 대상설비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기계혁명을 하여 대상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룡성기계공장, 8월8일공장, 대안중기계공장 등 기계공장들의 가공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중소규모의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성기계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대형공작기계들을 생산하여 대상설비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1980년에 더 많은 대상설비를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8월8일공장과 대안중기계공장들을 비롯한 기계공장들에도 대형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소극성을 버리고 대담하게 일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재를 원만히 대주는것은 대상설비를 생산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내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검덕광산, 룡양광산, 상농광산, 허천청년광산, 단천마그네샤공장을 비롯한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내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 1년간 광산의 현대화, 대형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광물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내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내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검덕광산 선광장건설과 110메터회전로건설을 비롯한 단천지구내의 광업건설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앞에는 단천지구를 대광업지구로 꾸려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산들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남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기가 좋은 함흥시 사포지구에 살림집을 지어 주택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늘어난 단천지구에서도 지방자재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함흥시 근로자들에게 남새, 물고기, 알을 비롯한 부식물을 보다 풍족하게 생산보장하며 로동자들이 출퇴근할때 자전거를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청진시위원회 및 함경북도 위원회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청진시와 함경북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김책제철소, 청진조선소, 청진제강소, 어랑군 두남협동농장을 비롯한 청진시와 함경북도내의 공장, 기

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고 협의회들을 소집하시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와 함경북도의 전반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에 기초하시여 6월 20일 조선로동당 청진시위원회 및 함경북도위원회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청진시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청진시당검사위원회와 함경북도당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청진시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잘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에서 자체의 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여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생산문화도 잘세웠으며 무산광산에서도 높은 정광생산목표를 점령한것은 아주 기쁜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제강소에서 높은 철생산능력을 조성하고 제진장치를 잘하였으며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잘 정비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화학섬유생산을 늘인데 대하여서와 청진시에서 도시경영사업과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 훨씬 개선되고 인민소비품생산이 잘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수 있은것은 시의 책임일군들이 공장에 나가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자신의 이름으로 청진시당위원회와 청진시인민위원회, 청진시행정위원회, 청진시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과 시내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내의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겠다는 각오가 높아진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함경북도내의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훨씬 높아지고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당적으로 잘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가고있는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도내의 각급 당조직들이 농촌에만 낯을 많이 돌리던 편향을 없애고 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게 된것은 앞으로 도가 인민경제 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책임일군들이 탄광에 낯을 돌리고 막장에 들어가서 로동자들과 일을 같이하며 사람과의 사업,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현대적기계설비들과 선진기술을 받아들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아오지화학공장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빠른 기일안에 완성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도내에 건재기지도 많이 꾸렸으며 김책시, 라진시의 도시경영사업도 훨씬 개선되였다고 하시였으며 회령, 온성을 비롯한 군소재지들을 모범적으로 잘 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잘해나가고있는것은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이룩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난해에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벼와 강냉이 농사를 잘 지은것이라고 하시였으며 특히 모든 일군들과 농민들이 기후조건이 나쁜 함경북도에서는 더우기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가지게 된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도내의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서 이신작칙하면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강한 투쟁을 벌렸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자신의 이름으로 함경북도당위원회와 함경북도인민위원회, 함경북도행정위원회,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도내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확대회의에서 청진시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의 1980년도 철강재생산과제를 제시해주시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에서 새로운 철강재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해탄로의 보수를 빨리 끝내고 그 능력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선철생산을 더욱 늘이는데

필요한 주요대상들의 건설공사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 랭간압연분공장 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가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여러가지 압연강재들을 빨리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철은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라는 구호를 언제나 잊지말고 강철과 철강재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명년도 철강재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에서 요구되는 쇠돌정광을 넉넉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무산광산앞에 나선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무산광산이 점령해야 할 쇠돌생산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선광장건설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산광산 지도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설비의 점검보수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당이 준 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무산광산에서 정광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맞게 수송능력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철도복선공사를 마저 끝내며 전기화공사도 더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흑색야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진제강소에 원료를 제때에 대주어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제강소에서 연료문제를 풀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다른 도에서 가져다쓰는 석탄을 다량운반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앞으로는 함경북도에 풍부하게 있는 연료를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조선소를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더 많은 배를 무어내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대외무역이 날로 확대되는 조건에서 많은 짐배가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청진조선소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넉넉히 대주어 배무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짐배를 대대적으로 무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짐배무이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조선소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배무이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김책제철소와 5월10일공장을 비롯한 여러 기업소들과 련관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이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유족하게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비날론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실정에서 혼방직을 많이 짜기 위해서도 그렇고 옷안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스프와 인견사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에서 제철공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사준비를 잘하였다가 1980년도부터 화력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1~2년안으로 끝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경영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주체사상의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강철을 생산하는것도 인민을 위한 일인것만큼 모든 공장, 기업소 당, 행정 일군들이 생산과정에 조그마한 유해물질도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에서는 로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살림집을 공장지구가 아닌 남청진일대에 많이 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시내 근로자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무궤도전차를 많이 생산하고 자전거도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는 제철공업과 화학섬유공업이 있고 조선소와 항이 있어 중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이 많은 도시라고 하시면서 시내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특별히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새와 기름, 물고기를 넉넉히 생산공급하며 사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알과 고기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행정위원회가 학교건설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이 사업을 잘 밀고나가도록 시당위원회가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앞에 나

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성진제강소에서는 강철생산을 계속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전기로에 먹일 철을 자체로 생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도당위원회와 김책시당위원회, 성진제강소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중요하게 틀어쥐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생산을 급격히 늘이는것은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내의 탄광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높은 열량의 석탄생산을 늘여 김책제철소에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며 둘째로 제강소에서 쓸 석탄을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며 셋째로는 앞으로 건설될 청진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넉넉히 대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사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동시에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오지화학공장건설과 회령크라프트지공장건설을 빨리 끝내며 길주팔프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고무산세멘트공장에서 세멘트생산을 더욱 늘이며 특히 강도가 높은 세멘트를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지방공업에 대한 보장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짓는것이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알곡생산목표를 제시하여주시였으며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는 서해안에 비하여 날씨가 찬 조건에서 그에 맞는 농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벼랭상모와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100%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랭상모판에서 모를 튼튼히 키워 논발에 내야 찬 날씨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니탄, 잡관목을 비롯한 부식토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질좋은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날씨가 찬 함경북도에서 알곡수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록색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서 일찍 여무는 종자를 만들어내며 농작물이 찬 날씨에도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촉진제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날씨가 차고 일조률이 낮은곳에서도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비료를 잘 배합하여주면 능히 서해안 못지않게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추운지대인 함경북도에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이겨낼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방법을 밝혀주시였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적방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는 한 사람당 경지면적이 많으므로 뜨락또르, 불도젤 등 농기계를 더 많이 대주어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많은 농기계들을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땅을 얻어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촌에 농약을 많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물고기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업은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수산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들에 살림집을 많이 지으며 논발속에 있는 집들을 산기슭으로 점차 옮기고 시, 군과 농촌들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다니게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시당위원회와 함경북도당위원회는 당면하여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7월 26일에 진

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량강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량강도당검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당, 근로단체,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량강도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 앞서 대홍단군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 농업과학원 혜산분원 백무고원시험장, 삼지연군을 비롯한 량강도내의 많은 단위들을 돌아보시고 여러차례에 걸치는 협의회들을 소집하시여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여러 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가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으며 혁명전적지가 제일 많은 도이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언제나 량강도를 중요시하고있으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비롯한 도의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당위원회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혜산시와 군소재지, 특히 혁명전적지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에서 림산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 통나무생산에서 제일 큰 몫을 담당하게되고 림산화학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은데 대하여서와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크게 타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길주—혜산사이 철도전기화공사를 완공하여 더 많은 짐을 나를수 있게 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도가 거둔 큰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량강도에서는 농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대홍단군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과 풍산, 풍서군의 큰 협동농장들에서 기계화를 실현하고 도의 농업생산을 훨씬 늘이였으며 통배추, 가두배추, 무우 등 중요한 남새들을 도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고 호프생산도 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대홍단군종합농장이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하던 땅에 방풍림을 조성하고 흙깔이를 잘하여 높은 수확을 내는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기계화수준을 높여 로력자 한사람당 30정보씩 다루는 밭농사의 모범으로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전에는 소비품을 다른 도에서 가져다쓰던 량강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지금은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도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량강도에서도 다른데와 같이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고 고등교육을 주는 대학들도 다른 도와 같이 다 가지고있으며 협동농장초급간부들을 중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문화수준과 생활수준도 벌방과 차이없다고 하시면서 과거에는 락후하여 《삼수갑산》이라고 불리우던 고장을 발전되고 문명한 도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에서 이와 같은 성과들을 거둘수 있은것은 량강도에 대한 당정책이 정당하고 도당위원회와 도내의 각급 당조직들, 도인민위원회와 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의 일군들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량강도내의 혁명전적지들을 건설하는데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한 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산림자원이 제일 많은 량강도의 중심적인 과업은 산림을 애호하고 조림사업을 잘하며 림산업과 림산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림보호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산림보호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다 나무심기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무 한대를 베고는 열대를 심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조림사업소와 조림작업반을 내와야 하며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나무모를 집약적으로 키워서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림산마을과 림산사업소들에서도 나무모밭을 꾸리고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길러

서 산림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나무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나라 림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순환식채벌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순환식채벌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다른 도에서 들어와 채벌을 하는 사람들도 이 원칙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운재작업을 잘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나무만아니라 초두목과 아지까지 다 운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제지공장, 합판공장, 목삭판공장들에서 통나무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초두목과 나무아지까지 종합적으로 다 리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림업부문에서는 모든 림산사업소들에 초두목과 아지 생산계획을 주어서 초두목과 아지를 모조리 잘라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나무나르기에서 류벌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물동수리와 물길정리를 잘하여 물길로 통나무를 더 많이 나르게 하여야 하며 떼를 띄울수 없는 작은 물길로는 나무를 흘러내려보내는 식으로도 운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류벌공들에게 탄광로동자들과 같이 로동보호물자도 잘 대주고 대우도 높여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산화학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림산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량강도당위원회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산화학공업에 큰 관심을 돌려 절두목, 초두목, 톱밥을 가지고 타닌, 메타놀, 초산, 알콜과 같은 화학제품을 뽑아내고 목삭판, 합판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림산화학연구소를 량강도에 두고 혜산농업대학에 림산화학과를 내와야 하며 연구소와 대학이 합작해서 림산화학공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이 광업지구에 탐사력량을 집중하여 선행탐사와 생산탐사를 앞세우며 선광처리능력과 정광운반능력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혜산에 광산설비부속품공장을 건설하여 도안의 광산들에서 요구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량강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당면하여 점령해야 할 유색금속광물생산목표와 전망적으로 점령해야 할 유색금속광물생산목표들을 정해주시였으며 정광제련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의 수송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수송능력을 높이며 자동차운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여 큰 투자없이 많은 전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의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혜산방직공장에 스프와 비날론을 충분히 대주어 더 많은 천을 짜며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아닐론과 양털로 질좋은 겨울옷감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잘할데 대해서와 혜산제지공장에서 크라프트지생산을 늘일데 대해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들쭉은 량강도의 특산물이므로 들쭉밭을 많이 조성하여 여러가지 들쭉가공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제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며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모든 제품들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밀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밀농사에서 중요한것은 채종사업을 잘하고 시비체계를 바로 세우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감자는 보관하기 힘들므로 고기생산에 필요한 량과 전분으로 처리할수 있는 량만큼 심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홍단군종합농장, 포태종합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감자로 고기를 생산하여 도안의 근로자들과 답사자들에게 공급해주고 다른데도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프농사를 잘

치울데 대하여서와 유채와 들깨 등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인민들에게 기름을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라콩, 당콩에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먹이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보라콩, 당콩, 줄당콩을 가정들과 농장들에서 많이 심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의 무연한 덕지대밭들은 다 종합적기계화를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들을 기계로 할데 대하여서와 덕지대관개공사를 적극 추진시킬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산지대농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농업과학원 혜산분원에서는 육종연구사업도 해야하지만 기본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작물재배시험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 교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림산지식, 광업지식, 밀, 감자 농사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 림산,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학교들을 많이 내오는 동시에 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청소년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도내 경제지식에 밝은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우리 당의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함경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함주군 수홍협동농장, 정평군 봉대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였으며 도내의 농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주군 수홍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제2작업반 논벼포전을 돌아보시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례년에 없는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장일군들로부터 이해 영농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 알곡소출을 더 높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질소비료,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를 잘 배합하여 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비료창고를 잘 짓고 미리 비료를 실어다 보관해두었다가 제때에 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가 아지를 많이 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지들이 다 좋은 결실을 보게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논벼가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논물온도조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줄당콩농사를 잘하여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농장원들에게 많이 먹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농업지도체계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농업생산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평군 봉대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농장 청년작업반의 강냉이포전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를 충하없이 잘 자래워 높은 소출을 내다볼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강냉이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소출을 높이자면 병해충을 없애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가을에 강냉이뿌리를 모조리 뽑아 불태우며 강냉이짚은 잘게 분쇄하여 집짐승먹이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병해충을

없애자면 석회질소비료를 많이 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석회질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강냉이밭에도 유아등을 설치하여 나비들을 잡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평군에서 토지개량을 잘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대로 하여 지난 기간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정평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산성화된 땅을 없애기 위하여 카바이드재를 많이 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자면 좋은 강냉이종자를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키가 작고 대가 굵은 강냉이종자를 더많이 심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숫강냉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남도의 이해 전반적인 농사형편을 료해하시고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모든 작물들의 작황이 대단히 좋은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또다시 대풍을 마련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례년에 없는 좋은 작황이 마련된것은 비료를 충분히 준데 있다고 하시면서 비료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비료생산에 크게 기여한 고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끝낸 조건에서 설비보수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여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에서 또다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안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외서협동농장, 보부협동농장, 룡진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고 농업부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농장 제5작업반의 강냉이포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강냉이농사를 잘 지어 례년에 없는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소출을 더욱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병해충의 피해를 철저히 막아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을에 강냉이뿌리를 뽑아 모조리 불태우고 강냉이짚은 분쇄하여 집짐승먹이로 하든지 불태워 거름으로 하여야 하며 밭최뚝에도 불을 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병충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또한 나비가 생기는 시기에 강냉이밭에 전면적으로 유아등을 설치하여 나비를 모조리 잡으며 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제때에 질적으로 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회질소비료는 강냉이에 여러모로 좋다고 하시면서 석회질소비료생산을 늘여 모든 강냉이밭들에 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업반에서 길가에 심은 줄당콩을 보시고 줄당콩농사를 잘했다고 치하하시였으며 농장들과 집집마다에서 영양가가 높은 줄당콩을 많이 심어 어린이들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업반의 논벼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논에 비료를 준 정형을 알아보시고 규소비료를 많이 주는것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논에 더 많은 규소비료를 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에서 심고있는 벼종자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런 종자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육종연구사업과 함께 작물재배시험을 많이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군 보부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제1작업반 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일군들로부터 이해 강냉이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강냉이작황이 좋은데 대하여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강냉이는

밭곡식의 왕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밭농사에서 강냉이를 위주로 하여 심도록 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료 특히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충분히 주면 많은 포기수를 넣으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에 우리 당이 개천군에서 강냉이농사를 제일 먼저 발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때 개천군 농민들이 밭에 조만 많이 심어오던 낡은 관습을 버리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강냉이농사를 많이 짓는데로 대담하게 넘어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는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률이 높기때문에 미량원소를 계속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땅의 성질을 분석하고 필요한 미량원소를 충분히 첨가해주어 지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양단지에는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다 들어가있기때문에 영양단지를 하는것이 강냉이의 기력을 높이는데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좋은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여 영양단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양단지를 하면 품은 들지만 벼모내기를 하기전에 강냉이영양단지모를 먼저 옮겨심거나 함경북도같은데서는 벼모내기를 먼저 하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면 벼모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 시기가 겹쳐서 로력곡선이 긴장하게 되는 일도 없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 벼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튼튼히 길러 짧은 기간에 와닥닥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군이 강냉이농사에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냉이 정당수확고를 높일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군 룡진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1분조 담배밭을 돌아보시면서 1978년보다 두배의 담배소출을 낼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담배농사에서 큰 역할을 한 청년분조원들에게 인사를 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농촌에 진출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잘하는 그들을 대회들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담배농사를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농사는 흥미있고 해볼만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담배농사에서 중요한것은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가꾸기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담배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비료를 알맞춤히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많은 담배를 수확하는 조건에서 따들이는 담배를 잘 말리워 보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수매기관들에서 담배를 제때에 수매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줄기를 유용하게 리용할 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평안북도당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경제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평안북도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8년 7월에 있은 현지지도이후 1년동안에 평안북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월8일공장, 락원기계공장 등 도내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력을 더욱 높였으며 봉화화학공장건설을 비

롯한 생산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한해동안에 새로운 광산을 개발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수풍발전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저수지의 만수위를 보장하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일부 제품들의 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에서도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여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거두게 된것은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행정위원회, 시, 군 당위원회들을 비롯한 각급 당, 정권기관과 경제기관 일군들, 도내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높이 받들고 투쟁을 잘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만큼 이미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여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이해 벼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룡천군, 신의주시, 염주군, 곽산군, 정주군, 운전군, 박천군들과 강냉이농사를 잘한 신의주시, 룡천군, 박천군, 의주군들 그리고 담배농사를 잘한 룡천군, 피현군, 염주군, 동림군, 선천군, 박천군, 녕변군, 구장군, 태천군, 구성시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 시, 군들에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짓기에 적당한 평안북도에는 아직 알곡증수의 예비가 많다고 하시면서 농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충분한 식량예비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마다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예비량곡을 더 많이 마련하여야 하며 시, 군들에서 량곡창고를 많이 지어 알곡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홍수피해를 미리 방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큰물이 날수 있는 강들의 상류를 막으며 거기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사에서 부식토, 영양단지, 비료, 물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부식토생산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비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규소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넉넉히 치며 질소, 린, 카리 비료도 넉넉히 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서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도록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며 련결농기계들과 뜨락또르부속품을 많이 만들수 있게 설비,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안방조제공사를 다그쳐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서는 담배수확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명년에 담배농사를 더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평안북도내의 공업부문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업부문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평안북도를 공업기지로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의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현존생산설비들에 만부하를 걺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지구에 도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전극공장들을 건설하여야 기계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에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며 가성소다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과 로력문제를 해결하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주강, 주물에 필요한 모래를 원만히 풀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소를 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월13일공장, 풍년광산, 청수화학공장,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여기에 요구되는 설비, 자재들을 풀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화학공업과 건설에 필요한 나무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림산사업소를 하나 새로 더 내와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통나무를 나르는데 압록강물을 많이 리용하여야 하며 나무를 베는것과 조림사업을 동

시에 말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장들에서 만부하를 걸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원료, 자재를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와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봉화협동농장, 문흥협동농장, 하리협동농장과 평양애국옥당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2일 봉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농장 제3작업반의 논벼포전에서 벼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벼농사를 잘 지어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소출을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병충해를 철저히 방지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병해충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료를 친 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논파 강냉이밭에 규소비료를 많이 주는것이 좋다고 하시였으며 규소비료를 미리부터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지친 모든 벼대들을 다 실하게 자래워 결실이 잘되도록 하는것이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재배방법을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들에 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정확한 기술지표들을 제때에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육종연구사업과 함께 작물재배시험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흥협동농장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청년담배작업반 담배밭을 돌아보시면서 담배농사를 잘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집단적으로 농촌에 진출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청년작업반원들에게 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농사는 흥미있고 해볼만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담배농사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재배에서 중요한것은 모판관리와 심기를 잘하고 잎을 제때에 따주고 말리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 대와 줄기를 잘 가공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가공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건조장들과 담배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따들인 담배를 잘 말리워 보관하여야 하는만큼 담배창고를 잘 짓고 화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때에 말리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이해농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얻었기때문에 다음해에는 담배농사를 더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담배농사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농장 탈곡장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따들인 강냉이를 보시면서 대벌레를 비롯한 병해충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약생산을 많이 하는 동시에 강냉이뿌리를 모조리 불태우며 강냉이속과 강냉이대도 태워버리거나 분쇄하여 사료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하리협동농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농장 100정보 다락밭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지밭에 못지않게 잘된 강냉이를 바라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탈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들면 몇배의 소출을 더 낼수 있고 토지류실도 방지할수 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알곡증수의 예비의 하나인 다락밭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군들에서 해마다 100~200정보씩 한 3년간 다락밭건설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군내의 모든 력량을 다락밭건설사업에 동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락밭을 건설하는데 자재와 설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만큼 조직사업만 잘하면 짧은 기간에 빨리 해제낄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내의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락밭에서 높은 소출을 내자면 기계화를 하고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뜨락또르가 다닐수 있게 다락밭을 건설하며 삭도를 놓고 관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락밭을 만년대계로 잘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돌로 쌓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3일 평양시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건물모형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을 조선식으로 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학습당모형을 보시면서 평양중심에 모든 근로자들이 공부할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을 조선식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은 조선식으로 한다고 하여 고대건물형식을 그대로 본따지 말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제1백화점모형을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화점모형이 경쾌하고 화려하게 잘되였으며 주위의 거리와 건물들과도 잘 조화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평양애국옥당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의 첫공정으로부터 마지막 가루옥당제조공정까지를 차례로 돌아보시였으며 옥당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옥당은 알사탕, 과자, 청량음료, 통졸임을 만드는데 많이 리용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탕수수를 심어서 사탕을 해결하는것보다 강냉이를 많이 심어 옥당을 생산하는것이 더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개 도들에 있는 곡산공장들에서도 옥당생산설비들을 갖추어 옥당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옥당생산부문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더많이 양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졸업생들을 평양애국옥당공장에서 실습시켜 각 도의 곡산공장들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애국옥당공장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앞으로 식료공장답게 더 깨끗하고 알뜰하게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대안중기계종합공장, 남포항, 남포시 와우도지구주택건설장,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제1종합가공직장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공장 건설을 짧은 기간에 해제껴야 더욱 늘어나는 대상설비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후판, 박판을 비롯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건설을 계속 추진시키자면 날이 차지기전에 건물지붕을 씌우고 벽체를 붙이는 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의 전반적인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지 말고 보이라, 주물, 주강, 단조, 목형 등 생산에 급한 공정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전투 조직과 지휘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설대상에 동원되였던 연공, 설비조립공들을 비롯한 기술로력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제2종합가공직장에 들리시여 공작기계들의 가동상태를 알아보시고 모든 기대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기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장안을 밝게 하는데서 자연채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다른 직장들을 건설할 때에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기대공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기 맡은 기대에 정통함으로써 설비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밀한 기계일수록 소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재가공기지를 꾸려 소재를 초벌가공하여 가공직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중기계종합공장 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공장건설과 살림집건설을 전망적으로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주변에는 주택을 짓지 말고 록지를 조성하며 부두건설도 전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택을 분산시켜 배치하면 후방공급사업을 하기도 불편하고 지하상수도망을 늘이는데도 지장이 많으므로 한곳에 집중시키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경치좋은 산기슭에 주택지구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남포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항을 찾으시여 새로 건설된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돌아보시면서 그 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으며 항을 더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과 그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평안남도내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남포항건설에 동원된 일군들이 당의 3화수송방침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벨트콘베아수송선을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지대화물상선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벨트콘베아수송선종합지령실에 들리시여 내부시설을 돌아보시면서 화물상선작업의 산업텔레비죤화를 완성한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항에서는 앞으로 지금 건설중에 있는 싸이로들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멘트를 싸이로에 넣는 작업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계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구간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하나 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수송선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세멘트와 같은 화물을 수송할 때 먼지가 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으며 그 구체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대상선기의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좋다고 말씀하시였으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이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와우도—체육촌지구 건물배치도를 보아주시면서 빙상관건설과 체육촌거리, 와우도거리 형성방향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와우도지구에 고층살림집들을 지어놓으니 대단히 보기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경치좋은 이 지구에 고층살림집들을 많이 지어 근로자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에 체육촌이 훌륭히 꾸려져 각종 체육경기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을수 있도록 려관들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에서는 살림집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조건에서 음료수와 난방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시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의 논벼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논벼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시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규소비료를 많이 치며 질소, 린, 카리를 비롯한 화학비료의 배합비률을 잘 정하여 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농사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헛아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에서 심은 벼품종을 료해하시고 좋은 종자라고 하시면서 이 지대에 맞는 이런 품종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12일 농업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여 이해 영농사업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이해 전례없는 대풍작이 이룩되게 된것은 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내고 규소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들을 구색에 맞게 잘 쳤으며 물을 충분히 장만하여 풍족하게 쓰고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없앨뿐아니라 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주체농법을 알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도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농업이 집약화되여 알곡생산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른 형편에서 농사를 더 잘하기 위하여서는 농사의 과학기술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자면 작물재배과정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깐진 태도로 세심히 관찰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은 의연히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벼모를 잘 기르자면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는동시에 벼모의 생장과정에 대한 연구사업을 잘하여 그에 맞게 씨를 뿌리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토양과 작물의 분석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경험으로 보아 간석지논들에서도 높은 알곡소출을 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간석지논농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협동농장들의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보유정형과 그 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들에 들어간 농기계수단들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기계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전히 실현하여 농업로동을 공산주의적방법으로 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를 하루빨리 없앨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운 몇해사이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전히 실현하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산협동농장, 잠진협동농장을 비롯한 대안시와 온천군내의 여러 협동농장들이 선봉적역할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민들이 기계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영농공정들에 기계화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든 당조직들과 농업지도기관들에서 협동농장별로 매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기계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지도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로동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작업공정들을 없애며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협동농장들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운전수,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을 비롯하여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무원 위원회, 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각종 련결농기계들과 종합탈곡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랭상모판을 만드는데로부터 탈곡에 이르는 모든 영농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수 있게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북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황해북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신상협동농장, 침촌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봉산군 청계협동농장, 사리원과수농장, 서흥호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고 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료해하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에서 따들인 강냉이들을 보시면서 룡천리가 생긴 이래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이해농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이 농장의 전체 농장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질좋은 부식토와 화학비료를 충분히 주면 강냉이소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거름생산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는 그 어느 작물보다 땅에 대한 착취률이 높기때문에 더 많은 부식토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잡관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거름원천을 모조리 동원하여 질좋은 부식토를 생산하며 그것으로 영양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는 품이 많이 드는것만큼 기계화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충분히 대주어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작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들을 적극 기계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병충해를 방지하는것은 강냉이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병해충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강냉이뿌리를 모조리 불태우며 강냉이속과 강냉이대를 분쇄하여 사료로 하거나 태워버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탈곡을 빨리 끝내고 그 보관관리를 잘하며 다음해농사차비를 미리부터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황주군 신상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벼가 잘되였다고 말씀하시였으며 벼수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튼튼한 모를 내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에게 비료치는 시기와 방법을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상협동농장의 수수농사형편을 료해하시고 수수가 잘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수수는 습지대에 심는것이 좋고 강냉이와 같이 비료를 주면 더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주군 침촌협동농장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벼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벼가 지난해보다 훨씬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1980년에 더 많은 벼소출을 내기 위하여서는 농업과학자들이 벼품종들에 대한 재배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경지면적이 적은 조건에서 땅을 개량하고 토지정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루등지대의 경사지땅을 라선형으로 길게 만들어 영농작업을 기계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돼지기르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퇴비를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풍년든 곡식이 한알도 허실가지 않게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고 탈곡을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야산들에는 아카시아림을 조성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아카시아묘목을 많이 생산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농장 6작업반 논벼포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모기르기와 모내기, 비료주기와 논물대기 등 벼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벼가 매우 잘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규소, 질소, 린, 카리 등 여러가지 비료들을 벼의 생물학적특성과 과학적리치에 맞게 준 결과 충하가 없이 그쯘하게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소출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튼튼한 모를 길러낼수 있도록 벼

모락종을 계단식으로 하고 벼농사에 대한 지도를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벼모의 층하가 생기지 않게 모판활창대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농사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물대기와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물관리공, 비료치는 사람,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농업과학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봉산군 청계협동농장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논벼포전을 돌아보시면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만풍년을 가져온 농장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의 소출을 높이자면 튼튼한 모를 길러 제철에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정성껏 하며 기계모내기비중을 높여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형편을 료해하시면서 강냉이밭들에 배수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농장 청년담배분조원들의 이해 담배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담배농사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이 준 임무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담배소출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분조원들은 담배농사를 잘하는것이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업으로 된다는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해 담배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농사를 알뜰하게 잘지어 질좋은 담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며 담배종자를 개량하고 담배대와 줄기를 가공하여 유용하게 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리원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전례없는 포도풍작을 이룩한 포도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불모의 땅을 훌륭한 포도생산기지로 전변시킨 이 농장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도는 대단히 좋은 과실이라고 하시면서 포도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도생산을 늘이자면 비료를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포도재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며 포도재배를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여 사리원시와 평양시에 공급하면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생포도로도 팔고 시롭을 만들어서도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보관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편리하게 포도를 알맞춤한 상자에 넣어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도를 심을수 있는 땅을 더 많이 찾아내여 포도면적을 더 늘이는 동시에 포도정당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서흥호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흥호를 건설하기전에는 은파군일대가 큰비에 잠기군하였다고 하시면서 서흥호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의 하나로서 아주 좋은 자리에 건설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흥호, 은파호, 연탄저수지 등 모든 호수와 저수지들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흥호에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큰 고기들을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물고기알을 깨워 넣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흥호의 주변산들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나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로동자휴양소와 소년단야영소들을 더 잘 운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17일 황해북도당, 행정경제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황해북도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황해북도에서는 벼, 강냉이를 비롯한 모든 농사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성과는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섰으며 벼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내고 규소비료를 잘 주었으며 물을 넉넉히 마련하여 풍족하게 쓴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황해북도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마련한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당중앙위원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각급 당조직들,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촌지원자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자신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사리원시, 송림시, 황주군, 연탄군, 봉산

군, 은파군과 강냉이농사를 잘한 사리원시, 송림시들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 시, 군 당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농사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만금협동농장, 송림시 협동농장지구관리위원회 13작업반, 15작업반,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구포협동농장, 봉산군 청계협동농장, 지탑협동농장, 은파군 강안협동농장, 대청협동농장, 연탄군 금봉협동농장, 서흥군 문무협동농장, 수안군 좌위협동농장, 평산군 해월협동농장, 봉탄협동농장들과 강냉이 농사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연탄군 금봉협동농장, 서흥군 문무협동농장, 수안군 좌위협동농장, 신계군 대성협동농장, 평산군 해월협동농장, 금천군 남정협동농장, 토산군 매봉협동농장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곳 리당위원회들과 협동농장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의 정당 알곡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이제 알곡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사를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벼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충실한 벼모를 길러내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모를 튼튼히 기르자면 방풍목, 나래, 비닐박막 등 랭상모판준비를 미리부터 철저히 하며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물온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와 낮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받지않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에 아직도 예비가 많다고 하시면서 강냉이소출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에서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신평, 수안, 연산군들을 비롯한 밭관개가 채 되지 않은 군들에서는 밭관개를 마저 끝내여 모든 강냉이밭들에 관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행정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들이 강냉이밭관수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농사에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키며 평지대강냉이밭들에 물도랑을 잘 쳐서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락밭건설과 새땅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 여기에서만도 막대한 량의 알곡을 더 얻어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와 강냉이가 잘 안되는 습지대땅에는 다수확작물인 수수를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수도 좋은 종자로 평당대수를 보장하고 강냉이와 같이 비료를 주면 더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북도내의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부식토생산을 많이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는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힘이 제일 크기때문에 부식토생산을 많이 하여 강냉이영양단지를 100%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식토생산을 많이 하는것이 도내의 각급 당단체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잡관목이 많은곳에 부식토생산공장들을 건설하여 부식토생산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땅을 걸구기 위하여서는 돼지를 많이 길러 퇴비를 생산하여 밭에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축장을 잘 꾸려 집집마다 돼지기르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빨리 자라나는 아카시아는 꿀벌을 치고 땔나무와 부식토를 생산하는데서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야산들에 아카시아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양분석을 진행하여 부족되는 미량원소들을 철저히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들에는 광재와 석탄재들을 많이 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풍이 든 알곡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걷어들이고 탈곡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고들을 빨리 건설하고 알곡과 과실, 담배 등 농산물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청년분조원들이 담배농사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담배를 잘 말리우고 선별을 깨끗이 하며 포장과 보관을 잘하여 담배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황해남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해주항, 청단군 화산협동농장, 연안군 풍천협동농장, 정촌협동농장,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을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9월 21일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황해남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황해남도당 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황해남도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공업과 농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황해남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9년에 황해남도가 생긴 이래 처음 보는 대풍을 마련했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성과가 이룩되게 된것은 도당위원회와 시, 군 당위원회, 리당위원회들이 농사를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였으며 당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과 같이 농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을 주체농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전체 농민들이 당의 령도밑에 농사를 잘 짓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린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도당위원회, 시, 군 당위원회, 리당위원회 일군들과 농촌지도일군들, 농장원들, 농촌을 힘있게 지원한 모든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옹진군, 장연군, 삼천군, 은률군, 은천군,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 평천군, 연안군, 청단군, 룡연군, 파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군들의 군당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모든 협동농장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벼농사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재령군 삼지강, 고산, 재천, 신환포, 굴해, 김제원, 북지, 남지, 래림, 고잔, 강교, 신천군 신천읍, 우룡, 원암, 새길, 룡당, 장재, 온천, 송오, 백석, 명석, 새날, 우산, 석당, 청산, 화산, 월성, 안악군 안악읍, 평정, 금강, 신촌, 유성, 엄곳, 구와, 봉성, 원룡, 대추, 굴산, 덕성, 오국, 월산, 룡산, 남정, 복사, 경지, 국영안악농장, 은천군 제량, 학천, 마두, 량담, 남산, 제도, 송봉, 동창, 신창, 은률군 은률읍, 송관, 금천, 이도포, 가천, 장련, 률리, 금복, 금산, 연안군 청화, 호남, 부흥, 정촌, 풍천, 개만, 발산, 해남, 청단군 영산, 남촌, 평천군 한정, 신답, 장연군 박산, 금사, 해주시 읍파, 벽성군 대성, 옹진군 서해, 배천군 봉화, 조옥희, 삼천군 덕천, 송화군 다암협동농장들과 강냉이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재령군 삼지강, 석탄, 장국, 부덕, 고산, 재천, 강교, 고잔, 봉천, 신천군 원암, 새길, 룡당, 송오, 백석, 새날, 우산, 석당, 청산, 화산, 안악군 오국, 경지, 굴산, 월산, 룡산, 월지, 로암, 국영안악농장, 은률군 은률읍, 가천, 대조, 금천, 이도포, 철산, 장련, 관해, 률리, 금복, 운성, 연암, 구왕, 은천군 량담, 남산, 송봉, 신창, 매화, 정동, 덕천, 초정, 마두, 삼산, 온정, 배천군 금성, 금산, 문산, 연안군 해남, 호서, 화양, 장곡, 청화, 부흥, 평천군 향정, 한전, 신답, 봉암, 루천, 대룡, 삼천군 삼천읍, 덕천, 추룡, 궁흥, 월봉, 송화군 구탄, 신원군 검촌, 장연군 금사, 추화, 장연읍, 룡연군 종합농장 남창분장, 청단군 구월, 옹진군 원사협동농장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농사경험은 당의 령도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면 무슨 일이든 잘된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다음해 더 많은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계속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농장들이 다 앞선 농장들을 따라잡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선진농장들을 따라잡을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이 집약화되여 정당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알곡소출을 더 높이자면 농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농사에서 중요한것은 벼모를 튼튼하게 잘 길러 제철에 내며 토양성분과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비료를 알맞게 주고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정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모든 농업지도일군들이 주관주의를 없애고 농민들속에 들어가 현실에 맞는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는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보다 알곡작물이 더 잘되는 것만큼 담배재배와 그 가공처리에 유리한곳에 적당한 면적의 담배를 심어 수확량을 높이며 태풍이 심한 지역에는 맥류와 키낮은 수수와 같은 잘 넘어지지 않는 작물을 심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맥류를 전작으로 심는 경우에 후작으로 콩을 심으며 밀, 보리를 베는 족족 탈곡하여 보관할수 있게 건조설비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습지대와 태풍이 심한 지대에 수수를 심고 강냉이와 같이 비료를 많이 주어 높은 소출을 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서 알곡생산예비를 적극 탐구하기 위하여서는 간석지개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묵고있는 자그마한 땅이라도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불도젤, 굴착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밭의 지력을 높여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벼와 강냉이를 매해 계속 심는 조건에서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종축장을 더 건설하여 집집마다 돼지기르는운동을 광범히 벌려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논과 밭에 내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냉이영양단지를 하는것은 유기질비료를 집약적으로 주는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강냉이는 땅에 대한 착취률이 높기때문에 질좋은 부식토를 더 많이 생산하여 강냉이영양단지를 100%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을갈이를 깊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풍년》호뜨락또르를 협동농장들에 더 많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동강》호 모내는기계를 잘 리용하여 벼모내기를 100% 기계로 하고 모뜨는기계와 각종 련결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한명의 지원로력도 받지 않고 이해 농사를 잘 지은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모범을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배천군, 연안군, 신천군, 재령군, 안악군들과 같이 넓은 벌을 가지고있는 군들에서부터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대에 《대동강》호 모내는기계와 뜨락또르를 더 주면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능히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뜨기로부터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모든 영농공정들을 기계화하면 농민들이 일하기도 헐하고 알곡소출도 더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협동농장들에 더 많이 공급해주는 동시에 도자체에서도 각종 련결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 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주항은 대외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해주항을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주항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해주항건설에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 전체 해주시민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주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를 댈수 있게 하며 싸이로건설을 빨리 끝내고 포장시설을 완성할데 대해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항구내를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고 항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더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주세멘트공장에서 세멘트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원료를 더 많이 보장해줄수 있게 채석장을 잘 꾸리며 그에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황해남도내의 경공업부문에서 일을 매우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도내의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경공업공장들이 인민생활필수품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경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행정위원회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서 중공업과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적투자로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의 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의 하나는 석탄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내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하나의 탄광을 황해남도 전용탄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서 앞으로 제지공장을 자체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갈밭 조성과 관리사업을 잘하여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들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군중적운동으로 많이 심어 밥상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에 필요한 목재를 도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농촌문화주택건설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자강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희천공작기계공장과 2월 26일공장을 비롯한 도내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도당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 도내의 3대혁명소조 책임자들, 공장, 기업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자강도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기계공업에서 일대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성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과 이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에 파견된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새로운 기술혁신에 성공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방대한 면적의 생산건물을 더 짓지 않고도 더 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생산능력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작물재배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백설희동무를 발견하였는데 희천에 와서 박영철동무와 같은 숨은 애국자를 또 찾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나라가 위대하다고 하시였으며 회의참가자들에게 박영철동무를 환영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당위원회와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기술혁명에 앞장선 숨은 영웅들을 잘 도와주어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술혁신을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발동하고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며 기술혁신운동에서 발현되는 자그마한 싹이라도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부문에서

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어 기술혁명과업을 더욱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공장들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있는 자강도에서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희천공작기계공장의 기술혁신경험을 도내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부문사업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는 농업생산을 늘일 여지가 많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일군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분발하고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김을 잘 매고 부식토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협동농장들에서 풀과 잡관목을 많이 베여 부식토를 적극 생산하여야 하며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는 운동을 벌려 거름도 많이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데 대하여서와 다락밭을 만드는 사업을 잘하며 땅을 애호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에서는 특히 땅을 애호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짓고 길을 낼 때에는 반드시 산밑이나 산비탈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강하천정리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곡생산과 함께 남새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분수식관수를 적극 받아들이고 남새농사를 집약화하여 정당 남새소출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 농사에서는 뽕밭을 잘 가꾸어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뽕밭김매기를 잘하고 비료를 잘 주며 빈포기를 보식하는것을 비롯하여 지금 있는 뽕밭을 잘 가꾸는 동시에 새로 더 많은 뽕밭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수농장을 국영농장으로 하고 도당과 군당이 틀어쥐고 잘 지도하며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공예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만부하를 걸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더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 강재와 선철을 충분히 대주고 필요한 로력도 보충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더 높은 공작기계고지 점령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26일공장은 설비도 잘 놓고 공장도 커졌다고 하시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필요한 로력을 대주어 지게차를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야공장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자재와 로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공장에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직장을 도자체로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요구되는 자재를 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방직공장은 가정부인들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운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가정부인로력비중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부간이 한공장에서 일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였으며 중요한 공장들에서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착암—19》와 기관식착암기를 많이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림산기지의 하나이므로 지도일군들은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림을 더 많이 조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며 산불이 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목재화학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목섬유판, 목삭판들을 많이 만들어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림업부문에 청장년로력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림업부문로동자자녀들이 림업부문에서 대를 이어 혁명초소를 지켜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업부문에 더 많은 기계설비들을 보내주며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자동차,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의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 및 확장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천탄광에서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전천탄광 주변에 지질탐사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더 많은 탄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는 수력자원이 제일 많다고 하시면서 도내에 있는 강들에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튼튼히 꾸려진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만부하를 걸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보다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곡산공장, 유리공장, 종이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충분히 보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통이 불편한 위원군에서 만포시 별오까지 철도를 놓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3월 11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날 평안남도 평원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36호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소리가 터져올랐으며 그이께 로력혁신자들이 우리 나라 전체 선거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꽃묶음을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평원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룡옥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선거장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8일 조선인민군 장태승동무소속구분대와 박성영동무소속구분대를 방문하시고 구분대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곳 구분대 군인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고향과 입대후 군무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입대한지 얼마되지 않지만 벌써 끌끌한 군인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이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무한한 영예와 긍지를 안고 맡겨진

전투정치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짧은 기간에 일당백의 초병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 소식들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텔레비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교양 수단들과 시설들을 보다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 전투기술 기재들을 돌아보시면서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는 조건에서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군무생활을 하여야 하며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전투훈련을 부단히 강화하여 자기의 무기와 기술기재에 정통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홰불》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월 29일 권성린 군부대협주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홰불》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군부대 예술인들이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2월 31일 저녁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육관에 도착하시자 만세의 환호소리가 터져올랐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학생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이 꽃묶음을 드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으며 설맞이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학생소년들이 우리나라 전체 학생소년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은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이어 평양시 학생소년들 5천명이 출연하는 설맞이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송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설인사드려요》, 가무이야기 《최우등의 10점꽃 활짝 폈어요》, 무용이야기 아버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동화를 각색한 《두 장군 이야기》, 무용 《꼬마계획 풍년선물》, 《남녘땅의 백두송》, 동화와 무용 《아버지원수님 은덕아래 만풍년들었어요》, 시와 무용 《사회주의공업나라 자랑떨쳐요》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모습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공연은 우리 나라 전체 학생소년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노래와 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하시고 학생소년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령도 및 대외활동일지 (1979년)

1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시였다.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회답편지와 선물을 보내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 참석하시였고 12일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남포항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이완 고란 꼬바취츠》대학생합창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였으며 그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출판물보급소일군들에게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에서 새로 준공한 따마따브청소년궁전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월 7일)

2 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월분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월 7일)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을 발표하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협동농장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남흥애국곡산공장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단천마그네샤공장과 리원광산에 근위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3 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특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월분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3월 7일)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이라크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 평원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136호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500회공연을 보장한 피바다가극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협동농장들과 국영농장들에 영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주재 체스꼬

슬로벤스끄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부룬디공화국대통령인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좌를 비행장에 나가 맞이하시였으며 의례방문해온 대통령을 만나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통령과 회담을 하시였으며 대통령이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그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나공화국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공화국대통령과 회담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고 대통령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고 선물을 주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룬디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공화국민족훈장》을 받으시였으며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받으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부룬디공화국 사이의 경제,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일반협정에 서명하시였으며 비행장에 나가시여 대통령일행을 바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글라데슈문화대표단을 접견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방글라데슈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출연자들에게 전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덕수의장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에 참석하시였다.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해불》공연을 보시였으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부문과 지질탐사부문 일군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기술혁신과 물고기잡이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과 공훈어부칭호를, 배들에는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들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돈을 발행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1.4분기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로동신문》 4월 7일)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예술인들에게 인민배우,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화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과 총련축산및생물기술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일흔한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로동신문》 4월 16일)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북도 의주군과 평양시 서성구역에 《모범교육군(구역)》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덕수의장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최고군사리사회성원인 나이제리아군 최고사령부 참모장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특사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5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엔사무총장 쿠르트 왈트하임각하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오찬을 마련하시고 《축배사》를 하시였다.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꼴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과 꼴롬비아국회 하원의원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한 상장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

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참관단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로동신문》 5월 9일)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철도운수부문의 모범적인 단위들에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시에라레온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자유민주당소속 참의원의원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시와 대안시내의 인민경제 여러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 모란봉예술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혁명전적지건설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을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의례방문해온 친왕을 접견하시고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왕과 부인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회담하시였으며 친왕과 부인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왕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봉화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등영초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의례방문해온 그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등영초동지를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등영초동지와 함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으며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회대표단과 로므니아사회주의통일전선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등영초동지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기록영화 《조중친선의 력사에 불멸의 공적을 남긴 주은래동지》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말리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5일까지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 칭호를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등영초동지와 함께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등영초동지가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정부문화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등영초동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작별방문하여온 그와 접견하시였으며 비행장에 나가시여 따뜻이 바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일까지 청진시와 함경북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질탐사부문일군들에게 공훈지질탐사원칭호, 중앙식물원과

중앙동물원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레이시아정부경제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야청년탄광의 철도인입선전기화공사참가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로동신문》 6월 12일)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주재 가봉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5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제18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으며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성천—장상사이 철도전기화공사참가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6월 14일)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 륙상선수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튜니지정부문화대표단과 튜니지데스투르사회주의청년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월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6월 17일)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으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기자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표준설계사업소 두 일군에게 공훈설계가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앙골라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닌인민공화국대통령의 특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콜롬비아자유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로동신문》 6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이아나총리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7월 11일)

7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이제리아기자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주재 꽁고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장—룡암, 어룡—룡문 전기철도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7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지원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7월 4일)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꾸바공화국정부대표단과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직장장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레네이더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상반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7월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건—직동, 학산—매봉, 평남신창—천성사이 전기철도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7월 16일)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차량설계사업소일군들에게 공훈설계가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총리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7월 19일)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문화계녀성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국회대표단과 나이제리아손님들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이제리아손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월 3일까지 함경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8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일까지 평안남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경극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중국경극단의 공연을 보시고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1979 시비년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고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8월 12일)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친왕이 창작한 예술영화 《보꼬르의 장미꽃》을 보시였으며 친왕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친왕과 함께 조선기록영화 《만수대예술단 프랑스에서 공연》을 보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30일까지 지도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8월 23일)

9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이라크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항 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9월 7일)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흔두번째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로동신문》 9월 8일)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광산확장공사에서 특출한 공훈이 있는 건설자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단마르크사회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을 경축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이왕국친선축진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혁명사적지관리소 작업반장에게 공훈도시관리공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2일까지 평안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이왕국친선

축진대표단 일부 성원들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 《주체사상연구학회》서기장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7일까지 황해북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1일까지 황해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행정부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부룬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방문하시였다.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력공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전력공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공회대표단과 빠나마인적자원육성및리용협회 위원장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들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빠나마손님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타이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각각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과 르완다군사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들을 찍으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7일까지 진행된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27일에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강령적연설을 하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접견하시였으며 친왕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닌인민혁명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 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군사친선대표단과 말가슈류학생들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들을 찍으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정부교육대표단과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들을 찍으시였다.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천강화력발전소 한 설계일군에게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열관리부문일군들에게는 공훈열관리공칭호를, 권성린동무소속구분대협주단 성원들에게 공훈배우,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이아나협동공화국총리의 딸부부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스꼬슬로벤스꼬혁명직맹운동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동무를 접견하시고 식물재배연구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보고받으시였으며 앞으로 연구사업에서 더큰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교시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열관리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백설희, 김상련동지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박사칭호, 농업과학원산하 농장지배인 김상련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훈계산원칭호를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의례방문해온 대통령을 만나 담화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으며 그와 회담을

하시였으며 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보시고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력영웅 백설희박사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12일)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육인들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이아나보건, 주택 및로동부장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과 회담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고 그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고 선물을 주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일까지 자강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바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앞서 대통령과 함께 조선과 기네 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에 각각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담배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16일)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사리원—정방사이 전기철도건설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23일)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를 제정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일군들에게 감사와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공산당친선방문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방문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29돐에 즈음하여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25일)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페강식에 참석하시여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따정부경제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8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사로청일군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 토양학연구소에 국기훈장 제1급을, 통계부문일군들에게 공훈계산원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화력발전소직통전기철도건설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29일)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박영철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박영철동무를 접견하시고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앞으로 기술혁명수행에서 더큰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20돐을 맞이한 농업과학원 산하 농장과 토양학연구소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0월 31일)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과 그들의 사업을 지원한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3일)

11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각하를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의례방문해온 그와 만나 담화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원장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설을 하시였다.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루이스 까브랄

위원장과 회담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고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천군 석치협동농장과 6월 3일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4일)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땅찾기에서 모범을 보인 봉산군내의 지도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감사를,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를 각각 보내시였다.(《로동신문》 11월 4일)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비싸우공화국 민족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무용단의 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루이스 까브랄위원장과 회담하시고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시고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작물의 새 품종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농장원 리제훈동무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10일)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루이스 까브랄위원장과 함께 조선과 기네―비싸우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시였고 비행장에 나가시여 그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계설계일군들에게 《새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통계일군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고무하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16일)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아소일군들에게 공훈보육원칭호를, 청진시 라남구역 라남녀자고등중학교 교원에게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글라데슈소년예술단을 접견하시고 그들의 공연을 보시였으며 예술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잠비끄정부건설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천군 국영3월3일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룡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과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와 감사문을 각각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23일과 24일)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내의 협동농장 전체 청년분조원들과 토산군 매봉, 합탄 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25일과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룡천군내의 청년담배 작업반원들과 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1월 27일)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31화학공장건설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스웨리예왕국 특명전권대사와 단마르크왕국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홍원군 룡신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일)

12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1월간상》과 공훈기자칭호를 외국문출판사 일군들에게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대표단과 로므니아《죠르제 에네쓰쿠》교향악

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각각 접견하시고 담화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옹진군 장송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4일)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 주철직장 작업반장과 과학원 채굴공학연구소 실장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채취공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광부칭호를, 만수대창작사일군들에게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은파군 초구협동농장과 평성시 삼룡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0일과 12일)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2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흔세번째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참—신명천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6일)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무역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남포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8일)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분사구공장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3대혁명소조원들과 지원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압록강다이야공장 고무제품분공장건설에 참가한 제52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흥군 서곡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22일)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 북부흑색금속연구소 연구사와 청진제강소 책임기사에게 로력영웅칭호를, 과학자들에게 공훈과학자칭호와 과학상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각각 발표하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해온 우리 나라 주재 르완다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 경성분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공업대학 교원, 학생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31일)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 로태석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학생소년들의 1980년 설맞이 모임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흔네번째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980년 1월 1일)

외국국가수반들과 지도자들의 우리 나라 방문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인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좌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대통령과 부인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평양시내의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련못동입구에서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앞거리에 이르는 연도에서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대통령에게 은장도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례방문해온 대통령과 담화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부룬디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공화국민족훈장》을 받으시였으며 그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았다.

또한 인민경제대학, 금성뜨락또르공장, 평양지하철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9.15주탁아소, 평양수예연구소를 참관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인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대좌와 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부룬디공화국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일반 협정과 경제, 기술적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룬디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가 차린 연회에 초대받으시였고 연회들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또한 연회들에서는 대통령이 연설하였다.

대통령은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전통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그리고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월 23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대통령을 따뜻이 바래시였다.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 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대통령이며 기네국가—당 총비서이며 기네혁명의 최고책임자인 아흐메드 세쿠 투레가 인솔하는 당및국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대통령과 부인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평양시내의 10여만 근로자들이 련못동으로부터 만수대언덕을 거쳐 청년공원야외극장앞에 이르는 연도에서 기네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대통령에게 은장도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례방문해온 대통령을 만나 담화하시고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그에게 선물을 주시고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대통령과 대표단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았다.

또한 만경대혁명학원과 인민경제대학,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공장, 청산협동농장과 기양관개, 평양지하철도와 평양수예연구소, 평양9.15주탁아소,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한 구분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흐메드 세쿠투레각하와 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두 당 및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킴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인민혁명공화국 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통령과 대표단

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환영연회와 함경남도인민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연설하였다.

대통령은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이룩하신 이 업적들은 세계의 진보에 가치있는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모든 숭고한 념원의 완전무결한 체현자이신 당신께서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사상과 심장속에 계신다고 대통령은 말하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를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14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대통령과 대표단일행을 따뜻이 바래시였다.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루이스 까브랄각하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평양시내의 10여만 근로자들이 련못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수대언덕과 창전네거리를 지나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앞에 이르는 연도에서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위원장에게 반제투사조각상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례방문해온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을 만나 담화하시고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그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고 선물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네—비싸우공화국 민족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신 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원장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교예공연,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았다.

위원장과 그 일행은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경제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조선혁명박물관과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평양지하철도와 룡성기계공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청산협동농장과 기양관개, 중앙식물원, 조선인민군 한 구분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루이스 까브랄위원장과 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비싸우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또한 두 정부사이의 경제,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들이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을 하시였다.

환영연회와 함경남도인민위원회에서 차린 연회에서 또한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의 농업에서의 대풍작과 사회주의공업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를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보았다고 하면서 그 성과를 축하하였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그들이 가장 탁월하고 걸출한 혁명의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특전을 지니였기때문이라고 위원장은 강조하였다.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네—비싸우 당과 국가가 국제기구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반제적인 세계의 모든 민주력량과 함께 언제나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확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9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루이스 까브랄위원장을 따뜻이 바래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이 5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친왕과 부인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례방문해온 친왕을 만나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친왕이 창작한 《보꼬르의 장미꽃》과 조선기록영화 《만수대예술단 프랑스에서 공연》을 보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만경대와 봉화혁명사적지, 백두산과 조선혁명박물관, 국제친선전람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묘향산과 룡악산의 고적

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와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공연, 만경대소년단야영소와 대성산유희시설, 평양수예연구소와 평양지하철도를 보았으며 원산시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하시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고 연설을 하시였다.

연회에서는 시하누크가 연설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3년전에 은퇴한 자기를 형제로, 옛전우로, 갈라질수 없는 친근한 벗으로 계속 간주하시고 분에 넘친 환영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동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였다.

친왕은 또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김일성원수각하는 혁명과 민족해방전쟁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영웅이시며 조선인민에게 지상락원을 마련해주신 가장 위대한 영웅이시라고 말하였다

등영초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등영초동지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등영초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등영초동지를 위대한 중국인민이 보낸 친선의 사절로서 반가이 맞이하였을뿐아니라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우리의 친근한 전우였던 주은래동지를 회상하며 그를 경모하는 심정을 담아 평양 (5천명)과 함흥(10여만명)에서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에게 조중친선조각상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례방문해온 등영초동지를 만나 담화하시였으며 그가 마련해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등영초동지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고 등영초동지가 그이를 위하여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고 연회들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등영초동지와 함께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편집한 기록영화 《조중친선의 력사에 불멸의 공적을 남긴 주은래동지》를 보시였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등영초동지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음악무용종합공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았다.

등영초동지는 또한 만경대혁명학원, 평양고등의학전문학교, 평양학생소년궁전,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등영초동지와 함께 함흥에 세워진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제막식에 참가하시였다.

주은래동지의 동상은 1958년 2월 그가 흥남비료공장로동계급을 찾아와 감동적인 연설을 하던 그때의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있다.

하늘은 머리우에 끝없이 푸르고
동해의 물결도 그날 못잊어 설레이는가
조중친선의 정 넘치는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 길이 전하노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중국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주은래동지
1958년 2월 16일
흥남땅에 뜨거운 자욱 남기였어라.

즐거운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모주석의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겼나니
항일의 혈전만리 함께 헤쳤고
미제를 타승하는 한전호에서
생사고락 같이한 주은래동지

아 압록강의 맑은 흐름과 같이
백두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이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조중인민의 친선단결은 영원하리라!

등영초동지는 제막식에서 이 성대하고 장엄하며 따뜻하고 열렬하고 친선적인 행사를 마련해주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와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연회와 담화들에서 주은래동지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이 제막식에 초청해주신 각별한 배려에 매우 감동되였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였다.

중국인민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견결히 지지하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3천리강산이 반드시 통일되고야 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작별방문해온 등영초동지를 만나 담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함흥을 떠나 귀국하는 등영초동지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뿌리이며 혁명투쟁을 계속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재부이다.

1979년에 전당과 온 사회에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쳤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진군나팔이 힘차게 울렸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보는 이러한 찬란한 현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혁명적 재부들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92페지)

우리 당의 탁월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해에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고수되고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였다.

무엇보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그에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 배우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해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전통학습을 돕기 위하여 《불멸의 자욱을 따라》 2권,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1, 2, 3, 4, 5권, 《항일무장투쟁사》 9권을 비롯한 많은 출판물들이 발행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였던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온사회에 차넘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났다. 특히 청소년학생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소년시절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여나갔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수준이 높아진가운데 숨은 영웅들과 그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발단됨으로써 온 사회에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투사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숭고한 높이에서 맥박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 해에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귀중한 재부들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향도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갔다. 여기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게 하는 전투적기치였다.

우리 인민들은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또한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대로 학습하며 생활에서는 혁명적인 조직생활, 전투적인 문화생활기풍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해에 당의 지도밑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더 큰 힘을 내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의 시원이 열리였던 영광스러운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고귀한 재부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찬란한 빛을 뿌리도록 줄기차게 인도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1978년에 항일의 나날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각색한 혁명연극 《성황당》을 내놓은데 이어 이해에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혁명영화로 각색하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찬란히 꽃피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

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었다.

이해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후손만대에 전하기 위하여 삼지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영웅서사시적대기념비를 세웠으며 삼지연혁명사적관과 답사자들을 위한 근로자각, 대학생각, 소년단각을 일떠세우고 삼지연읍을 대로천박물관의 도시답게 새로 건설하였다.

실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종국적완성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이해에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무산지구전투

조국진출방침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 2일 장백현 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방면군당위원회를 여신데 이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신다음 새로운 조국진출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191~19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투쟁방침은 《동기토벌》작전에서 참패를 당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주며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조국에로 진출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조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적에 대한 총반격전을 벌려 적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에 국내진출의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력량은 무산지구작전을 수행한후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에 의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진군방침은 조선인민이 조선혁명의 주인이 되여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된것으로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조국진출준비를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대정자에서 간부회의를 끝마치시자 지체없이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집중하여 춘기반격전으로 넘어가 국경지대의 적의 요충지들을 격파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춘기반격전의 목적은 적들의 악선전을 폭로분쇄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며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여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데 있었다. 동시에 적들에게 련속적인 패배를 주고 국경경비체계를 일대 혼란시켜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1939년 4월 11일 국경연안에서 적의 중요 《토벌》거점의 하나인 장백현 구가점에 대한 습격전투로부터 춘기반격전을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4월 16일에 호동구부락습격전투, 4월 18일에 우구자부락습격전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로인구부락의 적을 녹여냈다.

제놈들의 주요거점들이 련이어 녹아나자 일제침략군은 력량을 집중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적들의 기도를 환히 꿰뚫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놈들의 기도를 앞질러 12도구와 14도구의 적을 습격하신데 이어 4월 26일에는 장백현 15도구, 5월 3일에는 반절구에 대한 습격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압록강연안국경지대에서 반격전을 벌리고있을 때 그이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림강, 안도, 화전, 연길, 돈화, 왕청현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도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안도현 대사하, 대전자 습격전투(1939. 4. 9), 동평자습격전투(1939. 4. 10), 연길현 석인구습격전투(1939. 4), 화전현 대포시하 습격전투(1939. 4. 7), 돈화현 팔가자습격전투(1939. 4), 왕청현 팔인구습격전투(1939. 4),

쌍하진습격전투(1939. 4), 다홍왜습격전투(1939 . 4), 대석툰습격전투(1939. 4) 등 수많은 전투들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떨치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파 투지를 안겨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각 부대들의 적에 대한 맹렬한 반격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대정자회의에서 천명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실현하는 첫단계의 투쟁으로서 주력부대의 국내진출을 튼튼히 담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들의 춘기반격전을 조직지휘하시는 한편 조국진군에 대한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국내진출을 위한 대원들의 사상적준비와 부대의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백현 마등창밀영에서 성대히 진행된 5.1절경축대회를 계기로 전투적기세가 급격히 높아진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곰의골밀영에 이르시여 조국으로 진출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이끄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조국진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9년 5월 15일 장백현 곰의골을 떠나 력사적인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다. 5월 16일 압록강이 바라보이는 24도구에 도착한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방침에 따라 이곳의 목재소와 횡산으로 들어가는 위만군수송대에 대한 습격전투를 통해 적의 이목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너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동방향을 위장할 목적으로 두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시여 한 소부대는 포태리방향에, 다른 소부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 장백으로 빠진것처럼 발자국을 내고 자취를 감추게 하시였다.

청봉에서 하루밤을 숙영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멀리 가는체 하면서 코밑인 건창에 돌아앉아 또한밤을 숙영한 다음 이동하여 20일에 베개봉에 도착하였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질겁한 일제는 함경남북도의 국경수비대들파 경찰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펴고 대병력을 백두산 동남부의 산악지대들에 들이밀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여 발광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대혼란속에서 소동을 피우고있을 때 5월 20일 베개봉숙영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땅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정황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적들의 국경경비도로인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무산지구로 신속히 빠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일행천리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5월 21일 주력부대는 행군하다가 삼지연못가에서 잠시 휴식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삼지연의 시원한 물을 마시고나시여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다하시며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삼지연의 아름다운 풍치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혁명이 승리한 다음 여기다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소.》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바로 인민의 탁원으로, 근로자들의 휴양지로 전변된 오늘의 삼지연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와 같은 구상에 의하여 실현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세우신 작전계획에 따라 휴식을 끝마친 부대들에 《갑무경비도로》로 행군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일제가 《토벌》파 《전멸》의 발악적목적밑에 닦아놓은 경비도로로, 그것도 대낮에 100여리씩이나 보무당당히 행진하여 그날로 두만강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숙영하였다.

대홍단지구에서의 정치군사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월 21일 밤 무포숙영지에서 지휘간부회의를 여시고 《갑무경비도로》행군파정을 상세히 총화하신데 이어 대홍단지구에 진격하여 이 일대의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대중정치사업을 벌려 인민들에게 새희망을 안겨주며 앞으로 백두산동북부와 함께 이 일대를 전국적범위에서 혁명투쟁을 앙양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선 신사동파 신개척 두방향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투적파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5월 22일 아침 무포숙영지를 떠나 대홍단벌을 횡단하시여 국사당부근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을 집결처로 정하시고 7련대는 신개척방향으로 보내시고 자신께서는 8련대와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신사동에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사동일대에 빈틈없는 경계조직을 하시고 신사동 한 귀틀집의 멍석자리에 앉으시여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알아보셨다.

바로 이때 김정숙동지께서 김일성장군님을 한번 만나뵙는것이 평생소원이라는 늙은이를 앞세우고 방안에 들어오시였다.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면서 《장군님!》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분이 그처럼 흠모해오던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데 몹시 놀라 황송한 나머지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올리였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방안은 꽉 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여온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로동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할것을 탄원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에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묶어세우는것도 중요하다하시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알기쉽게 해설해주시고 앞으로의 투쟁방침과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한편 군중정치사업을 맡은 대원들은 매집에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특히 김정숙동지께서는 능숙하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군중정치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한 신사동은 온밤 환희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였다.

대홍단벌에서의 섬멸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8련대와 경위중대는 5월 23일 새벽 집결장소인 대홍단 국사당부근에 이르러 7련대와 련계를 가질 련락조만 남겨놓고 대홍단벌을 건너 중산과 잇닿아있는 유리한 계선에 매복하였다.

아침 8시경 신개척의 적들을 녹여낸 7련대가 로획한 물자들을 한짐씩 지고 국사당부근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뒤로 수백명의 적수비대놈들과 경찰대놈들이 은밀히 따르고있었다.

정황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조성되여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련대로 하여금 그대로 매복권을 지나도록 지시하시고 적들의 대렬이 매복권내에 들어서자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8련대와 경위중대는 옆으로부터 경기관총과 보총으로 답새겼고 7련대는 돌아서서 적을 앞으로부터 족쳤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타격에 어찌나 급해맞았던지 유곡방향으로 들고뛰던 적들은 그 방향에서 달려오는 제놈들의 증원부대를 유격대인줄로만 알고 미친듯이 총을 쏘아댔다. 이리하여 제놈들끼리 맞불질하여 숱한 적들이 또 너부러졌다.

대홍단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전술과 탁월한 전투지휘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출방침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무산지구진공작전의 정치군사적목적이 훌륭히 달성되였다.

무산지구진공작전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온세상에 시위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끈 력사적사변이였다.

무산지구진공작전의 승리는 또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제막식

1979년 5월 21일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삼지연못가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제막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각도에서 온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수만명의 군중들과 함께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이 동상제막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하여 장군봉을 상징하는 웅장한 화강석우에서 군복자락을 날리시며 쌍안경을 힘있게 잡으시고 멀리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형상하였다.

삼지연혁명사적비도 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 정무원위원회 및 부들, 근로단체, 중앙기관 등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 각 도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들이 드려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제막사를 하였다.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전체 인민의 념원이며 한결같은 소망이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그 일대를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잘 꾸려 무산지구전투승리 마흔돐을 성대히 맞이하도록 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백두산의 숭엄

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세우고 삼지연대기념비와 혁명사적관을 일떠세웠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표시이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과 조각군상들, 삼지연혁명사적비를 돌아보았으며 삼지연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만대에 길이 전하라 삼지연이여!

(삼지연혁명사적비 비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르며
태고연한 밀림속에 출렁이는 삼지연!
천만년 전하여도 못다전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담아싣고
끝없이 설레이는 유서깊은 삼지연!

말하라 삼지연, 푸른 물결이여
검은 구름 드리웠던 암담한 그 세월
이 기슭에 영광의 새아침 펼쳐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여
얼마나 크나큰 감격에 설레였던가

항일의 기치 높이 휘날리시며
눈보라 만리 《고난의 행군》길 헤치시고
조국진군의 위대한 작전을 펴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

숙영의 천막에 우등불 타오르던
청봉과 건창, 베개봉의 밤이여
일행천리동정의 령활한 전법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불패의 대오 이끄시고
《갑무경비도로》로 보무당당히 행군하시며
여기 삼지연을 찾으셨나니

혈전의 포연 스민 쌍안경우에 손얹으시고
봄빛어린 호수가에 옷자락날리시며
감회도 깊으신 위대한 장군님!
혁명의 사령부에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들이 정성담아 떠올린
삼지연의 맑은 물을 드시며 말씀하셨어라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량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김일성장군님!
필승의 신념 안겨주실때,
장군님 모시고 조국에 진군한 영광에 목메여
가슴들먹인 항일투사들의 마음인양
삼지연은 격정의 물결 일으켜 기슭을 쳤어라

백두의 산발을 바라보시며
조국해방의 구상을 무르익히신 장군님!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광복의 큰뜻 키워주시며
혁명이 승리하면 이곳에 휴양지를 꾸리자고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셨나니

아, 조선의 진달래 붉게 핀 삼지연
호수에 어려오는 락원의 조국강산을 안고
그날을 앞당길 대원들의 한마음
충성의 파도되여 삼천리에 굽이쳤나니

진격의 나팔소리 심장마다 울리며
일행천리 그길에 위훈 세운 발구름소리
강도 일제의 머리우에 불벼락 내렸어라
무포와 신사동, 신개척의 그밤을 밝혀주고
대홍단에 높이 오른 혁명의 홰불!
항일대전의 승리에로 천만가슴 부르며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쳤어라

혁명의 기치높이 휘날려오신
영광의 그 길우에
주체의 조국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아침노을 찬연한 삼지연못가를 거니시며
혁명의 미래를 구상하시던 거룩하신 영상이여!
그 높으신 뜻을 안고 여기 삼지연은
주체의 위업 대를 이어 빛내여갈
불멸의 혁명성지로 그 영광 누리에 떨치거니

세상에 부럼없는 락원의 요람에 안겨
가장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에 젖은 가슴 부풀어 오를수록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영원히 충성다할 한마음
언제나 삼지연의 물결처럼 설레이리라
끝없이 설레이리라

오늘도 백두의 기상을 안으시고
혁명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인류의 영원한 봄,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시는
아,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
온 누리에 찬란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인민은 만대에 빛내여가리라

천구백칠십구년 오월 이십일일

신사동혁명사적비와 청봉헌시비 제막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여 인민들에게 혁명의 승리와 조국광복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신 력사적인 장소 신사동에 세워진 혁명사적비 제막식이 5월 22일 현지에서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일군들, 각도에서 온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신사동혁명사적비 제막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이 하였다.

제막에 이어 혁명사적비에 새겨진 비문이 랑독되였다.

참가자들은 신사동혁명사적비를 돌아본 다음 유서깊은 신사동혁명전적지를 참관하였다.

이에 앞서 5월 21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실 때 진군로를 확정하시기 위하여 오르시였던 청봉산마루에 세워진 헌시비제막식이 현지에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비
(신사동에 세운 혁명사적비 비문)

혁명의 홰불 높이 올리시며 무산지구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대받던 우리 인민들을 어버이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영광의 땅 신사동!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를 해방하시며 신사동에 진출하셨던 천구백삼십구년 오월 이십이일 력사의 그날, 인민들은 여기 사령부 귀틀집에서 꿈결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여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품에 안기였나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고역살이 천대속에 신음하는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조선민족의 가장 선진적인 부대입니다. 무산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반일전선의 선두에는 바로 당신들, 로동계급이 서야 합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로동계급을 혁명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반일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도록 뜨겁게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로동자들의 터갈린 손을 굳게 잡아주실 때 그들은 그이의 넓은 품에 안기여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나니

가렬한 전투를 앞에 둔 시각에도 헐벗은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조국의 래일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시는 어버이장군님!

항일의 영웅들이 부르는 혁명의 노래소리 가슴깊이 새기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던 인민들의 감격이여!

력사의 그 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리의 진격로를 마련하시여 발악하는 일제원쑤놈들을 섬멸하시였으니 그 총소리 울려퍼진 조국땅에 혁명조직들이 힘차게 일떠서고 광복의 홰불은 거세차게 타올랐어라.

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 아로새겨진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이 펼쳐졌으니, 마을마다 아담한 문화주택이 일어서고 교육체제의 찬란한 해빛아래 어린이들의 노래소리 메아리치는 강산이여!

기계화의 경쾌한 동음이 울려퍼지는 천리수해도, 만풍년의 황금파도 설레이는 5호대지도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나니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천구백칠십구년 오월 이십이일 세움

불멸의 청봉숙영지여!
(청봉산마루에 세워진 헌시비 비문)

백두의 줄기 뻗어내리여
밀림의 바다우에 자랑 높이 솟았는가
조국땅에 진군하신 위대한 장군님!
천만년 빛을 뿌릴 자욱을 남기신곳,
그 이름 빛나는 청봉이여!

끝없어라, 영광이여!
주체의 기치 높이 혈전 만리 헤쳐오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
조선인민혁명군 불패의 대오 이끄시고
천구백삼십구년 오월 십팔일
여기 청봉마루에 오르셨나니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

항일의 그 길우에서
높으신 뜻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조국의 봉우리에 거연히 서시여
천리수해, 천리산발 굽어보실 때
아, 장군님 우러러 항일영웅전사들
얼마나 크나큰 신념을 가슴마다에 불태웠던가!

끝없이 설레이는 조국의 수림속에
부대의 숙영지를 정해주신 어버이장군님!
고역에 지친 벌목부들도 한품에 안아주시고
정치공작의 길 떠나는 소부대도 바래우시며
작전도앞에서 조국의 밤을 지새우셨나니

은하수도 기우는 청봉의 밤에
꺼질줄 모르던 사령부천막의 불빛이여!
일행천리전술로 지축을 울리며 나갈
조국의 진군길을 밝히고
인민들의 가슴마다 광복의 서광 안겨주던
불멸의 빛발이여! 혁명의 등대여!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담아
혁명의 구호를 나무에 새기던
항일녀성영웅의 숭엄한 영상이여!
제국주의 원쑤와 끝까지 싸우자고
글발들은 부른다, 억천만을 부른다!

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
광복의 새아침을 부르시던 청봉마루에
오늘은 영광의 새날이 밝아
주체조선의 빛발 찬란하거니

빛나라, 청봉이여
이 세상 한끝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위업을
천만년 길이 전하며 하늘 높이 솟아있으라!

천구백칠십구년 오월 십팔일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

1979년 5월 23일 새로 꾸려진 혁명의 땅 삼지연읍에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가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인민군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각도에서 온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수만명의 군중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북대정자로부터 무산지구에 이르는 준엄한 행군길에서 벌린 정치군사활동을 상세히 개괄하면서 무산지구작전과 그 승리가 가져다준 력사적의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 구호대로 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날 3만명의 군중시위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선두에 모신 시위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자!》,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힘있게 행진하였다.

전국과학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 전국과학토론회가 5월 18일 삼지연군 문화회관에서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는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진행된 위대한 전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끈 위대한 력사적사변》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가 항일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업적, 그 승리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해설한 여러건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삼지연에서 진행된 경축공연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5월 21일부터 있었다.

각지에서 온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행사 참

가자들, 삼지연군내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이곳 혁명전적지 건설자들이 경축공연을 관람하였다.

량강도예술단은 합창과 무용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합창 《조국으로 가는길》, 남성독창과 녀성4중창 《무포의 밤이여》 등 다채로운 음악무용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자예술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백두산기슭의 산촌들에 꽃핀 행복한 새생활과 혁명전적지건설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삼지연군학생소년궁전에서는 군내 근로자예술소조와 학생소년예술소조의 공연이 있었다.

5월 23일에 경축연회와 경축야회도 있었다.

삼지연은 로천혁명박물관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과 대홍단일대에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하나의 로천혁명박물관을 이루었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에는 당중앙의 구상과 세심한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각군상들로 이루어진 영웅서사시적대기념비가 일떠섰으며 그 두리에는 삼지연혁명사적관과 특이한 건축양식의 근로자각, 대학생각, 소년단각이 일떠서고 삼지연읍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로 새로 건설되였다.

삼지연못가에 새로 건설된 혁명사적관은 이 지대의 자연조건에 어울리는 아담한 단층건물로서 건평은 3,700여평방메터이다. 또한 못가에 있는 사적비는 길이 16메터, 높이 4메터의 화강석을 다듬어 세웠다. 못가에는 표식비도 세워졌다. 삼지연뿐 아니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들에는 수많은 사적비들과 표식비들이 세워지고 이미 꾸려진 전적지와 사적지들은 새롭게 보충완비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과 대학생들, 청소년학생들이 현지답사를 통해 혁명전통학습을 깊이할수 있게끔 온갖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였다.

이리하여 삼지연과 그 일대는 하나의 로천혁명박물관을 형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삼지연에 새로 세워진 기념비적조각군상들

영광스러운 혁명전적지 삼지연에 솟아오른 대기념비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대서사시적화폭이다.

삼지연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조국편》, 《흠모편》, 《진군편》을 비롯하여 여러조각군상들로 이루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은 력사적인 조국진군의 날에 들리시였던 삼지연의 못가에, 해방후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피어린 나날을 감회깊이 회상하시던 그 뜻깊은 자리에 세워졌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못가의 중심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쌍안경을 힘있게 잡으시고 항일의 군복차림으로 장군봉을 상징하는 웅장한 화강석바위우에 높이 서시여 조국강산을 바라보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거룩한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력사적인 조국진군과 무산지구전투,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결정적승리에로 령도하시여 빛을 잃었던 이 강산에 승리의 새봄을 안아오시고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우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혁명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가슴후덥게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두리에 펼쳐진 조각군상들은 삼지연대기념비의 주제사상을 더욱 폭넓게 부각하고있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형상한 대조각군상 《조국편》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오른쪽에 펼쳐지고있다.

조각군상 《조국편》은 높이 6메터, 길이 40메터에 달하는 대규모의 조각군상으로서 20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조각군상 《조국편》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꿈결에도 그리워하던 조국땅에 들어선 첫 순간 항일투사들의 가슴속에 파도친 감정의 폭발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그리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마지않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대조각군상 《흠모편》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왼쪽으로 펼쳐져있다.

조각군상 《흠모편》은 높이 6메터, 길이 45메터에 달하고있다.

조각군상 《흠모편》은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환희와 기쁨, 뜨거운 경모의 정을 가슴뜨겁게 그리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을 높은 사상예술적형상속에 잘 보여주고있다.

조각군상 《흠모편》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수령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드는 뜨거운 흠모의 정으로 차넘친 그날의 장면을 그대로 보는듯 펼쳐주고있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그리운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과 진격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멸적의 기세로 내달리는 전투모습을 형상한 대조각군상 《진군편》은 조각군상 《흠모편》의 왼쪽앞으로 《갑무경비도로》와 잇닿은 곳에 펼쳐져있다.

조각군상《진군편》은 화강석조각으로된 진격의 나팔수를 배경으로 하고있으며 그 길이는 55메터에 달한다.

조각군상 《진군편》은 높이 12메터, 길이 30메터의 화강석조각으로 박력있게 형상한 나팔수의 영용한 모습, 기운차게 펄럭이는 백포자락, 그를 배경으로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보무당당하게 행군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과 멸적의 기세로 돌격해나가는 대원들의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의 격동적인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진군편》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령활한 일행천리전술을 높이 받들고 《갑무경비도로》로 보무당당히 진군해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기개와 필승의 신념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갑무경비도로》행군장면의 앞쪽에는 전투장면이 펼쳐져있다.

전투장면은 조국땅에 찬란한 혁명의 서광이 비낀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되살려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오른쪽에 펼쳐진 조각군상 《조국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수림을 배경으로 7상으로 이루어진 18메터의 길이를 가진 숙영의 밤을 형상한 조각군상이 세워졌다.

이 군상은 우등불을 가운데 놓고 옷을 깁는 녀대원, 《사향가》의 곡조를 피리에 담아부는 대원, 학습을 하는 대원과 래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기관총을 닦는 대원, 난생처음 조국땅을 밟아보는 어린 대원이 피리소리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모습 등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이고 락천적인 생활기풍을 잘 반영하였다.

삼지연못가운데 세워진 5상으로 된 《조국의 물》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조국에 진군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못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던 장면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새로 개관된 삼지연혁명사적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특히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중심내용으로 담고있는 삼지연혁명사적관은 총서관과 8개의 관으로 이루어졌다.

1관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부터 고난의 행군까지, 2관에서 5관까지는 무산지구전투 그리고 6관과 7관은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생활기풍, 8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지구전적지를 현지지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사적관의 총서관에는 1939년 5월, 삼지연못가에 아름답게 피여난 진달래꽃속에 군모를 벗으시고 대원들과 함께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대화폭의 조선화가 있다.

1관은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와 남호두회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압록강연안일대에서의 정치군사활동, 조국광복회창건과 보천보전투 등 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온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보여주고있다. 진렬함에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당시의 붉은 기발을 비롯한 수많은 사적물들이 진렬되여있으며 항일무장투쟁개시로부터 무산지구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귀중한 사료들이 있다.

2관에는 1939년 5월 력사적인 조국진군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호물동과 청봉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신 사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2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던 전투가방과 쌍안경, 군용지도와 자그마한 색연필 그리고 한장의 노루가죽이 전시되여있다. 진렬대에는 또한 청봉숙영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사용하던 병, 주전자, 칼도 전시되여있다.

3관에서는 건창과 베개봉 그리고 삼지연과 무포에 이르는 조국진군로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투때에 친히 사용하시던 모포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건창숙영지에서 쓰던 생활도구들과 소지품들이 진렬되여있다.

특히 3관 오른쪽벽 아래의 진렬대에는 40년전의 그날에 조선인민혁명군 한 녀대원이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시였다는 남색물고뿌가 전시되여있다. 왼쪽벽면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포숙영지 사령부천막에서 쓰시던 등잔과 대원들이 쓰던 무전기부속품들과 생활도구가 전시되여있다.

4관에서부터 5관까지는 신사동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 대홍단전투에서의 력사적인 승리, 무산지구전투가 가지는 력사적의의 그리고 조국해방에 관한 사진들과 력사적인 사적물들이 정연하게 전시되여있다.

4판정면벽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사동인민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장면그림이 있고 이 격동적인 화폭아래에는 신사동 사령부자리 귀틀집에 걸려있던 남포등, 신사동마을사람들이 온갖 성의를 다하여 지은 음식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그릇과 수저 등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력사적인 대홍단전투를 보여주는 사료들과 사적물들속에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의 바위우에 거연히 서시여 몸소 전투를 지휘하시며 쓰시던 한자루의 권총이 보존되여있어 사람들을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이 판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불과 4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300여명의 적을 소멸하였던 증산기슭의 낮은 언덕과 대홍단진펄을 보여주는 사진과 일제의 문건도 전시되여있다.

5판에는 당시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한 교양자료인 《김대장략》과 《백두산장수》가 진렬되여있다. 《김대장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가정과 어린시절부터 당시까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혁명활동략력이다.

2판으로부터 5판까지 전시된 사료들은 무산지구진공작전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였다고 떠들던 일제의 기만선전을 짓부시고 부단히 장성강화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투쟁열의를 북돋아준 투쟁의 홰불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6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제시하신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령활한 전법들을 보여주는 전투장면들과 전투로정들, 7판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생활기풍을 보여주는 사적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전시된 8판에는 백두산진달래를 보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감회깊이 회상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를 비롯하여 백두산천지에 서계시는 사진, 청봉, 삼지연, 무포, 대홍단전투 전적지들을 돌아보시는 사진들, 전적지를 답사하는 학생들속에 계시는 사진 등 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여있다.

아름답게 꾸려진 삼지연

그전날 하늘아래 첫동네라고 불리우던 삼지연읍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세심한 가르침속에 옛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졌다.

삼지연읍 북쪽에는 자연경사를 따라 뾰족뾰족한 2～3층짜리 전원형살림집들이 계단식으로 들어앉았다.

읍중심부에 뻗은 넓은 포장도로를 따라 좌우측에는 80여동의 끝이 뾰족뾰족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여러가지 색갈조화를 이루면서 줄지어서서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고있다.

삼지연읍에 새로 건설된 4세대, 6세대, 8세대, 9세대짜리 2～3층살림집들은 겉보기에도 한폭의 그림같지만 그 내부구조가 또한 수도의 락원거리나 천리마거리의 살림집을 련상시킨다. 살림집들에는 부엌세간이 잘 갖추어졌고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가장집물이 그뜬히 놓여있다. 상하수도설비와 목욕탕도 마련되였다.

새로 형성된 읍광장근처의 허항령기슭에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새로 세워졌고 그 옆에는 4,800여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2층짜리 학생소년궁전이 일떠섰다. 궁전에는 현대적인 실험실습기구들과 직관물을 갖춘 자동차, 뜨락또르, 물리, 화학, 라지오통신, 림업, 백두산동식물소조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실이 꾸려져있고 12메터깊이를 가진 넓은 무대와 400석의 좌석을 가진 궁전극장 그리고 체육관이 갖추어져있다.

광장에서 허항령기슭을 따라 좌측으로 뻗은 간선도로 량옆에는 군 문화회관, 체신소를 비롯한 공공건물과 고등중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사회급양편의봉사망이 즐비하게 들어 앉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기념품공장을 비롯한 여러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삼지연읍에는 최신의료설비와 100대의 침대를 가진 군인민병원도 건설되였다.

삼지연못가의 수림속에 건설된 대학생각은 한번에 600명을 받아들일수있으며 역시 600명을 수용할수있는 7동의 근로자각은 아름다운 겉모습과 훌륭한 내부구조를 가졌다.

소년단각은 8동으로 건설되였으며 한번에 420명의 소년들을 받아들일수 있다. 소년단각은 가파로운 물매와 뾰족지붕, 땅에 닿을듯한 처마로하여 산속에 천막을 쳐놓은듯한 감을 주며 아름다운 색조화, 망원경을 련상시키는 창문은 동화세계의 그림집과 같다.

삼지연에 새로 일떠선 공산주의리상촌—이것은 이곳 인민들에게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혁명전통주요기념일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전사 오중흡동지

—오중흡동지 서거 40돐—

1979년 12월 17일은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였던 공산주의혁명전사 오중흡동지가 서거한지 40돐이 되는날이다. 이날 공산주의혁명전사 오중흡동지 서거 40돐 중앙추모회가 2.8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오중흡동지는 1910년 7월 17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세선리의 극빈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났다.

오중흡동지는 1930년대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소년선봉대, 공산주의청년동맹, 농민협회 등 혁명조직에 참가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며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정력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과 군사적준비를 마련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3년 5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일가친척들과 함께 왕청유격구로 들어가게 된 오중흡동지는 청년의용군생활을 거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오중흡동지는 대원으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으로 자라났고 1938년 11월부터 련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활동하였다.

오중흡동지는 수많은 전투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위훈을 떨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오중흡동지는 그처럼 바라던 조국의 광복과 혁명승리의 날을 보지못한채 애석하게도 1939년 12월 17일 원쑤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각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단련된 충직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휘성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이것은 오중흡동지의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특질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지휘원, 병사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령부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189페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열화같은 충성심은 무엇보다 먼저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한데서 나타났다.

1936년말경에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진출을 막아보기위하여 관동군과 라남 19사단 함흥련대까지 동원하여 대병력으로 장백현 곰의골로 침공해들어왔으며 사태는 매우 험악하게 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중흡동지에게 놈들의 숙영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의 《동기토벌》작전에 첫타격을 줌으로써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였다.

오중흡동지는 불과 2개 소대의 적은 력량으로 적숙영지의 중심부를 불의에 습격하여 500명의 일본침략군놈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1937년봄 조국진군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부터 국경지대에 나가 후방물자들을 미리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오중흡동지는 30여명의 후방성원들을 인솔하고 형언할수없는 난관과 시련, 적들의 추격이 집요하게 뒤따르는속에서도 기진하여 쓰러져 일어나지못하는 대원들에게 《이 마지막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만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천할수 있소. 혁명가는 혁명임무를 앞에 두고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소》라고 고무하며 부축하여 끝내 제 기일내에 600여벌의 군복과 많은 식량을 마련하였다.

오중흡동지는 받은 명령뿐 아니라 사령관동지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문제를 항상 깊이 헤아렸으며 일단 포착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차례진 과업이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 맡아 나서 훌륭히 수행했다.

1939년 가을,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신입대원들이 집생각을 할것을 심려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심중을 포착하고는 자진해나서 힘겨운 전투를 벌려 명절준비에 필요한 물자를 해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중흡동지에게 누구보다도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많이 주시였으나 그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수행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또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데서 더욱 뜨겁게 발현되였다.

1937년 2월 적들의 대부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홍두산밀영으로 처들어왔을 때 오중흡동지는 그쪽에서 울리는 몇방의 총성을 듣고도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여 한달음으로 달려와 적의 뒤통수를 족침으로써 사령부에 미쳤던 위험을 막아냈으며 그해 만강방향으로 행군하던 부대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을 때에도 온몸이 적탄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여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계시는 사령관동지를 굳건히 보위하였다.

또한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오중흡동지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할 결심을 가지고 7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여 적들을 딴 방향으로 유인함으로써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냈다.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이

것은 오중흡동지의 특출한 기질이였다. 오중흡동지는 항일의 준엄한 나날 어느 한순간도 조직생활규범을 한번도 어기지 않았다.

오중흡동지는 또한 항일무장대오안에서 정규부대와 같은 부대생활을 꾸릴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부대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알뜰하고 깐진 지휘원이였다. 그는 대원들의 학습과 부대의 문화생활, 외모단장에 이르기까지 요구성이 높았으며 자신이 솔선 모범을 보여주었다.

오중흡동지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하나의 전투를 지휘하고 정치사업을 하나해도 오직 수령님식대로 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철저한 체현자였다.

오중흡동지는 이처럼 남달리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지닌 열렬한 혁명가였다.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공산주의혁명전사의 전형인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있다.

무산지구에 아로새겨진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자욱

1979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혁명투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난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간직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쌓으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투쟁자취는 항일의 혈전만리 자욱마다에 아로새겨져 영원한 빛을 뿌리고있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시고 김정숙동지께서 참가하시였던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삼지연과 그 일대에 세워진 대기념비에는 녀사께서 조국땅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도 깃들어있다.

김정숙동지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신 혁명투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1939년 5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조국을 향하여 곰의골밀영을 떠날때였다.

그때 사령부에서는 청봉밀영에서 겪은 간고한 시련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지신 김정숙동지께 후방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국내작전에는 절대로 빠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령부에 거듭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녀사의 제의를 승낙하시였을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모르시며 전우들에게 《사람이 사는동안 이렇게 기쁜 일도 또 있을가요.》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날밤 조국으로 진군한다는 감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5월 18일 아침,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국땅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5호물동부근의 산등성이에 오르시였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나라!》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솟구치시는 감격에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이렇게 환성을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5호물동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선 대원들은 압록강과 소백수의 합수목언덕에 한창 피여난 진달래를 한떨기씩 안고 돌아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 김정숙동지는 진달래를 꺾어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진달래를 받아드시고 그 향기를 맡아보시며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을 참지못하시여 진달래속에 얼굴을 묻으시며 《조국의 진달래! …비바람도 이겨내고 눈보라도 이겨내고 끝끝내 피여났군요!》라고 말씀하시며 감격을 금치 못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사랑은 이처럼 뜨거운것이였다.

삼지연못가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오른쪽에 펼쳐진 조각군상 《조국편》에는 바로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땅에 들어서는 첫순간 투사들의 그때 그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이윽고 청봉숙영지에 도착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천막가까이에서 샘물을 발견하시고 기쁨에 넘쳐 샘물터를 정히 만드신 다음 이 샘물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 밥을 지어올리시였다. 이 샘물터는 오늘도 그대로 보존되여 답사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숙영지의 번두리의 나무들에 구호를 쓰는데서도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도끼를 드시고 재빠르게 나무껍질을 벗기신 다음 직접 붓을 드시고 구호의 글발을 힘있게 쓰시였으며 붓을 든 대원들에게 구호의 내용을 불러주시기도 하시였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당시 김정숙동지께서 쓰신 이 구호는 40년이 지난 오늘도 보는 사람들의 심장을 끓어오르게 하고

투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날밤 대원들은 밤늦도록 잠못들며 우등불가에 앉아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였다.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피워줄 봄은 바람 일어났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시고나서 곁에 있는 동무들에게 온 나라 인민이 이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조국에 진출하여 첫 숙영의 밤을 보내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락천적생활은 오늘 그대로 조각군상에 옮겨져 삼지연못가에 기념비로 남아있다.

5월 21일, 베개봉숙영지를 떠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무포로 가던도중 삼지연못가에서 잠시 휴식하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 먼저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맑고 시원한 물을 드시고는 대원들에게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이 숭엄한 시각 김정숙동지께서는 끝없이 높뛰는 격정을 안고 마음속으로 웨치시였다.

(조국아! 백두산아! 삼지연아! 소리높이 말하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처럼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시였으며 그이의 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항상 수령님을 먼저 보살피시였다.

점심식사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작은 못가의 기슭에 가시여 《동무들! 이 물을 들여다 보세요. 큰 거울을 펼쳐놓은것 같구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맑은 물에 머리를 감자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리를 감으신뒤 정히 빗으시면서 어린시절 어머님이 머리를 감겨주시고 곱게 빗어주시던 일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며 쓰라린 어린시절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추억하시였다.

삼지연못가운데 다섯상으로 세워진 조각군상 《조국의 물》은 이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못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던 장면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5월 22일,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신사동에 진출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해발이 되시여 군중정치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을사람들의 집들을 찾아다니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과 투쟁성과에 대하여 해설해주시고 그이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식사준비를 서둘고있는 마을녀성들속에서 일손을 도우시며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일깨워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어느한 녀대원과 함께 자그마한 귀틀집에 들어서시였을때 그 집에는 목재소로동자인 늙은이와 어린 소녀가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가난한 조선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아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고 하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손히 인사를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합숙부엌일에 손이 튼 처녀애에게 크림도 발라주시고 아침저녁으로 이것을 바르면 낫는다는것을 알려주시며 그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소박하고 겸손하신 품성은 로인과 그의 딸의 굳어졌던 마음을 풀어주었고 귀틀집안에 단란한 가정분위기가 돌게 하였다.

김정숙동지의 절절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듣고난 늙은이는 평생 이런 기쁜날을 처음본다며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뵈옵는것이 평생소원이라는 늙은이의 간청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안내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신사동인민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979년에 들어와 사령부자리귀틀집은 더잘 꾸려졌으며 집주변에는 신사동사적비를 새로 세웠다.

5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하에 진행된 대홍단벌에서의 통쾌한 섬멸전에서 김정숙동지는 첫발부터 놈들에게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두만강을 향해 유유히 철수하였다. 떠나고 싶지않은 조국이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그날을 위하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시면서 두만강을 넘어서시였다.

오늘 대홍단벌전투장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은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시여 대 승리를 거둔 대홍단벌에서의 섬멸전에 남긴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업적을 길이 길이 전하고있다.

압록강의 흐름과 함께 영원할 불멸의 사적

—김형직선생님 탄생 85돐—

1979년 7월 10일에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

선생님의 탄생 85돐을 맞이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전생애는 조국의 광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꺾일줄 모르는 굳센 의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혁명가의 고결한 생애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상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며 그 업적과 위훈을 후손만대에 전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투쟁사적이 깃든 곳마다에 사적지를 꾸리고 혁명사적관을 세웠다.

청수동혁명사적관

청수동혁명사적관은 청수동 즉 오늘의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로동자구에 자리잡고있다.

건평 약 1,800평방메터의 단층건물인 청수동혁명사적관은 총서관과 7개의 호실로 구성되였으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1912년부터 1921년사이에 청수동일대에서 반일투쟁의 군중적지반을 닦으시며 무장대들의 활동을 령도하신 투쟁자료들과 특히 력사적인 청수동회의에 대한 사료들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꾸려졌다.

총서관에는 압록강기슭의 동판우에 서계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한 한폭의 조선화와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판이 있다.

1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가정과 선생님께서 1912년 청수동일대에서 반일력량을 키우시기 위하여 활동하신 투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호실의 왼쪽벽면중심에는 청수동에 오시여 각계각층군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가 전시되여있다. 이 그림은 1912년 여름 학생시절에 선생님께서 동지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반일강연을 하게 하시는 한편 자신께서는 조국의 먼 서북변 이곳 청수동에 오시여 각계각층군중들앞에서 반일구국강연을 하시는 장면이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 남산의 송백도 대궐의 들보로 쓰일 때 진목의 가치를 나타내듯이 우리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메고 원쑤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민들의 가슴속에 반일투쟁의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었다.

1호실에는 또한 김형직선생님께서 평양과 은률, 의주, 창성에서 활동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2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청수동을 비롯한 각지방에 그 조직을 확대하시기 위하여 벌리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917년 3월 23일 력사적인 평양회의에서 조선국민회의 창건을 선포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에 동지들을 파견하시는 한편 1917년 봄에 몸소 청수동에 또다시 오시여 이곳에서 조선국민회를 무어주시였다.

2관에는 그때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3관에는 청수동회의에 대한 사료들과 사적물들이 있다. 3관의 한쪽벽면에는 청수동회의를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와 회의를 지도하실 때 선생님께서 쓰시였던 키낮은 책상과 벼루, 붓, 연적, 필롱이 전시되여있다.

1918년 가을 평양감옥에서 300여일의 옥중생활을 마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쇠약해진 몸을 추세우실 사이도 없이 또다시 머나먼 청수동에 오시여 정력적인 회의준비를 벌리시여 그해 11월에 력사적인 청수동회의를 여시고 연설하시였다.

《우리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그들을 투쟁에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제의 탄압으로 파괴된 조선국민회를 시급히 복구하여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며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은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이르렀던 당시의 사회적환경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이 관에는 또한 선생님께서 청수동회의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창성, 벽동, 초산, 중강 등 국내각지와 만주에서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신 자료들과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어느날 밤 압록강변의 완월루에 오르신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전시되여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굳은 결의를 담아 시 한수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를 지으셨다.

…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4호실에는 1919년 7월 선생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청수동 밤골회의와 그해 8월의 력사적인 관전회의에 대한 사료와 각계층 군중속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5호실과 6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적인

밤골회의와 관전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투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각지 무장대들의 활동파 1920년, 1921년 선생님께서 몸소 청수동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무장활동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있다. 전시함에는 당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무장대에서 사용하였던 여러 정의 장총파 권총들이 전시되여있다.

1920년 여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으시고 또다시 조국땅 청수동에 찾아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동지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휴식도 잊으신채 판막동, 도령동, 좌동, 천마동, 어상동 등 넓은 지역의 반일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하시여 천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연안일대에서의 무장활동을 맹렬히 벌리게 하시였다.

6호실에는 당시 압록강연안일대에서 무장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보도한 《동아일보》의 자료들도 있다.

7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선생님의 지원의 뜻이 활짝 꽃펴난 오늘의 평안북도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큰 화폭의 그림이 있다. 그림은 장엄한 새 력사의 해돋이를 불러오시기 위하여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영광찬 투쟁로정파 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겁게 되새겨준다.

의주혁명사적관

의주혁명사적관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평안북도 의주군 읍가운데 위치한 양실학교에 꾸려졌다.

당시 사립학교였던 양실학교는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5개의 호실로 되여있는 사적관은 김형직선생님께서 1912년 여름파 1918년 가을 그리고 1921년 여름 세차례에 걸쳐 의주지방에 찾아오시여 광범한 군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고 묶어세워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신 혁명활동을 중심내용으로 보여주고있다.

1호실에는 1912년 여름 김형직선생님께서 의주땅에 오시여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벌리신 활동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호실에는 당시 숭실학교에 다니시면서 동지규합파 반일선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던 선생님께서 의주지방에 찾아오시여 양실학교마당에서 반일강연을 하시는 모습의 그림이 걸려있다.

1호실에는 선생님께서 통군정에서 당시 양실학교 친목회원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청년학도들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쳐주신데 대한 자료와 의주일대에서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여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갈 기초를 마련하신데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2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1912년 여름 이 학교에 오시였을때 들리시여 학생들을 투쟁에로 고무하신 방이 그때의 모습대로 보존되여있다.

그리고 3호실에는 선생님께서 반일강연을 하시기에 앞서 친히 들리시여 교원들파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교원실이 옛모습대로 보존되여있다.

4호실에는 압록강연안으로 투쟁무대를 옮기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 있다.

이 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데 대한 자료와 1918년 가을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출옥하신후 쇠약해진 몸을 돌보실사이도 없이 또다시 의주지방에 찾아오시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벌리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5호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적인 관전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시 의주일대에서 광범한 군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신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여기에는 선생님께서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신 자료들파 함께 압록강연안일대에서의 무장활동을 보도한 당시 신문자료들도 있다.

1921년 여름,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해치시고 조국땅에 건너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내조직들의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구남문집에 계시면서 손수 사경에 처했던 한 로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고장 인민들에게 광복의 새희망을 안겨주시였다.

이 호실에는 또한 김형직선생님께서 광범한 군중을 민족자주정신파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투쟁하신 자료들, 통운동 명신학교에서 반일강연을 하시여 조국광복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의주혁명사적관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시는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혁명교양의 귀중한 배움터이다.

제1차북만원정 45돐

1979년 10월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부대를 거느리시고 승리적으로 진행하신 제1차북만원정의 개시 45돐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악명높은 《위공》작전의 일환인 《장기특별치안공작》 기도에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북만일대에서 활동하던 항일무장부대들을 도와주며 그 지역 인민들에게 혁명

의 불씨를 심어주어 장차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대에로의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4년 10월 하순부터 1935년 2월중순까지 제1차 북만원정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만의 유격부대들을 도와주고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높여주며 또 그 일대를 료해할 목적으로 1934년 가을에 연길, 훈춘, 왕청에서 각각 한개 중대씩 뽑아 3개 중대를 데리고 원정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청제5중대를 비롯하여 연길, 훈춘에서 각각 1개중대씩 선발하시여 왕청현 뒤틀라즈에 모여 원정부대를 편성하시고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 10월 하순에 북만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10월말, 간고한 장거리행군끝에 녕안현 횡도하자 부근의 한 마을에 다달은 원정부대는 곧 인민들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시였으며 또한 여기에서 처음으로 달려드는 적 《토벌대》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완전히 소탕하였다.

북만에 울린 원정부대의 첫 총소리는 그곳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일제놈들에게는 공포와 전률의 총소리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 어느날 경박호일대에서 또다시 달려드는 일제수비대 200여명을 완전히 소멸하시였다.

제1차북만원정의 목적을 달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정부대를 거느리시고 요영구로 돌아오실무렵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원정부대를 《소멸》하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원정부대는 적의 대병력의 사면포위와 집요한 공세, 식량난, 북만의 모진 추위 등으로 엄혹한 시련을 겪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쌓이고 쌓인 피로끝에 그만 축한으로 누우시게 되였다.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그이께서만 대오의 진두에 서계신다면 두려움모르고 용기백배하여 싸워나가던 대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가끔 의식마저 잃으시면서도 걱정과 수심에 잠긴 대원들을 고무격려하시였고 손수 혁명가요 《반일전가》를 지으시여 대오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엄혹한 시련이 중첩되고 부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환경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해나선 원정부대는 천교령부근목재소 김로인의 방조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야령의 깊은 산속에서 일제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등지고 숨어살던 조로인일가의 극진한 정성과 대원들의 애타는 노력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2월 중순에 병색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요영구유격구역으로 개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제1차북만원정은 청소한 유격구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발악하던 일제의 《위공》작전에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력사적인 원정이였다.

대부대선회작전승리 40돐

1979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부대선회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지 40돐이 되는 해이다.

대부대선회작전은 항일무장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주체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위대한 작전이였다.

1939년 9월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무력공세와 정치사상적공세, 경제적봉쇄를 감행해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1939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안도현 량강구에서 소집하신 군정간부회의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또다시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며 놈들의 이른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파탄시키기 위한 현명한 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의…전술에 대처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류동하면서 적을 피동에 몰아넣고 불의에 격멸하는 새로운 전술을 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일제침략자들이 방대한 병력을 집중하여 밀영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전술과 《장거리추격》전술을 시도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서 미리 설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넓은 지역을 선회하면서 적들이 예상치 않은곳에 나타나 불의에 치고 감쪽같이 사라지며 적들이 따라오면 다른곳에 옮겨가 또다시 족쳐대는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안도, 화룡현 일대에서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작전을 성과적으

로 실현할수 있는 군사정치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신후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돈화지구를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돈화지구에 이르시여 12월 17일에 륙과송전투를, 12월 24일에는 자신즈전투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대부대선회작전의 첫단계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화지구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신후 백석탄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군정학습을 조직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륙과송, 자신즈에서 새로 받아들인 200여명의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욱 장성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적들의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두만강연안국경지대에로 진출하시여 1940년 3월 11일 일제의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인 대마록구에서 수많은 적을 소멸하시고 3월 25일에는 홍기하전투에서 가장 악명높은 마에다부대를 전멸하심으로써 대부대선회작전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로서 조선혁명발전에서 중요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륙과송, 자신즈 전투승리 40돐

1979년 12월 17일과 12월 24일에 우리 인민들은 륙과송, 자신즈전투승리 40돐을 기념하였다.

1930년대의 전투행로를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고 1940년대의 위대한 승리의 서곡을 울린 이 전투들은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진행되였다.

이때 일제는 관동군사령관 우메즈란놈의 밑에 《노조에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관동군과 위만군, 경찰대, 자위단까지 망라하여 《토벌부대》를 편성하였다. 일제는 무려 20여만을 헤아리는 대병력과 막대한 최신군사기술기재를 투입하여 이른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대《토벌작전》을 벌렸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10월, 안도현 량강구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일제의 준동을 분쇄하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기 위한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그이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강행군으로 돈화현의 서북차부근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적정을 확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면밀한 습격계획을 짜시고 12월 17일 밤 10시경에 륙과송목재소로 진출하시였다.

당시 륙과송목재소에는 약 600명의 로동자들이 있었고 70명정도의 산림경찰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처를 목재소의 부락밖에 정하시고 오중흡동지가 지휘하는 7련대와 황정해동지가 책임진 중대는 적의 병실을 습격하며 경위중대는 사령부를 보위하며 8련대와 그리고 7련대, 경위중대일부력량은 로획한 군수물자를 운반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오중흡동지는 적의 병영두리에 설치된 철조차단물을 해제할 돌파조를 직접 지휘하여 철조망을 한겹한겹 끊으며 통로를 개척해나갔다. 그런데 이때 적들에게 발견되여 기관총의 세찬사격을 받아 아군의 전투행동에 위험이 조성되였다.

정황을 예리하게 살피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돌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의 차단물을 비호같이 뛰여넘어 중앙포대부터 점령하고 뒤이어 병실에 달려갔다. 적들은 어찌나 기겁했던지 병실과 련결된 지하도에 기여들어 견고한 지하포대를 믿고 발악적으로 저항해 나섰다. 때를 같이하여 적들의 다른 포대들에서도 기관총사격을 들이대며 대항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완수할 일념으로 지하도와 포대의 적소멸전투를 지휘하던 오중흡동지는 적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오중흡련대장의 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비분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총돌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분격한 대원들은 성난파도처럼 일떠서서 적들에게 섬멸적불벼락을 안기였다.

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다음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앞에서 조선청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무장대오에 들어서는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길이라는데 대하여 격동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감격한 1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자기들을 유격대에 받아줄것을 열렬히 탄원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륙과송전투를 승리적으로 마친후 자신즈방향으로 행군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자신즈는 륙과송 북쪽 60～70리 거리에 있었다. 자신즈에는 1,000명가량의 목재소로동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위만군과 산림경찰대가 도사리고있었다.

륙과송으로부터 자신즈에로의 행군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지도와 로고에 의해 청년동맹기관지 신문 《철혈》 첫호가 나왔다. 이것은 대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사기를 올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1939년 12월 24일 밤

12시경에 쟈신즈에 이른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전투계획에 따라 감쪽같이 부락을 포위하고 목재소에 돌입하였다.

륙파송에서 제놈들이 녹아난 소식을 듣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놈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총 한방 쏘지 않고 적의 무장을 해제하고 모조리 생포하였다.

부대가 마을을 철수하기 시작하자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로획한 군수물자운반에 자진하여 따라나섰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쟈신즈남쪽 7리가량 떨어진 수림속에 미리 준비한 숙영지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앞에서 연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만약 당신들이 사랑하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원하고 망국노의 수치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려거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할것이다.

우리와 함께 총을 들고 원쑤를 칠 각오를 가진 동무들은 유격대에 참군하라!

위대한 수령님의 격동적인 연설을 듣고 수많은 로동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켜줄것을 탄원해나섰다. 입대청원자들속에서 1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한꺼번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다. 륙파송, 쟈신즈 전투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200여명의 목재소로동자들을 신입대원으로 받아들여 대오를 확대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력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널리 시위한 륙파송, 쟈신즈 전투 승리는 대부대선회작전과정을 빛나게 장식하고 그 첫단계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승리로서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휘날리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주요년대표
(1912～1945)

1912. 4.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에서 탄생

1923. 3.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심

1925. 1.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심

1926.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 입학

1926. 10.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926. 12.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

1927. 1.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

1927. 4.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길림소년회를 조직

1927. 5.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류길학우회를 조직

1927. 8.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청년동맹을 조직

1927. 8.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

1927. 12.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

1928. 1.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문 《새날》을 창간

1928. 여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동교원들과 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지도

1928. 10～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을 조직지도

1929. 10～1930.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감옥에서 옥중투쟁

1930. 6.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

1930. 7.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군을 조직

1930. 여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 고유수일대 농촌혁명화사업을 조직지도

1930.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가자일대 농촌혁명화사업을 조직지도

1931.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거점을 두만강연안으로 옮기시고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적극 추진

1931. 5.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연설: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

1931. 봄～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도를 중심으로 동만일대의 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

1931. 12.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연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1932. 4.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연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1932. 봄～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 창설

1932.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구회의를 지도

1933. 3.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재산회의에서 연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33. 3.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청회의에서 연설: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33. 3. 3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청현 쟈피거우전투를 조직지휘

1933. 4.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유격대동작》을 발표

1933. 봄～여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혁명정부수립

1933. 5.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를 발표

1933. 9. 6～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녕현성전투를 조직지휘

1933. 11～1934.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왕청유격근거지 방어전투를 조직지휘

1934. 6. 26～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자구전투를 조직지휘

1934. 가을～1935. 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제1차북만원정을 조직지휘

1935. 2. 24～3.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홍왜회의를 지도

1935. 3.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요영구회의에서 연설:《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

1935.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흑산전투를 조직지휘

1935. 6～1936.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공세에로의 이행, 제2차북만원정

1936. 2.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보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1936. 5. 1～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강회의를 지도

1936. 5.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

1936. 8. 17～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송현성전투를 조직지휘

1936. 여름～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

1936. 12.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기관지 《3. 1월간》을 창간

1937. 3. 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강회의에서 연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1937. 6.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 보천보인민들앞에서 연설:《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1937. 6.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삼봉전투를 조직지휘

1937. 8.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지도

1937.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일전쟁이 일어남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1937. 11.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

1937. 11～1938.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당거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집중군정학습을 조직지도

1938. 11. 25～12.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회의를 지도

1938. 12～1939.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지휘

1939. 4.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대정자회의에서 연설: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

1939. 5. 18～2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지구전투를 조직지휘

1939. 5.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개봉회의에서 연설: 《조국땅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자》

1939. 5.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지구 신사동인민들앞에서 연설: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1939. 10～1940.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동북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지휘

1939. 12.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륙과송전투를 조직지휘

1939. 12. 2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쟈신즈전투를 조직지휘

1940. 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석탄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집중군정학습을 조직지도

1940. 3.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홍기하전투를 조직지휘

1940. 8.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연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1940. 8～1945.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과 정치군사훈련을 조직지도

1941. 6.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독전쟁개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활동방침제시

1943. 9.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발표

1945. 8.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을 위한 작전개시

1945. 8.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조선해방

민족최대의 명절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뜻깊게 기념

1979년 4월 15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오직 하나의 열망속에 그이의 탄생 67돐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가장 경사스럽게 맞이하였다.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로 밤과 낮을 이어 군중의 물결이 그칠줄 몰랐다. 그이의 동상은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꽃다발에 에워싸여 대화원을 이루었고 만경대고향집 사립문길로는 군중의 긴 행렬이 굽이쳤다.

지금으로부터 67년전인 19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을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잃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시였으며 이땅에 륭성번영하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는것을 평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길에서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생각할때 우리 인민에게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4월 15일과 함께 더욱 강렬해지는 하나의 커다란 념원이 있다.

그것은 조국의 영원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뜨거운 마음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7돐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정성껏 키워온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만든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올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평양시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4월 15일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가지고 이날을 뜻깊게 보내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4월 10일 평양에서는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의 참가하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세계관》을 비롯하여 6편의 연구론문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것이 인류사상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 주체철학의 원리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의 독창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각지의 영화관들과 문화회관들에서 영화상영순간이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보여주는 영화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을 반영한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영화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 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에로》를 비롯한 기록영화들과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누리에 붙는 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화면에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그리고 《이름없는 영웅들》 (1,2부)등이 들어있었다.

4월 14일 평양체육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15일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에 와있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경축사가 랑독되였다.

소년단원들은 경축사에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소년단입단식이 있었다.

대회가 끝난후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4월 15일 저녁 광장들에서 야회를 가지고 대동강에서 꽃배놀이를 하면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명절밤을 즐겁게 보내였다.

근로자들의 야회는 김일성광장과 평양체육관앞광장, 2.8문화회관앞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의 여러 대표단 성원들과 평양에 주재하고있는 외국손님들도 수도근로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경사스러운 명절의 밤을 보냈다.

야회참가자들은 평양시내의 예술인들이 광장가설무대에 펼쳐놓은 예술공연을 보았다.

한편 대동강에서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꽃배놀이가 있었다.

이날 저녁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축하편지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민족사의 최대경사절에 즈음하여 인류가 낳은 사상의 영재이시고 혁명의 영걸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 일구월심 우러러 경모하며 따르는 남녘의 모든 혁명가들과 각계 민중의 충성의 단심을 담아 삼가 무상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시대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만고풍상을 헤치시며 모든것을 바쳐오시였으며 반세기여의 혁명활동로정우에 천추만대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시였습니다.

걸출한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소년기에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심원한 철리를 발견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주체의 기치따라 진군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축하편지 앞부분은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편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개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민족을 빛내이고 국위를 떨친 이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만리혜안의 예지와 지략, 탁월한 향도력과 고매한 덕망이 낳은 빛나는 소산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구현된 귀중한 열매입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는 국제사회에서 끝없이 선양되고있고 영세불후의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최고봉의 혁명리념으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김일성주의기치따라 전진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편지는 남녘의 우리 민중은 백두산마루에 주체의 홰불이 높이 타오른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 경애하는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열렬히 흠모해왔으며 그 모진 착취와 억압의 악순환속에서도 희망과 투지에 넘쳐 굳세게 살며 싸워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통일혁명당원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고 포악한 파쑈광풍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겠습니다.

주체의 전위로 살며 싸울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우리는 기어이 통일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알차게 추진시켜 반혁명세력을 압도할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이며 광범위한 군중을 주체의 기치아래 굳게 집결시켜나갈것입니다.

당면하여 우리들은 인간의 자주성과 생존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파쑈체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우리 당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전민족적대화와 남북합작을 통해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과감히 조직전개하겠습니다.

편지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을 재일동포들이 뜻깊게 기념

1979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7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에 와 경애하는 수령님께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축하와 충성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4월15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흠모하여 마지않는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축하문을 드리였다.

4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7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총련 부의장들과 국장들, 각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및 도꾜도내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5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대회참

가자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삼가 편지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부의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7돐이 되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의 앞길을 밝게 비쳐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찬란한 해돋이였다고 지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4월 13일저녁 도꾜에서 축하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총련일군들을 비롯한 일본의 각계인사들, 일본주재 각국의 외교사절들 도합 41개국 1천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총련 부의장과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에앞서 4월 11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총련간부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남녘겨레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을 뜻깊게 기념

〔각종기념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많은 나라들에서는 각종 기념행사들을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지아우르 라호만은 지성어린 선물을 보내여왔으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4월 15일에 꽃바구니를 전하였다.

인도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을 여러가지 행사들로 크게 기념하였다.

197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공화국의 수도 뉴델리 만쎈트 마르그에 있는 골든 쥬빌리회관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종합대학 부총장들과 국회의원 28명을 포함한 50여명으로 구성된 인도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66개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0여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앞으로 인도공화국 총리와 세계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 학계, 언론계, 저명한 개별적인사들이 축전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4월 15일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회의장에서 인도중앙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하였다. 공연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이에 앞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개막과 때를 같이하여 인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 《날로 륭성번영하는 주체조선》이 열렸다. 전시회개막식에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과 인도의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도 열렸다. 사진전시회끝에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사진전시회를 돌아본 국회의원 라즈 레사르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실뿐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주석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국회의원 에이. 아쇼크 라즈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도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시회, 우리 나라 수공예품 및 사진전시회와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 혹은 영화감상회들이 오지리, 스웨리예, 베닌, 프랑스, 페루, 가이아나, 단마르크, 또고, 모잠비끄, 말가슈, 애급, 알제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감비아, 수리아, 이슬란드,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시에라레온, 말따 등 많은 나라들에서 있었다.

4월 12일 감비아의 수도 반줄에서 열린 우리 나라 도서, 사진전시회및수공예품전람회에는 이 나라 부대통령과 정부고위관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1천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4월 16일 감비아공화국 대통령 다우다 카이라바 쟈와라와 부인 및 외교부장이 전람회를 참관하였다. 대통령은 참관을 마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큰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였다.

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람회도 이 나라 대통령이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모임, 연구토론회들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레바논, 가이아나, 시에라레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전선 《김일성동지 로작및혁명력사연구위원회》, 스웨리예에 있는 칠레인들인 로드리고 암브로시오 전우들의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단마르크 랑게랜드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소조》,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중앙위원회, 인도친선협회, 그리고 전인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에서 연구토론회 혹은 연구모임을 가지였으며 알제리에 있는 칠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와 브라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련합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뜻깊은 4월 15일을 맞으며 모잠비끄, 수리아, 유고슬라비아, 스웨리예, 이슬란드, 수단, 네팔, 소말리아, 일본에서는 연회, 경축집회, 경축야회들이 진행되였으며 인도, 소말리아, 스웨리예, 탄자니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념강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저명한 인사들이 글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에서 출판한 책 《혁명의 탄생 4월 15일》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다.

1979년 4월 15일은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이 되는날이다. 이 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의 이름으로 그이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담아 소박한 이 책을 출판한다.

김일성주석동지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말가슈, 꼬스따리까, 모잠비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단마르크작가이며 기자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아르네 헤를로브 피터슨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탁월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인포메이숀》을 비롯한 이 나라 5월 21일부 신문들이 이 글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또한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 꼬르마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량심이며 조선인민의 상징이시다》라는 글을, 파키스탄기자들의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책임자 아쉬라프 하쉬미는 《주체는 필승불패의 무기》라는 글을 각각 발표하였다.

단마르크신문들에 실린 아르네 헤를로브 피터슨의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민족의 재생과 새 조선의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해돋이였으며 영광찬란한 혁명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려명을 안아온 일대 혁명적경사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투쟁행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심오한 진리로 어두운 지구를 비쳐주는 태양과도 같이 전인류에게 광명의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을 맞이하고있는 오늘 세계인민들은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인류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신문, 통신, 방송, 잡지들이 광범히 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세계 많은 나라 신문, 통신, 잡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또한 기념론설들을 싣거나 기념특집을 조직하고 사진과 함께 여러가지 글을 편집하였다. 방송과 텔레비죤방송들은 특별방송, 기념방송, 특별방영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시에라레온, 핀란드, 소말리아, 기네, 잠비아, 인도, 말가슈, 수리아, 방글라데슈, 이딸리아, 부룬디, 기네, 빠나마, 탄자니아, 말리, 애급, 마로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신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기념글을 싣거나 혹은 우리 나라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사진과 글을 편집하였다.

또한 가봉, 자이르, 또고, 탄자니아, 유고슬라비아, 가이아나, 시에라레온, 기네, 말가슈, 산또메 프린시페 등 여러 나라 방송과 텔레비죤방송들이 기념방송, 특별방송, 특별방영을 하였으며 말가슈의 안따통신을 비롯한 여러 통신들은 그이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소식들을 광범히 전하였다.

말레이시아신문 《우투산 말레이시아》 4월 14일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옹근 3면에 걸쳐 특집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날 신문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마그라비 파키스탄》 4월 15일부는 웅장화려한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67돐을 성대히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조직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새조선》 특간호를 발행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는 4월에 잡지 《자주의 시대》를 발행하였다.

이밖에도 세계 많은 나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여러 가지 기념행사들로 뜻깊게 기념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9년에 당의 품속에서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 동무들을 몸소 찾아주시고 그들을 숨은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인민들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운동에로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한두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영웅이 되고 나아가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다 영웅이 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24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며 조국을 거창한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그 수준은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또한 이 운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이해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 운동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져 수령님과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여

1979년 10월 8일부 우리 나라의 신문들과 방송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보여준 백설희, 김상련 동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을 안겨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영웅들을 몸소 찾아내시여 그토록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였다.

10월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기쁜 소식을 하나 알리겠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에 학자들속에서 연구해오다가 한때 중단되였던 한 작물이 10년만에 수확이 높은 새로운 품종으로 다시 나타난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을 만들어낸 한 녀성과학자의 영웅적인 탐구과정에 대하여 친히 소개하신 다음 바로 그 숨은 영웅을 찾게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한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년전 자신께서 이름을 달아주시고 몸소 저택의 정원에서 시험재배하셨던 그 작물의 새품종이 나오고 그것이 매우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뒤로 미루시고 곧 돌아오시여 협의회를 마련하시고 새 품종의 재배와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새 품종을 만들어낸 사람을 찾도록 하시고 그를 부르시였다.

이리하여 백설희동무는 식물재배사업에 몸바쳐 나선때로부터 15년,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품종의 연구를 시작한 때로부터 10년만에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로 향하였다.

10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설희동무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새 품종의 작물연구에서 얻은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전사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치하하시고 그의 연구성과를 일반화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이리하여 백설희동무는 다음날 이처럼 뜻깊고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회의에서 그가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경력을 하나하나 소개하시면서 백설희동무는 당과 혁명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쳤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백설희동무에게 그가 그처럼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증을 수여하시였으며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을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백설희동무에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한 생물학박사증과 메달을 친히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농업과학원산하 농장지배인 김상련동무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상련동무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동무라하시면서 그가 당에서 새품종을 육성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오래동안의 연구사업과 시험을 거쳐 새품종을 얻어내기까지의 경위며 이해에 전반적으로 도입하여 큰 은을 낸 그 농작물 종자의 우월성에 대하여 소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김상련동무는 이미 김일성상을 받았고 박사칭호도 받았다는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것을 제기하시고 손수 그의 앞가슴에 금메달을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백설희동무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선 성천군 10월7일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장재산동무도 높이 평가하시고 당일군에게는 명예가 필요없기 때문에 다른것을 표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당일군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할 평범한 일로만 생각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일군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훌륭히 보여준 한전사의 숨은 노력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처럼 친히 부르시여 중요한 회의에 참가시켜주시고 그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여주신것이다.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온 사회에 격동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숨은 영웅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그리고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에 대하여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느한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에서 이룩한 새로운 성과를 친히 료해하시고 그들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신것이였다.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작물재배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백설희동무를 발견하였는데 이번에 여기에 와서 박영철동무와 같은 숨은 애국자를 또 찾았다고 말씀하시였다.

10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이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을 평양으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주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킨 박영철동무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박영철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을 마련하여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여 그의 가슴에 금메달과 훈장까지 몸소 달아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누가 보든말든 명예와 공명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묵묵히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온 숨은 영웅들을 친히 찾아내시였으며 그들이 남몰래 흘린 충성의 땀과 노력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는것으로 찬란히 빛내여 주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육성과 그 출현,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 따뜻한 보살피심의 결과이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바쳐온 숨은 영웅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교육을 받고 자라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전사들이다.

숨은 영웅이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을 가리켜 부르는 고상한 칭호이다. 조국과 인민앞에 큰 공헌을 하고서도 그 어떤 명예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나가는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의 미풍은 만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인 로력영웅, 박사 백설희동무는 1964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생물학전문가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지 5년밖에 안되던 1969년 2월에 연구소로부터 중요한 연구과제를 받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시고 연구사업을 할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 주시였으며 몸소 저택에서 재배시험까지 해오시던 한 작물의 새품종을 만드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이였다.

백설희동무는 성공하기까지의 10년간 비상한 열정과 탐구의 정신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자매과학을 학습하고 거치른 일기조건에서 재배시험을 거듭하여 미지의 과학세계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한치한치 근기있게 점령해나갔다.

1974년가을 백설희동무는 6년동안의 고심참담한 탐구과정을 거쳐 연구사업에서 성공하였다. 그러자 조직과 동지들은 당에 준 리익으로 보나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보나 백설희동무가 입당청원을 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학위론문을 쓸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에게 빨리 결혼할것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아직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여 수령님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백설희동무는 자기의 최대의 소망도 영광의 날도 다 뒤로 미루고 1975년봄에 더욱 어려운 탐구의 길에 올랐다. 그는 연구장소를 옮겨 5년간 새 작물품종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것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넓은 전망까지 열어놓고야 말았다. 이 과정에는 그의 숨은 노력과 함께 이곳 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장재산동무의 뜨거운 방조가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 연구결과를 보고드릴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던 백설희동무는 자기의 연구결과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미진한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자책과 송구스러움을 금치못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이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하였다.

그리하여 백설희동무가 생물학연구분야에서 10년동안 쌓아올린 공로는 그처럼 큰것이였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것이다.

농업과학원산하 농장지배인인 로력영웅이며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박사인 김상련동무는 오직 당과 수령님만 믿고 과학연구사업의 27년세월을 주체농법을 꽃피우는데 고스란히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한 혁명전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육종사업과 채종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수확이 높은 우량종자들을 빨리 길러내여 모든 작물들의 품종들을 새로운 우량품종들로 갱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김상련동무는 다수확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육종사업에 대담하게 나섰다. 그는 한 작물의 가장 좋은 품종을 얻어내기 위해 그 작물과 다른 한 식물을 교잡시킬것을 생각하고 4년동안의 정력적인 탐구끝에 한알의 종자를 얻어냈다.

1962년 8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구집단의 시험포전을 찾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육성한 그 품종에 그의 이름을 따서 《상련종》이라고 친히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그후 김상련동무는 올종자로서 다수확품종을 얻을수 없다는 기성리론에 종지부를 찍고 상련종을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게 생육기일이 보다 짧은 다수확품종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보수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그를 방해해나섰다.

김상련동무는 사소한 동요도 없이 올품종으로서 다수확종자를 얻어내는 바로 이것이 주체적인 육종방침을 빛내이고 옹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육종학도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옹호하는 무기로 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명하는 위력한 공간으로 되여야 한다는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새품종연구에 모든것을 다바쳤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다시 이곳 시험포전을 찾으시고 우리 나라에 있는 작물가운데서 올종으로 알려진 작물과 상련종을 교잡하면 생육기일을 앞당길수 있을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친히 교잡쌍까지 선택해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평범한 과학자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최신연구설비와 시험장, 온실 등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해결해주시고 시험포전이 참새에 의한 피해가 있을세라 새그물, 렵총까지 보내주시였다.

김상련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마침내 과학연구사업에 몸바친지 27년만에, 그리고 우리 나라 기후와 풍토에 맞는 다수확작물의 새품종을 얻어내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여년만에 당이 맡겨준 과학연구사업에 성공하였다.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로력영웅, 박사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물소재생산의 현대화에 성공함으로써 기계공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큰일을 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 박영철동무는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주물작업에서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술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아직 주물력사에 없는 전혀 새로운것이였고 기성리론대로 하면 실현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성리론과 그 신봉자들의 궤변을 짓밟고 고심어린 탐구와 시험을 거쳐 그리 크지 않은 70키로그람 남짓한 주물소재생산의 현대화에 성공하였다.

평양에 있는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이 만든 첫 제품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며 높이 평가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대형주물소재를 만들어낼수 있는 큰 설비를 만드는데 떨쳐나섰다.

그들앞에는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였다.

그러나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만 굳게 믿고 이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로동계급이 그들을 도와나섰다.

이리하여 240번의 시험끝에 마침내 박영철동무는 3년여의 세월 모든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온 새로운 방법에 의한 대형주물소재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박영철동무는 주체형의 기술인테리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량심의 소유자였다.

그는 새로운 첨가제를 도입하여 무려 280회의 시험끝에 모든 기술적요구를 갖춘 주물품이 나와 모두가 환성을 올릴 때에도 결코 성공에 만족을 모르고 첨가제에 대한 연구에 계속 전념하였다. 그속에 들어있는 첨가제는 전국의 각지에서 수집한 80여종의 재료가 배합된것이므로 전국의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도입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한두가지의 재료에서 첨가제로 쓸수 있는 필요한 성분을 분석해냈다.

박영철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주물작업에서 힘든 일을 다 없애버리기 전에는 단 한줄의 론문도 쓸수 없다면서 7년간의 고심참담한 노력의 열매에 대한 명예를 굳이 사양했다.

연구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보고드리자는 동지들의 권고를 듣고 그는 주물직장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고 말할수 있게 되였을때 보고드리자고 말하였다.

박영철동무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특출한 과학기술발명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였다.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동무의 연구사업을 도와준 성천군 10월7일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장재산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투철하게 체현한 혁명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데서 네일내일 가리지 않고 철저한 당적립장,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작풍, 이것이 장재산동무가 발휘한 고상한 혁명가적풍모이다.

장재산동무는 21년간 협동농장 초급당비서로 사업해오면서 당의 신임과 배려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다. 그는 농사를 잘 지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장재산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업에서 남의 일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설희동무가 육종연구사업을 기후와 토양조건이 다른곳으로 옮기려 할때 자진하여 그를 자기 농장에 데려다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장재산동무는 백설희동무가 진행하고있는 육종연구사업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중요한 일이란것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성심성의로 그의 연구사업을 도와나서게 하였으며 자신이 이 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폭풍우가 쏟아져 큰물이 날 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자신이 앞장에 서서 흙가마니를 쌓아 시험포전을 보호하였고 봄에 심은 시험종자 몇포기를 짐승이 파먹어 백설희동무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던 때에는 내가 미처 돌봐주지 못해 그렇게 되였다고 몇번이나 외우면서 밤새워 밭머리에서 같이 경비를 서주고 울바자를 만들어주었다.

장재산동무는 또한 백설희동무가 조직과 당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면서 그가 정치적생명을 변함없이 빛내여 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 어떤 명예와 공명도 바라지 않고 충성의 한길에 몸바쳐나가는 그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동지적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올릴 백설희동무의 육종연구사업은 더욱 앞당겨졌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대중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이 운동이 시작된때로부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당보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지상토론이 수개월동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만들

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의 특징과 위력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풍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숨은 영웅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였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현시기 우리 혁명과 건설, 당사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이 운동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때문이다. 이 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여기에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당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다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우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온 사회에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해나가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 운동에서 이룩되고있는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이 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은 또한 나라의 과학기술연구에서 주체가 더욱 철저히 서고 그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간고분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여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다는데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적 발기와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이해계획과 새전망계획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또한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있는데 있다.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더욱더 개선되고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경제문화건설,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이 놀라운 현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의 목표수행에로 불러 일으키는 세련된 령도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여왔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당이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인민대중은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지향으로 불타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만 벌어질수 있는 자랑찬 진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9~20페지)

1979년에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아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라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력사에 자랑찬 업적을 기록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촉진되였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이해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깊이있게 하였

으며 당의 방침을 환히 꿰들고 당의 의도와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기 위한 사업과 당중앙이 이끌어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다.

이해에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을 수많이 하였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물방법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벌어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폈으며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적발기들이 나오고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민경제는 주체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참말로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경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의 공업총생산액은 이해에 1978년에 비해 115%로 늘어났으며 농업부문에서는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다.

전체 인민이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국민소득이 빨리 늘어나 1979년에 인구 한사람당 1,920딸라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해에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욱 높아져 3대혁명소조운동은 더 큰 은을 나타냈다.

채취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 부문 로동계급과 함께 안주지구탄광을 비롯한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 탄광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수송전선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와 철도현대화사업 그리고 남포항, 해주항의 확장공사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여 그 기일을 앞당기고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해에 농업부문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앞장에 서서 대중을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신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그 선두에서 활동하는 혁명의 전위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9년 10월 7일 백설희, 김상련, 장재산 등 숨은 영웅들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면서 이런 숨은 영웅들이 많기에 우리 공화국이 위력하고 우리 당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인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영철동무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면서 이런 숨은영웅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나라가 위대하다고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오직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인민의 힘만 믿으시고 모든 로고를 바쳐가시며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님, 수령님의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일념을 가지고 오직 그이만을 믿고 따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을 바쳐가는 우리 인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신념,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굳게 결합된 수령과 인민대중의 깨뜨릴수 없는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의 불패의 힘이 있다.

1979년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렸으며 이 우람찬 진군속에서 당중앙이 지펴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줄기차게 벌어짐으로써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기상이 약동하였다.

그리하여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이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신년사》, 1980년판, 단행본, 5페지)

1979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해에도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혁명위업을 선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곳마다에서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드높은 결의가 울려나왔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들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을 벌려나가는 우리 당은 이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해에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였다.

특히 이해 3월 11일에 진행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는 전체 선거자들이 100% 참가하여 100%찬성투표함으로써 우리의 인민주권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인민은 이해의 보람찬 투쟁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튼튼히 가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것은 1979년에 이룩된 무엇보다 귀중한 성과이며 이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가 높이 휘날린 1970년대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1979년에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진행

1979년 3월 11일, 우리의 혁명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선거는 이날 9시부터 시작하여 20시에 끝났다.

외국에 려행하고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년로, 신체불구, 병 등으로 인하여 선거장에 나오지 못한 선거자들은 이동선거함에 투표하였다.

선거에 참가한 전체 선거자의 100%가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룡성과 우리 혁명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는 일군들이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선거된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모두 24,247명이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회의 및 모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회의 및 모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빨리 추켜세울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9년 6월 하순부터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종업원궐기모임들을 가지였다.

철도부산하 평양, 함흥, 개천, 청진 철도국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의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수송조직사업을 잘하고 철도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수송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철도운수문제를 풀기 위한 전망적인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

다.

모임들에서는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짐나르기실적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여 있는 수송수단을 가지고 짐나르기계획을 훨씬 앞당겨끝낼것을 다짐하였다.

모임들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오직 규률규정과 다님표의 요구대로만 움직이며 새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를 빨리 다그치고 철길보강사업, 역구내선확장공사,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를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또한 전국각지에서는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공장기업소들과 인입선이 있는 시, 군들에서 궐기모임을 열고 역의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공사들을 맡아나설것을 다짐하였다.

6월 20일 순천군내의 근로자들이 궐기모임을 가지고 철도인입선들의 전기화, 역구내확장공사들을 도울것을 결의하였으며 6월 21일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지원자들이 대안시에서 궐기모임을 가지고 철도전기화공사를 맡아하며 이 공사를 지원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평양—남포사이 철도전기화공사를 청년들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해낼것을 결의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 기업소 청년들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철도전기화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청년들속에서 철도전기화공사를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7월 상순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더욱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철도를 더잘 도울데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두가 운수부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갖게 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교통운수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모임 및 회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1980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소식에 접한 전국의 근로자들은 이 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들을 가지였다.

1979년 12월 19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한 보고와 토론자들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의 대회로 될것이며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새로운 총진군의 대회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진군운동에 떨쳐나서 전국의 앞장에서 전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다음해에 평양시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시내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당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완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평양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있은 다음 12월 20일부터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 궐기모임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12월말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1979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과업에 따라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으며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며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 협동생산을 잘하여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

파 역할을 높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모임들

남포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1월 21일에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시군중집회가 1월 26일 2만여명의 근로자들의 참가밑에 남포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항 건설과 운영을 잘하며 남포시를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로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남포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5월 14일에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을 5월 17일에 또다시 가지였다. 근로자들은 모임에서 항을 더 잘 꾸리고 배수송을 늘이며 도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남포항의 세멘트싸이로, 밀싸이로와 벨트콘베아, 수송관, 항종합지령실을 건설할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남포도시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 이해안으로 새로 형성되는 와우도지구 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내며 해상동물원, 아동공원과 현대적인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잘 건설하며 록지를 형성하여 남포시가 항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1일 또다시 남포시를 찾으시고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9월 1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은 모든 근로자들이 떨쳐나서 남포항건설을 빨리 끝내며 와우도—체육촌지구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완공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날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건설자들과 이 공장 종업원, 지원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제1종합가공직장 건축공사를 이해안으로 끝내며 보이라, 주물, 주강, 단조, 목형 등 생산에 급한 공정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완공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함경남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흥시와 도내의 공장, 기업소들의 궐기모임이 6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진행되였다.

함흥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큰 화학공장이 많은 조건에 맞게 도시의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더잘 조성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룡성기계공장 종업원들의 모임은 대형공작기계들을 더 생산하며 가공능력을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대상설비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을 강조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은 설비보수를 제때에 하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비날론, 염화비닐, 가성소다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을 더많이 생산하고 농약생산을 늘여 이해 인민경제계획을 10월 10일 전으로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해나섰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은 설비관리를 알뜰히 하여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당면하여 생산조직을 잘하고 증산투쟁을 벌려 농촌에 더 많은 화학비료를 보내줌으로써 이해의 대풍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함경남도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광물생산과 광업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단천지구의 광업련합기업소와 광업건설련합기업소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종업원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산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결의문에서 광산설비들의 현대화, 대형화를 위한 투쟁에 계속 힘쓰며 이해의 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낼것을 다짐하였다.

검덕광산종업원들의 결의모임은 일별, 월별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채굴, 운반, 선광 작업을 짜고드는 한편 지금 하고있는 선광장들의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며 그 능력을 1.5배 이상 높이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제2계단공사를 다그칠것을 강조하였다.

룡양광산, 단천마그네샤공장 종업원들도 생산실적을 훨씬 높일것을 결의하였다.

광업건설부문기업소 종업원들은 결의모임에서 단천지구를 대광업지구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검덕광산과 룡양광산의 확장공사, 단천마그네샤공장의 110메터 회전로건설 등 중요한 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청진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6월에 주신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청진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6월 24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은 흑색금속공업발전에 큰힘을 넣어 철강재 생산능력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김책제철소와 청진제강소에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이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김책제철소에서 해탄로보수를 빨리 끝내고 그 능력을 높이는 공사와 랭간압연분공장건설

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문제 등 새로운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모임은 지적하였다. 모임은 또한 무산광산의 선광장건설을 빨리 끝내여 광석처리능력을 높이는 한편 수송사업을 강화하여 더많은 정광을 제철소에 보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쓸 큰 짐배를 무어내기 위한 사업과 청진화학섬유공장을 더욱 현대화하고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남청진지구에 더 많은 살림집을 지으며 무궤도전차길을 더 늘이고 자전거를 비롯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서도 지적하였다.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청진조선소, 제2금속공장건설련합기업소 등 시내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종업원들의 결의모임이 있었다.

함경북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6월 청진시와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경북도 김책시, 라진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과 도내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근로자들의 결의모임이 6월 23일부터 27일사이에 진행되였다.

김책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성진제강소에서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전기로에 먹일 철을 자체로 생산하는 투쟁을 벌리며 이 사업을 시내의 모든 단위에서 적극 지원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였다.

라진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라진시를 항구문화도시로 더 잘 꾸리며 당면하여 라진항부두를 꾸리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갈것이 지적되였다.

북부지구석탄공업총국산하 탄광들에서 있은 종업원들의 결의모임에서는 탐사사업과 굴진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탄광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북부산업건설련합기업소산하건설자들은 결의모임에서 아오지화학공장과 회령크라프트지공장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끝낼 문제를 내세웠다.

어랑군 두남협동농장과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도내의 협동농장들에서 있은 농장원결의모임들에서는 날씨가 찬 함경북도의 기후조건에 맞는 농법을 적용하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비료를 잘 배합하여 주며 물대기,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것이 강조되였다.

평안북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1979년 8월 29일, 30일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의주시 근로자들의 결의모임이 9월 3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깊이 학습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도내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은 우선 알곡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식량예비를 조성하며 알곡보관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군중적운동으로 큰물이 날수 있는 강상류를 빨리 막고 거기에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며 해안방조제공사를 다 그치는 한편 규소비료, 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농기계들의 부속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이해 농사를 잘 결속짓고 다음해농사차비를 잘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였다.

특히 강냉이영양단지를 100%할수 있게 부식토준비를 잘하며 담배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은 봉화화학공장건설을 10월 10일까지 끝내며 8월8일공장, 락원기계공장, 4월3일공장, 8월28일공장을 비롯한 도내의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자재공급,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기능공들을 고착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전극공장, 가성소다공장 건설과 새로운 광산개발을 빠른 속도로 내밀데 대하여 모임은 강조하였다.

모임은 끝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9월 16일과 17일 황해북도내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리원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9월 20일 시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지어 알곡수확고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벼모를 튼튼히 길러 제철에 내며 강냉이영양단지를 100%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모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제철에 해제끼며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비료를 주고 물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다락밭건설과 새땅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밑에 힘있게 벌리며 담배, 포도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면하여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여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모임은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9월 17일~21일 황해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해주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9월 26일 시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은 우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모든 농장을 선진농장의 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벼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하며 종축장을 더 건설하고 집집마다 돼지를 길러 많은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내며 강냉이영양단지를 100%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미있는 농기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도내의 농기계공장들에서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을 더많이 하여 농촌에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또한 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주항을 더잘 꾸리며 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더 건설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한편 해주세멘트공장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 조수력발전소건설준비사업을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도안의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이며 갈밭조성과 그 관리사업을 잘하고 제지공장을 자체로 건설하며 농촌문화주택건설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모임은 지적하였다.

량강도에서 1979년 7월 26일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혜산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8월 3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은 먼저 도내의 혁명전적지들을 더욱 알뜰히 꾸리고 대를 이어 보존하며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심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은 산림보호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고 산림조성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해마다 계획의 1.6배이상되는 산림을 새로 조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초두목과 아지까지 다 운반하며 통나무나르기에서 류벌을 적극적으로하여 이해계획을 40일앞당겨 끝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림산화학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탐사사업을 강화하며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일데 대하여서와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 중소형발전소들을 여러곳에 건설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은 혜산방직공장, 혜산제지공장에서 천과 크라프트지의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서도 지적하였다.

모임은 량강도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밀농사를 잘 짓고 호프생산을 늘이며 도의 특성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자강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10월 18일 희천공작기계공장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와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희천공작기계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0월 21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에 이미 마련된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작기계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해 생산공정들에 계속 만부하를 걸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공작기계생산을 계획의 1.4배로 늘이고 생산을 더 높일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는 한편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더 높이는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모임은 지적하였다.

모임은 또한 공장내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소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가공부문의 공정간, 기종간 균형을 더 잘 맞추며 프레스화, 형단조화 비중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모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공장내의 모든 단위에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설비관리, 기술지도, 자재보장, 로력보장사업을 깐지게 하며 모든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락밭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시,군 근로자들의 궐기 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9년 9월 평안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모든 군들에서 해마다 100~200정보씩 한 3년간 다락밭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시, 군 근로자들의 궐기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안남도 강동군내의 근로자들이 9월 12일에 선참으로 궐기모임을 가진 뒤를 이어 10월에 중화군, 상원군, 평성시, 신양군, 북창군, 맹산군, 대흥군, 신평군, 라진시, 길주군, 단천군, 덕성군, 허천군, 오로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다락밭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이 농민들을 로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모임들에서는 다락밭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 시,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 대중을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은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해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다락밭건설장들에 더많은 로력, 운수수단, 기계설비, 자재들을 보장해 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주요기념일 및 기념행사

위대한 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15년

1979년 2월 2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지 15돐이 되는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농촌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몸소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64년 2월 25일 농촌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공산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였다.

테제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력사적지위, 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는데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3페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개인리기주의, 소소유자적근성을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오늘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당이 내세운 알곡고지점령을 위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이악하게 농사짓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농촌기술혁명의 불길속에서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농촌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수리화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여 《관개의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지금 우리 나라 도처에는 1,500여개의 크고작은 저수지들이 있고 지구를 한바퀴 돌수 있는 물길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다.

우리 나라 농촌은 전기화도 이미 완성되였다. 농촌테제를 발표하기전인 1963년말에 벌써 농촌전인력가운데서 동력비중이 71%나 차지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비할바 없이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완성된 농촌전기화는 수리화, 종합적기계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은 매우 높다. 농촌에는 모내는기계, 모뜨는기계를 비롯하여 종합수확기, 종합탈곡기, 자동차, 뜨락또르들이 수많이 생산공급되였다.

농촌테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1963년에 농촌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0.9대였다. 그런데 농촌테제발표후 10년이 지난 1974년에는 그 총 대수가 4배이상 늘어나 7~8만대에 달하였으며 경지면적 100정보당 벌방지대에서는 4대, 중간지대에서는 3대로 늘어났고 매 농장에 20여대의 뜨락또르가 차례졌다.

그런데 1977년에는 또다시 그 대수가 부침땅100정보당 평지에서 6대, 중간과 산간 지대에서는 5대로 늘어났으며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는 8~10대의 확고한 전망을 보고있다. 일부 협동농장들에는 벌써 이해에 8~10대씩의 뜨락또르가 들어갔다.

이 성과는 우리 나라가 이미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동차대수도 훨씬 늘어났는데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는 한개 농장에 3~4대씩 차례지게 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급속히 촉진되였다. 1963년에 우리 농촌에서는 정보당 300키로그람의 화학비료를 시비하였다면 1974년에는 1톤이상으로 늘어났고 1984년에는 2톤에 이르게 된다. 해방전에 화학비료란 말조차 모르던 우리 농민들은 오늘 화학비료, 살초제, 미량원소, 성장촉진제, 성장억제제 등 여러가지 농약을 구색에 맞추어 쓰고있다.

또한 모든 농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며 농업과학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성과가 달성되였다.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된 이 성과는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1974년에 알곡생산은 1946년에 비해 3.5배, 1963년에 비해 2배로 장성하였다. 1979년에 우리의 농업은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으며 가까운 몇년사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우리의 농업은 벼정당수확고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강냉이농사는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잡았다.

세계는 1961년부터 1976년기간에 논벼 정당수확고를 375키로그람 장성시켰다. 그런데 지난날 논벼 정당수확고가 2~3톤이던 우리 나라에서는 테제발표 10돐이 되던 1974년에 벌써 5.9톤을 내여 세계최고수준에 올라섰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

1978년에 세계 강냉이 정당수확고는 3톤 82키로그람이였는데 1974년에 우리는 벌써 전국적으로 강냉이정당수확고를 5톤으로 높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모두가 중학교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련이어 더 높은 지식을 배워나간다. 또한 농촌진료소들이 병원화되였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며 농민들은 유급휴가와 정휴양생활을 하고있다. 모든 농촌들에 수도화가 실현되고 매 농촌들에 뻐스가 들어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의 차이가 점차 없어져가고있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다 세금을 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지만 그 첫 혜택을 받은것은 농민들이다. 농민들의 살림집도 국가의 돈으로 건설해주고있다.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떨치고있는 이 거대한 변혁은 전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이룩된것이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을 기념

1979년 12월 16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을 따라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기 시작한지 20돐이 되는 날이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이 처음 열렸을 때 세계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세기적인 인도주의사업》이라고 하면서 경탄하였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거창한 력사적사업을 벌릴수 있게된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며 그이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원래 재일동포들의 이국살이력사는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하여 시작되였다. 그후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을 등지는 동포수가 늘어났다. 더우기 일제는 제놈들의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집단적으로 끌어가 그 수는 무려 150여만명을 헤아리게 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간고한 시기에도 친히 일본에 공작원을 파견하시여 조국광복을 위한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밝혀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을 올바른 투쟁의 길로 이끌어 그들이 반일투쟁에 과감하게 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장차 전민족의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여 조국의 강대한 위력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돌보아줄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이 아니라 바로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주체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무어주시였으며 총련으로 하여금 귀국의 권리를 포함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재일조선동포들의 귀국념원을 앞당겨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요구를 실현할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조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귀국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전동포적인 애국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이 투쟁은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재일동포들의 귀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마침내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였다.

1959년 12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국선들이 일본 니이가다항에 도착하여 제1차로 귀국하는 재일동포 975명을 태우고 12월 14일에 출발하여 16일 조국의 땅 청진항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영광의 길을 따라 지난 20년동안 183차에 걸쳐 근 10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모든 귀국공민들이 참다운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시고 여러 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보람찬 정치생활을 할수 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동포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와 현대적으로 꾸려진 아담한 살림집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정휴양과 사회보장의 혜택까지 받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에 고무된 귀국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첫날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재간이 있는 사람은 재간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귀국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백수십명의 귀국동포들이 최고인민회의까지 이르는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다. 또한 수많은 귀국동포들이 정무원과 도, 시, 군 행정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에서 그리고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부지배인으로,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기사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귀국동포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움으로써 백수십명이 혁명전사들의 최고영예인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과 로력영웅칭호를 받았으며 1만 수천명이 국가수훈의 영광을 지니였고 귀국실현 20돐을 맞는 이해에 또다시 3천여명이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7천여명의 귀국청년들이 대학을 거쳐 100만인테리대오속에 섰으며 무려 2만여명이 공훈교원, 공훈예술가 등 각종 명예칭호와 학위, 학직, 전문가자격을 수여받았다.

이것은 귀국동포들 10명중 3명이 각종 국가수훈과 명예칭호를 받은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영광의 배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길을 굳건히 지켜주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에로의 래왕과 제3국에로의 려행의 길까지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8년간이나 귀국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만두었을 때에도 일본에 재일동포들이 있고 귀국희망자가 있는한 귀국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거듭 천명하시고 귀국배길을 다시금 이어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귀국사업을 위해 귀국선 《만경봉》호를 무어주시였으며 이해부터는 재일동포들의 단기조국방문을 위해 려객선 《삼지연》호를 보내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여 인류해외교포운동에 세계사적공헌을 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들은 조국인민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자랑찬 업적과 위훈을 빛내이고있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기념 중앙경축 보고회

1979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기념 중앙경축보고회가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정무원부총리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들을 귀국시킬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그에 보답해온 귀국동포들의 자랑찬 업적과 위훈을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재일조선인감사단 단장이 축하연설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드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된 축기를 재일조선인감사단 단장이 전달하였다.

한편 12월 18일 청진시에서는 그곳에 세운 재일동포들의 귀국유래비제막식이 있었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에 즈음하여 전국 각지의 도, 시, 군 영화관과 문화회관들에서는 12월 12일부터 영화상영주간이 시작되여 18일에 끝났다.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여

(청진시에 세워진 귀국유래비 비문)

지난날 망국의 원한에 피눈물 뿌리며 바다넘어 일본으로 끌려갔던 겨레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손길따라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돌아왔어라.

돌이켜보면 왜적의 침략에 해와 달도 빛을 잃었던 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험산준령 넘나드시여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으로 나라를 찾아주셨나니, 살아 살곳없고 죽어도 묻힐곳없던 해외동포들 존

엄있는 어머니조국을 가지게 되였어라.

장엄한 새 조국 건설의 나날 우리 인민이 경사를 맞을적마다 이역땅에 신음하는 동포들 생각에 잠못이루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 일 반동들과 매국노들의 모략을 짓부시고 살벌한 일본땅복판에 자랑스러운 총련조직을 무어주시고 민족권리옹호를 위해 나선 동포들의 존엄을 지켜주셨나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넓은길 열어주시며 애국운동의 한길로 손잡아이끌어주셨고 백전백승의 위대한 전략으로 자본주의세계의 장벽을 헤치고 조국에로의 배길까지 열어주셨거니 물결높은 동해를 넘어 뻗은 그 배길은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사랑의 다리, 끝없는 광명에로의 길이였어라.

장하여라, 천구백오십구년 십이월 십륙일, 첫 귀국선이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을 향하여 공화국기 휘날리며 동해를 넘어 달려올 때 세계는 그 대사변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경탄하였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은 진정 수난에 찼던 해외교포사상에 동포애의 빛나는 기념비로 거연히 솟아올랐어라!

항구여 산하여! 하늘땅을 환희로 흔들던 민족의 장엄한 상봉을 노래하라! 꿈인가 생시인가 부둥켜안고 흐느껴우는 남녀로소 온 세상의 환희를 모아 어버이수령님 만세를 웨칠 때 푸른 바다도 산천초목도 기쁨으로 설레였어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귀국동포들을 부르시여 은혜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셨나니 동포들은 그 품에 얼굴 묻고 흐느끼는데 아, 그이께서도 못내 안색을 흐리시는가!…

수난의 세월에 사무쳤던 설움이 태양의 사랑에 말끔히 씻겨내린 그 순간은 진정 이 나라 해외동포들이 다시 태여난 가장 행복한 순간이였어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라.

《나도 지난시기 조국을 잃고 타국에 가서 생활해보았는데 제일 그리운것이 자기 조국이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마 지난기간 조국이 없이 이국살이를 해보았기때문에 자기 조국이란 그 얼마나 귀중한가를 똑똑히 알았을것입니다.》

아, 백두산의 장군별을 우러르던 그날부터 수령님은 희망의 태양, 사람도 강산도 그이로 하여 빛을 뿌리나니 진정 은혜로운 수령님은 어머니조국이시여라!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재일동포들 귀국선 《만경봉》호로 끊임없이 주체의 조국에 돌아와 안길수 있었고,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품이 있어 혁명대오에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귀국동포들 혁명과 건설에서 위훈떨치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나니,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에 한몸바칠 충성의 마음을 담아 여기에 불멸의 기념비를 세우노라.

천구백칠십구년 십이월 십륙일

통일혁명당창건 10돐기념 평양시보고대회

통일혁명당창건 10돐기념 평양시보고대회가 1979년 8월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먼저 통일혁명당 창건준비과정을 개괄하면서 1964년 3월 15일 서울에서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일적인 당을 내오기에 앞서 남조선각지에 장차 창건될 당의 지방조직과 기층조직을 꾸리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수많은 당조직들을 꾸리고 각계각층군중을 당주위에 결속하여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1968년 7월에 《통일혁명당사건》을 발표하고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종태동지,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리문규, 김질락 등 많은 동지들을 무참히 학살하면서 이 혁명적당을 그 요람기에 말살해버리려고 발악하였으나 당대렬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당조직은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시련에 찬 투쟁로정을 거쳐 1969년 8월 25일 드디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당의 창립선언과 강령을 발표함으로써 통일혁명당의 창건을 온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또한 당기관지 《혁명전선》,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 지하출판물을 가지였다.

보고자는 통일혁명당창건후 빛나는 10년간의 자랑찬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무엇보다도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조직전개하면서 자기의 대오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꾸리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들로 꾸려지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말단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

한 조직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

통일혁명당은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이해에 들어와서 1천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카터의 서울행각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떨쳐나섰다.

통일혁명당의 영향하에 남조선인민들은 이 성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더욱더 단련되고 각성되였으며 대중운동은 자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점차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강화발전되여가고있다.

보고자는 오늘 남조선에서는 통일혁명당의 적극적인 활동과 인민대중의 애국적진출에 의하여 전반적정세는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원쑤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반제구국과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

1979년 6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20여만명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위원장이 먼저 연설하고 계속하여 로동자대표, 농민대표, 과학문화인대표, 청년학생대표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대조선정책에서 추구해온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래동안 준비해오던끝에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침략해온 사실을 폭로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저들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15개국추종국가 고용병들,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전투기술기재를 들이밀고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하면서 발악하였으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미제는 전후에도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틀어쥐기 위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 새 전쟁준비와 함께 남조선괴뢰들을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미제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들을 짓밟고 모처럼 마련되였던 남북대화를 파탄에로 이끌었으며 이해에 새롭게 이루어진 대화마저 결렬상태로 이끌어갔다.

연설자들은 미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지향에 맞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과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기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인권탄압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여야 하며 통일의 옳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의 대화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군중대회가 끝난후 20여만근로자들의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군중대회와 시위는 각도 소재지들에서도 있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1979년 10월 21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군중대회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로동자대표, 청년학생대표, 지식인대표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이해 10월 16일과 17일 남조선의 부산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여 부산대학교학생들이 일으킨 시위와 폭동을 발단으로 하여 서울과 대구, 마산, 청주 등지에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통치를 반대하는 반《정부》시위와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 불길이 온 남녘땅에 퍼져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이 정의의 투쟁을 박정희파쑈도당이 남조선전역에서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파쑈도당이 청년학생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지각없는 불순분자들의 《란동》으로 묘사하면서 일체 《경거망동》과 《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겠다고 위협해나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란동을 부리는 진짜불순분자는 다름 아닌 박정희괴뢰도당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침》이니, 《북의 군비증강》이니하고 떠들며 이번의 폭동적사태를 우리와 련결시키려 하는 목적은 진짜 불순분자로서의 제놈의 정체를 가리며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그들의 투쟁기세를 무마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연설자들은 놈들이 그 어떤 궤변과 간악한 폭압만행으로써도 결코 민주주의와 새 정치에 대한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의 지향을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진출을 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파쑈통치배들의 민족백정행위로 말미암아 부산에서 5명의 학생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60여명의 시위자들이 치명상을 입었으며 40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철쇄에 묶이여 감방으로 끌려간 참극을 지적하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은 살인악당들을 처단하고 체포투옥된 전우들을 석방시키며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박정희괴뢰《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3.1인민봉기60돐 평양시기념보고회

3.1인민봉기 60돐 평양시기념보고회가 1979년 3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모임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먼저 3.1운동과정과 그 교훈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3.1인민봉기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온 민족이 떨쳐일어나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전인민적인 항쟁이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성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불같은 지향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는 1919년 3월 1일 전인민적인 인민봉기로 폭발하였다.

투쟁에 나선 군중은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만세!》를 목청껏 웨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3.1인민봉기는 실패하였으나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옳은 강령을 내세우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 전행정은 또한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결코 나라의 독립도, 민족의 자주권도 전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운명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3.1인민봉기자들과 우리 인민이 그처럼 바라던 민족적자주권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새로운 길, 자주적인 투쟁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보람찬 자주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공산주의미래를 향해 확신성있게 나가고있다.

보고자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지적하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해초부터 마련된 남북대화가 마땅한 결실을 맺기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딴꿈을 꾸지말고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역은행창립 20돐 기념보고회

무역은행창립 20돐 기념보고회가 1979년 9월 27일 평양에서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일군들, 시내 재정은행부문일군들, 대외사업부문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는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대표단과 중국,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일본, 쏘련, 프랑스,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뽈스까, 파키스탄, 말가슈, 타이, 오지리, 영국, 서부독일, 벨지끄, 말레이시아, 화란, 카나다에서 온 은행부문 대표단 및 대표들 그리고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은행 총국장, 프랑스—로므니아은행 부총재, 영국—로므니아 은행총재, 영국아바나국제은행 부총재, 프랑스 북구라파상업은행 국장, 프랑스 구라파련합은행 부국장 등 대표단, 대표,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공동축하문이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1959년 11월 3일 무역은행이 새로 창설된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과 정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외화자금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는 지난 20년간 무역은행이 세계 5대륙의 1,000여개 은행들과 거래관계를 맺고있으며 대외결제업무량은 은행창설초기에 비하여 3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무역은행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외경제관계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맞게 다른 나라 은행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대표단 단장, 로므니아무역은행 부리사장, 파키스탄 민족은행 부총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무역은행창립 20돐을 기념하는 연회가 있었다.

외국문출판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외국문출판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1979년 12월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과 관계부문일군들, 외국문출판사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대외선전부문, 과학, 교육, 문화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외국문출판사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였다.

축하문은 외국문출판사가 창립후 지난 30년동안 당의 주체적인 대외선전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외선전물편집발행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오늘 외국문출판사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앞에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선전을 위한 출판편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확대강화하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모임에서는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가 축하문에서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당의 대외정책관철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판사내 모든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은 출판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외선전출판물을 정치사상수준과 과학리론수준이 높고 참신하고 다양하게 통속적으로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주요 대회 및 회의

전국무역일군대회

1979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무역일군대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6일 대회장에 나오시여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일군들, 무역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부총리겸 무역부장이 보고하고 많은 일군들이 토론하였다.

대회는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넓어지고 경제규모가 커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국통계일군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사회주의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 밝히신 강령적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전국통계일군회의가 1979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4일 회의참가자들을 만나시여 고무하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회의에는 정무원총리와 관계부문일군들이 통계일군들과 같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통계국장이 보고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9년 10월 21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사회주의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 새롭게 밝혀주신 사회주의통계사업의 원칙적요구들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통계사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통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통계사업에서 계산사무의 기계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서도 강조되였다.

회의는 또한 통계를 장악하고 분석리용하는 사업을 잘하며 통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경제관리의 과학화를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국열관리위원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전국열관리위원회의가 1979년 10월 6일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여 회의참가자들을 고무하여주시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시였다.

회의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일군들, 열관리공, 소성공, 로공,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고 많은 회의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 6월 전국열관리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립적인 열동력생산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열관리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열관리사업을 심화발전시켜 날로 늘어나는 열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열설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우리 나라의 연료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열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열공급을 집중화하며 중앙난방화를 실현하는것이 열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석탄을 효과있게 쓸데 대하여서와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연료를 알뜰히 보관관리하고 그 소비기준을 낮추며 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전국기자대회

1979년 8월 17일부터 2일간 전국기자대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대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은 다음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하였다.

대회는 우리의 출판물과 통신, 방송이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수행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한 지난시기의 성과를 총화하였다.

대회는 우리의 출판물, 통신, 방송들의 중요한 과업에 언급하여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 정력적으로 벌리고 혁명교양과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다.

전국철도기관차부문열성자회의

1979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철도기관차부문열성자회의가 평양에서 있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5.18무사고정시견인초파운동》을 벌릴것을 결의하였다.

회의에서 기관사들이 결의해나선 《5.18무사고정시견인초파운동》은 모든 기관사들이 견인정량보다 50톤짜리 화차 한량씩 더 끌고 무사고로 정시에 운행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철도수송전사들의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의목표가 실현되면 지금 가지고있는 기관차를 가지고도 철도화물수송량을 1.2배로 높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1979년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제2차7개년계획과제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회의는 정주기관차대 기관사들이 이 운동의 앞장에 설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기관차대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이 운동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호응해나선 전체 기관차대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들을 수리정비하며 대담하게 새 기술을 받아들여 기관차의 견인력을 훨씬 더 높일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내세웠다.

이 운동에 철도운수부문의 련관된 모든 단위들에서 합류해 나섰다.

철도운수부문청년열성자회의

1979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철도운수부문청년열성자회의가 평양에서 있었다.

철도운수관계부문일군들과 청년열성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와 1979년신년사에서 철도운수부문앞에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앞장설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이 부문의 청년들과 사로청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높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제수행에서 이들이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 모두가 당의 수송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철도운수부문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3

대 수송방침을 실현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수송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전투적기백과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전국농촌경리기계화부문일군회의

1979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농촌경리기계화부문일군회의가 평양에서 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일군들, 각지 농기계작업소 일군들, 뜨락또르운전수들, 농기계운전공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지적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데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는것이 당면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자면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벼와 강냉이 농사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또한 남새, 공예작물재배에서와 축산, 과수 부문에서 새로운 기계들을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기계운전공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전국설비관리일군회의

1979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설비관리일군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설비관리의 본질과 그 내용, 설비관리에 대한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시고 정연한 설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설비관리사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이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갖추고 설비점검보수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며 설비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등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잘하여 있는 설비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발명가, 창의고안명수회의

1979년 4월 1일과 2일에 발명가, 창의고안명수회의가 평양에서 있었다.

관계부문일군들과 인민경제의 각 부문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교시들이 전달되였다.

회의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이룩되였다고 지적하고 1978년에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대렬이 훨씬 늘어나고 발명, 창의고안건수가 전해에 비해 133%로 불어난데 대하여 만족하게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가치있는 경험도 소개되였다.

회의는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특히 공업의 원료, 연료문제를 국내자원으로 풀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채취공업, 수송, 림업, 건설,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속있게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근로단체회의

직총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17차전원회의 직총중앙위원회 제17차전원회의가 1979년 7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4월 25일 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주신 교시 집행정형을 총화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4월 25일에 주신 교시를 전달한 다음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이룩된 성과는 직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높여 직맹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조직생활을 짜고들면서 사회주의경쟁과 집단적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그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돌보아주어 모두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각급 직맹조직들이 동맹내부사업과 생산보장사업, 생활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직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의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둘째의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직맹조직들이 직맹원들속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내용을 깊이 해설침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철도운수부문 직맹조직들이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고 철도를 현대화하는 여러가지 사회적운동을 벌리며 특히 직맹원들을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 적극 불러일으킬것을 강조하였다.

회의는 운수부문 직맹일군들이 수상운수와 자동차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며 전반적수송사업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각급 직맹조직들이 철도를 지원하는 사업에 로력적 및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집행계획서와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19차전원회의 사로청중앙위원회 제19차전원회의가 1979년 4월 1일까지 이틀동안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동맹내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오늘 사로청조직들앞에는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동맹내부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동맹내부사업에서 기본은 사로청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로청원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며 사로청조직들을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꾸리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사로청사상사업의 총적방향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심화시켜나가며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교양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선전선동체계를 바로세우고 초급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로청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사로청조직들이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핵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로청조직들이 청소년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그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로청조직들이 내부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행사와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동맹내부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제20차전원회의 학생소년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을 토의하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제20차전원회의가 1979년 12월 3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먼저 지난시기 학생소년들과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것은 학생소년들이 학습하기 좋아하고 집단생활을 즐기며 일하기 좋아하면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세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로청조직들앞에 앞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더욱 억세게 키워야 할 보람찬 과업을 내세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학생소년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소년교양과 관련하여주신 교시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구현하고있

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각급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학생소년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가는데 도움을 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소년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학생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그들의 년령,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학생소년들속에서 지덕체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학습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학생소년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사로청과 소년단 지도원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각급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이 학생소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수 있게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제14차전원회의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제14차전원회의가 1979년 9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광범한 농촌군중을 망라하고있는 대중적정치조직인 농근맹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농근맹원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회의는 지적하였다.

회의는 농근맹조직들이 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학습을 깊이있게 하며 당정책교양을 원리적으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그 생활력이 확증된 해설강의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더욱 높이며 혁명전적지와 혁명박물관 등의 답사및참관 사업을 잘 배합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근맹조직들이 학습반을 잘 운영하며 겨울철정치학습을 준비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리해할수 있게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회의는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교양자료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학습 및 강연 자료를 내용이 깊으면서도 통속적으로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농근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11차전원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9년 8월 20일 녀맹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하신 교시집행정형을 토의하는 녀맹중앙위원회 제11차전원회의가 1979년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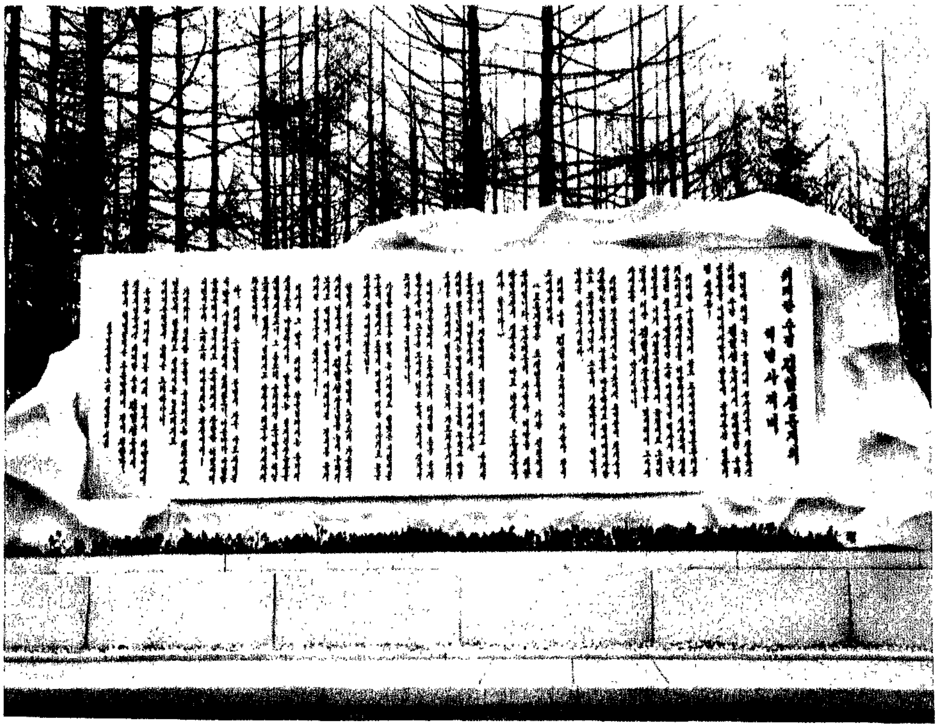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동맹내부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동맹사업이 철저히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는 조직정치사업으로 전환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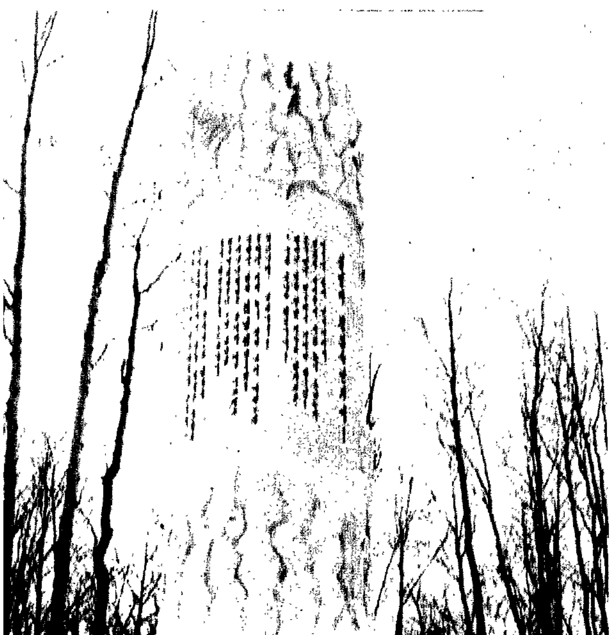
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과업을 녀맹조직들앞에 제기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위하여서는 동맹내부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동맹내부사업에서 기본은 동맹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회의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회의는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녀맹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녀맹원들속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많이 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새로 세운 신사동 혁명사적비와 청봉헌시비

삼지연혁명사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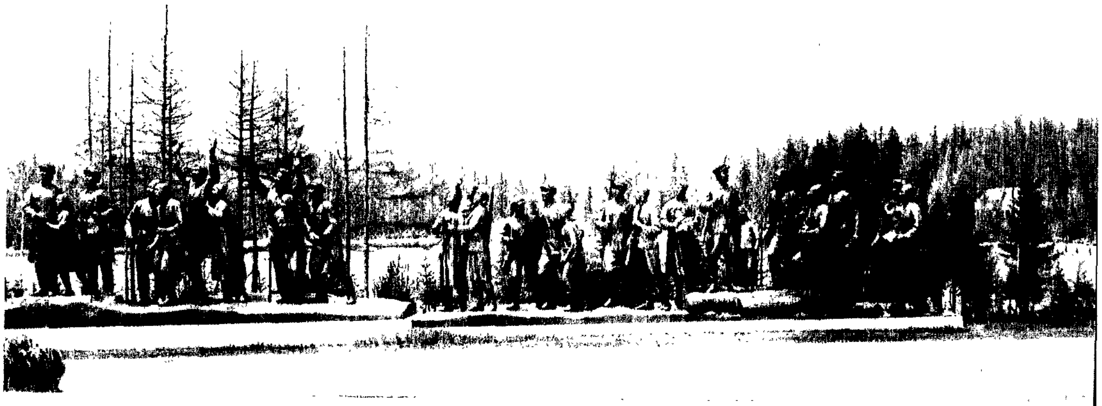


습지연못가에 세워진 영웅서사시적대기념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그리운 조국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과 진격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멸적의 기세로 내달리는 전투모습을 형상한 대조각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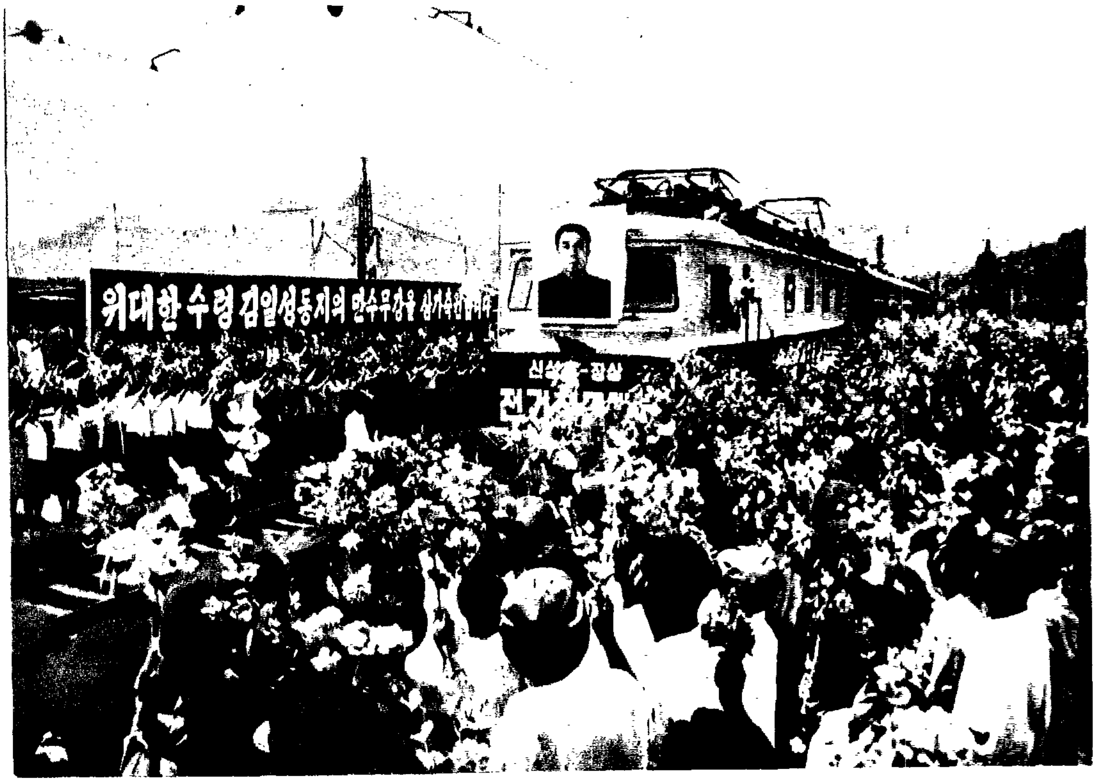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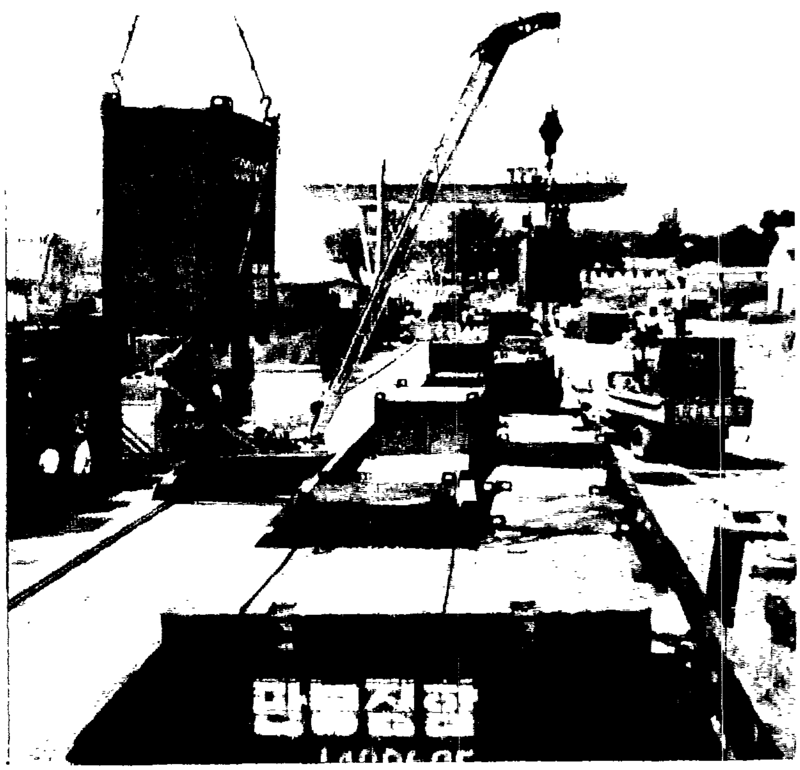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마지않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대조각군상

새로 건설한 삼지연읍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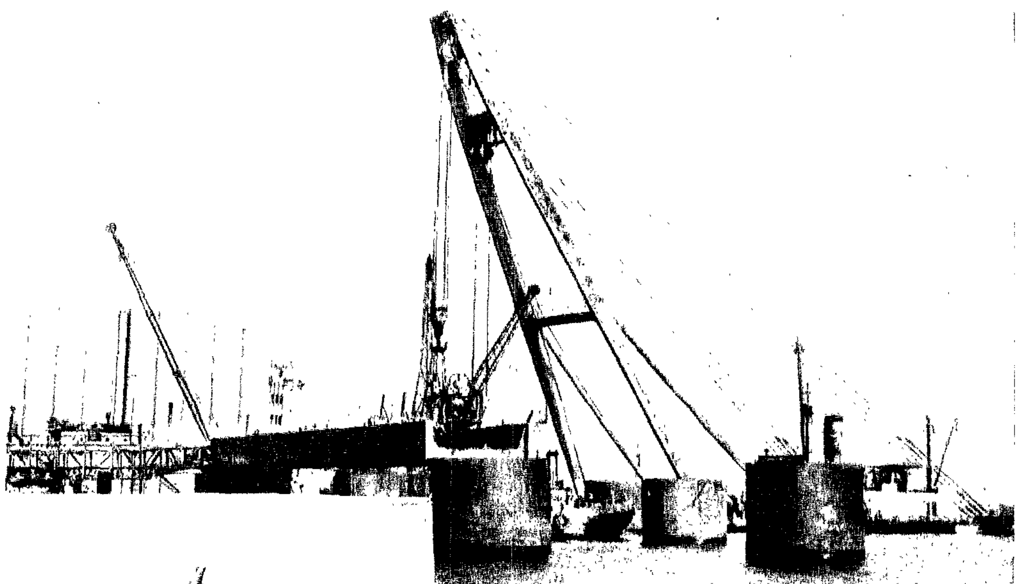
↑ 신성천—장상사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여 전기철도가 개통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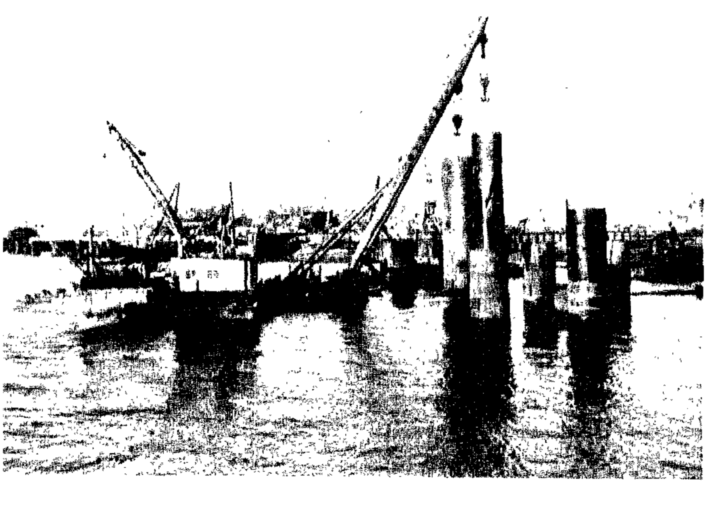


수송혁명에 크게 이바지하는 집중화물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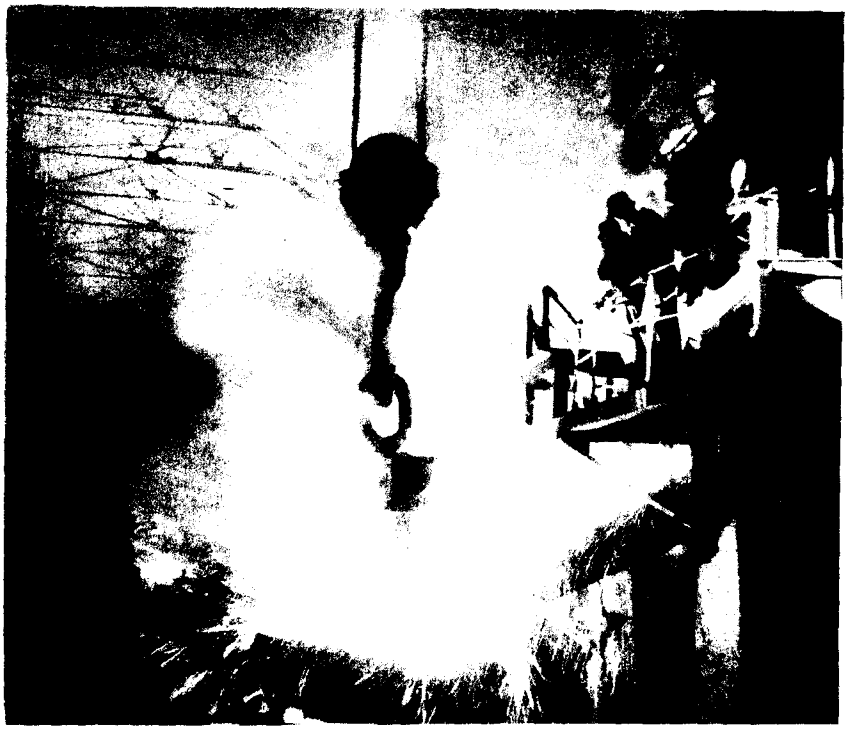


↑ 석탄폭포 쏟아지는 안주





↑
← 새로 건설된 남포항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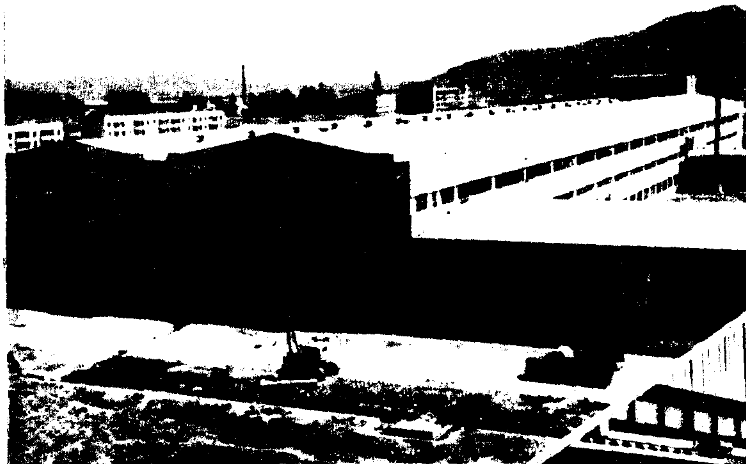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강철생산성과를 부쩍 올리고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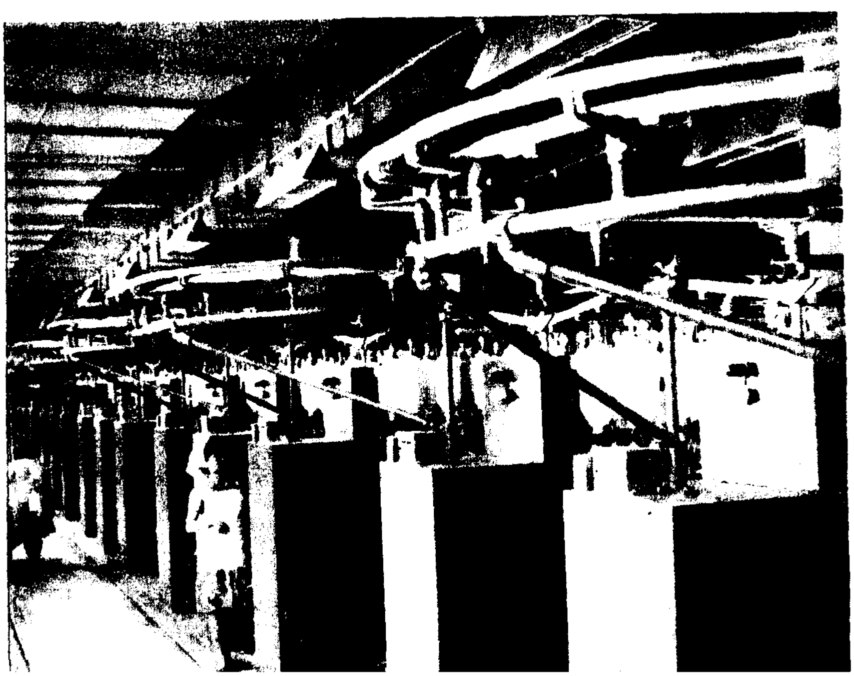


↑
← 압연강재가 쏟아져 나오는 김책제철
열간압연분공장





설비조립을 끝내고 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는 ↑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의 일부 →



더 많은 옷감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성과를 올리고있는
방직공업부문 로동자들



↑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더많은 뜨락또르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주고있다.



↑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찬연한 빛발아래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해주고있다.



← 더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주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벌마다 대풍이 들었다.



양떼가 흐른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의 하나인 서흥호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중에서

5천년력사국에 망국의 비운이 깃들었음을 알리는 인경소리와 인민들의 통곡소리는 먹장구름 드리운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 강제로 해고당한 조선군대가 폭동에 떨쳐나섰다가 일제놈들에게 처참히 탄압당하는 참상을 보고 분통해하는 안중근과 오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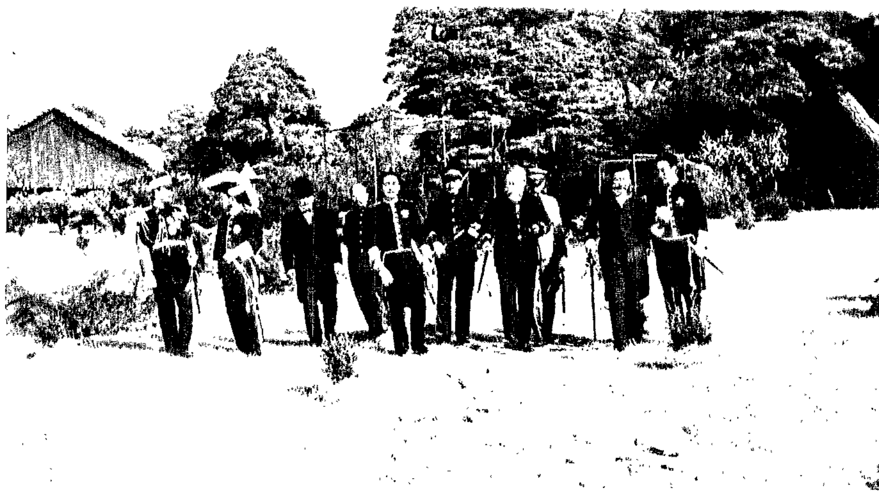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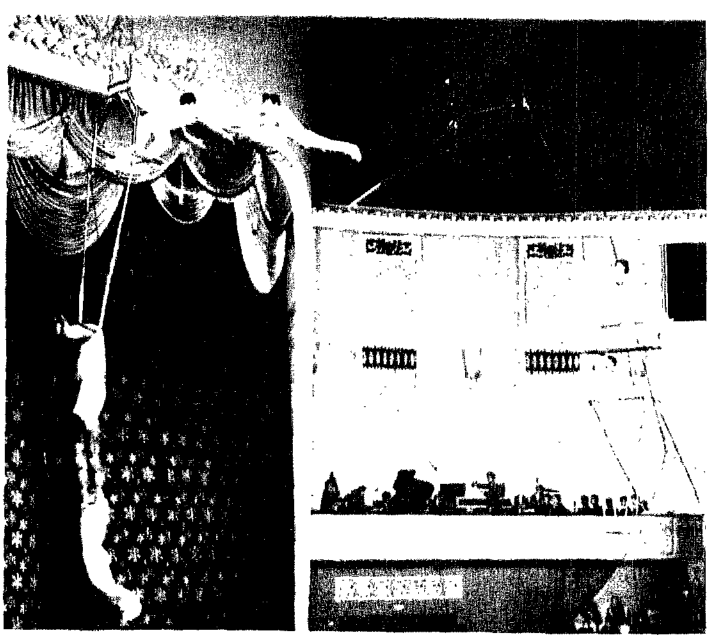
을사오적인 군부대신 리근택놈을 역신으로 단죄하고 식모살이에서 뛰쳐나오다가 그 놈의 권총에 맞은 한씨는 오경식과 안중근에 의하여 구원되였다. →



←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독같이 성이난 이등박문은 을사오적 송병준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 조선군대통감으로 부임되여온 이등박문은 장차 조선을 《합병》하기 위하여 악랄한 차관술책으로 리조정부의 외교권뿐아니라 경제권마저 완전히 박탈하였다.





교예 《공중그네비행》의 한 장면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중에서



순희는 유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재선을 리용할것을 결심하였다.



유림을 자신이 지키하고도 순희앞에서 그를 걱정하는 체하는 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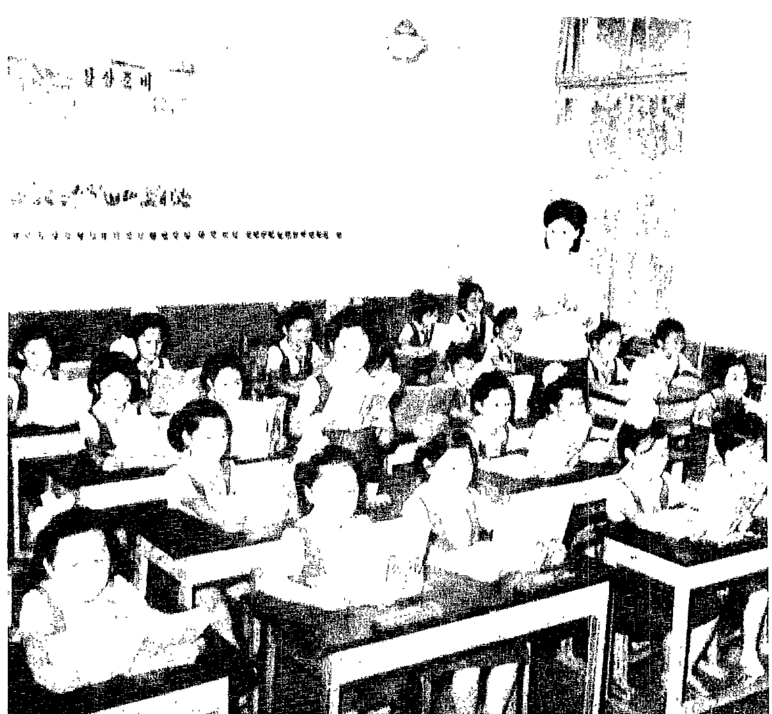
유림의 호실을 수색할 목적으로 시라빌호텔에 나타난 마링과 특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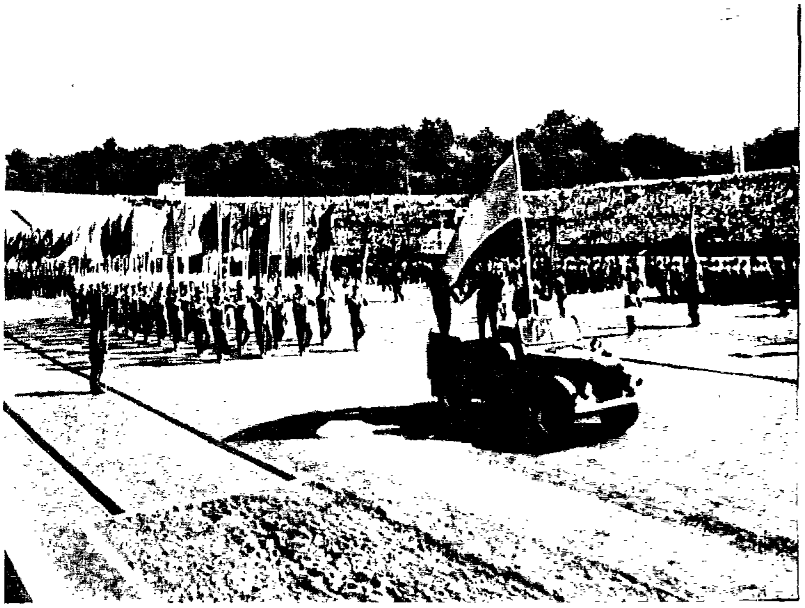
박무에게 유림의 저격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김창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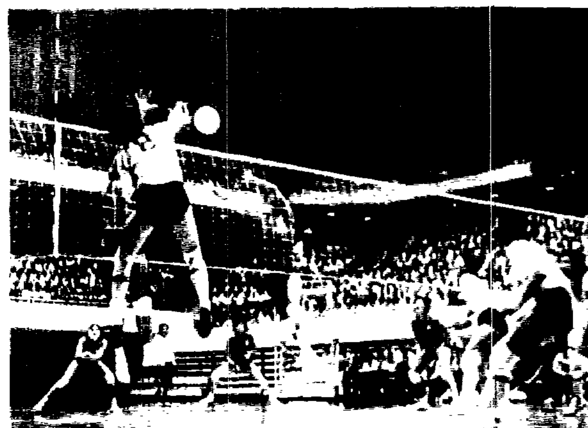
유림을 자기네의 지지자로 여기는 신제선은 그의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2차수술을 시킬것을 박무에게 지시한다.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는 우리의 귀여운 꽃봉오리들



↑체육절 30돐기념 체육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가 열렸다.



흥겨운 배구경기 →

인민들에게 더많은 식료품을 공급해주고있다.↓





재일동포어린이들의 첫등교



청년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재일동포청년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재일동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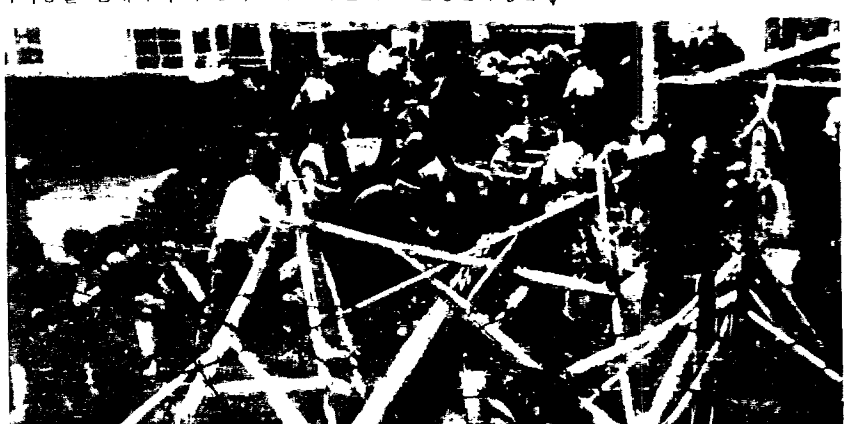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를 요구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재일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참상에 대한 출판물 지면

↑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 ↓



사회주의경제건설

공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으며 년간 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신년사》, 1980년, 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로동계급은 전후에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던 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힘차게 내달려 1979년에 공업생산을 15%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켰다.

그리하여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원료와 연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탄광들을 비롯한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많이 개발하였으며 채굴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산,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새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였다.

채취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연료, 원료 기지가 더욱 강화되고 석탄과 광물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빨리 늘어나는 연료, 원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지금 있는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공업제품생산을 전반적으로 훨씬 높였다.

주요 공업제품생산의 장성

공업제품	1978년에 비한 장성
전 력	114%
압연강재	115%
화학비료	113%
화학섬유	136%
합성수지	112%
세 멘 트	121%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화력발전소들의 기술관리를 잘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수력발전소들의 수차효률을 높여 지금있는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국내연료에 의한 제철, 제강공정을 철저히 세우고 흑색야금공업의 주체화를 다그쳐 더많은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였으며 지금 있는 압연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규격 강재와 형강재, 2차가공품생산을 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채취설비와 운수설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면서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대형짐배, 대상설비들을 더많이 생산하였으며 전자 및 자동화 요소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더 원만히 보장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강화하여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 자재들과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미량원소비료, 농약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지금있는 석회석광산과 점판암광산을 개건확장하고 세멘트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고 질좋은 세멘트를 더많이 생산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있는 방직공장설비들을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만가동시켰으며 가죽이김공장, 합성가죽공장 등을 잘 돌리고 신발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었으며 이미 마련된 일용필수품생산기지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질좋은 천과 편직물, 신발, 자전거, 재봉기, 텔레비죤수상기, 가정용랭동고를 비롯한 기계제일용품들, 여러가지 현대적가구와 일용잡화들을 더 많이 생산하였다.

특히 경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따

라 전체 학생들과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좋은 옷과 신발, 학용품, 어린이용품, 영양제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의 빠른 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반영하는것이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우리 공업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는것이다.

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이해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새로운 가치있는 과학적발명들을 하였으며 창의고안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1979년에 공업부문에서만도 6만 8천 900여건에 달하는 발명 및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특히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은 새로운 주물방법의 연구와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나라의 과학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였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었다.

공업부문에서는 1979년에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산업건설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농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면한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신년사》, 1980년, 4페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한것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년초에 전국농업대회를 마련하시고 이해의 농사방향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이른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함경북도로부터 황해남도에 이르는 농촌들을 찾으시고 한랭전선의 영향이 미치는 조건에서도 대풍작을 거둘수 있는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은 결과 공화국북반부에는 이 땅이 생긴이래 처음보는 대풍작이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 가을 각지 풍년벌을 찾으시고 벼, 강냉이, 담배를 비롯한 모든 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시, 군들과 협동농장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보내시였다.

이해에 대풍작을 거두어 감사를 받은 시, 군들은 평북도, 황북도, 황남도만 하여도 알곡생산에서 신천군을 비롯한 30여개 시, 군이며 담배농사에서는 룡천군을 비롯한 10여개군이다.

이해에 대풍작을 거두게된것은 무엇보다먼저 벼모내기,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담배심기를 소출을 가장 높일수 있는 알맞는 시기에 전반적지역들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하여 짧은 시일안에 와닥닥 끝낸데 있다.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는 전국적으로 5월 27일까지, 벼모내기는 5월 31일까지 다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조직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전반적지역들에서 모든 농작물에 걸쳐 높은 소출을 거둘수 있었던 담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와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변덕스러운 이상기후조건들과 최근년간의 과학기술적성과에 기초하여 땅이 얼기전 전해 가을에 벌써 랭상모판을 만들어놓고 부식토와 화학비료, 자재와 도구들을 미리 갖추어놓음으로써 씨뿌림,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있게 되였다.

특히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대적조건과 모가 자란 상태에 맞게 강냉이, 벼, 담배, 콩 등 모내는 기일을 바로 정하고 가장 적합한 날자에 모들을 냈으며 포전과 필지마다에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였다.

이해에 대풍작을 거두게 된것은 또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그 어느해보다도 농사를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잘 지은 결과이다.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과 한랭전선의 영향, 구체적인 영농사업진행정형을 제때에 장악하면서 기술지도를 잘하였다.

특히 가물, 무더기비,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견성있게 극복하면서 물관리, 덧비료주기 등을 실속있게 보장하였다.

이해에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얻은 귀중한 경험은 1980년에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밑천으로 되였다.

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9년 1월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새세대들로 담배분조나 담배작업반을 조직하고 담배농사를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과 같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당과 국가와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겠다는 혁명적각오가 높은 젊은 새세대들로 담배분조나 작업반을 뭇고 거기에 담배기술자를 한명씩 붙여주면 그들이 담배농사를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새세대청년들에게 나라의 담배농사를 맡겨주신것으로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이며 높은 평가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은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지고 담배청년작업반과 담배청년분조들을 무었으며 정보마다에서 4톤이상의 담배를 생산할것을 결의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국적으로 1천 925개의 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들이 무어졌으며 그가운데서 담배청년작업반과 담배청년분조만하더라도 920여개나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개천군 룡진협동농장, 강동군 문흥협동농장, 봉산군 청계협동농장 청년담배 작업반과 분조들을 찾으시고 주체농법대로 담배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는 농촌청년들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전국 청년분조들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영농기별로 총화를 지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그들을 힘차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청년들도 이땅이 생긴이래 처음보는 풍작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새세대들의 공산주의적풍모를 훌륭히 보여주었으며 우리 당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이해에 전국각지의 수많은 청년분조원들과 청년작업반원들은 결의목표대로 정보당 소출을 높인자랑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들의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회답편지와 감사문에서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과업도 무조건 관철하고야마는 충실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담배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청년분조, 작업반

홍원군 룡신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토산군 매봉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룡천군 쌍룡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평성시 백송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개천군 룡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담배분조
무산군 화평협동농장 청년담배분조

논벼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청년분조, 작업반

온천군 석치협동농장 청년분조
대안시 청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 청년분조
온천군 6월3일협동농장 청년분조
재령군 래림협동농장 청년분조
연안군 풍천협동농장 청년분조
경성군 일향협동농장 청년분조

강냉이농사에서 모범적인 청년분조, 작업반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
신흥군 서곡협동농장 청년분조
사동구역 리현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창성군 약수협동농장 청년분조
정평군 봉대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제1분조
룡천군 미평협동농장 100정보청년기계화작업반

다른 부문 모범분조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 청년남새분조
신양군 운봉협동농장 청년축산분조
풍서군 내포협동농장 청년밀분조
북청군 북청읍협동농장 청년물파분조
파일군 염전분장 청년파수분조

〈룡호저수지 준공〉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에 따라 건설되여온 룡호저수지가 11월 8일에 준공되였다.

이 저수지는 서해안지대에 이미 마련된 륜환식관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산, 온천군 일대의 간석지논들을 적시고있다.

교 통 운 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수송전선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수송전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의 전기화를 적극 다그치고 항들의 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려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잘하여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신년사》, 1980년,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철도운수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이해에 철도운수부문청년열성자회의(3월), 전국철도기관차부문열성자회의(7월)를 마련하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을 세우도록 철도일군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1979년에 수송부문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온 나라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그것이다.

온 나라 철도를 전기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 이해에만도 여러 본선과 19개의 지선들이 전기화되였다.

새로 개통된 전기화본선들

구간들	개통날자
신안주—희천	2월 20일
신성천—장상	6월 13일
평양—남포	12월 17일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철도전기화에서 전기화구간의 운영거리비률로 보나 전기기관차견인비중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수송부문에서 거둔 또하나의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차게 벌린것이다.

우리 당이 지펴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모든 기관사들이 견인정량보다 50톤짜리 화차한량씩 더 끌고 무사고로 정시에 운행함으로써 지금 있는 기관차를 가지고도 철도화물수송량을 1.2배로 높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대중적혁신운동이였다.

철도부산하 모든 기관차대, 역, 객화차대, 렬차승무대, 철길대, 전기대, 전철대들에서는 8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 궐기하고 철도수송에서 일대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철도부산하 수송전사들은 1979년 8월부터 1980년 1월말까지의 사이에 매달 평균 418만톤이상의 짐을 견인정량보다 더 끄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생활력은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수송전사들은 석탄, 광석, 비료 등 물동이 많은 화물들에 대한 순환집중수송과 전문집중수송을 확대하고 기술역직통렬차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며 집중수송과 분산수송을 합리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집중수송의 우월성을 더욱 충분히 발양시키였다.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 궐기한 수송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집중수송이야말로 지금 있는 기관차와 화차를 가지고 더많은 짐을 더빨리 실어날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수송방침이라는것을 이해의 중송성과로서 보여주었다.

륙해운부산하의 각지 자동차운수대와 해운사업소들에서는 철도와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원료와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실어날랐다.

그가운데서도 자동차수송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련결차의 대수를 늘이고 화물차의 짐부림장치를 자동화하면서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임으로써 년간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101.7%로 끝냈다.

배수송부문에서는 당면한 해운수요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대외무역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항능력과 배능력을 더욱 높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항건설자들은 남포항과 해주항, 송림항을 비롯한 무역항들의 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쳐 화물통과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2만톤짜리 1만톤짜리 짐배들을 비롯한 대형짐배들을 많이 무어냄으로써 배수송능력도 훨씬 높였다.

〈남포항 벨트콘베아수송선 준공〉 평안남도내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이곳에 동원된 일군들은 당의 3화수송방침과 당중앙위원회 제5기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새로 건설한 남포항 벨트콘베아수송선을 9월 6일에 준공하였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수송선을 계획보다 짧은기간에 건설하였을뿐아니라 지대화물상선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산업텔레비존화를 완성하여 수송선을 훌륭히 만들어냈다.

〈2만톤짜리 짐배《압록강》호 진수〉 남포조선소에서는 10월 22일 또 한척의 2만톤짜리 짐배《압록강》호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압록강》호는 이곳 조선소에서 이미 무어낸 《대동강》호, 《청천강》호, 《연풍호》와 함께 우리 나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기 본 건 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

여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고압폴리에틸렌공장과 아닐론공장,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의 제2종합가공직장, 단천마그네사공장의 110메터회전로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시설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신년사》, 1980년,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수행에서 기본건설이 노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대안중기계종합공장과 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해주항과 남포항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새로운 건설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1978년에 2천 940여개의 건설대상을 완공한 우리의 건설자들은 1979년에 3천여개의 건설대상을 일떠세웠다.

건설부문일군들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틀어쥐고 공사의 선후차를 옳게 가려가며 시공지도와 보장사업을 중요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조업기일을 앞당기기에 힘썼다.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제2종합가공직장을 중심으로 한 6개의 중요건설대상들을 첫단계목표로 삼고 시공지도와 보장사업은 물론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여기에 집중하고 새로운 비날론속도, 대안속도를 창조하였다.

제2종합가공직장을 비롯한 6개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또한 산업건설을 통하여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어떤 현대적이고 복잡한 공장들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수 있도록 시공조직과 지도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청년화학련합기업소 건설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화학공장건설의 기본이 용접기술을 높여야되는 조건에서 대담하게 기능높은 용접공들을 양성하였으며 용접직장도 내오면서 방대한 배관작업과 복잡한 설비장치물의 조립을 훌륭히 하였다.

특히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11월 20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성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남들이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던 뇨소비료공장, 고압폴리에틸렌공장, 아닐론공장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청천강반에 새로운 화학공업기지가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이해에 완성된 건설대상들 가운데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적지않다. 이미 1978년에 황해남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해주항에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건설한것처럼 평안남도내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남포항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건설하였다.

평안남도내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남포항건설사업에 동원된 일군들은 지대화물상선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산업텔레비죤화를 완성한데 이어 또하나의 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을 예견하였다.

이해에 우리의 건설자들은 또한 무산광산 확장공사, 아오지화학공장확장공사, 희령크라프트지공장, 대동강발전소, 김책제철소 랭간압연분공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도 자기 계획대로 건설하였다.

〈**희천분사구공장 조업**〉새로 건설된 희천분사구공장이 12월 19일에 조업하였다.

이 공장은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의 질을 높이고 연유를 더많이 절약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공장이 조업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립적기계공업기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수 산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신년사》, 1980년, 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6년 11월 동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 1977년 3월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와 1978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76년 11월 동해지구수산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과정에 동해해양상태와 물고기회유특성에 맞게 고기배들을 뜨랄도 하고 건착도 하며 자망도 할수 있도록 만능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고기배들을 만능화할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전국의 기계공장들에서는 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주었으며 수산부문에서는 75~100마력짜리 고기배들을 만능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서 어장 가까운 곳에 수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밝혀주시고 서해어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주시였다.

서해수산부문에서는 중심어장부근의 십여곳에

현대적수산기지들을 건설하였으며 고기배들의 리용률을 높여 수산물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새로 많이 무어내며 배수리기지와 물고기가공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수산업의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고기배들을 대형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선박공업부문에서는 많은 가공모선들과 선미트랄선들, 중소형 고기배들을 무어냈다.

또한 고기배들에 최신과학기재들과 현대적인 어로설비들을 장비하여 물고기잡이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된 결과 변덕이 많던 해양조건과 물고기회유상태의 변화에도 끄떡없이 1979년에 수산물생산을 높였다.

1979년 수산물생산의 장성

지　표	실적
1979년 수산물생산계획수행률	108%
1978년에 비한 수산물생산량	119%
1976년에 비한 수산물생산량	1.7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수산지도체계를 창시하시여 1979년 수산물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8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수산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국영수산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협동수산업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수산지도체계를 내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새로운 수산지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협동수산업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하여 그것을 국영수산업의 수준에 더 빨리 끌어올릴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새로운 수산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실지 1979년에 협동수산업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보장하고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이 강화된 결과 협동수산부문의 물고기생산량이 그전보다 더 높은 속도로 늘어났다.

협동수산부문의 물고기생산의 장성

지　표	실적
1978년에 비한 1979년생산량	132%
1977년에 비한 1978년생산량	111%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수산지도체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것이며 수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여기에 수산업발전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국 가 예 산

우리 인민이 일으킨 사회주의건설의 앙양속에서 1979년 국가예산도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을 옳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원천을 여러 모로 늘일뿐아니라 국가자금을 옳게 지출하고 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374페지)

1979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나라의 재정수입이 더욱 늘어났다.

국가예산수입의 장성

지　표	실　적
국가예산수입액	174억 7,790만원
수입계획수행률	101%
1978년에 비한 장성	111.5%

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예산수입원천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생산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에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이 훨씬 늘어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앙예산수입이 111.9%로 장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예산제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지방예산수입이 1978년에 비하여 110.1%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도, 시, 군들이 다 자체의 수입으로 지방의 경제문화건설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1978년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 들여놓았다.

지방예산수입가운데서 국가에 들여놓은 금액의 장성

년 도	금 액
1977년	5억 4,813만원
1978년	11억 9,900여만원
1979년	14억 4,732만원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독창적인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인 지방예산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1979년에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방침을 옳게 관철하도록 자금을 옳게 분배, 지출, 리용하였다.

국가예산지출의 장성

지 표	실적
국가예산지출액	169억 7,260만원
예산지출계획수행률	98.1%
1978년에 비한 장성률	115.1%

그리하여 1979년에 국가예산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도 5억 530만원에 달하는 재정예비를 가지고 성과적으로 결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예산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자금수요를 확고히 보장하는 공고한 자립적예산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국가예산은 1979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생산확대, 특히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 공업부문투자의 33.3%를 석탄과 광업부문에 돌렸다.

이에 따라 안주지구탄광들과 무산, 검덕 광산을 비롯한 유망한 탄광, 광산들이 개건확장되고 채굴설비의 현대화가 추진되여 그 생산능력이 높아졌다.

수송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곧 수송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에 따라 운수부문에 1978년의 1.5배에 달하는 자금이 돌려져 철도 본선과 지선들, 인입선들이 전기화되고 전기기관차와 중량화차 생산이 늘어났으며 기술역과 화물역들의 기술장비가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처럼 채굴공업이 앞서고 교통운수가 풀리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났으며 공업생산액이 1978년에 비하여 115%로 뛰여올랐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축적을 우선적으로 늘이면서도 소비를 끊임없이 장성시키는 원칙에서 늘어나는 국민소득을 정확히 분배함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다같이 원만히 보장하였다.

국가예산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하여 사회문화시책비지출을 1978년에 비하여 110.1%, 교육사업비지출을 111.7%, 보건사업비지출을 111.6%, 살림집건설투자를 134%로 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걱정, 세금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더욱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재정의 참다운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1979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한 모든 자랑찬 성과는 발전하는 현실과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가장 정확한 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사회주의문화건설

사회주의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9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여기에 많은 힘을 넣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교육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서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전국 각지의 많은 학교 학생들이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자진하여 사회주의농촌에 집단적으로 진출하여 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들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구상, 당의 의도를 꽃피워나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 길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로 하여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감사문과 회답편지까지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또한 1979년에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교양, 도덕교양, 긍정감화교양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 새세대들을 풍부한 정서와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진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습제일주의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이 더욱 높아진것은 이해의 특기할만한 성과의 하나이다.

인민학교의 최우등학교수가 지난 학년도에 비하여 근 3배로 늘어나고 우등, 최우등학급이 최우등학급으로 되고 우등, 최우등학교가 최우등학교로 자라났다.

이해에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운동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려 이해에도 수많은 학교와 교실들을 전국각지에 새로 건설하였다. 사회적지원속에서 교원들은 녀학생실습실을 비롯한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들을 마련해놓았다.

위대한 교육테제의 빛발아래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이해에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이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교육테제의 요구대로만 한다면 사회주의교육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훌륭히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적인 교육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민을 교육하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이 비록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학교전교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45페지)

이해에도 어린이들의 학교전교육에 큰 관심이 돌려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인 보육교양강령에 따라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6만여개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세워져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만4살까지 탁아소에서 집단적인 보육교양을 받으며 만4살부터 인민학교에 입학하기까지 2년간을 유치원교육을 받는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며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유치원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옳고 그른것, 좋고 나쁜것, 곱고 미운것을 똑똑히 가려보고 하나

를 배워도 좋고 고운것, 혁명적인것을 배우며 놀이를 하여도 혁명적이고 착한것을 즐기도록 교양하고있다.

어린이들은 우리 말과 셈세기교육을 통하여 연필쥐는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옳바른 학습자세를 가지며 우리 글자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그것을 초보적으로 쓸줄 알며 남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줄 알며 일정한 수개념을 가지고 사물의 분량을 옳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인민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유치원들에서는 20~30분씩의 수업과 과외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건강 및 위생관리에도 관심을 돌린다.

1979년에 학교전교육부문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 특히 유치원교육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돌렸다.

이해 모든 유치원들에서 아버지원수님과 은혜로운 당을 우러러받드는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이 더욱 강화되였고 교육강령 작성과 집행이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더욱 과학적으로 진행되였다.

보육원,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그들의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학교전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봉사와 영양관리가 개선되고 탁아소, 유치원들이 문화위생적으로 더 잘 꾸려졌다.

그리하여 이해에 전국 각지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350만명의 어린이들 모두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육교양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 10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1975년 9월 1일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기간에 나라의 모든 새 세대들은 1년제 유치원 높은반과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고등중학교를 통하여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냄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515페지)

1979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돌렸다.

우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고리인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썼다.

이해에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을 더 잘 꾸리고 사범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1979년에 1978년에 비하여 2.6배나 되는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에 받아 교육하였으며 근 4,000명이나 더 많은 졸업생들을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에 교원으로 내보냈다.

또한 통신교육, 교수강습, 경험교환회, 방식상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현직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길주군 길주제2고등중학교에서와 같이 교원수의 100%가 자격교원의 영예를 지닌 학교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모범교수자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해에 또한 각급 학교들의 실험실습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실험실습교육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들을 만들어보내주는 사업이 전인민적운동으로 벌어져 1979년에 보통교육부문에 1978년보다 538종에 127만 8,000여점이나 더 많은 실험기구, 표본, 설비들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의 실험설비와 실험기구들이 더욱 현대화되고 더 많은 학교들에서 2인조 실험을 실시하게 되였다.

또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수에 맞게 학교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979년에 1978년보다 3,240여개의 교실이 더 많아졌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이 높아진 결과 이해에 우리 학생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능력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더 잘 준비되였다.

룡천군 신암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 130여명이 사회주의농촌에 진출한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 앞을 다투어 집단적으로 떨쳐나섰다.

또한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높아져 1977—1978학년도에 비해 1978—1979학년도에 최우등학급수는 3,501개, 최우등학교수는 40여개나 더 늘어났다.

1979년 인민학교학생들의 학년말시험 결과

최우등, 우등생	전국학생의 92.7%
최우등학급수	7,856개
최우등학교수	66개

최우등학교수(인민학교)

도별	1978—1979학년도	1977—1978학년도
평양시	9	7
평안남도	3	1
평안북도	9	2
황해남도	4	3
황해북도	8	
함경남도	5	1
함경북도	8	2
강원도	9	3
자강도	8	3
량강도	5	1
청진시	3	1

고등교육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체계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각종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그리고 통신 및 야간 학부들로 이루어져있다.

해방전에 한개의 대학도 없었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60여개의 대학과 600여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25～426페지)

1979년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있는 우리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과 국가경제 관리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모를 박고 사업하였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테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데 힘을 넣었다.

또한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자연기술과학과목들의 체계와 내용전반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현실자료와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것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또한 대학들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이며 교육내용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자연기술과학과목들에서는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의 새로운 성과들을 받아들이며 기계공학부문교육에서는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된 기계들의 설계계산능력을 높이고 제작공학적인 지식을 깊이 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더욱 완성시키는데서 많은 전진이 있었다.

연료동력공학, 광업금속공학, 농업생물학, 경공업식료공학 등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부문의 교육수준을 높여 교육사업에서의 성과가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였다.

외국어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대학들에서는 외국어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다. 외국어강좌가 잘 꾸려지고 외국어학습참고서들이 많이 출판되였으며 교원,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이해에 각 학교들에서 실험실습교육이 훨씬 강화되였다.

이해에도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거듭되는 배려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건설건재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실험실습조건을 보다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닦아졌다.

이와 함께 학교들에 필요한 실험실습설비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만들어 보내주었으며 대학들에 실습공장을 건설하고 공장, 기업소들에 실습직장, 실습작업반을 꾸려주는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어졌다.

그리하여 이해에 각 학교 실험실들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이 높아졌고 점차 현대적인 종합실험을 많이 할수 있는 조건들이 더욱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고등교육부문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은 이해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그들의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이해에도 교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학술토론회와 연구발표회, 시범상학과 방식상학, 강습과 현실

견학 등이 조직되여 교원들의 자질이 훨씬 높아지고 교수방법이 개선되였다.

그리하여 1979년에 고등교육사업의 질적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능력있는 민족간부들이 수많이 양성되였다.

주체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부문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이 요구되며 우리의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 과학이 요구됩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할것없이 모든 과학이 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조선혁명에 이바지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고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런 과학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05페지)

1979년에 과학연구에서 주체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과학은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과학적성과로 담보하는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사회과학

1979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불멸의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날로 높아가고있는 요구와 지향에 맞게 주체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사업,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주기 위한 연구사업,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리하여 이해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시대와 혁명이 사회과학앞에 제기하는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들을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적지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철학부문에서는 주체철학의 기본원리, 사람의 본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창조성,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인식론을 비롯하여 주체철학의 원리적인 문제들과 주체사상을 구현하여나온 혁명리론과 방법론 등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또한 철학부문에서는 후기신라 및 발해시기의 철학, 고려시기의 철학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중세철학유산들을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중세기에 우리 나라에 류포되였던 봉건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리론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고전철학과 《생의철학》을 비롯한 부르죠아반동철학이 들고나왔던 이른바 《인간론》의 반동적본질을 방법론적 및 인식론적견지에서 리론적으로 날카롭게 폭로비판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자립경제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들의 위대성과 독창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는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고정재산과 그 합리적리용에서 나서는 문제, 통계의 일원화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 세부계획작성을 위한 계획계산의 기계화문제, 국내의 연료, 원료, 동력의 합리적리용에 관한 문제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실천적문제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학부문에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협조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경제관계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경제정책의 반동적본질을 폭로비판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법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위대성과 창조성, 불패의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한층 심화시키는 한편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로동법, 토지법 등의 특성과 우월성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문예사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한편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 종자에 관한 리론,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의 구성에 관한 리론, 묘사에 관한 리론, 소설론, 시론, 아동문학에 관한 리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고려전반기 우리 나라 시가유산에 대한 연구, 우리 나라 민화연구 등 지난날의 우수한 민족문학유산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발굴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면서 우리 나라의 문학사를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후 서구라파의 문학발전동향을 비롯한 세계문학의 발전추세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아프리카신흥세력나라들의 진보적문학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주의를 돌리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언어의 사회적본질과 기능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언어에 관한 사상들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주체철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며 조선어의 어음, 어휘, 문법, 문풍에 관한 리론을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우리 나라의 귀중한 언어유산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조선어의 단일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켰다.

이밖에도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여 살려쓰기 위한 방언조사사업과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밝혀쓰기 위한 말다듬기사업을 추진시켰다.

력사학부문에서는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반동적인 어용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말살되였던 우리 나라 력사를 전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사업인 《조선전사》(전 33권) 집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켰으며 이밖에도 조선사연구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해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민속유산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한편 력사유적유물과 사료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료고증사업을 진행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고학부문에서는 이해에도 발굴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의 발전면모를 더 깊이있게 밝혀내는데 이바지할 여러가지 귀중한 고고학적인 유물자료들을 찾아내였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을 발굴하여 서부조선의 청동기시기의 편년과 청동기시대와 고조선시기의 년대추정, 고조선의 령역 등을 정확히 밝히며 우리 나라 청동기시기의 문화를 복원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30여개의 청동기시기의 집자리와 수십점의 질그릇과 돌도끼, 돌자귀 등을 새로 찾아냈다.

또한 고고학부문에서는 개성지방에서 절대년대를 알수 있는 고려 제25대 충렬왕 왕비의 무덤인 고릉과 제30대 충정왕의 무덤인 총릉을 비롯한 여러개의 고려시기 무덤들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고려시기의 문화발전단계를 정확히 구획하는데 기준으로 될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인 순금제머리꽂개, 청동제그릇, 여러점의 고려자기들을 찾아내였다. 그리고 고구려벽화무덤발굴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선각벽화무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조선사람의 인종적특성을 해명하기 위한 인류학적연구사업과 우리 나라 유적들에서 나온 동물화석들에 대한 연구사업도 적극 벌리였다.

민족고전부문에서는 《리조실록》, 《8만대장경》을 비롯한 민족고전번역사업과 해제사업을 활발히 벌려 이 분야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사회과학부문일군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매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방침들을 근로자들속에 널리 해설침투시키기 위한 당정책해설론문들을 기동성있게 집필하여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싣거나 과학토론회들에서 발표함으로써 당이 사회과학부문앞에 제기하는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자연과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1979년에 자연과학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과학발전의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인민경제 발전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이해에 숨은 영웅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크게 치하해주시였으며 이런 숨은 영웅들이 많으므로 공화국이 위력하고 우리 당이 위대하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1979년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으며 알찬 과학성과들을 쌓아올렸다.

년초에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안주지구에 나간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이해에 1978년보다 석탄생산량을 2배로 높일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자들은 탄광 막장들에 직접 들어가 굴착기와 탄캐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료해하였으며 탄광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채탄기와 굴진기를 완성하고 도입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밝혀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또한 이해에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해에 과학분야에서 주물혁명의 새 력사가 창조되여 사람들을 경탄시켰다.

주물소재생산의 현대화에 성공함으로써 주물소재생산에서 대번에 몇십배의 능률을 내는 획기적인 비약이 일어났을뿐아니라 주물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어느 한 화력발전소에 나간 과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발전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완성하였으며 어느 한 기계공장에 나간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송부문의 과학자들은 철도의 전기화, 자동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집중수송, 짐함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냈으며 남포항을 비롯한 항들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우리의 과학자들은 식물재배연구사업에서와 주체적인 육종학발전에서도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의학과학부문에서도 성과가 컸는데 특히 여러가지 가치있는 의약품연구가 완성되여 생산에 넘어갔다.

이 부문 과학자들은 의약품 하나를 연구하고 약물형태 하나를 새롭게 하여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근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크고 쓸모가 있게 만들었다.

경공업과학분야에서도 경제적가치가 큰 연구성과들을 달성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1979년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안고 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적문학예술

소설 및 시문학

1979년에 우리의 소설문학은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이해에 창작된 혁명적소설작품들은 도시와 농촌, 깊은 산골의 지질탐사대와 원양어로선단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5권, 462페지)

소설부문에서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빛나게 형상한 혁명소설들인 《력사의 새벽길》(상), 《조선의 어머니》, 《누리에 붙는 불》,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를 내놓은데 이어 이해에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부닥치는 난관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나가시며 녀성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나가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혁명소설이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요영구회의이후 무송현성전투에 이르기까지(1935년 3월부터 1936년 8월사이)의 기간에 벌리신 불굴의 투쟁과 빛나는 업적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중심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며 소설의 모든 장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한 높은 형상으로 수놓아져있다.

모두 13장으로 되여있는 소설의 앞부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근거지를 떠나가는 인민들을 보위하며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혁명화하는 투쟁에서도 앞장에 서라고 하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된 김정숙동지께서 당장 적구로 떠날수 없는 혁명군중을 이끌고 솔기막골에 와서 겪기어려운 식량난과 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혁명군중을 보위하며 혁

명화하여나가시는가를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김정숙동지께서 내두산부락에서 마을 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모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동강회의에 참가하신후 오빠가 희생되였다는 비보를 받고도 가슴속에 쌓인 비애를 묵새기며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군복생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고결한 혁명적풍모, 그리고 무송현성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시여 사령부의 안전과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는 감동적인 사실들을 심오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김정숙동지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으로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해에 소설문학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창작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해에 나온 장편소설 《일곱명의 사수》, 《불타는 전선》과 중편소설 《습격》, 《행군길》 등은 특히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또한 이해에 장편소설《해솟는 바다》와 중편소설들인 《청춘은 빛나라》, 《깊은 산속에서》, 《호수에 노을 비낀다》를 비롯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생동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였다.

단편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여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였다.

이해 시문학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이미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 송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 바다여》 등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시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은 시문학부문에서는 이해에도 《4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를 비롯하여 많은 시들을 내놓았다.

이해에 창작된 시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민의 령도자로 모시고사는 한없는 영예와 긍지,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는 절절한 흠모의 감정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심어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충성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이해에 또한 《나의조국》, 《당원》 등 서정시들도 많이 창작되여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가사문학에서도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시문학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당정책과 당의 방침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시대정신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1979년에 소설 및 시 문학부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이룩된것이다.

영화예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14페지)

1979년에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영화창작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년초부터 끊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영화화면에 옮기는 영예스러운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당의 현명한 령도, 사적을 여러편의 영화문헌에 담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게 된것은 이해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한 특기할 성과이다.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생동한 자료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록영화들, 주체의 해빛아래 우리 인민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기록영화들도 많이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만수대예술단 프랑스에서 공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목소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분계선전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에로》, 《3대혁명의 전위들》, 《고마워라 사회주의조국이여》 등이 이해에 나온 좋은 기록영화들이다.

기록영화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일곱돐을 맞이하여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의 전 과정을 수록한것으로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기록영화 《만수대예술단 프랑스에서 공연》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프랑스 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얼마나 열렬한 환영속에 공연되였으며 커다란 감명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생동하

게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꽃피여난 주체예술의 생활력을 온 구라파땅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기록영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분계선전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수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서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600여리 군사분계선 전역에 구축한 높이 5메터, 밑폭 10메터의 철근콩크리트장벽을 보여주면서 놈들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낱낱이 폭로단죄하고있다.

기록영화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목소리》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련대성운동과 국제회의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방안들이 공명정대한것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생동한 자료들로 확증한 력사적인 화폭이다.

기록영화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에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안팎의 원쑤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소극성, 보수주의를 불사르며 어떻게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켰는가하는것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보여주면서 그때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투쟁한다면 모든 조건이 마련되여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보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기록영화 《3대혁명전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비약과 혁신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혁명전위들의 위훈을 자랑차게 노래하였다.

기록영화 《고마워라 사회주의조국이여》는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첫 귀국실현이 있은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국동포들의 가정과 일터를 몸소 찾아주시고 끊임없는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화폭들을 펼쳐주었다. 이 화폭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고있으며 이국땅에서 고생하던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과학자, 기술자, 재능있는 예술가, 체육가로 자라난 모습을 지난날 일본에서의 생활과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해에 창작된 영화문헌들과 기록영화들은 주제의 넓은 폭과 심오한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력사를 대를 이어 전하는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에 또한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기록시보영화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당의 위대한 향도의 해빛아래 이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훌륭히 진행하여온 영화예술부문에서는 1979년에 또다시 당의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각색한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반세기가 지난 오늘 기념비적명작 혁명영화로 재현되여 더욱더 커다란 현실적의의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게 된것은 이해 우리의 영화예술이 거둔 혁신적성과인것이다.

예술영화창작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해에 나온 좋은 예술영화들은 《이름없는 영웅들》(1～10부), 《혈육》(전, 후편), 《전사의 어머니》, 《서암령초소》, 《우리 옆집문제》, 《안녕하십니까?》 등이다.

다부작으로 창작되고있는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2년말 미제가 조선정전담판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새로운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준비하고 있던때에 적후에서 놈들의 전략적기도와 비밀모의들을 파탄시킴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한 우리의 영웅전사들의 대담하고 슬기로운 투쟁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작품으로서 주체적문예로선과 방침을 빛나게 구현한 성과작이다.

예술영화 《전사의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나날 평범한 한 어머니가 계급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조국을 떠나서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용약 싸움의 길에 나서는 감동적인 모습을 통하여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참된 사랑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훌륭한 해답을 주고있는 작품이다.

예술영화 《혈육》(전, 후편)은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하여 남조선의 한 어부가족이 겪게 되는 불행과 고통을 진실한 사실주의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가지고 론할 문제가 아니라 혈육과 겨레들을 불행과 고통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단결하고 합작하여 풀어야 할 가장 성스럽고 절박한 민족최대의 과업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예술영화 《서암령초소》는 준엄했던 조국해방전

정시기 어느 한 깊은 산속에서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냄으로써 전시수송을 훌륭히 보장한 철도수송전사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당이 맡겨준 자기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긍지가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이해에 또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월초병》, 《돌잔치》, 《이럴수 있는가》, 《알았습니다》, 《알고지냅시다》 등 단편예술영화들도 나왔다.

또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주는 과학영화들과 함께 청소년학생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아동영화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리로운 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를 끼치는 나쁜새도 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해로운 새는 잡아없애야 한다는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동영화 《새동산에서 있은 일》과 어떻게 하면 머슴들을 더 부려먹겠는가 하는데만 마음을 쓰는 황지주놈이 닭이 이른 새벽에 우는것도 성차지 않아 밤중에 운다는 수탉을 사왔다가 제놈이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지주의 착취적본성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아동영화 《밤중에 닭이 운다》가 학생소년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해에 나온 새로운 영화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조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혁명영화로 각색한것이다.

일제침략자들의 괴수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이등박문을 사살한 열혈청년 안중근의 애국적활동을 소재로 하고있는 이 영화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시대상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이 영화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큰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며 주체적영화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불멸의 리정표로 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사상예술적의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종자로 하여 그것을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해낸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폐지)

영화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한 한 열혈청년의 형상을 통하여 그가 실패한 피의 교훈은 무엇이며 그 투쟁에서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력사의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 작품의 사상적핵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옳바른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총궐기하여 싸울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19세기말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자 시대의 선각자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철천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으려고 떨쳐나선 인민들의 애국적운동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

서구렬강에 의거하여 국권회복을 이룩해보려는 환상을 품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조선의 독립을 절규하던 우국지사 리준은 뒤늦게나마 구미렬강도 일제와 한짝이라는것을 깨닫고 이국땅에서 배를 갈라죽었다. 열혈청년 안중근은 32살의 젊은 생명을 바쳐 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쏘아죽이는것으로써 민족의 원쑤를 갚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안중근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다.

안중근을 비롯한 애국자들과 우국지사들, 의병들의 투쟁의 비극적결과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한 모든 운동과 투쟁은 승리할수 없으며 수령을 모시지 못한 나라와 인민은 언제나 남의 나라에 예속되고 노예로 될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생동하게 밝히고있다.

《…나를 옳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구나. 5천년 력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아, 그런 영웅은 언제 나타나겠는지…》

사형장으로 나가며 애타게 부르짖는 안중근의 이 열망의 소리는 온갖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온 그의 생의 총화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념원이였을뿐아니라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지향이였다.

반외세, 반봉건의 구호밑에 일떠선 선행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옳바른 지도리론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탓으로 일제의 총칼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혁명은 항로를 잃고 수난의 소용돌이속에서 헤메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조선인민이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이 절박한 시대의 요구였다는것을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속에서 형상적으로 심각하게 밝혀내고있다.

안중근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그 시대는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비로소 맞이할수 있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가지는 사상예술적의의는 또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추악한 매국역적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망국의 길이며 재난의 화근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는데 있다.

영화는 일제의 보호를 받아야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잘살수 있다고 떠벌이는 리완용,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제놈의 향락과 부귀영화만 추구하면서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는 송병준, 일제의 위협공갈에 질겁하여 민족적지조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일제놈들에게 무릎을 꿇는 박제순 등 오적의 무리들의 사대매국행위를 력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낱낱이 까밝힘으로써 조정안에 한놈의 사대주의자, 매국역적이라도 틀어앉아있는한 나라의 운명은 도탄속에 빠지지 않을수 없고 민족의 운명은 구원될길 없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하여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외세의존사상과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가지는 사상예술적의의는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침략자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데 있다.

영화는 조선침략의 원흉이며 괴수인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와 동시에 미영제국주의자들, 서구렬강들과 지배주의자들의 력사적죄행들을 다양한 형상방법으로 생동하게 까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사상예술적의의는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소위 《합병》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의병투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본질적약점, 투쟁결과를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력사물취급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확고히 견지하였다는데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와 의의는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킴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리론과 방침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19세기말, 20세기초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력사의 교훈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준데 있다.

영화는 안중근과 그와 련계되였던 실제인물들,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무리들,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침략자들의 대표인물들 등 당대의 실재한 인물들과 력사적사건들을 그대로 설정하고 그리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기록적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맞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거대한 력사적화폭속에서 심화시키고 예리화할수 있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예술적성과는 극의 줄거리를 한 개인의 인정선으로 끌고가거나 망국의 력사로 새겨진 사건선만으로 끌고간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밀착시키고 사건선과 인정선을 예술적으로 조화되게 다같이 끌고나간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하나의 형상구조속에서 서사시적화폭과 극적화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극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력사자료들과 설화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부화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영화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모든 예술적성과들은 대담하고 세련된 연출형상으로 연기와 촬영, 미술과 음악 등 영화형상전반에서 완벽한 예술적조화를 이룩한데 있다.

영화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 해외침략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경제적침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에 대한 반제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한다.

영화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은 오직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밝힘으로써 계급해방, 민족해방 위업을 완성하는 투쟁에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을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1～10부)

다부작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은 조국해방

전쟁시기의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정탐물영화로서 이해에 10부까지 창작되였다.

이 예술영화의 1부부터 10부까지는 1부 《적후에서》, 2부 《적후에서 또 적후에로》, 3부 《적후에서 홀로》, 4부 《옛 성터에서》, 5부 《금강석》, 6부 《한 밤중의 저격사건》, 7부 《정적속에서의 전투》, 8부 《위험한 대결》, 9부 《《안개작전》》, 10부 《위기》로 구성되여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2년말 미제가 조선정전담판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새로운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준비하고있던 때에 적후에서 놈들의 전략적기도와 비밀모의들을 파탄시킴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한 우리의 영웅전사들의 대담하고도 슬기로운 투쟁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영화의 1～5부에서는 조선전쟁을 도발한 이후 거듭되는 참패를 당한 미제가 어떻게 하나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1952년말부터 새로운 모험적인 《신공세》를 준비하면서 온갖 음모책동을 꾸며낸 사실과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활동을 보여주며 6～10부는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동맹국》들에게 신심을 불어넣기 위하여 《모범전투》로 조직한 정형고지전투에서 또다시 대참패를 당하는 때로부터 《신공세》가 완전히 파탄되기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간고한 적후의 조건에서 싸워이긴 혁명전사들의 가슴깊이 간직된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혁명임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불태우며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85페지)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은 애국심이며 사람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때 가장 보람차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다는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조국이 주인공들인 유림과 순희에게 준 임무는 아름차고도 어려운것이였으며 적후의 조건은 위험하였다.

자기가 유림에게 정형고지전투비밀을 알려준것이 폭로되면 상전에게 처단될수 있다는것을 뒤늦게나마 느끼고 언제나 유림을 살해할 기회만 노리는 악랄한 원쑤 박무, 유림이를 《붉은 정탐》으로 가정하고 행동하라는 클라우스의 지시를 받고 그의 뒤를 집요하게 따르는 마텅…

이러한 정황속에서 공작을 계속한다는것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였다.

그러나 유림은 완강하고 기지에 넘친 행동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얻어 제때에 본부에 알려줌으로써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영화는 오직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는 유림이의 이러한 혁명적의지는 조국이 없이는 사람다운 삶이 있을수 없고 청춘도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있었기에 유림은 본부에서 소환한다는 소식을 받고도 부상당한 몸으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적후에 혼연히 남는것이며 원쑤들의 총구가 기다리고있는 전선지구에 들어가 미제의 《신공세》음모의 내막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는것이다.

영화는 또한 중산층의 평범한 녀성 숙영이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 오직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서는 길만이 민족적량심을 지키는 길이며 자신과 가정의 참다운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더욱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또한 영화는 유림과 순희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이 지닌 조국애를 원쑤들이 부르짖는 이른바 《조국애》와의 대조적인 형상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참다운 조국애란 어떤 사상감정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이렇듯 폭넓은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란 고향과 고향사람들, 조국강토와 민족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혁명가들만이 변함없이 간직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은 바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있기에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한 여기에 영화의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으며 철학적심오성이 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이 거둔 또하나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자본주의사회의 리면을 깊이있게 발가놓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한데 있다. 영화는 미제가 그토록 발광적으로 준비한 《신공세》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또다시 판문점으로 기여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를 정당하게도 적들의 본질적인 약점인 사상정신적인 취약성에서

찾고 정형고지전투의 참패를 계기로 더욱 첨예화되고 로골화되는 적들의 모순을 예리하게 해부하고있다.

제가끔 상전을 등에 업고 출세해보려고 상대방을 꺼꾸러뜨릴 음모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는 신재선의 반《정부》 청년장교패거리들과 김창룡의 패거리들, 이들의 모순을 리용하여 피뢰들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복무할 새로운 주구를 찾으며 《신공세》에 잘 끌려들지 않으려는 《동맹국》들에게는 《원조》를 삭감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미제, 낮에는 국회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밤에는 그 정부에서 차리는 연회장에 가면서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영국국회 하원의원 오벨, 유림이의 수술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병원 원장과 그를 무시하고 《군부의 지시》로 수술을 내리먹이는 신재선, …

이러한 형상들은 《민주주의》요, 《조국》이요, 《동맹》이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뒤에서 등치고 간빼먹는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는 억만장자들과 그 사환군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반영이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인간관계란 본질에 있어서 황금만능에 기초하고있는 서로 물고뜯는 승냥이법칙이 작용하는 인간관계라는것을 확인하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정탐물영화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구현하여 의의있는 사상들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특히 주인공들의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섬세하고 생동하게 그린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더욱 믿음직하게 보장해주고있다.

유림이가 뜻깊은 설날아침에 혁명전우였던 홍식이의 무덤으로 첫걸음을 옮기는 장면, 그후 유림이가 마돈나다방을 찾았을 때 숙영이가 내놓는 술잔이 바로 홍식이가 자기에게 술을 부어주던 그 잔임을 알아보고 다시는 만날수 없는 혁명전우에 대한 그리움으로 터지는듯한 가슴을 달래여가는 장면…

공원에서 들꽃을 꺾고있는 소녀와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뜻밖에도 증오에 찬 숙영이의 눈길과 마주치게 된 순희가 말없이 괴로움을 삭이는 장면, 적후공작경험이 없는 숙영이가 마렁이 보낸 특무에게 걸려들어 위급하게 되였다는 련락을 받고 구원하러 달려갔다가 극도로 격분한 숙영이한테 뺨을 맞은 순희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조용히 자리를 뜨는 장면…

바로 이러한 의의있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들로 하여 영화는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혁명과 조국을 위한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한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정탐물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한 성과작으로 되게한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영화는 또한 뜻이 깊고 알기쉬운 명대사를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사상감정에 맞게 씀으로써 생활의 진실성, 철학성을 보장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영화에서는 작품의 주제사상과 주인공들의 사상심리세계를 표현하는데서 설화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조국의 따뜻한 부름을 받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는 주인공 유림이의 내면세계를 개방한 설화자의 시랑송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은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것이며 그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깨우쳐주는 감동적인 화폭이다.

무대예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진정으로 인민적인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357페지)

1979년에 무대예술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무용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무대에 올려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

우리 무대예술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와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 새로운 종합예술형식인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 《대부대선회작전》을 이미 창작한데 이어 1979년에 또 《압록강반의 해불》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고무한것이다.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해불》은 1937년 6월을 력사적배경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진행한 국내진공작전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은 조국진군작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남숙동무의 도천리와 신파일대에서의 지하정치공작활동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뜻깊은 간삼봉전투에 대한 형상으로 구성되여있다.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횃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세개방면에로 진출시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한편 조국진군원정대를 편성하시고 조국에로 진출하도록 하신 령활한 전략전술의 내용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녀정치공작원 남숙동무의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그의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작품은 보천보전투로부터 간삼봉전투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로정과 사실들을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진출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령활한 전략전술, 대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형상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군민일치의 미풍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압록강반의 횃불》은 압록강반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생활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으로서 이해 무대예술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인것이다.

이해에 또한 당의 명곡창작방침과 주체적관현악건설방침이 음악예술에 훌륭히 구현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노래한 송가로부터 혁명적인 노래, 사회주의조국을 칭송한 노래, 당정책을 반영한 노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형상한 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주제에 걸쳐 다양한 종류와 양상의 명곡들과 관현악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사회주의조국을 노래한 훌륭한 가요작품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사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리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해에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노래들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나의 조국》
《예가 바로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사랑하는 내 조국 수령님 품이여》
《영광 빛나라 공화국기치여》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라오》
《인민이 주인된 행복한 내 나라》
《내 나라는 어데 가나 살기 좋아라》
《찬란한 나의 조국이여》
《어머니조국을 나는 사랑해》
《내 조국은 수령님 모신 한가정》
《번영하는 내 조국 지켜가리》
《수령님 사랑 넘친 내 나라》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내 나라》
《내 나라는 락원의 금수강산》

또한 무대예술부문에서는 음악무용소품창작과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우리 무대예술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켰다.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내놓은 무용 《사판장파 전사들》을 비롯하여 《상모춤》, 《붉게 핀 해당화》, 《백두의 해돋이》, 《은파호에 달빛 흐르네》, 《산촌의 가을》 등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무용기교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한 좋은 작품들이였다.

다양한 종류와 양상의 음악무용소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 사업과 함께 공연종목편성에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을 적극 탐구하여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우리 무대예술은 이해에 내용이 깊으면서도 더욱 참신한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1979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전투적이며 생기발랄한 새로운 교예작품들도 많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그네비행》, 《줄자전차》, 《회전도립》, 《그물놀이》등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화적수요에 훌륭히 대답한 좋은 작품들이다.

이해에 무대예술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로선, 방침에 의하여 이룩된 결실이다.

주체미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34페지)

1979년에 미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는 대기념비와 불멸의 화폭들을 창조함으로써 혁명적미술의 사상예술적의의를 더욱 크게 하였으며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이미 만수대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들을 창조한 우리 미술은 이해에 또 삼지연대기념비를 일떠세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유서깊은 삼지연못가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과 력사적인 기념비 대조각군상을 세운것은 우리 미술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이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주체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해 우리 미술발전에서 혁신적성과는 만수대창작사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여 수백편의 작품들이 창작된것이다.

《우리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몸소 고난의 앞장에 서시여》, 《산간마을의 유치원을 찾아주신 아버지원수님》, 《항만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비롯한 조선화, 유화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한 혁명미술작품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던 항일유격대원들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신 력사적인 사실을 형상한 《우리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와 혁명적의리로 충만되여있는 작품으로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유격대원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반영하였다.

작품의 중심에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가슴을 들먹이는 유격대원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숭엄하게 형상되였다.

조선화 《산간마을의 유치원을 찾아주신 아버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산간마을의 유치원을 찾으시여 어린이들에게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감동적인 내용을 반영하였다.

작품에 그려진 어린이들의 생동한 심리묘사와 세부형상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행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자신께서 타시였던 말과 입으셨던 외투, 쓰시였던 모자마저 전부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모신 조선화 《조국의 미래를 한품에 안으시여》를 비롯하여 《항만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석탄전사들을 현지에서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등 미술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이 승승장구하는 영광의 오늘이 있으며 우리 인민이 발휘하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생동한 직관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사회주의건설주제,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조선화, 조각, 유화, 수채화, 출판화, 벽화, 수공예작품들과 산업미술과 건축장식미술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조선화 《수령님 오신 밤》, 《사령부의 신호소리 들려온다》, 《친어버이사랑》 등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전형적인 생활소재에 담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이다.

병사시절 배낭을 어깨에 메고 탄광마을을 찾아오는 미더운 제대군인들을 형상한 조선화 《당이 부르는 초소에로》, 자기가 섰던 혁명의 초소를 대를 이어 물려주는 깊은 내용을 그린 조선화 《아버지와 아들》, 농촌기술혁명의 길에서 청춘도 행복도 꽃피워나가는 다정다감한 뜨락또르부부운전수를 형상한 유화 《부부운전수》, 조각 《로는 순간도 멈출수 없다》등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들로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곳은 어디이며 그들의 위훈이 빛날곳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예술적해답을 준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이다.

조국통일과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조각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조선화 《공납금》 등도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다.

벽화 《대지의 주인》을 비롯하여 교예극장과 평양대극장의 건축장식도안들과 동물원정문의 건축장식조각들도 좋은 작품들이다.

이밖에 수예 《봄》, 《만경대고향집》, 유리공예 《〈김일성화〉무늬꽃병》, 도자공예 《병아리하회장식꽃병》, 《기러기무늬꽃병》, 《백살구꽃 돋을무늬꽃단지》, 소뿔공예 《적진을 뚫고》, 금속공예 《들국화무늬장식꽃병》 등은 민족적정서가 짙고 섬세하고 정교로운것으로 하여 높이 평가되였다.

이해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하여 미술부문에서 내놓은 작품들이 거둔 특출한 성과는 조선화를 위주로 하여 우리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였다.

삼지연대기념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반영한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주체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로 진군하시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면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신 력사적내용을 예술적으로 반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기본으로 하여 독특한 구성체계를 이루고있는 대기념비의 교양마당은 종심 400메터, 너비 250메터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마당 종축선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세워져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부주제들인 《조국》편과 《숙영》편, 《봉화탑》이, 왼쪽으로는 《흠모》편과 《진군》편이 각기 방향을 달리하고 86상의 대군상조각이 다섯개의 부주제로 편성되여있다.

왼쪽의 《흠모》편과 오른쪽의 《조국》편은 갈라져있으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는 각계층인민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형상으로 하나의 종합을 이룬 기본주제의 속편으로 되고있다.

대군상뒤의 삼지연못가운데에는 5인군상 《조국의 물》편이 맑은 물빛을 안은채 정답게 떠있다.

교양마당 오른쪽 앞단에는 주체의 기치, 《봉화탑》이 높이 솟아있다.

《봉화탑》은 높이 50메터의 정4각 탑신우에 8각원형판 홰대를 설정하고 그 우에 붉은색 돌로 누리에 붙는 홰불을 형상하였다.

삼지연대기념비창조에서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와 경험은 우선 대기념비 형성과 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그 원칙적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세우고 기념비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동상이 돋보이게 하는데 복종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할수 있었다.

교양마당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가장 높이 세워져있으며 군상들은 물론 백두산, 수림과 같은 자연환경도 모두 수령님의 동상에 복종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있다.

대기념비는 각계층인민들과 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량쪽에 전개된 《조국》편이나 《흠모》편의 군상조각들은 모두 자기의 독자적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존경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할 결의를 다지는 각계층인민들과 대원들의 정신적풍모를 보여준다.

삼지연대기념비가 이룩한 성과는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형상을 새롭게 개척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려세운것이다.

조국애에 넘치는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20상의 군상으로 된 《조국》편은 경위중대지휘관들과 지하조직원, 환호하는 인민들, 조국애에 잠겨있는 대원들과 같은 3개의 구성부분으로 련속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신세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형상하고있는 26상의 군상으로 이루어진 《흠모》편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 각계층인민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마을청년의 입대장면, 정치선동을 돋고있는 벌목로동자들로 그 형상이 심화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군상에는 조국진군과정에 있었던 《숙영》편(7상)과 《조국의 물》편(5상)이 실재한 사실과 장소에 맞게 그대로 형상되였는데 인물형상이 매우 다정다감하고 정서적이며 감동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기념비 구성에서 절정부분을 이루는 《진군》편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27상의 개성적인 대원들이 극적계기속에 묘사되여있다.

《진군》편은 진격의 나팔수, 행군, 전투—세개의 련속된 내용으로 구성되여있다.

대형돌조각상인 《진격의 나팔수》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을 온 세상에 알리는 혁명의 기수로 상징화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의 숭고한 인간형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진군의 력사적환경과 그 뜻깊은 행로, 감동적인 생활들을 폭넓게 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개선장군으로 모신 우리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전반적 형상체계와 방법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인민성의 원칙을 옳게 살림으로써 누구나 보고 리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되여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예리론과 방침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나온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 나라 예술단들의 외국방문공연
(1979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활동을 잘하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대외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39페지)

1979년에 우리 나라 예술단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공연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과 리해를 더욱 두터이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예술단을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보내주신 친선의 예술사절로

온갖 성의를 다하여 맞이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활동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나게 시위한 보람찬 나날이였으며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자랑찬 로정이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인도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1월에 인도를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지방도시인 칸푸르, 칼커타에서 공연하였다.

1월 18일 인도공화국대통령 닐람 산지바 레디와 부인이 대통령궁전에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특별공연을 보았으며 예술단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방글라데슈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방글라데슈를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수도 다카와 지방도시 치타공에서 스물한차례에 걸쳐 공연하였다.

방글라데슈대통령 지아우르 라호만이 대통령궁전에서 예술단 성원들을 만나 그들과 담화를 나누고 그들의 공연을 보았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이 나라의 부대통령가족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일군들과 각계층군중들 5만여명이 공연을 보았다.

〈평양예술단의 말따방문〉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이 3월 25일부터 말따를 방문하였다.

〈국립교향악단의 로므니아방문〉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국립교향악단은 수도 부꾸레슈띠와 지방도시들인 마라무레쉬 도소재지인 바야 마레와 싸뚜 마레 도소재지인 싸뚜 마레 그리고 무레쉬 도소재지인 띄르구 무레쉬에서 여러차례 공연하였다.

5월 30일에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가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 지휘성원들을 만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 나의 가장 열렬한 인사와 아울러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며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가장 훌륭한 축원을 전하여드리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5월 18일에는 로므니아정부총리가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 지휘성원들과 주요 배우들을 만났다.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정부총리인 일리에 베르데쯔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수많은 근로자들이 보았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유고슬라비아방문〉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6월에 유고슬라비아의 호르바찌아사회주의공화국 수도 자그레브와 베오그라드를 방문하고 공연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프랑스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고 공연하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프랑스 사회계와 로동계급들, 빠리시민들 그리고 프랑스에 상주하고있는 각국 외교대표들과 많은 국제기구대표들이 보았다. 또한 에스빠냐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에브로》출판사 사장을 비롯한 빠리에 와있는 여러 나라 정치, 경제 활동가들, 《몽드》, 《피가로》, 《유마니떼》, 《프랑스 수아르》, 《꼬띠디앵 뒤 빠리》, 《마뗑》, 빠리제1, 제2, 제3 텔레비죤방송국 등 많은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문학예술사업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프랑스에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 먼 나라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빠리에 와서 《꽃파는 처녀》를 보았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알제리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7월에 알제리를 방문하고 공연하였다.

알제리 공보및문화부 책임참사와 관계부문일군들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또한 알제리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도 공연을 보았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핀란드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수도 헬싱키와 뚜루꾸, 라이시오시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하였다.

예술단의 공연을 핀란드교육부장인 인민민주련맹위원장,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정계, 사회계인사들, 핀란드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헬싱키시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았다.

4월 20일 핀란드민주소년동맹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환영하는 친선모임을 조직하였다.

친선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단마르크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9월 1일부터 9일까지 단마르크를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단마르크의 수도 꾀뻰하븐과 지방도시 알보그에서 여러차례 공연하였다.

공연을 꾀뻰하븐시 총시장과 시장들, 국회의원들, 정부관리들, 정당, 사회단체, 문화예술 및 출판보도계 인사들, 이 나라 주재 국제기구대표들, 수도와 지방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보았다.

우리 예술단을 위하여 단마르크환경보호및문화부장이 소연회를, 꾀뻰하븐시 총시장이 오찬을 마련하였다.

꾀뻰하븐시의 티두리청년가무단이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가무단성원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예술단을 환영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노르웨이방문〉 우리 나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이 나라의 수도 오슬로와 지방도시들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하였다.

예술단의 공연을 이 나라 수도와 지방도시의 수많은 시민들과 오슬로시장,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들, 정계, 사회계 인사들, 외교부일군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보았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중국방문〉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9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예술단은 심양, 베이징, 광주, 남경, 천진, 단동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하였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이 나라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과 수많은 중국인민들, 병사들이 보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화국봉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 앞서 중국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인 화국봉, 리선념, 등영초동지들이 우리 예술단의 단장과 부단장들 그리고 여러명의 주요배우들을 만나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우리 나라 평양교예단의 말레이시아방문〉 우리 나라 평양교예단이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교예단 단장은 이 나라 총리 다뚝 후쎄인 온과 문화, 청년및체육부장을 만났다.

공연을 본 이 나라 총리는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 배우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예단의 공연을 이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각계층군중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보았다.

〈우리 나라 평양교예단의 타이방문〉 우리 나라 평양교예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타이를 방문하여 32회의 공연을 하였다.

12월 17일 타이왕국 총리 크리앙사크 챠마난드가 평양교예단 단장을 만났다.

단장은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총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 타이정부와 인민과 자기자신의 가장 열렬한 인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전하여 드릴것을 단장에게 부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첫공연만도 정부의 고위관리들과 저명한 사회계인사들 500여명을 비롯하여 각계층 군중 6천 500명이 보았다.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1등〉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의 사이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제14차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우리 나라 인민배우 김택성이 환상요술종목에서 1등을 하여 해당한 컵과 상장을 수여받았으며 종합성적에서도 1등을 하여 축전의 최고상인 《그랜드》컵을 받았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교예단, 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본 외국인들의 반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우리 나라 예술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의 주체예술은 마를줄 모르는 예술의 풍만한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천리마조선은 예술의 나라》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500년 구라파가극사를 뒤집어엎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가장 성공한 현대가극》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인민에 대한 빛나는 상징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에 대한 완전무결한 상징이다.

나는 당신들의 공연을 보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빠리예술사 총사장 쏘리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위대성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만당하고 철학적으로, 리론적으로 우롱당하며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벗들 프랑스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각성을 준다는데 있다.

우리 로동자들이 알고있는 조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선은 모든 면에서 20세기의 선구자이다.》(프랑스리노자동차공장 로동자이며 로조일군 필리프디)

《혁명가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산 증거물이다.

나는 그이의 로작들에서 참다운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려면 사대주의와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현대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상에 접하여 커다란 공감을 느꼈는데 그 사상과 리론의 현실적인 성공을 오늘 보았다.

이것은 참으로 찬양하고 따라야 할 위대한 모범이다.》(에스빠냐의 《에브로》출판사 사장)

《조선에서 가극예술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책과 방침이 잘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이 가극한편만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것은 가극을 민족적특성과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현시대 인민들의 미감과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철학가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정책과 예술발전에 대한 사회적, 전인민적 지원이 보장되고있는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선예술인들의 공로는 동방적이면서도 서방의 감정에 맞고 민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가극예술을 창조한데 있다. 우리는 프랑스와 서구라파의 일류급 예술가들을 무색케한 조선의 우수하고 재능있는 예술가들과 그들을 키워내고 이끌어주고있는 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프랑스작곡가 레스 빠르데이)

《조선의 가극은 내용만 아니라 노래와 관현악, 방창, 무대미술 지어 조명까지도 다 하나로 신비롭게 조화된 극치의 예술이였다.

조선의 가극은 구라파가극의 본래의 모든 방식과 수단을 새롭게 검토할것을 제기하였다.》(프랑스예술평론가 삐에르 싸바찌에)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한 만수대예술단은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를 통하여 조선이야말로 현세계의 인류문화의 중심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나라이라는것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조선의 새 가극 〈꽃파는 처녀〉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데 없이 완성된 훌륭한 예술이다.

이 가극은 또한 구라파가극과는 달리 내용과 형식, 정서에서 전혀 새롭고 창조적인것으로 하여 우리의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유네스코 총국장)

《탁월한 걸작이다. 새로운 형의 혁명가극이다. 세계사람들이 이 가극을 보고 〈우리 시대 가극혁명의 포성이 조선에서 울렸다〉고 말하고있는것은 백번 정당하다.》(프랑스기자 까르떼쓰)

《부드럽고 은근하고 한번 들으면 곧 친숙해지는 조선음악이야말로 진짜 음악이며 고상한 음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사상에서 고무적이고 형식에서 전인류적이며 창조에서 독창적이며 매혹적인 조선의 새로운 가극을 구라파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

500년 구라파가극사를 뒤집어엎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가장 성공한 현대가극이다.》(프랑스무대미술가 로로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예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은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당신들이 도달한 예술의 사상예술성의 높이는 히말라야산줄기보다 더 높으며 예술의 세련된 기교는 인도양보다 더 깊고 신기하다.》(인도 칸푸르자치주의 쁘린국민학교 교원 샤드마)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방글라데슈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재능있는 소년예술단을 친히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선의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축원합니다.》(방글라데슈 지아우르라호만 대통령)

《나는 공연을 보고 조선의 미래를 확신할수 있었으며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참으로 조선은 탁월하고 세련된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모든 부문이 끝없이 발전하고있는 위대한 나라로 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는 걸출한 수령이시다.》(방글라데슈 남부지역 장관 싸이푸딘 아흐메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칸푸르 전체 인민들의 이름으로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하시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가로 키워주고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인도 칸푸르자치주 지사 무

니랄)

《혁명과 건설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할 때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울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진정한 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인도칸푸르공업대학 학생 라뜨바챠스)

《어떻게 되여 오래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이 세계최고봉의 예술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위대한 주체학설의 창시자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이 문화분야에 훌륭히 구현되였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에 철저히 구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며 예술의 대천재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일성주석을 따라배우면 위대한 조선처럼 발전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방글라데슈 다카경찰국 소좌 엘사드 마줌델)

《참말로 조선의 예술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로서 온 세상에 자랑할만한 월등하고 기적적인 예술이다.》(인도 서부벵갈주 보도 및 문화 관계 고문 아드히드 챠크라와르띠)

《조선의 예술은 최고봉에 이르고있으며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실로 김일성주석은 인류문화사에 불멸의 탑을 쌓아올리신 위대하고 걸출한 영웅이시다.》(인도《아무리뜨 바자르 파트리카》신문사 기자 에스벤도)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인간철학을 창시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인류문화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예술의 대천재이시다.》(방글라데슈 문화및체육부 국장 아미률 이슬람 가한)

《미래의 주인공들인 조선의 어린이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키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이시야 말로 사상의 거장이실뿐아니라 교육의 대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나는 세상사람들이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그토록 높이 칭송하는 뜻을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였다.》(핀란드 국회의원인 핀란드조선협회 뚜루꾸지부 위원장)

《오늘 저녁 조선어린이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으며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학생소년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공연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직접 느끼게 되였다.》(단마르크 꾀뻰하븐 총시장)

《조선소년들이 가지고온 모든 노래와 춤은 꽃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고 세련된 위대한 예술이다.

모든 부문에서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 조선의 어린이들만이 할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며 완성된 하나의 대걸작의 화폭이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교육하기에 나어린 학생들을 규률있고 례절이 바르며 예술적으로 완성된 수재들로 키워내는지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다.》(방글라데슈 부대통령 아브두스 싸따르)

《참말로 조선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시 노비 자그레브구역 공산주의자동맹 비서)

《오늘 공연을 통하여 조선이 인류예술의 참다운 모범의 나라라는것을 잘 알았다.》(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시의회 교육, 문화, 체육위원회 위원장)

《공연을 통하여 조선어린이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에서 재치있는 예술적기교와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 강한 조직성과 단결력을 찾아볼수 있었다. 이것이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나라 조선의 어린이들의 특징이다.》(단마르크 민주녀성동맹 위원장)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은 사상성에서나 예술성에서나 그 어느것이나 흠잡을데 없이 완전무결한 공연이다.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핀란드 무용배우 안뜨고 깐시)

《조선의 교예는 건전하고 인간의 슬기와 지혜, 용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주는 특출한 예술》

《조선교예는 바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힘있게 론증하여주고있다.》(타이 타마사트종합대학 총장)

《조선교예단의 성과는 천재적인 령도자와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안받침되였기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타이 기업가 링기아 그르람)

《훌륭한 높은 기교와 숙련을 지닌 교예단을 보내여 행복한 밤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께 감사를 드린다.》(타이 보건부장)

《매우 훌륭하다. 대단하다. 모든 종목들이 시간적공간이 없이 째여있으며 기교가 높다. 무대배경이 황홀하고 아주 아름답다.》(말레이시아 총리 다똑후쎄인 온)

《조선의 교예는 기성교예의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최고수준의 교예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교와 재능을 보여주는 완전무결한 교예이다.》(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상공업부장인 마하디르 빈 모하마드)

《이번 당신들의 공연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최상의 교예가 바로 아세아에 있다는 긍지와

영광을 금할수 없다. 이것은 아세아의 자랑이며 영예이다.》(말레이시아 문화, 청년및체육부총서기)

《완전무결하고 특출한 조선의 교예는 론박할 여지없이 최상의 높이에 올라선 훌륭한 교예이다.》(말레이시아종합대학 학생 잔수온)

《조선의 교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열정과 흥분, 기쁨뿐만아니라 용기와 지혜, 슬기를 안겨주는 교예이다.》(말레이시아종합대학 교원 죠세트 테일러)

《나는 동양사람으로서 이처럼 훌륭한 교예가 동양에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은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조선교예는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 용감성과 대담성을 완전무결하게 형상한 표본이다.》(타이 경찰부총감)

《조선교예야말로 자기의 민족적전통과 특색을 완전무결하게 구현한 교예이다.

서양교예들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조선교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며 참된 교예예술의 전형이다.》(타이전총리 타놈)

《사람들에게 밝고 깨끗한 정신세계와 용감성과 슬기를 안겨주는 참신한 교예는 오직 조선에서만 나올수 있다. 실로 조선은 용감성과 슬기의 화신이며 예술의 표본이다.》(홍콩텔레비존방송국 상무취체역 황량)

《대단히 훌륭하다. 상상할수 없는 교예이다. 조선에 갔다온 사람들이 조선교예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기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과연 무엇이라고 더 표현할말이 없다.》(타이총리실부장)

《조선교예가 훌륭하다는 소문이 방코크에 쫙 퍼졌는데 명실공히 일류급의 교예이다. 정말 제일 훌륭한 교예이다.》(타이 외교부장)

군중문화교양

근로자들이 문화활동에 적극 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힘있게 추진되여감에 따라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군중문화사업도 더욱 개선되였다.

1979년에 활발히 조직된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였다.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작품창작사업이 대중적으로 벌어져 소설과 시, 아동문학 등 여러종류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가운데서 출판물에 발표된것이 1979년상반년에만도 650여편에 달하였다.

사회주의건설현장에서 보내온 이 문학작품들은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이룩된 기적과 위훈을 형상한것으로서 교양적가치가 컸다.

특히 이해에 자강도내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문학통신원들이 사상예술적수준에서나 작품수에서나 훨씬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강선제강련합기업소 문학소조에서도 문학리론학습과 작품합평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청년들의 창작능력을 키워주었다. 이곳 로동계급들이 이해에 창작한 서정시 《용해공으로 산다는것은》, 《우리는 강선사람》 등은 좋은 작품들이였다.

창도광산의 한 로동자가 쓴 단편소설 《수정골처녀》와 함경남도 함주군 주서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이 창작한 서정시 《벌에 정들어 벼자라는 멋에 취해》 등도 형상이 생동하고 서정이 풍부한 좋은 작품들이였다.

이해에도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군중속에서 높아가는 문학작품창작열의에 맞추어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강습을 실속있게 조직하였으며 문학을 지망해나서는 근로자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이해에 조선미술박물관과 전국 여러곳에 있는 군중문화회관들, 로동자문화회관들, 극장들과 영화관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군중문화교양사업이 활발히 조직운영되였다.

부문별 미술전람회들, 전문예술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경연과 축전들, 웅변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군중문화활동이 년중 계속되였다.

이 과정에 자기 지방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잘 반영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정리한 노래와 춤들, 사회주의로동생활을 특색있게 형상한 문예소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하여 이해에도 우리 인민은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자기의 존엄을 더욱 빛내이게 되였다.

이해에 진행된 주요전람회들과 경연, 축전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산업미술전람회〉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산업미술전문가들과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360여점의 도안미술작품들과 장식미술작품들이 입선하였다.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하여 경공업위원회 산업미술연구소, 평양종합방직공장,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지방산업총국과 함경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행정위원회의 산업미술연구소에서 내놓은 작품

들이 좋았다.

〈전국풍경화전람회〉 전국풍경화전람회가 6월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조선화 150여점, 출판화 40여점, 유화 40여점, 모두 230여점이 입선하였다.

전람회에는 현역미술가들과 전문창작단체 미술가들의 작품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 농민, 학생, 군인 등 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

〈만수대창작사창립 20돐기념 미술전람회〉 만수대창작사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여 미술전람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조선화, 유화, 벽화, 조각, 공예, 수예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22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입선하였다.

〈전국공예전람회〉 8월말부터 10월까지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전국공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자수예술과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자개박이옻칠공예, 금속공예, 돌공예, 초물공예 등 공예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공예가들과 수예가들 그리고 공예미술을 지향하는 공예애호가들이 창작한 29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예술인웅변대회〉 제7차 청년예술인웅변대회가 2월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웅변대회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중앙예술단체들과 예술부문 대학 그리고 문화예술부산하기관들에서 선발된 130여명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부문별, 지역별 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된 웅변대회에서는 30여명이 중앙에 추천되였고 그중 4명의 웅변발표자들이 1, 2, 3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전국로동자예술소조축전〉 전국로동자예술소조축전이 3월 7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무대에는 시, 군 경연을 거쳐 도경연에서 뽑힌 좋은 예술작품들이 각도와 평양시, 개성시, 청진시, 철도부 단위로 올랐다.

락원기계공장 로동계급들이 출연하는 시와 노래 《락원의 마음》을 비롯하여 룡등탄광, 신의주수지일용품공장,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룡성기계공장, 원산음료공장, 해주의학대학병원, 혜산방직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내놓은 작품들이 좋았다.

〈전국텔레비죤문예소품축전〉 전국텔레비죤문예소품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조선인민군구분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구분대들의 예술선전대 등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 내놓은 무대예술소품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고있는 벅찬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면서도 특색이 있는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였다.

〈전국독연가경연〉 전국 무대예술부문(음악, 무용)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전국독연가경연이 7월에 진행되였다.

예선은 지방에서, 2선, 3선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 경연에는 전국의 재능있는 수많은 성악가, 기악연주가, 무용가들이 참가하였다.

〈전국음악무용소품축전〉 전국음악무용소품축전이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무대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음악, 무용 소품 수백편이 올랐다.

〈전국청년독창, 독주중앙경연〉 전국청년독창, 독주중앙경연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사로청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종목들은 남녀독창, 기타, 하모니카, 손풍금 독주들이였다.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이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국영 및 협동농장과 농업부문 기관, 기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무산군 무산협동농장, 강동군 하리협동농장, 혜산호프농장, 새별군 룡신협동농장 예술소조에서 내놓은 작품들이 좋았다.

3대혁명수행에 기여하는 도서관

1979년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은 사업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책들을 더 많이 갖춤으로써 근로자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힘차게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269폐지)

1979년에 모든 도서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학습을 잘 도와주었다.

도서관들에서는 열람실들을 새로 정비확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많은 책들을 더 보충하였다.

이해에 중앙도서관과 각도, 시(구역), 군, 대학도서관들, 기관, 기업소의 도서실들에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서고》에는 《김일성저작집》

1, 2, 3, 4, 5권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베닌인민공화국 내무안전및민족방향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륙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등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이 새로 더 보충되였다.

또한 모든 도서관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배려를 깊이 체득하는데 이바지하는 책들인 《항일무장투쟁사》 9권까지, 《인민들속에서》 17, 18권 등을 서고에 새로 보충하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2부를 비롯하여 많은 문예작품들도 도서관들에 더 갖추어졌다.

특히 이해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필요한 과학기술도서들이 도서관 서고들을 풍부히 하였다.

1979년에 도서관운영사업에서도 성과가 많았다.

이해에도 주요기념일들을 계기로 충분한 준비밑에 주제모임을 조직진행하여 도서관의 많은 독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들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행군도서관》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찾아가 이동문고를 널리 조직하는 혁명적사업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되였다.

중앙도서관에서만도 1978년에는 54개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1979년에는 2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문고와 통신대출, 현장봉사를 조직하였다.

자강도도서관을 비롯한 각도 도서관들에서도 도내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동문고를 조직하였으며 현지봉사활동을 강화하였다.

도서관일군들은 대상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발전과제와 그 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충분히 알고 해당한 기술도서들을 기동성있게 보장해주는 한편 없는것은 중앙도서관과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밑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주었다.

이것은 각지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수만수천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979년에도 도서관들에서는 소설이야기모임, 읽은책발표모임, 과학강연 등도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튼튼히 확립해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79년에 도서관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독자수장성계획, 도서리용계획, 책수집계획 등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은 주체사상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문화를 탐구하는 학습당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주 체 체 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체육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58페지)

1979년에 체육부문에서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을 체육사업에 널리 참가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보았다.

체육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모두가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체육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이해에도 대중속에서 많은 체육선수들이 자라났고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체육명수들이 나왔다.

1979년에 활발히 진행된 대외체육활동은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9년에 체육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주체적인 체육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

체육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한것은 이해 체육부문의 커다란 성과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열성이 아무리 높고 훌륭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참가할수 없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체육활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인민반과 가정들에서는 구체적실정에 맞게 체육사업이 조직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체육 시설과 기자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체육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종목별 체육소조들을 무은 다음 전체 종업원들이 자기 체질과 소질에 따라 소조들에 들도록 하였으며 소조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중앙기관들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인민보건체조를 하고 집단달리기를 하는것이 정상화되였다.

전국적으로 다채롭게 조직되는 체육대회는 물론 기관들에서도 휴식일과 국가적기념일마다 작업반별, 직장별, 부서별,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데서뿐아니라 그들에게 휴식을 즐기고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는데서도 좋았다.

특히 9, 10월 인민체력검정월간에 진행된 인민체력검정사업에는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자각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체육부문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학생인 조건에서 학교체육을 강화하는것이 나라의 전반적 체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학교체육사업발전에 모를 박았다.

이해 모든 학교들에서는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업간체조와 집단달리기, 집단체조와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과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1979년에 체육사업들이 대중화된 결과 온 나라는 명랑하고 전투적인 생활기풍으로 차넘쳤고 전체 인민이 다 튼튼한 몸으로 지칠줄 모르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들을 쌓아나갔다.

국내경기들에서 공화국기록들을 갱신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전술체계를 세우고 체육기술을 계속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년중 계속된 국내경기들에서 이해에도 수십종목에 걸쳐 공화국기록이 갱신되였다.

체육절 30돐기념 체육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만도 33명의 남녀선수들이 22개종목에서 공화국새기록을 세웠다.

이 선수권대회 력기경기에서는 7명의 선수들이 7개종목에서 종전의 공화국기록을 깨뜨렸다.

67.5키로그람급 끌어올리기에서 평양시체육단의 리광국선수는 종전기록에 비해 4.5키로그람을 더 들어올렸다.

해양경기에서는 16명의 선수들이 5개종목에서 공화국 새기록을 세웠다.

엇젓기 남자2인 1만메터경기에서 해양체육단의 김락진, 리일남선수들은 종전기록보다 41초 6을 앞당겼다.

제5차(겨울철종목)인민체육대회의 속도빙상경기에서도 4개의 종목에서 공화국새기록이 나왔다.

보통강체육선수단의 박금현선수가 녀자 500메터와 녀자 1천메터경기에서, 자강도체육선수단의 전운심선수가 녀자 500메터경기에서, 보통강체육선수단의 녀자선수들이 2천메터 이어달리기경기에서 공화국 새기록을 세웠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도 력기, 사격, 헤염 경기들에서 많은 선수들이 공화국의 새기록을 세웠다.

1979년에 새로 세워진 공화국기록들은 경기들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체육부문에 철저히 관철된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국 내 주 요 체 육 경 기(1979년)

경 기 이 름	경기날자	경기장소
1979년 겨울철종목 전국체육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1월 18일—21일	부전
제5차(겨울철종목)인민체육대회의 속도빙상, 빙상호케이경기	1월 14일—22일	강계, 부전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2월 16일—25일	평양, 지방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3월 22일—4월 7일	평양, 지방들
제2차 《2월 2일상》체육경기대회	3월 2일—4월 5일	평양, 지방들
전국체육구락부생체육경기대회	3월 2일—4월 5일	
전국고등체육전문학교 학생체육경기대회	3월 22일—28일	
전국청소년대학생체육축전	3월 13일—4월 중순	대안시, 신의주시, 사리원시, 함흥시, 청진시
《4월 18일 우승컵》쟁취를 위한 제6차 전국인민학교 체육경기대회	8월 11일—16일	평양
제17차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	8월 25일—29일	해주
전국고등체육전문학교학생체육경기대회	8월 28일—31일	평양
《4월 18일 우승컵》쟁취를 위한 종목별 체육경기대회	8월 29일—9월 5일	묘향산, 해주
체육절 30돐기념체육종목별공화국선수권대회	9월 9일—9월말	평양, 지방들
전국청소년학생마라손경기대회	10월 25일—27일	함 흥
제3차《2월 2일상》체육경기대회	10월 22일—28일	평 양
전국륙상경기대회	10월 30일—11월4일	평 양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체육의 위력을 시위

1979년에 우리의 체육기술은 크게 전진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주체적인 전술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게되였으며 체육의 많은 종목들이 한계단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전문체육인들의 대렬도 훨씬 강화되였다.

군중체육의 튼튼한 터전우에서 자라난 우리의 전체 체육선수들은 이해에도 여러 종목에 걸치는 국제경기들에 나가 높은 기술과 왕성한 투지로 우승하였고 체육에서도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제5차 에쏜국제마라손경기대회〉 3월 25일 프랑스의 마씨에서 진행된 제5차 에쏜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고춘선선수가 제1위의 영예를 떨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25개 나라들에서 온 1천 500명의 우수한 마라손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고춘선선수는 2시간 13분 20초로 달려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제1위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의 권승일선수는 제3위를, 리종형선수는 제5위를 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단체성적에서도 1위를 하였다. 이 경기대회의 청소년급에 참가한 우리 나라 리병수선수는 2시간 24분 24초의 기록으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선수들은 4개의 우승컵과 2개의 금메달, 1개의 동메달을 탔다.

〈1979년도리가국제체조경기〉 4월 3일부터 5일까지 쏘련의 리가에서 진행된 1979년도리가국제체조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 김광진선수가 륜경기에서 19.35점의 최고점수로 제1위의 영예를 쟁취하여 금메달을 받았으며 강광성선수는 19.25점으로 제2위를 하여 은메달을 탔다.

강광성선수는 남자종합성적 55.85점으로 제3위를 하였다. 녀자조마경기에서 최정실선수는 19.025점으로 제2위를 하여 은메달을 탔다.

이 경기에는 28개 나라들의 이름있는 선수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모스코우뉴스》신문상쟁탈을 위한 국제체조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체조선수들은 륜경기에서 1, 2위를 쟁취하였다.

〈제3차국제체조명수급경기대회〉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코트부스에서 진행된 제3차국제체조명수급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광진선수는 륜경기에서, 강광성선수는 평행봉경기에서 각각 제1위를 쟁취하였다.

강광성선수는 또한 륜경기에서, 한광성선수는 철봉경기에서 제2위를 하였다.

녀자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 최정실선수는 조마경기에서 제3위를, 김춘필선수는 고저평행봉경기에서 제3위를 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6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선수단이 2위, 남자선수단이 6위를 하였으며 녀자단식경기에서는 리성숙선수가 2위를, 녀자복식경기에서 로정숙선수와 함께 3위를 하였다.

이 대회에는 78개 나라와 지역탁구선수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제10차《쉐찐상》국제권투경기대회〉 5월 쿨스까에서 있은 제10차《쉐찐상》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리병욱(48키로그람급), 여현식(51키로그람급), 정조웅(57키로그람급), 장봉문(75키로그람급) 선수들이 각각 1등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았다. 김윤철(54키로그람급), 한춘길(60키로그람급), 전도환(63.5키로그람급)선수들은 각각 3등을 쟁취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특히 장봉문선수는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특별기술상을 받았다.

〈국제예술체조경기대회〉 6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예술체조경기대회가 있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종합성적에서 1, 2, 4, 5등을 하고 우승컵과 금메달, 2개의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개인종목별경기에서는 3개의 금메달, 4개의 은메달, 3개의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박화성선수는 기술상을 받았다.

〈아세아륙상경기대회〉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의 도꾜에서 진행된 아세아륙상경기대회 녀자 1,500메터달리기에서 우리 나라 김옥선선수가 제1위를, 김춘화선수가 제2위를 쟁취하였다.

김옥선선수는 4분 25초 0의 높은 기록을, 김춘화선수는 4분 29초 1의 기록을 내였다.

녀자 3,000메터 달리기에서도 김옥선선수는 9분 24초 9의 높은 기록으로 또다시 1위를 쟁취하였다. 김춘화선수는 제3위를 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19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은 2전 2승하여 1등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우승메달을

받았다.

이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녀자배구선수단들이 참가하였는데 우리 나라 선수단은 일본선수단을 3대 0(15 : 9, 15 : 6, 15 : 4)으로, 중국선수단을 3대0(15 : 4, 17 : 15, 15 : 1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의 리춘희선수가 기술상을 받았다.

〈국제활쏘기경기대회〉 6월 23일과 24일에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활쏘기경기대회 남자성인경기에서 우리 나라 김영균선수가 제1위를 쟁취하였다. 녀자청소년경기에 출전한 석창숙선수도 제1위를 하였다. 최순옥, 박순옥선수들이 제2위와 제3위를 하였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남자배구경기대회〉 7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나라의 원산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남자배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은 4전 4승의 성적으로 1등을 쟁취하였으며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았다. 한영남선수가 기술상을 받았다.

이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뽈스까, 쏘련, 웽그리아 청소년남자배구선수단들이 참가하였다.

〈제7차여름철쏘련인민체육대회 력기경기〉 우리 나라의 한경시선수가 7월 25일 제7차여름철쏘련인민체육대회 력기경기에 출전하여 새로운 세계기록을 세웠다.

한경시선수는 52키로그람급 끌어올리기에서 111키로그람을 들었는데 이것은 쏘련선수가 세운 이전 기록을 0.5키로그람 갱신한것이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력기경기대회〉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의 남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력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이 단체성적에서 제3위를 하였다. 우리 나라 정성학선수가 기술상을 받았다.

이 경기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벌가리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꾸바, 쏘련 선수단들이 참가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 8월 6일 베를린에서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위스무르제라 축구선수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여 4대 2로 이겼다.

〈사회주의나라 국제모형항공경기대회〉 8월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국제모형항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정식선수가 활공기종목 개인성적에서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받았으며 김동식선수는 고무동력기종목 개인성적에서 2등을 하였다.

또한 무선조종교예기종목 단체성적에서 2등을 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8개의 사회주의나라에서 11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웽그리아 군대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 8월 9일 조선인민군축구선수단이 웽그리아 호드메죠바사르헬리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에서 3대 2로 이겼다.

〈1979년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 8월에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1979년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며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쟁취하였다.

이 선수권대회에서 임정관(52키로그람급)선수는 추켜올리기와 종합성적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양의영(56키로그람급)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고 종합성적에서도 1등을 하여 2개의 금메달을, 끌어올리기에서 2등을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이 선수권대회에는 11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활쏘기경기대회〉 8월 16일과 17일 사이에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활쏘기경기대회에서 단체종합성적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의 남자 1조와 녀자 1조가 각각 1등을 하여 우승컵과 금메달을, 녀자 2조는 3등을 하여 동메달을 탔다.

개인경기까지 하여 우리 나라 선수들은 총 2개의 우승컵과 6개의 금메달, 7개의 은메달, 7개의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친선군대권투선수권대회〉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친선군대권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4개의 금메달과 4개의 은메달, 1개의 동메달을 탔다.

우리 나라의 리병옥(48키로그람급), 여련식(51키로그람급), 정조웅(57키로그람급), 장봉문(75키로그람급) 선수들이 우승하였다. 여련식선수에게 기술상이 수여되였다.

〈국제무선통신경기대회〉 8월 쏘련의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국제무선통신(다종목)경기대회 녀성, 소년, 청년조 개인경기들에서 우리 나라 선

수들이 각각 제2위를 하였다.

〈제10차베를린상국제권투경기대회〉 10월 7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행된 제10차 베를린상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인민체육인 구영조선수가 57키로그람급경기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받았다.

48키로그람급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지영철선수는 은메달을 탔다.

이 경기대회에는 18개 나라에서 온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온 외국선수단들과의 친선경기들(1979년)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과 꾸바녀자롱구종합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과 꾸바녀자롱구종합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2월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꾸바선수단이 이겼다.

〈우리 나라 유술선수단과 꾸바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유술선수단과 꾸바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2월 14일과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14일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5승, 2패, 3무승부로 이겼고 16일 경기에서는 꾸바선수들이 이겼다.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과 꾸바녀자배구종합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과 꾸바녀자배구종합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3월 25일 평양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꾸바녀자배구종합선수단이 이겼다.

〈우리 나라와 뽈스까 녀자배구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과 뽈스까녀자배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5월 30일과 6월 4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5월 30일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이 3대 0으로, 6월 4일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선수단이 3대 0으로 이겼다.

또한 2.8녀자배구선수단(6월 10일), 평양시녀자배구선수단과 뽈스까녀자배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들에서는 뽈스까녀자배구선수단이 이겼다.

〈우리 나라와 중국 청년체조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청년체조선수단과 중국청년체조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6월 7일과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남녀개인경기로 진행된 이 경기에는 두 나라에서 매종목마다에 각각 3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 청년종합녀자롱구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청년종합녀자롱구선수단과 체스꼬슬로벤스꼬청년종합녀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6월10일과 1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경기들에서는 우리 나라청년종합녀자롱구선수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 청년종합녀자롱구선수단을 이겼다.

〈우리 나라 청년유술종합선수단과 몽골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청년유술종합선수단과 몽골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6월 24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8승, 1무승부, 2패로 이겼다.

6월 22일에는 우리 나라 2.8유술선수단과 몽골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에서는 4승, 2무승부, 4패의 성적으로 두 나라 선수들이 비겼다.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들과 뽈스까 《모또르》축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에 온 뽈스까 《모또르》축구선수단과 우리 나라 기관차축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6월 27일 평양 모란봉경기장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종합축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신의주 경기장에서, 평양시축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7월 1일 남포경기장에서 있었다.

이 경기들에서 기관차축구선수단이 1대 0으로, 청소년종합축구선수단이 1대 0으로 《모또르》축구선수단을 이겼고 《모또르》축구선수단이 평양시축구선수단을 이겼다.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들과 웽그리아인민군축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에 온 웽그리아인민군축구선수단과 2.8축구선수단과의 경기는 7월 8일 모란봉경기장에서, 청소년종합축구선수단과의 경기는 7월 13일 신의주경기장에서, 압록강축구선수단과의 경기는 7월 15일 함흥경기장에서 있었다.

이 경기들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종합축구선수단은 웽그리아인민군축구선수단을 1대 1로 비겼고 우리 나라 2.8축구선수단은 1대0으로, 압록강축구선수단은 3대 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녀자배구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녀자

배구선수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녀자배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8월 9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3대 1로 이겼다.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들과 중국인민해방군 8.1녀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에 온 중국인민해방군 8.1녀자롱구선수단과 우리 나라 2.8녀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8월 16일에,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8월 22일에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들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들은 102대 99, 89대 76으로 각각 이겼다.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과 전일본축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에 온 전일본축구선수단과 2.8축구선수단과의 경기가 8월 19일 모란봉경기장에서, 우리 나라 해양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가 21일 남포경기장에서,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과의 친선경기가 모란봉경기장에서 8월 23일에 있었다.

이 첫경기는 3:0으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이겼고 후의 두 경기들은 득점없는 무승부로 끝났다.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과 쏘련모형항공선수단의 모범출연〉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과 쏘련모형항공선수단의 모범출연이 9월 6일 평양에서 있었다.

두 나라 선수들은 무선조종교예기, 모형활공기, 엔진기, 고무동력기, 선조종교예기 종목에 대한 모범출연과 무선조종교예기꼬리잡기 비행을 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종합유술선수단과 쏘련 아제르바이잔유술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청년종합유술선수단과 쏘련 아제르바이잔유술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9월 28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 청년종합유술선수단이 5대 3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녀자롱구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과 웽그리아녀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10월 4일 평양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이 88대 84로 이겼다.

〈조중 두 나라군대 남녀체조선수들의 모범출연〉 우리 나라 2.8남녀체조선수들과 중국인민해방군 8.1남녀체조선수들이 10월 14일 평양에서 모범출연을 하였다.

〈우리 나라와 타이왕국 남자롱구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과 타이왕국 남자롱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가 10월 24일 평양학생소년궁전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이 107대 76(59 : 37)으로 이겼다.

〈조중 두 나라 남녀사격선수단들 사이의 친선경기〉 우리 나라 남녀사격선수단과 중국 남녀사격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남자는 10개, 녀자는 5개 종목으로 진행된 개인 및 단체전에서 두 나라 선수들은 훌륭한 사격술을 발휘하여 여러 종목에서 아세아경기대회의 기록을 깨뜨렸다.

우리 나라 남자선수들은 소구경보총(엎드려 60발)사격 단체경기에서 제8차아세아경기대회에서 자기들이 세운 기록보다 15점이나 더 많은 2,376점을 쟁취하였다.

또한 소구경보총(3자세×40발)사격 남자 단체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선수들은 4,589점을 쟁취하였으며 이 종목 개인성적에서 1,159점을 땄다.

남자 공기보총사격 개인성적에서 387점, 녀자규격권총사격 개인성적에서 587점으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승하였다.

중국 남자선수들은 권총사격종목들에서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기관차체조선수단과 쏘련기관차체조선수단의 모범출연〉 우리 나라 기관차체조선수단과 쏘련기관차체조선수단의 모범출연이 11월 15일과 18일 평양에서 있었다.

〈평양남녀롱구선수단과 중국 남녀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평양남자롱구선수단과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남자롱구선수단, 평양녀자롱구선수단과 중국 흑룡강성녀자롱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들이 11월 18일과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18일경기에서는 평양남자롱구선수단이 89 : 73(43 : 40), 평양녀자롱구선수단이 101 : 62(51 : 31)로 이겼고 25일경기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남자롱구선수단과 평양녀자롱구선수단이 각각 이겼다.

이에 앞서 있은 경기들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남자롱구선수단은 압록강남자선수단과의 경기에서 비기고 2.8남자롱구선수단과의 경기에서

이겼다.

또한 평양녀자롱구선수단과 2.8녀자롱구선수단은 중국 흑룡강성녀자롱구선수단과의 경기에서 각각 이겼다.

〈2.8남자롱구선수단과 파키스탄남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 2.8남자롱구선수단과 파키스탄남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11월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경기에서 2.8남자롱구선수단은 파키스탄남자롱구선수단을 100 : 89로 이겼다.

이에 앞서 있은 경기들에서도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과 평양시남자롱구선수단, 압록강남자롱구선수단이 파키스탄남자롱구선수단을 각각 이겼다.

출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출판보도리론이 출판물들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1979년에 우리의 출판보도사업은 크게 전진하였다.

출판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였으며 출판보도물들의 정책적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상토론을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에 집중편집함으로써 이해에 우리의 보도물은 당정책관철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출판부문에서는 이해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열의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로작해설집들, 리론도서들을 많이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자료들도 많이 찍어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출판

출판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해에 발표하신 로작들과 이미 발표하신 로작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해에 발표하신 로작들인 1979년 **《신년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베닌인민공화국 내무안전및민족방향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또한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사업도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표하신 로작들 가운데서 **《조국땅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자》**,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해에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8년 10월 21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등 많은 로작들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1979년에 출판부문에서 특기할만한 성과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주체사상의 총서 **《김일성저작집》**을 새로 출판하면서 먼저 1, 2, 3, 4권을 발행한것이다.

《김일성저작집》의 발행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일성저작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는 오랜 투쟁과정에 몸소 쌓으신 풍부한 력사적경험이 담겨져있는 혁명과 건설의 참된 교과서이다.

새로 발행된 **《김일성저작집》**에는 이미 출판된 로작들과 함께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던 로작들이 년대적순위에 따라 수많이 수록되여있으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진들이 모셔져있다.

이해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말로 출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부터 1948년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하고있다.

《김일성저작집》 1권은 1930년 6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2권은 1946년 1월부터 12월까지, 3권은 1947년 1월부터 12월까지, 4권은 194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이 포괄하고있는 시기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사에서 주체의 위업이 개척되고 민족해방과 민주주의혁명위업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수행에 들어선 준엄하고 복잡한 투쟁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시기에 새롭게 내놓으신 혁명사상과 리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쌓으신 귀중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조선혁명의 진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많은 문헌들에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주체사상의 혁명적원리와 혁명가들이 견지해야 할 립장과 태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주적립장은 혁명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고 밝히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는 주체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작집에 수록된 로작들에서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임무를 규정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농민들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그 두리에 각계각층의 반제반봉건력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 수록된 여러 로작들에는 민족해방혁명수행방도로서의 무장투쟁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서의 유격전과 그 전략전술에 관한 리론, 유격근거지창설과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축성에 관한 문제 등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저작집 1, 2, 3, 4권에 수록된 로작들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적민주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확고히 실현하며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속에 수록되여있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정권을 잡은 인민대중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경제적개혁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그 실현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총화되여있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형의 당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침이 담겨져있는 많은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에서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침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로작들에서 새로운 주체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며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고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세움으로써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행동하는 강유력한 전일적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과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과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독립국가건설에 관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선전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의 낡은 사상독소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민주자주의식을 높여 건국위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작집에 수록되여있는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결속하면서》,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저작집에는 《산업의 복구발전과 전기공업부문일군들의 과업》, 《무산광산을 튼튼한 철광석생산기지로 꾸리자》, 《철도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수산업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하여》,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국영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바치신 수많은 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요구되는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자기의 기술,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는 자위의 혁명로선에 기초한 정규적인 인민무력건설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군사기술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저작집》 1, 2, 3, 4권에 수록되여있는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남조선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대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적민주기지로 꾸리고 그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단합시켜 미제의 식민지노예화정책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저작집에 수록되여있는 《세계로동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 천명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저작집 1, 2, 3, 4권에서 밝히신 사상과 리론, 로선과 방침들은 투쟁속에서 창시되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된 혁명의 위대한 진리이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력사적으로 수록한 《김일성저작집》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며 승리의 신심과 끝없는 열정과 투지를 안겨주는 혁명의 량식이다.

도 서 출 판

1979년에 도서출판부문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책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 걸친 도서들을 수많이 출판해범으로써 3대혁명수행에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해설한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방침들을 심오하게 전개한 리론해설도서들도 많이 출판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리론해설도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모두 5개 장으로 되여있는데 제1장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초, 제2장에서는 주체사상의 본질, 제3장에서는 주체사상의 요구, 제4장에서는 주체사상의 구현원칙, 제5장에서는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고있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판한 리론해설도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깊이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혁명전통교양자료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끝없는 충실성에 관한 자료들도 많이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을 회고하여 항일혁명참가자들이 쓴 년대기적인 종합회상기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전5권)이 이해에 발행되였다.

이 책에는 간고한 지하투쟁과 피어린 무장투쟁으로 20성상을 엮어온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길우에 찬란히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한없이 고결한 공산주의적풍모가 서술되여있다.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붉은 해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히시고 20성상의 간고한 항일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나누는 참다운 인민적수령의 투쟁력사를 새롭게 창조하신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구감이시라는것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이해에 전10권으로 출판되는 《항일무장투쟁사》의 제9권이 나왔다.

《항일무장투쟁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자주적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신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고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백전백승하는 투쟁방법과 투쟁경험을 주는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신데 대한 력사적사료들이 수록되여있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는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전사》를 출판하기 시작하여 이해에 8권까지 내놓았다.

총 30여권으로 출판될 이 책은 원시편, 고대편, 중세편, 근대편, 현대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조선전사》를 주체의 사회력사리론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출판하게 됨으로써 지난날 외곡되고 말살되였던 우리 인민의 력사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로 정확히 서술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의 력사과학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참다운 인민의 과학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이해에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도서들도 많이 나왔다.

1979년에 《언어학론문집》,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등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 책들도 많이 출판되였다.

1979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하는 각 부문에 걸친 여러가지 경제기술도서들이 그 어느해보다도 많이 출판되였다.

《경제기술지식》, 《합성섬유방직기술》, 《가스발생로자동차》, 《반도체소자편람》, 《망속물주머니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규소비료생산》, 《콩크리트굳히기와 그 설비》, 《내파전서》 (6), 《원자로에서 중성자이온화함》, 《원유미생물학》 등 과학기술도서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이밖에 《조선명곡집》(6), 《발성생리》, 《지휘기법》, 《체육무용》, 《학생체육소사전》, 《세계상식》, 《의학략어사전》, 《영조의학용어소사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노래집들, 체육기술도서들, 각종 사전류들도 출판되였다.

이해에 문예도서출판사업도 활발하였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을 다시 출판한것을 비롯하여 수십편의 장중편소설들과 단편집, 시집들이 출판되였다.

이해에 출판된 《해방후 서정시선집》에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창작발표된 시작품들가운데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서정시 170여편이 묶어져있다.

이해에 외국소설들도 많이 번역되였다.

그 가운데는 《청년근위대》(1, 2부), 《혁명군사위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고난의 길》, 《철의 흐름》, 《안나 까레니나》, 《로빈손 크루소》, 《청춘의 노래》, 《파멸》, 《압록강가에서》, 《전쟁과 평화》(1~4부)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각 대학출판사들, 교육도서출판부문에서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교재들과 교과서들, 참고자료들을 많이 출판하였다.

인민생활의 향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5페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와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걱정, 세금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 훌륭한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녀성로동자들은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밑에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로동보호제의 혜택으로 근로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모르는 안전한 로동조건에서 일을 하고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믿음직한 안전시설과 위생문화적조건이 갖추어져있고 충분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보호제의 혜택으로 로동자들은 작업복과 신발, 비옷, 솜옷까지 공급받고있다.

특히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고기, 기름을 비롯한 영양제까지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수업료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교육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있을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옷과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또는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 고등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며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실험실습,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1979년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옷과 내의, 신발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전체 농민들에게 질좋은 솜몇저고리를 무상으로 내주는 획기적인 시책을 실시하였다.

1979년에 국가에서는 교육사업비지출을 1978년의 111.7%로 늘이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해마다 수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1979년에 국가에서는 보건사업비지출을 1978년의 111.6%로 늘이고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을 증설하는 한편 전문과들을 더 조직하고 의약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더 잘 차례지게 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8시간 로동제와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100%의 생활비를 그대로 받으면서 1년에 14～28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특별한 건강보호를 요하는 근로자들은 생활비를 받으면서 한달～석달간, 혹은 그 이상 료양소에서 무료로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료양생활을 한다.

농민들도 매해 20일간 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으며 농한기를 리용하여 국가정휴양소들에서 휴식한다.

당과 국가에서는 아이가 많은 녀성로동자들에게 6시간 일하고도 8시간분의 생활비를 그대로 주고있으며 모성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일, 주, 월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이들을 맡아 길러준다.

특히 임신부들은 생활비의 전액을 받으면서 77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로동재해 또는 병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한 국가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실시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입고 쓰고 사는데서도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있다.

1979년에 국가에서는 살림집건설투자를 1978년의 134%로 늘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살림집이 차례지게 하였다.

이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시위인것이다.

상품공급 및 편의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45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사는 모든곳에 현

대적인 상업망이 빠짐없이 들어가있으며 국가에서 제정한 유일한 가격으로 상품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없이 공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뜨거운 배려밑에 이해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이 더욱 활발하였다.

간편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옷들과 신발, 여러가지 편직물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되였으며 텔레비죤, 랭동고, 부엌세간, 가구들이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 근로자들의 가정들에 더 들어갔다.

또한 이해에 상점들마다 주문매대를 따로 더 내온것을 비롯하여 주문에 의한 상품공급체계가 더 잘 서게 되였으며 상품이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 수요에 맞게 골고루 공급되였다.

식료상업부문에서도 주문매대를 따로 더 내오고 주문판매를 비롯하여 이동판매, 야간판매, 아침저녁판매 등 여러가지 판매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상업부문에서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상품원천을 늘이기 위한 투쟁도 벌려 중앙과 다른 도들에서 공급받던 식료원자재들을 지방자체의것을 수매하여 보장하는 사업에서도 성과가 컸다.

특히 식료상점들에서는 자체가공반을 더잘 운영하는것과 함께 식료품가내작업반을 늘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도와주어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발전의 추세에 맞게 나라의 봉사망들이 또한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모든 봉사시설들이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되여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떡국집, 지짐집, 온반집, 불고기집, 신선로집 등 한가지 품종을 전문하는 식당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이미 나온 가내식당들이 높은 수준에서 영업을 정상화하게 되였다.

많은 식당들의 주방시설들이 현대화되여 음식을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였고 음식물의 생산과 공급에서 위생문화성이 더 잘 보장되였다.

이해 11월 평양백화점에서 열린 전국상업부문 식료가공품전시회를 비롯하여 음식물품평회, 료리사들의 기술전습 등 식료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조직되였다.

봉사부문에서는 이해에 공원, 유원지, 극장과 영화관, 휴양지 등 전국도처에 청량음료점을 더 많이 내오고 약수, 신덕수, 사이다 등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리발소와 미용원, 목욕탕, 빨래집과 옷수리소, 양복점 등 편의봉사망들이 늘어나고 그 시설들이 현대화되여 우리 근로자들은 더욱 문명하고 문화적으로 생활하였다.

인민보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민중병원을 창설하시여 인민적보건시책을 베푸시던 혁명적인 보건전통에 기초하시여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해마다 인구 한사람이 근로자들의 두달분 생활비에 맞먹는 추가적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지불능력에 따라 의료상 권리가 실현되는 보건제도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크나큰 혜택이며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인민들에게 성별, 년령, 거주, 직업,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만 실시되는 배려이다.

근로자들의 병치료에 드는 진찰비, 실험검사비, 수술비, 약값, 왕진료 등 진단치료비와 식사비, 영양식사비, 료양치료비, 왕복려비, 건강검진비, 건강상담비, 예방접종비, 해산방조비, 교정기구비용, 보철비 등은 일체 국가가 부담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의료망과 보건일군대렬이 잘 꾸려짐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은 전문파적의료봉사도 충분히 받고있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는 종합병원, 인민병원들이 많이 꾸려져있을뿐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의 의무실로부터 아동병동과 소아과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의료봉사망, 평양산원으로부터 각급병원의 산부인과를 거쳐 리병원의 산과로 이루어지는 녀성의료봉사망, 동의전문병원과 병원들의 동의과와 리의 동약방으로 이루어지는 동의의료봉사망, 구강예방원으로부터 리인민병원의 구강과에 이르는 구강의료봉사망, 구급병원들과 각급 병원의 구급과로 이루어지는 구급의료망, 이르는곳마다에 설치된 광천료양소와 기후료양소를 비롯한 각종 전문료양소로 이루어지는 료양의료봉사망 등 전문파적의료봉사망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1979년말 현재 인구 만명당 의사수는 23.3명, 병원침대수는 120대로서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당당히 들어섰다.

우리 나라 의사수(인구 만명당)

1979년	해방전
23.3명	0.5명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배려에 의하여 이해에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하여 예방의학적대책을 철저히 취하였다.

그리하여 세상에 태여나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태안에 있을 때에는 산부인과 담당의사에 의하여, 열여섯살까지의 아이들은 소아과담당의사에 의하여, 어른들은 내과담당의사에 의하여 철저한 건강관리를 받고있다.

임신한 녀성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담당의사에 의하여 임신전기간에 20회이상의 진찰을 받으며 해산할때가 되면 병원에서 해산방조를 준다.

1979년에도 의료일군들은 자기 담당구역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매 가정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주었으며 주민들이 자그마한 병으로 앓을때에는 제때에 치료해줌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았다.

1979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민 한사람당 의료봉사회수는 18.4회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 한사람당 의료봉사회수

1979년	해방전
18.4회	도시 0.93회 농촌 0.09회

주민 한사람당 래원회수는 1979년 현재 해방전에 비하여 36.8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은 위생방역사업을 통하여서도 철저히 관철되였다.

1979년에도 위생선전을 강화하여 인민들 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생활과 로동환경을 위생적으로 꾸리고 위생방역사업을 일상적으로 벌려 모든 병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진행되였다.

이해에 국가에서는 많은 자금을 돌려 일본뇌염을 비롯한 온갖 질병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 집단검진과 그에 기초한 예방사업, 소독사업 등을 조직하여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천연두, 콜레라, 재귀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없어졌으며 모든 질병의 리병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질병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성병, 마약중독, 알콜중독과 같은 질병은 하나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결합하여 의학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도 우리 나라의 자립적인 공업과 제약원료원천에 철저히 의거하여 인민들의 수요와 질병동태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현대적인 중앙제약의료기구공장과 함께 각 지방마다에는 중소규모의 제약의료기구공장을 내오고 공장과 기업소에는 제약직장 또는 작업반을 꾸려 지방의 원료와 자재, 여러가지 중간산물과 부산물들을 리용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군중적운동으로 생산하고있으며 전문약초원과 전문목장을 꾸리고 협동농장들에는 약초작업반을 조직하여 동약생산을 늘이고있다.

사회주의보건제도 아래서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인민들의 건강은 날을 따라 좋아지고있으며 건강지표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1979년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4.4였다. 이것은 해방전에 비하여 사망률이 5분의 1로 줄어든것으로서 선진문명을 자랑하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대비하여 볼때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낮은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망률(천명당)

1979년	해방전
4.4	20.8

사망률이 줄어든 결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35세나 늘어나 1976년에 73세에 이르렀다. 이것은 해방후 사람들의 수명이 해마다 1년이상씩 늘어나 지난 30여년동안에 거의 2배로 연장된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선진적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전반적무상치료의 혜택으로 60청춘,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도시경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4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크나큰 배려로 우리 나라에서 도시경영사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현대적인 상하수도시설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생활가구비품이 갖추어진 공해

를 모르는 문화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1979년에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건물보수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깐지게 일해나갔다.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건물별로 건설한지 몇년이 지났는가, 보수는 언제 하였는가, 상하수도는 어떤가,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상태는 어떤가 등을 일일이 료해장악하고 정상적으로 순회하면서 변동된 사항들을 장악하고 보수를 따라세웠다.

건물보수관리에서는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물보수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또한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건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건물과 시설물의 주기보수체계에 철저히 근거하여 보수를 질적으로 잘할수 있으며 마음먹은대로 거리와 마을을 꾸릴수 있고 긴장한 수송의 부담도 덜어줄수 있다는 립장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체의 건재기지를 튼튼히 꾸렸다.

함주군을 비롯한 나라의 많은 군과 도시들에서 자체의 건재기지를 꾸려놓고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을 조화맞게 보수하였으며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망들도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렸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건재, 음료수, 열 생산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수준을 훨씬 높였다.

길쓸기와 잔디깎기, 하수도준첨과 보이라불때기등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들을 기계화하는데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이해에 건물들과 살림집의 내부구조를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감정과 풍습에 맞도록 더 좋게 개조하는 사업들도 진행되였다.

또한 이미 있는 수원지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능력을 늘이며 관망들을 제때에 보수하여 음료수의 생산과 공급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뜨거운 배려로 이해 나라의 많은 공원과 도로, 명승지와 유원지들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다.

이해에 서평양역으로부터 서포까지의 도로가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강원도내의 명승지들인 송도원은 종합적인 대유원지로, 금강산은 절승경개에 대한 탐승지로, 시중호는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도중휴식터로, 석왕사는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고적지로 각각 특색있게 꾸려졌다.

1979년에 국가에서는 방대한 자금을 들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웠고 도시와 문화오락시설들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림으로써 우리 나라는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우리 인민은 높은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그 실현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0～21폐지)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온 공화국정부는 1979년에 통일문제를 새롭게 추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을 거듭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4개항목의 구국방안 제의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의 제의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련석회의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신데 대하여서와 수령님께서 밝히신 애국적이며 공명정대한 립장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세계여론의 커다란 반영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련석회의는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추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것을 결정하고 4개항목의 통일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첫째로, 북과 남은 7.4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7.4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은 민족적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7.4공동성명에 담겨진 이 숭고한 구국통일 리념과 원칙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온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공동의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쌍방당국이 각각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를 엄숙히 준수할데 대한 태도를 공식표명할것을 제의한다.

쌍방이 7.4공동성명을 성실히 지킨다면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는데서 근본적인 장애란 없을것이며 우리 인민앞에는 반드시 조만간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내기를 한다면 오해와 불신은 커지고 민족내부에는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반목이 조장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더 큰 난관이 조성될것이다.

쌍방은 민족적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는데로 나가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일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취하는것이 좋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이 7.4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것과 동시에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한 비방중상을 그만둘것을 주장한다.

서로 비방중상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북과 남의 대화와 민족적단합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는것으로 될것이다.

셋째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

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오늘과 같이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참다운 신뢰와 민족적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수도 없다.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쌍방이 최소한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그만두며 외부로부터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군사적충돌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선 쌍방 군사당국이 3월 1일 0시를 기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연일대에서 무력증강, 군사작전, 군사시설물의 구축과 같은 모든 적대적군사행동을 정지하며 어떠한 군사연습도 무조건 중지할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7.4공동성명에 대한 쌍방의 성실한 립장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게 될것이며 민족적화해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또하나의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넷째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의 형식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있고 폭넓으며 현실적인 대화와 협상의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이 대회에는 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포함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의 대표들 및 각계각층의 애국적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조직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참가하여야 할것이다.

전민족대회에서는 북과 남이 다 민족대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남북을 통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과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광범히 토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올해 9월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며 대회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6월초순에 평양에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각 정당, 단체들의 실무급 대표들이 쌍무적 또는 다무적 예비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한다.

이 4개항목의 구국방안은 내외여론의 광범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1월 26일 남조선측은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측이 성명에서 실무급대표들의 회담을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가지자고 한데 대하여 우리도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1월 27일 서기국성명을 통하여 실무급대표들의 회담을 가능한한 4월 초순으로 앞당겨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의 재확인,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공식태도의 표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1월 23일성명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4개항목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우선 쌍방당국이 각각 1979년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준수할데 대한 태도를 공식표명할것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둘것을 제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 제의와 관련한 우리측의 립장을 1월 31일성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1.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하루빨리 대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그것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을 재확인한다.

첫째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7.4공동성명의 숭고한 리념에 충실하려는 자기의 일관한 립장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한다.

둘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조국통일원칙들을 계속 견결히 고수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

2.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그만두는것이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며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구현해나가는 귀중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는것을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로, 상대방의 리념과 제도에 대한 비난과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으로 간주될수 있는 선전을 중지한다.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북반부의 각 정당, 단체 및 기관들이 운영하는 방송, 텔레비죤과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선전을 중지한다.

셋째로, 군중집회와 구두 및 직관선전 등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북과 남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할수 있는 선전과 행사를 중지한다.

넷째로, 이상의 조치들을 1979년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북반부전지역에서 실시한다.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들과 모든 조치들은 어떻게 하나 대화의 문을 열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념원의 표시였다.

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의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더빨리 성숙시키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의하였다.

조절위원회는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던 당시에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잇고 남북관계를 조절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 필요하였다.

그러나 온 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력사적과제들이 일정에 나서고있으며 해내외에서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직접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조절위원회와 같은 극히 제한된 기구를 가지고서는 민족앞에 나선 거족적인 위업을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실현할수 없으며 그것은 이미 불합리한것으로 되였다.

실지에 있어서 조절위원회는 민족의 총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활동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그 존속의 의의를 상실하고말았다.

조성된 현실은 우리 앞에 통일을 위한 대화를 실질적으로 마련할수 있는 새롭고 전진적인 대책을 강구할것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2월 5일 서기국성명을 통하여 조절위원회대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것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내와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할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적은 인원들로 구성할수 있을것이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전민족대회의 소집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궁극적통일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할수 있을것이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 조절위원회가 가지고있던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의 지향을 반영한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에 부합되게 온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훌륭히 반영하여 통일문제를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효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0일 낮12시에 판문점에서 북측 련락대표와 남측 련락대표가 만날것을 제의한다.

이상의 제안들과 그 현실적조치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이 만날것을 제의한 2월 5일부 우리측 성명에 대하여 남측이 응해나섬으로써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사이에 3차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북과 남의 대화를 새로 이어놓은 련락대표접촉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쌍방이 다같이 합작과 단결과 통일의 립장에서 대화에 림할것을 주장하면서 남측에 시종일관 성의와 아량으로 대하였으며 그들의 거듭되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오직 대화를 위하여 참으면서 접촉을 계속 인내성있게 이끌어갔다.

그러나 남측은 처음부터 조국통일과 관련된 기본문제토의에는 관심이 없이 문제로도 될수 없는 우리측의 대표명칭문제를 가지고 대화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측의 획기적인 제안에 의하여 대표명칭문제가 처리되자 그들은 또다시 실무대표회담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왔으며 4차접촉날자를 합의하는것조차 거부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과 남의 대화는 결코 다시 끊어져서는 안되며 첫걸음을 내디딘 귀중한 련락대표접촉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의 성명(3월 27일)으로 제4차접촉을 4월 2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미 알려진 성원들이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의 이름으로 참가할것이며 또 남측에서 누가 어면 이름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그들을 남측 련락대표로 인정하고 우선 만날것이라는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측의 성의있는 제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뿐아니라 회담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측은 남측이 대표명칭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결렬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할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우리측은 쌍방대표명칭을 북측 또는 남측 련락실무대표로 할수 있으며 남측이 이것도 접수할수 없다면 다른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토의하는 쌍방련락대표접촉을 4월 10일에 계속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남측은 이것도 역시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대화는 남측

의 그릇된 립장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접촉의 전과정에 우리측은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남조선측은 애당초 통일의사가 없이 대화의 막뒤에서 분렬만을 추구하면서 비렬한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제1차접촉 1979년 2월 1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첫번째접촉이 있었다.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대표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공화국정부대표인 정무원 부장, 조선민주당대표인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 4명이 참가하였다.

접촉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쌍방의 련락대표들이 마주앉게 되여 대단히 기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78년에 있은 공화국창건 30돐기념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거듭 천명하시였다.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에서 전민족대회소집문제를 비롯한 4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한것은 바로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우리측이 새로운 예비적협의기구로서 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안한것은 어떻게 하나 대화를 성숙시키고 조국통일의 길을 타개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오늘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과거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7.4남북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화를 새로운 궤도우에서 새롭게 전진시켜나가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우리들이 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대화를 통하여 불신을 가시고 신뢰를 두터이하며 반목을 하지말고 단결을 도모하며 대결을 그만두고 합작을 지향해나가는 여기에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측은 온 민족이 념원하는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같은것을 새로 구성하고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련락대표들의 접촉에 전용으로 사용할 직통전화개설을 비롯한 일련의 실무적문제들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접촉에서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이 3월 7일 낮 10시에 판문점에서 두번째접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접촉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두번째접촉이 3월 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우리측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먼저 쌍방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에 림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화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민족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고 자기 본위만의 리해관계를 떠나 오직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는 최근 우리측이 남조선에 대한 비난선전을 전면중지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남측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에 대하여 배신적행위로써 대답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미 1월 23일부 성명에서 서로 적대적인 군사행동과 어떠한 군사연습도 중지할것을 제의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 준비사업을 추진시켜왔다. 그러나 남측은 적대적군사행동과 군사연습을 중지하자고 한 바로 3월 1일부터 미군과 함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렸다. 이것은 우리의 성의에 대한 모독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우리측은 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남측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기본문제로 상정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문제에 언급하였다.

그는 당국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각 정당, 단체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총의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말하였다. 통일문제는 마땅히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북과 남의 대화에 해당한 계층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당국자들사이의 대화나 조절위원회는 바로 이점에서 본질적인 제약성이 있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은 또한 민족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는 견지에서도 그리고 조국통일에 대한 전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비추어보아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측은 통일을 앞당기자면 조절이나 하면서 남남끼리 살것이 아니라 단결과 합작과 통일을 전면에 제기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구성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남측은 두번째접촉에서도 의연히 있지도 않는 조절위원회의 재개를 고집하면서 7.4공동성명을 위반해온 저들의 부당한 립장과 태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성격에 대하여 당치도 않은 시비를 걸고 기본문제토의를 외면해보려고 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의 불성실한 립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들어가면서 론박하였다.

조절위원회가 파탄되여 없어진지 오래고 그 성원들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기간 조절위원회는 3차의 회의에서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합작,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 정치협상회의소집 등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남조선측의 그릇된 립장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결실도 보지못하였다. 오늘에 와서 그 기구도, 성원도 없는 조절위원회재개를 들고나오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생억지이다.

우리측은 계속하여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첫날부터 그를 뒤집어엎고 대화를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음모에 리용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탄압해온 남조선측의 행위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까밝혔다. 그리고 남측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고든데 언급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애국력량을 단합시켜온 민족의 공통된 념원을 담아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으며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책임적인 지도기관이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것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성공시켜나가기 위한 성실한 립장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접촉에서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세번째접촉을 3월 14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접촉 1979년 3월 14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번째접촉이 있었다.

접촉에서 조선로동당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상정된 문제토의에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남측이 들고나온 이른바 《대표자격》문제의 부당성을 론거를 들어 까밝혔다.

남측 주장의 부당성은 첫째로 련락대표접촉을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발기에 응하여 접촉마당에 나온 남측으로서는 발기자측의 대표자격을 존중해야 할뿐 그를 시비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것이다. 우리는 제안자로서 이미 련락대표명단을 세상에 공표한바 있다. 그런것만큼 대표자격문제를 구태여 론한다면 상대방이 우리에 상응한 자격있는 대표인가 하는것은 발기자인 우리가 시비를 해야 마땅할것이다. 우리의 제의에 응하여나온 남측이 오히려 대표자격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주객을 전도하는것이며 대화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당성은 둘째로 우리는 원래 남측에서 누가 나오든 그를 남측 련락대표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며 남측의 대표자격문제를 문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측에서 이것을 문제시하는 조건에서 굳이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고 누구도 인정한바 없는 조절위원회성원이라는 감투를 쓰고나온 남측 대표들이야말로 련락대표접촉의 상대가 될수 없는것이다.

그 부당성은 셋째로 우리측 련락대표들이 광범한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고있는 권위있고 책임있는 기관인 조국전선을 대표하여 나온것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응당한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조국전선을 터무니없이 중상하고 이른바 대표이름을 문제시하는것은 우리 련락대표들에 대한 모독으로서 초보적인 례의와 상식마저 벗어나는 오만무례한 행동이라는데 있다.

새로 출발한 이 접촉이 첫걸음부터 진통을 겪게 된것은 바로 남측이 하등 문제로도 될수 없는 이와 같은 《대표명칭》문제를 꺼내들고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데 있다.

우리측 대표는 남측 주장의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오직 모처럼 마련된 쌍방의 접촉을 귀중히 여기며 어떻게하나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에 맞게 련락대표접촉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조절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남측 련락대표가 조절위원회를 대표함을 취소하는 조건에서 우리 북측도 련락대표명칭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둘째, 쌍방련락대표의 명칭은 각각 북측 또는 남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으로 한다.

셋째, 새로운 련락대표명칭에 맞게 북측 련락대표단에는 현재의 조선로동당대표, 조선민주당대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가 참가하며 남측에서도 련락대표들의 명칭과 구성을 이에 상응하게 한다.

넷째, 이상의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진 련락대표접촉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1979년 1월 23일이후 우리측에서 내놓은 모든 제안들과 취한 조치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은 이미 새출발한 련락대표접촉을 정상화한다는 립장을 확인하며 련락대표접촉이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해결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확인한다.

우리측이 내놓은 획기적인 새 제안에 대하여 남측은 성실히 응할 대신에 또다시 그 무슨 《실무대표접촉》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이미 이루어진 련락대표접촉에 대치시키며 조절위원회문제

를 들고나와 7.4공동성명과 부당하게 관련시키면서 우리를 헐뜯어보려고 시도하였다.

우리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조절위원회와 7.4공동성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밝히면서 7.4공동성명의 핵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은 조절위원회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계속 살아있으며 또 조절위원회의 파탄으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짓밟고 외세의존과 무력대결, 분렬책동에만 매달려온 남조선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측은 제4차접촉을 4월 5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으나 남측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돌려났다.

뒤이어 쌍방사이에 개별접촉이 있었다.

개별접촉에서 남측은 이미 세차례나 있은 쌍방련락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른바 《실무대표접촉》을 가질것을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이것이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남조선측의 립장을 보여주는것이며 쌍방접촉을 분렬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려 4시간동안이나 폭넓고 아량있게 련락대표접촉을 계속할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면서 남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제4차련락대표접촉을 위하여 4월 5일 판문점에 나올것을 재삼 권고하였다.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을 만들어 출전할데 대한 제의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열리게 된 유리한 환경에서 조선체육지도위원회와 조선탁구협회는 1979년 2월 20일 북과 남이 통일팀을 만들어 평양선수권대회에 참전할데 대한 문제를 남조선 체육회와 탁구협회에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기간에 4차례에 걸치는 쌍방탁구협회 대표들의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통일팀을 무어 나갈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으며 선수선발과 공동훈련, 선수단의 구성과 명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은 또한 모처럼 마련된 회담을 성공에로 이끌며 통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폭넓은 아량과 성의를 보여주었다.

우리측의 공명정대한 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누구나 접수하고 호응해나설수 있는 것으로서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회담장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분렬팀을 추구하면서 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대전표추첨기일문제와 국제탁구련맹의 규약, 규정에 관한 조회문제를 들고나왔다가 그것이 무너지자 다음에는 《기득권》문제를 들고나와 별개팀의 참가를 고집하였으며 또 이것이 처리되자 나중에는 교류문제를 구실삼아 쌍방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측은 3월 27일에 5차회담을 열자는 우리측 제의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식회담을 할수 없다면 개별접촉이라도 가지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태도표명이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측은 경기시작전날까지 임의의 시각에 판문점에서 5차회담을 열것을 다시한번 제의하였으나 남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남조선측은 이러한 배신행위로써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슬기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온 겨레의 념원과 통일팀의 출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기대를 심히 우롱하였으며 력사에 씻을수 없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였다.

첫번째회담 2월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탁구협회대표단 단장인 조선탁구협회 회장 외 3명의 단원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 4명의 대표들이 왔다.

회담에서는 먼저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발언하였다.

원래 국제무대에 북과 남이 하나의 통일팀을 무어가지고 나가 단결된 민족의 힘을 과시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측은 온 겨레의 열렬한 환영과 세계여론의 일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 제의에 남측이 호응해나선 사실을 지적하고 민족통일팀구성을 위한 우리측의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선수선발문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경기대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가 남의 두곱인 18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킬수 있게 된것은 통일팀구성의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선수선발에서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수들부터 먼저 선발하는것이다. 이로부터 국제탁구

련맹 순위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등급순위에 들어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넣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량측에서 절반씩 같은수를 낼것을 제안하였다.

공동훈련문제에 언급하여 그는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현지환경에 익숙하기 위하여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평양에서 공동훈련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평양에 들어오는 남측 선수, 역원들에게 숙식을 비롯한 생활조건, 훈련조건을 보장할것이며 해당기관에서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선수단구성문제에 언급하여 선수단단장은 량측에서 다같이 한명씩 내는 공동단장제를 택하며 기타 지도원, 과학일군, 의료일군 등 다른 성원들은 쌍방의 합의밑에 필요한 수를 낼것을 제의하였다.

선수단의 명칭문제에 언급하여 우리측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고려》의 국호를 통일팀의 명칭으로 쓸것을 제안하였다.

통일팀구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충분히 리해되고 접수될수 있는 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에 대하여 남측은 객관적조건을 들면서 립장을 달리하였으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구실을 붙였다.

우리측은 남측 주장의 부당성을 인내성있게 설득시키면서 초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있는 문제나마 공동보도형식으로 발표하며 다음 회담날자를 3월 1일로 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의 반대로 말미암아 공동보도문제는 합의보지 못하고 다음 회담날자도 3월 5일로 미루게 되였다.

두번째회담 3월 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이 회담에 림하는 쌍방대표들의 기본사명의 중대성과 립장과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국제탁구련맹규약규정에 비추어보아도 통일팀구성에 대한 아무러한 객관적장애도 없다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할것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합의서(초안)

조선탁구협회와 대한탁구협회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이 통일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 출전하는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민족사의 절박한 요청임을 인정하면서 또한 그것이 민족적대단결과 다방면적인 합작을 촉진함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북과 남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민족통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한다.

2.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민족통일팀의 선수선발 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족통일팀의 선수선발에서는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떨칠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원칙, 가급적으로 량측에서 평등하게 선발하는 원칙을 균형있게 적용한다.

② 민족통일팀에는 국제탁구련맹 순위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등급순위에 들어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넣는다.

③ 2항에 따라 선발한 이외의 민족통일팀선수들은 량측에서 절반씩 같은수를 내기로 한다.

④ 량측에서 선발한 민족통일팀 선수명단은 각각 해당한 탁구협회가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다.

3. 민족통일팀의 공동훈련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민족통일팀의 공동훈련은 평양에서 한다.

② 민족통일팀의 공동훈련장소는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평양체육관으로 한다.

③ 일체 공동훈련용 기자재는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할것과 꼭같은것으로 북측이 보장한다.

④ 북측은 민족통일팀에 망라된 남측 선수들이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진행될 현지의 기후풍토와 환경에 익숙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4. 북측은 민족통일팀이 공동훈련과 경기에 참가하는 전기간 선수, 역원을 포함한 남측 성원들의 생활조건을 무료로 보장한다.

① 숙식장소는 보통강려관으로 한다.

② 일체 치료예방사업은 조선적십자병원에서 전담한다.

③필요한 교통 및 운수 수단을 제공한다.

5. 민족통일팀의 선수단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장은 공동단장제로 하며 량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단장을 낸다.

② 전문가, 지도원 및 과학일군, 의료일군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를 낸다.

6.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기간에 진행할 국제탁구련맹총회에 참가할 대표들을 량측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여 공동대표단을 구성한다.

7. 민족통일팀의 명칭과 표식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족통일팀의 명칭은 고려탁구선수단이라고 한다.

② 민족통일팀의 표식은 조선지도에 고려라는 우리 글이 들어있는 도안을 쌍방의 합의밑에 제정한다.

③ 민족통일팀은 훈련복에 우리 글로 고려라고 새긴다.

④ 민족통일팀의 삼각기발은 앞면에 2항의 표식을 하고 뒤면에 고려탁구선수단이라고 쓴다.

⑤ 기념휘장은 국기를 넣지 않은 순수한 탁구경기를 형상한 도안으로 량측이 각각 3종씩 제작하여 함께 사용한다.

⑥ 민족통일팀의 단체복, 훈련복, 경기복은 민

족적풍습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량측에서 각각 전체 성원분을 한틀씩 만들어 제공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번갈아입는다.

8. 민족통일팀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한 기타 문제들은 공동단장들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이상과 같은 합의서에 쌍방이 서명하고 이를 리행한다면 통일팀으로 출전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남측에 합의서를 수락할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통일팀구성을 위한 회담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자기들이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는것을 담보하라는 왕청같은 소리를 하였다.

심지어 우리측이 북과 남의 통일팀을 구성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라도 발표하자고 할때에도 막무가내로 거부하면서 별개의 팀으로 참가시켜 달라는 외마디소리만 계속 질렀다.

우리측은 남측이 저들의 그릇된 립장과 본심을 명백히 드러내놓는 형편에서 도대체 남측은 통일팀을 구성하자는것인가, 아니면 별개팀으로 민족끼리 겨루자는것인가, 립장을 밝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측은 대답을 회피하고 회담을 끝내는데만 급급해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회담날자를 늦잡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남측은 마땅히 두 차례의 회담에서 민족앞에 아무러한 좋은 일을 해놓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다음회담에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나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번째회담 3월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먼저 발언하였다.

그는 통일팀을 실현하려는 우리측의 기본립장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키고 두차례의 회담에서 우리측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은 통일팀이냐 별개의 팀이냐 하는 쌍방의 상치된 기본립장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남측은 첫회담에서 국제탁구련맹 규약규정의 이른바 《유권적해석》문제를 들고나왔고 지난번 회담에서는 통일팀구성문제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 무슨 《기득권》문제를 들고나오는 등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측은 진정으로 통일팀을 원한다면 해결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하면서 전번회담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통일팀구성을 위한 합의서초안에 남측이 즉시 동의할것을 다시금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이번에도 역시 통일팀구성을 회피하고 그 무슨 《기득권》의 《선보장》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우리측은 남측의 《기득권》문제에 론박을 가하면서 남측이 별개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는 국제탁구련맹과 협의할 문제이므로 통일팀구성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남측이 통일팀구성을 반대하고있다는 증거를 첫째로, 남측이 통일팀구성에 쌍방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것마저 세상에 발표하는것을 거부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측이 분렬팀으로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것을 인정하라고 생억지를 쓰는것이라고 지적하고 통일팀을 원하는가, 아니면 분렬팀을 원하는가 둘중의 하나를 밝히라고 스물다섯번째로 대답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시종일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회담을 운영하면서 오늘 회담에서 쌍방이 통일팀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 한가지만이라도 발표할것을 제의하였으나 남측은 한사코 반대하였다.

우리측은 네번째회담을 3월 10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으나 남조선측이 시간을 길게 줄것을 요구하였으므로 12일에 열기로 하였다.

네번째회담 3월 1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단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온 겨레와 세계 인민들의 기대속에 마련된 통일팀구성을 위한 쌍방회담이 첫시각부터 교착상태에 빠진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은 남측이 말로는 통일팀을 표방하고 실제행동에서는 분렬팀을 추구하고있기 때문이라고하면서 그 증거들을 밝혔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측이 통일팀에 대한 합의를 완고하게 기피하며 다음으로는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사실이다. 남측은 첫째로, 회담의 결렬을 전제로 하고 1979년 3월 12일이라는 회담의 최종한계선을 미리 그었으며 둘째로, 국제탁구련맹의 규약에 대한 이른바 《유권적해석》을 통일팀구성의 전제로 삼자고하였으며 셋째로, 별개팀의 평양대회참가를 보장하라고 우겼다. 이엄연한 객관적사실은 쌍방회담의 부진과 공전의 근본원인이 분렬팀을 추구하는 남측의 그릇된 립장과 자세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측은 남측이 고집하는 《기득권》문제가 전혀 사리에도 맞지않고 통일팀구성을 위한 이 회담의 성격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지만 회담의 결렬을 막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금 획기적인 새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남측이 국제탁구련맹 회원으로서 지니고있는 《기득권》을 인정하여줄것을 요구하고있는 사실에 류의하면서 또한 이 《기득권》문제를 해결하면 남측이 즉시 통일팀구성을 위한 실질적협의에 응할것을 확약한 사실에 류의하면서 그리고 이 《기득권》을 남측이 통일팀을 거부하고 별개팀을 추구하는 목적에 악용하지 않을것을 확언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통일팀의 구성을 전제로하여 남측

의 《기득권》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통일팀구성문제에 관한 합의서초안 서문에 《대한탁구협회가 국제탁구련맹의 성원으로서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기득권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남측이 이 기득권을 통일팀구성과는 배치되는 목적에 리용하지 않을것을 담보한 사실에 류의하면서》라는 구절을 첨가하며 아울러 이것은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기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이 공명정대하고 획기적인 새 제안조차 접수하기는 고사하고 토의하는것조차 거부하였으며 《기득권》문제가 처리되자 다시 체육교류문제를 들고나와 구실을 붙이면서 꽁무니를 빼려 하였다.

우리측은 끝내 회담할 의사가 없다는 본심을 드러내놓은 남측의 태도를 엄격히 추궁하면서 우리는 민족과 력사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으로부터 회담을 그만두자는 남측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수 없다, 쌍방은 어떻게하나 회담을 성공에로 이끌고 민족통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조선측이 우리의 성의와 온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끝내 회담을 결렬시키려는 립장을 밝힌 조건에서 북과 남의 통일팀구성을 위한 쌍방탁구협회대표들의 회담을 남조선측이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경고하였다.

조선탁구협회대표단 단장은 남조선측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킨것과 관련하여 판문점에서 내외기자들과 회견하고 조선탁구협회대표단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던 1979년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성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벌렸다.

오늘 날로 높아가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간고한 투쟁에서 지칠줄모르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삶의 유일한 등대로 되고있다.

충청남도 어느 군《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알수있는바와 같이 1979년 1~3월까지의 사이에 군내에서 얻어진 《적색선전물》의 74%가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한것이였다. 이 《적색선전물》은 월평균 1,800장으로서 1978년에 비하여 52%의 장성을 보여준것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조국의 운명과 민족을 구원하신 절세의 애국자로, 항일대전의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따라배우고있다.

서울대학교의 신아무개교수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인 영웅사화를 전하는 론문을 쓰려고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10년간, 전설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민중의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며 세상에 단 한분밖에 안계시는 만고의 전설적영웅이시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그는 계속하여 세상에는 명장들의 무훈담이 수많이 전해지고있지만 간고한 15성상의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설적영웅사화와 같은 이야기는 없다고하면서 《이것은 장군님을 모신 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자랑이다. 김일성장군님의 지략과 걸출한 령군술, 고매한 덕망을 전하는 이 전설들은 우리 민족이 대를 물려가며 길이 전해야 할 귀중한 민족적재보이다》라고 말하였다.

대구시내의 대학생들로 조직된 한 독서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일곱돐을 맞으면서 4월 5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전기에 대한 독서모임을 가지였다.

독서회책임자인 최아무개학생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번영 그리고 민중의 자유,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영웅서사시적업적들로 충만되여있다.

김일성장군님은 이 세상 모든 걸출한 사람들의 장점을 다 합쳐도 비교할수 없는 위대성과 영웅성을 지니신 혁명의 수령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리아무개학생도 흥분을 이기지못해 말하였다.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실뿐아니라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조들이 있었지만 주체사상처럼 위대한 사상은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그의 말에 이어 박아무개학생도 《참

으로 김일성장군님은 동서고금에 다시없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7월 10일 서울시 한 대학의 지하소조인 《주체사상연구회》회원들은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사조》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박아무개학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민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속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주는 혁명의 백과전서》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부산의 어느 대학교 주아무개학생은 《우리가 나갈 길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이다. 진리는 주체사상에 있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고 이 길에서 영생하자》라고 하였으며 대학동창생들끼리 조직한 《인권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했던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아무개는 《인권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는 사상은 오직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을 끝없이 부러워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남조선강원도에 있는 장성광업소의 광부들은 락반사고로 숨진 동료광부의 장례를 치르고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놈들이 만들어놓은 성진제강소의 용해로가 숱한 로동자들을 피가 말라 죽게 했다는것을 아시고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게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그이께서처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나는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살아온다.》

서울시에 사는 리아무개주민은 10월 28일 친구들과 정세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민족을 통솔하실 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고있는 이북을 보라.

전민이 안정된 생활속에 복락을 누리고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있다.

경제와 문화는 일대 부흥기에 이르고 국위는 만방에 높이 선양되고있다.

이처럼 훌륭한 정사를 펴시는 김일성장군님은 일찌기 우리 민족이 받들어모신 태양이시고 영웅이시다.》

한해농사를 망치고 살아갈길이 막막하여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전라남도 함평군 농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고있는 저 이북 농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잘 산다니 얼마나 좋겠는가》, 《위대하신 장군님의 품속에서 농사를 지어봤으면 평생의 소원이 풀리겠다. 우리도 그날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절절하게 그리였다.

부산시의 서구 토성동에 사는 녀성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물건값에 울분을 토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북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치를 잘하시여 사람들이 물가고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고 세금을 완전히 없애주시였을뿐아니라 로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시고 대신 물건값은 계속 낮추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정치인가.》

《세상에서 물건값이 오르지 않고 민중들이 물가고를 모르고 사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을것 같다.

그것은 한평생 민중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이다.

물가고를 모르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에 사는 김아무개는 주민들과 겨울나이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겨울을 넘길 걱정이 커질수록 따사로운 김일성장군님의 품이 더욱 그리워진다.… 지금 이북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있는가.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걱정, 입을 걱정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아이들은 해마다 국가에서 두터운 겨울옷들을 내주기때문에 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린다니 겨울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식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것은 바로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북민중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폭압에 짓눌리고 가난에 쪼들릴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과 새 제도, 새 생활에 대한 지향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흠모하고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삼가 축원하고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강아무개 주민은 1978년 12월초순 일본 도꾜를 다녀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다.

《외세에 의해 량단된 조국의 력사가 흘러가는것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 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시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지지찬동하고있는 유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것이다.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선물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성으로, 민족을 대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을 구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에 접하여 인천의 한 로동자는 《이 방안대로만 되면 우리가 목타게 기다리는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들은 다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통일의 구성이시다》라고 격동을 금치못해 하였다.

평양에서 열리는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을 만들어 출전할데 대한 우리측 제의를 듣고 서울에 살고있는 박아무개라는 체육인은 감격을 금치못해 이렇게 말했다.

《통일팀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몸은 비록 이남땅에 있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고있다는 감이 든다. …빨리 통일이 되였으면 좋겠다.》

남조선의 정치학자인 라명수는 전문 7장으로 된 론문 《정치적각성론》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김일성장군은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영웅, 민족해방의 은인, 조국통일의 빛나는 별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리고《나의 조국, 주체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국군》병사들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흠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남조선의 《국군》제3사단 어느한 련대의 김아무개 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망국의 시기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소탕하고 조국의 광복을 안아오신 전설적영웅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적비운을 가시기 위해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려명을 안아오실 분은 오직 그이밖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탄생 예순일곱돐을 맞이하여 부산시내의 여러곳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칭송하는 벽보들이 나붙고 삐라들이 뿌려졌다.

그중 한 벽보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4월 15일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탄생으로 민족사의 려명이 밝아온 날이요, 인류사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민족최대의 명절이요, 인류최상의 명절인것입니다.

4월 15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만수무강의 인사를 올립시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

삐라에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벌리자!》라고 씌여있었다.

경상북도 대구시에 사는 한 주민의 가정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기 위하여 비단천에다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만강장수하옵기를 삼가축원합니다.》라고 수놓은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고 온 식구가 모여앉아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남조선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리아무개 로인과 가족들은 정월 초하루날 새벽에 30년동안이나 고이 간직해온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새로 도배를 한 방안에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리였다.

리로인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장군님께 첫 세배를 올리는것은 이 나라 백성된 사람의 응당한 도리이며 의리》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곧 그이의 뜻을 잘 받드는 길임을 명심들 해라.

장군님의 만수무강에 우리 가문의 행복도 있는것이요, 그이의 안녕에 우리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 달려있는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깨끗한 마음으로 축원하자.》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창건 10돐

1979년에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남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이며 전위부대인 통일혁명당창건 1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통일혁명당의 10년은 간고한 환경속에서 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으며 인민대중의 열렬한 사랑과 국제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끊임없이 성장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창당경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2폐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오래동안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온 피어린 투쟁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지하에서 통일혁명당의 창건을 발기하고 1964년 3월 15일 서울에서 우선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첫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적인 출발이였다.

창당준비위원회 지도성원들은 전일적인 당을 내오기에 앞서 남조선각지에 당의 지방조직과 기층조직들을 꾸리고 그의 대중적지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속에 주체의 진리를 널리 해설선전하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지도핵심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4~5년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 당조직들이 꾸려지고 각계각층의 군중이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당의 대중적지반이 크게 확대되였다.

창당준비사업은 특히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 3. 24, 6.3투쟁과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의 8월투쟁,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반대하는 1967년의 투쟁 등 대중의 민주주의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그 영향하에 대중운동과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자 당황한 남조선파쑈도당은 1968년 7월 《통일혁명당사건》을 조작하고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켜 수천명에 달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체포투옥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통일혁명당 성원들과 그 관계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인재판을 거듭하던 끝에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종태동지와 전라남도 위원장이였던 최영도동지를 비롯하여 리문규, 김질락 등 많은 동지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혁명가들은 첫시련을 완강히 이겨내고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였으며 당조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시련에 찬 이러한 투쟁을 거쳐 1969년 8월 25일 드디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당의 창립선언과 강령을 발표함으로써 통일혁명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방침의 빛나는 승리였고 주체의 전위당을 건설하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의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통일혁명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와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과학적인 투쟁강령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소유한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보람찬 투쟁의 10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창건후 10년동안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에 빛나는 폐지를 장식하여놓았다.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원쑤들의 거듭되는 반동공세를 물리치고 자기 대오를 불패의 력량으로 꾸려놓았으며 남조선에서 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무엇보다도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조직전개하면서 자기의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들로 꾸려지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말단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세워놓았다.

이것이 통일혁명당이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이다.

통일혁명당은 또한 당기관지 《혁명전선》,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 지하출판사업 등 여러가지 수단에 의한 정치선전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정치사상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통일혁명당의 지도와 영향하에 남조선에서는 《김일성주의연구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주체사상연구소조》등이 조직되여 주체사상을 체득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을 따라 더욱더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는 그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적극 나서게 하는 커다란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지난 10년동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의 사회경제적모순과 정세발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며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기본임무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의 의식수준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매 시기 옳은 투쟁구호와 함께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통일혁명당이 내놓은 모든 방침들은 지난기간 벌어진 대중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파쑈민주화운동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세력 등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있으며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파쑈《정권》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거세찬 흐름으로 전환되여가고있다.

민주와 파쑈,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사이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화되고있는속에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장성강화된 반면에 매국적인 파쑈독재세력은 쇠퇴약화되여가고있다.

실로 통일혁명당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은 원쑤들의 총검의 숲을 과감히 헤치면서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로정을 힘차게 달려왔으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하였다.

통일혁명당 주요활동일지

1월 1일 민족의 태양이시고 혁명의 영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삼가 축하문을 드리였다.

6월 1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미국대통령 카터의 남조선방문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

7월 23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를 동결시키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7월 27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일본방위청장관 야마시다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

8월 2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야당의 출판활동을 가로막으며 《전파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만들어낸것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

8월 12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남조선파쑈도당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애국적인민들을 대량 검거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남조선파쑈도당이 11일 괴뢰경찰들을 내몰아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만행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

8월 2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통일혁명당창건 10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한국〉민중에게 고함》을 발표 ▶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통일혁명당창건 10주년에 제한 구호》를 발표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리였다.

9월 11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남조선파쑈도당이 8일 괴뢰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을 내리게 하는 등 보수야당까지 말살하려고 책동하는것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

10월 5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박정희파쑈도당이 괴뢰국회에서 신민당총재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34돐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리였다.

10월 18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박정희파쑈도당이 부산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반《정부》폭동을 잔인하게 탄압하던 끝에 부산시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10월 19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민주주의적자유와 《유신》파쑈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부산 등지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항쟁에 일떠선것과 관련하여 《〈한국〉민중에게 격함》이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

10월 29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박정희역도가 총에 맞아 죽은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11월 11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남조선괴뢰들이 이른바 《특별담화》라는것을 발표하고 《유신》파쑈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책동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11월 14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13일부터 이른바 《한미합동련합공중방어및공격훈련》이라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

12월 7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잠정대통령선거》놀음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5페지)

1979년에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세력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과 맞서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신》파쑈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4월인민봉기후 처음보는 대중적인 반《정부》 시위와 폭동을 일으켜 파쑈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 괴뢰들에게 심대한 정치적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심화되는 정치적위기와 사회적혼란을 반영하여 포악한 파쑈독재자인 박정희는 총에 맞아죽었다.

《유신》반동통치의 붕괴전야를 의미한 대중의 이 폭동적진출은 파쑈와 분렬을 반대하고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파쑈와 민주세력사이의 대립의 첨예화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 매국적파쑈독재세력사이의 대립은 《유신체제》철페와 《정권》교체문제를 둘러싸고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결국은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을 폭발시켰다.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로동자,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시민 등 각계각층 인민들은 투쟁의 예봉을 《유신체제》철페와 《정권》교체에 집중하고 전기간 《유신체제》철페, 《독재정권퇴진》, 《정권교체》의 구호를 강하게 들고나왔다.

파쑈와 민주세력사이의 대립은 와이에취무역회사로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더욱 첨예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쌓인데다 회사측이 폐업을 선포하게 되자 격분한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들은 그를 반대하여 4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장기간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의 투쟁은 점차 사회적문제로 심각화되여 괴뢰국회에서까지 론의되지 않을수 없었으나 괴뢰도당은 로동자들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해버렸다.

이에 격분한 로동자들 300여명은 7월 30일 오후부터 다시 철야롱성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괴뢰들은 끝내 8월 6일 공장문을 완전히 닫았으며 9일새벽부터는 기숙사까지 폐쇄하고 식사까지 중단시켰다.

괴뢰도당의 탄압에 대처하여 녀성로동자들 200여명은 8월 9일부터 신민당청사에 투쟁장소를 옮기고 《배고파 못살겠다 먹을것을 달라》는 구호를 대오앞에 펼쳤으며 머리에는 《정상화가 되지않으면 죽음뿐이다》라고 쓴 띠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세를 올렸다. 10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욱 완강하게 싸웠다.

이 투쟁에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이 합세하였다.

신민당은 로동자들에게 투쟁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투쟁을 보호하고 고무격려해주었을뿐아니라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롱성투쟁을 벌렸다.

다른 공장의 로동자들과 여러 정당, 단체 간부들과 개별적인사들도 여러번 찾아와 이들을 고무격려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확대되고 민주세력이 합세하는데 당황한 괴뢰도당은 8월 11일 새벽 2시에 괴뢰기동경찰 2,000여명을 동원하여 신민당청사를 포위하고 습격만행을 감행하였다. 괴뢰경찰은 30분동안이나 최루탄을 쏘아대면서 녀성로동자들을 닥치는대로 때리고 체포했으며 김경순을 4층에서 떨어뜨려 무참히 살해하였다. 또한 신민당원 5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김영삼총재와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잡아갔으며 취재기자 14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그러나 8.11폭행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 인민들과 야당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괴뢰도당을 다른편으로 하는 대립은 더욱 격화되였다.

8.11폭행은 광범한 사회계층들 특히 청년학생들속에서 파쑈독재에 대한 반감을 드디여 터뜨려놓았으며 대중적인 반《정부》시위투쟁을 폭발시켰다.

8월 17일과 20일 서울에서 새문안교회에 망라된 대학생 50여명과 300여명이 반《정부》시위행진을 벌린데 이어 9월 3일과 4일에는 남조선강원도 춘천시의 강원대학과 대구에 있는 3개 대학 학생들이 대중적시위에 떨쳐나섰다.

9월 4일 대구의 계명대학교 학생 1,000여명과 경북대학교 학생 500여명은 《와이에취사건진상해명》, 《박정권타도》를 요구하는 반《정부》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의 명의로 된 경북, 계명, 령남 대학교의 《3개대학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신체제》철페, 《박정권퇴진》, 《긴급조치》해제 등 요구를 담은 삐라들을 뿌렸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은 《와이에취무역녀공의 사인규명》을 웨치며 달려드는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투석전을 벌리였다.

9월 11일에는 서울대학교 500명의 학생들이 괴뢰기동경찰대와 맞받아싸우면서 학교안에서 《박정

권 퇴진》을요구하는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 그들은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해제, 독재《정권》퇴진, 경제위기의 책임추구, 로동3권의 보장, 언론탄압의 중지 등 요구를 제기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은 9월 17일과 18일에도 계속되였고 20일과 21일에는 1천여명을 망라한 대규모의 시위투쟁으로 확대되였다. 이들은 신민당총재에 대한 탄압중지, 민주주의적권리회복과 《정치범》의 석방, 경제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9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수백명, 9월 26일에는 리화녀자대학교에서 2천여명이, 9월 27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5천명의 청년학생들이 련이어 들고일어났다.

그들도 역시 《유신체제》반대, 《박정권타도》, 《신민당의 민주투쟁을 지지》 등 구호를 부르고 삐라를 날렸다. 또한 학원안의 《중앙정보부원》의 철회, 로동자, 농민들의 생존권보장, 《량심범》석방, 《독재정권퇴진》 등 내용을 담은 《민주구국선언문》과 《민주선언문》을 발표하고 반《정부》시위와 집회를 벌렸다.

9월의 대중적인 반《정부》적진출은 청년학생들의 범위를 벗어나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한 사회계층을 망라한 련합공동투쟁으로 전변되였으며 10월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반《정부》폭동에로 번져갔다.

반《정부》폭동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와 반동적경제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반감은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과 신민당에 대한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계기로 드디여 대규모적인 대중적반《정부》폭동으로 폭발하였다.

폭동은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시민들과 합세하여 가두시위를 벌린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날 낮 10시경 5천명의 학생들이 대학구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의 민주화, 《유신헌법》의 철폐, 독재《정권》의 퇴진, 언론의 자유보장 등 주장을 담은 《민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200여명의 학생들이 달려드는 괴뢰경찰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오후 4시경에는 1천여명의 학생들이 《유격전의 방법》으로 6개방향에서 부산《시청》앞에 집결하였으며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죄행을 폭로규탄하면서 불굴의 기개를 시위하였다.

8시경에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시민 5천여명이 교통이 마비된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모여 17일 새벽 3시까지 무려 7시간동안 치렬한 항전을 벌리였다.

시위자들은 시내 곳곳에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부르면서 《유격전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리다가 마침내 대규모적인 폭동에로 넘어갔다.

그들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괴뢰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서 괴뢰경찰 73명을 까눕혔으며 련이어 괴뢰경찰총무파출소를 비롯한 21개의 파출소와 경찰자동차, 오토바이 25대를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또한 괴뢰경상남도청과 부산시 서구청, 부산세무서 등 괴뢰행정기관들과 부산일보사, 부산방송국, 부산텔레비죤방송국 등 어용기관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이날의 폭동에 대하여 외신들도 《남조선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폭동이 있은것은 지난 4.19이후 처음》이며 《15년간의 독재적인 남조선정부를 반대하는 가장 격렬한 항의》라고 지적하였으며 《부산시의 경찰 전체가 동원되였으나 이 폭동을 진압할수 없었다》고 전하였다.

17일 아침까지 온 밤 시내를 누비며 싸움을 벌린 청년학생들은 낮한때 흩어졌다가 저녁부터 다시 중심거리들에 모여들어 300～500명씩 패를 지어 《게리라식 시위행동》으로 넘어갔다.

이날 경상북도 대구에서도 애국적청년학생들이 반《정부》집회와 시위를 벌렸으며 서울의 2개대학에서도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당황한 파쑈도당은 18일 0시를 기하여 부산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괴뢰군무장병력을 투입하고 땅크와 장갑차까지 들이밀어 경계태세를 취하는 광란을 부렸다.

그러나 괴뢰도당의 그 어떤 군사적폭압소동도 정의의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을수 없었다.

부산폭동에 이어 10월 18일에는 마산의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시민들이 폭동에 궐기하였다.

10월 18일 오후 마산의 경남대학을 비롯한 다른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학생들 2천여명이 부산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반《정부》폭동에 떨쳐나섰다.

마산의 경남대학 300여명의 학생들이 반《정부》집회를 가진다음 거리에 뛰쳐나가 시위를 벌리자 시안의 로동자들과 실업자들, 수많은 시민들이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폭동에 합류하였다.

폭동자들은 중심거리로 밀고나가 박정희역도의 공화당사무소를 습격하고 경찰파출소와 경찰차량들을 파괴하였으며 어용방송국에도 돌벼락을 들씌워 그것을 들부셨다.

19년전 리승만괴뢰정권의 멸망을 가져온 4.19인민봉기의 봉화가 오른 마산에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난것은 괴뢰도당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일 괴뢰군무장병력을 마산시에 투입하고 《긴급조치9호》를 휘두르며 발광하였으나 마산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18일에 이어 19일밤에도 거리에 뛰쳐나가 반《정부》시위투쟁을 벌렸다.

이날 저녁 9시경 대학생들을 선두로 하여 새로 합류한 고등학교 학생들, 녀성로동자들 등 5천여명의 폭동군중은 《독재를 철폐하라》고 웨치면서 괴뢰통치기관들을 들부셨으며 최루탄을 쏘아대는 괴뢰경찰들과 탄압에 나선 괴뢰군병력과 맞서 투석전을 벌리였다.

파쑈도당은 이날밤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470명을 체포하였으며 20일 새벽에는 3대의 장갑차를 앞세우고 마산시내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등 광란적인 폭압소동을 피웠다.

18일과 19일에 걸쳐 진행된 마산폭동에서 폭동군중은 민주공화당사무소, 괴뢰마산시청, 마산텔레비존방송국, 전신전화국, 4개의 괴뢰경찰파출소 등 중요 괴뢰통치기관들과 어용기관들을 습격파괴하였으며 경찰차 2대, 소방차 1대를 파괴불사르고 괴뢰경찰 30명과 괴뢰군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부산과 마산에서의 폭동은 진주와 대구에로 확대되여 10월 19일 진주의 청년학생들 1천여명이 시위투쟁에 궐기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대구의 계명대학교학생들 500명이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박차고 시위를 벌렸다.

날로 격화되는 반《정부》투쟁은 《유신체제》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괴뢰들의 내부알륵을 리용하여 주구를 갈아치우게 되였다.

10월 26일 저녁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식당에서 차린 만찬회에 참가하였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죽고말았다.

박정희역도의 종말은 극악한 파쑈독재자, 반공과 분렬만을 일삼아온 주구의 운명이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반독재련합전선운동과 련대투쟁, 공동투쟁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6페지)

남조선의 야당들과 재야세력들, 청년학생, 로동자, 종교인, 지식인, 시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애국적민주세력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민주를 지향하고 파쑈를 반대하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되여 반독재련합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련대투쟁과 공동투쟁을 보다 강화하였다.

무엇보다 신민당의 대여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졌고 그를 중심으로 각 계층과 민주세력의 집결이 강화되였다.

1978년 말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보다 지지표를 더 얻은것을 조건으로 《정권》교체를 전면에 들고나온 신민당은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을 당수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유신체제》의 철폐와 《민주회복》, 《정권》교체를 정치투쟁의 목표로, 《공평경제를 실현하여 민생의 안정을 이룩하고 복지경제를 완성》할것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 내세웠다.

신민당총재 김영삼은 6월 11일 서울의 외신기자구락부에서 새 집행부의 로선이라고도 할수 있는 연설에서 《조국통일문제는 박정희 한사람이 독점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야당총재로서 김일성주석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보부》에 의한 《정치보복》의 중지, 《긴급조치》의 철폐와 박정희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신민당은 또한 성명, 담화를 통하여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을 규탄하고 반동적경제정책을 폭로하면서 《경제개혁》을 주장하였다.

신민당에 대한 각계층의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6월 5일에는 괴뢰국회무소속의원들 9명이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6월 23일에는 민주인사 윤보선이 김영삼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사에 압력을 가하고있는 괴뢰도당을 비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신민당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계단식으로 강화해오던 괴뢰도당은 7월 5일 사복경찰 100여명을 동원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당기관지《민주전선》2천여부를 압수해갔으며 이 당의 인사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괴뢰도당의 당기관지 압수행위는 7월 12일까지의 사이에 세차례나 거듭되였다.

신민당은 이에 대처하여 당내에 인권침해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성명, 담화 등을 통하여 항의하는 한편 김영삼 등 신민당소속《의원》들이 서울 중심거리에서 당기관지를 직접 가두판매하는 투쟁을 수차례 벌렸다.

한편 김영삼은 7월 20일부터 열린 괴뢰림시국회에서 《공화당정권은 더이상 존립의 명분을 잃었다》고 하면서 박정희자신이 《신속히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하였다.

신민당의 공세는 8월 9일 신민당청사에서의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과 9월의 청년학생들의 대규모적인 반《정부》투쟁에 편승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에 당황망조한 괴뢰도당은 9월 8일 괴뢰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렸으며 10월 4일에는 괴뢰국회에서 여당측《의원》들로 담을 쌓고 김영삼의 《의원》직을 40초동안에 날치기로 박탈하였다.

신민당출신 《국회의원》들은 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항의하여 《국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신민당《의원》 66명 전원이 총사퇴서를 내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민주통일당 총재와《의원》들도 역시 그에 합세하여 《의원》직사퇴서를 냈다.

김영삼은 성명에서 《민주체제가 회복되는 헌법개정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민주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하여 전국민적투쟁을 전개하여 박정희독재타도운동을 크게 벌릴것》을 다짐했으며 《국군》장병들에게도 이것을 호소했다.

신민당의 대여투쟁과 그가 내세운 《민주회복》, 《정권》교체의 주장은 각계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세력의 집결을 더욱 촉진시켰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은 신민당에 대한 괴뢰들의 탄압을 반대하여 9월 28일 《김영삼총재를 옹호하기 위해 전국민의 투쟁이 전개될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8월 27일에는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합당을 공식선언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에서도 《신민당의 민주화투쟁지지》, 《김영삼총재하의 신민당에 대한 탄압중지》등 구호들이 강력히 제기되였으며 부산과 마산에서의 폭동은 실지로 신민당에 대한 적들의 탄압을 계기로 일어났을뿐 아니라 김영삼의 세력지반이 강한 지역에서 폭발하였다.

민주세력의 집결과 함께 반독재련합전선운동과 각계층의 련대투쟁, 공동투쟁이 보다 강화되였다.

이것은 8월에 있은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각계층의 지지성원과 괴뢰도당의 탄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로동자들이 신민당청사에서 투쟁을 벌릴때 5개의 로조지부조직들과 7개의 언론인단체, 1개의 문인단체, 10여개의 종교단체들이 련대및공동투쟁을 벌리며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신민당은 로동자들에게 투쟁장소를 제공해주고 롱성현장에 찾아가 여러번 고무격려해주었을뿐 아니라 청년당원들로 그들의 투쟁을 보호하여주었고 일부 신민당《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우며 그들과 함께 롱성을 벌렸다. 더우기 8.11폭행사건때에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의 투쟁을 전개할것》을 선포하였으며 항의결의문, 항의질문서, 특별담화, 기자회견, 성명과 항의백서, 종합보고서 등을 통하여 모든 책임이 괴뢰당국에 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민주통일당도 8월 15일 괴뢰도당의 8.11폭행에 항의하는 5개조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신민당의 롱성투쟁에 합류할것을 선포하였다.

8월 28일 신민당에서 조직한 김경순의 추도식에는 괴뢰들의 경계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민주통일당 당원들과 시민, 민주인사, 종교인 등 1천여명이 참가하였다.

8월 20일 서울시내의 300여명의 학생들은 와이에취 로동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에 항의하여 가두시위를 진행하였다.

9월에 있은 8개대학 청년학생들의 반《정부》시위투쟁에서도 《로동3권보장》, 《와이에취녀공의 사인해명》, 《경제개혁실시》, 《민주로조결성》, 《로동자해고를 그만두고 악질기업주를 처분하라》 등 구호들이 강하게 제기되였으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근로자생존권수호선언》이라는 문건까지 발표하여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종교인들속에서도 련대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8월 20일 서울 명동에서 카톨릭농민회는 4천여명의 신자들과 농민들의 참가밑에 집회를 열고 괴뢰도당의 탄압을 규탄하였으며 9월 10일에는 전주에서 3천명, 목포에서 1천여명의 종교인들이 천주교회에 모여 김경순추도식을 가진후 《반정부비판집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는 8월 14일 와이에취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순이 죽은 책임을 명백히 하고 체포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며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를 담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교회와 함께 《카톨릭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카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예수교장로회청년회련합회》, 《한국교회선교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교》, 《기독교장로회총회》 등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보고회, 성명을 통하여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을 계기로 한 야당과 종교인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항의규탄하였다.

8월 20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김경순로동자의 죽음과 더불어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경고하였다.

8월 11일～25일사이에는 《동양라지오방송보도국》, 《기자협회》, 《신문편집인협의회장단》, 《국회출입기자단》, 《서울시경찰국출입기자단》 등 언론단체들이 와이에취 로동자들의 투쟁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탄압한 괴뢰도당에 항의하여 성명과 공개질문장을 들이댔다.

련대투쟁, 공동투쟁은 부산과 마산 폭동 그리고 9월의 반《정부》투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부산, 마산 폭동에는 청년학생, 로동자, 시민

등 각 계층이 참가하여 공동행동을 하였으며 특히 로동자, 실업자를 비롯한 혁명의 기본계급이 많이 참가한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로 하여금 극도로 당황케 하였다.

부산, 마산 폭동을 지지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발표한 성명(10.17)에서는 괴뢰도당이 《계엄령》을 즉시 해제하며 탄압을 중지하고 민주주의적헌법을 작성할것을 요구하였다.

9월에 있은 반《정부》투쟁에서도 경북, 계명, 경남 대학교학생들이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의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들 역시 내용이 꼭 같은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투쟁하는 등 조직적인 뉴대가 강화된것을 보여주었다.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벌리기 위한 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련합전선적성격을 띤 민주화투쟁단체들이 또한 조직되였으며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이 전반적인 민주화투쟁에 더욱더 영향을 미쳤다.

8월 23일에 조직된 련대성운동조직인 《와이에취무역문제대책위원회》에는 재야 정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문인계의 민주세력상층인사들이 거의 다 망라되였다.

3월에는 반파쑈투쟁조직들의 련합체로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서울에서 발족하였다.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이 공동의장으로 되고있는 《국민련합》은 《전민주진영의 대표기관》으로서

1. 민주회복
2. 자주적, 민주적 조국통일
3. 평화투쟁

이 세가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회복은 물론 조국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한다》고 선언하였다.

1979년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들은 그 어떤 파쑈독재와 총칼로도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억누를수 없으며 간고한 투쟁속에서 남조선의 민주세력이 끊임없이 장성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먼저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0페지)

1979년에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파쑈민주화운동과 결부되여 더욱 강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경제정책과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여파로 남조선의 식민지경제는 극도의 파산상태에 처하였으며 근로대중의 생활은 더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로동자, 농민, 도시주민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불평불만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앙양되는 반파쑈민주화투쟁과 결합되여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년중 세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1~10월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형태의 130여건의 투쟁을 벌렸으며 여기에는 연 3만 4천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78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투쟁건수에서 1.2배, 참가인원수에서 2.3배의 장성으로 된다.

특히 자동차운수부문로동자들의 투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파업, 집회, 시위 등 적극적인 투쟁형태가 총투쟁건수의 62.2%를 차지하였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로동운동의 정치적성격이 점차 강화된것이였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중적폭동에 수많은 로동자들과 실업자들이 참가한것은 처음보는 일이였으며 이것은 미제와 그 괴뢰들을 극도의 불안에 떨게한 요인이였다.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 역시 출발은 페업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위한것이였지만 전반적민주세력의 집결을 촉진시키고 민주화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투쟁이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투쟁의 적극성과 완강성이 보다 강화된것이였다.

4월 3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태평양화학회사 녀성로동자 600여명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항의롱성을 벌렸다.

8월 6~8일까지 사이에 서울시내의 용달차운전수 1천 500여명은 기업주놈의 부당한 증차계획을 반대하여 집단적인 항의롱성을 벌렸으며 미진금속주식회사 로동자 700명도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8월에 20여일동안이나 파업투쟁을 벌려 끝내 요구조건을 관철하고야 말았다.

4월부터 8월까지 경상남도 《울산공업단지》로동자들 1천여명은 밀린 임금과 휴업수당금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러차례 항의롱성과 시위투쟁을 벌렸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도당이 석유류값을 대폭 올리는것과 관련하여 휘발유값과 입금액을 낮출것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수들의 투쟁이 완강하였다.

서울에서만 하여도 5월 21일 시내의 택시운전수 2천여명이 파업투쟁을 벌렸으며 7월 11일에는 1천 500여명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5~10월까지의 사이에만도 20여차례나

진행되였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또한 련대투쟁, 공동행동이 강화되였다.

5월 21일에 벌어진 서울시내 택시운전수들의 파업에는 29개의 택시회사 운전수들이 동시에 참가하였으며 6월 15일 부산시에서도 9개회사의 300명의 택시운전수들이 공동으로 항의롱성투쟁을 벌리였다.

7월 11일 서울에서는 휘발유값인상을 반대하여 3개회사의 100대의 택시운전수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특히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이 신민당청사에서 롱성투쟁할때에는 해태제과회사, 반도상사, 남영나이론회사 등 5개 회사의 《로조》지부대표들이 로동자들을 찾아와 고무하였다.

남조선의 농민들과 도시주민들도 삶의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10월말까지 알려진것만 하여도 46건에 달하였으며 1978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참가인원수는 2배로 늘어났다.

남조선농민들은 괴뢰도당의 토지수탈책동, 공해업체들에 의한 피해, 토질과 기후에 맞지않는 벼품종의 강요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도시주민들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며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이해 10개월동안에 180여건의 각종 투쟁을 벌렸다. 이것은 1978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1.7배의 장성으로 된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이러한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새제도, 새생활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해외교포들의 애국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도 숭고한 민족적사명감을 지니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6페지)

1979년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해외교포들의 투쟁도 더욱 강화되였다.

일본, 미국, 서부독일, 카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광범한 동포들은 이미 조직된 투쟁단체들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교포조직들 호상간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단합된 력량으로 박정희파쑈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으며 련대투쟁, 공동행동을 강화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 서명운동, 강연회, 성명발표, 삐라살포, 단식투쟁, 출판물에 의한 정치선전활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각계각층의 교포대중을 각성시키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폭로규탄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해외교포들은 무엇보다먼저 투쟁의 예봉을 박정희《유신》독재를 타도하는데 집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투쟁을 강화하였다.

년초 새해를 맞이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1979년은 반드시 박〈정권〉에 종지부를 찍는 해로 될것》이라고 언명한 해외동포들은 년중 박정희의 퇴진과 《유신체제》철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4.19인민봉기 19돐에 즈음하여 미국 각지에서 살고있는 남조선출신동포들이 발표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재미교포 4.19공동성명서》는 《현〈정권〉은 〈유신체제〉라는 반민족, 반민주적자세에서 벗어나 〈정권〉을 자유롭고 공정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사들이 담당하도록 즉시 〈유신체제〉를 철페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하였다.

6월 8~10일까지의 사이에 미국의 뉴욕에서는 《민족문제해외동포회의》가 열렸다.

미국, 카나다, 서부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 사는 동포조직대표들과 외국인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민족의 자주》, 《민중과 민주주의》, 《통일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 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결의문과 호소문이 채택되였는데 결의문은 첫조항으로서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적인 박정희독재〈정권〉의 즉시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 《민주통일협의회》, 《민단자주수호위원회》, 재일《한청》중앙본부 등 8개 단체들이 김대중랍치사건과 관련한 미국무부의 비밀공식문서가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동명의로 된 성명은 남조선인민들이 박정희도당의 파렴치한 반민주적행위를 보고만 있지말고 박《정권》타도에 일어나 싸울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유신체제》의 철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다음에도 강력하게 울려나왔다.

카나다에 있는 교포단체인 《토론토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10월 27일 긴급림시총회를 열고 박정희가 죽은 이 기회에 《유신헌법》이 철페되여야하며 《최규하림시체제를 비롯하여 일체의 〈유신〉잔재가 물러날것》을 주장하였다.

10월 30일 서부독일에 있는 40여명의 교포들은 그곳 괴뢰대사관으로 밀고들어가 《유신헌법 철페하라》 등 구호를 쓴 프랑카드까지 들고 일대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서부독일에 있는 민주교포단체들인 《민주한인회》,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구라파지역 등도 《박정희를 살해한자들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반민주적〈유신〉독재체제의 하수인》이며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를 계속하려는 어떠한 미봉책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국본부와 일본본부, 《재미륙사출신예비역장교단》, 《재미구국향군총사령부》 등 수많은 교포조직들이 현《정권》의 즉시 퇴진과 정치범의 석방, 《유신헌법》, 《반공법》을 비롯한 파쑈악법의 철폐와 새 민주정부의 수립을 요구하여 성명,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을 더욱 고립시키는 한편 파쑈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련대투쟁을 강화하였다.

특히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과 신민당에 대한 괴뢰도당의 8.11폭행만행을 반대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한민통》일본본부는 8월 11일 즉시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한민통》일본본부, 《민주통일협의회》, 《민단자주수호위원회》, 《민단》도꾜본부, 《민단》가나가와본부, 《김지하구출대책위원회》,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대한부인회》도꾜본부의 련명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박독재〈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에 있는 《민단》계 동포녀성단체인 《한국녀성의 인권을 지키는 회》도 11일 즉시로 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폭로하고 전체 남조선녀성들이 반박정희 애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서부독일에 있는 《재독한인로동자련맹》, 미국에 있는 《배달군인회》, 《재카나다민족통일연구회》, 《재서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등 많은 동포단체들이 《와이에취사건》, 《신민당사란입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호소문 등을 발표하였으며 카나다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는 《한 젊은 녀공의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괴뢰도당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9월 2일에는 《김경순에 대한 학살만행을 규탄하며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 농민, 신민당의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한국인긴급집회》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한민통》일본본부, 《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에서는 9.1～10.7일까지를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행동월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기발아래 총집결할것을 호소하였다.

박정희파쑈도당이 신민당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한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통일혁명당재일한국인련대위원회》, 《한민통》일본본부, 《민주통일협의회》, 《미주민주국민련합》을 비롯한 많은 교포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한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정당정치의 초불마저 끄고말았다》고 괴뢰도당의 야당탄압을 규탄하였으며 신민당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더욱 결속을 강화하여 박《정권》타도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다.

《민단》계 교포신문 《민족시보》 9월 11일부는 《김영삼총재 등의 투쟁에 적극 합세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으며 내외동포가 모든 력량을 다하여 신민당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할것을 호소하였다.

《통일혁명당재일한국인련대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부산, 마산의 반《정부》폭동을 지지하는 성명, 문건들을 수많이 발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또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일인독점》을 규탄하고 전민족대회소집을 통한 통일문제해결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특히 1. 23일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재카나다민주민족통일연구회》, 《재미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성명에서 《남북통일회담을 쌍수로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재미구국향군총사령부》는 3월 1일 남북대화의 재개를 환영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와 같은 남한의 가혹한 독재체제에서 대화를 한다면 남한 전체 민중의 통일에로의 여망은 한푼도 반영되기는 고사하고 당국자의 몇몇 졸개들이 당국자대신의 사환노릇을 하는데 불과하다.…남북의 정치 사회단체의 대표, 각계의 애국인사, 해외교포들의 애국단체 및 개인을 총망라한 전민족대회에서 조국통일이 론의되고 의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미민주운동련합》의장과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수석의장, 《배달군인회》의장 등이 련명으로 발표한 성명과 재미교포단체인 《민족통일련합전선》이 발표한 성명 등을 통하여 해외동포들은 통일문제에 전체 인민의 의사가 반영되여야 하며 남북간의 대화에 민중의 각계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사회문제연구회》와 《재미김지하의벗》은 성명에서 《통일을 위한 대화는 전민족대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북측의 전민족대회소집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당국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괴뢰도당을 규탄하였다.

서부독일에서 발행되는 남조선출신동포신문 《민주한국》 2. 15호도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의 립장》이라는 사설에서 통일문제는 《어느 일당, 일파의 독차지》가 될수 없으며 《전민족의 생사운명이 걸린 그야말로 전민족적과제》이므로 남북과 해외의 각계각층민중을 대표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월초에 해외동포녀성단체들인 《재일대한부인회》, 《재독녀성동우회》, 《재카나다녀성동우회》, 《재미애국녀성동우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애국녀성련합공동선언》은 박정희역도의 반공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이였다.

특히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여 《미주민주국민련합》은 3월 3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독재《정권》에 대한 군사적지원파 조선의 평화통일방해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재미동포신문 《해외한민보》는 카터의 남조선행각이 《인권말살의 세계적인 표본》을 고무격려하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 등 9개단체들은 련명으로 의견서를 발표하여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말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6월에 뉴욕에서 진행되였던 《민족문제해외동포회의》참가자들은 카터의 남조선방문을 취소하고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주는 모든 군사원조를 중지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킬것을 요구하여 2천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를 백악관에 보냈으며 11일에는 뻐스를 타고 워싱톤으로 달려가 백악관앞에서 《조선은 조선사람의것이다》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벌렸다.

8월 8일에는 김대중랍치사건의 《정치결착》철회를 요구하는 《8.8집회》가 도꾜에 있는 구단회관에서 진행되여 일본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들간의 결탁을 규탄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재일교포단체 성원들, 일본의 로동단체, 민주단체, 시민단체 등 40여개 단체성원들파 각계인사들 1천 300여명은 일본파 남조선당국간의 부당한 《정치결착》의 철회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렸다.

해외교포들의 이 모든 투쟁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 1979년에 결성된 해외교포조직

《배달군인회》 3월 3일 미국 워싱톤에서 남조선출신동포들이 모여 결성한 반파쑈민주화단체이다.

의장 최덕신 (이전 남조선괴뢰정부 외무부장관)
고문 김재준 (이전《한국신학대학》명예총장)
　　　림창영 (이전 남조선 괴뢰 유엔대사)
　　　최홍희 (이전 괴뢰륙군소장)

이 단체는 기관지 《배달신보》를 발행한다.

《배달군인회》는 강령에서 《독재를 배척하며 독재타도를 위해 투쟁》하며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민족자력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헌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령에서 《민족의 대단결파 우리의 투쟁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상, 종교, 교육, 직위, 재산등의 편견을 일체 배척하며 화합파 강령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솔선 희생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 그리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향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한 국제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1979년에도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이 힘차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이해에도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국가및정부수반들, 진보적정당, 단체들의 책임일군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 국제회의와 여러나라들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참가자들, 련대성조직들파 사회단체들로부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전문파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정당들파 사회단체들,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조직들, 저명한 각계인사들파 국제기구, 국제민주단체들이 여러 계기들에 련대성집회와 시위, 성명, 호소문, 결의, 담화 등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널리 보도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4개항목의 통일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구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가 내놓은 4개항목의 통일방안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국제적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년초에만도 세계 100여개의 나라들에서 1천 200건의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1월 23일～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세계각국의 194개의 신문과 79개의 통신, 방송이 우리의 제안을 매일 보도하였으며 그 보도건수는 668건에 달하였다. 또한 세계각국의 236개의 친선단체와 30개의 정당, 30개의 국제기구가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23회의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담화는 209회, 성명과 호소문은 54건, 결의 및 적들에 대한 항의문은 25건이 발표되였으며 24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239명의 저명한 개별인사들이 직접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담은 성명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세계의 광범한 사회여론은 《조선통일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의의깊은 제안》, 《전진적인 새로운 발기》, 《애국적이고도 정당한 방안》,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전민족대회의 소집제안을 포함한 4개항목의 현실적제안들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여 성명, 호소문을 발표한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명발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핀란드조선협회와 조선통일핀란드련대성위원회
말가슈련대성위원회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
조선통일지지베네수엘라위원회
세계직업련맹서기국
말가슈혁명근로자직업련맹
애급및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대표부
꼴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련맹 전국위원회
조선통일지지도미니까위원회
방글라데슈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이딸리아로동총련맹
조선의 평화적통일지지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
라호르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제3세계와의 련대성파키스탄청년위원회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말가슈혁명로조 공공사업부문로조
국제학생동맹서기국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와 파키스탄라호르지구법률가협회
조선통일지지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지역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
파키스탄로조련맹, 파키스탄농조위원회
국제아랍로조련맹 총서기국
국제농업, 림업및재배업근로자동맹서기국
말가슈기독교민주련맹 전국위원회
조선통일지지노르웨이위원회 아렌달지부에서 진행된 집회
인도법률가협회
에스빠냐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룬디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네팔위원회
상부볼따근로자로동조합동맹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부룬디위원회
전인도농업근로자동맹 총서기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진행된 집회
나이제리아 농업근로자동맹위원장
수단 로동자직업총련맹
국제기자동맹서기국
말따공화국 정부
수리남조선친선협회와 수리남민주공화당
아프리카로조통일기구 서기국
나이제리아교원동맹 라고스주 지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국제부녀절 히로시마현집회》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찌지구로동조합평의회
일조협회나가와현련합회
꼴롬비아전국자유청년련맹 제3차전국대회
전인도학생련맹과 전인도청년련맹
꼴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말리지지위원회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꾸바공화국 외교부
조선통일지지에꽈도르위원회

호소문 발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로조대회, 전인도청년련맹, 전인도학생련맹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 행동위원회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예멘민주농민동맹 총서기국

국제적련대성운동의 조직화와 규모의 확대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은 1979년에 더욱더 조직화되였으며 그 규모와 폭이 넓어졌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자기 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리였다.

이해에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민족위원회들과 지방위원회들이 새로 결성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의 70개 나라들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무어져 활동하고있으며 련대성조직들의 수는 무려 190여개에 달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그 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련대성운동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대륙별, 지역별로 공동행동을 취하면서 세계적규모에서 더욱 조직화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3월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세계각국의 정부들과 국회, 정당 그리고 조선통일지지 각국 민족위원회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민족위원회들의 활동을 강화하며 민족위원회들과 국제련락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발기들에 협력하여 서명운동, 군중집회, 시위를 비롯한 련대성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1월에는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지역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 나라 정부와 국회,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련대성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3월에는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11월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4개 나라와 6개 국제기구에서 온 저명한 법률가, 력사가, 사회정치활동가들의 참가밑에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밖에도 일본 도꾜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비상회의 등 여러차례의 국제회의들이 진행되였다.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세계적규모에서 더욱 조직화되였을뿐아니라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도 전례없는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국제련락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4월말부터 년말까지 벌어진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을 통하여서도 찾아볼수 있다.

국제련락위원회와 각국 민족위원회, 련대성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년중 줄기차게 벌어진 국제적서명운동에는 년말까지 무려 128개의 나라들과 31개의 국제기구, 지역기구들에서 10억8천만명이상 참가하였다.

서명운동은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어졌으며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당및정부 지도자들로부터 각계각층 군중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산토메 프린시페에서는 서명운동을 위한 소조를 내오고 소조의 지도밑에 이 운동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수리아에서는 수리아아랍부흥당의 지시에 따라 이 운동을 벌렸다.

앙골라에서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모든 당세포조직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지방당간부들, 모든 당원들이 솔선 앞장서서 100만명이상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말가슈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말가슈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마련한후 서명운동을 벌릴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운동과 관련한 서명문을 전국에 배포한데 이어 이 나라 국가수반과 총리, 민족인민회의 의장, 최고혁명리사회의 성원들과 정부의 부장들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모든 혁명조직과 사회단체일군들, 각급 정권기관과 행정기관 공무원들, 각계층 인사들과 로동자들이 이 운동에 합세하였다.

핀란드에서는 10월말까지 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주지사들, 시장들, 정당,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사회계인사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을 포함한 16만명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5월 19일 일본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은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100만명서명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으며 10월 18일 세계민청뷰로는 국제적으로 조선통일지지서명운동이 진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수많은 단체들이 호소문,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선통일지지서명운동 참가자들과 서명문, 호소문 등 문건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소집을 비롯한 우리의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견결히 요구하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 남조선에서의 반《정부》투쟁의 앙양과 그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 등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5대륙의 도처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 집회와 시위, 강연회, 토론회,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등 여러가지 형태의 행사들이 광범히 벌어졌다.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련대성조직들,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성명, 호소문, 결의 등 문건들을 발표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이 월간을 계기로 카터의 남조선행각과 《철군공약》취소에 대하여 격분에 넘쳐 항의규탄하였다.

5월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12만 5천명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카터와 미국방부는 4만여명의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라!》,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당장 취소하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는 5월 15일부터《카터의 남조선행각취소》, 《박〈정권〉에 대한 모든 원조의 중지》, 《조선통일에 간섭하지 말라》등 요구를 담은 서명수집운동을 벌렸다. 이 위원회는 6월 25일에도 미국의 뉴욕에서 《하나의 조선은 좋고 〈두개조선〉은 나쁘다》 등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목소리는 서구라파나라들의 정계인사들속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왔다.

7월 27일 뽀르뚜갈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은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이룩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모든 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즉시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둘째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즉시 재개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회담에 속히 응해나서야 한다.

10월 23일 프랑스의 시장, 부시장, 평의원들 82명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동결시키고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여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이딸리아 국회 상하원의원 103명이 로마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9일 이딸리아의 4,556개의 중소행정단위들과 3,191만명의 주민들을 망라하는 주요 지역 및 주 리사회 위원장들과 대도시 시장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가 리행되도록 노력할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공동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해에 진행된 제6차쁠럭불가담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34차회의에서도 많은 나라 대표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이 모든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은 오늘 조선문제가 세계정치의 초점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통일지지위원회결성(197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야마구찌현청년련대성위원회 (일본, 1979. 1—)

일본우호이와대현민회 기다가미지부, 구지지부 (1. 24～25)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지역위원회 (2. 16)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이바라기현위원회 겡세이지부(일본 3. 17)

조선통일지지 아프리카, 중근동 및 라틴미주 류학생들의 스위스위원회 (3. 23)

이슬란드조선친선및련대성위원회 (4. 23)

일조우호촉진사이다마현오가와정의원련맹(5.23)

노르웨이에 있는 희랍인들의 조선통일지지위원회(6. 15)

조선녀성들과 련대하는 미야자끼현 녀성들의회 (일본, 7—)

나가노현 조선녀성들과 련대하는 회 (일본, 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오이다현 녀성들의 회 (일본, 7. 14)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뉴 암스테르담지부 (7. 17)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히가시고베시민의 회 (일본, 7. 20)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니시고베시민의회 (일본, 7. 26)

조선통일지지벨지끄프라망지역위원회 (8—)

조선통일지지산따마부인련대성위원회 (일본, 9. 1)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기후현 부인의 회(일본, 9. 8)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치글라요지부 (9. 8)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며 조선녀성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나가사끼현부인의회 (일본, 9. 14)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다찌가와 지구련대성위원회 (일본, 9. 20)

련대성행사(1979)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와 관련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제3세계와의 련대성파키스탄청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라호르에서 진행 (1—)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에 관한 보고모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진행(1. 24)

조선의 통일을 위한 일본 시가현민집회(1. 2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의 주최로 꾀뻰하븐시에서 진행(1. 2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모임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언헬드비크시에서 진행 (1. 31)

송림항에 머무른 빠나마선박선원들이 4개항목의 통일방안을 지지하여 련대성집회를 진행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홍남항에 머무른 싱가포르, 유고슬라비아, 일본, 빠나마, 희랍 선박 선원들이 공동집회를 진행 (2—)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서독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주최로 서독의 듀쎌도르프에서 진행 (2.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단마르크의 글라드삭세에서 진행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참가자들의 보고모임 일본 야마가다현에서 진행 (2. 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통일지지이딸리아위원회와 이딸리아 전국평화옹호위원회가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2. 7)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단마르크녀성군중집회 꾀뻰하븐에서 진행 (2. 1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조선통일지지노르웨이위원회 아렌달지부에서 집회를 진행 (2. 13)

4개항목제안에 기초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 교직원, 로동자들의 집회 도꾜에서 진행 (2. 1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제안과 조치들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진행 (2. 2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말가슈전국위원회가 기자회견 진행 (2. 2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집회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진행(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청진항에 머무른 일본, 빠나마, 싱가포르선박 선원들이 공동집회 진행(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모임 말리전국기사학교아프리카류학생협회에서 진행 (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남포항에 머무른 끼쁘로스, 희랍, 빠나마, 일본, 싱가포르선박 선원들이 련합모임 진행 (3—)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단마르크 전국대회 꾀뻰하븐에서 진행 (3—)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군중집회 핀란드조선협회의 주최로 헬싱키에서 진행

조선문제연구모임이 일본 각계인사들의 참가밑에 진행 (3. 5)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긴급집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3. 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산토메 프린시페의 수도에서 진행 (3. 1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에 담겨져있는 4개항목의 새로운 제안을 비롯한 조국통일방안들과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군중집회가 핀란드의 뚜루꾸시에서 진행 (3. 28)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주최로 프랑스 빠리의 안또니시에서 집회를 진행(4. 21)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진행 (5—)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미군과 핵무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 미국의 워싱톤에서 진행 (5. 6)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일본 시즈오까현 아다미시에서 진행 (5. 1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강연모임 일본 후쮸시에서 진행 (5. 24)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후꾸오까현위원회 제2차총회 일본 후꾸오까시에서 진행 (6. 18)

조선문제토론회가 일본사회당기관지 《샤까이신뽀》의 주최로 도꾜에서 진행(6. 29)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모임 일본 효고현에서 진행 (7—)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꽁고의 브라자빌에서 진행 (7. 2)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가이아나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 진행(7. 5)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군마현 위원회 제3차총회 일본에서 진행 (7. 13)

조선문제학습회 일본의 나가사끼에서 진행 (7. 17)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고베시민집회 진행(일본, 7. 20)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지바현민집회 진행(일본, 7. 21)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집회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 (7. 21)

조선통일문제에 관한 외국기자들의 강연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7. 24)

조선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강연회 조선통일지지 부룬디위원회의 주최로 부줌부라에서 진행(7. 2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대한 토론회 방글라데슈에서 진행 (7. 24)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소말리아수도 모가디쇼에서 진행 (7. 26)

남조선의 인권과 핵문제에 관한 일본기독교인들의 토론회 도꾜에서 진행 (7. 27)

남포항에 머무르고있는 일본선박선원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공동집회를 진행 (7. 2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효고현민집회 일본에서 진행 (7. 27)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 베닌의 꼬또누시에서 진행 (7. 2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 세네갈의 류피스끄시에서 진행 (8—)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모임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진행 (8. 15)

조선문제에 관한 강연회 일본 후꾸시마에서 진행 (8. 27)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진행 (9—)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모임 조선통일지지노르웨이위원회 크리스티안산드 지부에서 진행 (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박정희도당의 파쑈탄압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하는 교직원, 로동자들의 긴급집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9. 18)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인도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전국련합회의 뉴델리에서 진행 (9. 26)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일과 관련한 반미군중집회 오지리에서 진행 (10. 8)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부인집회 전국실행위원회 회의 도꾜에서 진행 (10. 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진행 (10. 2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뽀르뚜갈에서 진행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군중집회 산토메 프린시페에서 진행 (11—)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모임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진행 (11—)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 1돐기념 가나가와현집회 일본 요꼬하마시에서 진행(11—)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글라데슈전국대회 다카에서 진행 (11. 7)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 (11. 8)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 진행 (11. 15)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국대회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진행 (11. 1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11. 2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부인집회 도꾜에서 진행 (11. 28)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간사이부인집회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 (12—)

일본정부의 대조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교직원, 로동자, 학생들의 긴급집회 도꾜에서 진행 (12—)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 집회 인도의 알리가르지구에서 진행 (12—)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하는 긴급중앙집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12. 12)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 르완다의 사탕공장에서 진행 (12. 14)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집회 일본국철로동조합 청년부의 주최로 도꾜에서 진행 (12. 19)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괴뢰도당의 책동

1979년에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산물인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체제는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오랜 기간의 군사파쑈독재에 대한 쌓이고쌓인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대중적반《정부》시위와 폭동, 신민당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세력들의 완강한 반파쑈민주화투쟁, 괴뢰지배층내부에서의 모순과 알륵의 격화, 국제적고립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민족분렬책동과 반공책동, 파쑈폭압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괴뢰들이 잔명을 유지하여보려고 발광하면 할수록 내외정세는 저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전변되여갔으며 박정희역도는 결국 종말을 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분렬과 반공 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분렬의 현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1페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해보려는 미제의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괴뢰도당은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족분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가 내놓은 통일방안의 공명정대성과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대화마당에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대화를 통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분렬을 위한 대화로 만들며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고 책동함으로써 결국 모처럼 마련된 쌍방대화를 결렬시키는 죄행을 저질렀다.

남조선괴뢰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서 남조선에 대한 비난선전을 중지한 2월 1일부터 서울과 지방의 모든 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제도와 리념을 헐뜯는 비방선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괴뢰들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의들과 조치들에 대하여 덮어놓고 시비하면서 《위장평화공세》라느니 《계략》이라느니 그 무슨 《야욕을 품은것》이라느니하고 헐뜯으면서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였다.

1979년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넉달동안에 남조선측이 우리의 평화통일제안과 제도와 리념을 비방중상한 건수는 서울시내 몇개 방송에서만도 3만 6천 926건에 달한다.

그중	《중앙방송》	5,692건
	《사회교육방송》	19,982건
	《동양라지오방송》	2,645건
	《문화방송》	2,553건
	《기독교방송》	1,986건
	《문화텔레비죤》	2,171건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박정희괴뢰도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민족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의에 차 우리를 헐뜯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괴뢰들은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의 평화통일제안을 반대하는 이른바 《천만명서명운동》이라는 광대놀음까지 벌렸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자고 한 바로 3월 1일부터 확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을 개시하고 년중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였으며 국토를 두 동강내기 위한 철근콩크리트장벽까지 군사분계선에 쌓는 천추에 용서못할 죄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극악한 민족분렬책동에 매달리면서 한편으로는 저들의 반민족적죄행을 가리우고 인민들을 기만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반공소동을 더욱 빈번히 벌렸다.

원래 반공을 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삼아온 괴뢰도당은 1979년에도 역시 반공을 구실로 북과 남의 대화도 파탄시켰고 합작과 민족적단합도 반대하였으며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쳤던것이다.

년초부터 《대공태세확립》이요, 《작전태세확립》이요, 《멸공교육의 계속》이요 하면서 반공나발을 불어댄 괴뢰들은 이해초에 공화국북반부가 바라보이는 강화도에 《호국교육원》이라는것을 만들었으며 괴뢰륙군의 한 부대에는 《멸공관》을 내오는 등 숱한 반공선전기관들과 시설들을 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괴뢰군병사들을 강제로 끌어다 《안보교육》, 《정신교육》을 한다고 줴치면서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6월달을 이른바 《반공강화의 달》로 정해놓고 남조선 방방곡곡에서 일대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그들은 군대와 각급 학교, 직장, 가두에 《반공교육지침》이라는것을 내려보내고 각지에서 반공《웅변대회》, 《글짓기》, 《강연회》, 《반공의 날 기념대회》를 벌렸으며 청장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이른바 《격전지행군》에 내몰았다. 이러한 반공소동은 6.25를 계기로 더욱 광기를 띠였다.

남조선괴뢰들이 벌리고있는 반공책동의 악랄성은 특히 괴뢰들이 술한 《사건》을 날조하여 함부로 우리를 걸고들면서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당면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한데서 표현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상투적인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날조하고 경상남도 삼천포와 부산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조국통일전선결사대》를 무어 활동해왔다는 11명의 주민들을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딱지를 붙여 체포투옥하고 그것을 걸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었다.

뿐만아니라 괴뢰들은 7월초순부터 의거자 고상문에 대해서조차 《랍치》당했다는 생억지를 쓰면서 남조선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며 우리가 《대남적화공작》을 강화한다느니 《무장간첩선》을 침투시켰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괴뢰들은 카터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카터의 《철군》동결을 정당화하며 상전의 비호를 구걸하여 잔명을 유지하여 보려고 꾀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8월 9일 《삼척지역간첩단사건》이란것을 조작하고 남조선강원도 삼척일대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진항식을 비롯한 24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간첩활동》을 구실로 체포구금하였다.

이들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문과 생신일을 축하하는 자수 한폭을 준비한 애국적인민들이였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몇년전부터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지하당지도부를 뭇고 남조선인민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선전활동과 반미, 반《정부》투쟁을 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이들의 애국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는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반공을 구실로 탄압하다못해 10월상순에는 전혀 있지도 않는 《민족해방전선사건전모》라는 자작극을 날조하여 공포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그들은 이것을 해방후 《최대규모의 사건》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7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떠들어댔으나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서투른 연극이라는것이 드러났다. 이것 역시 《유신》체제의 철폐와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극도로 첨예화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모략극이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미국과 일본의 반동적인 영화제작업자들과 공모결탁하여 추진하여오던 악랄한 반공모략영화 《인천》을 제작하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으며 내외여론의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내 촬영에 달라붙는 죄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통일교회—국제승공련합》의 하부기관이며 모략영화 《인천》 제작 및 기획자인 《완웨이프로》는 이해 4월하순 남조선괴뢰들의 비호밑에 미국인 영화감독놈과 《인천》영화 제작성원들을 거느리고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놈들은 약 6개월동안 서울에 둥지를 틀고앉아 영화촬영기간 《사업상필요》라는 구실밑에 수원과 어천간의 철길을 부당하게 차단함으로써 그 일대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는가 하면 인천시 신포동에 있는 상점들을 몇푼의 보상금밖에 주지 않고 폐점시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파쑈적폭압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5폐지)

박정희파쑈도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전례없는 포악성과 야수성을 가지고 탄압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악명높은 《유신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지어는 재야세력에 이르기까지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하였다.

대표적실례로 박정희파쑈도당은 일자리와 먹을것을 요구해나선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 200여명의 롱성을 2천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동경찰대를 풀어 야만적으로 탄압하였으며 1명을 살해하고 170여명을 체포련행해갔다.

놈들은 또한 서울과 인천,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는데 질겁하여 《로동자들의 불만을 철

권으로 신속히 분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규는 파급될것이다》등의 폭언을 줴치면서 수많은 폭압무리들을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로 내몰았다.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이처럼 접에 질려 야수적으로 탄압한데는 앙양되는 반《정부》폭동에 기본계급인 로동계급이 참가할수 없게 하며 그들의 투쟁이 더 확대되지 못하게 사전에 말살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도 더욱 악랄하여졌다.

괴뢰들은 8월하순에 《〈와이에취사건〉학원관계각료회의》라는것을 열고 학생투쟁을 탄압할데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그후 9월에 일어난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놈들은 정당한 요구를 들고 투쟁에 궐기한 청년학생들에게 기동경찰대를 출동시켜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둘러대며 폭압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서울대학교와 경북, 령남, 계명 대학교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을 붙잡아갔다.

파쑈도당은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부산시내 청년학생들의 폭동에 대하여 중무장한 괴뢰군까지 출동시켜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던 끝에 5명의 대학생들을 학살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부산시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30명의 시민을 포함한 280여명의 학생들을 잡아가두었다.

괴뢰들은 이런 횡포성, 야수성으로 10월 21일 괴뢰군 락하산부대와 해병대 및 륙군을 마산중심지역에 들이밀어 위협시위를 벌리면서 마산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였다.

민주, 민권을 지향하는 종교인, 지식인, 재야정치세력에 대한 파쑈적탄압도 로골화되였다.

박정희역도는 종교인들이 《정권》에 대하여 비난하는 경우에는 감옥에 걷어넣겠다고 공공연히 위협공갈하면서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들에 생트집을 걸어 압력을 가했으며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사회선교협의회 부위원장과 총무 등 5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9월 22일에는 남조선의 《크리스챤아까데미사회교육원》 인사 7명을 《반공법》에 걸어 7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것을 비롯하여 학계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파쑈도당의 총칼탄압은 야당정객들에 대하여 전례없는 횡포성을 띠고 벌어졌다.

특히 《유신헌법》의 철페와 통일대화를 주장하여 나선 신민당에 대한 괴뢰도당의 파쑈적폭거는 정당사상 류례없는 야당말살행위였다.

박정희파쑈도당은 이미 김영삼이 자기의 정강소신을 밝힌 며칠후인 6월 1일에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신민당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갑호비상작전》이란것을 꾸며냈다.

3단계로 나눈 이《작전》계획에 따라 신민당에 대한 탄압을 계단식으로 추진시켜오던 파쑈도당은 와이에취 로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신민당사를 습격파괴하고 야당인사들을 마구 때려눕혔으며 김영삼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을 잡아가는 극악한 정치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들은 야수같은 만행으로써도 신민당의 주장과 활동을 막을수 없게 되자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신민당총재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악랄한 횡포를 감행하였다.

괴뢰도당은 김영삼이 미국기자와 한 담화내용을 트집잡아 그가 《사대주의자》라느니 《헌정을 모독》했다느니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한편 그를 《국회》에서 내쫓으려고 이른바 《징계동의안》을 꾸며내고 단 한명의 야당의원도 참가하지 않은가운데 날치기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세계정치사에서 박정희역도와 같이 합법적정당인 야당당수를 비법적으로 《국회》에서 쫓아낸 사실은 없으며 이것은 무지한 파쑈폭군인 박정희반역도당만이 저지를수 있는 날강도행위였다.

군사적도발책동

박정희괴뢰도당은 1979년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불리하게 전변되는 주변정세와 미국상전의 버림을 받은 대만괴뢰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자기들의 불길한 앞날을 예견하고 그를 모면할 출로를 대결과 전쟁의 길에서 찾으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새해벽두에 박정희역도가 《총력안보》니 《자주국방》이니 하면서 떠든데 이어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련이어 괴뢰군의 전력강화에 《총력》을 경주하여 《안보태세》와 《초전필승태세》를 확립해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괴뢰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78년보다 28.9%나 더 늘어난 1979년도 《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만도 세출총액의 34.4%를 돌렸다. 이것은 1978년보다 무려 3천 66억원이나 더 많은 액수이다.

괴뢰들은 전쟁예산을 늘이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장비들을 넘겨받아 괴뢰군의 무장장비를 개선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소동을 년중 미친듯이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쌍방이 서로 적대적군사행동을 중지하기로 한 날인 3월 1일부터 미제침략군과 결탁하여 최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팀 스피리트 79)을 벌렸다.

《팀 스피리트 78》에는 11만명의 미군과 괴뢰군, 륙해공군, 해병대무력이 동원되였다면 《팀 스피리트 79》에는 무려 17만 6천명의 미군, 괴뢰군병력과 미국항공모함 《미드웨이》호, 미제7함대의 기타 함선들, 지상대지상《랜스》미싸일부대들까지 투입하였다. 이것은 1977년 구라파지역에서 8만 4천명

의 《나토》무력을 동원하여 벌린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라고 떠드는 《리포저작전》을 너무도 무색하게 만든 정전이래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이였다.

이밖에도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은 《합동련합공중방어및공격훈련》, 《레이덱스—79》합동군사연습, 《대규모한미합동해군기동훈련》, 《에이트 벨스—79》라고 부르는 미합동참모본부의 《지휘소훈련》, 《비—52》전략폭격기에 의한 핵폭탄투하훈련 등 숱한 군사연습을 벌리였다.

박정희역도는 특히 카터가 남조선에 와서 《철군동결》을 선포하고 괴뢰들의 전쟁열을 부추겨준것을 계기로 더욱 무모한 전쟁연습에 날뛰였다.

8월 10일 남조선괴뢰도당은 중서부전선에서 괴뢰국방부장관, 륙군참모장, 각급 부대 지휘관 등 군부우두머리들과 괴뢰군 보병, 전차병, 포병, 공병의 참가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협동작전》훈련을 벌렸다. 놈들은 이 훈련에서 《실전상황》아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취하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면서 소총진지공격, 전차와 《발칸》포의 기동사격, 직승기공중사격, 특공대공격 등 각종 포화의 《일제사격》으로 《고지를 점령》하는 연습을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5월 12～18일까지 서해안의 안면도부근에서 대규모의 해상사격훈련을, 앞서 5월 9일에는 군부우두머리들이 륙군 제2327부대에서 그 무슨 《시범훈련》을, 5월 21일밤부터 22일 새벽사이에는 북으로부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갑자기 서울시내에 각종 군사장비와 차량들을 끌어들이고 박정희역도가 직접 거리에 나와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전쟁광증을 일으키는 등 년중 화약내를 풍기며 돌아쳤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러한 군사연습으로도 부족하여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등에 숱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다 넣고 괴뢰군과의 협동 또는 단독 훈련을 뻔질나게 벌렸다.

대표적으로 괴뢰들은 8월 27～28일새벽까지 이른바 《민방위훈련상반년총화》라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각지에서 일제히 전쟁훈련을 시작하였는데 서울에서는 그 누구의 《공중기습공격》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병력과 군용비행기, 미싸일과 포, 땅크 등으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광신극을 놀았다.

이밖에도 괴뢰들은 1월 11일 남조선강원도 춘천에서 《향토예비군시무식》이라는 관제행사를 벌려놓고 전쟁열을 돋구었으며 1월 15일에는 연세, 경희, 전남 대학교 녀학생 80명을 괴뢰군 《녀군단》에 몰아넣어 군사훈련을 강요하였다.

9월 29일에는 동해안의 한 지역에서 괴뢰륙해공군무력과 괴뢰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의 협동으로 상륙훈련이 벌어졌으며 9월 4일에는 근명녀자상업고등학교의 녀학생 50명이 괴뢰륙군의 한 부대에 끌려가 《유격훈련》을 강요당했고 7월과 8월에는 800여명의 대학생들이 괴뢰군부대에 강제편입되여 공수특전훈련, 함상훈련, 산악훈련, 《유격훈련》을 강요당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력대 매국노들도 감히 해보지못한 조국강토를 동강내는 민족반역행위를 또한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분계선전역에 걸쳐 높이 5메터, 밑너비 10메터에 달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철근콩크리트장벽을 쌓는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죄행을 저질렀다.

우리 인민의 력사에 외세를 반대하여 성벽을 쌓은 사실은 많으나 박정희역도와 같이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을 갈라놓기 위하여 장벽을 쌓는일은 처음 보는것으로서 이 용납못할 민족반역행위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항의규탄을 면치못하였다.

식민지경제의 파국적위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154페지)

대외의존적인 예속경제, 기형적이며 편파적인 식민지가공수출경제로 굴러떨어진 남조선경제는 최근년간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1979년에 《최악의 사태》에 빠져들어갔다.

이해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심각한 석유위기, 수출의 부진,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의 련이은 파산, 걷잡을수 없는 물가폭등과 대외채무의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년초부터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간 남조선경제는 10월에 이르러 《경기예고지표》 0.7을 기록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기예고지표》1.0이하가 공황상태를 반영한다는것을 고려할때 이것은 사실상 남조선의 식민지경제가 공황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외국출판물들까지도 이에 대하여 《한국경제는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있다》고 썼으며 미국, 일본의 지배층과 독점자본들은 《극심한 인플레속에 크게 뒤흔들리는 한국경제》가 괴뢰들의 《정치적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반동적《예산》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산물인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유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밑천을 재정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하여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예산》을 해마다 늘여왔다.

남조선괴뢰도당은 1979년에 전해보다 1조 3천 283억원이나 더 늘어난 4조 5천 338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짜놓고 그것이 마치《국민생활안정》과 《재정안정》을 위한 《긴축예산》인듯이 떠벌렸다.

그러나 괴뢰들자신이 인정한것처럼 이해《예산》은 《긴축예산》이 아니라 그 전해에 비하여 28.9%, 1970년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나 늘어난 《팽창예산》이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총력안보》와 《성장》의 구호밑에 괴뢰군무력과 그 장비를 개선강화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하며 파쑈《유신》체제를 정비보강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더욱 강화할것을 목적한 반동적인 전쟁《예산》이였다.

괴뢰도당은 《예산》세출에서 무엇보다도 직접적군사비인 《방위비》에 34.4%나 배정하였다. 그리고 간접적군사비인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에 《예산》의 44.6%를 돌렸다. 이것은 전례없는것으로서 경제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해보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괴뢰도당은 이로부터 출발하여 이른바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중화학공업지원금으로 400여억원이나 돌렸으며 그중 《북평공업단지》에는 그 전해의 2배에 가까운 203억여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괴뢰도당은 파쑈통치기구유지비인 일반경비도 그 전해보다 27% 더 늘이였다.

그들은 이것으로 괴뢰중앙정보부와 경찰, 사법, 검찰 등 폭압력량을 늘이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이해 괴뢰정부 《예산》세출총액중 70% 이상이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인민들에 대한 파쑈탄압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돌려졌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은 1979년도 《예산》의 세입재원을 전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조세수탈에 의거하도록 편성하였다.

《예산》세입의 94.1%에 해당하는 4조 2천 668억원을 다름아닌 내국세(《전매익금》포함)와 《방위세》 등 조세수탈로 충당할것을 예견하였다. 이 금액은 그 전해보다는 7천 498억원이나 더 많은것이며 1970년에 비하여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방대한 수탈금액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세금을 수탈하기 위하여 《세법》을 개악하였으며 수탈기구를 확장하고 세무관리들을 늘여 1979년에만도 당초의 계획보다 3천 400억원이나 더많은 내국세를 거두어들였으며 그중 부가가치세는 822억원, 소득세는 95억원을 각각 더 짜냈다.

이리하여 1979년도 남조선인민들의 조세부담액은 총 4조 7천 367억원, 한사람당 평균 12만 9천여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자 월평균로임의 3개월분을 훨씬 넘는 엄청난것이였다.

조세부담액 증가정형

년도별	총부담액(억원)	1인당평균(원)	세대당평균(원)
1977	27,873	75,000	375,000
1978	37,036	103,000	516,000
1979	47,367	129,000	520,000
1980(예견)	54,870	160,600	803,000

석유파동과 물가의 폭등

남조선 력대통치배들의 이른바 《유류전환정책》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연료, 동력으로부터 기초원료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석유에 명줄을 걸고있다.

석유의 100%를 외국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는 반면에 연료동력소비구성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서 1978년에 61%에 달하였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80~90%가 석유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예속성은 국제시장의 석유값이 급격히 오르고 남조선에 대한 석유공급이 중단되거나 그 량이 줄어듦으로써 1979년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기업의 무리파산과 실업자의 증대, 수출의 부진과 국제수지의 악화, 물가의 폭등과 인민생활의 령락 등 일대 파산선풍을 일으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년초부터 《물가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떠들어대면서도 1979년에 두차례씩이나 석유류값과 전기료금을 대폭 끌어올려 《물가의 광란시대》를 빚어냈다.

석유류값, 전기료금의 인상으로 1979년에 40여가지의 공업상품값이 48%까지 뛰여올랐다. 특히 7월의 석유값인상때에는 300여가지의 물건값이 단꺼번에 올라갔다.

석유류값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석유관련제품으로부터 식료품, 교통료금, 지어 목욕, 리발값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가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이

경쟁내기로 치달아올랐다.

석유류값과 전기료금의 인상률(%)

기 간	석유(제품)값	전기료금
1979.3.7~9	9.5	12
1979.10	59	35

그리하여 괴뢰도당이 당초에 정해놓은 도매물가 10%, 소비자물가 12% 억제선이 반년도 못되여 무너지고 도매물가는 10.9%로, 소비자물가는 13.2%로 뛰여올랐다. 괴뢰도당은 7월에 도매물가 14%, 소비자물가 16%로 물가억제선을 다시 정했으나 그것 역시 도매물가 20.3%, 소비자물가 14.2%의 인상으로 무너지고말았다.

당황한 괴뢰들이 세번째로 엄청나게 높게 정한 도매물가 24~25%, 소비자물가 21~22% 억제선도 물가폭등의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식민지예속경제의 후과가 낳은 석유류값의 인상만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은 1979년에 앉은 자리에서 7천억원의 추가부담을 걸머지게 되였다.

공업생산의 감퇴와 기업의 파산

1979년에 남조선경제는 심각한 자금난, 연료난, 원료난에 빠져 공업생산이 전례없이 줄어들었으며 중소기업체들은 물론 매판기업인 대기업들까지 무리로 파산당하였다.

전달에 비한 공업생산의 감퇴률(%)

4월	5월	6월	7월
−2.6	−2.1	−4.2	−3.2

보는바와 같이 생산감퇴현상은 다달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목재가공, 제1차금속, 섬유, 식료, 제지 및 팔프 등 모든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이 급격히 줄었다. 원료,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부문들에서는 생산을 하지못하고 무리로 문을 닫아버렸다.

남조선의 10대재벌의 하나인 《률산그룹》과 10개의 기업을 가진 《원진그룹》, 《일신그룹》 등 매판기업들이 빚더미에 눌리워 련이어 파산되였다.

이밖에도 효성그룹의 진일공업이 52억원의 빚을 지고 문을 닫았으며 《유력기업》이라고 하던 화신산업, 건국봉제, 동광피혁, 순홍섬유 등 4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당하였다.

20개의 기업을 가진 《한국생사그룹》과 《대한전선그룹》, 《현대양행》, 고려양행, 협신섬유 등도 숱한 빚을 지고 파산직전에 놓였으며 다른 대기업체들도 같은 형편이였다.

파산당한 매판기업들

월별	기 업 체	부채(억원)
4	률산그룹	1,500
〃	울산기업	1,600
5	원진그룹	400
〃	일신그룹	883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통치의 경제적기초로서 놈들의 비호와 재정금융상특혜를 받고있는 매판기업들이 련이어 무너지는 형편에서 중소기업체들의 몰락은 더욱 심하였다.

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7월말현재 1,697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휴업, 파산당하였으며 8,198개가 조업을 대폭 줄였다.

전반적 기업경영상태도 한심하였다. 괴뢰들이 《한국기계공업의 얼굴》이라고 자랑하던 창원공업단지안의 60개 기계업체들의 평균 가동률만 보아도 9월현재 30%아래였다.

기업의 파산은 실업의 증대를 가져왔다.

《출 혈》 무 역

수출산업은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라고 하는 남조선경제에서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1979년에 남조선의 대외무역은 50억딸라라는 《력사상 최고》의 적자를 냈다. 이것은 1978년에 비하여 2배가 훨씬 넘는 적자액이다.

월별 무역적자의 증가

월별	적자액(100만딸라)
2	— 635
3	— 1,216
4	— 1,642
5	— 2,171
6	— 2,570
7	— 3,271
8	— 3,839
9	— 4,070
12	— 5,000

남조선무역이란 원래 자본과 기술, 원자재 지어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있는 식민지가공무역에 지나지 않는다.

수출산업에서 기술의 100%, 산업설비의 87.9%

기계의 84%가 외국의 것이며 중요원자재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따라서 1979년에도 외국자본에 의한 수출비중이 수출품의 70%를 차지하였다. 《합영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몫까지 합치면 남조선 자체생산에 의한 수출은 사실상 령이였다.

경제위기, 딸라위기를 겪고있는 미일독점자본은 불경기의 부담을 남조선에 들씌워 보상하려고 하면서 무역을 주요한 공간으로 삼았다.

미국자본은 남조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량을 대폭 줄이고 그 값은 크게 올렸으며 일본독점자본은 화학섬유원료를 비롯한 원자재값을 1978년보다 18.5~84%까지 올렸다. 여기에서만도 남조선은 10억딸라의 추가부담을 걸머졌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들고나오면서 1979년에만도 남조선상품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1978년 7월의 3배로 늘였다. 따라서 상품의 수출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1979년 1~3월사이에만 보더라도 남조선의 주요수출상품인 편직물은 —4.6%, 기성복은 —4.6~—15.6%, 기타직물은 —8.6%, 가방류는 —11.9%, 의복류는 —36.5%로 그 수출량이 감소되였다.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상품의 부족파 인플레의 심화로 치뛰는 물가를 누르며 《방위산업》육성을 다그치기 위하여 명목상이나마 있던 외국상품수입제한마저 없애치우고 수입을 대폭 늘였다.

그리하여 수출상품은 원자재값도 못되는 헐값으로 팔리고 수입상품은 비싼값으로 흘러들어 무역적자는 《력사상 최고》에 이르렀다.

남조선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후파를 미친 무역수지의 악화는 1980년에도 더욱 심화되여 55억딸라의 적자선을 넘을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년도별 무역적자의 증대

년도	적 자 액
1977	7억 6,400만딸라
1978	22억 6,130만딸라
1979	50억딸라
1980	55억딸라(예견)

늘어나는 빚더미

오늘 남조선은 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빚을 진 외국의 채무지대로 전락되였다.

1979년말 현재 외국에 진 빚은 모두 206억 100만딸라로서 1978년말의 148억 7천 100만딸라보다 57억 3천만딸라나 더 늘어났다. 그중 3년이상의 대외채무가 151억 1천 700만딸라, 1년이상~3년미만의 채무가 5억 6천 200만딸라, 1년이하의 단기채무가 49억 2천 300만딸라이다.

남조선이 이와 같이 세계 최대의 채무지대로 굴러떨어진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두개 조선》조작책동파 전쟁준비책동, 일신의 향락파 장기집권야망을 추구하면서 매국배족적인 《외자도입》을 극력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남조선괴뢰들자신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차관도입이 시작된 1959년부터 1978년까지 20년동안 외자도입총액이 186억 5천 100만딸라였다. 그중 직접투자를 제외한 차관만도 176억 4천 300만딸라나 된다.

그러나 괴뢰도당이 국제고리대자본인 차관을 끌어들인후 그것을 갚지못한것이 100억 7천 300만딸라나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구 한사람당 300딸라(14만 6천원), 세대당 1,500딸라 (73만원)의 빚을 걸머진것으로 된다.

외자에 대한 원금조차 제대로 물지못하고있는데다 남조선에 대한 외국독점자본의 《차관》리자률은 자본주의금융시장의 평균리자률보다도 6~9%나 더 높아 리자에 의한 빚이 또한 매우 크다. 1979년에만도 차관에 대한 리자부담액이 8천만~1억딸라를 넘었다.

식민지예속경제로서 미국딸라에 목을 매고있는 남조선은 환률변동에 의해서도 엄청난 빚을 지고있다.

국제기준통화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미국의 딸라가치는 최근년간 계통적으로 떨어지고있으나 유독 남조선괴뢰들만은 미국의 딸라를 기준통화로 삼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딸라가치의 폭락은 남조선돈인 《원》의 가치를 동시에 폭락시켰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은 1979년 한해동안에만도 딸라가치의 저락파 엔의 가치상승으로 무려 12억 5천만딸라의 추가부담을 앉은 자리에서 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은 외국독점체들의 유리한 자본투하지로, 《비육장》으로 전락되여 막대한 빚더미에 눌리워있으나 남조선괴뢰도당은 차관을 계속 끌어들여 부정축재하고있으며 채무부담을 인민들에게 들씌우고있다.

농업의 파탄과 식량위기

남조선당국자들의 경제군사화책동파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공업의 파산파 함께 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해마다 방대한 량의 농토가 군수공장, 군용도로의 부지로, 특권층들의 유흥장으로 략탈당하여 1977년까지의 10년동안에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알곡작물의 경지면적만도 55만 5천여정보나 줄었고 농경지의 80~90%가 산성화되였으며 전체

논면적의 70%가 수리불안전답이거나 천수답으로 되였다.

거기에 한심한 관개시설, 영농시설은 가물파 큰물피해, 병해충피해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1979년에만도 8월 한달동안 세차례 거듭된 큰물피해로 10만정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으며 벼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백수현상이 남조선전역에 퍼져 그 피해면적이 7만 1천 716정보, 벼감수예산량이 75만 6천 40섬에 달하였다. 벼도열병에 의한 피해는 1978년에 비하여 71배, 잎마름병은 12배로 늘었다. 또 공해에 의한 논밭피해면적은 1978년에 비하여 2.2배, 농작물피해는 2.4배로 늘었다.

이해의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1980년의 식량부족량은 15%나 더 늘어났으며 584만톤의 량곡을 당장 사들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였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전체 인구가 먹고사는데 적어도 800만톤의 알곡이 있어야 하며 공업용량곡파 기타 소비량곡까지 합하면 안돼도 1,100만톤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거듭되는 흉작으로 최근년간 남조선의 알곡생산량은 평년작인 550만톤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식량자급률 (%)

년 도	자 급 률
1975	76.3
1979	63.2
1980	57.7(예견)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는데 따라 식량수입량은 계속 늘어나 최근 18년동안에 10배나 불어났다.

식량수입량의 증가(만톤)

년 도	수 입 량
1962	48
1971	288.6
1979	510
1980	584(예견)

심각화되는 식량위기를 반영하여 쌀값이 또한 엄청나게 뛰여올라 최근 10년동안에 무려 8배이상 늘어났다.

혹심한 식량위기는 남조선의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들을 낳고있다.

남조선시장들에는 부정농산물이 나돌고 식량협잡행위가 성행하는가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은 식량소비를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반인민적인 기아정책까지 실시하고있다.

한가마니당 쌀값 (원)

년 도	쌀 값
1970	7,000
1973	10,000
1976	20,000
1980	50,000(예견)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썩은 밀가루를 먹이기 위한 《분식의 날》이요, 쌀을 못먹게 하는 《무미날》이요, 《혼분식》이요 하는 따위의 력사가 알지못하는 기아제도가 만들어져 인민들에게 강요되고있으며 이것을 집행하는데 괴뢰경찰까지 동원되는 정치만화가 빚어지고있다.

식량위기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농업에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있으며 해마다 농민들로부터 1천 수백만섬의 량곡을 빼앗아내고 《수매》니 《자금회수》니 하면서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고있다.

그리하여 착취와 굶주림, 빚더미에 눌리워 살길이 막힌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가는수가 늘어나고 있다. 1979년에만도 64만 4천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갔다.

리농민수

년 도	리 농 민
1977	48만여명
1978	78만1,000명
1979	64만4,000명

썩고 병든 사회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습니다.》(《남조선혁명파 조국통일을 위하여》, 209폐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파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정치경제적으로 뿐만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으며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부정부패, 패륜패덕, 사기협잡이 판을 치며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반동교육 남조선괴뢰도당은 1979년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안보교육화》, 《새마을교육화》, 《륜리교육화》하기 위한 일대 개편놀음을 벌렸으며 학생들에게 반공사상을 불어넣어 북과 남사이의 대결의식을 고취하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강화하였다.

괴뢰들은 《웅변대회》, 《토론회》, 《전시회》, 《수학려행》 등 과외활동도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는데로 화살을 돌렸으며 지어 《운동회》까지도 공화국북반부와 대결하는 경기로 전변시켰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청년학생들까지 민족영구분렬의 도구로 삼으며 제놈들의 장기집권음모의 제물로 만들려고 책동하는 한편 학원을 저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수탈장으로 전변시켰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교육의 평준화》요 《학교시설개선》이요 《교원대우》요 하는 간판밑에 학비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최근 10년동안 매해 평균 《수업료》는 25%, 대학《등록금》은 20%씩 올려왔다.

1979년에만도 각급 학교 《공납금》을 1978년에 비하여 15%이상 크게 올렸다. 괴뢰들이 이해 2월에 걷어들인 《공납금》이 무려 2천 487억원에 달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학생들이 부담하는 《잡부금》의 종류는 80가지가 넘는다. 한 학생이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드는 《공납금》이 457만 900여원이며 여기에 《잡부금》까지 합치면 학비가 무려 1천 300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한달에 5만원의 임금을 받는 로동자가 22년동안 벌어야 할 량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가난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학교갈 엄두를 못내고있다.

학교문턱에도 못가본 청소년들이 300만명이나되며 돈이 없어 도중에서 쫓겨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있다. 1978년 한해동안에 3만 3천명의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22만명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교육조건 역시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교실부족으로 서울시내만 하여도 전체 국민학교의 95%가 한교실에서 60명이상씩 공부하며 그의 79%는 80명이상씩에 달하고있다. 이런 콩나물교실도 없어서 광주 동운국민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고속도로 옆 철다리밑에서 비를 맞으며 야외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

교원들의 수가 또한 계속 줄어들어 심한 교원부족을 느끼고있다.

괴뢰당국의 반동교육과 낮은 대우에 불만을 품고 1979년 1～5월사이 《국민학교》에서 6.4%, 고등학교에서 7.2%에 달하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경기도에서는 3월 한달동안에 《국민학교》교원 120여명, 중학교교원 150여명이 사직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공과계통 전문, 대학 교원부족률은 49%, 일반 전문, 대학 교원 부족률은 41%로서 전문, 대학 교원부족률이 평균 45%에 달하고있다.

병마의 소굴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 보건시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 《전염병의 왕국》으로 전변되였다.

놈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오늘 남조선에는 중증결핵환자 124만명이상, 성병환자 160여만명, 정신및신경병환자 400여만명, 문둥병환자 200여만명, 간지스토마환자 830만명, 각종 기생충병환자 2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남조선 전체 로동자의 70%가 직업병에 걸려있으며 남조선 광부들의 84.3%가 규폐증으로 신음하고있다.

서울 청계천주변 피복공장 로동자들을 분석한데 의하면 그의 90%가 호흡기계통의 병을, 75%가 관절염과 근육계통, 69%가 신경계통, 68%가 소화기계통의 병을 앓고있다.

1979년에만도 남조선 전역에서는 콜레라, 일본뇌염, 장티브스, 디프테리아 등 전염병이 크게 번져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라남도 한개 도에서만도 16만 3천 400명의 각종 전염병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남조선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병마의 왕국》으로 전변된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일신의 향락과 장기집권야망, 민족분렬과 파쑈적폭압, 전쟁준비에만 미쳐날뛰면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반인민적책동의 결과이다.

괴뢰정부《예산》에서 보건비는 0.7%밖에 안되며 그것마저 특권층과 그 족속들의 의료봉사에 돌려지고있다. 부산시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시민 1인당 방역예방비는 아스피린 두알값도 못되는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얼마안되는 의료시설들마저 괴뢰특권무리들과 병원모리배들의 돈벌이장소로 되여 의사의 89%, 의료시설의 87%가 서울, 부산 등 5개도시에 집중되여있다.

그리하여 돈없는 가난한 근로대중은 병이 나도 병원에 가볼 엄두를 못내고있으며 약 한알 못써보고 숨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하루 입원비는 5천 500원～2만원, 진찰비는 1천 600원, 검사비는 5천 500원에 달하고있으며 감기치료 한번에 5천원, 보통외과치료 한번에 2만원, 일반내과치료 한번에 1만 5천원이 든다.

1979년 6월에만도 3천여가지의 의약품값이 13～57%까지 뛰여올라 근로대중의 생명을 더욱 크게 위협하였다.

교통지옥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혼란상을 반영하여 남조선에서는 갖가지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세계 53개국의 교통사고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때 발생건수에서 23배, 사망자수에서 31배, 부상자수에서 22배에 달하는 높은 사고발생률을 차지함으로써 남조선은 《교통지옥》으로 불리우고있다.

괴뢰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9년 8월현재 교통사고가 4만 927건인데 그로 하여 3천 902명이 죽고 6만 6천 842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증가정형

년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1일평균 사망자수	부상자수	1일평균 부상자수
1975	58,323	3,800	10.4	61,582	168
1976	70,241	3,860	10.6	65,647	179
1977	78,863	4,097	11.2	77,126	211
1978	94,316	5,114	14.0	91,464	251
1979 (8월)	40,927	3,902	16.0	66,842	259

공 해 남조선당국자들은 외국에서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마구 끌어들여 자연환경을 혹심하게 파괴하는것은 물론 사람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있어 규탄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1965～1975년 10년사이에 대기오염 배출량이 15배로 늘었으며 1980년도에는 30배를 넘을것이라고 한다.

오늘 남조선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일터가 모두 1만 5천 772개나 있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도시들은 물론 농촌에 이르기까지, 한강을 비롯한 모든 강들과 바다, 땅과 대기가 공해로 뒤덮여 사람들은 《공기도, 물도 마실수 없다》고 아우성치고있다.

공해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것은 개인날에도 하늘이 뿌옇고 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거니와 남조선에서 나는 쌀의 수은함유량이 높아져 쌀을 먹기조차 무서운것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쌀의 수은 함유량

최근 2년간 자료

지 역	오염도(피피엠)
경 기 도	0.094
전라남도	0.065
충청남도	0.058
충청북도	0.053
김포지방	0.26～0.31

환경이 다른 130명을 선택하여 머리카락 1그람에 함유되여있는 납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시골사람 6미크로그람
서울사람 7.8미크로그람
운 전 수 11.3미크로그람

이것은 1973년에 비하여 11배에 달하는 량으로 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활동

1979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속에서 총련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 第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에 축전을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장에게 간곡한 교시를 주신것을 비롯하여 총련사업발전을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으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이해 8월부터 단기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동포들이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해에만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네차례에 걸쳐 일본돈으로 19억 7천만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총련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앞에 나선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에 총련은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핵심대렬을 더 잘 꾸림으로써 자기 조직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충성의 대오로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총련은 특히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총련 第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를 계기로 벌린 모범분회창조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제반애국사업목표를 앞당겨 끝냄에 있어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해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며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총련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내외여론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가 선 힘있는 조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며 핵심진지를 믿음직하게 꾸리고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1979년에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왔다.

총련은 무엇보다 먼저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학습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였다.

총련조직들에서는 이해초에 본부단위로 각 기관일군들을 위한 년초학습모임들을 조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이해 신년사와 새해축전교시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들을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였으며 련이어 단위별 혹은 준비정도와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학습모임들을 조직하였다.

총련일군단기강습, 분회일군2일간강습, 상공회일군들의 새해학습, 분회열성자학습 등은 그 구체적 실례들이다.

학습모임들에서는 강의와 토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에 대한 《100번이상읽기와 10번이상옮겨쓰기》, 《문답식학습토론》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시켜나갔다.

아침마다 분회사무소에 모여앉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과 교시를 학습하는것은 총련분회동포들의 생활준칙으로 되였다.

총련은 이해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원칙적인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웠다.

이해 새세대, 젊은 청년들을 총련의 믿음직한 핵심들로 교양육성한것을 비롯하여 핵심대렬을 더욱 잘 꾸린것은 총련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로 된다.

총련은 회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는 핵심들을 많이 키워내는 한편 핵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보다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회원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온 한해동안 꾸준히 진행한 총련 군마현본부에서는 9월현재로 이 부문의 년간사업목표를 240%로 넘쳐하였다.

1979년에 총련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동포들을 애국사업에로 옳게 이끌어주었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총련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생활화하는 한편 아래에 내려가 동포들속에서 그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동포대중을 애국사업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총련 교또부 우쯔지부 우메즈 제2분회 일군들은 5호담당선전원체계에 따라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떳떳이 살며 일하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일군들이 늘 동포들과 함께 살면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동포들의 충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됨으로써 총련조직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이해에 총련은 기층조직을 보다 강화하고 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총련이 지부방조소조운동을 강화하여 지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높인것은 총련조직을 공고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총련은 분회의 위원회, 학습반들을 더잘 꾸리고 분회들을 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만드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에 보내주신 축전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분회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많은 분회들을 모범분회, 2중모범분회로 키워냈다.

총련은 이해에 재일동포들속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있는 새로운 실정에 맞게 젊은 동포들과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허무주의와 사대풍조를 배격하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자랑을 깊이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이 해에도 총련은 동포들을 새로 많이 찾아내고 교양하여 총련조직에 받아들이였다.

총련이 자기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운것은 이해 전반적인 애국과업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가 1979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월 29일 총련의 전체 분회열성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한덕수의장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동포대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분회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제13차분회열성자대회에 즈음하여 총련의 전체 분회열성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분회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모든 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총련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 새로운 환경에 맞게 분회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분회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3년동안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 제13차분회열성자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높이 받들고 더욱 로골화되는 내외반동들의 파괴모략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면서 분회를 강화하고 총련애국과업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은 분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국통일촉진, 분회강화 3개월운동》(1976년 7월 11일～10월 10일), 《총련 제11차전체대회를 맞이하는 5개월운동》(1976년 5월～1976년 9월), 공화국창건 3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70일애국운동》(1978년 7월 1일～9월 9일)등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를 앞두고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분회열성자여러분들은 총련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적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고상한 애국정신과 불굴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의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분회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분회위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실한 열성자들로 보다 튼튼히 꾸려지고 더 많은 동포들을 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만든것이다.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총련의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분회위원 단기강습과 집중학습, 분회학습반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축전문을 비롯하여 매시기 제시된 교시와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대한 학습과 토론들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총련 아이찌현 메이또지부 야스이분회, 총련 오사까부 이꾸노서지부 쯔루하시중1분회, 총련 가나가와현 쥬호꾸지부 쥬오분회 등 많은 분회들에서 분회학습반과 분회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분회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특징적인성과는 나이많은 분회일군들과 30대, 40대의 젊은 일군들이 서로 힘을 합쳐 총련애국과업수행에 떨쳐나서게 된것이다.

분회위원회가 강화되고 그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더 많은 동포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총련은 여러가지 다양한 대중정치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였다.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화국창건 30돐을 성대히 경축》을 비롯한 영화상영사업만 하여도 3년동안에 1만 2천여회 조직하고 여기에 연 94만 3천여명을 참가시켰으며 지방가무단은 1,980여회공연에 57만 8천여명을 망라하였다.

분회열성자들은 또한 64만 5천여명의 내외관중을 대상으로 440여회공연을 진행한 금강산가극단사업을 성공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총련은 각계각층 동포들을 광범히 교양하고 묶어세우기 위하여 젊은 동포들과의 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총련 교또부 우꾜지부 우메즈2분회, 총련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 구리오분회, 총련 홋가이도 삿뽀로지부 북서분회를 비롯한 많은 분회들에서 젊은 동포들의 희망과 요구, 구미에 맞게 소프트뽈, 배구, 노래, 무용 등 각종 소조를 조직하고 운영하였으며 동포야유회,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조직함으로써 이 과정에 그들의 민족적자각을 높여나갔다.

총련분회와 조청, 녀맹, 상공회 등의 단체들에서는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총련대렬을 더욱 다지고 더 많은 각계각층 동포들을 조직에 묶어세웠다.

분회열성자들은 동포들의 참다운 충복답게 그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동포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었다.

특히 분회열성자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한가지이상의 분공을 맡고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3년동안에 분회열성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계층 일본인민들과의 대외사업을 적극 벌린것은 분회사업에서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총련출판물들을 일본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고 분회가 주최가 되여 일본인민들과의 조일친선모임을 가진것 등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한 성과들이 많은 분회들에서 이룩되였다.

일본인민들속에서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위원회가 46개현에 48개 조직되고 계층별로도 수많이 무어졌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지방자치체의회수는 1,318개에 달하였다.

총련 대외사업성과에는 총련 아사히가와지부 왓가나이분회, 총련 사이다마현 세이부지부 히가시마쯔야마분회, 오끼나와의 총련조직을 비롯한 분회 열성자들과 일군들의 꾸준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

3년동안에 분회사업에서 이룩된 이와 같은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과 분회사업을 옳바르게 이끌어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준 결과이다.

총련의 기층조직이며 애국사업의 집행단위인 분회가 강화되고 더 큰 힘을 내게 됨으로써 총련은 위력있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대중적애국조직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총련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회의

총련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회의가 1979년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도꾜에 있는 재일본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8년 10월에 있은 총련중앙위원회 제11기 제2차회의가 있은때로부터 8개월동안의 사업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총련애국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한덕수의장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조국통일사업을 더 잘하며 동포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대화와 합작을 통한 평화통일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4개 항목의 새로운 제안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전진시켰다고 강조하고 조성된 정세발전의 특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보고자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에 더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총련조직

을 강화하고 재일동포들속에서 세대가 교체되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더 많은 동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고하면서 그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였다.

그는 광범한 동포대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련의 지부와 분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분회담당소조체계를 강화하여 분회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의 제반 애국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포들을 능숙하게 교양하여 애국과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정치실무적자질과 령도예술을 가진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많은 중앙위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의 대내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해축전교시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총련 제14차분회열성자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전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젊은 동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총련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대내외사업을 한층 강화하여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대통령 카터의 남조선방문을 반대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이 채택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동포들의 애국열의가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1979년에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지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과 왕래 그리고 제3국려행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더 넓히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총련의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무어진 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고 최고인민회의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 드리기 위하여 재일조선인감사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해 8월부터 재일동포들의 단기조국방문단사업이 시작되여 7차에 걸쳐 많은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할수 있게 된것은 조국왕래사업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발전으로 된다.

총련은 이해에 동포대중의 인권과 생활권, 동포상공인의 기업권을 믿음직하게 지키였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이 총련조직에 대한 파괴모략책동과 동포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군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총련조직의 안전과 합법성을 굳건히 지키였으며 동포들을 보호하였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끼조선인피폭자실태조사사업, 동포들의 세금문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총련이야말로 재일동포들의 리익의 참된 옹호자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해에 동포신용조합은 《조신거래자 70%분회》, 《하루지점장》사업 등 예금액을 늘이는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5천억원의 예금액목표를 9월말에 5천 223억원으로 초과달성하였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총련산하 조선신용조합들에서 벌린《조신예금 5천억원달성 3개월운동》기간에 특히 오사까, 도꾜, 효고, 아이찌, 가나가와, 야마구찌, 오까야마의 조선신용조합을 비롯한 25개조합의 일군들과 조합원들이 예금액목표를 넘쳐수행하는데서 모범을 보이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는 조선대학교 새교사 준공 20돐과 2월 18일에 진행된 재일조선인학교모범교원집단제6차열성자대회를 계기로 후대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육회일군들과 학부형, 동포들은 사이다마와 지바 조선초중급학교의 새 교사 건설사업 등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다지며 운영자금을 보장하는 사업에 높은 헌신적열성을 바쳤다.

이해 4월 13일에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재일조선인 과학자, 기술자, 의료일군들도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하며 총련사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학예술, 체육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금강산가극단은 이해 처음으로 조직된 《현대조선명곡을 듣는 모임》과 《4,000회기념공연》 등에 연 20만명의 내외관중을 망라하였으며 총련지방가무

단들은 분회를 위주로 연 14만 4천여명을 동원하였다.

또한 조국영화를 비롯한 영화상영사업에만도 전해의 1.7배나 되는 연 40만명을 망라시켰다.

총련은 일본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친 공화국의 륙상, 력기, 마라손 선수단의 환영환송사업, 재일조선인축구단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도 많은 각계층 동포들을 참가시켜 공화국공민의 긍지를 안겨주었다.

성인교육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이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모르고 우리 나라의 력사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반드시 조선 말과 글을 알아야 하며 조선력사를 알아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각 지방조직들에 성인학교운영과 관련한 요강과 교재를 내려보내고 성인교육부문일군들의 경험교환회를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동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성인교육사업을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연, 해설담화, 예술선동, 직관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성인교육사업은 동포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진행되였다.

일본 각지에서 성인학교, 청년학교, 《조선문화교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가 840여개나 운영되였으며 여기에 8천여명의 동포들이 망라되여 우리 말과 글을 배웠다.

이것은 1978년에 비해 성인학교수는 170여개, 수강생수는 1천여명이나 더 많은것이다.

1979년에 전해의 1.5배나 되는 많은 동포청년들이 청년학교에, 3배나 되는 동포녀성들이 성인학교에 망라되였다.

상설적인 새형의 성인학교형태인 《조선문화교실》은 전해에 비해 5배나 늘어나 동포들의 성인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인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도 현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각종형태의 성인학교들에 630여개의 《호조반》이 조직되여 동포호상간에 도와주는 미풍이 확립되였고 수준이 어린 수강생들에 대한 강사들의 개별지도가 강화됨으로써 성인교육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말과 글을 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성인교육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긍지감과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총련애국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조선대학교 새 교사 준공 20돐

1956년 4월; 조선대학교 창립

1957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건설비(제2차교육원조비)를 보내주시였다.

1958년 4월; 학제를 4년제로 개편.

1959년 6월; 새교사준공

1963년 5월; 통신학부 신설(사대반, 교대반)

1964년 4월; 종합대학으로 개편(정치경제학부, 문학부, 력사지리학부, 리학부, 사범교육학부의 5개 학부)

1964년 5월; 강당, 도서관 준공

1967년 4월; 공학부 신설

1968년 4월; 대학교 설치인가 받음

〃 ; 문학부에 외국어과 신설

1968년 6월; 제2연구당 준공

1974년 3월; 외국어학부 신설, 대식당 준공

1975년 4월; 기숙사 제8호관 준공

1975년 5월;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음

학부 및 연구원

① 정치경제학부(철학과, 정경과, 경영과)

② 문학부(어문, 문학)

③ 력사지리학부(력사과, 지리과)

④ 리학부(물리•수학과, 생물•화학과)

⑤ 공학부(전자과, 기계과, 금속과)

⑥ 외국어학부(영어과, 프랑스어과, 제2외국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⑦ 사범교육학부(2년제—사범과,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교양원과)

△ 연구원(2년)

부속기관

- 조선어연구소
- 민족교육연구소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

1979년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재일조선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실현 2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귀국실현 2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재일조선인감사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12월 13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에로의 귀국실현 20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12월 12일에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12월 13일에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기념 사진전시회가 도쿄에서 있었다.

전시회장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과 귀국동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또한 귀국실현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귀국선《만경봉》호와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귀국실현의 자랑찬 로정

1958년

8월 11일 총련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지부 나까도메분회에서 귀국실현궐기모임 진행

8월 12일 8.15조국해방 13돐기념중앙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에로의 귀국실현을 희망하고있다는 편지를 드림

9월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경축대회 보고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념원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9월 9일 총련이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중앙경축대회에서 일본정부에 귀국을 보장하라는 요청문 채택

9월 16일 공화국정부는 귀국하는 동포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수 있으며 귀국후 그들의 생활안착과 자녀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보장할 용의를 표명하는 성명 발표

10월 10일 총련중앙위원회 제15차확대회의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한 대책 강구

10월 3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확대회의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대책 토의

1959년

2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여론의 압력밑에 일본정부 재일조선공민들을 귀국시킬데 대한 결정 채택

2월 16일 공화국내각전원회의에서 내각결정 제16호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을 영접할데 대한 결정》 발표

4월 13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과 관련된 실무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량국적십자대표단간의 쌍방회담 제1차회의 제네바에서 시작

8월 13일 인도의 칼커타에서 조일량국적십자대표단사이의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체결

12월 14일 제1차귀국선 니이가다항을 출발

12월 16일 제1차귀국선 청진항에 도착

12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참석밑에 제1차로 귀국한 동포들을 위한 평양시 환영대회 진행

1965년

12월 30일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실현, 재일동포 2명이 조국방문의 길에 오름

1967년

12월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1971년

2월 5일 재일조선공민의 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을 재개할데 대한 공화국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사이에 합의서와 회담요록 조인

5월 14일 귀국재개 제1차귀국선(156차) 니이가다항을 출발

8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국선 《만경봉》호 니이가다항에 도착

1979년

8월 12일 제1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니이가다항을 떠남

8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대형려객선 《삼지연》호 니이가다항에 도착

12월 14일 귀국실현 20돐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

조선산업주식회사대표단
1월 16일~2월 13일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1월 30일~2월 16일

재일조선문학예술일군대표단 2월 13일~4월 17일

총련삼영무역상사대표단
2월 20일~3월 9일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3월 13일~4월 17일

第56차, 第5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3월 13일~4월 7일

총련일군대표단 3월 22일~6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 재일조선인축하단
3월 25일~4월 29일

총련축산 및 생물기술대표단 4월 6일~4월 24일

총련모범분회일군대표단
4월 12일~5월 23일

총련청년일군대표단 4월 12일~7월 1일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재일본조선젊은상공인대표단 4월 21일~5월 11일

재일조선체육관계일군대표단, 재일조선인기자단 4월 23일~6월 9일

총련산하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대표단 5월 8일~6월 1일

第58차, 第59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5월 16일~6월 9일

총련지부일군대표단 5월 29일~7월 15일

총련모범분회일군대표단
5월 29일~7월 1일

재일조선신용조합일군대표단 6월 15일~7월 31일

총련기술대표단 6월 15일~7월 10일

第60차, 第61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6월 15일~7월 1일

총련 미예헌기술일군조국방문단 6월 15일~7월 6일

총련일군대표단 7월 7일~9월 27일

第62차, 第63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7월 7일~7월 31일

第7차재일조선교육일군대표단 7월 22일~9월 27일

총련청년일군대표단 7월 22일~10월 10일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7월 22일~9월 12일

재일조선상공회일군대표단 8월 6일~9월 27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대표단 8월 6일~9월 12일

第64차, 第6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8월 6일~8월 26일

第1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8월 14일~8월 26일

총련효고현상공인대표단
8월 28일~9월 18일

第2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9월 1일~9월 12일

총련금강보험주식회사대표단 9월 1일~9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31돐재일조선인축하단 9월 4일~11월 6일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9월 7일~9월 29일

第3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9월 17일~9월 29일

총련사진기자대표단 9월 17일~11월 17일

총련산하 해양상사주식회사대표단 9월 18일~10월 16일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대표단 9월 21일~10월 15일

총련지부일군대표단 10월 2일~11월 17일

第6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10월 2일~10월 23일

第4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10월 4일~10월 15일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대표단 10월 9일~11월 6일

총련오사까부상공인대표단 10월 12일~11월 2일

총련일군대표단 10월 15일~1980년 1월 6일

第6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10월 15일~10월 31일

第5차재일동포단기조국

방문단	10월 20일～10월 31일
재일조선신용조합일군대표단	10월 29일～12월 6일
총련청년일군대표단	10월 29일～1980년 1월 17일
총련조선레코드사일군대표단	10월 29일～12월 6일
제68차, 제69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10월 29일～11월 18일
제6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11월 5일～11월 17일
제7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11월 23일～12월 6일
제70차, 제71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11월 23일～12월 18일
총련미예현기술일군조국방문단	11월 23일～12월 6일
귀국실현 2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감사단	12월 12일～1980년 1월 29일
총련금강산가극단	12월 25일～1980년 2월 4일
재일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	12월 25일～1980년 3월 17일

평양애국옥당공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재일동포들이 선물로 드린 평양애국옥당공장은 1979년 4월 14일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4월 14일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총련 한덕수의장이 평양애국옥당공장의 준공테프를 끊었다.

자동화된 설비들이 흐름식계렬을 이루고있는 이 공장은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풍작을 이루고있는 강냉이를 원료로 하여 많은 옥당을 생산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당공장을 선물로 마련한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재일동포들이 삼가드린 평양애국옥당공장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 모시고 이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그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이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평양애국옥당공장은 우리 나라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지키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동포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979년에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광범한 각계층 동포들속에 깊이 해설침투함과 동시에 《민단》산하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계속 꾸준히 벌려왔다.

이해초에 총련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성명에 밝혀진 4개항목의 통일방안을 도꾜, 오사까, 아이찌 등 각지에서 각계층 동포들과 《민단》산하동포들,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해설침투하였다.

1월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성명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동모임을 가질것을 《민단》에 제의하였다.

총련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대중적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남조선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이해 8월과 10월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용감히 일떠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긴급모임,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강연회들이 각지 총련 및 조청조직들에서 일제히 벌어졌다.

총련은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군중집회, 강연회, 가두선전, 삐라나누어주기 등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접촉을 파탄시킨 남조선괴뢰들의 배신행위와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더욱 로골화된 《두개 조선》조작놀음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무조건 완전철퇴》 등의 구호를 들고 항의요청행동을 일제히 벌리였다.

12월 2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박정희사살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외세의존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그만둘대신 남조선괴뢰도당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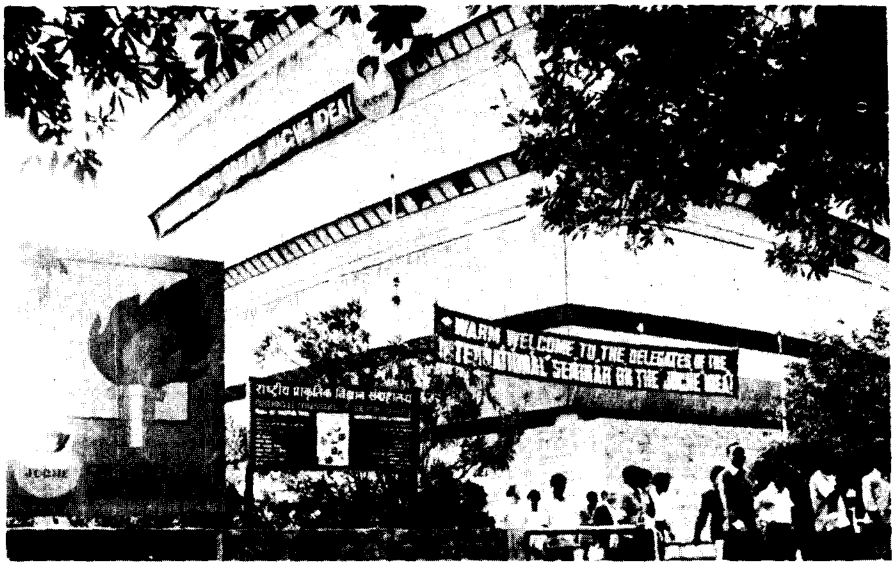
이해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벌린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오사까—도꾜간 대행진은 수많은 동포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를 통일열풍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광범한 일본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해나서도록 불러일으켰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은 련일 30도를 넘는 무더위속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자!》고 하면서 4년전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조국통일촉진대행진을 벌리면서 걸은 그길을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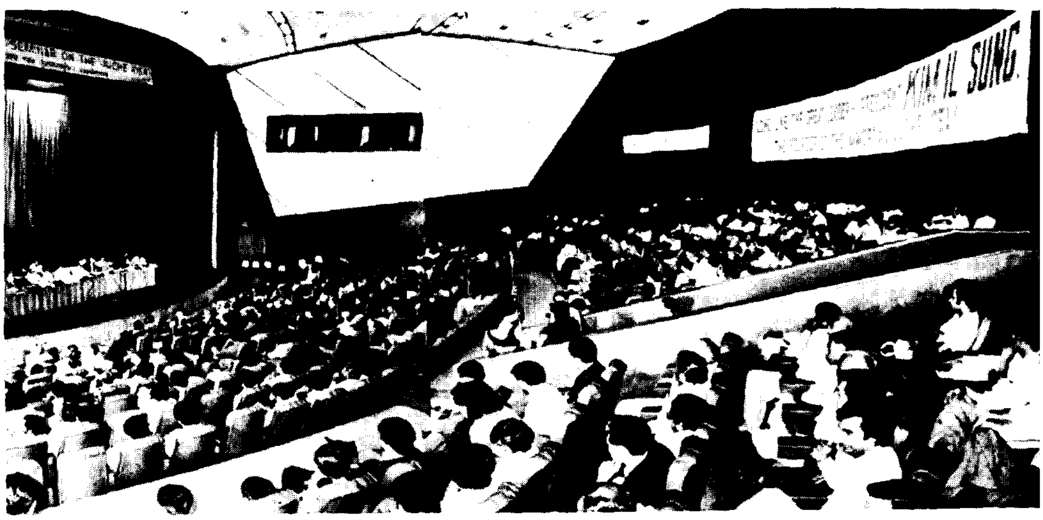
총련은 대외활동도 적극 벌리면서 세계각국 인민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널리 해석선전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과 《은혜로운 태양》1, 2, 3부가 번역출판되여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일본인민들속에서는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위원회가 수많이 무어졌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지방의회수는 1,455개에 달하였다.



↑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 토론회 회의장 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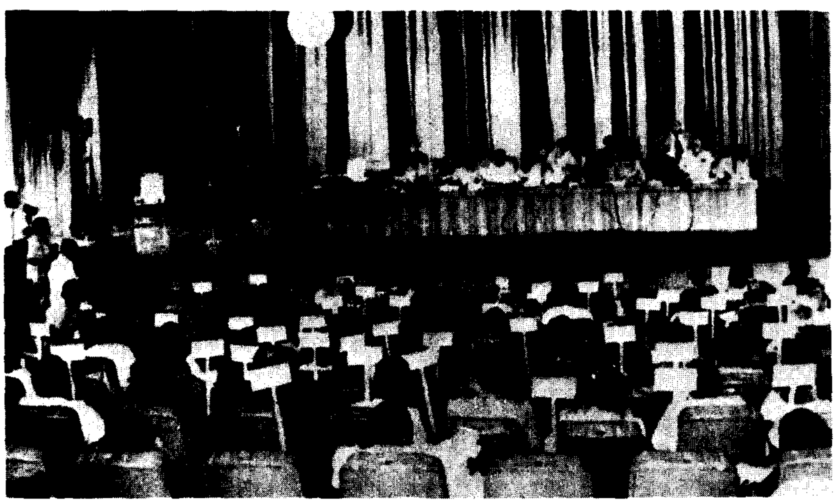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 토론회 회의장 ↑ ↓





↑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다. →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자주시대의 조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71페지)

1979년에 광범한 세계인민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열망이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활동이 더욱 심화되였다.

세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은 모든 인민의 구원자》, 《주체사상은 인민들의 자유와 자주성의 열쇠》, 《주체사상은 인민들의 전진운동을 자주의 궤도에로 이끌어나가는 필승불패의 기치》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고있다.

세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와 정당성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뭇고 그 활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1979년에만도 말가슈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 스웨리예에서 《김일성주석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감비아소조》, 《김일성주의연구뽀르뚜갈소조》, 가이아나에 있는 인민책방일군들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인도라지쁘라 《주체사상연구학회》를 비롯하여 많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또한 이해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이 번역출판되여 광범히 보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단행본으로 또는 부문별, 내용별로 묶은 문헌집으로 출판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당사상사업에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잡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계속 실었으며 통신, 방송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광범히 선전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책들도 광범히 출판보급하였다.

방글라데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책《혁명의 탄생 4월 15일》을, 일본의 《유잔가꾸》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전기《은혜로운 태양》을 출판하였다.

이해에 세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더욱 깊이 파악하고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토론회들을 활발히 벌렸다.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는 뻬루와 스웨리예, 파키스탄, 시에라레온 등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나라별, 지역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1979년 4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세계의 70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5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온두라스의 수도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지역 대학토론회가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교직원주체사상연구 제3차전국집회를 비롯하여 오사까와 깅끼지방들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회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제반 사실들은 날이 갈수록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세계인민들의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1979년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공화국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세계의 70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5개의 대표단과 대표들, 그리고 인도의 전국각지에서 온 과학자, 문화인, 정계, 사회계, 언론계의 인사들,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방청자들 1천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토론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파 통일혁명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말리공화국 공보및체신부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야야비가요꼬가 《주체사상은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멸의 기치》라는 제목으로 기본보고를 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 차장인 오가미 겡이찌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의 보고를 하였다.

기본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본내용, 그의 보편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7명의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체토론자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이 인류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창조적학설이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 많은 대표들이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데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과 유익한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며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개별적연구자들사이의 학술적협력을 강화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체득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보다 체계성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별, 지역별, 대륙별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새로 더 많이 내오고 그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렬을 늘여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주체사상과 그 불패의 위력을 소개선전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할것이다.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 지역 대학토론회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지역 대학토론회가 1979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두라스공화국의 수도 떼구시갈빠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온두라스국립자치종합대학, 빠나마종합대학, 꼬스따 리까 싼 호쎄종합대학, 꼬스따리까국립자치종합대학, 엘 쌀바도르종합대학, 니까라과종합대학, 과떼말라종합대학의 대표단들과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대표가 참가하였다.

토론회에는 또한 온두라스국립자치종합대학의 이름있는 교수, 박사들과 대학생들 20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온두라스국립자치종합대학총장 호르헤 아루뚜로 레이나 아디아께스가 기본보고를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가 보충보고를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온두라스국립자치종합대학철학부장 교수 호쎄 아르만도 싸르멘또 몬또야, 빠나마종합대학 박사 훌리오 쎄싸르 모레노 다비스를 비롯한 많은 대표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창조적학설이며 이 사상은 그의 보편성으로 하여 세계 모든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였으며 조선의 현실에 구현되고 생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된 주체사상은 리론과 실천, 과학과 정책의 종합적인 조화를 이룬 최고봉의 학설이라고 강조하였다.

높은 과학연구기관인 대학들에서 자주성의 시대를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은 자기들의 의무이라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오래동안 뒤떨어지고 예속되여있었으며 민족적자주권이 짓밟혀왔고 자주적발전과 사회적변혁,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모색하고있는 중앙아메리카인민들이 바로 이 주체사상을 리론적무기, 정신적무기로 하여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주체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여 광범히 보급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할 참가자들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제2차단마르크전국주체사상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

여 제2차단마르크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1979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꾀뻰하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위원장이며 조선통일지지단마르크위원회 의장단 성원들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를 비롯하여 친선협회와 지지위원회,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교수, 박사들, 전국 각지의 작가, 교원, 로동자, 사무원, 학생 대표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 나라에 가있는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단마르크의 저명한 작가이며 기자인 박사 엘렌 부룬이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기본보고를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집행위원인 크리스텐 올리크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현대력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위원장이며 조선통일지지단마르크위원회 의장단 성원인 크리스탠 암비가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대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단마르크기자이며 작가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아르네 헤를로브 피터슨이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귀환보고》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고를 하였다.

보고들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면서 그의 본질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빛나게 구현되였는가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반영한 토론회선언서가 채택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 파키스탄토론회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파키스탄토론회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의 주최로 1979년 7월 7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카라치파키스탄대학생《김일성주의 연구소조》,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 파키스탄민주전선, 파키스탄사회주의당 등 15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총서기 아브둘 말리크가 보고하였다.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는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철학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주체사상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과 자기자신의 노력으로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길을 가리켜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 반제반식민주의, 반지배주의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기치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주최로 1979년 11월 23일 일본 고베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전국 47개 도, 도, 부, 현에서 모여온 500여명의 주체사상연구조직성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회장 히가시다니 도시오가 기본보고를 하였으며 간사이가꾸잉대학 교수 사또 아끼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전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또한 집회에서는 호세이대학 교수 요시모도 마사끼가 《주체사상과 인간개조》라는 제목으로 특별보고를 하였으며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나다 다까시가 조선방문보고를 하였다.

이어 집회에서는 리론분과, 통일분과, 실천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여 분과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분과토론회들에서는 《주체사상은 사람의 자주성에 기초한 과학적세계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조선의 통일과 일본의 립장》,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 등 제목으로 된 보고들이 있었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집회에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연구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회조직들을 더욱 확대해나갈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 제3차전국집회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 제3차전국집회》가 1979년 7월 15일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교직원대표들을 중심으로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관련하여—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리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이어 집회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일본의 교육》,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방법과 일본의 교육》, 《일본학교들에서 공부하는 조선공민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교과서를 통하여 조선을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주체사상》 등의 제목으로 된 연구보고들이 있었다.

집회에서는 또한 일본각지에 있는 주체사상연구회들과 조선문제연구회들의 활동보고들이 있은 다음 일본교직원 《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사무국장 오히로 스나오가 자기들의 사업정형과 활동방침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의 전체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교직원들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강화하며 일조 두나라 교직원들과 학생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쓸것을 호소하였다.

제7차오사까주체사상연구집회

제7차오사까주체사상연구집회가 오사까《주체사상연구련락회》의 주최로 1979년 3월 4일 일본 오사까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주석의 1930년대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 대하여》, 《자주성을 옹호하자》 등 제목으로 된 연구보고,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호소문과 미국, 남조선, 일본 당국에 보내는 항의전문이 채택되였다.

제3차깅끼지방주체사상연구집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제3차깅끼지방주체사상연구집회가 오사까《주체사상연구련락회》와 주체사상연구효고현련락협의회의 공동주최로 4월 22일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주석과 인민대중》,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자》라는 제목으로 된 연구보고들과 주체사상연구단체들의 활동보고들이 있었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인도북부지역 토론회

주체사상에 대한 인도북부지역토론회가 1979년 2월 4일 인도 펀잡주 찬디가르의 라지쁘라시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인도북부지역에서 온 대표들과 로으드마스더공장 로동자, 사무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가지고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인도 라지쁘라《주체사상연구학회》를 결성하였다.

국제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가 1979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장 루치오 루자또의 보고《최근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국제련락위원회의 과업에 대하여》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 서기장 장 도리의 보고《1979년도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의 활동총화와 1980년도 과업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선언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1980년도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확대회의와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확대회의와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가 1979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 이딸리아수도 로마에서 진행되였다.

9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일본, 프랑스, 이딸리아, 벨지끄, 꾸바, 말가슈, 미국, 유고슬라비아, 영국, 뽀르뚜갈, 에스빠냐, 룩셈부르그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딸리아국회상원의원들인 조선통일지지이딸리아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파의 문화련락이딸리아협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나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개별적인사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세계대회의 사업총화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적대행동을 그만두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성원할데 대하여》와《국제련락위원회 행동강령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 서기장인 장 도리와 일본대표인 이찌가와 마쯔도의 보고가 있은 다음 국제련락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세계각국의 정부들과 국회,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조선통일지지 각국민족위원회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1979년도 행동계획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에서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민족위원회들의 활동을 강화하며 민족위원회들과 국제련락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발기들에 협력하여 서명운동, 군중집회, 시위를 비롯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련대성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0일에 진행된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에는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 유고슬라비아, 뽀르뚜갈,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스위스, 오지리, 에스빠냐, 단마르크, 꾸바, 일본의 대표들과 그리고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서기장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딸리아국회상하원의원들과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조선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맞게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구라파인민들의 련대성운동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구라파나라 정당, 단체 및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가 일본부인회의, 일본사회당 부인국, 총평 부인부 등 여러 부인단체들과 각계 일본녀성들의 공동발기로 1979년 11월 27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일본의 각계 녀성대표들과 미국, 카나다,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수리아, 인도, 니까라과, 필리핀, 스웨리예, 이딸리아, 메히꼬 등 11개나라 대표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집회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와 《통일혁명당재일한국인련대위원회》 대표가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대표, 오스트랄리아대표, 인도대표들로 의장단이 구성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사회당소속 참의원의원 다나까스미꼬가 기본보고를 하였다.

집회에서는 외국대표들의 토론이 있은 다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을 대표하여 박정현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또한 《한국녀성들의 인권을 지키는 회》를 대표하여 권말자가 《한국에서의 민주화투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본사회당소속중의원의원 도이다까꼬가 《일한유착과 김대중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본평론가 가와다 야스요가 《재일조선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별보고를 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의 이름으로 남북조선부인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전세계녀성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979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24개 나라와 6개 국제기구들에서 온 저명한 법률가, 력사가,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 위원회 서기장 로베르 샤르뱅의 보고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분렬의 부당성에 대하여》, 오지리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하인리히 듀르마이에르의 보고 《남조선경제분야에서의 인권유린행위와 사회의 민주화실현에 대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장 루치오 루자또의 보고 《나라의 통일은 조선인민의 합법적권리이다》가 토의되였다.

토론회에서는 26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조선분렬의 부당성과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의 비법성, 남조선의 경제형편과 그것이 인민들에게 미치는 후과,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에 대한 념원과 남조선에서의 그에 대한 탄압이 법적측면에서 분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최종결의와 《남조선의 사회경제문제에 관한 백서》가 채택되였다.

최종결의는 조선통일의 력사적근원, 분렬과 미군의 남조선주둔의 비법성, 남조선의 경제적식민지화, 남조선《정권》의 인권유린행위, 통일문제, 남조선정세 등을 분석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미국, 일본, 남조선이 침략정책을 걷어치우고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1979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비롯하여 95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 대표단들과 그리고 12개 나라 옵써버 및 8개 나라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벨리제가 특별 직위를 가진 나라로서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해방운동 및 진보적인 운동 대표단들과 국제기구대표들도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꾸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수뇌자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온 외국기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 피델 까스뜨로가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총리가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부의장으로 선거되였으며 그밖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9개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부의장들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국제정치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문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문제, 캄보쟈의 대표권문제, 애급의 성원국자격정지문제와 중근동문제, 팔레스티나문제, 서부사하라문제, 남아프리카문제를 비롯한 지역문제들, 새 성원국가입문제, 조정위원회구성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인 스리랑카대통령이 쁠럭불가담운동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최종선언과 경제협조를 위한 행동강령을 비롯한 일련의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선언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한 방침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확고한 립장을 표시하였다.

회의는 파키스탄, 니까라과, 그레네이더, 이란,

수리남, 짐바브웨애국전선, 볼리비아를 쁠럭불가담운동 새 성원국으로, 도미니카, 필리핀, 꼬스따리까, 쎄인트 루씨아를 옵써버로 받아들였다.

수뇌자회의는 조정위원회 성원국수를 25개 나라로부터 36개 나라로 늘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 나라로 새로운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제7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1982년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소집하기로 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가 1979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 외교부장들과 그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외교부장 이씨도로 말미에르까가 새 의장으로 선출되였다.

회의에서는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주최국인 꾸바를 수뇌자회의 의장국으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구라파의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을 대표하는 20개의 나라를 부의장국들로 선거하고 이를 수뇌자회의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파키스탄, 니까라과, 그레네이더, 이란, 수리남, 짐바브웨애국전선, 볼리비아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필리핀, 쎄인트 루씨아, 도미니카, 꼬스따리까를 옵써버로 받아들이고 8개 나라를 손님으로 참가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성원국을 25개로부터 35개로 늘이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문제,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문제,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한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 등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정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 및 확정하고 이를 수뇌자회의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 조정위원회 비상회의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비상회의가 1979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잠비끄의 수도 마뿌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민족해방운동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온 70여개 대표단 및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아프리카정세 특히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이 지역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자결권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짐바브웨애국전선을 기구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권고를 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최종문건이 채택되였다.

최종문건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고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문건은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책과 원칙들을 고수하는것은 국가들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지키며 식민주의적억압과 인종주의적지배하에 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데서 튼튼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교부장회의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교부장회의가 1979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의 수도 꼴롬보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성원국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비롯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해방운동단체들,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서 온 대표단들과 대표들, 옵써버들과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정책과 대국들의 경쟁 및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국제관계에서 자주적요소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 및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문제, 《중근동정세》, 《동남아세아정세》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는 부장전원회의와 정치분과회의, 경제분과회의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그레네이더, 볼리비아, 이란, 파키스탄, 수리남의 가입신청을 지지하고 그를 수뇌자회의에 제기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1982년에 진행될 제7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이라크에서 하며 1981년 외교부장회

의는 인도에서 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토의하고 공동콤뮤니케를 채택하였다.

콤뮤니케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원칙과 목적들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 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콤뮤니케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을 외곡하고 파괴하며 유린하려는 모든 기도들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쁠럭불가담성원국들에 호소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콤뮤니케는 또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빨리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 기구회의

쁠럭불가담나라기자조직들의 제1차회의
1월 21～24일까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연구 및 통보체계 창설회의
1월 23～25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쁠럭불가담나라방송기관들의 협조위원회 전문가그루빠회의
2월 4～7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 조정위원회 제3차회의
3월 7～9일까지,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

쁠럭불가담나라정부간 보도조정위원회 제3차회의
또고의 수도 로메

쁠럭불가담나라원거리통신조정위원회 회의
5월 7～10일까지,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

발전에서 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제1차녀성대회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협조위원회 제4차회의
6월 2～6일까지, 알제리의 수도 알제

제1차쁠럭불가담나라 텔레비죤축전
10월 5～12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헤르쩨그노비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 조정위원회 회의
11월 19～20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 및 쁠럭불가담나라정부대표들의 제2차회의
11월 22～24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쁠럭불가담나라방송기관들의 협조위원회 제5차회의
12월 11～14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유엔총회 제34차회의

유엔총회 제34차회의가 1979년 9월 18일부터 1980년 1월 7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150여개 유엔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중근동문제, 남부아프리카문제, 캄보쟈문제를 비롯하여 129개의 의제들이 토의되였다.

9월 24일부터 진행된 일반토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가 하루 빨리 리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들이 당장 무조건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총회 제34차회의에서는 점령된 아랍령토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유린행위들과 관련한 결의,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에 관한 결의, 캄보쟈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즉시 철수와 캄보쟈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끼쁘로스에 있는 토이기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칠레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결의 등 280여개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유엔총회 제34차회의는 쎈트 루씨아를 새 성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유엔성원국은 152개국으로 되였다.

총회는 새 의장으로 유엔 탄자니아대표 살림 아호메드 살림을 선거하였다.

유엔총회 본회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뛰니지, 니제르, 필리핀을 2년임기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으로 선거하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회의가 1979년 5월 7일

부터 6월 3일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세계의 159개 나라와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온 5,0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들사이의 통상경제관계령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 착취를 제거하며 평등과 공정, 호혜적인 협조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1차산품과 공업제품 및 통화금융문제, 발전도상나라들과 선진국들의 호상의존문제, 투쟁단체들에 원조를 줄데 대한 문제 등 12건의 의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28건의 결의와 2건의 결정이 채택되였다.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들과 전선국가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들과 전선국가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1979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세계의 60개나라들에서 온 300여명의 대표들과 해방운동지도자들, 민족단체, 정치 및 사회단체,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인종주의와 인종격리,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진정한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부아프리카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회의선언과 행동강령,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의 합법성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 전선국가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회사들의 치욕스러운 활동에 관한 결의, 제국주의렬강과 인종주의정권과의 군사적협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행동강령은 남부아프리카에 인종주의정권들이 존재하는것은 전선국가들과 전반적아프리카대륙의 자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부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행동강령은 인종주의정권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프리카대륙 남부의 해방운동들에 대한 전면적인 원조를 주기 위한 전세계적인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아프리카통일기구 제6차수뇌자회의

아프리카통일기구 제6차수뇌자회의가 1979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리베리아수도 몬로비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5개나라 국가수반들과 3개나라 부대통령들, 5개나라 총리들과 외교부장들을 비롯한 49개 성원국가운데서 48개국(챠드는 참가하지 않음) 대표단들, 남부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조직 대표들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 3명의 국제기구들의 사무총장들(유엔, 유네스코, 아랍련맹), 구라파경제공동체대표 등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물러나는 이 기구 의장인 수단대통령이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성과와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한 투쟁총전략을 작성할데 대한 문제,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 협조와 경제발전에 관한 공동전략을 작성할데 대한 문제, 서부사하라문제와 수단과 에티오피아사이의 관계조정에 관한 보고, 《범아프리카합동군》창설문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 10개의정들과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준렬히 규탄배격하고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총전략을 작성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짐바브웨에 관한 결의, 남부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들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데 관한 결의,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프리카나라들을 위한 특별기금을 창설할데 관한 결의, 아프리카피난민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아랍협조를 촉진시킬데 관한 결의, 아프리카합동군창설에 관한 결의, 인권에 관한 결의, 서부사하라문제에 관한 결의 등이 채택되였다.

짐바브웨에 관한 결의는 짐바브웨애국전선이 짐바브웨인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진정한 대표라는것을 재천명하고 이 전선이 진행하고있는 합법적인 무장투쟁을 강화하며 짐바브웨인민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아프리카에서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아프리카통일기구 제33차부장리사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제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사회경제발전에서 민족적 및 집단적자력갱생을 실현할 방침과 조치에 관한 몬로비아전략》의 문건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범아프리카무역을 적극화하며 공업과 농업분야에서의 협조를 맡아볼 기관들을 창설하기로 하였으며 세네갈수도 다까르에 본부를 두는 전아프리카통신사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

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 의장으로 리베리아대통령 톨버트가 새로 선거되였으며 부의장들로는 부룬디, 케니아, 말가슈, 나이제리아, 세네갈, 세이쉘, 시에라레온, 뜌니지가 선거되였다.

다음번 수뇌자회의는 1980년에 시에라레온수도 프리타운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비상회의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비상회의가 1979년 11월 27일 까히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부서기장들, 이 기구 각국 대표들과 투쟁단체 대표들 전원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부서기장의 발언이 있은후 최근 남조선정세를 청취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이 의연 독재자 박정희놈이 걸었던 길로 나가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남조선괴뢰도당은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며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체포구금한 모든 인사들과 학생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당하게 제기한대로 파쑈와 분렬의 길로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남조선정세와 조선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에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권리를 회복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운동을 벌릴것을 모든 민족위원회와 기타 산하 민족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아 세 아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넓이 959만 6,961km²
인구 9억 7,092만명(1979년말, 대만인구제외)
수도 베이징(주민 약 80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부와 중앙부의 넓은 대륙파 대만섬, 해남섬을 비롯한 약 3천 400개의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전령토의 5분의 3이 산지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아열대, 온대, 한대, 건조지대로 구분된다. 1월평균기온이 동남부의 광주에서는 13.1°C, 동북부의 심양에서는 −13°C이다. 강수량도 지역파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다민족국가로서 한족이 전인구의 94%를 차지한다. 그밖에 60여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중어이다.

정 치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헌법을 수정하고 법을 제정하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와 국무원성원들을 임명 및 소환하며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 및 결산을 비준한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5기로서 1978년 3월에 선거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은 상무위원회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엽검영(1978년 3월—)

국무원 최고집행기관, 총리 화국봉(1976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창건, 주석 화국봉(1977년 8월—), **인민정치협상회의, 국민당혁명위원회,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중국인민은 모택동동지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반동통치를 뒤집어 엎고 중국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중국인민은 3년간의 복구기를 거쳐 제1차5개년(1953—1957)계획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토대를 닦았다.

1966년 8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69년 4월 제9차당대회에서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의 경험을 총화하고 당규약을 채택하였다.

1973년 8월 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림표반당집단을 분쇄한 투쟁경험을 총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의 방향파 파업을 밝혔다.

1976년에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9월)와 주은래총리(1월)가 서거하였으며 왕홍문, 장춘교, 강청, 요문원 《4인무리》반당도당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당파 국가의 최고권력을 탈취하려고 책동하였다.

1976년 10월 중국인민은 《4인무리》의 당 및 국가권력탈취음모를 짓부심으로써 당의 제11차로선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공산당 제11차대회(1977년 8월)에서는 《4인무리》와의 투쟁경험을 총화하고 《4개현대화》를 실현하여 현세기안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파업을 제시하였다.

1978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인민경제발전10개년(1976—1985)계획요강, 국가가 채택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1978년 12월)에서는 당사업의 중심을 1979년부터 사회주의현대화실현에로 옮길것을 결정하였다.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가 1979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인민경제의 조정, 개혁, 정돈, 제고의 방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부사업보고, 1979년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보고, 1978년국가예산결산파 1979년국가예산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한 결의들을 채택하

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의 규정에 관한 결의와 7개의 중요한 법을 채택하였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30돐경축대회에서 하게 될 연설과 농업을 다그치기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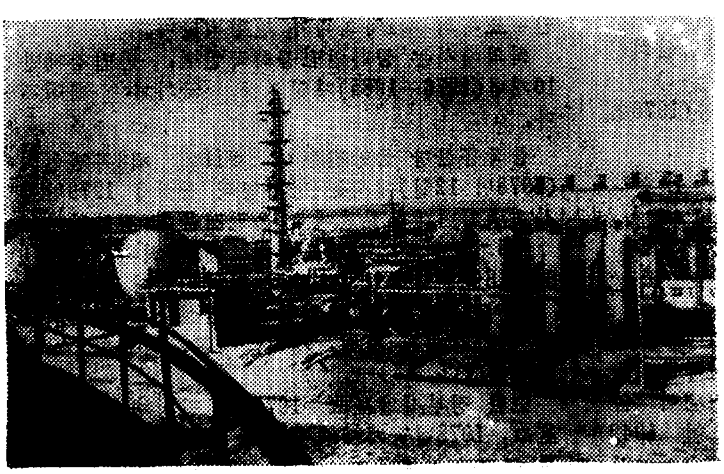
전원회의는 당의 현시기의 과업은 중국 전국의 각민족인민들을 단결시키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들을 동원하여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30돐경축대회에서는 건국후 30년동안의 전투적로정을 전면적으로 회고하면서 림표, 《4인무리》 반혁명도당이 조작하고 실시한 극좌로선을 심각히 폭로비판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화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979년에 과학기술보급창작협회(8월), 대양항해력사연구소(10월)가 창설되였다.

1979년 1월에 중국은 벌가리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뽈스까와 1979년도 상품교환 및 지불에 관한 협정, 꾸바와 1979년도 무역의정서(1월), 유고슬라비아와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3월), 말리와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5월), 로므니아와 경제및기술협조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5월), 뜌니지와 문화협조협정(6월) 등을 맺었다.

1979년에 화국봉총리가 프랑스(10월), 독일련방공화국(10월), 영국(10월 28~11월 3일), 이딸리아(11월)를 방문하였다. 이해 부룬디대통령(3월), 말레이시아총리(5월), 버마총리(7월), 스리랑카총리(8월)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중국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현대화》를 실현하여 현세기내에 나라를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로선에 따라 1978년 3월에 4개현대화실현의 한 고리로서 인민경제발전 10개년(1976—1985)계획요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결정을 받들고 1979년부터 3년동안에 인민경제의 조정, 개혁, 정돈, 제고를 잘하여 인민경제를 점차적으로 항구적이며 균형적인 고속도발전의 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석탄공업이다.

주요석탄산지는 동북지구의 무순, 푸신, 허강, 지시 탄전들과 화북지구의 개란, 다둥 탄전들, 화동지구의 화이난탄전이다. 1980년초까지 찾아낸 석탄매장량은 6천여억톤이다. 하루생산량이 1만톤이나 되는 탄광만도 30개이상 된다.

1979년에 석탄생산량은 6억 3천 500만톤이였다.

원유매장량은 약 800억바렐(내륙부와 해저에 각각 400억바렐)로 추정되고있다. 1979년에 원유생산량은 1억 615만톤, 천연가스생산량은 145억 1천만 립방메터였다.

중국인민은 10여개의 《대경식유전》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야금공업도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중국은 1985년까지 6천만톤의 강철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술과 공장설비들을 끌어들여 대대적인 기술개건을 진행하고있다.

1979년에 강철 3천 448만톤, 선철 3천 673만톤, 강재 2천 497만톤을 생산하였다.

1980년초까지 찾아낸 철광매장량은 440억톤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분사식비행기와 대형증기타빈, 공작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기관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1979년에 공작기계 14만대, 자동차 18만 6천대, 뜨락또르 12만 6천대, 광산설비 26만 4천톤을 생산하였다.

화학공업분야에서는 기초화학, 유기합성공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에 화학비료 1천 65만 4천톤, 화학농약 53만 7천톤, 화학약품 4만 1천 700톤을 생산하였다.

경공업은 비교적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가운데서 면방직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면방직공업중심지는 상해와 그 주변 도시들이다. 1979년에 면직물 121억 5천만메터, 견직물 6억 6천 345만메터, 화학섬유 32만 6천톤을 생산하였다.

1979년에 118개의 대규모 및 중규모대상과 292개의 특수대상을 건설하였다.

또한 이해에 전력은 2천 819억 5천만키로와트시, 세멘트는 7천 390만톤, 고무는 9만 7천 400톤 생산되였다.

1979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8.5% 늘어났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며 공예작물생산, 축산업도 적지않은 몫을 차지한다. 농업인구는 7억이며 부침땅은 약 1억헥타르(전국의 10%)에 달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콩, 수수, 조, 목화, 밀, 차, 담배, 고구마,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9년에 알곡 3억 3천 211만 5천톤, 목화 220만 7천톤, 기름원료 643만 5천톤, 사탕수수 2천 150만 8천톤, 사탕무우 310만 6천톤, 누에고치 27만 1천톤 생산되였다.

주요집짐승은 돼지, 소, 양 등이다. 1979년에 돼지 3억 1천 970만 5천마리, 소 7천 134만 6천마리, 양 1억 8천 314만 2천마리가 있었으며 고기생산량은 1천 62만 4천톤이였다.

1979년에 농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8.6% 늘어났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그외 해상운수와 하천운수도 있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건설된 철도총연장길이는 5만여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광물류, 농축산물, 수산물, 섬유제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들이며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 철강제품, 유색금속, 화학비료, 섬유원료, 밀, 천연고무 등이다.

1978년에 대학생수는 85만명, 중등 및 전문학교 학생수는 88만명이였다. 1979년 9월에 3천 100여개의 예술단체와 2천 700여개의 문화회관, 1천 250여개의 대중도서관, 11개의 체육학원이 있었다.

1978년 병원침대수는 185만개, 전문보건기술일군수는 246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인민해방군기관지), 베이징일보

잡지 홍기(공산당기관잡지)

방송 중앙인민방송, 베이징방송, 베이징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1월 조중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12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1년 7월 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71년 9월 중국이 우리 나라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58년 9월 30일에 중국조선우호협회가 창설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5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1978년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며 국무원 총리인 화국봉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등영초동지와 같이 1979년 5월 31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시였다.

1979년 1월 26일 조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31차회의 결정서, 2월 6일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8차회의 합의서, 10월 22일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9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9년에 정부문화대표단, 녀성일군대표단, 《인민일보》대표단, 교육대표단, 공산주의청년단대표단, 농업대표단, 신화통신사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조선로동당친선참관단, 《로동신문》대표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녀맹대표단,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홍 콩(샹강)

넓이 1,034km²

인구 600만명(1979년 6월)

행정중심지 홍콩(주민 120만명)

자연 및 주민

중국령토인 홍콩은 광주시에서 동남쪽으로 140km떨어진곳에 있는 홍콩섬(82km²)과 구룡반도(7km²), 그 부근에 널려있는 23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홍콩섬에는 천연적인 좋은 항들이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하나 철바람의 영향으로 변화가 많다. 한해평균기온은 22°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은 98%이상이 중국인이며 그밖에 영국,

인도, 미국, 일본 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중어이며 보통 광동어를 많이 쓴다.

정 치

1839—1842년사이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아편전쟁》을 통하여 홍콩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 29일 당시 만청정부에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강요하여 홍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860년 10월에는 침략적인 《베이징조약》을 강요하여 구룡반도의 남부지역을 떼내였으며 1898년에 홍콩일대의 섬(신개지)들을 99년간의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빼앗아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홍콩을 3년 8개월동안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었으며 일제가 패망한후 영제국주의자들이 홍콩에 다시 기여들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홍콩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략탈과 침략을 감행하여왔으며 극동의 무역을 위한 해상운수를 유지하는데 근거지로 삼아왔다.

1979년 6월현재 2천 500명의 영국군대가 주둔하고있다.

홍콩섬의 항들은 미제7함대의 기항지로서 항공모함들이 드나들고있다.

영국은 홍콩에 《총독》(머레이 맥클리호스)을 두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영국과 미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으며 외래독점체들의 3대은행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서 경제에서 홍콩의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과 수입한 원료를 다시 가공하여 파는 중계가공무역이 큰 몫을 차지한다.

홍콩에서는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각종 옷류, 의약품, 기름작물, 사탕가루와 그 가공제품, 남새, 과일, 커피, 홍차, 향료, 기계류, 물감, 손목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며 이것은 무역총액의 20~30%를 차지한다.

방적, 직물, 시계, 놀이감 등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90%, 수출의 76%를 차지한다. 제품의 원자재는 모두 수입한다. 로동력의 69%는 이 부문에 종사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8.5%가 일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3%정도이다.

알곡은 대부분 수입하며 생산되는 알곡으로는 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해에 약 150만명의 관광객이 출입하며 여기에서 얻는 수입도 주요재정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홍콩은 영국의 《파운드지대》에 속하지만 무역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홍콩딸라를 쓴다. (1딸라=4.7홍콩딸라—1977년 10월)

수산물을 제외하고 모든것을 수입에 의존하며 지어 물까지 수입한다.

식료품수입의 50%는 중국에서 한다.

홍콩은 동남아세아의 금융중심으로 되고있으며 세계 각지를 련결하는 해공로의 중계지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수십만명이 빈민굴에서 산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성도만보, 홍콩상보, 홍콩스탠다드, 스타, 챠이나 메일

방송 홍콩방송, 홍콩상업방송, 홍콩텔레비죤방송

마카오(아오먼)

넓이 16km²

인구 32만명

행정중심지 마카오

자연 및 주민

마카오는 중국의 남해안, 홍콩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되는곳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따뜻한 편이며 겨울에도 몹시 메마르다. 한해강수량은 매우 적다.

주민의 98%가 중국인이다.

공용어는 중어이다.

정 치

1516년부터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557년에 중국의 해적토벌에 《원조》를 주었다는 구실로 거주권을 얻어내고 이곳을 《조차지》로 만들었다. 1887년 12월에 놈들은 《조차료》지불조차 거부하면서 당시 청국정부에 강요하여 뽀르뚜갈—청국조약을 맺고 마카오를 강점하였다.

1951년에 마카오는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되였다.

뽀르뚜갈은 마카오에 《총독》(멜로 에지디오와)을 두고있다.

1979년 2월 8일 뽀르뚜갈총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발표하면서 마카오의 지위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천생산과 어업을 한다. 한해에 500간딸라에 이르는 물고기를 잡아 가공품으로 판다.

기타 애자, 금세공품 등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 있다.

마카오는 국제도박장을 통한 세금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재정(세입의 60%)을 유지하고있다.

무역은 외국선박이 들어갈수 있는 부두가 없기때문에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주로 한다.

주요수출품은 의복류와 금세공을 비롯한 각종 수공업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섬유원재료, 식량, 과일 등이다.

화폐단위는 빠다가(1딸라=5.085빠다가)이다.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넓이 156만 5,000km²
인구 164만 1,000명(1979년)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35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중동부 쏘련과 중국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대륙성기후로서 춥고 메마르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다. 비와 눈은 적게 내린다.

주민의 90%이상이 몽골인이며 그밖에 까자흐인, 중국인, 로씨야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몽골어이다.

정 치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 현 대인민후랄은 제9기로서 1977년 6월에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유. 쩨덴발(1974년 6월—)

정부 총리 즈. 바뜨멍호(1974년 6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 인민당으로 창건, 1924년 8월 제3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침, 제1비서 유.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때려부시고 1921년 7월 11일 인민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몽골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66년 6월 당제1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몽골인민은 1976년 6월 당 제17차대회에서 제시한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4월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경험을 연구하여 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9일 전원회의에서는 1980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국가계획초안에 관한 보고와 1980년도 국가예산초안 및 1978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9년에 말가슈(5월), 말따(8월),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10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6월에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80～85%, 국민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집짐승마리수의 70%차지), 염소, 말, 락타 등이다. 인구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정부는 집짐승마리수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1968—1978년기간에 4만 5천여채의 집짐승우리를 건설하였다.

1979년에 860만마리의 새끼집짐승을 받아 길러냈다.

밀, 보리, 귀밀 등을 심고있으나 알곡생산은 적다.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한해평균 50～53만톤의 알곡생산을 계획하였다.

1978년에 9만 헥타르의 땅을 개간하였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27.5%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위주로 한 식료공업, 가죽공업, 모방직공업, 채굴공업, 목재가공공업이다. 울란 바따르, 다르한, 쵸이발싼, 쑤헤바따르 등에 공업이 집중되여 있다. 1979년말 공업총생산량의 약 60%는 수도의 공업기업소들이 담당하고있다.

1979년 1월 수도에 6천톤 능력의 새로운 털세척공장이 조업하였으며 11월에는 우유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방적공장, 편직물공장, 주단공장, 가죽가공공장, 신발공장 등 8개의 큰 경공업공장들을 1981년까지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시키고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중석 등이다.

최근년간에 160여개소에서 석탄매장지를 찾아냈으며 1979년에 420간톤의 석탄생산을 계획하

였다.

무역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기본이며 쏘련과의 무역이 8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양털, 고기이며 그밖에 모직물, 모포, 형석, 중석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강재, 공업설비, 건재, 농기계, 수송기재, 천, 의약품, 원유제품, 화학제품, 옷류, 식료품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

신문 우넨(당및정부기관지), 허덜머르(직업동맹기관지), 잘로초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울란 오드(인민군기관지)

잡지 나뢴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방송 울란 바따르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9년 6월 7일에는 령사협약을 맺었다.

1956년 5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같은해 11월 경제및문화협정을 맺었다.

1960년 8월 12일 몽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6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하시였다.

1956년 10월 유. 쩨덴발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울란 바따르 고기가공공장, 몽골조선친선《허덜머르》농업협동조합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 6월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사회주의공화국)

넓이 33만 2,559km²

인구 5,000만명(1977년)

수도 하노이(주민 15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에 길게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사철 더우며 장마철과 가물철로 나뉜다. 한해평균기온(하노이)은 23.6 °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700mm이다.

주민은 웰남족(경족)이 약 90%이며 그밖에 6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웰남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수 492명, 현 인민회의는 제6기로서 1976년 4월에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인민회의에서 선거, 주석 손덕승(1976년 7월—, 1980년 3월 30일 서거)

정부 1976년 7월 3일 구성, 총리 범문동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 1951년 2월 제2차 전국대표자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침, 1976년 12월 제4차당대회에서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려 순, **조국전선, 직업총련맹, 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웰남인민은 웰남공산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1945년 9월 2일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창건후 웰남인민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항전을 벌려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1954년 7월에 웰남은 웰남인민의 독립, 자주권, 통일,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제네바협정에는 1956년 7월 전국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웰남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1956년 6월 남부웰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살륙전쟁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1964년 8월 5일에는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여 침략전쟁의 불길을 웰남민주공화국에 까지 확대하였다.

1975년 4월 30일 웰남인민은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에서 완전승리를 이룩하였다.

1976년 4월 25일 남북총선거를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웰남은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76년 12월 웰남공산당 제4차대회에서는 제2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승인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초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1979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인민회

의 제6차회의에서는 1980년도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결의, 1978년국가예산집행에 관한 결의, 인민회의 임기연장에 관한 결의 등을 채택하였다.

1978년에 웰남은 쎄브의 정식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79년에 로므니아와 항공운수협정(6월), 뽈스까와 령사협정(9월), 벌가리아와 우호협조조약(10월), 웽그리아와 령사협정(10월), 몽골과 친선협조조약(12월), 스위스와 항공운수협정(12월) 등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농업생산이 많은 몫(50%)을 차지한다.

주민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525만헥타르이며 그중 489만헥타르가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등이며 그밖에 천연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카싸바, 커피 등 열대작물이다. 벼의 주요산지는 홍하하류벌이다.

1978년에 벼 988만톤, 고구마 170만톤 생산되였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그중 3분의 2가 북부지역에 있다. 찌크나무, 자단나무, 흑단나무, 대나무등 쓸모있는 나무들이 많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린회석, 철, 주석, 연, 아연, 중석, 크롬, 금, 안티몬 등이다.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석탄, 린회석을 비롯한 채취공업이다. 바크보만기슭의 홍가이탄전(매장량 200억톤, 년산 300만톤이상)은 동남아세아에서 가장 큰 탄전이다.

흑색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와 해상운수이다.

무역총액의 90%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주석, 린회석 등 광물과 섬유제품, 뽕누에실, 견직물, 수예품, 통졸임, 가죽제품, 황마, 차, 커피, 담배, 바나나, 기름작물등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공업제품이다.

1977년에 호지명시에서 국립종합대학이, 하노이에서는 군사대학이 문을 열었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

신문 인민(공산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웰남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6년 11월 27일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웰남의 소리》방송국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5년 8월 12일 웰남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3월 15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투쟁지지웰남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3만 6,800km^2

인구 300만명(1977년)

수도 비엔티안(주민 17만 6,600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대부분이 산지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열대철바람지역에 놓여있으나 다른 열대지방에 비하여 기온이 낮다.

비가 많이 내리며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다민족국가로서 30여개의 민족, 종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3분의 2가 라오족이다.

공용어는 라오스어이다.

정 치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45명의 위원들로 구성

상무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1975년 12월—)

주석 국가수반, 주석 수파누봉(1975년 12월—)

정부 1975년 12월 2일 38명으로 구성, 총리 카이손 폼비한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55년 3월 22일 인민당으로 창건, 1972년 2월 제2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침, 총비서 카이손 폼비한, **건국전선** 1979년 2월에 애국전선을 건국전선으로 개칭, 위원장 수파누봉, **인민혁명청년동맹, 애국녀성동맹**

라오스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반미구국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봉건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1975년 12월 2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라오스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978년 3월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협동화운동을 광범히 벌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1월에 정부는 농업협동화중앙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건국전선

대회에서는 애국전선을 건국전선으로 개칭하였으며 수파누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76명으로 구성된 건국전선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는 1979년도 계획집행을 총화하였으며 1980년도 계획과제와 목표들을 토의하였다.

1979년에 라오스정부는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5월)과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8월)를 승인하였다.

라오스는 1979년에 벌가리아와 우호협조조약(10월), 몽골과 친선협조조약(12월)을 맺었다.

1979년에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벌가리아(7월)를, 총리가 타이(4월)를 방문하였으며 1월에 타이총리, 10월에 벌가리아국가쏘베트위원장, 버마대통령, 12월에 몽골총리가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림업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생산이다. 씨붙임땅은 약 100만헥타르이며 그 가운데서 96만헥타르가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고무, 담배, 목화, 커피, 아편 등이다. 벼는 한해에 약 70만톤 생산된다.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국영농장을 조직하는 한편 전반적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있다.

1979년 3월까지 1천 600개의 협동경리가 무어졌는데 여기에는 전체 농가호수의 16%이상이 망라되였다. 1979년에 852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였다.

이해에 1만 9천 72헥타르의 논에 물을 댈수 있는 192개의 소규모관개시설들이 건설 또는 보수되였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비교적 큰 몫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물소, 소, 돼지 등이다.

령토의 70%가 산림이며 찌크, 흑단, 백단 등 귀중한 나무들이 많다.

공업은 산림자원과 농산원료에 기초하고있다.

공업으로는 도자기, 나무제품, 공업품 등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업과 정미공장, 제재공장, 방직공장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연 등이며 그밖에 동, 중석, 백금, 망간, 철 등이다.

1978년부터 3개년(1978—1980)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교통운수는 물길과 도로망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주석, 찌크재, 커피, 목화, 집짐승,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식량,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가공품 등이다.

교육기관들에서는 라오스어로 가르치고있다.

1978—1979학년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50여만명, 중등학교학생수는 6만 8천여명이였다.

고등학교학생수는 7천여명이며 교원은 1만 6천여명이다.

혁명후 2년동안에 12개의 주병원을 비롯하여 군과 마을들에 모두 516개의 병원과 진료소, 약국과 의학실험소들이 세워졌다.

종교는 불교가 지배적이다. 산간지대의 소수민족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

신문 시엥 파싸쏜(인민혁명당기관지), 라오 하크사트(건국전선기관지), 비엔티안 마이, 비엔티안 포스트, 사이캉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6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3월 31일에는 무역협정을, 6월 10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8년 5월 8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테트 라오통신사사이의 보도교환및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6년 10월 13일에는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라오스인민혁명당 총비서이며 정부총리인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토지법에 대하여》를 라오스에서 197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캄 보 쟈

(민주주의캄보쟈)

넓이 18만 1,035km²

인구 약 776만명(1977년)

수도 프놈 펜(주민 20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끝에 자리잡고있으며 윁남, 라오스,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북부타이와의 국경지대는 해발 500～700m정도의 낮은 산줄기가 뻗어있고 윁남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동부지대는 산지와 구릉이 많다.

기후는 열대성바람기후로서 일년내내 기온이 높

다. 가장 낮은 달인 12월의 평균기온은 25°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은 87%가 크메르족이며 그외 20여개의 종족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크메르어이다.

정 치

인민대표회의 최고립법기관, 대의원수 250명, 임기 5년, 1976년 3월 20일에 선거, 인민대표회의는 국가상임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부를 임명한다.

국가상임위원회 인민대표회의에서 5년임기로 선거된다. 국가상임위원회는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리고 인민대표회의 법령과 로선에 따라 대내외문제에서 민주주의캄보쟈를 대표한다.

주석 키에우 삼판 (1976년 4월—)

정부 1979년 12월 개조, 총리 키에우 삼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0년 9월 30일 창건, 비서 뽈 뽀트, **캄보쟈애국민주주의대민족통일전선** 1979년 1월 18일 결성, 림시위원장 키에우 삼판, **근로자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1949년 11월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53년 11월 9일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 및 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5년 9월에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57년 9월에 영구중립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1월에는 미제의 경제《원조》를 배격하고 1965년 5월에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1월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프놈 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캄보쟈왕국정부의 반제적인 조치에 불만을 품은 미제는 1970년 3월 18일 론놀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시하누크정부를 반대하는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친미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1970년 3월 23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5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5월 5일에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발표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1975년 4월 17일 캄보쟈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5년동안의 반미구국투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1976년 1월 5일에는 새 헌법을 발포하고 나라 이름을 민주주의캄보쟈로 고쳤다.

1976년 4월 인민대표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는 1970년 5월 5일에 구성되였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사임요청을 수락하고 뽈 뽀트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민주주의캄보쟈는 1979년 1월 애국민주주의대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2월 1일에는 캄보쟈공산당 최고군사위원회 주최로 전국혁명군 대표자회의를 열고 《혁명군의 기본임무》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9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민주주의캄보쟈인민대표회의 상설회의, 정부, 국가군대 및 각 부대표들의 련석회의는 1년간의 정세를 총화하고 새로운 전략적정치로선을 정하였으며 정부와 국가기구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키에우 삼판을 총리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새정부가 구성되였으며 뽈 뽀트를 위원장 겸 총사령관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국가군대최고위원회가 설치되였다.

9월 아바나에서 진행된 제6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 키에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5%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에서는 벼생산이 기본이며 부침땅의 80%가 논이다. 그밖에 강냉이, 후추, 차, 목화, 콩 등도 심는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물소, 소, 돼지 등이다.

공업으로는 제재, 정미, 도자기, 고무가공, 종이, 합판 공장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연, 몰리브덴, 질콘 등이다.

령토의 45%가 산림지대이며 찌크나무, 망그로브 등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내운수에서는 메콩강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

종교는 소승불교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64년 4월에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4년 12월 7일에는 캄보쟈조선런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0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일 본

넓이 37만 2,313km²
인구 1억 1,613만명(1979년 10월)
수도 도꾜(주민 1,164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주의 동부에 있는 4개의 섬들과 그 주변의 자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띤다. 평균기온은 겨울에 0～8°C이며 여름에는 20～26°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1,000～2,000mm이다.

주민은 90%가 일본인이며 홋가이도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약간 있다.

공용어는 일어이다.

정 치

천황 히로히도(1926년 12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 중의원은 511석이며 임기는 4년, 1979년 10월 7일 제35차 중의원선거 진행, 선거결과 자유민주당 248석, 사회당 107석, 공산당 39석, 공명당 57석, 민주사회당 35석, 신자유구락부 4석, 《사회민주련합》 2석, 무소속 19석 차지, 참의원은 252석이며 임기는 6년,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거, 1977년 7월 제11차 참의원선거 진행

정부 1979년 11월 8일 제2차 오히라내각 구성, 총리 오히라 마사요시(1978년 12월 7일—, 1980년 6월 12일 사망)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1977년 10월에 제14차 당대회 진행, 의장 노사까 산조, **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창건, 위원장 아스까다 이찌오, **공명당, 자유민주당**(집권당), **민주사회당, 로동조합총평의회, 전일본로동총동맹, 중립로동조합련합회,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1979년 일본의 정치정세는 일층 더 심각화되였으며 자유민주당의 일당독재체제가 허물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0월 7일에 진행된 제35차 중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전번 선거때보다 1석이 적은 248석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민주당은 보수계 무소속의원까지 합쳐서야 과반수보다 겨우 2석이 많은 258석을 확보할수 있었다. 결과 자유민주당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자기의 의사대로 통과시킬수 없게 되였으며 국회운영에서 커다란 곤난을 겪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굴러 떨어지게 되였다.

자유민주당의 정책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반대는 물론 중도정당들인 공명당과 민주사회당의 반대에도 봉착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주요야당들로 하여금 국회대여투쟁에서 《정부의 분렬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로 나가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3월 7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는 오히라내각의 예산안이 전체 야당들의 일치한 반대로 부결되였다. 이리하여 자유민주당은 1979년에 제출된 법안의 60%밖에 성립시키지 못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대내적으로 또한 정치체제의 반동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일본반동정부는 법체제를 파쑈화하기 위하여 《유사시립법》체제의 완성을 다그쳤으며 천황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일본공식선전기구는 국내에서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였으며 또다시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것을 확신시키려고 비렬한 수법을 다 썼다. 사형당한 도죠와 기타 전범자들이 총리가 참가한 가운데 《야스구니진쟈》의 신으로 선포되였으며 《일본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이 명단》에 기입되였다.

또한 정부의 허가밑에 이전 스가모감옥의 마당에서는 도꾜군사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당한 전범자들에 대한 추도회가 진행되였다.

대외적으로 일본반동정부는 대미의존로선을 계속 따르면서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적극 가담하였다.

일본총리는 1979년초 《시정방침연설》에서 《일본외교의 기본은 일미우호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5월에 진행된 《일미수뇌자회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일미무역분쟁을 미국독점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락착》지었다.

또한 일본반동정부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선의 《현상태를 고착》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본총리는 일미수뇌자회담에서 미제의 《동북아세아,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현상태를 유지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줴치면서 카터놈에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신중히 고려》해줄것을 간청하였다. 한편 일본방위청장관은 8월 남조선에 기여들어 《일미한 3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려고 돌아쳤으며 뒤이어 미국에 가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궁궁이를 계속하였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일미군부우두머리들과 전쟁사환군들이 호노룰루에서 《미일안보실무급협

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계획을 론의하였다.

또한 일본반동정부는 동남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중근동,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시장과 자원확보를 위한 경제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외교부장놈은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아프리카나라들을 행각하고 〈경제적 차관 및 원조〉를 미끼로 〈협정〉들을 맺었으며 8월 12일부터 31일까지에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행각하고 〈차관〉을 미끼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투책동을 벌리였다.

1979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오히라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일중문화교류협정을 맺었다.

1979년에 일본인민들은 미제의 군사기지철폐를 요구하며 일본에서의 미군의 군사연습 진행과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8월 오끼나와의 나고시민들은 〈우리 도시는 전투장이 아니다!〉, 〈우리는 일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미군의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와 항의시위를 벌렸으며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월에는 오끼나와에 있는 수백명의 평화단체대표들이 일본땅에서 벌리고있는 미군의 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여 시위를 벌렸다.

일본각지에서는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안정된 일가리를 보장할것 등 자기들의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시위와 집회가 년중 줄기차게 벌어졌다.

2월 19일 도꾜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대중적인 실업을 반대한다!〉, 〈자본주의적인 생산의 〈합리화〉를 걷어치우라!〉라는 구호판들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시위와 집회를 벌렸다.

경제, 사회문화

원료의 대부분을 눅은 값으로 수입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고사는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일본은 자기에게 필요한 원유, 철광석, 알루미니움, 니켈, 탕그스텐, 수은, 천연고무, 티탄, 백금은 100%, 크롬, 코발트는 98%, 주석은 97%, 동은 90%, 마그네시움은 88%, 아연은 74%, 연은 73%를 수입하고있다.

경제는 부문별구조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공업은 주요군수생산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에 치우치고있으며 공업과 농업간에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강철, 기계, 자동차, 배무이, 화학, 방직 공업 등이다.

오래 지속되는 불경기와 수요감퇴 등으로 기업파산건수가 해마다 기록을 내면서 계속 늘어나고있다. 1979년 1월부터 12월 27일까지 1천만엔이상의 빚을 걸머지고 파산된 기업만도 1만 5천 760개로서 빚의 총액은 2조 1천 560억엔에 달하였다. 이것은 1977년에 이어 력사상 두번째로 되는 기록적인 수자였다.

농업생산도 계속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일본은 콩류의 거의 100%, 집짐승먹이의 약 70%, 기타 기름작물의 50%, 고기와 우유의 20%, 많은 알곡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다. 1978년에 알곡은 1,675만 4천톤 생산되였다. 최근 10년동안에 씨뿌림면적은 40만헥타르나 줄었으며 최근 15년동안에 농가수는 20%나 줄었다.

심한 경제위기로 물건값이 련속 뛰여오르고 인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1979년 한해동안에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가격만도 6차례나 올랐다. 일본은행이 발표한데 의하면 12월의 도매물가는 11월에 비해 1.8%, 년률로 23.9라는 대폭적인 상승을 기록하였다.

1979년 6월현재 완전실업자수만도 111만명에 이르렀다.

1979년 한해동안에 도꾜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에 관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도꾜에서는 매 3분간에 1건정도로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지지, 교도, 재팬프레스, 니홍덴빠

신문 아까하다(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쥬니찌신붕, 산께이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샤까이신뽀(사회당주간지), 고메이신붕(공명당기관지)

잡지 세까이 세이지시료(공산당반월간잡지), 세까이(정치리론잡지)

방송 엔에취케이방송, 아사히방송, 도꾜방송, 엔에취케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일본에는 일조협회(1951년), 일조무역회(1956년),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1971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1976년 6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국련락회의(1977년 12월)를 비롯하여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일조문화교류협회 등 우리 나라와의 관계발전과 제반교류의 촉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결성되였다.

1978년 4월현재 일본의 47개 도, 도, 부, 현들중 45개 도, 부, 현들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1979년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 이이지구회(2월), 이바라기현 게세이지부(3월), 도꾜도 스미다련대성위원회(6월), 히가시고베시민의 회(7월), 오이다현 녀성들의 회(7월), 일본부인집회 도꾜실행위원회(8월), 산따마부인련

대성위원회(9월), 일본부인집회와 국제부인집회를 위한 돗도리현실행위원회(9월), 다찌가와지구련대성위원회(9월), 나가사끼현부인의 회(9월) 등이 결성되였다.

또한 일조우호이와데현민회의 기다가미지부와 구지지부(1월), 일조우호를 촉진하는 시마네현부인의 회와, 조선녀성들과 련대하는 후꾸오까현부인의 회(2월), 일조우호촉진돗도리현사까이미나도시의회의원련맹(3월), 조선녀성들과 련대하는 미야자끼현 녀성들의 회와 나가노현 조선녀성들과 련대하는 회(7월),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기후현부인의 회(9월), 조선녀성들과의 련대성이바라기현부인의 회(11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조선녀성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회(12월) 등이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일본인민들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 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교원《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소조들을 결성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1979년에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11월), 제7차 오사까주체사상연구집회(3월), 제3차 깅끼지방 주체사상연구집회(5월) 등이 진행되였으며 효고현에서 《주체사상연구니시노미야의 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24편을 수록한 문헌집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은혜로운 태양》 1, 2, 3부를 1979년에 유잔가꾸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1978년 4월 9일 도꾜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

11월에는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에 일본인민들속에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일조련대도꾜도민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꾸시마현민회의, 일조협회가나가와현련합회, 일조우호미에현련대성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타 사회단체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의 교직원, 로동자, 각계인사들은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집회, 결의채택,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 일본사회당, 총평, 원자및수소탄금지일본국민회의, 일본평화위원회 등 여러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은 1979년 3월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팀스피리트 79》)을 반대하여 성명, 결의문, 항의문,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2월 27일과 28일에 가나가와현에서만도 25개 정당, 단체들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 《대사관》 그리고 일본 총리에게 항의전문을 보내였다.

5월 19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주최로 시즈오까현 아다미시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100만명서명운동을 벌리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할것을 련대성조직들에 호소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일조협회와 일조협회도꾜도련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중앙집회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9월 19일 일본 총평 의장과 50개 산하단산위원장들의 공동명의로 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지원하는 총평산하단산위원장들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0일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총평, 중립로련, 일본평화위원회 등 14개 정당, 사회단체, 로조단체 등으로 구성된 집회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일미공동작전태세강화 및 〈유사시립법〉반대, 〈안보조약〉폐기, 아세아의 평화확립,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국민생활방위 10. 21전국통일행동중앙집회》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미일한군사일체화를 반대한다》, 《일한유착을 강력히 규탄한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미군의 철거를 요구한다》, 《남조선에서의 민주화투쟁을 지지성원하자》 등의 구호밑에 진행된 이 집회에는 일본사회당 위원장, 총평의장 등을 비롯하여 2만여명의 각계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11월 2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가 일본부인회의, 일본사회당 부인국, 총평부인부 등 여러 부인단체들과 각계 일본녀성들의 공동발기로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부인국제집회의 이름으로 전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1979년에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6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대표단(7월, 10월), 일본사회당 청년활동가대표단(7월), 일본 《자주의 회》대표단(8월),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대표단(8월),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녀성대표단(10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1월), 조선친선대표단(6월)등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넓이 30만km²
인구 4,500만명(1979년)
수도 마닐라(주민 545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태평양에 있는 7천 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천여개이며 루손섬, 민다나오섬 등 11개섬이 총륙지면적의 96%를 차지한다.

열대성해양기후에 속한다. 기온과 습도가 높으며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다.

주민은 42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말라이와 인도네시아계의 필리핀인 90%,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 약 7%, 모로족 약 2%이다.

국어는 따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정 치

잠정국민의회 (국회) 일원제, 총의석 200석, 1978년 4월 7일 계엄령실시후 처음으로 국회선거진행, 신사회운동당이 184석, 비사야련합당이 13석, 민다나오련합당이 1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65년—)

정부 1976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1978년 6월부터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에 창건, 1946년 6월에 비법화, 신사회운동당(집권당), 비사야련합당, 민다나오련합당, 인민력량당, 시민자유동맹, 모로민족해방전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1898년 6월 12일 독립하였으나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제에게 강점당하였다.

일제패망후 1946년 7월 4일 필리핀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필리핀은 미제로부터 《미군기지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조약과 협정들을 강요당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필리핀인민들의 투쟁이 높아가자 1972년 6월 마르코스대통령은 《동맹국》들에 《필리핀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한 《독립》을 위해 《미국과 맺은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심각히 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1975년 4월에는 《미군기지에 대한 관리권회복, 군사원조협정과 호상방위협정의 재검토》를 미국에 거듭 요구하였다. 1977년 11월 두 나라사이의 협상에서 미제는 필리핀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을 필리핀사령관들의 관할밑에 두는데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9년 1월 필리핀과 미국사이에 새로운 군사기지협정이 체결되였으며 2월 16일 미국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가 정식으로 필리핀군대에 넘어왔다.

1978년 4월 7일 계엄령선포후 6년만에 처음으로 잠정국민의회선거를 진행하고 독립후 32년동안 지속되여온 대통령제내각으로부터 의회제내각으로 이행하였다.

남부필리핀에서는 1972년부터 모로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회교도들이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다.

1976년 12월 필리핀정부와 모로민족해방전선과의 제1차평화회담에서 정화가 이루어졌다. 그후 필리핀정부와 모로민족해방전선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주권국가의 테두리안에서 자치를 줄것을 주장하는 정부측과 독자적인 행정기구 및 군사조직을 가지는 완전한 정치적자치의 실현을 요구하는 모로민족해방전선측의 주장이 대립되여 1977년 4월 평화회담은 파탄되였다. 모로민족해방전선은 《정치적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는 남부필리핀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수 없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대외적으로 필리핀은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한편 동남아세아나라들과의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필리핀은 1978년에 웰남과 경제, 과학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협정(1월), 중국과 기술과학협조협정(3월)을 맺었다.

1979년 1월에는 쿠웨이트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일본과 우호통상항해조약(5월), 중국과 장기무역협정(7월), 인도와 직접무역및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5월) 등을 각각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한다. 농산물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5%,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첫째가는 코프라생산국이며 마닐라삼의 원산지이다. 야자, 사탕수수, 마닐라삼, 담배는 이 나라의 4대특산물이다. 1977년에 216만톤의 코프라가 생산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수출용농작물가공공업이다.

채취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철, 크롬, 금 등 광석채굴인데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1978년에 26만 3천톤의 동광과 52만톤의 크롬광을 캐냈다.

가공공업에서 기본은 사탕, 야자기름, 담배가공공업이다.

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공업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중공업의 토대를 쌓고 공업생산을 늘이며 동력기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사들을 벌리고있다.

령토의 42%가 열대산림지대이며 라완재를 비롯한 좋은 목재들이 많다.

정부는 목재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8년이후 원목수출을 금지하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논다. 철길은 루손섬과 파나이섬에만 약 1천 167키로메터정도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프라, 사탕, 목재, 마닐라삼, 야자기름, 철광, 크롬광, 동광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및운수설비, 연료, 섬유제품, 금속제품, 식량 등이다.

주민의 약 90%가 기독교도이며 10%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피엔에스

신문 앙그바야(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데일리 미러, 탈리바

방송 피비에스방송, 에이비씨방송, 필리핀텔레비죤방송

브루네이

(영국《자치령》)

넓이 5,765km²

인구 16만 2,400명

행정중심지 반다르 세리 베가완(주민 7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인도네시아의 깔리만딴섬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전형적인 열대해양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7°C, 한해평균강수량은 2,500～3,500mm이다.

주민은 67%가 말라이족이며 그밖에 중국인(24%), 다야크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말라이어이다.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 1972년 12월 추장이 17명 전원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새 립법회의 구성

추장 펭기란 무다 마코타 하싸날 볼키아호(1967년 10월—)

원래 오늘의 북부깔리만딴 전지역이 브루네이였다.

1888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른바 《협정》을 강요하여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북부 깔리만딴을 세지역(브루네이, 서라와크, 사바흐)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브루네이를 강점하였으며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7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브루네이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였으며 1956년 8월 브루네이인민당이 창건되였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반으로 하는 북부깔리만딴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1965년 3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들로 새 립법회의를 꾸며냈다.

1971년 11월부터 브루네이는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1978년 6월 영국을 방문한 추장과 영국간에 브루네이가 1983년말에 독립하는데 합의하였으며 1979년 1월 브루네이의 독립을 인정하는 독립우호조약에 조인하였다.

외교, 국방은 영국과의 합의밑에 결정된다.

경제,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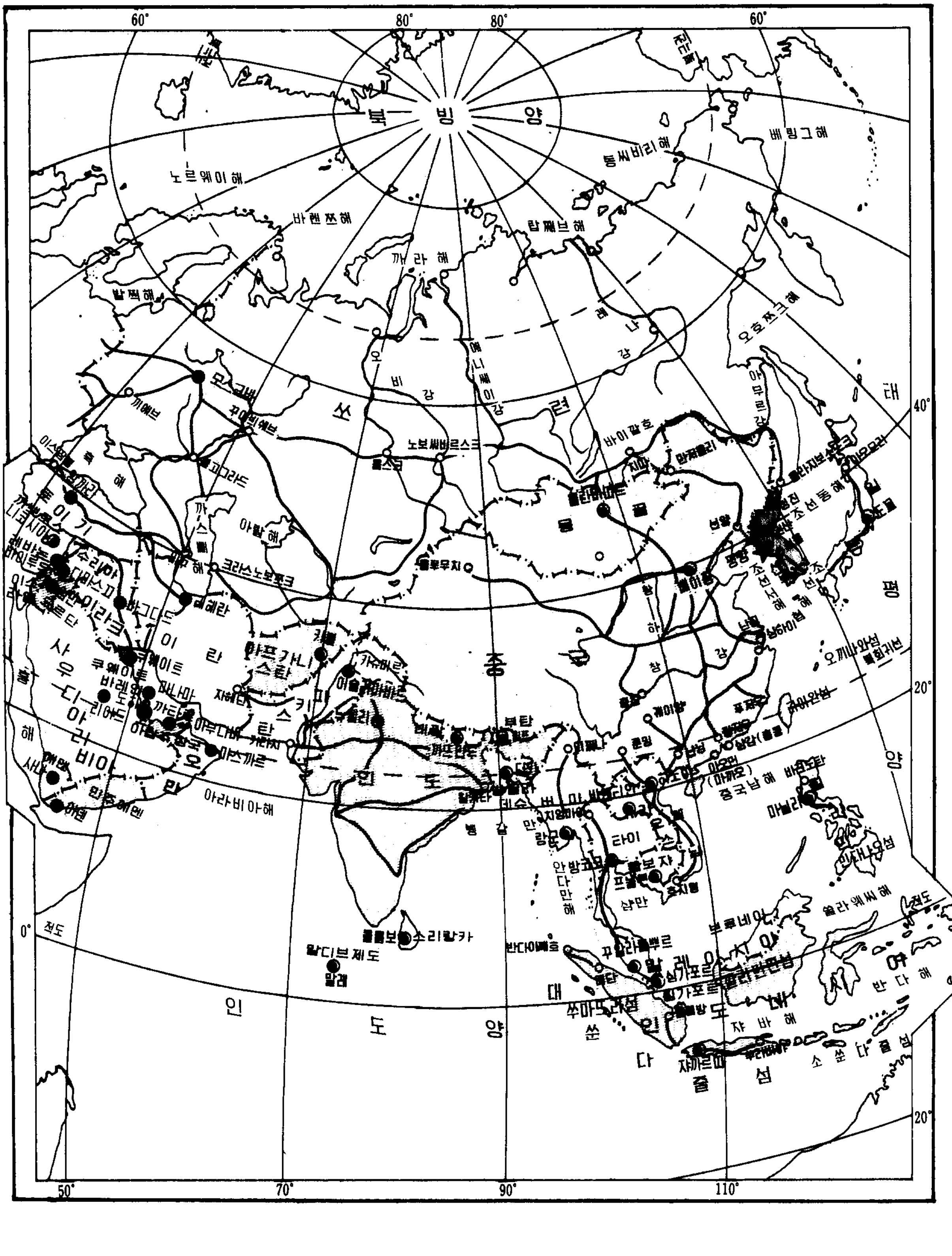
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공업이다.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이 부문에서 일하며 재정수입의 90%가 여기에서 들어온다. 원유채취권은 미영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3개의 해상유전이 있으며 원유는 하루에 23만바렐 생산된다.

부침땅의 절반이 고무재배원이다.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영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다. 한해동안에 약 1천톤의 고무가 생산된다. 식량은 수요의 3분의 2를 수입한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천연가스(90～95%), 그밖에 고무, 목재, 후추, 코프라, 통나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건재와 채취설비,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아 세 아



60°
80°
80°
60°
북 빙 양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까라해
랍쩨브해
동씨비리해
베링그해
오호쯔크해
발찍해
모스크바
끼예브
오비강
예니쎄이강
레나강
아무르강
쏘 련
노보씨비르스크
바이칼호
울란바또르
몽 골
크라스노보드크
떼헤란
바그다드
이라크
이 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꾸웨이트
리야드
아라비아해
중 국
평양
조선서해
조선동해
상해
황하
장강
중국남해
마닐라
부탄
인 도
벵갈만
안다만해
타이
방꼬크
라오스
캄보쟈
프놈펜
싸얌만
양곤
콜롬보
스리랑카
말디브제도
말레
반다아체
싱가포르
부루네이
쌀라웨씨해
반다해
자바해
쟈까르따
인 도 양
소쑨다열섬
대 쑨 다 열 섬
아덴
태평양
적도
40°
20°
0°
20°
50°
70°
90°
110°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며 병원도 도시에만 몇개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브리따 브루네이(정부기관지) 보르네오 불레틴

방송 브루네이방송, 텔레비죤방송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넓이 190만 4,345km²
인구 1억 3,830만명(1977년말)
수도 쟈까르따(주민 650만명, 1977년말)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태평양과 인도양사이에 있는 1만 3천 667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인구의 64%가 전령토의 6.9%밖에 안되는 쟈바섬과 마즈라섬에 집중되여있다.

전형적인 적도해양성기후로서 일년내내 기온의 차가 거의 없으며 거의 날마다 소나기가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24~27°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3,000mm(최고 7,000mm)이다.

주민은 쟈바족(50%), 순다족(15%), 마둘라족(7%) 등 11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정　치

인민협상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5년에 한번씩 열리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선거한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며 정강을 채택한다. 국회의원 460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대표, 직능그루빠대표 등 총 920명으로 구성

인민대표회의(국회) 일원제로서 립법문제를 취급하나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총의석 460석, 대통령이 100명(군인 75석, 직능그루빠 25석)을 임명하고 360명은 선거한다. 1977년 5월 선거결과 직능그루빠 232석, 회교도련합개발당 99석, 민주당 29석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서 군사령관을 겸한다. 임기 5년, 대통령 수하르또(1968년 3월—, 1978년 3월 3선)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1978년 3월 29일 새 내각 구성, 내각성원의 4분의 2가 군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 《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직능그루빠, 회교도련합개발당, 민주당**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으며 1950년 8월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이리안 쟈야(서부이리안)를 되찾았으며 1976년 7월에는 동부띠모르를 인도네시아에 병합하였다.

1965년 《9월 30일운동》후 독립이래 정권을 쥐고있던 수카르노정부가 해산되고 수하르또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수하르또정부는 1967년 1월에 《외자도입법》을 채택하고 수카르노정부시기에 접수한 외국기업체들을 되돌려주었다.

수하르또정부는 《개발정책》을 중요한 대내정책으로 내세우고 1969년 4월부터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립,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고있으며 동남아세아나라들사이의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9년에 인도네시아는 필리핀(3월), 말레이시아(3월, 10월), 싱가포르(10월)와 각각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에서는 대농장경리와 소농경리가 결합되여 있는것이 특징이다. 부침땅은 약 1천 76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천연고무, 키니네, 후추, 커피, 야자, 차, 사이잘삼 등 수출용작물과 벼,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땅콩 등이다. 키니네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세계총수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후추도 그 생산량과 수출에서 세계 첫 자리를 차지한다.

천연고무생산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야자재배와 그 제품 생산 및 수출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한해동안에 천연고무는 88만톤(1978년), 커피는 18만톤(1977년), 야자기름은 43만톤정도 생산된다. 1978년에 쌀은 1천 760만톤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한해에 약 200만톤 수입한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10%를 차지하며 로력인구의 8%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공업부문은 수출용농산물가공과 광물의 채굴 및 그의 초보적인 가공과 관련된 부문들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이다. 1979년현재 주석생산은 2만 8,800톤으로서 세계에서 말레이시아, 타이, 볼리비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류황성분이 적은 질좋은 원유가 생산되는데 수출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에 5억 9천 130만바렐이 생산되였다. 원유의 43%는 일본에

수출된다. 천연가스는 1978년말현재 6천 790억립방메터정도 매장되여있는데 1978년에 200억립방메터 생산되였다.

전령토의 59%가 산림이며 목재는 이 나라에서 원유다음가는 수출품으로 되고있다. 한해동안에 약 2천 236만립방메터(1977년)의 목재가 생산되는데 주로 깔리만딴과 쑤마뜨라에서 난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좁은 철길)의 길이는 약 8천 600키로메터이며 그의 70%가 쟈바섬에 집중되여 있다. 큰 섬들사이에는 항공로가 통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목재, 천연고무, 주석, 담배, 코프라, 차, 커피, 후추, 키니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천, 화학제품, 일용품, 운수수단 등이다.

주민의 80%이상이 의료봉사체계에서 벗어나있다.

소학교의 입학률은 약 60%밖에 안되며 문맹률은 40%나 된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 마리먼통신

신문 수아라 까리아(직능그루빠기관지), 콤파스 메르데까, 프리따, 앙까딴 베르쎈쟈따(국방부기관지)

방송 인도네시아방송, 쟈까르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4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4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다.

1979년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대표단(4월), 무역대표단(11월)이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싱 가 포 르

(싱가포르공화국)

넓이 581.5km²
인구 236만 2,700명(1979년)
수도 싱가포르(주민 130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말라이반도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과 기타 5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가는 배길우에 놓여있다.

일년내내 무더우며 장마철과 가물철의 구분이 명백치 않고 비가 많이 내린다. 기온은 년중 거의 일정하다. 하루기온에서 제일 높을때 30°C, 밤에는 24°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5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중국인(75%)이며 그밖에 말라이인(15%), 파키스탄인, 인도인(7%), 인도네시아인, 구라파인 등이다.

공용어는 중어, 말라이어, 영어, 타밀어 등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총의석 69석, 임기 5년, 1976년 12월 총선거 진행, 인민행동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실권은 없음)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1971년 1월—, 1978년 12월 3선)

정부 1976년 12월에 구성, 총리 리관유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집권당), 사회주의전선, 련합국민전선, 로동자당, 인민전선, 통일인민전선, 정의당, 로조련맹

1959년 6월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되였다. 1963년 9월 말레이시아련방에 들어갔다가 1965년 8월 9일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다.

독립후 인민행동당의 단독정부가 계속 정권을 쥐고있다.

싱가포르는 나라를 국제적인 중계무역중심지로 되게 하며 또한 발전된 가공공업과 수리기지를 가지는 독자적인 《도시국가건설》을 지향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동남아세아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1979년 12월에 싱가포르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쏘련과 문화 및 과학 교류를 계속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0월 30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해군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6월에 총리가 서독, 영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중계무역이며 국민소득의 80%이상이 중계무역과 관련된 부문에서 얻어진다. 이 나라는 동남아세아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원유, 고무, 주석, 코프라, 통나무, 향료 등을 가공하여 팔거나 원료 그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시 수출한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이러한 나라들의 수입을 중계하고있다. 싱가포르항은 아세아에서 제일 큰 중계무역항으로서 한해에 2만 200여척(1975년)의 짐배들이 드나든다.

농업은 보잘것 없다. 부침땅은 약 1만 5천헥타르이며 그 대부분은 천연고무와 야자, 코코아를 재배하는 작은 농장들이다. 그밖에 소농경리로서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공업은 경제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원유정제, 선박 및 선박수리, 전자및전기공업이 3대기둥으로 되고있다.

싱가포르에는 원유자원이 없으나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가지고있으며 원유정제가 중요한 공업부문을 이루고있다. 정유능력은 하루 110만바렐이다. 원유제품은 공업총생산의 25%, 수출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련결하는 선이 하나 있다. 중계무역항인 싱가포르항의 화물취급량은 세계 제4위를 차지한다. 1978년의 기항선박수는 2만 1천 787척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제품, 천연고무, 기계이며 수입품은 전기기구, 기계, 원유, 쌀, 각종 천류, 원료 등이다. 수입품의 80%는 다시 수출한다.

중국인들은 불교, 말라이인들은 회교,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신명일보, 남양상보, 민보, 성주일보, 인터내슈널 뉴스, 스트레이쯔 타임스, 썬데이 타임스

방송 싱가포르방송, 싱가포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7년 5월에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넓이 33만 1,321km²
인구 1,260만명(1977년)
수도 꾸알라 룸뿌르(주민 100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인도네시아의 깔리만딴섬에 있는 서라와크, 사바호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70%는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전형적인 적도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5~31°C, 한해평균강수량은 3,000~5,000mm이다.

주민은 약 절반이 말라이족이며 그밖에 중국인(34%),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 등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말라이어이며 중어, 영어, 타밀어 등도 쓴다.

정 치

련방의회 상하량원제, 상원 58석, 그 가운데서 26명은 각 주의회에서 선출하며 32명은 국왕이 임명, 임기 6년, 하원 154석, 임기 5년, 1978년 7월 총선거결과 국민전선이 131석, 민주행동당이 16석, 전말라이회교도당이 5석을 차지

국왕 국가원수, 5년에 한번씩 9개주(4개주는 추장이 없음) 추장들가운데서 선출, 국왕, 뚜안꾸 하지 아흐마드 샤흐 알 무스따인 빌라흐 이브니 알마르훔 술딴 아부 바까르 리아야 뚜딘 알 무아드잠 샤흐(1979년 4월 25일—)

정부 총리 다뚝 후쎄인 온(1976년 1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 비법화, **국민전선**(집권당), 말라이련맹당이 1965년 5월 선거후 9개의 야당을 포함시켜 여당통일전선으로 결성, **민주행동당**, **전말라이회교도당**, **사회정의당**

1957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3년 9월 16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흐, 서라와크를 각각 1개주로 하여 14개주로서 말레이시아련방을 선포하였다.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련방》에서 떨어져나갔다.

말레이시아는 대내적으로 경제의 《말레이시아화》를 내세우고있다.

정부는 경제활동에서 외국기업의 참가비률을 현재의 62%로부터 1990년에 가서 30%로 낮출것을 예견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중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아세안》나라들과의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6년 8월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후쎄인총리는 동남아세아를 중립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1979년에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3월, 10월), 타이(9월)와 각각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이해에 총리가 인도(1월), 타이(2월), 중국(5월), 쏘련(9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고무, 주석, 종려기름, 목재 등

1차산품생산이다. 고무, 주석, 종려기름 생산은 세계에서 각각 첫자리를 차지한다.

고무는 세계고무생산량의 35～40%,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15%,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천연고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거의 50%에 달한다. 1979년현재 고무나무재배면적은 총부침땅면적의 60%에 해당하는 420만에이커, 그 생산량은 164만톤이였다.

세계적인 종려기름생산국이다. 1978년말현재 종려나무재배면적은 199만에이커에 달하였다. 1979년에 209만톤의 종려기름이 생산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고무만을 생산하는 제한성이 극복되고 여러가지 공예작물과 알곡작물들이 재배되고있다.

농업생산에서 벼생산이 점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식량에 대한 국내수요의 85%를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1978년에 139만톤의 벼가 생산되였다.

이밖에 코코아,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 여러가지 공예작물재배도 잘되고있다. 한해동안에 코프라는 10만 7천톤(1978년), 코코아는 2만 3천400톤(1979년)정도 생산된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과 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철, 보크사이트, 원유, 석탄 등이다.

주석은 세계생산량의 약 40%, 이 나라 광업생산액의 90%를 차지한다. 1979년에 주석생산량은 6만 3천톤, 수출량은 약 5만톤에 달하였다.

주석, 철광석, 보크사이트는 말라이에서, 원유는 서라와크, 사바흐에서 채취된다.

국내제품총생산에서 가공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79년현재 21%에 달한다. 가공공업발전에 해마다 국가총투자액의 25%가 지출되고있다. 특히 고무가공공업은 공업의 기둥으로 되고있다. 1979년현재 15개의 고무가공공장이 있다.

령토의 69%가 산림으로 뒤덮여있어 목재가공공업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말라이반도에만도 약 780개의 제재공장과 45개의 가구공장이 있다.

이밖에도 원유가공공업, 식료품가공공업, 경공업 등이 발전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현재 기관차의 수는 90대, 상선대의 총톤수는 130만톤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천연고무, 주석, 철광석, 목재, 보크사이트, 종려기름, 코프라, 후추, 남방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기계설비, 섬유제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다.

지역과 주민구성에 따라 중어, 말라이어, 영어, 타밀어 등으로 교육하고있으며 일부지방의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민족어로 교육하고있다. 1979년말현재 11살아래의 학령아동의 90%이상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78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약 200만명, 중등학교학생수는 약 100만명에 달하였다.

말라이인들은 회교, 중국인들은 불교,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르나마

신문 웃산 멜라이우, 말라이 메일, 말라이 타임스, 광화일보, 스트레이츠 타임스

방송 말레이시아방송, 말레이시아텔레비죤방송, 사바흐, 서라와크에도 각각 1개의 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5년 10월, 1979년 6월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9년 6월 말레이시아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외교부장(5월), 무역대표단(9월), 평양교예단(11월)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타 이

(타이왕국)

넓이 51만 4,000km²
인구 4,611만 3,756명(1979년말)
수도 방코크(주민 495만 5,156명, 1979년 7월 31일)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 말라이반도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열대철바람의 영향으로 날씨는 사철 무덥다. 한해평균기온은 25～27°C, 한해평균강수량은 1,200～2,500mm이다.

주민은 약 30개의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타이족이 50%, 라오족이 2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타이어이다.

정 치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1950년 5월—)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25석, 국왕이 임명, 륙, 해, 공군, 경찰, 민간인들로 구성, 하원 301석, 1979년 4월 22일 총선거결과 사회행동당 82석, 국민당 38석, 신세력당 8석, 인민당 32석,

민주당 32석, 자유정의당 21석, 국가인민당 13석, 무소속 63석, 기타 12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9년 5월 24일에 성립된 제2차 크리앙사크내각이 무너지고 1980년 3월 12일 프렘 틴술라논다(국방부장겸임)를 총리로 하는 정부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민족당, 민주당, 사회행동당, 타이인민당, 타이국민당, 자유정의당, 신세력당, 국가인민당**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전제군주국으로부터 립헌왕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이전에는 샴)로 고쳤다.

제2차세계대전후 타이에서는 빈번한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다.

1973년 10월 14일 군사파쑈통치와 대미대일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폭동에 의하여 타놈친미반동정부가 거꾸러지고 새 민간인 정부가 세워졌다.

1976년 10월 또다시 군사정변이 일어나 민간인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군사정권이 서게 되였다.

1977년 10월 20일 군사정변으로 타닌정권이 타도되고 11월 11일 타이군최고사령관 크리앙사크를 총리로 하는 새 정권이 수립되였다.

1979년 4월 22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형식상 민정에로 이행하였다. 이날 임명된 상원의 지지와 하원의 과반수의 지지로 크리앙사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여 5월 24일 제2차 크리앙사크 내각이 성립되였다.

1980년 2월 29일 상하량원《특별합동회의》에서 크리앙사크가 사임하고 3월 3일 국방부장이던 프렘 틴술라논다가 총리로 임명되였다.

대외적으로 타이는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 큰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며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1978년에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무역, 과학 및 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1979년에는 총리가 일본(1월), 영국(2월), 미국(2월), 쏘련(3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총리가 인도네시아(3월, 10월), 말레이시아(3월, 10월), 싱가포르(3월), 필리핀(10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로동인구의 약 8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생산액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천연고무, 사탕수수, 담배, 목화, 강냉이, 콩, 나무감자 등이다. 벼는 메남강 삼각주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한해동안에 1천 500만톤(1977년)정도 생산된다. 1977년에 쌀수출량은 290만톤으로서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고무나무는 말라이반도의 북부에서 주로 재배되고있다. 고무나무밭 면적은 1978년에 154만헥타르에 달하였는데 여기에서 한해동안에 46만 7천톤(1977년)의 천연고무가 생산되였다. 사탕수수는 한해에 2천만톤 생산되고있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9년을 《농업의 해》로 정하고 여기에 200억바트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18%정도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농산물가공공업과 방직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 원유정제, 세멘트, 자동차공업, 채광업 등이다.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다음가는 주석생산국이다. 1977년에 3만 3,044톤의 주석이 생산되였다. 그밖에 탕그스텐, 아연, 철, 동, 안티몬 등이 있다. 최근년간 타이만, 안다만해 등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다. 1978년의 석유정제량은 920만키로리터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하천운수이다. 국내화물수송량의 3분의 2이상이 하천운수에 의해 진행된다. 철길은 방코크를 중심으로 3천 765키로메터 뻗어있다.

주요수출품은 쌀, 고무, 주석, 찌크재, 마대, 강냉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전기기계, 철강재 및 금속제품, 비료, 섬유제품, 식료품, 기타 일용품과 건재 등이다.

일련의 주들에서는 주민 62만명당 의사 한명씩 차례지고있다.

주민의 94%가 불교를 믿는다. 불교사원이 2만 5천여개나 된다.

출판보도; 신문 산 세, 방코크 포스트, 방코크 월드, 샴 뉴스

방송 타이전국방송, 타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12월 2일에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9년 9월 타이왕국친선촉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5월말～6월초), 평양교예단(11～12월)이 타이를 방문하였다.

버 마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넓이 67만 8,033km²
인구 3,220만명(1978년 3월)
수도 랑군(주민 210만명)

자연 및 주민

동남아세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인도, 방글라데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로서 사철 기온의 변화가 극히 적고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2월)로 나뉜다.

한해평균기온은 20°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은 버마족(1,300만명), 카랜족(150만명), 샨족(120만명), 카친족, 몬족, 친족 등 7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며 영어도 쓴다.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 총의석 464석, 1978년 1월 총선거 진행

국가리사회 최고집행기관, 1978년 3월 2일 29명(인민회의대표 14명, 지방대표 14명, 총리)으로 구성, 헌법에 의하여 국가리사회 의장이 대통령으로 된다.

의장 우 네 윈(1974년 3월—)

대통령 우 네 윈(1974년 3월—, 1978년 3월 재선)

정부 1978년 3월 3일 구성, 총리 우 마웅 마웅카(1977년 3월—)

정당, 사회단체; 1974년 헌법에 의하여 버마사회주의로선당의 유일당제, **사회주의로선당** 1962년 7월 4일에 창건,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6년 2월 적기공산당과 백기공산당으로 갈라짐, 현재 비법화, **인민로동자리사회, 인민농민리사회**

1948년 1월 4일 《영련방》내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다.

1955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방위협정》을 페기하고 제국주의적《관세특혜제도》로부터 떨어져나왔다.

1962년 3월에 버마군총사령관이던 네 윈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이해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버마식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정치선언을 발표하고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을 결성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산업국유화, 농업을 기초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 경제로선을 실시하였다.

1974년 1월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해 3월에는 인민회의 선거를 진행하고 12년간의 군사통치로부터 민간통치에로 넘어갔다.

1976년 3월 제5차인민회의에서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의 철페 등 일련의 자유화정책을 승인하였으며 1977년 3월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3차대회에서는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발전로선을 채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립, 반식민주의적립장을 취하고 있다. 1973년이후 버마는 《쇄국로선》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해에 대통령이 타이(3월), 방글라데슈(5월), 라오스(10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3%가 농사한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외화수입의 89~90%를 농산물수출에서 얻고있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농사(농업생산의 60%)이다. 벼는 1978—1979년도에 1천 35만톤 생산되였으며 1977—1978년도에 약 40만톤 수출되였다.

세계에서 꼽히는 아편생산국이다. 년간아편생산량은 약 700톤 정도이다.

그밖에 땅콩, 콩, 고무, 황마, 목화, 차, 밀, 담배, 깨 등을 심는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동부문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있다. 1979년초현재 농촌들에는 600여개의 집단경리가 무어져 운영되고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 집짐승마리수가 늘어나고있다. 1978년에 큰 뿔난집짐승마리수는 1천 250만마리에 달하였다.

림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령토의 57%가 산림이며 그중 23%가 생산림이다. 290여종의 나무들이 있다. 해마다 880만립방메터의 질좋은 통나무가 생산된다. 특히 찌크나무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목재총수출량의 80%를 차지한다. 목재는 1978—1979년에 13만 5천톤 수출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연, 아연, 탕그스텐, 주석, 중석, 석탄 등이다.

1976년 3월에 석유발수는 504개에 달하였다. 1979년의 원유생산량은 160만톤이였다.

가공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가공공업에서 기본은 정미공업, 방직공업, 제재업이다. 이 나라 공장총수의 4분의 3이 정미공장들이다. 1978년에 공업총생산에서 국영기업소들의 생산비률은 약 40%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대외무역은 해상운수에 의해 진행된다. 철길은 약 4천 300키로메터이나 모두 좁은 철길이다.

대외무역은 국영무역회사들이 틀어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쌀(수출총액의 40%), 찌크재(수출총액의 32%), 광석, 보석, 생고무, 목화, 콩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일용필수품, 기계설비, 공업원료및자재(60%)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관들이 국유화되고 통일적인 교육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1980년까지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할 목표밑에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국교는 불교이다. 주민의 85%가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럭따비뜨베싱, 만마아링, 워킹 피플즈 데일리, 보더타웅, 한사워디, 쩨몽, 가디언

방송 버마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5년 5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0월에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58년 3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설치되였다.

1978년 2월 20일에는 항공운수협정을 맺었다.

1963년 8월에 버마조선친선협회가, 1977년 6월 23일에는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7월 4일 랑군에서는 버마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의 6월 24일부 호소문을 지지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랑군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1979년 7월에 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탄

(부탄왕국)

넓이 4만 7,000km²

인구 130만명(1977년)

수도 팀푸(주민 1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히말라야산줄기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절반이 해발 3,000m이상의 산악과 고원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산지열대철바람기후이다. 비는 북부의 히말라야산줄기에 많이 내린다.

주민은 80%가 부탄족이며 나머지는 네팔족이다.

공용어는 티베트어이다.

정 치

국왕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국왕 지그므 싱기 왕츄크(1974년 6월—)

국회 일원제, 150석, 임기 3년, 국회외에 왕실자문협의회(8명)가 있다.

정부 국왕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여 있다.

1910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47년 8월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외교권은 인도가 가지고있었다. 1971년에 부탄은 인도에 넘겨주었던 외교권을 되찾고 이해 5월에 인도에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1978년 8월 두 나라와의 관계를 대표급으로부터 대사격으로 승격시켰다.

1971년 9월에 부탄은 유엔에 들어갔으며 1973년에 처음으로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회의에 참가하였다.

부탄은 인도, 방글라데슈와만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림업이다.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부침땅은 대부분이 다락논과 다락밭으로 되여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보리, 인도밀, 강냉이, 감자등이며 남부지방에서는 망고와 바나나가 재배된다.

령토의 70%가 산림이며 목재생산이 경제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동, 석탄, 돌비늘, 백운석, 석고 등이 채취된다. 수공업적방법으로 종이(한지)와 모직도 생산한다.

철길은 없다. 야크, 당나귀, 말 등이 주요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우표판매가 주요외화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부분의 농촌들에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라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쿠엔셀(정부기관지)

네　팔

(네팔왕국)

넓이　14만 797km²
인구　1,380만명(1979년 12월)
수도　까뜨만두(주민 35만 3,700명)

자연 및 주민

히말라야산줄기의 남쪽기슭 중국과 인도사이에 있다. 해발 1,000m를 넘는 지역이 전령토의 절반을 차지한다. 동북쪽에 세계최고봉의 에베레스트산을 중심으로 7,000m이상의 높은 산이 20여개나 있다.

네팔은 수직높이에 따라 열대로부터 한대에 이르는 서로다른 기후대를 나타내고있다. 한해평균강수량은 3,000mm이다.

주민은 크게 네와르족(티베트혈통)과 쿠르카족(인도혈통)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네팔어이며 힌디어, 영어도 쓴다.

정　치

민족판차야트 일원제, 1976년 12월 헌법개정에 의하여 의원수 125명으로부터 135명으로 늘임, 그 가운데서 23명은 국왕이 임명, 나머지는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선거, 1977년에 선거 진행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1963년 5월에 창설, 국방, 외교 등에 조언을 준다. 국가리사회성원은 국왕이 임명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호 데바(1972년 1월—), 민족판챠야트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국왕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정부 정부성원은 국왕이 민족판챠야트성원가운데서 임명, 1979년 5월 30일 28명으로 새 내각 구성, 총리 쑤르야 바하두르 타파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일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1951년 2월 18일 105년간에 걸치는 라나봉건일가의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립헌군주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국왕은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당이 없는 참사회(판챠야트)제도의 민주주의적체계》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1979년 4월 중순부터 학비와 시험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여 일떠선 대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네팔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5월에 들어와 학생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되였으며 관리들속에서의 부정부패와 지나친 세금부담, 물가의 끊임없는 인상, 정치개혁의 실시를 요구하는 등 점차 반정부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5월 24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왕은 현재의 정당없는 《판챠야트》제도를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다당제도를 내올것인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 30일 15명으로 전국선거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및 중립, 평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9년 6월 16일 국왕은 민족판챠야트에서 연설하면서 네팔정부가 모든 나라들, 우선 이웃나라들과 지금 맺고있는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9년 4월 네팔과 스리랑카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련합위원회를 내오기로 하였다.

이해에 국왕이 중국(8월), 인도(9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3%이상이 농사한다. 농산물은 이 나라 국민소득의 66%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210만헥타르이며 그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800메터의 다락논이다. 관개면적은 2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벼이며 그밖에 밀, 강냉이, 보리, 메밀, 사탕수수, 황마, 목재, 담배, 바나나 등이다.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털소, 양, 염소, 당나귀 등이다.

《자립경제》건설의 구호를 들고 자체의 힘으로 중소규모의 공업을 건설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현대적공장들을 건설하고있다.

정부는 공업건설에서 자연부원이 풍부한 지역들에 공업기지들을 건설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이미 7개소의 새 공업기지들이 건설되였다.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는 우선 농업과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공업부터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국영부문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돌려지고있다.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1950년이래 농산물가공공장과 생활필수품공장을 비롯한 약 3천개의 중소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자동차운수이다. 자동차길은 약 4천키로메터, 철길은 남부벌방지대에 약 127키로메터(좁은 철길)정도 있다. 소, 당나귀 등도 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황마제품, 가죽, 담배 등이며 주

요수입품은 천, 각종 연유, 운수기재, 공업제품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인도와의 무역이 80%를 차지한다.

민족어에 의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있다. 1979년말현재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130만명의 학생들이 각급학교들에서 공부하고있다.

정규교육사업과 함께 문맹퇴치사업도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주민의 약 20%가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1990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보건사업발전계획을 세우고 보건사업을 한계단 추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60여개의 병원과 450여개의 진료소가 있다.

주민 4만명당 의사 1명씩 차례지고있다.

국교는 힌두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힌두교, 불교,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라스뜨리아 삼바르 사미띠통신

신문 쿠르카 파뜨라(정부기관지), 마더랜드, 마뚜리 푸미, 코머너

방송 네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7월 10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4년 5월 1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11일에는 우리 나라와 무역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1957년 9월 19일에는 네팔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11월 16일에는 조선통일지지네팔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네팔인민들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 등을 묶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979년에 네팔조선친선협회에서는 경축집회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사진, 도서 전람회, 영화상영주간 등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1979년 6월 25일 까뜨만두에서는 네팔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 6월 네팔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넓이 14만 3,998km²

인구 8,270만명(1977년)

수도 다카(주민 170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버마, 인도와 국경을 같이 하고있다.

기후는 무더운 열대성기후이며 장마철(4～10월)과 가물철(11～3월)로 나뉜다. 기온은 장마철에 평균 28～29°C, 가물철에 16～18°C이며 한해 평균강수량은 동부의 높은 지대에서 5,000mm, 치타공에서는 2,700mm에 달한다.

주민은 68%가 벵갈인이다.

공용어는 벵갈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총의석 330석, 그중 300석은 선거, 30석은 임명, 1979년 2월 18일 선거결과 민족주의당이 207석 차지

대통령 지아우르 라호만(1977년 4월 21일—, 1978년 6월 12일 재선)

정부 1979년 4월 15일 구성, 총리 샤호 아지주르 라호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민족주의당**(집권당) 1978년 9월 1일 민족민주당(자고달), 민족아와미당, 방글라데슈회교련맹, 레이버당, 타프실리련맹 등을 망라하여 창건, 위원장 지아우르 라호만, **인민련합당, 직업총동맹, 청년동맹, 녀성해방동맹**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4월 17일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2년 1월 무지부르 라호만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5년 8월 군사정변에 의하여 무지부르 라호만이 살해되고 이전 내무및무역부장이였던 아호메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75년 11월 군사정변에 의하여 최고재판소 소장이였던 모함마드 사이엠을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4월 사이엠이 사임하고 륙군참모총장 지아우르 라호만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8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 지아우르 라호만이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9월 1일 대통령은 민족주의당을 결성하고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1979년 2월 18일 민족회의 선거에서 민족주의당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4월에는 민족회의 제1차회의를 진행하고 새 정부구성문제와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1975년

에 실시된 계엄령을 철폐할데 대한 정령을 공포하였다.

민족회의에서 대통령은 방글라데슈가 대내정책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경제에서 진보를 이룩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을것이며 대외정책에서는 국가들의 자주권의 존중파령토완정, 호상내정불간섭, 모든 분쟁문제들의 평화적인 해결, 힘의 불사용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9년 11월 28일 방글라데슈에서는 계엄상태가 페지되였다.

7월에 정부는 미국《평화군》의 활동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월에는 이란의 새 정부를 승인하였다.

1979년에 대통령이 타이(4월), 말레이시아(4월), 벨지끄(4월), 스리랑카(11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인도총리(4월), 버마대통령(5월), 인도네시아대통령(11월) 등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약 85%가 농사하며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이 농산물에서 얻어진다. 부침땅은 약 2천 600만에이커정도이다. 이 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실시되는 3차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그 실행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황마, 벼, 차, 밀, 보리, 강냉이, 사탕수수 등이다. 황마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한해동안에 황마는 약 120만톤(1977년), 차는 3만 7천여톤(1979년), 사탕수수는 660만톤(1978년)정도 생산된다.

1977—1978년에 쌀은 1천 282만톤, 밀은 35만톤 생산되였다.

공업은 대부분 수공업적인 작은 규모의 공업과 가내수공업이며 국민총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황마가공공업이다. 외화수입의 5분의 4가 황마제품에서 얻어진다.

독립후 민족공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비료공장, 기계공장, 전기설비공장, 사탕공장, 성냥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78—1979회계년도에만도 2천 400여개의 소규모대상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총수송량의 70%를 배로 실어나른다. 배길은 장마철에 6천 500키로메터, 가물철에 4천 300키로메터에 달한다. 철길은 2천 800키로메터밖에 안된다.

주요수출품은 황마와 그 제품(수출총액의 73%, 외화수입의 5분의 4를 차지), 차,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와 설비, 건재, 석탄, 화학제품, 식량, 목화, 비료, 세멘트 등이다.

인구의 82%가 글을 모른다. 정부는 1980년 2월 21일부터 문맹퇴치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주민의 8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방글라데슈통신

신문 에꼬다(공산당기관지), 이테파크, 데니크 방글라, 방글라데슈 옵써버, 고노속디

방송 다카방송, 치타공방송, 다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2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6년 10월 26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8년 11월 29일에는 경제,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3월 6일에는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가, 3월 8일에는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8년 9월에는 지아우르 라흐만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1월 7일 다카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글라데슈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와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2월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군사분계선전역에 철근콩크리트장벽을 계속 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국대통령에게 철근콩크리트장벽을 즉시 허물어버리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군사기지들을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는 항의전문을 보냈다.

1979년에 방글라데슈 국회대표단(7월), 청년대표단(8월), 소년예술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3월)이 방글라데슈를 방문하였다.

인 도

(인도공화국)

넓이 328만 7,590km²
인구 6억 6,000만명(1979년 6월)
수도 뉴델리(주민 50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중남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철바람기후이다. 평균기온은 높을때 22~26°C(최고 45~48°C), 낮을때 16~25°C이다. 한해강수량은 서해안, 서부벵갈지대에서 2,700mm, 중부간지스벌지대에서 1,000~2,000mm이다.

주민은 200여개의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기본민족은 힌두스탄족, 벵갈족, 비하르족, 구쟈라티족, 펀잡족, 타밀족, 카슈미르족 등이다.

전국적인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이며 지방공용어로 15개언어가 법적으로 인정되고있다.

정 치

의회 련방원(상원)과 인민원(하원)의 량원제, 상원의원 250명이하,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원 12명, 그밖에 각주의회에서 선출, 임기 6년,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을 다시 선거, 하원의원 544명(2명은 대통령이 지명), 임기 6년(1976년 헌법개정으로 1년연기), 1980년 1월 524개의석에 대한 선거에서 간디국민대회당 351석, 로크달(당) 41석, 공산당(맑스주의) 35석, 쟈나타당 32석, 국민대회당(우르스파) 13석, 공산당 10석, 기타가 42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없다. 상하량원과 각주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거된다. 임기 5년, 대통령 넬람 산지바 레디(1977년 7월—)

정부 1980년 1월 14일 구성, 총리 인디라 간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 창건, 1964년 9월이후 이. 엠. 에쓰. 남부디리파드를 총비서로 하는 공산당(맑스주의)과 당게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산당으로 갈라짐, **간디국민대회당** 집권당, 1978년 1월 2일 국민대회당내의 간디지지파가 새 당을 결성, **국민대회당(우르스파), 쟈나타당, 로크달(당)** 쟈나타당에서 탈당한 정교분리파가 중심이 되여 1979년 9월 26일에 결성, **사회민주전선, 전인도로조대회,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1947년 8월 15일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2년에 인도 력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였으며 국민대회당의 쟈와하를랄 네루를 총리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그후 국민대회당은 4차례의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여 약 30년동안 집권하였다. 그러나 1977년 3월 총선거에서 국민대회당이 패배함으로써 11년동안 총리로 있던 인디라 간디가 물러나고 쟈나타당의 데사이를 총리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쟈나타당은 집권후 파국적인 경제를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와 당파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으로하여 인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자아냈다.

1978년 2월 지방선거와 4월의 하원보결선거에서 간디국민대회당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선거에서의 패배를 둘러싸고 쟈나타당내의 분쟁이 표면화되였으며 6월에는 수명의 각료들이 해임되였다.

1979년 7월에는 쟈나타당에서 정교분리파들이 탈당함으로써 당은 분렬되여 국회에서 203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였다.

데사이총리는 1979년 7월 15일 사임하였으며 7월 28일에 챠우드리 챠란 싱을 총리로 하는 쟈나타당 정교분리파와 간디국민대회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정부신임투표를 앞두고 간디국민대회당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8월 20일 정부는 사직하였다.

8월 22일 하원이 해산되고 1980년 1월 3일과 6일에 기한전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간디국민대회당이 67%를 차지하였으며 1월 14일 간디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간디총리는 1월 14일 취임연설에서 《인도의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강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인 인도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다.

인도는 1979년 6월 2일 앙골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6월 1일 새 우간다정부를 승인하였다.

1979년에 인도는 말레이시아와 경제기술협정(1월), 이라크와 농업, 기술, 과학, 경제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2월), 쏘련과 10~15년을 기한으로 하는 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장기계획서(3월), 수리아와 정기항공협정(4월), 꾸바와 경제, 무역 관계의 촉진을 위한 협정(7월), 나이제리아와 기술및경제협조협정(8월)을 맺었다.

데사이총리는 1979년 2월에 스리랑카, 4월에 방글라데슈, 6월에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1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말레이시아총리, 오스트랄리아총리, 3월에 쏘련총리, 9월에 네팔국왕이 인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국민소득의 36%를 농림업에서 얻고있다.

부침땅은 1억 6천 530만헥타르(1977년)이며 그가운데서 4분의 3이 알곡작물재배지이다.

1950년이래 900여개의 관개시설건설을 진행하여 왔는데 1979년 8월현재 500여개의 대중규모의 관개시설이 완공되였다. 관개면적은 부침땅의 약 35%(1979년 4월)이다.

주요농작물들은 목화, 황마, 벼, 밀, 보리, 강냉이, 기장, 사탕수수, 커피, 차, 고무 등이다.

목화와 황마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제2위를 차지한다. 1977년에 목화는 351만 3천톤, 1978—1979년도에 알곡은 1억 3천 50만톤, 차는 57만톤 생산되였다.

1979년에 차농장은 3만 5천개였다. 차는 외화수입의 10%를 차지한다.

1977—1978년도에 커피는 12만 2천 500톤 생산되였으며 1979년 4월에 커피밭은 17만 1천 500헥타르였다.

여러가지 협동조합(신용, 판매, 소비, 수매, 농업, 살림집건설, 운수, 어로 등)들의 수는 1980년초에 30여만개였다.

소와 물소마리수(1억 8천 165만 1천마리, 1978년)에서는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나 종교적관습으로 하여 잡지않으므로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못가진다.

산림면적은 령토의 22%이며 찌크재 등 좋은 목재들이 생산되고있다.

천연고무생산은 세계에서 다섯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에 천연고무생산량은 14만 7천톤, 합성고무생산량은 3만 2천 60톤이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 망간, 동, 돌비늘, 보크사이트 등이다. 철광석추정매장량은 약 224억톤으로서 세계 제1위, 망간광추정매장량은 1억 8천만톤으로서 세계 제3위, 석탄추정매장량은 1천 213억톤, 석고추정매장량은 12억톤이다.

1979년에 오리싸주의 뜨하꾸라니에서 철광석매장지(추정 5억톤), 동부연안지역에서 보크사이트매장지(추정 18억 5천만톤), 봄베이부근 아라비아해에서 원유매장지가 발견되였다.

1978—1979년도에 원유는 1천 250만톤, 1979년에 석탄은 1억 400만톤 생산되였다. 석고는 한해에 약 235만톤정도 생산된다.

공업에서는 면방직공업과 황마가공공업이 발전되고있다. 독립후 제철, 기계, 전력, 화학 공업 등에 힘을 넣고있다.

강철생산량은 한해에 1천 100만톤정도이며 1978—1979년도에 알루미니움생산량은 21만 4천톤에 달하였다.

전력생산의 60%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의거하고있으며 17개의 주요수력발전소들이 있다. 1979년말 발전능력은 2천 600만키로와트였다. 전력은 수요의 평균 80%정도 보장하고있다.

정부는 1979년에 황마회사 《베유드 앤드 콤파니 리미티드》와 자동차회사 《쥬트 킹스》를 국유화하였다.

1950년대초에 국영부문의 기업소수가 5개였다면 1980년초에는 300여개에 달하였다.

국영기업소들에서는 기관차, 선박, 발전기, 야금 및 광산설비,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있다.

소규모의 공장과 작업소수는 52만개(1979년 3월)이며 여기에서 590만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있다. 소규모공업생산액은 공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있다.

정부는 현 5개년계획기간에 수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대중적실업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이 사업을 내밀고있다. 1980년초 이 부문에서는 200여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정부는 철도운수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1979년 3월에 철도총연장길이는 6만여키로메터였다. 그중 5천키로메터이상이 전기화되였다. 철도는 짐수송량의 70%, 려객수송의 50%를 담당하고있다.

1979년 4월에 약 400척의 상선이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황마 및 그 제품, 차, 철광석, 면직물, 가죽과 그 가공품, 호두씨,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및설비, 식량, 흑색 및 유색금속, 비료, 원유, 화학제품 등이다.

1978—1979년도의 대외무역적자는 119억루피였다.

1980년초에 실업자수는 1천 300만명이였다.

1979년 4월현재 학생수는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며 전문학교는 3천 500개, 대학은 약 100개이다.

농촌주민의 60%가 전기불을 볼수 있다.

인구의 83%가 인도교(힌두교)도이며 11%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피티아이, 유엔아이, 힌두스탄 사마챠르

신문 나브바라트 타임스,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스, 힌두, 스테이츠맨

방송 인도방송, 전인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1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3년 12월 1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7월에 문화협정을, 1978년 2월 3일에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 25일에는 인도조선문화협회가, 1969년 12월 15일에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9월 7일에는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12월 28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뉴델리에 설치되였다.

1978년 9월 23일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인도전국토론회가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197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인도《주체사상연구학회》의 공동주최로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2월 4일 인도 라지뻐라《주체사상연구학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발취집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를 1979년에 출판하였다.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로조대회, 전인도청년련맹, 전인도학생련맹은 공동으로 호소문(1월 31일)을, 인도법률가협회는 성명(2월)을, 전인도학생련맹과 전인도청년련맹은 공동성명(3월 10일)을 발표하였다.

3월 2일 전인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는 《한미련합작전훈련》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단체들과 기타 사회단체들이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을 가졌다.

9월 26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인도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전국련합회의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의 주최로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이해에 인도에서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단체들과 기타 사회단체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괴뢰도당의 책동을 규탄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1979년에 인도《주체사상연구학회》서기장(1월), 인도친선대표단(3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인도를 방문하였다.

파 키 스 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넓이 80만 3,943km²
인구 7,562만명(1978년 10월)
수도 이슬라마바드(주민 23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인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으며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아열대성기후에 속하나 기온이 높고 메마른것이 특징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7°C, 제일 더울때(4～10월)는 32～50°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판잡지역에서 1,000mm, 기타 지역에서는 250～400mm이다.

주민은 판잡족, 신디족, 파르지아족 등이다.

공용어는 우르두어이나 영어도 많이 쓴다.

정 치

국민회의 1977년 7월 5일 군사정변후 해산

대통령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1978년 9월—)

군사위원회 1977년 7월 5일 군사정변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륙해공군 참모장들로 구성, 대통령의 사업을 도와준다.

자문리사회(내각) 1979년 4월 21일 구성, 정부수반 겸 계엄사령관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인민당, 민족동맹, 사회주의당,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1947년 8월 14일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서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1956년 3월 23일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파키스탄은 정당들사이의 불화와 동서파키스탄사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오래동안 군사정권의 통제밑에 있었다. 1970년 12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이 1971년 3월 동부파키스탄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내전이 일어났다. 내전은 1971년 12월 인도가 개입함으로써 인도—파키스탄전쟁으로 확대되였다. 파키스탄군이 2주일만에 항복함으로써 동서파키스탄은 파키스탄과 신생국가 방글라데슈로 분렬되였으며 파키스탄에서 군사정권이 거꾸러지고 인민당정부가 수립되였다. 1977년 3월 총선거에서 인민당이 승리하여 다시 정권을 잡게 되였다. 총선거에서 패배한 우익정당들의 련합세력인 민족동맹은 인민당정부가 선거에서《협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로총리의 사임과 총선거의 재실시 등을 요구하여 반정부시위와 파업, 폭력행동을 벌렸다.

나라에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1977년 7월 5일 륙군참모장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가 정권을 잡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사령관 지아 울 하크는 부로정권시기에 감금되였던 야당지도자들을 석방하였으며 부로와 그 지지자들을 체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1978년 9월 16일 대통령 초우드리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였으며 지아 울 하크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9년 7월 22일 대통령은 총선거를 위한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다.

8월 30일에는 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정당들이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

거참가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 새로운 정당법을 발표하였다.

9월 13일 인민당은 선거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족민주당파 민족당도 수정된 정당법을 배격하였다.

9월 20일에는 국회선거에서 야당들을 제거할데 대한 대통령정령이 발표되였다.

9월 28일 대통령은 선거법을 다시 수정하여 무소속립후보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50%이하의 득표수를 획득한 무소속립후보자들은 다른 당의 립후보자들보다 과반수를 획득하였다해도 당선된것으로 선포되지 않게 되여있다.

10월 7일 대통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11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던 총선거를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였다.

1979년 9월 파키스탄은 쁠럭불가담국가성원으로 가입하였다.

3월에는 미제의 침략기구인 쎈토로부터 탈퇴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생산은 국민총생산의 34%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목화, 사탕수수 등 4대작물과 그밖에 조, 수수, 유채, 황마 등이다. 한해동안에 벼는 270만톤, 밀은 900만톤, 목화는 42만 7천톤(1977년), 사탕수수는 2천 570만톤정도 생산된다.

목축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79년현재 16%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회석, 크롬, 천연가스, 석탄, 철, 우라니움, 류황, 돌소금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방직공업, 기계공업, 강철공업, 세멘트공업, 원유가공공업, 가축가공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1979년현재 약 200개의 크고작은 방직공장들이 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와 철도운수가 중요하다. 철길의 길이는 약 8천 775키로메터이나 좁은 철길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실, 면천, 가죽, 양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기계, 강재, 식량, 운수수단, 전기기구제품 등이다.

성인의 85%가 문맹자이며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50%밖에 안된다.

회교가 국교로 되여있으며 인구의 97%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피(파키스탄합동통신), 피피아이(파키스탄국제통신)

신문 데일리 쟝, 무싸와트(인민당기관지), 파키스탄 타임스, 나와이와그드

방송 파키스탄방송, 파키스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6년 11월 8일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6년 5월 26일에는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75년 1월 26일에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1년 2월 11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키스탄국제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녀성친선협회 등 20여개의 친선협회들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카라치, 1975년 12월 6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라호르, 1976년 2월 24일) 등이 무어져 활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파키스탄인민들은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를 묻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1979년 7월 7일 카라치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파키스탄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0월 6일 라호르에서는 파키스탄라호르《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의 주최로 로조, 대학생조직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가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련합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0월 18일 카라치에서는 카라치파키스탄대학생《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파키스탄 알라마 이크발대학《김일성주의연구소조》, 카라치종합대학 구라파연구학부의 공동주최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에 파키스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줄기차게 벌렸다.

1월 23일에 발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이 나라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성명,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정당, 사회단체인사들이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정당,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카라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파키스탄대회가 진행되였다. 이 대회에는 파키스탄 전 지역에서 온 38개 대표단의 200명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7월 16일에는 13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

였다.

또한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의 발기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였는데 9월까지만해도 1천여만명이 참가하였다.

1979년에 파키스탄 민족은행대표단(9월), 항공회사통신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스 리 랑 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넓이 6만 5,610km²
인구 1,397만명(1977년)
수도 콜롬보(주민 60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인도반도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인도양에서 아세아, 대양주를 잇는 중요한 배길에 놓여있다.

열대기후로서 한달평균기온은 25~29°C, 한해평균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싱할족이고 그밖에 타밀족, 말라이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싱할어이다. 타밀족은 타밀어를 쓴다.

정 치

민족국가회의 일원제, 총의석 168석, 임기 5년, 1977년 7월 총선거결과 통일국민당이 142석, 타밀통일해방전선 17석, 자유당 9석, 무소속 2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1977년말 헌법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최고권력을 가진다.

대통령 제이. 아르. 자예와르데네(1978년 2월—)

정부 1977년 7월 23일 통일국민당단독내각 구성, 총리 라나싱헤 프레마다사(1978년 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 1963년에 두개 당으로 갈라짐, **통일국민당**(집권당), **자유당**, **평등사회당**, **타밀통일해방전선**(타밀족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들의 련합),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자유당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1948년 2월 4일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72년 5월 22일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8년 9월 7일 새 헌법을 발포하고 나라이름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독립후 자유당과 통일국민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7년 7월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통일국민당단독정부가 구성되였다. 이해말 헌법을 개정하고 의원내각제로부터 대통령내각제로 넘어갔으며 최고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새 정부는 대내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를 철페하고 외국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개방정책과 자유경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7년 12월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포하였으며 1978년 11월에는 외국대부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며 개발을 위해 국내 및 외국 자금들을 동원할 국가개발은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 정권시대에 국유화된 일부기업체들을 이전 기업주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자본주의적 기업활동을 되살리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기본로선으로 내놓고있다. 그러나 서방나라들의 원조와 자본투하를 적극 받아들이려 하고있다.

1979년에 스리랑카는 아랍추장국련방(7월), 예멘아랍공화국(8월)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네팔과 무역협정(4월), 중국과 문화협조협정(8월), 방글라데슈와 해상수송협정과 경제및기술협력협정(11월)을 각각 맺었다.

이해에 대통령이 일본(9월), 싱가포르(9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차, 고무, 야자 등이다. 부침땅의 3분의 2가 차, 고무나무, 야자 재배지이다. 이 3대농작물은 이 나라 국민소득의 3분의 1, 농업총생산액의 75%, 수출총액의 92%, 외화수입의 65%를 각각 차지한다. 1978년에 차는 20만 1천톤, 고무는 15만 4천톤 생산하였으며 야자는 25억 5천만개(1975년)정도 생산된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한해동안에 30~40만톤의 쌀을 사들이고있다.

공업은 보잘것 없다. 주요공장으로는 차, 야자, 고무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을뿐이다.

광업에서는 흑연채굴이 기본이며 그밖에 철, 석고, 돌비늘, 형석 등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다. 흑연매장량은 세계에서 꼽히고있으나 개발이 뒤떨어지고있다.

《보석의 나라》로서 약 40종의 보석들이 생산되고있다.

수산자원이 풍부하나 연해세소업에 기초하고있어 물고기잡이량(년 11만톤정도)은 얼마되지 않

는다.

국내운수는 기차와 자동차로, 대외무역은 배로 한다. 철길은 1천 50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1만 7천 9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차, 생고무, 야자씨, 보석, 흑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각종 식료품, 섬유제품, 석유, 기계류 등이다. 수입은 자유화되였다.

주민의 60~70%는 불교도(싱할족의 대부분)이며 18%는 힌두교도(타밀족의 대부분)이다.

출판보도; 통신 피. 티. 씨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자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디나미나, 란카디파, 다바싸, 비라케사리, 쎄일론 데일리 뉴스

방송 스리랑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월 25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2월에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5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79년 6월 스리랑카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디 브

(말디브제도공화국)

넓이 298km²
인구 14만 5,000명(1978년)
수도 말레(주민 1만 7,000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스리랑카에서 서쪽으로 670km떨어진 인도양가운데 있는 2천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약 220개이다. 섬들의 평균높이는 해발 1.2m이며 강과 호수는 없다.

열대성기후로서 매우 덥고 습하다. 한해평균기온은 27°C,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말디브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말라이인, 아랍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말디브어이나 아랍어, 영어도 쓴다.

정 치

국민의회 일원제, 총의석 48석, 그 가운데서 40석은 선거하며 8석은 대통령이 임명, 임기 5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5년, 대통령 마우문 아브둘 가이움(1978년 11월 10일—)

정부 1978년 11월 11일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식적인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1965년 3월 29일 79년간에 걸치는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68년 11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8년 8월 공화국 선포후 집권하여온 나시르대통령이 물러나고 11월 마우문 아브둘 가이움을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모든 섬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수도가 있는 말레섬사람들의 수준정도로 끌어올릴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주성과 쁠럭불가담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말디브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미군사기지의 철페를 요구하며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전변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인구의 80~90%가 물고기잡이를 한다. 한해동안에 약 3만 7천 500톤(1975년)의 물고기를 잡는다.

정부는 섬주변의 100마일수역을 자기의 어업구역으로 선포하였으며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어로방법을 도입하며 돛배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땅이 메마르고 물원천의 부족으로 농산물에 대한 자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기장을 약간 심는외에 야자, 바나나, 코코아, 감귤류, 남새 등을 재배하고있다.

정부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국가가 종자를 알선해주고 토지를 임대해주며 농업지도서를 배포하는 등 농업을 장려하고있다.

가금업도 약간 한다.

관광업도 하나의 중요한 국가기업으로 하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일부섬들에서는 자동차운수의 비중이 높아지고있으나 내륙운수에서는 자전거가 많이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말린물고기와 물고기가루, 물고기통졸임, 코프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밀가루, 사탕, 소금, 천, 황마제품, 일용품 등이다. 물고기제품이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국가가 경영하는 학교로는 인민학교, 남자고등학교와 녀자고등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개인이 경영하는 작은 학교들이 각지에 40여개 있다.

정부는 나라에 중등교육제를 세우려하고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병원도 수도에 하나뿐이며 40개의 침대를 가지고있다. 앞으로 중요섬구획들에 병원을 새로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말디브어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 있다.

방송 말디브방송, 말디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민주주의공화국)

넓이 64만 7,497km²

인구 1,554만명(1978년 6월)

수도 카불(주민 65만명, 1978년)

자연 및 주민

서남아세아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는 해발 1,000m이상 되는 산악의 나라이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메마르며 비가 적게 온다. 카불의 평균기온은 7월에 25°C, 1월에 -1°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350mm이다.

주민은 아프간족(약 50%), 따쥐크족, 우즈베크족, 뚜르크메니야족 등 20여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푸슈트어와 다리어이다. 도시에서는 페르샤어도 쓰인다.

정 치

혁명리사회 1978년 4월 27일 혁명후 조직된 나라의 최고주권기관, 의장 바브라크 카르말(1979년 12월 28일—)

정부 1979년 12월 28일 구성, 총리 바브라크 카르말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주당 1965년 1월 1일에 창건, 총비서 바브라크 카르말, **로동자직업동맹, 청년인민조직, 녀성인민조직**

1919년 8월 19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964년 10월 새 헌법에 의하여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1973년 7월 전총리 다우드가 정변을 일으켜 왕제를 철폐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8년 4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인민은 인민민주당의 령도밑에 혁명을 일으켜 다우드정권을 전복하고 타라키를 의장으로 하는 혁명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나라이름을 아프가니스탄민주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타라키정부는 녀성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줄데 대한 정령, 대지주, 부농의 토지를 수탈하여 분배하는 토지법령 등을 발포하였다.

1979년 1월에는 남부주들에서 토지를 무상분배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타라키정부의 사회개혁을 반대하여 3월에 회교도들의 반란이 있었다.

1978년 12월 5일 쏘련과 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9년 7월 23일 외교부는 4월혁명후 아프가니스탄주재 미국대사관의 성원수를 줄일것을 요구하였다.

1979년 9월 14일 혁명리사회 의장이였던 타라키가 제거되고 총리였던 아민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9월 16일 아프가니스탄인민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병으로 자기 사업을 계속할수 없다》는 타라키의 《제기》를 심의하고 아민을 당총비서 겸 혁명리사회 의장으로, 총리로 선거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타라키는 《불치의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하였다.

12월 27일 아민이 다시 제거되고 12월 28일 바브라크 카르말이 인민민주당 총비서, 혁명리사회 의장 겸 총리로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85%가 농목축업을 하며 (20%는 유목민)국가수입의 80%가 여기에서 들어온다. 부침땅은 1천 400만헥타르에 달하나 실지 리용되는 땅은 그 절반밖에 안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1976년에 293만 6,000톤생산), 강냉이, 벼, 목화, 사탕수수, 사탕무우, 과일 등이다.

축산에서는 양이 위주이며 그밖에 소, 염소 등이 있다.

1979년 1월 1일부터 7월중순까지 진행된 토지개혁에 의하여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28만 5천호의 농가에 약 300만제리브(1제리브는 0.2헥타르)의 땅이 무상으로 분여되였다.

공업에서는 농축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며 방적, 세멘트 공업과 옥석제품, 주단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천연가스, 석탄, 금, 은, 철, 아연, 대리석, 원유 등이 있으며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1979년부터 경제발전 제1차5개년계획(1979년 3—

1984년 3월)을 수행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약 7천 500키로메터(포장도로 2천 500키로메터), 철길은 약 7키로메터정도이다. 항공운수가 국내주요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자색가죽, 양털, 주단, 파일, 천연가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여러가지 기계, 섬유제품, 운수수단, 화학비료 등이다. 양가죽과 양털, 목화, 파일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주민의 80%이상이 글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처에 문맹퇴치강습소들을 설치하고 글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배워주고있다.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주민의 95%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다 사우르 인킬라브(푸슈투어, 국가중앙기관지), 아니스, 카불 타임스, 할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10월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9년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와 바크타르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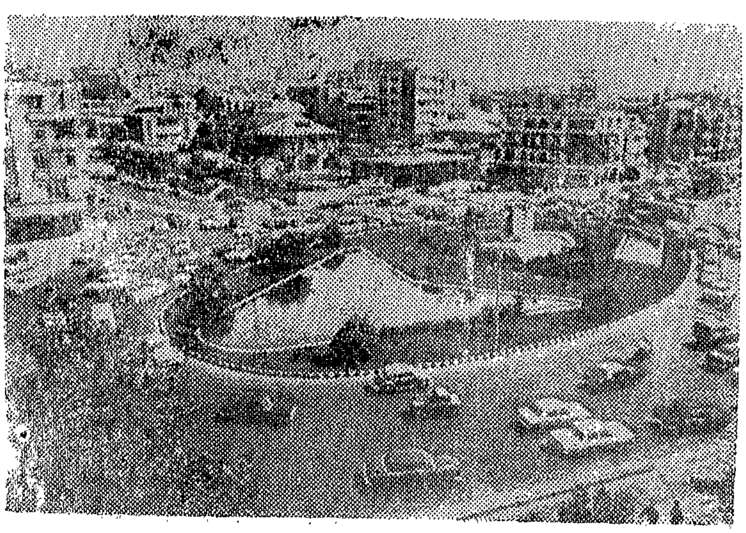
이 란

(이란회교공화국)

넓이 164만 8,000km²

인구 3,521만명(1978년)

수도 테헤란(주민 약 50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서남쪽 까스삐해와 아랍만 사이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평균높이 해발 1,000m)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메마른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이다. 평균기온(중부고원지대)은 제일 높을때 45°C, 제일 낮을때 —20°C이며 한해평균강수량(까스삐해벌방지대)은 1,000～1,300mm이다.

주민은 약 70%가 이란인, 25%가 토이기인 그밖에 아제르바이쟌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페르샤어이며 영어, 프랑스어, 북서부에서 토이기어가 통용된다.

정 치

회교지도자 이란의 최고 정치 및 정신적 지도자로서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인민대중의 선거를 받은 대통령을 비준하거나 해임하며 3군사령관, 총참모장, 혁명방위사령관, 국방부장 기타 2명의 고문관들을 직접 임명한다. 최고군사령관을 겸한다. 회교지도자 아야톨라호 이맘 코메이니

회교혁명리사회 1979년 1월 12일 창설, 14명으로 구성

국회 1원제, 임기 4년, 총의석 270석, 국회의 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회교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회교지도자의 지도하에 움직인다. 대통령 아볼 하싼 바니사드르(1980년 2월 4일—)

정부 1979년 2월에 구성된 바자르간정부가 11월 6일에 사임하고 11월 16일 혁명리사회는 16명으로 된 새내각 각료들을 임명, 총리직능은 혁명리사회가 수행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20년에 공산당으로 창건, 혁명후 합법화, **회교공화당** 제1비서 베헤쉬티, **민족민주전선** 1979년 3월 5일 창건, 민족주의적인 지식인들의 정당

이란은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를 세웠으며 페르샤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1935년에 이란이라고 고쳤다.

이란인민들은 1941년부터 정권을 잡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던 파흐라비황제정권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군주제를 반대하는 이란인민들의 투쟁은 1978년 9월부터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직화되여 전인민적봉기로 발전하였다.

1979년 2월 11일에 황제정권이

전복되고 혁명이 승리하였다. 혁명후 이란인민들은 황제독재시기의 파쑈적인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새로운 회교국가체제를 갖추었다.

1979년 3월 30일과 31일에 전국각지에서 군주제도를 청산하고 회교공화국을 세울데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4월 1일 이란회교공화국이 선포되였다. 5월에는 회교혁명방위대가 구성되였다.

12월 2일과 3일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회교헌법을 채택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여 1980년 1월 25일에 이란력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2월 4일 바니사드르가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3월과 5월에는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정부는 2월 5일 황제와 그의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6월에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7월 5일에는 공업의 기간부문을 국유화하였다.

이란정부는 5월 13일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군사고문들에게 외교적특권과 특전을 부여하고있던 법을 무효로 선포하였으며 9월에는 이란군부내에 미국군사인원들을 두기로 하였던 1943년도 법을 페지할데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고 이 법에 따라 지난시기 미국과 체결하였던 쌍무적협정을 취소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영화들의 상영을 금지시키고 미국의 에이피통신사 이란지국을 페쇄하였다.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예비병들을 등록된 부대에 들여보내고 《비상사태훈련》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 이란은 쁠럭불가담에 기초한 반제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9년 2월 18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또한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정권과 맺었던 외교관계, 모든 무역경제적관계를 단절하였다. 이 나라들에 대한 석유판매도 중지하였다.

3월 11일에는 반동적인 군사쁠럭인 쎈토에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과의 관계악화

혁명후 이란인민들은 이전황제 파흐라비가 집권시기 감행한 죄행을 폭로하면서 해외에 도망간 파흐라비를 이란에서 재판을 받도록 송환할것을 요구해나섰다.

10월 30일 이란은 외교부각서를 미국무부에 보내여 미국에 망명한 파흐라비를 이란에 넘겨줄것을 정식 요구하였다. 이란인민의 응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파흐라비를 돌려주지 않게 되자 11월 4일 이란회교도학생들은 이란주재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성원들을 잡아가두었다. 그들은 파흐라비를 이란에 돌려보내지 않는한 이들을 석방하지 않을것이라는 강력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11월 5일 이란은 미제와 맺은 1959년 3월의 《협조조약》을 페기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이란의 주요항구들에서 미국유조선들에 대한 석유상선을 정지시켰다. 11월 13일 이란은 미국비행기와 선박들이 이란의 령공과 령해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고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4일에는 미국은행에서 운영하고있는 120억딸라의 정부자금을 인출하여 구라파은행에 옮긴다고 발표하였다.

이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11월 미제는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의 금지, 미국에 있는 이란정부자금의 동결, 이란에 대한 식량과 상품수출의 중지와 같은 경제적봉쇄조치와 군사적위협으로써 대답하였다.

미제는 아랍만과 아라비아해에 4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37척의 군함과 300여대의 비행기, 근 4만명의 침략무력을 들이밀었으며 선발된 인원들로 미국내에서 《사막지대에 익숙》하는 군사훈련을 맹렬하게 벌렸다.

미국대통령 카터는 이란과의 《즉시적이며 전면적인 외교관계단절》, 대이란수출의 전면금지, 이란인의 미국입국사증발급중지와 이미 발급된 입국사증의 무효화 등 내용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였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중근동정세는 긴장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란에서는 민족경제의 창설을 경제건설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정부는 1979년 6월 8일 모든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그 은행들을 관리하는 국가행정리사회들을 조직함으로써 은행자본을 민족경제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6월 11일부터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한 이란중앙은행의 국유화된 자금총액은 1천 700억리알(24억딸라)에 달하였다. 또한 6월 25일에 모든 외국보험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7월에는 채취공업, 야금공업, 선박공업, 자동차공업, 식료공업, 일련의 중요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나라의 경제적독립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관리체계를 세웠다.

특히 공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원유채취와 그 가공에 힘을 넣었다.

우선 지난 25년동안 이란의 석유판매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서방 국제석유대자본련합의 14개 석유회사들을 추방하였다.

또한 일산 400만바렐의 원유생산목표를 내세우고 외국의 기술적원조없이 자체의 힘으로 3월 5일부터 원유를 하루 70만바렐씩 다시 수출하였으며 4월에는 하루에 430만바렐씩 생산하였다.

원유생산이 혁명이전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국제시장에서의 원유가격이 64%인상된 까닭에 원유수입총액이 그전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란은 원유생산국이지만 원유이외에 전통적으로 세멘트, 유리, 약품, 물감, 천, 양탄자 등을 생산한다.

또한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법안을 발표하고 이전 정권의 지지자들과 대지주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들을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벼, 목화, 사랑무우, 포도, 대추야자이다.

이해에 나라에서 가장 큰 《아리야》선박항행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대외업무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물자공급은 국가가 통제하는 130개의 무역쎈터를 거쳐 진행하게 되였다.

이란정부는 황제정권지지자들의 소유였던 건물들과 살림집들, 외국인이 경영하던 병원들을 국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정권으로부터 박해받던 세대들과 혁명투쟁시기에 부모와 친척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 살림집과 재산을 리용하게 되였다.

또한 이해에 5만 4천개의 주민지점들을 수도화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었다.

이해에 사립학교제를 없앴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란국제통신, 빠르스통신

신문 카이한, 에떼라뜨, 마르돔(인민)

방송 《혁명의 소리》방송, 이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에는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다.

1979년 2월 우리 나라 정부가 이란정부를 승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1979년 3월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넓이 43만 4,924km²

인구 1,290만명(1979년)

수도 바그다드(주민 32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서남부 아라비아반도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아열대성 및 대륙성 기후로서 여름에는 몹시 덥고 메마르며 겨울에는 따뜻하다. 바그다드의 한해평균기온은 21～25°C, 평균강수량은 200mm이다.

주민의 75%이상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쿠르드인(20%), 로이기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68년 7월에 창설된 최고지도기관, 22명으로 구성, 리사회는 대통령을 선거, 위원장 싸담 후쎄인(1979년 7월 16일—)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싸담 후쎄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이라크지역지도부 총비서 싸담 후쎄인, **쿠르드민주당, 민족진보전선** 1973년 7월 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들의 통일전선체, **로동조합총련맹, 청년총동맹, 녀성총동맹**

1958년 7월 14일 립헌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7월 17일 아레프정권이 무너지고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80년부터 7월 17일을 민족적명절로 경축한다고 발표)

이라크정부는 7월 17일혁명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과 물자원들을 국유화하였다.

1973년 7월에는 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공산당, 쿠르드민주당, 쿠르드혁명당, 쿠르드진보당 등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인 민족진보전선을 뭇고 진보적세력의 협조를 통하여 새 사회건설을 진행하였다. 1979년에 민족진보전선에서 공산당이 탈퇴하였다.

1979년 7월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건강상 리유로 사임하고 싸담 후쎄인이 아랍사회부흥당 이라크지역지도부 총비서로, 이라크공화국 대통령으로, 이라크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79년 7월 정부는 정변음모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라크는 수리아와의 통합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정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민족공동행동헌장》에 조인한 후 수리아와의 접촉을 진행하였다.

1979년 1월에 후쎄인이 수리아를 방문하여 두 나라 당의 통합문제, 호상방위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9년 6월에는 아싸드가 이라크를 방문하여 최고공동정치기구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담결과 이라크—수리아공동정치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정치선언에 의하면 이라크와 수리아는 통합정치지도부와 두 나라의 당과 립법기구들을 통합하기 위한 당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으며 통일국가헌법 최종초안을 작성할 립법기구위원회와 통합군사지도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라크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 7월 이스라엘과 무역관계를 계속 맺고있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237개의 외국회사들과 상사들을 배척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에 꼴롬비아와 외교관계(1월)를 맺었으며 수리아와 보도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인도와 농업, 기술, 과학, 경제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2월), 스리랑카와 수산, 기술일군양성, 무역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3월), 리비아와 무역 및 보도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6월)들을 체결하였다.

이해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2월), 방글라데슈대통령(3월), 리비아혁명의 지도자(6월), 말가슈대통령(11월)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라크정부는 나라의 풍부한 원유를 리용하여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5개년계획(1976—1980년)기간에 민족공업에 40여억 이라크디나르를 투자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유공업에 11억이라크디나르, 화학 및 원유화학공업에 8억 9천여만이라크디나르를 돌렸다.

국가수입의 90%가 원유에서 들어온다. 확정된 원유매장량은 360억바렐이며 1978년에 채취량은 1억 1천 500만톤이였다. 천연가스생산량은 17억립방메터였다.

원유, 천연가스외에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연, 동, 코발트 등이 있다.

정부는 5개년계획기간에 원유공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건재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민족공업의 다른 부문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1979년에 60여개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 학교, 병원 건설을 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세멘트, 벽돌, 비료, 방직, 식료 공장을 비롯한 26개 대상이 이해에 조업하였거나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공업총생산액의 90%는 국영공업에서 들어온다. 모든 생산수단의 3분의 2이상이 국영부문에 집중되여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일하고있다. 부침땅이 약 1천 400만헥타르라고 하지만 실지 리용되고있는땅은 약 8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밀, 보리, 벼, 목화, 담배, 콩 등이다. 1978년에 80만톤의 보리를 걷어들였다.

대추야자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약 절반, 세계거래량의 80%를 차지한다. 대추야자는 1976년에 50만 1천톤 생산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1천 915키로메터, 도로는 1만키로메터 정도이다. 1979년에 3천 500키로메터에 달하는 70여개의 자동차간선도로를 건설하였다. 새 도로들은 수도로부터 수리아, 요르단 등 이웃 나라들과 지방도시, 변강주들과 련결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5%), 대추야자, 양털, 가죽,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흑색금속제품, 기계설비, 농기계, 자동차, 의약품, 전기가정용품, 섬유제품, 일용품, 사탕, 밀 등이다. 대외무역의 80%이상을 국가가 장악하고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문맹퇴치, 직업교육, 고등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1978년 5월에 전국문맹퇴치운동법령을 발포하고 문맹퇴치최고리사회와 2만 5천개의 문맹퇴치소를 내왔다.

직업학교수는 1979년에 109개로, 학생수는 4만 8천명으로 늘어났다. 1978년말 현재 의사수는 5천 700여명, 간호원수는 4천 200여명이였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기독교도는 23만명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샤아브(공산당기관지), 알 줌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방송 이라크방송, 바그다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정, 1971년 4월에는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9년 9월 20일 바그다드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이라크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리행을 위한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69년 7월 6일에는 이라크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24일에는 조선통일지지이라크전국위원

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 8일에 이라크 디아라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수리아

(수리아아랍공화국)

넓이 18만 5,180km²
인구 880만명(1977년)
수도 디마스끄(주민 120만명, 1978년초)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서부 지중해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토이기,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다. 지중해연안의 서부지역은 비옥한 농업지대이나 내륙부는 사막이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 비가 오며 여름에는 메마르고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한해평균기온(서쪽바다가)은 18°C이며 평균강수량은 600~1,0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인 수리아사람이며 소수민족으로서 북부변강을 중심으로 쿠르드족, 아르메니야족이 있으며 사막지대에 베드윈족이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 총의석 195석, 임기 4년, 1977년 8월 총선거에서 민족진보전선이 159석(바아스당 125석차지), 법령에 의하여 의석의 50%이상은 로동자, 농민들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1973년 3월에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군총사령관,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 민족진보전선 위원장을 겸하며 부대통령, 총리 및 정부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시킬 권리를 가진다. 임기 7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1978년 2월 재선)

정부 총리 아브둘 라우프 알 카쎔(1980년 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 1958년 11월에 각각 갈라짐, 민족진보전선의 규약에 의하여 1972년 3월 47년만에 처음으로 합법화, 총비서 할레그 바그다쉬, **아랍사회부흥당(바아스당)** 집권당, 1954년 아랍부흥당과 아랍사회당이 합당하여 결성,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 사회주의자련합, 아랍사회당, 민족진보전선** 1972년 3월 7일 진보적정당 5개를 련합하여 결성,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리아인민은 프랑스,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46년 4월 17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1958년 2월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9월 탈퇴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3월 8일에는 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 1970년 11월 시정조치가 있은후 새정부가 구성되였으며 1971년 2월에 인민회의가 선거되고 3월 아싸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2년 3월 아랍사회부흥당, 공산당, 아랍사회주의동맹 등 진보적인 정당을 망라하는 민족진보전선을 결성하였다.

1978년 3월 8일 아싸드는 대통령취임연설에서 민족진보전선을 강화하며 경제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리아는 모든 형태의 침략과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해방운동들과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들을 지지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9년 6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수리아의 반동들을 부추겨 알레포에서 사관학교학생 50여명을 집단학살하였으며 그후 각종 모략책동을 벌렸다.

이해에 수리아대통령이 이라크(6월), 쏘련(10월)을 방문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대통령(2월),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5월), 리비아혁명의 지도자(6월), 로므니아대통령(8월)이 수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수리아—이라크 통합문제

수리아와 이라크 사이의 통합은 1978년 10월 24일 수리아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라크대통령과 가진 회담끝에 《민족공동행동헌장》이 조인된 이후부터 급속히 추진되였다.

두 나라 사이에는 통합과 관련한 대통령들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접촉과 호상방문이 빈번하였으며 이 과정에 정치, 공보, 문화사업위원회, 경제및기술협조위원회, 군사협조위원회, 교육과학연구위원회 등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1979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디마스끄에서 수리아—이라크최고공동정치기구 제2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공동행동헌장》이 조인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공보, 국방 등 공동분과위원회들의 사업결과를 토의하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역, 공업, 농업, 관광, 관세장벽제거분야에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수리아령토를 통한 이라크석유의 수송을 재개하고 두 나라의 물

품들에 대한 관세를 서로 면제하며 1981—1985년 두 나라 《경제발전총계획》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통합과 관련하여 기본문제로되는 두 나라 당의 통합문제, 대내외적안전보장문제들과 아랍지역의 사태 등을 토의하였으며 해당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1979년 6월 수리아—이라크최고공동정치기구회의에서는 이라크—수리아통합정치지도부를 내오며 두 나라의 당과 립법기구들을 통합하기 위한 당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통일국가헌법 최종초안을 작성할 립법기구위원회와 통합군사지도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수리아는 경제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있다. 제4차5개년(1976—1980년)계획기간 경제발전에 지출하는 자금의 80%를 국영부문에 돌렸다. 전체 근로자들의 70%가 이 부문에 종사하며 실지 국영부문의 생산비중이 공업에서 80%이상에 달한다.

전력공업, 채굴공업, 철도운수, 대외무역, 은행, 보험은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1979년에 전력생산은 33억키로와트시로 늘어났고 367개마을이 전기화(1978년)되였다.

이해에 30만키로와트능력의 발전소, 600만톤능력의 원유정제공장을 비롯하여 새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조업하였다.

공업에서는 방직공업과 식료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최근년간에 석유공업이 발전하였는데 1976년에 탐사된 매장량은 70억바렐, 생산량은 1977년에 1천 11만 7천톤이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생산이 3분의 1,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3분의 2에 달한다.

1979년현재 28만명을 망라하는 3천 400개의 협동조합이 농업생산의 40%이상을 담당하였다.

부침땅은 1978년현재 424만헥타르, 관개면적은 70여만헥타르였다. 그 가운데서 밀밭은 126만헥타르, 보리밭은 75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담배, 목화이다. 1978년에 알곡은 291만 8천톤(그가운데서 밀은 160만톤, 보리는 60만톤), 목화는 14만 9천톤 생산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총수출액의 15%), 밀, 보리, 양털, 가축, 원유와 그 제품, 파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기계설비, 화학제품, 인민소비품 등이다.

1979년 9월에 이미 있던 3개의 종합대학이외에 새로운 종합대학이 홈스도에 나왔다. 이 나라에는 3개의 농업대학, 1개의 축산대학, 9개의 농업기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합 1만 1천 250여명의 기사, 기술일군들을 양성하여 농업부문에 보냈다.

1978년 6월현재 112개의 병원과 276개의 진료소가 있었다. 1978년 3월에 디마스끄에 첫 아동병원이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아랍사회부흥당기관지), 티슈린(정부기관지), 알 사우라, 알 피다, 니달 알 팔라힌

방송 수리아방송, 수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7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10월 4일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6년 6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8년 12월에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0년 3월 28일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1일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수리아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리아아랍공화국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

1979년 4월 18일 디마스끄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정부사이의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이해에 수도와 지방도시들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4월 14일 홈스도에서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홈스도지부와 아랍사회부흥당 홈스도지도부의 주최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인민군(민병)사령부관하 꾸네이트라도부대에서 4월 19일에,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디마스끄에서 6월 26일에, 꾸네이트라도인민군훈련소에서 7월 24일에,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와 아랍사회부흥당 따루뚜스도당의 공동주최로 따루뚜스에서 7월 2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을 기념하여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홈스도에서 9월 4일에 경축집회, 련대성집회, 기념집회들이 각각 진행되였다.

이해에 조선로동당대표단(6월), 우리 나라 당 및정부대표단(11월)이 수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넓이 1만 400km²
인구 296만명(1976년)
수도 바이루트(주민 80만명)

자연 및 주민

지중해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동쪽은 수리아, 남쪽은 이스라엘과 잇닿아있다.

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의 특성을 가지고있어 여름에 무덥지 않으며 겨울에도 따뜻하다. 동부산지대는 춥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평균기온은 1월에 13°C, 7월에 28°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9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들이며 약 35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영어, 프랑스어도 많이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석수 99석, 임기 4년, 국회는 기독교도(53석)와 회교도(45석)가 6대 5로 구성된다. 기타 1석

대통령 마론파(기독교도)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수 있다. 임기 6년, 대통령 알야스 사르키스(1976년 9월—)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 1979년 7월 16일 새 정부 구성, 총리 셀림 알 호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44년에 독자적인 당으로 됨, 위원장 니꼴라 샤우이, **사회진보당** 회교도계, **팔랑헤당** 마론파기독교도들을 망라, **아랍사회부흥당**, **국민자유당**, **국민블럭**, **로동자총련맹**, **민주청년동맹**

레바논인민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43년 11월 22일 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레바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회교도와 기독교도사이의 교파싸움으로 정치적불안정이 계속되여왔다.

1957년 샤문대통령(기독교도)이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원조》를 받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에 반발하는 회교도와 기독교도의 무력충돌이 각곳에서 일어나 1958년 5월부터는 국내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샤문대통령은 1만명의 미군을 끌어들여 탄압하였다. 그후 내각성원을 늘여 각파로 정부를 구성하고 내전을 종결시켰다.

1975년 4월부터 1년 9개월에 걸쳐 기독교도와 회교도사이에 또다시 국내전쟁이 일어났다. 1976년 11월 21일 아랍수뇌자회의 결의로 정전이 실현되였다.

국내전쟁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북부에는 아랍평화유지군이, 남부에는 유엔아랍평화유지군이 각각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전쟁이 끝난후에도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침략과 분렬책동으로 레바논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1979년 4월 17일 레바논정부는 국내전쟁기간에 분렬되였다가 다시 《서서히 재건되고있는》정부군을 통해 전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군 1개대대를 우익기독교도세력들이 장악하고있는 남부레바논지역에 파견하였으며 18일 티레시로 진주하여 레바논주둔 유엔아랍평화유지군의 협력밑에 이 지역의 5개 초소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레바논우익반동들은 정부군의 티레시진주를 극력 반대하면서 레바논을 분렬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책동을 감행하였다.

레바논정부군이 티레시로 진입하게 되자 우익반동두목 하다드놈은 4월 18일 메룰라에서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이스라엘과 접경한 지대(레바논령내 15km로서 50마일연선지역)를 《자유레바논》으로서 《독립》시킨다고 선포하였다.

미제의 부추김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비호밑에 하다드놈이 남부레바논에 《자유레바논》의 《독립》을 선포한데 이어 5월 7일 레바논국민자유당 당수 샤문(이전대통령)의 아들놈은 중부레바논의 배후지역이며 우익기독교도들의 통제지역인 수도 바이루트북부의 마운트레바논지역(800평방마일)을 자치주로 선포하겠다고 도전해나섰다. 국민자유당은 레바논을 《회교도자치주》들과 《기독교도자치주》들로 구성되는 《련방제수립》을 들고나오고 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우익반동들의 준동이 더욱 우심해지는것과 관련하여 레바논대통령 사르키스는 4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부레바논의 《독립》선언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4월 25일 레바논정부는 남부레바논정세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사회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레바논우익반동들을 부추겨 레바논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면서 남부레바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비행기, 군함, 땅크 등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레바논우익반동세력들과 함께 레바논에 있는 수리아아랍합동평화군과 팔레스티

나유격대및피난민수용소들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침략을 감행하였다.

8월하순 이스라엘군용기들의 지휘밑에 이스라엘침략군과 레바논우익반동들은 서부의 티르시로부터 동부의 서부베카에 이르는 수십개의 남부레바논주민지역들에 대한 무차별사격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레바논반동들에게 각종 무기를 대주었으며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레바논우익반동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레바논과 수리아전선, 요르단전선까지를 포괄하는 침략전쟁을 벌리도록 사촉하였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레바논우익기독교도세력의 하다드일당은 이스라엘로부터 매달 근 1천만이스라엘파운드를 받으면서 레바논이 《자유레바논공화국》에 《합세》하라는 《최후통첩》을 들이대면서 《자유레바논공화국령토》를 《확대》하기 위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였다.

레바논국민자유당 당수인 우파기독교도세력련합의 《레바논전선 지도자》샤문놈은 하다드놈과 밀담을 벌리고 바이루트중앙의 우파기독교도세력과 남부레바논의 하다드우파군파의 《결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레바논우익반동세력들은 남부레바논주둔 유엔아랍평화유지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이들이 팔레스티나유격대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허위날조하고 유엔아랍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레바논정부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유엔과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재》와 아랍수뇌자회의를 소집하여 중지시키려 하였다.

8월 레바논외교부장은 남부레바논사태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사회 긴급회의소집을 요청했으며 레바논총리는 이스라엘을 《설득》시켜 남부레바논에 대한 놈들의 《초토화》전을 중지시키도록 《미국정부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정부와 회담》해줄것을 요청하였다. 레바논대통령은 남부 레바논사태를 취급하기 위해 아랍긴급수뇌자회의를 소집할것을 요청하는 친서들을 아랍나라국가수반들에게 보냈다.

8월 29일에 열린 유엔안보리사회 긴급회의는 남부레바논지역사태를 토의하고 유엔사무총장이 량측이 정전을 유지하라고 호소하는데 그쳤다.

1979년 12월 19일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아랍평화유지군의 주둔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4월 레바논은 애급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무역, 상업, 관광업이다.

무역은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중계무역은 국가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바이루트항을 거치는 중계무역량은 해마다 30만톤이상에 달한다.

레바논은 중근동에서 《재정금융지》로서 75개이상의 외국은행이 활동하고있다.

관광업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하며 약 8만명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하며 주민의 절반이 농사한다. 농업총생산액에서 45%는 과일생산이 차지한다. 30만헥타르의 부침땅가운데서 10만 5천헥타르에서 과일을 재배하고있다. 식량은 수요량의 75%이상을 수입한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약 15%를 차지하며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경제는 국내전쟁으로 심히 파괴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약 670키로메터정도이며 주요항구는 바이루트항, 트리폴리항이다.

주요수출품은 귤, 사과, 바나나 등 과일과 남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원유및원유제품, 설비품 등이다.

주민의 60%는 회교도이고 40%는 기독교도이다. 이 두 교파는 여러갈래의 파로 갈라져있다.

출판보도; 통신 레바논통신

신문 알 안와르, 안 나하르, 알 하야드, 알 욤, 알 사아브, 알 모하레르, 알 쥼후리예

방송 레바논방송, 레바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5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설치되였다.

1969년 2월 14일 레바논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9월 2일에는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7월 24일 사이다시에 《김일성도서관》이, 1978년 3월 10일에는 바이루트에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있는 레바논인민들은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김일성주의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

1979년에 레바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등을 비롯하여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모임들을 진행하였다.

레바논인민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2월 15일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와 레바논조

선진선협회는 공동주최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12월 5일에는 레바논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요르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넓이 9만 7,740km²
인구 290만명(1978년)
수도 암만(주민 85만명)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 반사막, 산지이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메마르며 겨울은 따뜻하다. 8월평균기온은 30°C, 1월평균기온은 2°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서부지역)은 600～800mm(사막지대는 100mm미만)이다.

주민은 아랍족이 기본이며 그밖에 쿠르드족, 희랍족, 아르메니야족 등이 있다. 또한 85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30명, 임기 4년, 국왕이 임명하며 2년마다 절반을 다시 임명, 하원의원 60명, 임기 4년, 1967년 국회선거 진행, 1971년에 임기를 3년간 연장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총리를 임명하며 법령을 비준하고 국회를 소집 또는 해산할수 있다.

3군총사령관을 겸하며 군대의 통수권을 쥐고 있다.

국왕 아미르 아브달라흐 후쎄인 1세(1952년—)

정부 1979년 12월 19일 내각 개조, 총리 앗샤리프 아브둘 하미드 샤라프(외교부장,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1957년 4월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됨, **공산당** 1943년에 창건, 1951년까지 민족해방련맹이라고 부름, **아랍민족련합** 유일한 정치조직이였으나 왕이 1974년 4월에 해산

1946년 5월 25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였으며 1949년 3월 팔레스티나전쟁후 아랍측에 남은 팔레스티나동부지구를 통합하여 하쉐미트요르단왕국을 선포하였다.

1958년 2월 14일 이라크와 《아랍련방》을 형성하였으나 이라크에서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도가 전복됨에 따라 이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전쟁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요르단은 요르단강서쪽의 5천 6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땅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요르단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1967년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서쪽강안지역을 이스라엘에 빼앗긴 탓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가시기 위하여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여 나라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중동문제를 아랍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5년에 요르단정부는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요르단군의 통제밑에서 자기 나라에 주둔하는것을 허용하였다.

1977년 3월 팔레스티나대표단과 회담하고 발표한 공보에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라는것을 확인하였다.

1979년 3월 28일 정부는 애급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것과 관련하여 까히라주재 자기 나라대사를 철수시키며 4월 1일에는 애급과의 외교, 정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9일에는 애급의 멘통신사 특파원을 추방하였다.

5월에는 국내에서의 애급 영화상영 및 출판물판매와 애급과 무역거래를 하는 상사와 회사들에서 요르단 공민들이 일하는것을 금지하였다.

1979년 9월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에는 중국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요르단왕이 수리아(1월, 7월), 알제리(6월), 프랑스(6월), 이라크(10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목축업이며 주민의 83%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0분의 1정도이며 주로 요르단강골짜기에 집중되여있다. 관개된 땅은 1%밖에 안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콩, 올리브, 바나나, 포도, 귤 등이다.

목축업은 사막 및 반사막 지대에서 유목형태로 진행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당나귀, 락타 등이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관개공사를 적극 벌리며 토지를 개량하고 부침땅을 늘이는 등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공업에서는 린회석채굴이 기본이며 이것은 수출의 35%를 차지한다. 이밖에 석회석, 대리석채취와 가공, 세멘트생산을 한다. 이 나라의 대리석은 세계적으로 그 질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원유가공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이 나라를 통해 레바논에 들어가는 송유관의 원유통과값으로 약간의 원유를 받아 정제하는 정도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수리아와 이라크를 련결하는 자동차길(9천키로메터)과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련결하는 한 줄기의 철길(329키로메터)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린회석(수출총액의 35%), 축산물, 남새, 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섬유원료, 기계류, 흑색금속제품 등이다.

주민의 80%이상이 글을 모른다.

주민의 80%이상이 회교도이며 기독교도가 8%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요르단통신

신문 알 데스투르, 알 라이, 알 사바, 알 쏴하피, 요르단 타임스

방송 하쉐미트요르단방송, 요르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6월 15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1월 24일에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6년 9월 9일에는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요르단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11명의 인사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9년에 요르단국회대표단(5월), 정부교육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이 요르단을 방문하였다.

이 스 라 엘

넓이 2만 700km²(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

인구 369만명(1978년, 강점지역인구 제외)

수도 텔 아비브(주민 35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지중해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레바논, 요르단, 애급과 잇닿아 있다.

기후는 여름에 몹시 덥고 메마르며 겨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중해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차이가 심하다.

주민은 84%가 유태인이며 그밖에 아랍인이 있다.

공용어는 헤브라이어이나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총의석 120석, 임기 4년, 1977년 5월 17일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리쿠드당(우파련합) 43석, 레이버당 32석, 국가종교당 12석, 민주주의운동 15석, 정통종교당 5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 국회에서 선출, 5대대통령 이쯔하크 나본(1978년 4월—)

정부 1977년 6월 19일 리쿠드당, 국가종교당, 정통종교당, 민주주의운동(10월 참가)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메나헴 베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팔레스티나공산당으로 창건, 1948년 5월 이스라엘공산당으로 이름을 고침, 총비서 메이르 빌너, **리쿠드당**(우파련합), **레이버당**, **국가종교당**, **민주주의운동**(변혁을 위한 민주운동), **정통종교당**, **독립자유당**, **통일로동당**, **전국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침략적야욕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할 《돌격대》로서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된 다음날인 1948년 5월 15일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켜 약 6천 7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아랍땅을 강점하였다.

1956년 10월에는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던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67년 6월 5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여 애급의 시나이반도와 가자지역,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 서쪽지역 등 6만평방키로메터의 아랍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1973년 10월 놈들은 아랍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제4차중근동전쟁을 도발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78년 3월 14일에 남부레

바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6월 13일까지 남부레바논을 강점하였다가 아랍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레바논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레바논우익반동들을 무장시켜 레바논을 분렬에로 추동하는 한편 레바논령토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침략을 감행하였다.

1978년 3월부터 1979년 8월에 이르는 기간에 레바논의 3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죽이고 1천여명을 부상시켰으며 티르, 사이다, 나바티야 등의 도시들과 팔레스티나피난민수용소들을 비롯한 많은 촌락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제는 1979—1980회계년도에만도 이스라엘에 18억딸라를 제공하여 아랍나라들에 대한 침략에로 내몰았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은 《대이스라엘구상》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베긴정부의 《대이스라엘구상》이란 아랍강점지역에 200만명의 유태인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강점지역의 인구구성과 지리적성격을 변경시켜 강점지역에 대한 《합법적지위》를 얻어보려는 영구강점책동이다.

이 령토팽창목적을 실현하려고 놈들은 1979년 11월까지 도합 130여개의 군사화된 이스라엘《정착촌》들을 건설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점한 요르단강 서쪽지역의 아랍령토에만 하여도 9만 1천여명의 유태인들이 이주정착하고있다.

이스라엘은 1979년 3월 26일 애급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3월 28일부터 철수하여 5월 25일에 7천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지역을 애급에 넘겨주었으며 11월에는 해마다 200만톤의 석유를 애급으로부터 공급받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1980년 2월에 애급에 대사관을 내왔으며 4월에는 애급과 직접 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스라엘의 1979년 예산규모는 110억딸라인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대외빚에 뜯기웠고 또 3분의 1로는 나라안의 수많은 빈구멍을 막았으며 나머지는 군사비로 퍼부었다.

공업의 기본은 군수공업이다. 비행기, 땅크, 대포, 로케트, 장갑수송차 등 살륙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업에 30만명이 종사한다.

이스라엘은 칠레, 빠라과이, 쌀바도르, 과떼말라 등의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정권들에 무기를 팔아 해마다 3억~4억딸라의 수입을 얻고있다.

군수공업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잘것없는 민수공업이 있다. 금강석연마, 광학유리, 린비료, 면방직, 다이야, 세멘트, 종이, 자동차조립, 정밀기계, 석유가공, 식료공장들이 있을뿐이다. 이것마저 이란, 이라크, 아랍추장국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경제관계를 맺고있는 회사, 선박들을 배척한 탓으로 제대로 조업하지 못하고있다.

농업은 귤, 포도, 레몬, 올리브 등의 수출용열대과일재배에 치우쳐있으며 주민의 약 18%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42만헥타르, 관개된 땅은 17만헥타르이며 여기에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담배 등을 심고있다. 식량은 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연마한 금강석(공업품수출의 50%), 광학유리, 감귤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연마하지 않은 금강석, 식량,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원유제품, 수송설비 및 전기설비이다.

경제의 군사화, 민수공업의 침체로 말미암아 1979년 한해동안에 생계비가 111%로 올랐다. 그리하여 1978년에 가족당 평균 생계비가 1만 1천 500이스라엘파운드였던것이 1979년 12월에는 2만 4천 500이스라엘파운드로 올랐다. 특히 베긴집권기간에 생계비가 440%나 껑충 치달아올랐다.

1979년에 대외수지적자는 42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대외부채액은 150억딸라로 늘어났다.

청소년들속에서 부패타락한 마약중독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35만여명이 마약을 쓰고있으며 10만명이 마약에 중독되여있다.

마약사용자의 80%가 20살부터 35살까지의 젊은이들이며 10%는 10살부터 19살까지의 미성년들이다.

신학교가 150여개 있고 모든 학교들에서 유태복고주의를 설교하는 교수시간이 년간수업시간의 3분의 1이나 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시위와 무리사직이 그칠새없어 교육행정은 마비상태에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유태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스라엘통신(아이엔아이), 이스라엘련합통신(아이티아이엠)

신문　콜 하암(공산당기관지), 하포엘 하트자이르(레이버당기관지), 알 하미쉬마르(통일로동당기관지), 다바르(전국로동총련맹기관지)

방송　콜 이스라엘방송, 중앙텔레비죤방송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넓이　214만 9,690km^2

인구　900만명(1977년)

수도　리야드(주민 66만 7,000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36만 7,000명, 회교성지)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5분의 4를 차지하고있는 아랍나라들중 제일 큰 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몹시 메마르고 덥다. 내륙부의 제일 높은 기온은 55°C에 달한다. 한해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100mm를 넘지 못하지만 산간지대에서는 400mm에 이른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85%)이며 그밖에 아프리카인, 이란인, 인도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국왕 세습적인 군주제국가로서 국왕은 국가수반,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종교적인 최고권력자로서 제한없는 권력을 가진다.

국왕 할리드 이븐 아브델 아지즈(1975년 3월—)

정부 총리 국왕이 겸한다. 각료들은 왕족들이 차지

정당 법에 의하여 일체 금지

사우디 아라비아는 16세기 토이기의 지배밑에 들어가 추장국들(히쟈즈, 네쥬드)로 갈라져있었다.

1926년 1월 이븐 사우드(네쥬드왕)가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1975년 3월에 파이살왕이 암살되고 할리드가 국왕으로 되였다. 할리드는 모든 분야에서 파이살왕의 정책을 그대로 계속할것이라고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에게 적극 추종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공동방위원조협정》(1951년 6월)을 맺고 비행장과 항구들의 사용권을 미제에 주고있다.

1979년 1월에 미제의 《에프—15》기 전투기중대를 끌어들였다.

1979년 3월에 리베리아와 2년간의 원유공급(매년 412만 5천바렐)계약을, 5월에 에스빠냐와 원유공급(매년 500만톤)계약을 맺었으며 11월에 미국과 쌍무적기술협조협정을 5년간 갱신하였다.

1979년에 사우디 아라비아왕이 마로끄(5월), 리비아(9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공업이며 국가재정의 85%를 원유에서 얻고있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227억톤, 원유생산량은 5억 1천만톤이였다.

원유정제공업은 약하다. 원유정제공장은 라스타누라(능력 1천만톤)와 지다에 각각 1개씩 있다.

원유공업외에 약간의 금, 동, 철, 돌소금 채굴과 수공업적인 령세기업체들이 있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10%정도 차지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1%도 안되며 그 대부분은 왕족들과 봉건령주들, 사원이 차지하고있다. 알곡생산은 20만톤안팎이며 국내수요의 10%밖에 안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대추야자, 커피, 남새 등이다. 대추야자생산(1975년에 26만 2천톤)은 이라크 다음이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말 등이다.

국내운수에서 락타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그 제품(수출총액의 약 95%), 대추야자, 과일, 양털, 양가죽, 집짐승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소비품, 기계설비, 수송수단 등이다.

주민의 약 95%가 글을 모른다.

회교의 본거지로서 회교규률이 엄격하다.

출판보도; 통신 사우디 아라비아통신

신문 알 빌라드, 알메지나 알몬와라, 알 리야드, 알 나드와하

방송 사우디 아라비아방송, 사우디 아라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쿠 웨 이 트

(쿠웨이트국가)

넓이 1만 7,818km²
인구 110만명(1977년)
수도 쿠웨이트(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북동쪽 아랍만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m밖에 안되는 무연한 사막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사막성기후로서 매우 메마르고 여름에는 몹시 덥다. 평균기온은 1월에 11°C, 7월에 35°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약 1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이다. 토착민은 47%정도이며 나머지는 이웃나라들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영어도 널리 쓰인다.

정 치

추장 국가수반으로서 법령을 비준하며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추장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1977년 12월—)

정부 1978년 2월 16일 구성, 총리 사아드 알 아브둘라흐 알 살렘 알 사바흐

쿠웨이트는 1961년 2월 25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963년 1월에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였으며 추장과 유목부족장들 그리고 실업가들의 세력이 절대적인 실권을 쥐고있었다. 그러나 1971년, 1975년의 총선거에서 아랍민족주의운동세력이 진출하여 정치적기초가 크게 변하였다.

1976년 8월 레바논내전문제를 둘러싸고 두파사이의 대결이 절정에 달하자 추장은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립법권을 추장과 내각에 주는 동시에 헌법에 규정되여 있는 보도, 출판, 의회에 관한 조항들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1980년 2월에 새 헌법초안작성특별정부위원회(35명의 각계층 주민대표들이 망라)를 내오는것을 승인하였다.

1979년 1월에 이라크와 남새, 우락제품 및 육류생산을 위한 공동회사를 창설할데 관한 협정, 6월에 방글라데슈와 경제, 문화, 무역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해 1월에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8월에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를 승인하였다.

1979년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2월), 기네대통령(3월), 리베리아대통령(4월), 방글라데슈대통령(6월)이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중근동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다음가는 원유생산국이다.

국가재정의 90%이상을 원유에서 얻고있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90억 6천 800만톤, 원유생산량은 1억 3천만톤이였다.

정부는 1975년 12월에 이 나라 원유생산의 90%를 독점하고있던 《쿠웨이트석유회사》(미, 영 합영), 1977년 9월에는 미국아미노일석유회사, 1979년 6월에는 쿠웨이트원유수송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979년 12월에 원유가격을 1바렐당 약 4딸라를 올려 26딸라로, 천연가스수출가격을 6%올려 액화가스의 톤당가격을 264딸라로 하였다.

정부는 원유공업일면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일면성을 퇴치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 화학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 등 기간적공업부문들을 새로 창설하였다.

1979년초에 액화가스공장(하루 생산능력 300만바렐)을 건설하였다.

쿠웨이트시에 있는 수아이바공업지구에는 1964년부터 공장, 기업소들이 서기 시작하였는데 1979년 6월에 와서는 큰 화학비료공장을 비롯하여 년산 30만톤능력의 세멘트공장과 원유정제공장, 물고기가공공장, 합성수지공장 등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였다. 또한 수아이바항이 확장되여 1978년에 항구의 짐처리량이 220만톤으로 늘어났으며 이해에 질소비료생산량은 30만 7천톤에 이르렀다.

오아시스와 인공관수에 의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콩과 남새이다.

바다가주민들은 진주채취와 물고기잡이도 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6%)와 원유제품이며 식량과 일체 소비품, 건재및시설품 등을 수입한다.

1976년에 각급 학교수는 325개에 달하였으며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 교원들의 대부분은 쿠웨이트사람들이다.

주민의 95%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쿠웨이트통신

신문 아흐바르 알 쿠웨이트, 알 카바스, 쿠웨이트 타임스, 알와딴,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 알라이 알 아암, 알 씨야싸

방송 쿠웨이트방송, 쿠웨이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20일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9년 1월에 우리 나라 체육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바 레 인

(바레인국가)

넓이 598km²
인구 27만 9,000명(1977년)
수도 마나마(주민 약 19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랍만의 까타르반도 북쪽에 있는 33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기후로서 무덥다. 기온이 40°C를 넘

을 때가 많으며 제일 낮을 때에도 18～20°C 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00mm정도이다.

주민의 85%이상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이란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추장 국가 수반,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 (1942년—)

각료회의(정부) 1975년 8월에 구성, 총리 쉐이크 할리파 빈 술만 알 할리파

정당, 사회단체; 합법적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바레인은 할리파일가의 세습군주제추장국이다. 1892년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71년 8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8월 16일 나라이름을 바레인국가라고 하였다.

독립후 《바레인화》의 구호를 들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977년 6월에 외래독점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 11월에 제국주의자들이 경영하던 모든 상점들을 국가가 장악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7년 6월에 영국과 맺은 쥬페르해군기지사용협정을 페기하였다.

1979년 12월 정부는 아랍만에 있는 미국군함들이 바레인항구들에 들어오는것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바레인은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이웃나라들과의 친선, 아랍만의 안전과 진보를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지역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9년 10월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가 아랍만지역의 안전조치에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9년 6월에 싱가포르와 경제협정을 맺었다.

이해에 추장이 싱가포르(6월), 총리가 이라크(10월)를 방문하였으며 리비아지도자(7월), 뉴질랜드총리(10월)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공업이다. 국민소득의 80%가 원유 채취 및 가공 부문에서 얻어진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3천 700만톤, 1978년에 원유생산량은 265만톤이였다.

1976년에 원유, 가스 등의 탐사, 가공, 수송, 저장, 판매 및 수출사업을 직접 맡아보는 국영원유회사를 창설하였다.

1979년 12월에는 미국석유독점회사 《텍사코 오일》이 주권의 40%를 차지하고있던 바레인원유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이렇게 되여 원유생산은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였다.

바레인섬의 중부에는 한해에 1천만톤능력의 원유가공공장이 있다. 그밖에 알루미니움제련공장, 세멘트공장, 벽돌공장 등이 있다.

주요공업도시이며 항구도시인 술만에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부두가 건설되고있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부침땅은 약 1만 5천에이커정도이며 3분의 2는 대추야자농장이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망고, 포도, 귤, 수박 등의 과일과 남새이며 벼도 약간 재배한다.

진주생산기지로 이름이 높다. 진주채취의 대부분은 일본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공업제품 등이다.

1975—1976학년도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4만 1천 750명정도였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우에이르 데일리 뉴스, 아호바르 알 하리지, 알 바레인 알욤, 알 자리다 알 라스미야

방송 바레인방송, 바레인텔레비죤방송

까 타 르

(까타르국가)

넓이 2만 2,014km²
인구 24만명(1977년)
수도 도하(주민 16만 5,000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다.

기후는 몹시 메마르고 덥다. 철바람이 주기적으로 불어 모래바람을 일구며 여름 (4～10월)의 기온은 45～60°C까지 올라간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00mm정도이며 사철 흐르는 강은 하나도 없다. 지하수도 염분이 많고 농사나 목축에 쓸 물이 적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이란인, 로이기인, 아프리카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추장 립법, 행정, 사법권을 쥐고있다.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1972년 2월—)
1977년 5월 하마드(맏아들)를 후계자로 지명
정부 추장이 총리를 겸한다.

까타르는 타니일가의 세습군주제추장국이다.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71년 9월 1일 독립하였다.

1972년 2월에 황태자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가 아흐메드 알 타니추장을 내쫓고 정권을 잡았다.

대외적으로 까타르는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쁠럭불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아랍만지역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국민소득의 약 90%가 원유생산에서 얻어진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7억 6천 700만톤이며 1978년에 원유생산량은 2천 350만톤이였다.

정부는 이 나라의 원유를 독점하고있던 미제의 《까타르석유회사》(1976년 9월)와 영국의 《까타르쉘 석유회사》(1977년 2월)의 주권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1979년 7월에 정부는 원유수출가격을 20% 높이였다. 그리하여 도크한유전의 원유수출가격은 1바렐당 17.84딸라에서 21.42딸라로, 할룰연안원유수출가격은 17.65딸라에서 21.23딸라로 되였다.

1980년초에 이 나라에서 세계 최대급의 천연가스밭이 발견되였는데 그 매장량은 4조 300억립방메터(추정)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집짐승들을 끌고 풀밭을 따라 다니면서 이동생활을 한다.

알곡작물로서 강냉이를 약간 심고있으며 남새와 과일을 생산한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진주채취를 한다.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없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수입품은 식량, 소비품, 자동차 등이다.

1975—1976학년도에 학생수는 3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까타르통신
신문 알 아랍, 알 아암, 알 오르바, 알 도하
방송 까타르방송, 까타르텔레비죤방송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넓이 8만 3,600km²
인구 86만 2,000명(1978년)
수도 아부 다비(주민 28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동쪽끝에 있는 7개의 추장국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대부분이 바위가 많은 사막지대로 되여있다.

기후는 메마르나 바다가지방에서는 습도가 90%에 달한다. 여름의 기온은 그늘진데서도 50°C를 넘을 때가 많다.

한해평균강수량은 약 100mm정도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자와슨족, 아부 아리족, 아부 파라살족을 기본으로 하는 아랍인들이다.

주민들은 도시와 촌락들의 정착민과 유목민으로 구별된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련방민족리사회 1977년 2월 16일에 창설
대통령 련방의 국가수반, 임기 5년,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1971년—, 1976년 12월 재선)
련방정부 총리 라쉬드 빈 사이드 알 마크툼(1979년 5월—)

1971년 12월 1일 6개의 추장국이 영국과의 《보호조약》을 폐기하고 련방을 창설하였으며 12월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에 라스 알 카이마흐추장국이 련방에 들어갔다.

아랍추장국련방은 추장을 원수로 하는 세습적인 군주국이다. 1976년 5월 련방의 군대통합이 실현되였다.

1976년 3월에는 련방내에 있는 모든 천연가스매장지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80년 1월 아랍추장국은 이스라엘과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146개의 외국회사들을 배척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아랍만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주장하고있다.

1979년 7월에 스리랑카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에 기네대통령(2월), 꼬모르대통령(3월),

자이르대통령(4월), 소말리아대통령(7월), 리비아지도자(7월), 말따총리(9월), 뉴질랜드총리(10월)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1960년대에 원유가 발견되면서 원유생산국으로 되였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47억 2천 900만톤, 원유생산량은 8천 900만톤이였다.

원유수출량은 원유수출국가가운데서 제11위를 차지하는데 매해 원유수출에 의한 수입이 약 100억딸라에 달한다. 원유의 대부분은 아부 다비에서 나는데 련방재정의 90%이상을 아부 다비원유생산에서 얻고있다.

아부 다비에 원유가공공장, 샤르자에 윤활유공장, 움 알 나르시에 75만톤의 능력을 가진 원유가공공장이 있다. 이밖에도 세멘트공장(년산 140만톤), 가루공장(하루생산량 200톤), 천연가스액화공장, 원유화학공장 등 19개의 공장들이 있다.

1979년에 약 10만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강냉이 등이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넓은 사막에 흩어져 살고있던 사람들을 비옥한 땅에 모여 농사를 짓게 하고있다. 1979년에 농업과 축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명이였다.

1978년에 11만톤이상의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였다. 주로 락타를 많이 기른다. 1978년말에 집짐승은 50만마리에 달하였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바이항은 이 나라의 중계무역중심지이며 주요원유수출항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 수산물이며 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수단, 식량, 일용품 등이다.

1978년에 각급 학교의 학생수는 10만명이였다. 병원수는 16개이며 침대수는 2천 500개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시아파)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추장국련방통신(왐)

신문 알 잇티하드(정부기관지), 아호바르 두바이, 아랍추장국련방뉴스, 알 와호다호, 알 워스바, 알 파즈르

방송 두바이방송

오　　만

(오만추장국)

넓이 21만 2,457km²

인구 150만명(1975년)

수도 마스까트(주민 7만명)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 아랍만의 입구에 자리잡고있어 전략상 요충지로 되고있다.

기후는 덥고 메마른 열대성기후이다. 1월평균기온은 20.7°C, 6월평균기온은 32°C이다.

한해 평균강수량은 130mm정도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이란인, 아프리카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추장 가부스 빈 사이드(1970년 8월—), 추장은 실권을 못가지며 대내외정책은 추장국주재 영국총령사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추장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오만해방인민전선 1971년 12월 20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이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앙조직인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창건, 1974년 7월 제2차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오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침, 추장정치를 반대하는 투쟁조직

오만은 18세기말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략탈대상으로 되였다.

1839년과 189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이 오만에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세력을 밀어내고 제놈들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오만인민들은 1913년 봉기를 일으켜 내륙지방에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오만은 회교교주국과 마스까트오만추장국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1955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회교교주국을 강점하였으며 마스까트오만에 강제로 병합시켰다.

1970년 7월 가부스 빈 사이드가 군사정변으로 1932년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추장(가부스의 아버지)를 내쫓고 처음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1979년 9월 오만해방인민전선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오만을 해방하며 아랍만수역을 군사쁠럭과 외국군대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으로 전변시킬것을 호소하였다.

1979년 10월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며 그밖에 물고기잡이와 약간의 수공업들을 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밀, 보리이며 그밖에 목화, 담배, 남새 등이다.

1964년에 원유가 발견되여 1967년부터 원유수출을 하고있다.

원유채취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인 《이라크석유회사》의 분회사인 《오만석유회사》가 하고있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7억 7천 400만톤이며 한해 원유생산량은 1천 600만톤정도이다.

국가수입의 68%가 원유에서 얻어진다.

1979년 10월에 원유가격을 10% 올려 1바렐당 24딸라로 되였다.

철길은 없고 약 4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고원과 사막지대에서는 락타가 주요운수수단으로 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대추야자, 물고기, 락타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사탕,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의 95%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6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우트 알 사우라(오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알 와탄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넓이 19만 5,000km²

인구 690만명(1978년)

수도 사나(주민 15만명, 1978년)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끝 인도양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80%가 고원과 산맥으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에 속하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철바람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반도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사나의 평균기온은 1월에 14°C, 6월에 21°C이다.

한해강수량은 바다가지방에서 100mm, 내륙산지에서 1,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이란인, 소말리아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인민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석수 96석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1978년 7월 17일—)

정부 1978년 5월 30일 구성, 총리 아브둘 아지즈 아브둘 가니

정당, 사회단체; 1974년 6월 유일정당이였던 인민혁명당이 해산된후 정당조직이 없음

예멘은 1923년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예멘인민은 1962년 9월 26일 봉건적인 왕권통치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공화파와 왕당파간의 투쟁이 계속되였다. 1977년 7월에도 왕당파의 반발로 전투가 있었으며 9월에는 예멘북부에서 4만명의 부족반란, 1978년 5월 남부에서 반정부폭동이 있었다.

1977년 10월 11일 지도리사회 위원장 알함디가 살해되고 아흐메드 알 가쉬미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1978년 4월 헌법이 개정되여 지도리사회는 해산되고 아흐메드 알 가쉬미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으나 6월에 살해되고 7월 17일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예멘과 민주예멘사이에는 통일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1979년 3월말에 쿠웨이트에서 두 나라 수뇌자들이 회담을 가지고 3월 30일 통일에 관한 콤뮤니케를 작성하였다.

콤뮤니케에는 통일된 새 국가의 헌법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두 나라 수뇌자들의 헌법초안의 승인,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 통일립법부 선거의 감시를 위한 각료위원회 설치 등이 지적되였다.

1979년 4월에 말리, 8월에 스리랑카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9월에 이라크와 기술및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해 5월에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6월에 총리가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235만헥타르이며 2～3모작을 한다. 이브주와 하자주에는 2천년의 력사를 가진 다락밭이 있다.

주요농작물은 수수, 보리, 밀, 강냉이, 목화, 담배, 포도, 바나나, 대추야자, 커피 등이다. 수수는 한해에 90～120만톤 생산되는데 이 나라 알곡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있는데 그 수는 1979년 9월에 17개였다.

축산업은 주로 유목 또는 반유목형태로 한다. 주요집짐승은 양과 염소이며 이밖에 말, 당나귀, 락타 등이다.

공업으로는 천, 가죽가공과 금, 은, 보석 등의 세공 기타 일용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돌소금, 찌단, 망간, 석탄, 철, 동, 류황, 석회석 등이다.

1975년 《민족자본보호법》이 발포된후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1979년현재 세멘트공장, 목화씨기름공장(한해에 1천 900여톤생산)이 건설되고있다.

1976년 6월부터 경제발전5개년(1976년 6월—1981년 5월)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 9월현재 총연장길이 700키로메터이상에 달하는 도로가 건설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5분의 2는 이미 개통되였다. 정부는 5개년계획기간에 총투자액의 5분의 1에 해당한 33억리얄의 자금을 도로건설에 돌리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돌소금이며 수입품은 목재, 식료품, 식량, 공업제품 등이다.

정부는 먹는물문제해결을 위하여 1977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26개의 우물을 파고 여러곳에서 물자원을 개발하였다.

약 200만명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고 있다.

1977년에 학생수는 22만여명이였다.

정부는 녀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50여개의 문맹퇴치소와 비전문교육쎈터를 설치하였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중동통신, 싸바통신

신문 알 이만, 알 싸우라, 알 나스르

방송 사나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9년 6월 30일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10월 청년체육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 주 예 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8만 7,683km²

인구 180만명(1978년)

수도 아덴(주민 36만명, 1978년)

자연 및 주민

아라비아반도의 남쪽끝 아덴만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기후는 메마른 열대성기후이다. 1월에 15~20°C, 7월에 30~35°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00mm정도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소말리아인, 영국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최고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101명, 상임위원회 위원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1980년 4월 26일—)

대통령리사회 1969년 6월 시정조치후 조직된 최고지도기관, 1978년 12월 10명으로 구성, 위원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1980년 4월 26일—)

정부 1978년 12월에 구성, 총리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1978년 10월에 창건, 총비서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근로자총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 1978년 11월 민주청년동맹 제3차대회에서 이름을 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침, **녀성총동맹**, **민주농민동맹**

민주예멘인민은 1963년 10월부터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67년 11월 30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1970년 11월 30일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민족민주주의혁명》을 당면과업으로, 나아가서는 《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1978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10명으로 대통령리사회를 구성하고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을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1979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사회당 중앙위원회 비상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의 강화와 관련한 대내정책과 당생활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4명의 부장들이 사회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되였다.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는 내각을 개조하였으며 총리인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가 이끄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980년 4월에 사회당 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이 사임하고 총리인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가 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1979년 3월말에 쿠웨이트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스마일과 예멘대통령 살레흐간에 통일에 관한 회담을 가지고 통일된 국가의 헌

법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두 나라 수뇌자들의 헌법초안 승인,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 통일립법부 선거의 감시를 위한 각료위원회 설치 등을 밝힌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대외적으로 민주예멘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2월에 리비아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보건, 체신, 어업, 원유, 전력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10월에 쏘련과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11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12월에 에티오피아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9년 7월에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를 승인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마일이 1979년 2월에 수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5월에 에티오피아, 알제리, 리비아, 9월에 벌가리아, 10월에 수리아,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총리가 1월에 에티오피아, 4월에 벌가리아, 수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979년에 쏘련총리(9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11월), 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 위원장(12월)이 민주예멘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유목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약 12만 1천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담배, 밀, 참깨, 남새 등이다. 식량수요의 50~60%밖에는 자체로 보장하지 못한다.

농업협동조합수는 1977년말에 120여개였다.

공업으로는 1977년 5월에 국유화된 아덴정유소와 그밖의 작은 제염, 담배, 섬유 공업이 있다.

제2차5개년(1979—1983)계획기간에 생산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세멘트, 벽돌, 방직, 기름, 남새 및 수산물 통졸임 공장 등 14개의 새로운 공업기업소건설을 계획하였다.

1979년에 국영수산회사가 건설되였는데 이 회사는 랭동창고, 배수리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과 여러 척의 고기배들을 가지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고 2천 5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가공품(수출액의 80%차지), 목화, 가죽, 말린물고기, 소금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 각종 금속류 기타 공업제품, 의약품 등이다. 재수출이 적지않은 몫을 차지한다.

1977년말에 1천 100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23만 4천 800여명이 공부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욱투브르(정부기관지), 알 암, 아호바르, 타우라

방송 국립예멘방송, 아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4년 11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및기술적협조를 줄데 대한 협정, 1975년 12월 두 나라 정부사이에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 6월 29일에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1월 24일 아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설되였다.

1978년 4월에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예멘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주농민동맹 총서기국은 1979년 2월 25일에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1월 23일 성명을 지지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낼것을 전세계 민주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2월 6일에 민주농민동맹 총서기국이 호소문을,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넓이 78만 576km²

인구 약 4,400만명(1979년말)

수도 앙까라(주민 257만 2,000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서쪽 소아세아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아세아주(96.9%)에 있으나 일부분은 구라파의 발칸반도 남쪽끝에 있다.

대륙성 및 지중해성 기후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주민의 80%가 토이기인이며 그밖에 쿠르드인, 희랍인, 그루지야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토이기어이다.

정 치

대국민회의 상하량원제, 상원 187석(150명은 선거,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22명은 종신), 임기 6년,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 하원 450석, 임기 4년, 1977년 6월 총선거 진행, 1979년 10월 14일 상원중간선거와 하원보결선거 결과 정의당 77석(상), 181석(하), 공화인민당이 63석(상), 208석(하) 차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거, 임기 7년, 대통령 파호리 코르듀르크(1973년 4월—)

정부 1979년 11월 12일 구성, 총리 술레이만 데미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에 창건, 1925년에 비법화, **로동당, 정의당(집권당), 인민공화당, 구국당, 국민행동당, 공화신임당, 민주당, 로조련맹, 진보로조련맹**

토이기는 1923년 10월 29일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죠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27년동안 인민공화당의 정권이 계속되였으나 1950년이래 민주당, 인민공화당, 정의당 등의 정당들사이에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나 불안정한 정치정세가 계속되였다.

1978년 1월 5일에 인민공화당 당수 에체비트를 총리로 하는 인민공화당, 공화신임당, 민주당, 무소속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나 경제형편의 악화로 정부각료들이 사임하고 여당의원들이 떨어져나감으로써 정부는 위기를 겪게 되였다.

1979년 10월 14일 상원중간선거와 하원보결선거에서 인민공화당이 패하고 정의당이 승리함으로써 11월 12일 정의당 단독정부가 성립되였다.

1979년 4월 24일 정부는 전해 12월 회교도들의 무장충돌이 있은 동남부 13개주들에 선포한 계엄령을 2개월 연장하였으며 동부의 6개주들에 계엄령을 또 선포하였다. 1천 706명의 인민들이 계엄령을 위반하고 5.1절시위를 벌리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였다.

1979년 6월 지부티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 5일 앙까라에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79년 1월에 총리가 리비아를 방문하였으며 7월에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 10월에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지도자가 토이기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부침땅은 2천 500만정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콩, 담배, 목화, 아열대과일 등이다. 농산물이 수출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축산업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전체부침땅의 38.3%가 방목지이다.

중부고원지대에서 양, 염소 등을 많이 기른다.

1977—1978년에 양모는 5만 4천톤 생산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크롬, 동, 철, 망간, 수은, 연, 아연, 원유, 류황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과 경공업이다. 1977년에 석탄은 441만톤, 원유는 271만 2천톤 생산되였다.

경공업에서는 담배, 섬유, 종이, 양탄자제조 공업이다.

운수에서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크롬광, 담배, 말린포도, 집짐승, 목화, 올리브, 과일 등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이다.

1979년에 통화팽창률은 80%, 실업률은 20%, 대외빚은 150억딸라, 무역적자는 22억딸라에 달하였다.

주민의 3분의 2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99%가 회교도(손니파)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톨리에통신, 토이기통신

신문 후리예트(중립계), 미리예트, 데르즈만, 구네된, 애빈리크

방송 앙까라방송, 토이기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끼 쁘 로 스

(끼쁘로스공화국)

넓이 9,251km²

인구 62만명(1978년)

수도 니코시아(주민 11만 8,000명)

자연 및 주민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3대륙을 련결하는 배길에 놓여있다.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는 습하고 따뜻하며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메마르다. 한해평균기온은 20.5°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500mm이다.

주민은 희랍계주민(78%)과 토이기계주민(18%)이며 그밖에 아르메니아인, 아랍인, 유태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이나 영어도 쓴다.

정 치

민족리사회 일원제, 총의석 50석(희랍계 35명, 토이기계 15명), 임기 5년, 1976년 9월 희랍계주민지대에서 해당한 35개의석에 대한 선거 진행, 토이기계주민은 1963년에 토이기계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개정후 참가 안함

대통령 대통령은 희랍계사람,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사람가운데서 선출하게 되여있다. 대통령 스뻬로스 키쁘리아누(1977년 9월 3일—)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1926년에 공산당으로 창건, 1941년에 근로인민진보당으로 고침, 총비서 파파이오안누, **민주전선당, 사회당, 민주집회당, 국민련합당, 토이기공화당, 통일민주중앙련맹, 전끼쁘로스로조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끼쁘로스는 1960년 10월 1일 영국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독립후 희랍파 토이기반동들이 끼쁘로스에 사는 희랍계종족들과 토이기계종족들을 서로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끼쁘로스를 저들의 통제와 지배밑에 두기위한 로골적인 간섭과 분렬책동을 벌림으로써 민족들사이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희랍은 희랍계인 우익세력들을 사촉하여 희랍파의 통합을 주장해나서도록하고있으며 나라의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진보적세력에 대한 테로행위를 감행하고 1974년 7월에는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정변이 일어나자 토이기는 토이기계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끼쁘로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령토(북부)의 40%를 강점하였다.

1975년 2월 13일에 토이기계사람들은 토이기가 점령한 북부지역에 《끼쁘로스련방공화국》에 속하는 독자적인 자치국가를 창설하고 6월 9일에는 《끼쁘로스련방토이기계주민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토이기계주민지역에서는 1976년 6월 덴크따쉬를 대통령겸 주민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토이기반동들과의 공모밑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에 2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있으며 미제는 토이기와 함께 나토의 남단을 《보강》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지하기 위하여 끼쁘로스령토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있다.

1975년부터 끼쁘로스의 두지역대표들 사이에는 통합과 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토이기계대표는 권한이 약한 중앙정부보다 자기들의 지역에서의 《자치제》와 북부지역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1974년과 같은 분쟁으로하여 희랍군대의 새로운 증강을 막기 위하여 남부 끼쁘로스를 비무장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희랍계대표는 《강력한 합동중앙정부》를 세워야 하며 령토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차지되여야 하며 토이기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토이기계대표는 전령토의 3분의 1을 토이기계주민지역에 넘겨줄것을 주장하였으나 희랍계대표는 5분의 1을 차지할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토이기군점령지역에 있는 파파구스타시와 그 교외의 바르샤읍을 《잠정적으로 공동관리》밑에 있어야 한다는 토이기계측의 제안을 배격하였다.

1979년 5월 키쁘리아누대통령과 덴크따쉬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15일에는 실무급대표들이 끼쁘로스련방제의 형태와 토이기군철수문제를 토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1974년 토이기는 2만 8천명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대통령은 1979년 6월에 로므니아, 10월에 수리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부침땅은 약 45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감귤류, 포도, 담배, 올리브 등이다. 감자와 감귤류는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축산물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돼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동, 크롬, 돌솜 등이다.

세멘트공장,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료품공장, 방직공장들이 있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화폐는 끼쁘로스파운드, 토이기계주민지역에서는 토이기리라가 류통되고있다.

운수에서 기본은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이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동, 돌솜, 포도, 포도주, 감귤류, 감자 등이며 수입품은 연료, 기계설비 및 수송수단,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다.

교육은 희랍계주민지대와 토이기계주민지대에서 자기들의 민족어와 학제로 제각기 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끼쁘로스통신

신문 하라브기(근로인민진보당기관지), 에트니키, 아킨, 아곤, 끼쁘로스 메일, 할킨 세시

방송 끼쁘로스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2월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11일 조선통일지지끼쁘로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5년 12월 17일에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 번역출판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아 프 리 카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넓이 100만 1,449km²
인구 4,200만명(1980년 4월)
수도 까히라(주민 853만 9,000명, 1979년 6월, 교외인구 포함)

자연 및 주민

애급은 령토의 대부분이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있고 그 일부만이 아세아의 시나이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95%가 사막으로 되여있으나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이 애급땅 한복판을 흐르고있으며 지중해와 인도양을 련결하는 수에즈운하가 있다.

지중해연안은 따뜻하나 내륙은 극히 더우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된다.

기온은 낮에 50°C까지 올랐다가 밤에는 0°C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다.

년평균강수량은 220mm이다.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이며 그밖에 베드윈족, 베르베르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 임기는 5년이며 의원수는 390명, 그중 380명은 선거하며 10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9년 6월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0월—, 1976년 9월 다시 선거됨)

정부 1979년 6월 19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무스타파 할릴

정당, 사회단체 ; 민족민주당(집권당), 1978년 7월에 창건, 집권당이였던 아랍사회주의동맹이 이해 8월 14일에 민족민주당에 통합, 위원장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사회주의로동당, 자유사회주의당, 민족진보련합당, 로동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1517년부터 오토만제국의 한개주로 예속되였던 애급은 1899년에 전령토가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52년 7월 23일 친영파르크봉건왕조를 뒤집어엎고 1953년 6월 18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정부는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이 통제장악하고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고 이를 반대하여 애급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침략군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직접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불의에 도발하고 시나이반도를 강점하였다.

정화후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으려는 아랍인민의 노력에 무력으로 맞서 나선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끝내 1973년 10월 6일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이해 10월 22일 제4차중동전쟁은 정화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애급과 이스라엘간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였다.

사다트대통령이 1977년 11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한후 애급—이스라엘사이의 회담이 계속되였다.

1978년 9월에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애급대통령, 이스라엘총리, 미국대통령의 3개국 중동평화수뇌자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 결과 1979년 3월 26일 워싱톤에서 애급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조약》이 조인되였다.

《평화조약》과 《부속문서》는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시나이반도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철거, 요르단강서쪽지역과 가자지대에서의 팔레스티나인들의 자치제수립을 위한 교섭 등 상세한 일정을 밝히였다.

《평화조약》의 결과 두 나라 사이에 계속되던 전쟁상태가 끝나고 애급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시나이반도의 일부땅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팔레스티나땅과 수리아의 골란고지를 의연히 강점하고있으면서 팔레스티나사람들의 민족적권리를 승인하지 않고있다.

애급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문제에서 시나이반도의 서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제1계단철수가 끝나는 차제로 이스라엘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데 동의하였다.

애급대통령이 1979년 1월에 수단을, 3월에 서독과 미국을, 7월에 리베리아를, 9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이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0%가 농사를 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30%이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벼, 강냉이, 사탕수수, 밀 등이다. 그중 목화는 이 나라 농업생산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농민의 약 70%가 목화농사를 하고 있다.

1978년에 813만 2천깐따르의 목화를 따들이였다.

애급에서 4대주요농작물의 하나로 되고있는 사탕수수밭면적은 1979년에 27만페단이였으며 사탕생산량은 90만톤이였다.

1979년현재 7개의 사탕공장이 있다.

애급에서는 부족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세기말까지 60만헥타르이상의 메마른 사막지대를 개간하여 부침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있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섬유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공업과 채취공업이다.

채취공업에서 기본은 원유, 망간, 린회석, 동 등을 캐내는것이다.

1979년에 2천 1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여 아프리카 원유생산국들중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천연가스매장량은 350억립방메터이며 매일 425만립방메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되고있다.

1978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34억 3천 200만애급파운드어치의 공업제품을 생산하였다.

애급은 새 5개년(1978—1982)경제개발 계획기간에 총 투자액을 140억애급파운드로 설정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에 포드사이드조선소에서 6천 500톤짜리 짐배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제품, 원유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금속제품, 식량 등이다. 농산물수출에서 70%는 목화이다.

애급에서는 6년제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1981년까지 모든 학령아동들을 초등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학령아동의 83%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며 기타는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정부기관지), 알 아흐람, 알 아흐바르, 알 메싸, 에집션 가제트, 쥬르날 에집트, 알 칼라즈, 알욤

방송 애급인민방송, 중동방송, 애급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이에 앞서 1961년 7월에 령사관계를 맺었다.

1957년 12월에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2년 9월에는 문화 및 보건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9년 1월 17일에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9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까히라에서 조인되였다.

1969년 2월에 애급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4월에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애급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1967년 5월에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현대통령)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3월에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의 특사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월과 3월에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50만 5,813km²
인구 1,816만 7,000명(1979년)
수도 하르툼(주민 100만명, 옴두르만과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수단은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 홍해연안에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령토가 제일 큰 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며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의 하나이다.

북부의 사막과 홍해연안은 기온이 년중 38°C를 넘는다. 중부내륙지방은 최고 52°C까지 오른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1,000∼1,400mm, 북부에서 100mm이다.

수단은 다민족국가로서 500여개의 종족이 있다.

주민의 70%는 아랍사람이며 북부에서 산다. 27%는 아프리카흑인이며 남부에서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영어와 부족어들도 쓰고 있다.

정 치

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임기는 4년, 의석수 250석, 1972년에 조직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최고사령관, 임기는 6년,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71년 10월 —, 1977년 4월 다시 선거됨)

정부 1979년 8월 18일 내각 일부 개조,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수단사회주의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2년 1월 10일 창건,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80년 2월 1일에 다시 선거됨), **로동자직업총련맹, 청년동맹, 전국녀성대회**

1877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수단은 1956년 1월 1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10월 선거로 니메리가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혁명지도리사회가 해산되였다.

니메리는 1972년 1월에 모든 정치조직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유일당인 수단사회주의동맹을 조직하였다.

1973년 5월에 헌법이 발포되였다.

1972년에 남부 3개주에 자치를 줌으로써 1963년이래 계속 무장반란을 일으켜온 남부수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였다.

수단대통령이 1979년 2월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1월에 애급대통령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5월에 프랑스대통령이, 7월에 소말리아대통령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수단은 이해 1월에 벨지끄와 문화협조협정을, 4월에 로므니아와 친선 및 협조협정을 맺었다.

수단은 이해 6월에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생산은 국내 총생산의 약 80%, 수출총액의 95%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그밖에 수수, 밀, 벼, 땅콩, 강냉이 등 알곡작물들도 많이 심고있다.

목화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1977—1978농업년도에 61만 5천톤의 목화를 따들이였다.

아라비아고무는 수단의 특산물로서 세계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있는데 해마다 약 4만 5천톤 생산하고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주로 유목민들이 소, 양, 염소, 락타, 말, 노새 등을 기른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며 주요광물은 금, 망간, 돌소금, 크롬,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석고 등이다.

공장, 기업소, 재정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유화가 실시되고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하는 민족공업이 건설되고있다.

나일강의 많은 폭포를 리용하여 건설된 수력발전소들을 비롯하여 원유가공공장, 야금공장, 건재공장, 가죽공장, 식료공장들이 건설되여 돌아가고 있다.

목화를 원료로 하는 방직공장에서는 해마다 1억메터의 면직물을 생산하고있다.

1979년 10월 수단항에서 2척의 배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과 철길은 주로 수도와 지중해기슭의 여러 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철길의 총길이는 4천 750여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수출총액의 70%), 아라비아고무이며 주요수입품은 설비, 일용품, 식량 등이다.

1977년에 초등 및 중등학교학생수는 152만 2천명,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는 2만 4천 530명이였다.

1979년 2월에 게지라종합대학이 창립되였다.

병원수는 140개이며 보건일군수는 4천여명에 달한다.

또한 950여개의 여러가지 종류의 보건쎈터들이 창설되였다.

종교는 북부를 중심으로 인구의 70%가 회교도이며 남부의 흑인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기독교도는 약 50만명이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싸하파(정부기관지), 알 아얌, 알라이알암, 앗 수단 알 쟈디드, 모닝 뉴스, 알 아호바르, 나일미러

방송 수단방송, 수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이해 6월 21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앞서 4월 13일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5년 5월 14일에 수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8월에 수단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집회가 1979년 4월 11일 하르툼시 바라리지구 조선부리촌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7월에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리 비 아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넓이 175만 9,540km²
인구 280만명(1979년 6월)
수도 타라블스(주민 73만 5,1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에 면하고있는 리비아는 령토의 98%가 반사막과 사막이며 강이 없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와 메마른 열대사막성기후로서 여름에 기온이 50°C까지 오른다.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400~625mm, 사막지대에서는 25mm이다.

이 나라에는 깊지 않은 땅속에 물이 많아 샘물이 솟아오르는 오아시스들이 많은데 여기는 땅이 기름지고 식물이 잘 자라므로 주민들이 여기에 몰켜살고있다.

주민의 90%가 아랍사람들이며 그밖에 흑인, 이딸리아, 희랍 사람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총인민대회 최고주권기관, 각급인민위원회, 인민회의, 로조, 직능단체의 대표 약 1천명으로 구성, 총비서 모아메르 엘 가다피(1977년 3월 2일—)

총비서국; 총인민대회의 하부상설기관, 전혁명지도리사회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최고집행기관, 가다피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

전국인민위원회 정부적기능을 수행한다. 1977년 3월 2일 26명으로 구성, 위원장 아브델 아티 알 아비디

정당, 사회단체; 총인민대회총비서국이 당적기능을 수행한다. 총비서 아브델 아티 알 아비디, **로동조합총련맹, 학생동맹, 녀성동맹**

이딸리아의 식민지였던 리비아는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69년 9월 1일 청년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 1951년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이드리스1세 봉건왕조를 뒤집어엎고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가다피를 의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수립하였다.

1976년 11월 나라 이름을 리비아아랍인민공화국으로 고쳤다.

1977년 3월에는 모든 권력을 인민의 손에 넘긴다는 《인민주권확립선언》을 채택하고 혁명지도리사회를 해체하고 총인민대회를 창설하였으며 나라이름을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로 바꾸고 새로 전국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개혁》을 실시하였다.

리비아에서는 9월 1일 혁명승리후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와 침략군대가 완전히 철거되고 봉건왕조시기에 체결되였던 불평등한 협정들이 페기되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독점체회사들과 농장들이 국유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이 청산되고있다.

리비아는 반제자주,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리비아 혁명의 지도자 가다피가 1979년 5월에 알제리, 6월에 수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를, 7월에 바레인, 아랍추장국련방, 까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민주예멘, 예멘아랍공화국, 수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1월과 7월에 기네대통령이, 2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5월에 니제르국가수반이, 6월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9월에 상부볼따대통령,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이, 10월에 말따총리가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리비아는 이해 1월에 이딸리아와 경제및과학기술협조협정, 민주예멘과 경제, 문화, 과학기술, 보건, 체신, 어업, 석유 및 전력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6월에 이라크와 무역 및 보도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들을 맺었다.

1979년 11월 리비아는 이란과 1971년에 끊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공업이다.

1979년현재 국민총생산에서 원유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4%이상에 달하고있다.

세계에서 이름난 원유생산국이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제리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295억바렐이다.

일평균 240만바렐로서 1979년에 1억 100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였다.

경제발전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100여개의 공업대상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한 결과 몇해사이에 세멘트, 건재, 방직, 기계, 금속가공, 식료가공, 목재 공장들을 비롯하여 50여개의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는 1969년부

터 1979년까지의 기간에 100여억리비아디나르에 달하였다.

총전력생산량은 1969년에 6억 7천 500만키로와트시였다면 1979년에는 그것이 42억키로와트시에 달하였다.

1978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80%이상에 달하였다.

경작지는 령토의 2%이다.

원유가 발견되기전에는 인구의 70%가 농사를 하였으나 1973년에 와서는 30%이하로 줄었다.

1978년까지의 기간에 70만헥타르이상의 땅이 개간 또는 개량되였다.

1979년에 사하라지역의 350만헥타르의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국민소득의 80%를 농업부문에 할당하였다.

1980년까지 보리, 남새, 닭알, 우유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것이 예견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밀, 보리,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상선대의 총톤수는 3.7배이상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8%), 땅콩, 올리브기름, 집짐승,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운수수단 등이다.

1977—1978학년도에 초등및중등학교 학생수는 80여만명이였다.

리비아에는 약 2천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1만 2천명의 보건일군이 있으며 1만 4천 696대의 침대를 가진 61개의 병원이 있다.

현 경제발전 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살림집건설에 15억디나르가 지출되고있다.

5개년계획의 첫3년동안에 13만 8천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되였으며 1979년현재 7만 2천세대가 또 건설중에 있다.

혁명승리후 10년동안에 리비아의 국민총생산액은 12억 8천 800만디나르로부터 57억 5천 600만디나르로 늘어났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혁명통신(아르나)

신문 알 사우라 (전국인민위원회기관지), 알 화즈를 져디드, 알 호르리예, 알 프라, 알욤, 알 발라그, 트리폴리 미러, 알 무싸와르, 알 나하르, 메디터리안 뉴스

방송 리비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를 호상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4년 1월 23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7월 6일 두 나라 정부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79년 4월 4일에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1월에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공업대표단이, 2월에 보건대표단이, 3월에 안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9월에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뜌 니 지

(뜌니지공화국)

넓이 16만 4,150km²

인구 631만 2,000명(1979년)

수도 뜌니스(주민 97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뜌니지는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리비아와 알제리 사이에 끼여있으며 지중해에 면해있다. 나라의 약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해안지대는 온화한 해양성기후이나 내륙지대는 사하라의 사막성기후로서 최고기온이 54°C까지 오른다.

주민의 93%가 아랍족이며 5%가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112석, 임기는 5년, 1979년 11월 4일 선거 진행, 모두 데스투르사회당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57년 7월—,1975년 3월 민족회의에서 종신대통령으로 임명)

정부 1979년 11월 7일 내각개조, 총리 헤디 누이라(1970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데스투르사회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34년에 창건, 당수, 하비브 부르기바, 총비서 헤디 누이라, **사회민주주의운동**, **로동자총련맹**, **데스투르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뜌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3년 6월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뜌니지인민은 1952년부터 무장투쟁을 벌려 1955년 6월 1일에 자치권을 획득하고 1956년 3월 20일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57년 7월 25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현 대통령 부르기바가 감옥에서 석방된 날인 1955년 6월 1일을 《승리의 날》로, 국경절로 기념하고있다.)

독립이래 부르기바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1977년 12월에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있었으며 1978년 1월 25일과 26일에는 정부의 탄압정책에 항의하는 폭동으로 발전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1979년 9월에 튜니지데스투르사회당 제10차대회에서 나라의 국내외정책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해 11월 4일에 민족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튜니지공화국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9년 11월 수도 튜니스에서 제10차아랍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해 1월에 기네대통령이 튜니지를 방문하였다.

튜니지는 1979년 5월에 중국과 무역협정, 6월에는 문화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해 4월 튜니지는 애급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를 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올리브, 밀, 보리, 귤, 포도, 알파초(종이원료) 등인데 특히 이 나라 농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올리브생산이다.

튜니지는 올리브나무재배를 위한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그 재배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다.

1979년현재 올리브나무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약 34%에 달하는 150만헥타르에 이르고있는데 그 나무수는 5천 500만그루에 달한다.

1978년에 57만톤의 올리브와 13만톤의 올리브기름을 생산하였다.

이해에 14만톤의 보리와 10여만톤의 사탕무우를 생산하였다.

또한 13만 4천톤의 오렌지, 2만 3천톤의 레몬을 따들이였다.

1979년에 종합수리시설건설을 비롯하여 씨불임땅들에 물을 대기 위한 사업과 알곡작물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목축업은 이 나라 농업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한다.

채취공업은 이 나라 민족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린광석, 원유, 철광석, 연, 아연 등을 캐내고 있다.

1979년에 품위가 높은 연매장지가 발견되였다.

1978년에 384만톤의 린광석, 1979년에 460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였다.

이 나라에는 1천여개의 공장, 광산, 기업소가 있으며 특히 원유화학, 세멘트, 동력, 비료, 가스 등 중공업부문기업소들과 방직, 종이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공장들이 주로 국내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돌아가고있다.

1977—1978회계년도에 24만 9천톤의 린비료를 생산하였다.

한해에 250대의 뻐스와 1천대의 화물자동차, 그리고 기타 승용차들을 생산하고있다.

1977년에 물고기생산량은 5만 3천 700톤이였다.

운수에서는 철도(2천 300여키로메터)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린광석, 원유, 연, 철광석, 올리브기름, 농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제품, 식량 등이다.

1978년에 초등학교는 2천 447개, 중등학교는 199개, 대학은 54개였다.

대학생수는 3만명이며 학생들의 총수는 125만명에 달한다.

1979년현재 주민 3천~3천 500명당 1명의 의사가 차례지고있다.

회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튜니지아프리카통신

신문 악송, 알 아말(데스투르사회당기관지), 아스샤바흐(데스투르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방송 튜니지방송, 튜니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7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6월 13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튜니지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수공예품 전람회가 1979년 4월부터 5월사이에 튜니지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6월에 튜니지정부문화대표단과 튜니지데스투르사회주의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넓이 238만 1,741km²

인구 1,814만 5,000명(1979년)

수도 알제(주민 164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기슭에 있는 알제리는 령토의 80%이상이 사막과 반사막이다.

지중해연안은 비옥한 평야지대이며 여기에 주요 도시들이 있고 주민의 90%와 공업및농업이 집중되여있다.

월평균기온은 북부해안지대에서 1월에 12°C, 7월에 25°C이며 사하라사막지대는 7월에 32~36°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500~1,200mm, 사막지대에서 100~400mm이다.

1979년 2월 18일 사하라사막에 력사상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주민의 97%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그밖에 프랑스, 이딸리아 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최고안전리사회 1979년 6월 20일 민족인민회의 의장, 민족해방전선당 위원장, 총리 및 국방, 외교, 내무부장들로 구성, 국가안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위원장 샤들리 벤쉐디드

민족인민회의 일원제, 의석수 261석, 임기 5년, 1977년 2월 25일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 겸 군총사령관, 임기 6년, 1979년 2월 7일 선거, 대통령 샤들리 벤쉐디드

정부 1979년 3월 8일 구성, 총리 모하메드 벤아흐메드 아브델가니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4년 8월에 창건, 1979년 1월 제4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샤들리 벤쉐디드, **근로자총동맹, 알제리옛투사회, 전국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련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제리는 아프리카대륙에서 반제반식민주의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든 나라입니다.

오늘 알제리에서는 정의와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새생활이 창조되고있으며 공업혁명, 농업혁명, 문화혁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알제리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2년동안 프랑스의 통치밑에 있었다.

알제리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의 강점기간 50여회의 무장반란을 일으켰으며 1954년 11월 1일부터 민족해방전선당의 령도밑에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1962년 7월 5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9월 25일에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5년 6월 부메디엔이 정권을 잡은후 알제리 정부와 인민은 민족해방전선당 강령에 기초하여 공업혁명, 농업혁명, 문화혁명을 밀고나갔다.

정부는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공업의 우선적발전에 주력하면서 1967년이래 원유, 천연가스, 기계, 화학 등 주요공업부문의 기업소들과 대외무역, 은행을 국유화하였다.

한편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는 공업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공업혁명을 추진시켰다.

또한 외국인소유토지의 몰수와 분배를 끝낸 토대우에서 1971년부터 농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1976년 11월 19일 알제리를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이해 12월에 선거를 실시하고 부메디엔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1977년 2월 25일에는 민족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하여 군사정치체제로부터 립법정치체제에로 이행하였다.

1978년 12월 27일 후아리 부메디엔이 죽고 1979년 2월 7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족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된 샤들리 벤쉐디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9년 6월 20일 민족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당 기구의 직능에 대한 문제 및 국가행사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안전리사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3월 7일에 진행된 민족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의 내부규정들을 토의채택할데 대한 문제들과 헌법의 일부조항들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상설위원회들을 내올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새 정부구성을 발표하였다.

벤쉐디드는 1979년 3월 13일 대내외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후아리 부메디엔이 제시한 정치로선과 그리고 사회주의길로 나가려는 민족헌장의 원칙에 대한 알제리지도부의 충실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쁠럭불가담운동에 충실하는것이며 민족해방운동과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9년 3월에 리베리아대통령과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위원장이, 5월에 니제르국가수반, 민주예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6월에 요르단국왕이, 7월에 수리아대통령, 탄자니아대통령, 소말리아대통령이, 9월에 세이쉘대통령이, 11월에 이라크대통령이, 12월에 꽁고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알제리는 이해 3월에 말따와 경제, 과학,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5월에 중국과 장기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해 8월에 모리따니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으

며 9월에 그레네이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원유를 비롯한 채취공업과 농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채취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원유와 천연가스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원유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나이제리아, 리비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에 6천 100만톤의 원유와 1978년에 141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였다.

또한 해마다 175만톤의 선철, 154만톤의 압연강재, 220만톤의 강철을 생산한다.

사막지대에서는 연, 동, 린광석, 돌소금 등도 채굴되고있다.

공업의 95%가 국유화되였으며 은행들과 보험및 무역기관들도 국가의 수중에 들어갔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약 50%가 일하고 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포도, 귤, 강냉이, 귀밀, 보리, 담배, 올리브 등이다.

포도재배면적은 농경지의 5%밖에 안되나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1978년에 알곡은 237만 9천톤, 포도는 37만 7천톤 생산되였다.

3만 2천 700헥타르의 귤밭도 있다.

농업혁명의 제1, 2단계기간에 135만헥타르의 토지가 국유화되고 7천여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1980—1984)계획기간에 농업, 특히 협동화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에 대한 국내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5년 11월 《축산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농업혁명 제3단계가 시작된후 3년동안에 17만세대의 유목민들이 안착된 생활을 하게 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등이다.

1978년에 2천만헥타르의 방목지에서 1천만마리의 양을 기르고있었다.

농업혁명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1천개를 목표로 하여 1973년에 사회주의농촌마을건설이 시작된 이래 1979년현재 100여개의 사회주의농촌마을이 건설되여 농민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사막지대에서는 락타와 말 등이 중요한 운수수단으로 되여있다.

자동차길은 6만키로메터, 철길은 2천 890키로메터이다.

1979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900만톤에 달하였다.

해상운수는 이 나라 총수송액의 17%를 차지한다. 68척의 배로 무어진 큰 선단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천연가스, 포도술, 귤, 올리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섬유제품, 기계, 사탕 등이다.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몫은 90% 이상이다.

1979년현재 학령아동의 75%가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79—1980학년도에 보통교육부문의 각급학교학생수는 405만명, 그중 인민학교학생이 310만명, 중학교학생이 75만명, 고급중학교와 기술전문학교학생이 20만명이다.

보통교육부문학교수는 1천 125개이다.

1979년현재 알제종합대학, 오랑종합대학 등 12개의 종합대학과 32개의 기술단과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수는 6만 7천명이다.

1979년현재 교원수는 6천 420명이며 그 가운데서 알제리인교원이 3천 846명이다.

보건일군수는 7만명이상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7천 650명이 의사이다. 이것은 인구 약 3천명당 의사 1명이 차례지는것으로 된다.

7개의 도병원과 30개의 군병원, 159개의 진료소가 있다.

일부지역들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뻬에쓰

신문 엘 무쟈히드(민족해방전선당및정부기관지), 알 샤아브(정부기관지), 안나스르, 라 레쀼블리끄, 레볼류씨옹 에 트라바이(근로자총동맹기관지), 유니떼(청년동맹중앙기관지), 알제리 악듀알리떼

방송 알제리방송, 알제리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6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같은해 10월에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8년 9월 23일에 장기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공식국가방문하시였다.

1974년 3월에 알제리혁명리사회의장이였던 후아리 부메디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수공예품전람회가 1979년 5월 알제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11월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이, 10월에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과 경제학자대표단이, 6월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이, 7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넓이 44만 6,550km²
인구 2,036만 8,000명(1979년)
수도 라바트(주민 74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마로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사막지대는 모래사막과 함께 돌사막이 많다.

대부분지역이 아열대지중해성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메마르며 겨울은 따뜻하고 습하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65%)과 베르베르족이며 그 밖에 프랑스, 에스빠냐, 유태 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의원은 264명이며 임기는 6년, 총의원수의 3분의 2(176명)는 직접선거, 그 나머지는 간접선거, 1977년 6월 선거결과 왕당파무소속이 141석, 이스티클랄당 49석, 인민운동당 44석, 인민력량사회주의동맹 16석, 기타 14석 차지

국왕 물라이 하싼2세(1961년 3월 3일—),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 1970년 헌법에 의하여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여있다. 국왕이 총리와 내각성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수 있다.

정부 1979년 3월 27일 새 내각 구성, 총리 마아띠 부아비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비법화, **이스티클랄당**(독립당) 1944년 결성, 민족주의정당, **인민운동당**(보수파), **인민력량사회주의동맹**(좌익정당), **진보및사회주의당**, **로동련맹**, **근로자총련맹**, **로동청년동맹**

마로끄는 19세기후반기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6년 3월 2일에 독립을 이룩하였다. (현 국왕이 집권한 날인 1961년 3월 3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해 4월 7일 에스빠냐령 마로끄가 이에 귀속되였으며 10월 26일에는 탄제르지역에 대한 《국제관리》가 철폐되였다.

1957년 6월에 마로끄는 프랑스치외법권을, 1963년 6월에는 미제의 군사기지를 철폐하였다.

1969년 1월 4일 에스빠냐령 이프니를 통합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1971년 7월과 1972년 8월에 국왕암살미수사건이 있었다.

서부사하라의 령유권을 주장해오던 국왕은 1975년 10월 10만명의 《서부사하라병합대행진》을 진행하는 한편 에스빠냐 및 모리따니와 《마드리드협정》을 일방적으로 맺고 1976년 4월 모리따니와 함께 서부사하라를 분할병합하였다.

마로끄는 자기 령토로부터 남쪽으로 610키로메터의 지역을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서부사하라에서 뽈리싸리오전선부대와의 전투가 1979년에도 계속되였다.

마로끄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는 물론 서방나라들과도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린광석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다.

로력인구의 85%가 농사를 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5%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목화 등이다.

남부고원지대에서는 소, 양, 염소, 말 등의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공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3분의 1이며 주되는 부문은 채취공업이다.

린광석매장량은 300억톤으로 추산된다. 린광석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채굴공업생산액의 70%에 달한다.

1976년의 생산량은 1천 480만톤이였다.

이밖에 망간, 코발트, 철광석, 연, 아연, 석탄, 원유 등이 생산된다.

철길은 1천 750키로메터, 도로는 2만 4천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린광석, 망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차, 기계 등이다.

교육의 《아랍화》를 위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추진시키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있다.

회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마그레브아랍통신

신문 알 알람(이스티클랄당기관지), 오삐니옹(이스티클랄당기관지), 레삐며뜨 마로끄, 알 안바아(공보부신문), 알 마그레브, 알 바얀

방송 마로끄방송, 마로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서부사하라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6만 6,000km²
인구 약 10만명(1979년)
수도 엘 아윤(주민 5,300명)

자연 및 주민

서부사하라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부 마로끄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무연한 사막이다.

이 나라는 기온의 차이가 심하며 년평균기온은 35~40°C이며 지어는 75°C까지 올라가는때가 있다.

비는 전혀 오지 않거나 적게 내린다.

주민은 베드윈족과 베르베르족으로 구성되여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이다.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76년 8월 9명의 성원으로 구성, 의장 모하메드 아브델 아지즈(뽈리싸리오전선 총비서)

민족리사회 1976년 8월 41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립법기관

정부 1976년 3월 5일 새 정부구성, 총리 모하메드 라민 울드 아흐메드

정당, 사회단체; 뽈리싸리오전선(서부사하라해방 인민전선), 1973년 5월에 창건, 총비서 모하메드 아브델 아지즈

서부사하라는 15세기중엽부터 뽀르뚜갈, 프랑스,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가 19세기말 20세기초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에스빠냐침략자들은 서부사하라를 한개 《아프리카주》로 선포하고 1만 5천명의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은 뽈리싸리오전선의 지도밑에 1973년부터 무장투쟁을 벌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가하였다.

1976년초에 이르러 에스빠냐는 서부사하라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에스빠냐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서부사하라에서 철수함에 앞서 1975년 11월 마로끄, 모리따니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서부사하라를 분할하여 이양할데 대한 이른바 《3개국 협정》을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2월 마로끄는 서부사하라의 행정중심지 엘 아윤과 린광산지인 부끄라지방을 비롯하여 약 16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북부지역(약 3분의 2지역)을, 모리따니는 약 10만키로메터의 남부지역(3분의 1정도)을 분할하여 각각 귀속시켰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은 이를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자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은 1976년 2월 27일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고 3월 5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결과 서부사하라에서는 나라의 완전해방을 위한 서부사하라인민들과 서부사하라를 자기들의 《령토》로 선포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마로끄, 모리따니를 타방으로 하는 량측사이의 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은 모리따니가 저들이 병합한 서부사하라의 주에라떼광산읍으로부터 남쪽의 누아디항으로 철광석을 실어가는 650키로메터의 철도를 비롯한 모리따니군에 대한 공격을 드리댔으며 모리따니의 주요수출(철광석)을 파탄시켰다.

한편 뽈리싸리오전선은 서부사하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79년에 모리따니와 여러차례의 접촉을 가지였다.

이해 7월 몬로비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서는 서부사하라인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결권을 실현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이 결의의 테두리내에서 뽈리싸리오전선은 8월 5일 알제에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 뽈리싸리오전선은 모리따니에 대한 령토적요구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으며 모리따니는 서부사하라령토에 대한 령토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뽈리싸리오전선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모리따니는 평화협정체결후 서부사하라로부터 자기 군대를 정식 철수시켰다.

그러나 마로끄는 평화협정을 《무효》로 선포하고 모리따니가 차지하고있던 서부사하라령토를 강점하고 이 지역을 마로끄의 37번째주로 선포하였다. (이 지역에는 1만 8천명의 유목민이 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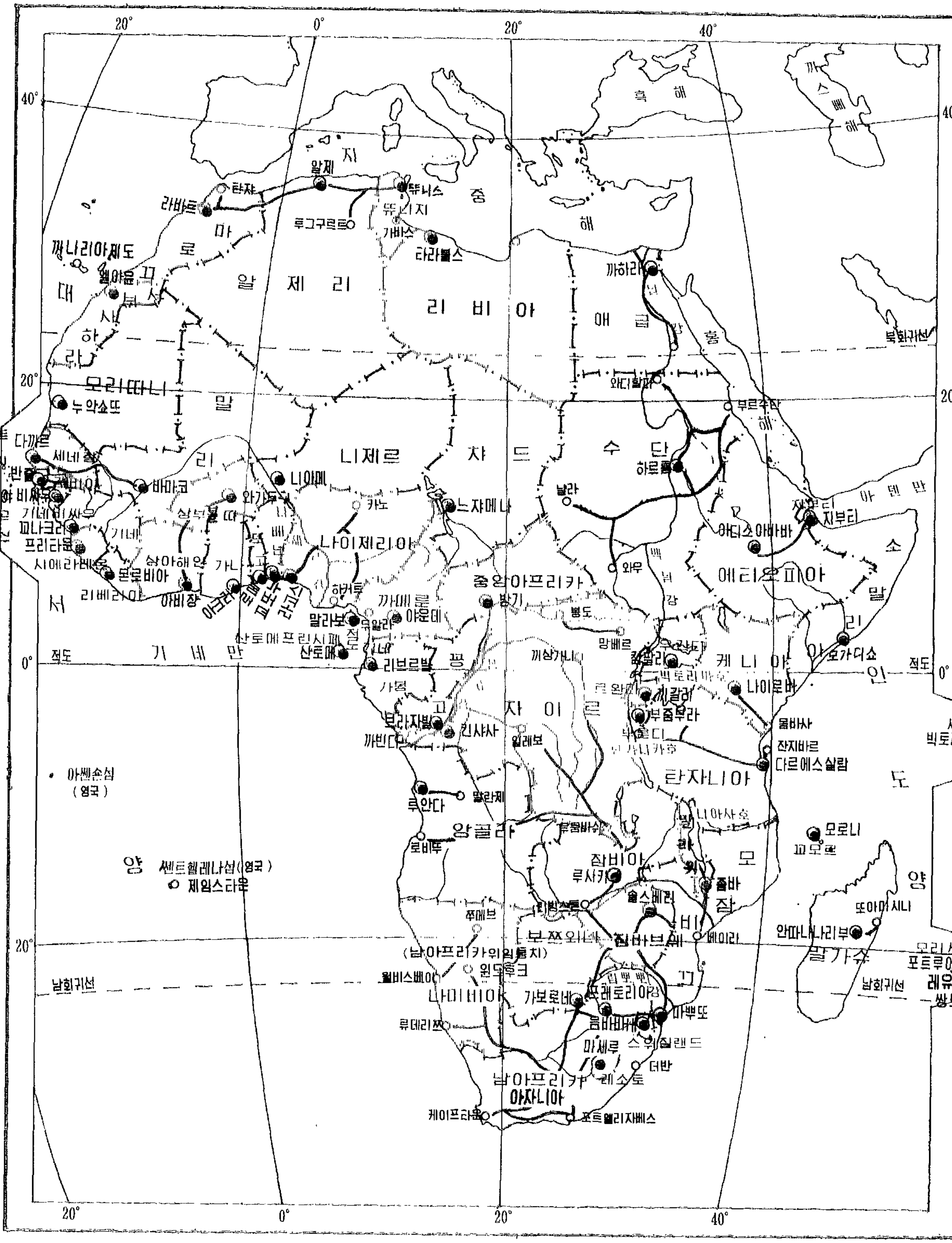
뽈리싸리오전선의 지도밑에 서부사하라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서부사하라 전령토로부터의 마로끄군의 전면철수를 요구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유격투쟁을 벌리였다.

뽈리싸리오전선무장력은 1979년에 700차례의 전투를 진행하였는데 이 전투들에서 6,800명의 마로끄군을 쓸어눕히고 10대의 비행기와 750대의 자동차 및 장갑차를 파괴하였다 한다.

또한 550대의 자동차와 장갑차, 400문의 대포와 박격포 그리고 수백톤의 각종 무기와 탄약을 빼앗았다 한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세계

아 프 리 카



20°
0°
20°
40°
40°
흑 해
까 스 삐 해
지
중
해
알제
뚜니스
탄쟈
라바트
뚜니지
루그구르트
가베스
따라블스
까나리아제도
모
로
코
알 제 리
리 비 아
애 급
까히라
북회귀선
모리따니
누악쑈뜨
말
리
다까르
세네갈
바마코
니아메
니제르
챠 드
수 단
하르툼
느쟈메나
와가두구
상부볼따
카노
나이제리아
가나
아비쟝
몬로비아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프리타운
꼬나크리
아크라
중앙아프리카
방기
까메룬
야운데
말라보
산토메프린시페
산토메
리브르빌
가봉
브라자빌
낀샤사
자 이 르
루안다
앙골라
로비뚜
잠비아
루사카
솔스베리
짐바브웨
베이라
나미비아
윈드후크
남회귀선
월비스베이
프레토리아
마뿌또
스와질랜드
마세루
레소토
더반
남아프리카
아자니아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지부티
아 덴 만
소
말
리
모가디쇼
케 니 아
나이로비
캄팔라
탄자니아
몸바사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
모로니
꼬모르
안따나나리부
말가슈
세이쉘
빅토리아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레유니옹
쌍드니
인
도
양
대
서
양
기 네 만
적도
아쎈숀섬
(영국)
센트헬레나섬(영국)
제임스타운
홍
해

대다수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1979년에 에티오피아, 라오스, 그레네이더, 가나, 도미니카, 우간다, 메히꼬 등 나라들이 련이어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정식 승인하였다. 이해까지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정식 승인한 나라수는 35개국이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며 인구의 절반이상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양이다.

오아시스부근에서 보리와 기장을 심는다.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잡이와 바다풀 채취를 한다. 대서양연안에서는 왕새우도 많이 잡는다.

작은 물고기통졸임공장들이 몇개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철광석, 동, 석탄 등이다.

최근년간 서부사하라의 부끄라지방에서 17억톤으로 추산되는 큰 린산염매장지개발이 시작되였다.

또한 원유탐사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철광석매장지도 발견되였다.

주로 베드윈족은 유목생활을 하며 베르베르족은 오아시스주변에서 농사와 물고기잡이를 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하라 리브레

방송 사하라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3월 16일 우리 나라 정부가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이해 7월 17일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해방지역인 움드레이가에서 조선통일지지사하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모 리 따 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넓이 103만 700km²

인구 160만명(1979년 6월)

수도 누악쇼뜨 (주민 13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모리따니는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지대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메마르고 무덥다.

남부지방의 일부에서 한해동안 400～500mm의 비가 오는 정도이고 그밖의 지방은 거의나 비가 오지 않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프랑스어도 쓴다.

정 치

구국군사위원회 1978년 7월 10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군사정권, 위원장이며 국가수반 모하메드 마호무드 울드 아흐메드 룰리(1979년 6월—)

정부 1979년 6월 3일 15명으로 된 새 정부 구성, 총리 및 국방부장 모하메드 쿠나 울드 헤이달라흐

구국군사위원회에 의하여 정당과 기타 모든 조직들이 해산

1920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모리따니는 1958년 11월 28일에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11월 28일에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1년 8월에 수립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정권은 령토팽창정책으로부터 1975년 11월 서부사하라를 분할하여 병합할데 대한 에스빠냐, 마로끄와의 《3개국협정》에 조인하고 서부사하라의 3분의 1의 령토를 강점하였다. 한편 마로끄와 《방위협정》을 비롯한 각종 《조약》들을 맺으면서 1만명이상의 마로끄군이 모리따니에 주둔하는것을 허용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서부사하라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벌렸다.

모리따니는 1975년말부터 1978년 8월까지의 3년간의 전쟁에서 국가예산의 60%이상을 탕진하였으며 인민들의 불만과 반정부기운은 더욱 높아졌다.

1978년 7월 10일에 군사정변이 일어나 총참모장 무스타파 울드 모하메드 살레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국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살레크정권은 뽈리싸리오전선의 정화제의를 접수하였다.

1979년 6월에 살레크위원장이 사임하고 모하메드 마호무드 울드 아흐메드 룰리가 구국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1979년 8월 5일 알제리의 수도에서 모리따니는 뽈리싸리오전선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협정에서 모리따니는 1975년 11월의 마드리드협정에 의하여 마로끄와 모리따니가 나누어가진 서부사하라에 대한 령토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뽈리싸리오전선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이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누악쇼뜨에서 진행된 모리따니구국군사위원회비상회의에서는 민족의 최고 리익에 맞게 서부사하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최종적으로 철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끝에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구국군사위원회는 정부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서부사하라에서의 분쟁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며 마로끄와 맺은 호상방위협정을 무효로 하고 자체의 방위정책을 작성, 리행함으로써 령토완정을 보장하고 있을수 있는 침략을 물리치며 경제의 복구, 발전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인민들의 통일을 유지, 공고화할것을 제기하였다.

이해 8월 14일에 모리따니는 알제리와 1976년에 서부사하라문제에서 발생한 의견상이로하여 끊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79년 6월에 룰리위원장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9월에 세네갈대통령이 모리따니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며 그밖에 광업과 수산업이 있다.

주민의 70%이상이 축산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축산물이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이 나라의 전체 부침땅은 3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수수, 조, 보리, 콩, 강냉이, 대추야자 등이다.

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으며 광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 동, 원유, 크롬, 주석 등이다. 철광석매장량은 10억톤, 동매장량은 3천200만톤이다.

철광석생산량은 한해 약 1천만톤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물고기는 해마다 30만톤정도 잡는다.

운수수단으로서 철광석산지와 동광산지에서 항구까지를 련결하는 철길(680키로메터)이 있고 이나라 남북을 련결하는 도로가 있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 말, 노새가 운수수단으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동, 축산물 등이며 철광석과 동은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각종 기계류와 운수수단, 원유제품,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이다.

교육분야에서 교원들이 전반적으로 모리따니사람으로 교체되고있다.

독립후 누악쇼뜨의 민족병원을 비롯한 8개의 병원이 건설되였으며 전국에 72개의 진료소, 13개의 이동치료대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삐쁠, 쥬르날 오피씨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80년 3월 19일 우리 나라와 모리따니정부는 1964년 11월 12일에 맺은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며 대사급 외교대표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1977년 6월 7일 모리따니는 서부사하라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었다.)

말 리

(말리공화국)

넓이 124만km²
인구 646만 4,000명(1979년)
수도 바마코(주민 40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말리는 서아프리카의 중부 사하라사막의 서부지대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초원과 사막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기후는 몹시 무덥다.

년평균기온은 35°C, 최고 6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사막지대에서 100mm, 기타지역에서 700mm이다.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그밖에 여러 민족어들도 쓰이고있다.

정 치

민족회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1979년 6월 19일 인민민주동맹이 내놓은 82명의 대의원들을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대통령 무싸 뜨라오레 (1979년 6월 19일 대통령으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 인민민주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6년 9월에 조직, 1979년 3월 28~31일 사이에 창립대회진행, 총비서 무싸 뜨라오레, **전국근로자동맹, 전국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말리는 1959년 4월에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고 1960년 6월 20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에 세네갈이 《말리련방》에서 떨어져나가자 수단으로 불리우던 나라 이름을 말리로 고쳤다. 이해 9월 22일에 말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11월 19일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모디보 케이타정권을 전복하고 무싸 뜨라오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해방군사위원회를 수립하였다.

1974년 6월 국민투표에 의하여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9년 6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민족회의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말리인민민주동맹이 내놓은 국가수반립후보인 말리인민민주동맹 총비서 무싸 뜨라오레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말리제2공화국)

또한 말리인민민주동맹이 내놓은 82명의 민족회의 대의원들도 선거되였다.

1979년 6월 30일 10여년간 나라의 권력을 행사하여온 민족해방군사위원회의 활동은 중지되였다.

이해 10월에는 지방주권기관인 자치회선거도 진행되였다.

이해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바마코에서 말리인민민주동맹 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규약 그리고 기타 문건을 채택하고 당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무싸 뜨라오레가 말리인민민주동맹 총비서로 되였다.

말리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말리대통령이 1979년 5월에 알제리와 마로끄, 9월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이해 4월에 말리는 예멘아랍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주민의 9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땅콩, 벼, 밀, 감자, 강냉이, 사탕수수, 차 등이다.

목화생산량은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탕수수를 심는 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널리 벌림으로써 1983년에 가서 사탕생산량을 1977년의 4천톤수준으로부터 7만 9천톤까지 끌어올릴 전망계획도 가지고있다.

집짐승마리수에서도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주로 소, 양, 염소, 당나귀, 말, 락타 등을 유목 또는 반유목으로 기르고있다.

집짐승은 인구 한사람당 3마리가 차례진다. 큰뿔난 집짐승은 510만마리, 양과 염소는 1천만마리정도이다.

축산업은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23%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망간, 철광석, 금 등이다.

자체로 민족공업을 건설해나갈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나라의 여러곳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벽돌공장, 도자기공장, 신발공장, 기름공장, 정미공장 등 자기 나라 원료자원에 의거하는 5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전력공업은 화력발전소에 기초하고있는데 1976년말 그의 발전능력은 4만 300키로와트였다. 1978년에 전력생산량은 9천 940만키로와트시에 이르렀다.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점차 국가의 소유로 만들데 대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국영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이미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서 국가의 독점이 확립되고 재정분야와 대내외무역분야에서는 국가의 지배적지위가 보장되고있다.

1979년현재 국영부문은 무역의 90%, 운수 및 체신분야의 65%, 공업부문기업소 총류통액의 90%를 차지하고있다. 결과 이 나라 민족경제전반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70%에 달하고 있다.

수산업은 니제르강을 통하여 한다.

해마다 10여만톤의 물고기를 잡고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총어획고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현재 자동차길은 1만 4천 70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과 땅콩기름, 축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사탕, 기계설비, 부속품, 건재, 각종 연료 및 기타 일용품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15%를 교육발전에 돌려 학교들을 늘이고 교원들을 길러내고있다.

총학생수는 30만명이며 대학은 5개, 학생수는 2천 500명이다.

1979년현재 12개의 병원, 42개의 지역보건쎈터와 310개의 농촌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 200명의 의사와 수백명의 준의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이 일하고있다.

보건일군들의 90%를 말리사람으로 충당할수 있게 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65%), 원시종교(30%)를 믿으며 기독교(5%)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

신문 부아 듀 삐쁠(인민민주동맹기관지), 에쏘르, 선봉

방송 말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5년 10월 21일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 1971년 5월 21일에는 교육, 과학, 예술, 체육, 정보 및 영화에 관한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9년 5월 7일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2년 1월 말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5년 7월 15일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말리지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말리인민들은 1970년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1976년 5월에 무싸 뜨라오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5월에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3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말리를 방문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넓이 19만 6,192km^2

인구 571만 7,000명(1980년 5월)

수도 다까르(주민 79만 8,700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는 세네갈은 모리따니, 말리, 기네와 잇닿아있다.

동부의 사막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이 풍화된 모래흙으로 뒤덮여있다.

평균기온은 1월에 23～24°C, 7월에 26～27°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500mm, 남부에서 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월로프족(30%), 풀베족, 쎄레이족, 뚜꿀레르족 등이며 약 5만명의 백인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각 민족어들도 쓰고 있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석 100석, 임기 5년, 1978년 2월 26일 선거, 의석의 절대다수를 사회당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1960년 9월—,1978년 2월 26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78년 3월 15일 25명으로 된 새 정부 구성, 총리 아브두 디우프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집권당) 1958년 9월 25일에 결성된 진보련맹을 1976년 12월에 사회당으로 고침, **민주당** 1974년에 결성, 자유민주주의적정당, **아프리카독립당** 1957년에 창건된 좌익정당, 1960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6년 8월에 합법화, **민족민주당, 공화운동** 1977년 8월 25일 결성, **전국근로자련맹, 근로자전국련합, 청년전국리사회, 녀성전국리사회**

1815년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된 세네갈은 1958년 11월 25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다음해 4월에 말리와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 말리련방의 한 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19일 련방회의 의장이던 쎈고르가 군사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8월 20일 세네갈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외적으로 세네갈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이 대륙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세네갈대통령이 1979년 1월에 프랑스, 4월에 모리따니와 일본, 7월에 서독, 10월에 마로끄 등을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감비아대통령이, 3월에 베르데갑대통령이, 10월에 기네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하였다.

이해 8월 세네갈은 자이르와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최고합동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1월에 세네갈은 꼬스따 리까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땅콩생산인데 벼, 강냉이, 수수, 조, 기장, 사탕수수, 목화도 심는다.

부침땅의 절반이 땅콩밭이며 땅콩생산량은 농업총생산액의 35%, 농민들의 총화폐수입의 65%, 세계땅콩생산량의 10%(4위)를 차지한다.

땅콩생산량은 1977—1978농업년도에 56만톤, 1978—1979농업년도에 110만톤이였다.

땅콩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정부는 농민들에게 대부금과 기계, 비료를 대주고있으며 땅콩농사에서 선진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세네갈은 경제 및 사회발전 제5차 5개년(1977/1978—1980/1981)계획기간에 총 3천 970억 아프리카프랑중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508억아프리카프랑이 투자되게 된다.

계획기간에 사탕은 120만톤, 기장은 75만톤, 목화는 5만 9천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나라의 알곡수요의 70%를 자체로 생산보장할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집짐승은 소(238만마리), 양(174만 9천마리) 등이다.

공업의 기본은 수출원천의 하나인 린광석채굴이다.

1978년에 공업총생산액에서 전력및채취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43%에 이르고있다.

이 나라에는 알루미니움, 기계, 옷, 세멘트, 사탕, 신발, 편직물, 방직 공장 등 20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3개의 다랑어 및 정어리통졸임공장을 비롯하여 20여개의 물고기가공공장도 있다.

자동차길은 1만 3천 300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수출총액의 80%), 린광석과 물고기통졸임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및 식료품, 전기기계, 공업원료 등이다.

정부는 1985년까지 모든 중등학교교원들을 세네갈사람으로 꾸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양성된 교원수는 944명이다.

소학교는 약 5천개 있으며 1979년현재 225개의 문맹퇴치소가 있다.

녀의사 및 간호원수는 560명, 조산원은 280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70%)를 믿으며 그밖에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 아프리깬(사회당기관지), 앵포르마씨옹 아프리깬, 다까르 마땡, 쏠레이, 아프리끄 누벨, 뉴메로, 스뻬씨알, 옵쎄르 바떼르

방송 세네갈방송, 세네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9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5월에 세네갈공화국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6월 10일 세네갈조선국회친선그루빠성원들이 세네갈조선국회친선그루빠 및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세네갈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넓이 1만 1,295km²
인구 60만명(1979년 6월)
수도 반쥴(주민 4만 2,400명)

자연 및 주민

감비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땅생김이 평탄하고 낮은 벌방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 1,000~1,5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 만딩고족 등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와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1977년 4월에 진행된 선거 결과 총의석 35석중 인민진보당이 29석, 민족대회당이 5석, 통일당이 1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다우다 카이라바 쟈와라(1970년 4월—, 1977년 4월 다시 선거됨)

정부 1977년 4월 9일 11명으로 새 정부구성,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집권당, 1959년에 창건, 1979년 5월에 제2차대회진행, 다우다 카이라바 쟈와라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거됨, **민족대회당** 1975년에 조직, **통일당** 1951년에 창건, **민족자유당, 인민진보동맹, 로동동맹, 로동자련맹, 전국청년조직, 녀성련맹, 교원동맹**

감비아는 1965년 2월 18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감비아는 《평화, 진보 및 번영》의 구호밑에 제국주의식민지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4월 5일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민진보당이 승리하여 다우다 카이라바 쟈와라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감비아공화국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

카의 통일과 협조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감비아대통령이 1979년 2월에 세네갈을, 3월에 기네, 6월에 이라크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 또고대통령이 감비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땅콩생산이다.

주민의 90%가 농사를 하고있으며 부침땅은 22만 1천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땅콩외에 벼, 조, 수수, 강냉이 등 알곡작물과 야자, 목화, 남새 등이다.

벼는 1979년현재 약 4만톤 생산하고있다.

27만마리의 젖소가 있으며 평균 두 사람당 1마리씩 차례진다.

중요한 광물자원은 없다.

땅콩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공장, 기름공장이 있으며 그밖에 원유가공공장, 가죽이김공장, 방직공장 등이 있다.

1979년에 수력발전소도 새로 일떠서서 감비아의 민족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철길은 없으며 감비아강을 리용하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1천 200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 야자씨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알곡, 천, 기계, 석유제품 등이다.

1979년현재 이 나라에는 근 100개에 달하는 초등학교와 20여개의 중등학교가 있다. 여기에서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77년 8월 교육을 아랍어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 뉴스 불레틴(정부기관지), 감비아 온워드, 더 감비아, 더 프로그레씨브 뉴스 페이퍼, 더 감비아 아우트루크, 더 내이션, 더 워커

방송 감비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6월 11일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3월 24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감비아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8년 9월 6일에는 《주체철학연구감비아소조》가 결성되였다.

1979년 2월 8일에 《김일성주의연구감비아소조》가, 이해 7월 7일에는 감비아에 있는 남부아프리카학생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모임이 반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1979년 4월 12일 반춀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수공예품전람회가 열렸다.

기네—비싸우

(기네—비싸우공화국)

넓이 3만 6,125km²
인구 60만명(1979년 6월)
수도 비싸우(주민 1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쪽끝 대서양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기네—비싸우는 굴곡이 심한 해안을 가진 대륙부와 앞바다의 60여개의 작은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지대에는 한해 2,000mm의 비가 오나 내륙지방은 메마르며 몹시 덥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전국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임기는 3년, 의원수는 120명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국가수반, 1977년 3월 13일 국가리사회의원 15명선거,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1973년 9월 24일—, 1977년 3월 13일 다시 선거됨)

국가위원리사회(정부) 1977년 3월 15일 국가리사회위원장이 국가위원들을 임명, 책임위원(정부수반) 조아오 베르나르도 비에이라(1978년 7월 9일—)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 19일 창건, 총비서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베르데갑대통령), 부총비서 루이스 까브랄(기네—비싸우대통령), **전국근로자동맹, 민족독립전선, 민족인민동맹, 청년조직**

1879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된 기네—비싸우인민들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지도밑에 1961년 8월 3일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73년에 나라의 75%를 해방하였다.

1973년 9월 24일에 해방지역에서 진행된 전국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기네—비싸우국가선언》을 발표하고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4년 4월 뽀르뚜갈혁명후인 이해 8월 독립협

정이 조인되고 11월 15일 이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뽀르뚜갈침략군이 완전히 철거하였다.

전국인민회의는 1978년 9월 나라의 령해를 12마일로,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기네—비싸우와 베르데갑 두 나라는 하나의 당에 의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여왔으며 지금도 하나의 당밑에서 각각 별개의 두개 나라 정부를 구성하고있다.

이런실정에서 기네—비싸우공화국과 베르데갑공화국의 국가적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79년 2월에 두 나라 정부간회의 제2차회의를 진행하였다.

기네—비싸우정부는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국가리사회위원장이 1979년 3월에 노르웨이, 알제리, 6월에 모잠비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8월에 유고슬라비아, 뽀르뚜갈, 11월에 벌가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2월에 뽀르뚜갈대통령이, 10월에 산토메 프린시페대통령이 기네—비싸우공화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피마주, 야자, 코코아 등 수출작물이며 벼, 강냉이, 사탕수수 등 알곡작물도 심고있다.



《농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구호밑에 일부 토지를 국유화하고 곳곳에 국영농목장과 농업협동조합들을 조직하였다.

또한 토지를 정리하고 경지면적을 확장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뚝을 쌓고 우물을 파는 등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79년현재 약 19만마리의 닭과 약 17만마리의 염소를 기르고있다.

1979년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미만이다.

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영기업소들을 창설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다.

1979년현재 국영공업기업소는 약 140개에 달하고있다. 그것은 주로 정미소, 땅콩가공공장, 종려기름공장, 벽돌공장, 제재공장 등이다.

또한 원유가공공장과 발전소들도 있다.

1979년현재 공업부문에서 국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에 달한다.

보크사이트, 린매장지가 새로 발굴되여 개발중이며 원유탐사도 진행되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은 357키로메터이다.

1979년현재 초등학교학생수는 10만여명이며 학령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수도 비싸우에 교원대학이 건설되고있다.

1979년현재 이 나라에는 6개의 도병원과 12개의 농촌병원 그리고 120여개의 진료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700여명의 보건일군이 일하고 있다.

산과병원도 건설되여 한해에 3천 200명의 산모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있다.

주민들은 원시종교(63%), 회교(35%),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1975년 11월 국영통신사 창설
신문 삔챠(정부기관지), 만슬리 방가다 쥬베닐(청년조직기관지, 1979년에 발간)
방송 기네—비싸우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3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8월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이전 총비서 아밀까르 까브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5월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의 부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이 1979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인 11월 9일에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11월 8일에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베 르 데 갑

(베르데갑공화국)

넓이 4,033km²
인구 33만명(1978년)
수도 쁘라야(주민 4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베르데갑은 아프리카대륙 서쪽의 대서양우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기후는 메마른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300mm이다.

주민은 물라트(혼혈종)와 아프리카사람들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가 변화된 크레올어이다.

정 치

전국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56명, 전원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성원들, 1975년 7월에 선거

대통령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1975년 7월 5일—)

정부 1975년 7월 11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뻬드로 삐레스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6년 9월 19일에 창건, 총비서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

1975년 7월 5일 베르데갑은 뽀르뚜갈의 거의 500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하였다.

1976년 7월에 이 나라의 명줄을 틀어쥐고있던 식민주의자들의 《민족해외은행》이 국유화되였으며 국영은행이 창설되였고 또한 비행장과 항구가 국유화되였다.

1978년 2월에 나라의 령해를 12마일로,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베르데갑은 기네-비싸우와의 국가적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방침에 따라 1976년 4월 사법관계에서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9월에는 통일을 위한 정부간의 기관설치를 결정하였다.

1979년 2월에는 두 나라의 국가적통합과 관련한 문제토의를 위한 정부간회의 제2차회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인종주의정권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베르데갑대통령이 1979년 3월에 세네갈, 5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이해 12월에 탄자니아대통령이 베르데갑공화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담배와 같은 수출작물과 강냉이, 수수, 감자 등 알곡작물이다.

독립후 베르데갑에서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농업생산운동을 벌렸다.

결과 가물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뚝과 저수지들, 물길과 우물들이 건설되였으며 많은 황무지가 개간되여 부침땅으로 되였다.

베르데갑은 수산업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정부는 1979년 11월에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새로운 국영기업소 《인테르바즈》를 창설하였다.

독립후 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국영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채굴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가공공업부문을 건설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2천 154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일용품 등이다.

해마다 국가예산의 약 20%가 교육부문에 돌려지고있으며 1979년현재 학령아동의 95%가 공부하고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학생수는 약 10만명, 학교수는 600개에 달한다. 중등학교교원의 90%가 베르데갑사람들이다.

또한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과 산간지역에까지 의료기관이 꾸려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개선되고있다.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출판물 노떼씨아스 데 까보 베르데, 오 아르뀌뻴라고, 볼레띰 오피씨알

방송 베르데갑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기　네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넓이 24만 5,857km²
인구 527만 5,000명(1979년)
수도 꼬나크리(주민 60만명)

자연 및 주민

기네는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3,000~4,000mm이다.

주민은 풀베족(40%), 말린케족, 수수족 등 20여개종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각 민족어들도 쓰고 있다.

정　치

전국인민회의 일원제, 국가—당(민주당)이 전의석을 차지, 1974년 12월 선거, 임기는 7년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기네혁명의 최고책임자, 임기는 7년,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1961년 1월—, 1978년 11월 21일 4선)

정부 1979년 6월 2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란사나 베아보기

정당, 사회단체; 국가—당(민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47년 5월 14일 창건, 1978년 11월 제11차당대회에서 국가기관과 당기관을 합쳐서 하나의 《국가—당》기관을 창설하기로 결정, 총비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전국리사회, 전국녀성위원회**

기네는 184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60년에 놈들의 《보호령》으로, 1895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기네는 1958년 10월 2일 서아프리카에서 제일먼저 독립하였다.

독립후 기네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1958년 11월 2일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60년에는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였으며 프랑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족화폐를 발행하였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은행과 땅, 운수회사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고 대외무역을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는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0년 5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으며 1971년 7월에는 인민민병대를 창건하였다.

기네인민은 1970년 11월 22일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감행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쳤다.

1978년 11월에 진행된 기네민주당 제11차대회에서는 국가기관과 당기관을 합쳐 하나의 《국가—당》기관을 창설하며 기네공화국을 기네인민혁명공화국으로 고쳐부르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4월에 한 회의에서 기네대통령은 기네가 제시한 목표인 사회주의사회를 기어코 건설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기네대통령이 1979년 1월에 마로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뛰니지, 또고, 2월에 아랍추장국련방, 3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시에라레온, 5월에 리베리아, 7월에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말따, 리비아, 8월에 미국, 9월에 져메이커, 가이아나, 10월에 로므니아, 세네갈을 방문하였으며 이해 3월에 감비아대통령이 기네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과 채취공업이다.

농업은 서아프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하였다.

주민의 80%가 농업을 하고있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5%를 담당하고있다.

정부는 《농업은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하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할것을 목표로 농업협동조합을 뭇고 씨붙임면적을 늘이고 관개시설을 확장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기네에는 국가에서 기계와 전문가들을 보장해주는 집단화된 농업협동조합이 2천여개나 된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파이내플, 코코아 등 공예작물이며 벼, 강냉이, 수수 등 알곡작물들도 심고있다.

이 나라의 2대수출작물인 바나나는 한해에 8만톤, 파이내플은 1만 5천톤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소(198만마리), 양과 염소(116만 5천마리)등이다.

경제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채취공업은 1979년현재 국민총생산액의 약 39%, 공업총생산액의 87%, 수출총액의 95%를 감당하고있다. 기

네에는 서아프리카의 《보물고》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 특히 보크사이트, 철광석, 금강석, 흑연, 원유 등이 많다.

보크사이트는 그 질도 좋거니와 매장량(80억톤 이상)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보크사이트생산량은 920만톤(1976년)이였는데 1980년에 가서 2천 500만톤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알루미나는 1977년에 60만톤 생산하였다.

품위높은 철광석은 30억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기네에는 식료공업, 화학공업, 림업, 방직공업,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국영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150개나 있는데 공업총생산액에서 국영부문기업소들이 차지하는 몫은 약 4분의 1에 달하고있다.

철도망과 도로망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하였다. 철길은 66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2만 8천 400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이내플, 커피 등 농산물과 보크사이트, 철광석, 금강석 등 광물류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제품, 운수수단 등이다.

전국의 각급학교들에서 35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21개의 병원과 276개의 지역보건쎈터, 매지역마다에 1개의 국영약국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65%가 회교도이고 그밖에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국가—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기네(정부기관지), 뜨라바예르 드 기네

방송 기네《혁명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두 나라 사이의 통상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통신 및 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6년 11월 10일 조선통일지지기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이 인솔하는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1979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인 10월 14일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이에 앞서 10월 13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과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시에라레온

(시에라레온공화국)

넓이 7만 1,740km²

인구 370만명(1979년 6월)

수도 프리타운(주민 27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시에라레온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자리잡고 기네와 리베리아에 둘러싸여있다.

기후는 적도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약 27°C이며 해안지대의 년평균강수량은 4,000mm이다.

주민은 멘데족(30%), 크레올을 비롯한 1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1977년 5월 총선거 진행, 총의석 100석중 85석은 전인민대회당이, 15석은 인민당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 21일—, 1976년 3월 26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78년 6월 새 헌법에 의하여 총리제가 페지되고 2명의 부대통령제를 내옴

제1부대통령 쏘리 이브라힘 코로마

정당, 사회단체; 전인민대회당 1960년 창건, 1968년 4월부터 집권당, 당수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 **로동대회**(국제자유로조련맹에 가입), **청년리사회**, **녀성조직전국련맹**

1807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던 시에라레온은 1961년 4월 27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8년 4월 17일 병사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스티븐스를 총리로 하는 전인민대회당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1년 4월 19일 스티븐스는 자기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영국녀왕이 시에라레온의 왕으로 된다는 법령을 페지하였다.

1978년 5월 24일 국회에서 일당제국가수립에 관한 헌법수정안이 가결되였다.

1979년 10월 정부는 나라의 경제에 대한 외국의 압력을 끝장내고 국가관리사업에 민족간부들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아프리카화 전국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티븐스대통령은 이해 6월 국회연설에서 정부

가 농업에 최대의 우선권을 계속 부여할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쌀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은 정부의 농업강령의 초석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며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가지는것이며 동시에 국가들사이의 평등, 령토완정, 쁠럭불가담원칙들에 기초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해 3월에 기네대통령이 시에라레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4분의 3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3만 6천 617평방키로메터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종려 등 수출작물이며 알곡작물로는 벼, 강냉이, 수수 등이 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이 나라의 커피수확량은 4천톤으로부터 8천톤으로 늘어났다.

농업협동화운동이 벌어진 결과 1979년현재 1천개이상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졌다.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에서는 경지면적을 확장하고 농기계와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며 농업을 다각화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며 금강석을 비롯한 철광석, 보크사이트, 금, 주석 등이 채굴되고 있다.

정미공장, 신발공장, 방직공장, 기름공장, 사탕공장, 벽돌공장, 담배공장 등 3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여 공업생산이 늘어나고있다. 1979년에만도 과일가공공장과 프리타운에 새 부두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3천 500키로메터이며 철길은 내륙지방과 련결되였을뿐 산간지방에는 없다.

주요항구는 프리타운항과 페펠항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철광석, 보크사이트, 코코아, 커피 등이며 그중 광물이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설비, 천, 차량, 석유 등이다.

소학교는 1천 100여개(학생수는 18만 1천여명), 중학교는 81개, 대학은 3개 있다.

시에라레온종합대학에서는 해마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을 키워내여 여러 부문에 내보내고있다.

한편 교원대렬을 시에라레온인화할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교원대학, 교원양성소들에서 많은 교원들이 양성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일리 메일(정부기관지), 더 네이슌, 유니티, 아드반스, 엑스프레스, 피플, 위욘, 싼디 플라쉬, 위쉐, 쌍바이, 스팩태클러

방송 시에라레온방송, 시에라레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3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1976년 4월 15일 《조선통일지지시에라레온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0월 10일 프리타운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의과학연구소조》가 무어졌다.

시에라레온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 있다.

1972년 12월 수도 프리타운에서 《전아프리카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78년 4월 18일 우리 나라의 무상원조로 프리타운시 회관이 건설되여 개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1979년 4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수도 프리타운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 전국청년동맹위원회,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시에라레온위원회를 비롯한 여러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시에라레온전국련대성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8월에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리 베 리 아

(리베리아공화국)

넓이 11만 1,369km^2
인구 180만명(1979년 6월)
수도 몬로비아(주민 20만명)

자연 및 주민

리베리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의 기네만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열대성적도기후로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1～28°C이다.

주민은 30여개의 아프리카종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많은 종족은 쿠르족, 크펠레족과 바이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종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있다.

정　치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며 량원제, 상원의원은 20명이며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은 84명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8년, 재선될때의 임기는 4년,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1972년 1월—, 1976년 1월 5일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진정독립당 1869년에 창건된 유일당이며 집권당, **생산로조대회**

리베리아는 1822년 《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 《해방노예》들이 만들어낸 나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노예》를 끌어다 리베리아라는 이름을 단 첫 《국가》를 세우게 하고 저들의 총독놈을 통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리베리아는 1847년 7월 26일 독립을 선포하고 리베리아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리베리아정부는 대외적으로 평화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통일을 주장하고있으며 인종주의, 인종격리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 팔레스티나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리베리아대통령이 1979년 1월에 서독, 3월에 프랑스와 알제리, 4월에 쿠웨이트, 9월에 미국, 12월에 영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2월에 가나국가수반이, 5월에 상아해안대통령과 기네대통령이 리베리아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 16일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해 7월에 리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제16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고무재배를 위주로하는 농업과 철광석생산을 비롯한 채취공업이다.

로력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사법을 고치고 땅을 개량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고무, 그밖에 코코아, 커피를 비롯한 열대작물과 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도 재배하고있다. 그중에서 고무와 코코아는 이 나라 2대특산물이며 천연고무생산량은 세계 제 7위이며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 보크사이트, 망간, 금강석, 금, 동 등이다.

철광석매장량은 10억톤이 넘으며 년간 철광석채취량(약 2천만톤)은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고무와 철광석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정부는 점차 외국자본의 《리베리아화》를 실현하기 위한데 힘을 넣고있다.

령토의 50%가 열대밀림으로 뒤덮여있는 이 나라에서는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통나무와 여러가지 목재가공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리베리아의 해운업은 세계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한다. 명목상의 세금밖에 받지 않으면서 외국선박들의 국적을 편의상 리베리아국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있는 관계로 선박보유고는 세계 제1위이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철도운수는 아주 뒤떨어져있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수출액의 73%), 천연고무, 금강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원료 등이다.

890여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13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하나의 종합대학과 몇개의 대학이 있다.

병원은 31개 (정부운영 13개, 나머지는 개인소유)이며 의사는 총 170명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출판물 리베리언 에이지, 리베리언 스타(무소속), 데일리 리스너, 썬데이 디제스트

방송 리베리아방송, 리베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7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5월에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리베리아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상아해안

(상아해안공화국)

넓이 32만 2,462km²
인구 776만 1,000명(1979년)
수도 아비쟝 (주민 11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상아해안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기슭에 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3～25°C이

며 강수량은 남부에서 4,000mm, 북부에서 820mm이다.

주민은 수단흑인이며 그밖에 바울레족, 크루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20명, 임기는 5년, 1975년 11월 16일 선거, 민주당이 총의석을 차지

대통령 펠릭스 후푸에 브와니(1960년—, 1975년에 4선), 임기는 5년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46년에 창건, **민족해방위원회, 근로자총련맹**

188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상아해안은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지》로 되였다가 1958년 12월에 《프랑스공동체》내의 한개 자치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에는 이《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

1979년 4월 상아해안대통령이 리베리아를 방문하였다.

같은 기간에 우리 나라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축산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80%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파이내플, 고무,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벼, 강냉이, 콩 등이다.

아프리카 최대 커피산지이며 코코아생산은 세계적으로 제1위, 파이내플 생산은 세계적으로 3, 4위를 차지한다.

1985년에 가서 코코아는 40여만톤, 커피는 33만톤, 사탕수수는 150만톤으로 높일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1978—1979년도에 30만톤의 코코아를 생산하였다.

20여종의 질좋은 통나무도 생산된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 식료, 채굴 공업이 기본이다.

최근년간 정부는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화를 추진시키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망간, 원유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망간, 축산물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소비재와 공업원료, 기계, 수송기재, 직물류 등이다.

철길은 아비쟝에서 북쪽으로 뻗어 상부볼따와 련결하는 한개의 선밖에 없다.

1978년에 상아해안의 항들에서는 954만 6천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특히 가장 큰 항구인 아비쟝에서는 833만 1천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어린이들의 65%가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76—1977학년도에 중등학교학생수는 11만 2천 60여명, 기술학교학생수는 1만 2천명, 고등교육기관학생수는 8천 400여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떼르니떼 마땡(민주당기관지), 프라떼르니떼 마땡(정부신문), 르 쥬르날, 앙땅뜨 아프리깽

방송 아비쟝방송, 부아께방송, 상아해안텔레비죤방송

상부볼따

(상부볼따공화국)

넓이 27만 4,200km²
인구 666만 1,000명(1979년)
수도 와가두구(주민 20만명)

자연 및 주민

상부볼따는 서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말리, 니제르, 베닌, 또고, 가나, 상아해안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초원이다.

기후는 적도계절풍기후로서 평균기온은 1월에 24~26°C이며 5월에 30~3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약 1,000mm이다.

주민은 모시족, 로비족, 보보족, 구룬시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국회 1원제, 의석수 57석, 1978년 4월 30일 선거에서 상부볼따아프리카민주련합—볼따민주당이 28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2회투표제, 대통령 엘 하지 아부바까르 상굴레 라미자나(1966년 1월—, 1978년 4, 5월 선거)

정부 1978년 7월 16일 새 정부 구성, 총리 이쑤푸 죠제프 꼬놈보

정당, 사회단체; 상부볼따아프리카민주련합—볼

따민주당, 민주방위국민련합, 진보련맹, 근로자로동조합동맹, 아프리카로조련맹(세계직련에 가맹)

190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상부볼따는 1943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강제편입되였다. 1958년 12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5일에 이 《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6년 1월 4일 총참모장이였던 상굴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야메오고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1970년 6월 14일 새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이해 12월 20일에는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고 라미자나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10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6월 29일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새로운 민족자문리사회를 창설하였다.

1977년 3월 라미자나는 군사통치로부터 정상적인 헌법생활에로 되돌아가기 위한 4개항목의 헌장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민정이행을 위한 준비로서 정당활동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 다당제민주주의에로 복귀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77년 11월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8년 4월에 총선거, 4, 5월에는 12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의회제민주주의》체제에로 넘어갔다. 선거에서는 상굴레 라미자나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상부볼따인민은 민족경제발전5개년(1977—1981)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2천 624억아프리카프랑의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상부볼따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대통령이 1979년 6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9월에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조, 수수, 땅콩, 기장, 목화 등이다. 1977—1978회계년도에 3만 8천톤의 목화를 땄다.

정부는 《농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구호밑에 자연재해와의 투쟁을 벌리면서 농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가물피해를 막기위하여 새땅을 일구고 관개공사를 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운동으로 수많은 우물도 팠다.

또한 여러가지 농기계와 농기구, 화학비료 등이 농촌들에 공급되였다.

축산업은 경제에서 주되는 부문이다. 축산물수출이 총수출액의 50%를 이루고있다.

주요집짐승은 말, 소, 염소 등이다.

장차 축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밑에 저수지들을 만들고 축산기지들을 꾸리며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고있다.

공업에서 주되는것은 농산물과 축산물가공공업이며 그밖에 세멘트, 벽돌, 신발, 기름공장 등 여러부문의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민족경제발전5개년(1977—1981)계획의 세번째해 과업을 수행한 결과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여러지역에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와가두구로부터 상아해안국경까지 련결되여 주로 수출입을 하고있다.

자동차길은 1만 7천키로메터이며 화물자동차수는 8천 100여대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목화, 땅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담배, 석유제품 등이다.

1969년부터 민족문자를 만들고 민족어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9년현재 초등학교수는 770여개이다. 와가두구에 종합대학이 있다.

의료기관도 많이 생겨 주민들에 대한 의료상방조가 해마다 개선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까래프르 아프리깬(정부기관지), 옵쎄르바떼르, 뿔레이 더 오뜨볼따,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드 오뜨볼따

방송 상부볼따방송, 상부볼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0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3월에 우리 나라와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1979년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부볼따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가 나

(가나공화국)

넓이 23만 8,537km²

인구 1,174만 2,000명(1979년)

수도 아크라(주민 100만명)

자연 및 주민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중부 기네만연안에 자리잡고 상부볼따, 상아해안, 또고에 둘러싸여있다.

날씨는 늘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샨티족(44%)과 에웨족이며 기타 다고아족, 후아티족 등 5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최고립법기관, 임기는 5년, 1979년 6월 18일 선거 진행, 총의석 140석중 인민민족당이 71석, 인민전선당이 42석, 기타 27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힐라 리만, 1979년 6월 18일과 7월 9일 1, 2차 대통령선거 진행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1979년 9월 24일 12명으로 된 새 정부 구성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족당, 인민전선당, 통일민족대회, 사회민주전선(로조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 **행동대회당 및 제3세력당**

15세기말에 침입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큰 금산지를 발견하였다하여 《황금해안》이라는 나라 이름을 붙여 수백년간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57년 3월 6일 황금해안과 영국의 후견령 또고(서부또고)가 통합되여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가나로 고쳤다.

1960년 7월 1일 공화국이 창건되고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으나 1966년 2월 친미주구들의 군사정변에 의하여 전복되였다.(느크루마가 집권하던 시기를 가나 제1공화국이라고 함)

1972년 1월 13일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부시아정부를 전복하고 최고군사리사회를 조직하였다.(부시아가 집권하던시기를 제2공화국이라고 함)

1979년 6월 4일 가나에서 청년공군 하급장교들을 비롯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쿠포군사정권을 전복하고 쥐. 제이. 라울링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군사혁명리사회는 민간통치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1979년 6월 18일 제1차 대통령선거를 진행하였으나 립후보들중 누구도 절대적인 다수표를 얻지 못하여 7월 9일 제2차선거를 통하여 가나인민민족당 지도자인 힐라 리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6월 18일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도 인민민족당은 국회의 총의석수 140석가운데 71석을 차지하였다.

이해 9월 8일 민간인통치에로의 나라의 이행조건을 규정한 헌법이 발포되였다.

9월 24일 가나수도에서는 근 8년간의 군사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행정부에 정권을 넘겨주는 《가나제3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하는 의식이 있었다.

의식에서 리만은 가나초대대통령 느크루마(1960.6. —1966. 2)의 《리념에 충실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9월 21일에는 느크루마탄생 70돐을 기념하였다.

12월 국회연설에서 가나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물질, 정신적으로 계속 백방으로 지지할 가나정부의 공약을 확언하고 가나는 아프리카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나정부는 쁠럭불가담원칙들, 아프리카통일기구의 목적들을 고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취공업이다.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농사를 하고있으며 300만명의 주민들이 코코아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이 밖에 커피, 바나나, 야자, 고무, 목화 등 수출작물과 벼, 강냉이, 수수 등 알곡작물도 심는다.

코코아재배면적은 약 200만헥타르에 달한다.

100년간의 코코아재배력사를 가지고있는 가나에서의 코코아는 《푸른금》으로 불리우고있다.

코코아생산량은 세계에서 제1위로서 세계생산량의 30%를 차지하였었다.

1979년에 코코아생산량은 26만여톤으로서 세계 제1위로부터 제3위로 떨어졌다. 상아해안(30만톤)과 브라질(29만톤) 다음에 간다.

가나에는 전국 코코아연구소와 21개의 과학기술보급소를 창설하고 해마다 현대적인 재배기술을 가진 2만 5천명의 농민들을 양성해내고있다.

1976—1977농업년도에 목화밭면적은 2만 3천900헥타르로 늘어났으며 목화생산량은 1만 2천700톤이였다.

집짐승은 주로 북부지방에서 (소, 양, 염소) 많이 기르고있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이 기본이며 금강석, 금, 망간, 보크사이트, 원유 등을 생산하고있다.

1978년에 쏠트폰드유전이 개발된데 이어 1979년에 가나해안에서 새 원유매장지를 찾아냈다.

하루동안에 나오는 원유량은 쏠트폰드유전에서 6천바렐, 해안에서 찾아낸 매장지에서는 1천 47바렐에 이른다.

운수는 아크라와 코코아산지 및 광산지대를 련결하는 철도운수가 있고 자동차운수, 볼따강을 리용하는 해상운수가 있다.

철길은 1천 29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3만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금강석, 금,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연료 등이다.

코코아생산은 이 나라 외화총수입의 65%를 차지한다.

이 나라에는 3개의 대학이 있다.

주민들의 42%가 기독교, 12%는 회교, 나머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 타임스(정부기관지), 데일리 그래피크, 이브닝 스탠다드, 피플즈 이브닝 뉴스, 미러

방송 가나방송, 가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2월 16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와 가나통신사 사이의 통신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9년 3월에 가나공화국정부대표단이, 이에 앞서 2월에 가나통신사 총사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가나를 방문하였다.

또 고

(또고공화국)

넓이 5만 6,000km²

인구 250만명(1979년 6월)

수도 로메(주민 21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을 끼고있으며 가나와 베닌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다.

적도에 가까운 또고는 계절의 변화가 없고 가물철과 장마철이 있을뿐이다. 가물철의 평균기온은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500mm이다.

에웨족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으며 마나족, 까뜨시족, 카브레족 등 40여개의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대부분 자기 민족어를 쓴다.

정 치

민족회의 1979년 12월 30일 총선거에서 67명의 대의원들이 선거됨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1967년 1월—, 1979년 12월 30일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또고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 창건, 1979년 11월 제3차대회진행, 창건자, 위원장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근로자전국동맹**

1884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던 또고는 1914년 8월에 또다시 나라의 동부와 서부를 각각 영국, 프랑스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57년 3월에 서부또고가 가나에 통합되고 1960년 4월 27일에 프랑스령 또고(동부또고)가 독립하였다.

1967년 1월 13일 또고군총참모장이던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혁명을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1979년 11월 27일부터 29일사이에 진행된 또고인민련합 제3차대회에서는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를 또고인민련합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하였다.

대회는 나라에 민주주의제도를 세울것을 예견하는 또고헌법초안을 찬동하고 그것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기로 하였으며 새 5개년발전계획을 토의하였다.

12월 30일 또고에서 1967년혁명 이래 첫 대통령선거와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선거 결과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제3또고공화국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민족회의가 구성되였다.

이날 헌법채택을 위한 첫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정부는 1977년 8월에 나라의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또고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또고대통령이 1979년 2월에 감비아, 5월에 베닌을 방문하였으며 이해 1월에 기네대통령이 또고를 방문하였다.

이해 7월에 베닌과 항공 및 도로 운수에 관한 2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해 1월에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6%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목화 등 공예작물이며 벼, 강냉이, 수수, 땅콩, 조, 나무감자 등이다.

1979년에 120여만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1978—1979회계년도에 약 2만톤의 코코아, 1977—1978회계년도에 4천 500톤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1978년에 강냉이생산량은 17만 2천 800톤, 수수는 13만 400톤, 벼는 2만 3천 300톤, 땅콩은 1만 7천 400톤, 나무감자는 47만 4천 500톤에 달하였다.

1978년에 또고의 농업생산액은 630억아프리카프랑에 달하였다.

제3차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농업발전에 560억아프리카프랑의 자금을 돌리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22만 5천마리), 양(50만마리), 닭(250만마리) 등이다.

이 나라에는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하는 제강소, 세멘트공장, 원유정제공장, 성냥공장, 전기공장, 방직공장을 비롯한 50여개의 중공업 및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린산염, 알루미니움, 망간, 철광석, 원유 등이다.

또고의 채취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린산염이다.

탐사된 린산염매장량은 1억 6천만톤이다.

린산염생산량은 1978년에 300만톤으로서 세계에서 5～6위를 차지한다.

린산염에서 얻은 수입은 이 나라 국민소득의 30～40%를 차지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7천 200키로메터이다.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메항을 잘 꾸리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린산염(수출총액의 76%), 코코아, 커피,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이다.

초등학교수는 약 1천 200개, 학생수는 33만명, 중등학교수는 약 128개, 학생수는 4만 4천여명이다.

정부는 민족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9년 1월에 수도 로메에서 민족어들인 카브레어와 에웨어를 보급하기 위한 교원강습을 진행하였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3만 3천 500여명의 어른들이 문맹퇴치소를 다니였다.

이 나라에는 23개의 병원과 300여개의 농촌진료소, 의료소, 5개의 국영제약회사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 회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또고통신

신문 또고 프레스, 라 누벨 마르슈

방송 또고방송, 또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 4일 또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6년 6월 24일 두 나라 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1977년 2월에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9년 10월 18일 수도 로메에서 조선중앙통신사와 또고통신사사이의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4년 9월에 또고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15돐에 즈음하여 1979년 2월에 수도 로메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11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또고를 방문하였다.

베 닌

(베닌인민공화국)

넓이 11만 2,622km²
인구 350만명(1979년 6월)
수도 꼬또누(주민 18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서해안의 기네만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베닌은 많은 물줄기들을 한몸에 품었다고 하여 《물의 고향》으로 불리우고있다.

기후의 특징은 방금 맑게 개였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것이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평균기온은 1월에 21°C, 7월에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주민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폰족과 아쟈족, 요루바족, 바리바족, 풀베족 등 3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각 종족은 자기 언어를 쓴다.

정 치

전국혁명회의 1979년 11월 20일에 창설된 최고주권기관, 336명의 인민위원(대의원)들을 선거,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들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3년,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1972년 11월—, 1980년 2월 6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80년 2월 6일 새 내각을 구성,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75년 11월 30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9년 11월 18일 제1차대회 진행,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근로자로동조합전국동맹, 녀성전선**

베닌은 1960년 8월 1일 프랑스식민지통치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12년동안 5차례의 정변과 9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2년 10월 26일 락하산부대 사령관이던 마티어 께레꾸의 지휘밑에 진보적장교들이 친서방적인 마가정권을 뒤집어엎고 군사혁명정부를 조직하였다.

1975년 11월 30일 다오메로 불리우던 나라 이름을 베닌인민공화국으로 고쳤다.

1977년 1월 16일 베닌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였다.

이해 8월에 새 헌법과 제1차 3개년국가발전계획이 채택되였다.

1979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사이에 진행된 베닌인민혁명당 제1차대회에서는 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가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11월 20일 베닌인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선거에서는 전국혁명회의 인민위원(대의원) 336명을 선거하였다.

1980년 2월 6일 수도 뽀또누에서 진행된 베닌전국혁명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는 전국혁명회의 상설위원회 성원들과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상설기구들을 내왔다.

회의에서는 마티어 께레꾸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하였다.

베닌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베닌대통령이 1979년 4월에 나이제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5월에 또고대통령이, 7월에 세이쉘대통령이, 8월에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베닌을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베닌은 나이제리아와 경제, 과학, 기술및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4월에는 군사적협조에 관한 협정, 7월에 또고와 항공 및 도로 운수에 관한 2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종려, 커피 등 기름작물이며 강냉이, 벼, 수수, 땅콩 등 알곡작물도 심는다.

씨뿌림땅의 절반이상(60만헥타르)에 종려나무를 심고있다.

1977—1978년도에 강냉이는 25만톤이상, 벼는 1만 7천 400톤생산되였다.

베닌에는 150개의 시험적인 농장들이 창설되였으며 곳곳에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있다.

또한 황무지들을 일구어 부침땅면적을 늘이며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우물파기공사들도 벌리고있다.

내륙지대에서는 소, 양, 염소, 돼지, 말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많은 기업소들과 보험회사, 석유회사, 은행들, 동력공업, 방직공업 등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등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철광석, 린회석, 크롬 등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62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7천 6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종려씨와 종려기름 (수출총액의 70%)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제품, 담배 등이다.

학교들은 국유화되고 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2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 지리 등을 배우고있다.

소학교는 852개, 중학교는 60개있으며 1979년에 6개의 사범학교를 새로 내왔다.

1979년에 처음으로 사범대학에서 여러 학과목의 교원 105명을 졸업시키고 체육대학에서 14명의 전문가를 키워냈다.

베닌에서는 3개의 대학(법학 및 행정대학, 의학대학, 경제대학)을 새로 창설하기로 하였다.

민족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일 큰 4개의 민족들인 폰, 아쟈, 요루바, 바리바 민족들에게 민족어를 가르쳐주고있다.

한편 민족어로 교과서들을 만들어 출판하고있다.

제약공업을 국가가 장악하고 생산과 판매를 통

제하고있다.

꼬또누에 아프리카의료일군들을 위한 국제의학연구소가 있다.

주민의 70%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13%)와 기독교(15%)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닌통신

신문 다오엑스프레스(정부기관지), 악씨옹 뽀쀨레르, 로브 누벨, 베닌 앵포르마씨옹, 르 데모끄라트, 미쎄누—미쎄그베, 이뿔레

방송 《혁명의 목소리》방송, 베닌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2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9월 6일 베닌조선친선협회, 1971년 5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베닌련대성위원회가, 1978년 1월 14일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베닌전국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12월 27일 우리 나라가 베닌에 농업및문화분야에서의 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6년 5월 3일 두 나라 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를 1979년 12월에 베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6년 7월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6월에 베닌대통령의 특사가, 9월에 베닌인민혁명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베닌을 방문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넓이 92만 3,768km²

인구 7,459만 5,000명(1979년)

수도 라고스(주민 27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만기슭에 있는 나이제리아는 니제르, 까메룬, 베닌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며 너비 50~100키로메터의 평야가 바다기슭을 따라 뻗어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사철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0~23°C이다.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주민은 하우사족(북부), 요루바족(서부), 이보족(동부)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대부분이 수단계통의 흑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종족들은 대부분 자기의 민족어를 쓴다.

정 치

국민의회 상하량원제, 1979년 7월 상하량원선거 진행, 국민의회선거에서 민족당이 다수의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1979년 8월 11일 대통령선거 진행, 대통령 알하지 쉐후 샤가리 (1979년 10월 1일 취임)

국가리사회 이전 군사정부수반, 부대통령, 이전 대통령들과 정부수반들, 이전 재판소 소장들 그리고 상하량원 의장, 주지사들, 검사총장, 매개주에서 각각 1명씩 선발된 인원들로 구성된다.

정부 1979년 12월 14일 24명의 부장들과 17명의 국무비서들로 구성,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민족당(집권당), 통일당, 인민당, 위대한인민당, 인민구제당, 농업근로자동맹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6년 7월 29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야쿠부 고원이 1967년 5월 27일에 련방의 새로운 체계를 내오고 12개주로 구성되는 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75년 7월 29일 군부내 장교들의 《무혈군사정변》으로 무리탈라 라나트 모하메드륙군중장이 국가원수겸 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였으며 새련방군사정부를 구성하였다.

1976년 2월 13일 반란자들에 의한 군사 정변으로 국가수반이였던 무리탈라 라나트 모하메드가 살해되였다. 반란자들의 정변음모는 즉시 진압되였으며 국가수반으로 나이제리아군총참모장 올루세군 오바산죠가 임명되였다.

이해 10월 2일 오바산죠는 1979년 10월까지 민정으로 넘어갈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새 헌법초안이 발표되고 1979년 8월 11일 민족당, 통일당, 인민당, 위대한인민당, 인민구제당의 대통령후보자들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였다. 결과 나이제리아민족당 지도자 알하지 쉐후 샤가리가 13년만에 이 나라 민간정부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대통령선거에 앞서 나이제리아 국민의회의 상원, 하원, 19개의 주의회, 주지사들의 선거가 있

었다.

주의회선거결과 민족당 487석, 통일당 333석, 인민당 226석, 위대한인민당 155석, 인민구제당 143석을 각각 차지하였으며 민족당은 국민의회선거에서도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민족당은 모두 5번의 선거들(상원, 하원, 19개의 주의회, 주지사,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선거에서 패배한 다른 당파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재심의해줄것을 재판소에 상소하였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선거에 대한 특별재판이 진행되였으며 10일 재판소에서는 샤가리가 대통령이라는것이 선포되였다.

이해 10월 1일 샤가리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나이제리아는 13년간의 군사통치후 의회제민주주의로 돌아갔다.

알하지 쉐후 샤가리대통령은 10월에 한 방송연설에서 나이제리아인민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운명》이라는 구호밑에 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정부는 식량의 자급자족, 주택문제의 해결, 모든급에서의 무료교육의 실시, 현대적인 공업건설, 사회봉사와 보건사업의 개선, 로동조건의 개선 등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그는 나이제리아정부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을 지지하고 억압세력을 반대하며 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석유수출국가기구, 유엔헌장에 충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나이제리아는 1979년 2월에 베닌파 경제, 과학기술및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과 4월에 군사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4월에 웽그리아와는 경제,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조협정을, 8월에 인도와는 기술및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35%, 농산물은 사회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총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잎담배, 목화, 천연고무이며 그밖에 벼, 강냉이, 수수 등도 심는다.

코코아밭은 120만에이커이상에 달하고있다.

1976—1977회계년도에 코코아는 16만 5천톤, 목화씨는 14만 8천톤 생산되였다.

최근년간 나이제리아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농촌들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지고 부침땅이 늘어나고 관개공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화학비료와 농기계들이 농촌에 들어가고있다.

1978년에 23만 5천톤의 화학비료가 농촌에 공급되였다.

령토의 3분의 1이 산림지대인만큼 목재와 합판이 많이 생산되여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있다.

북부초원지대에서는 소, 양, 염소, 락타 등을 많이 기르고있다.

공업에서는 원유, 콜롬바이트, 천연가스, 석탄, 주석, 금 등을 캐내는 채취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 기본이다.

세계 10대원유생산국중의 하나인 이 나라에서는 1979년현재 하루평균 240만바렐의 원유를 생산하며 그 매장량은 수억만톤에 달한다.

새로운 유정들이 건설되고 원유생산량이 늘어나고있다. 1979년에 원유생산량은 1억 1,400만톤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1978년까지 이 나라에 있는 외국인 기업소의 95%에 해당하는 1천 120개의 기업소가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현제3차 5개년(1975년 4월—1980년 3월)계획기간에 이 나라에서는 야금, 기계제작, 원유채취, 세멘트, 비료 등 여러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원유가공공장, 세멘트공장, 자동차조립공장, 방직공장 등 여러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24억 1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 30만톤의 석탄, 200만톤의 세멘트, 2억 9천 300만메터의 면천과 1억 5천 700만메터의 인조천을 생산하고있다.

콜롬바이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주석생산은 아프리카에서 손꼽힌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3천 50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5만 9천마일이다.

1979년현재 자동차수송은 수송총량의 70%를 차지한다.

1978년에 이 나라의 수도 라고스와 베닌의 수도 뽀또누를 련결하는 자동차길이 건설되였다.

1979년현재 이 나라에는 15개의 항구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0%), 코코아, 땅콩 및 땅콩기름, 목화, 콜롬바이트, 주석, 천연고무,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의약품, 강재, 기계설비 등이다.

1978년에 47만여톤의 입쌀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였다.

1976년부터 초등무료교육이 실시되고 1979년 4월부터는 중등무료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중등학교수는 1천 494개, 기술전문학교수는 78개, 대학은 13개이다.

교육은 수도의 교육과 이바단에 있는 대학만을 련방정부가, 기타 주교육행정은 각 주정부들이 맡아본다.

보건사업도 각 주정부들이 맡아보고있다.

북부와 서부에 회교도가 많고 동부의 이보족을 중심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도이다. 그밖에 부족에 따라 여러가지 원시종교가 있다.

출판보도;신문 모닝 포스트(련방정부기관지), 데일리 타임스,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스케취, 나이제리언 모닝포스트, 뉴스, 썬데이 스타, 나이제리언 워커

방송 나이제리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카더나북부나이제리아텔레비죤방송, 나이제리아국제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5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2월 라고스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5월 나이제리아에서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1977년 8월에 두 나라 사이에 관개, 물자원, 중공업 및 농업 부문을 포괄하는 경제 및 무역협조협정이, 1978년 3월에는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9년 1월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주체사상과 로작연구나이제리아교원동맹 라고스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4월에 나이제리아군 최고사령부 참모장이, 6월에 이 나라 기자대표단이, 7월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주체사상과 로작연구나이제리아교원동맹 라고스주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넓이 126만 7,000km²
인구 534만 6,000명(1979년)
수도 니아메(주민 17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남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넓은 초원으로 되여있다.

열대사막성기후로서 년중 기온이 높다.

년평균기온은 30°C이며 한해에 비가 남부에서 250~300mm, 북부사막지대에서 100mm 내린다.

주민은 하우사족(50%), 송가이족(20%), 제르마족, 풀베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5개의 민족어도 쓴다.

정 치

최고군사리사회 1974년 4월 15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최고기관, 의장 쎄이니 쿤체

정부 1979년 9월 10일 정부개조, 국가 및 정부수반 쎄이니 쿤체(1974년 4월—)

정당, 사회단체; 1974년 4월 정변후 일체 정당활동은 금지됨

19세기후반기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온 니제르는 1908년부터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속해있다가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에는 이《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다.

1974년 4월 15일 군총참모장이던 쎄이니 쿤체가 정권을 잡고 최고군사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다.

1976년 3월 14일 정변시도가 적발되여 진압되였다.

니제르인민은 《경제의 니제르화》라는 구호를 들고 1979년부터 경제발전 제1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니제르국가수반이 1979년 1월에 또고, 5월에 알제리와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니제르와 또고 두 나라 사이에 협조협정이 체결되였다.

1979년 6월에 니제르는 가이아나, 바베이도즈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짓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목화, 기장, 수수, 사탕수수 등이다.

새땅을 일구어 씨붙임면적을 늘이고 저수지와 우물공사들이 벌어지고있다.

사막지대에서는 바람막이숲도 조성되고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거의 64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기간 해마다 평균 2천여헥타르의 산림이 조성되였다.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축산의 나라로서 주요집짐승은 소(400만마리이상), 양과 염소(700만마리이상) 등이다.

집짐승먹이기지들이 확보되고 그 마리수가 늘어나고있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광업과 농축산물가공공업이다.

독립당시 몇개의 공장밖에 없었으나 1979년현재는 농산물가공공장, 세멘트공장, 방직공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공장들이 건설되여 돌아가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석탄, 원유, 주석 등이다.

석탄과 우라니움을 비롯한 광석채취공업이 발전하고있는데 아부 아라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우란광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1977년에 2,000톤의 농축우라니움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의 우라니움수출국가로 되였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도 발달되지 못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우라니움, 주석, 땅콩과 땅콩기름, 집짐승과 축산물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천, 자동차, 기계, 원유제품, 식량 등이다.

니제르에는 990개의 초등학교, 48개의 중등및기술학교, 1개의 종합대학이 있다.

초등학교학생수는 12만 900여명, 중등학교 학생수는 약 1만 2천 300명이다.

문맹퇴치소가 1천여개 있다.

교육의 니제르화를 실현할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원들은 모두 니제르사람으로 꾸려졌다.

니제르인 중등학교교원수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1979년에 동부와 동북부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약 350만딸라의 돈을 돌릴데 대한 계획이 발표되였다.

종교는 회교(95%)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출판보도;신문 르땅 듀 니제르,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니제르, 르 니제르, 러싸헬

방송 니제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4월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니제르를 방문하였다.

챠 드

(챠드공화국)

넓이 128만 4,000km²

인구 440만명(1979년 6월)

수도 느쟈메나(주민 3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인 챠드는 전령토의 3분의 1이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0~2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북부지역), 하우사족, 사라족(남부지역), 투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북부에서는 아랍어, 남부에서는 여러 종족어를 쓴다.

정 치

민족련합과도정부 1979년 11월 10일 22명으로 구성, 그중 12명은 북부챠드를, 10명은 남부챠드를 대표한다. 국가수반 겸 정부수반 구꾸니 우에데이

정당, 사회단체; 1975년 4월 13일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시작한 챠드는 1900년 9월 프랑스의 《군정지역》과 《보호령지역》으로 나뉘여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1908년에 두 식민지지역은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챠드인민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1957년초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에는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60년 8월 11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75년 4월 13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독립후 정권을 잡고있던 똠발바예가 죽고 말룸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군사리사회가 구성되였다.

말룸정권이 수립된후에도 챠드에서는 독립이래 계속되여온 북부지역의 회교도(아랍족, 전체 인구의 50%)들과 남부지역의 기독교도(사라족, 인구의 5%)들사이의 종교적 및 종족적 대립과 충돌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1978년 말룸정부의 《요청》으로 들어온 프랑스침략군의 간섭책동으로 더욱 복잡하여졌다.

프랑스침략군과 말룸정부군을 반대하여 무장투

쟁을 벌려온 챠드민족해방전선은 내부분쟁파 의견대립으로 하여 분렬되고 이들 사이에도 무장충돌이 벌어졌다. 그 분파세력은 11개나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8년 8월에 챠드최고군사리사회가 해체되고 민족적화해를 위한 사업을 맡아보기 위하여 16명으로 구성된 새 협의기구인 민족련합리사회가 창설되였다.

그러나 1979년 2월 12일에는 전대통령 말룸의 정부군파 전총리의 북부무력군사이에 무장충돌이 있었으며 6월 11일파 12일에는 민족해방전선에서 갈라진 북부무력군파 인민무력군사이의 전투가 벌어지는 등 정세는 매우 복잡하여졌다.

1979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는 챠드에서 분쟁을 종식시키며 민족적화해를 중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9개국(챠드와 린접한 리비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까메룬, 나이제리아, 니제르, 꽁고, 세네갈, 베닌) 외교부장들이 챠드의 11개분파세력의 대표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11개분파세력들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련립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외교부장회의의 준비에 따라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라고스에서 열린 수뇌자회의(챠드의 11개분파세력대표들도 참가)에서는 챠드분쟁파 관련한 각파들사이의 협정이 체결되였다.

각파대표들은 전국에서의 즉시적인 정화의 실시와 챠드의 린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구성되는 아프리카평화유지군이 챠드에 파견될수 있다는데 합의를 보았으며 협정에서 이들을 챠드주둔 프랑스군파 교체하기로 하였다.

평화유지군으로 베닌, 꽁고, 기네가 요청을 받았으며 이들은 동의하였다.

또한 나라의 민족적통일파 령토완정을 유지하는것을 과업으로 내세운 《민족련합파도정부》를 조직하고 11개분파대표들이 정부에 망라되며 이 정부는 총선거가 진행될때까지 18개월간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1979년 11월 10일 22명으로 챠드민족련합파도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수반겸 정부수반으로 구꾸니 우에데이를 임명하였다.

챠드공화국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화농사와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고있으며 부침땅은 전령토의 5%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벼, 수수, 땅콩, 기장, 사탕수수 등이다.

목화생산액은 사회총생산액의 20%, 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1976—1977회계년도에 7만 1천톤의 목화를 땄다.

정부는 목화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목화재배와 수매, 가공, 수출을 통일적으로 장악통제하는 《챠드목화회사》를 내오고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에는 소, 양, 염소를 비롯한 약 1천만마리의 집짐승이 있다.

주민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힌다.

샤리강과 챠드호를 비롯한 여러 호수들에서 해마다 10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아내고있다.

챠드호의 북쪽에서는 해마다 1만 5천톤의 돌소금이 난다.

챠드북부의 오주지역에는 탕그스텐, 우라니움, 동, 주석, 아연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개발이 미약하다.

공업부문에서는 농축산물을 초보적으로 가공하는 공업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화력발전소, 원유가공공장, 물고기가공공장, 방직공장, 사탕공장, 솜타는공장, 기름공장, 가축공장 등이 있다.

철길은 없으며 자동차길은 3만 700여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 집짐승, 고기, 가축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일용품, 운수수단, 기계류 등이다.

1972년에 이 나라 수도에 첫 국립대학이 일떠섰다.

주민의 52%가 회교를, 5%가 기독교, 그밖의 주민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챠드통신

신문 앵포 챠드, 앵포르마씨옹 에꼬노미끄,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쀠블리끄 듀 챠드

방송 챠드라지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11월 28일 챠드의 수도 느쟈메나에서 《챠드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넓이 47만 5,442km²
인구 832만 3,000명(1979년)
수도 야운데(주민 40만명)

자연 및 주민

까메룬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까메룬화산은 지금도 적갈색연기를 내뿜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3～25°C, 년평균강수량은 1,600mm이다.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개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120석을 민족동맹이 차지, 임기는 5년, 1973년 5월 18일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대통령 아호마두 아히죠(1960년—, 1975년 4월 5일 4선)

정부 1975년 6월 30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뵐비야

정당, 사회단체; **까메룬민족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6년 9월 1일 동서까메룬의 6개정당들이 통합되여 결성, 위원장 아호마두 아히죠, **전국근로자동맹, 민주녀성동맹, 민주청년동맹**

1916년에 까메룬을 강점한 영국과 프랑스침략자들은 1919년에 동서로 갈라 각각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60년 1월 1일에 프랑스령까메룬이, 1961년 2월에는 영령까메룬이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10월 1일에는 이 두지역이 통합하여 까메룬련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72년 5월 20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련방을 이루고있던 동서까메룬이 단일한 국가체제인 까메룬련합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쟁취한후 까메룬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단결과 통일을 이룩하며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까메룬대통령은 1979년 6월 국회연설에서 까메룬이 쁠럭불가담운동을 계속 지지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에서의 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1979년 6월 까메룬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2월에 프랑스대통령이 까메룬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목화 등 경제작물과 함께 강냉이, 조, 벼, 고구마, 땅콩 등 알곡작물이다.

정부는 《농업의 현대화》라는 구호밑에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씨붙임땅을 늘구며 관개시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농기계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 농업기술일군양성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1978—1979수확년도에 코코아생산량은 10만 7천톤, 1978년에 커피는 9만 5천톤, 목화는 6만톤 생산되였다. 바나나 생산도 늘어나 1978년에 9만 5천톤의 바나나가 수출되였다.

목축업도 경제에서 주요부문을 이루고있다.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에서 소(370만마리), 닭(1천만마리), 양(360만마리), 돼지(80만마리), 말과 나귀(30만마리) 등을 기르고있다.

독립후 3차례의 5개년계획이 수행됨으로써 방직, 통졸임, 알루미니움, 벽돌, 화학제품, 세멘트, 가죽이김, 사탕 공장 등이 건설되여 생산에 들어갔다.

까메룬에서 1979—1980회계년도의 국가예산은 1천 866억아프리카프랑에 달하였는데 예산지출의 많은 몫이 공업과 농업발전에 돌려지게 되였다.

지하자원은 알루미니움, 보크사이트 등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800키로메터이다.

국영해운회사가 창설되여 해상운수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있다.

1978년에 이 나라의 항들에서는 307만 2천 100여톤의 짐을 처리하였다.

대외무역의 80%는 해상운수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목재, 목화, 땅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류,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1975년에 4천 600개의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다. 야운데에 종합대학이 있으며 4개의 대학이 새로 일떠서고있다.

까메룬에서 약초를 리용하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널리 발전시키고있다.

1979년현재 병원침대수는 2천대에 이르고있으며 주민 3천 400명당 1명의 의료일군이 차례지고있다.

주민의 절반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기독

교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민족동맹기관지), 까메룬 트리뷴, 라드레스뒤 까메룬, 쁘레스 드 까메룬, 레포르 까메룬네, 프레스 앤때르

방송 까메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6월 27일 두 나라 정부 사이의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비준서교환식이 진행되였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넓이 62만 2,984km²

인구 240만명(1979년 6월)

수도 방기(주민 35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는 중앙아프리카는 수단, 챠드, 까메룬, 꽁고, 자이르 등에 둘러싸여있다.

대체로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한 나라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지역에서 1,000∼2,000mm, 북부지역에서는 300∼500mm이다.

주민은 주로 우방기족, 방다족, 망시아족, 사라족, 페르따족 등을 비롯한 8개의 종족으로 되여있으며 이밖에 얼마안되는 백인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국민의회 5년 임기의 의원으로 선거된다. 예산편성, 계획작성, 로동및사회안전문제들에 관한 립법권을 가진다.

대통령 다비드 다꼬 (1979년 9월 20일—)

정부 1979년 9월 24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베르나르 크리스띠앙 아야도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 1946년에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근로자총련맹, 녀성동맹, 민족청년동맹**

중앙아프리카는 1958년까지 우방기샤리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속해있었다.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우방기샤리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13일에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다비드 다꼬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5년 12월 31일 륙군참모총장이던 보카싸가 다꼬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2년에 종신대통령으로 된 보카싸는 1976년 12월 4일 황제로 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중앙아프리카제국》으로 고쳤다.

1979년에 다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되였으며 초대대통령이였던 다비드 다꼬가 대통령으로, 앙리 마이두가 부대통령으로 되였다. 이어 9월 24일 베르나르 크리스띠앙 아야도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중앙아프리카정부는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9년 1월에 앙골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5%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150만정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커피, 나무감자 등이며 강냉이, 수수, 벼 등 알곡작물도 심는다.

커피재배면적은 3만여헥타르, 나무감자재배면적은 19만 5천헥타르에 이르고있다.

이 나라는 《목화의 나라》로 알려지고있는데 1977—1978회계년도에 2만 8천 100톤의 목화를 걷어들이였다.

한해에 나무감자는 35만톤정도 생산되고있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10여가지의 질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고있다. 통나무생산량은 한해에 50만립방메터에 달한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이 기본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 연, 아연, 금강석 등이다.

금강석은 이 나라의 중요한 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독립후 민족공업발전 특히 가공공업발전에 힘을 넣은 결과 여러곳에 방직 및 염색공장, 황마공장, 황마포대공장들이 건설되여 목화와 황마를 원료로 천들과 여러가지 제품들이 생산되여 수출까지 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도로의 총길이는 2만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목화,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운수수단, 기계류, 화학비료 등이다.

수출액에서 금강석은 37%, 목화와 커피는 각각 25%를 차지하고있다. 1978년에 1만톤 이상의 커피를 수출하였다.

이 나라에는 22개의 중학교와 800개이상의 초등학교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기독교(39%), 회교(5%)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떼르 아프리깬(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기관지), 쁘레쓰,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쌍뜨 라프리깬, 방기 라쏘

방송 중앙아프리카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5월 2일 두 나라 사이에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과 경제,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일반협정이 체결되였다. 또한 이날 문화, 과학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 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선—중앙아프리카친선위원회 창설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1979년 4월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적 도 기 네

(적도기네공화국)

넓이 2만 8,051km²
인구 33만명(1978년)
수도 말라보 (주민 약 8만명)

자연 및 주민

적도기네는 까메룬과 가봉사이에 있는 리오 무니주와 기네만에 있는 4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기후는 사철 무덥고 습기가 많다.

년평균기온은 25°C이상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판그족(리오 무니주에서 산다), 부비족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최고군사리사회 1979년 8월 3일 구성, 위원장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위원장이 국가수반이다.

정부 1979년 8월 25일 므바쏘고대통령을 수반으로 2명의 부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를 구성

정당, 사회단체; 민족유일로동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0년 7월 7일 창건, **청년조직, 녀성조직**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778년에 페르난도 뽀섬을, 1886년에는 대륙에 붙어있는 리오무니주를 강점하고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적도기네인민은 완전독립을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1968년 10월 12일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196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의 정변음모를 짓부시고 이날을 식민주의 청산의 날로, 전국적인 명절로 기념하고있다.

1973년 7월 민족유일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고 산타 이사벨을 말라보시로 고쳐부르기로 하였다.

1979년 8월 3일 국방부장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중좌의 지도하에 최고군사리사회가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가 적도기네최고군사리사회 위원장, 국가수반 겸 정부수반으로 되였다.

적도기네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코코아는 주로 페르난도 뽀섬에서 재배되고있는데 여기서는 이 나라 코코아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 나라 특산물로서 한해에 약 3만 5천톤 생산되던 코코아는 1976년이래 생산량이 줄어 5천톤정도 생산된다. 커피생산량은 6천~8천톤 정도이다.

이외에 나라의 총 통나무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있는 리오 무니주에서 한해에 35만톤의 질좋은 통나무도 생산되고있다.

그러나 목재생산은 주로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이 나라 인민은 지난날 코코아와 커피만 심던 땅에 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들을 심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영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업분야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목재가공공장, 제재공장, 식료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세멘트공

장 등 중공업기업소들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가장 큰 항구도시 바따에는 한해에 100만톤의 짐을 싣고 부릴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

자동차길은 1천키로메터이다.

대학은 없고 인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는 총 336개이며 학생수는 9만명이다.

12살까지의 학령아동들에게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종교로서는 기독교가 퍼지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 델 라 기네아 에꽈또리알(정부기관지)

방송 적도기네방송, 말라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9월 18일에 두 나라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7년 9월에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산토메 프린시페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넓이 964km²

인구 10만명(1979년 6월)

수도 산토메(주민 1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의 기네만에 있는 산토메 프린시페는 산토메와 프린시페의 두개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다.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며 구라파, 인도사람들도 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대통령 마누엘 삔또 다 꼬스따(1975년 7월—)

정부 1979년에 총리직이 폐지되고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1960년에 결성, 위원장 현대통령, **민족인민운동**

산토메 프린시페는 1522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1951년에는 이 나라의 《해외주》로 되였다.

1975년 7월 12일에 독립을 이룩하고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7월 6일 의회선거에서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이 90%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지시기의 반동군대와 경찰을 해산하고 새로 민족군대를 조직하였으며 토지개혁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공업부문에서도 국영경리형태의 토대가 닦아지고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조업하였다.

또한 8시간로동제가 제정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9년에 대통령이 쏘련(8월), 기네—비싸우(10월), 가봉과 앙골라(12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코프라, 커피 등이며 벼와 나무감자도 심고있다.

독립후 농장들의 90%이상이 국유화되고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공업부문에서도 국영경리형태의 토대가 닦아지고 새공장들이 일떠섰다.

맥주공장, 비누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제분소 등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수출총액의 70%), 커피, 코프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섬유제품 등이다.

초등의무교육과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레볼루싸우(정부기관지), 볼레띰오피씨알, 알 보스 데 산토메

방송 산토메 프린시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같은해 12월 우리 나라가 산토메 프린시페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해 12월에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7월 13일에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해 10월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군중집회가 조선통일지지산토메 프린시페중앙위원회와 산토메 프린시페조선친선협회의 공동주최로 산토메에서 진행되였다.

가 봉

(가봉공화국)

넓이 26만 7,667km²
인구 50만명 (1979년 6월)
수도 리브르빌 (주민 25만 1,400명)

자연 및 주민

가봉공화국은 적도선을 가로지나 대서양을 끼고 서아프리카의 중부해안선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80%가 산림지대이다.

이 나라는 적도상에 놓여있으므로 열대성기후로서 몹시 더우며 기온의 변화가 적다.

년평균기온은 30~3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000~2,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그밖에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피그미족과 팡족 등 4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스와힐리어도 쓰고있다.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수는 70명이며 임기는 7년, 1973년 2월 모두 민주당원들이 선거됨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엘하지 오마르 봉고 (1967년 11월—, 1973년 2월에 다시 선거됨)

정부 총리 레온 메비암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8년 3월 12일 민주련맹과 민주사회동맹을 합당하여 창건, 총비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 **로조련맹, 근로자전국련맹**

가봉은 16세기말부터 뽀르뚜갈을 비롯한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부터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1월에 가봉은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1960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7년 11월에 집권한 봉고대통령은 1968년 3월 종족들에 기초하여 조직되였던 다당제를 폐지하고 유일집권당인 민주당을 창건하였다.

1975년 4월에는 헌법개정으로 부대통령제가 폐지되였으며 1975년이래 여러차례의 내각개조가 있었다.

1979년 11월에 진행된 가봉민주당 제2차대회에서는 오마르 봉고를 1980년도 대통령선거의 유일립후보로 선거하였다.

가봉은 프랑스와 군사원조협정(1960년)을 맺고있다.

1979년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7월에 콩고대통령이, 12월에 산토메 프린시페대통령이 가봉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가봉—로므니아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수림의 나라》로 불리우는 가봉은 경제의 기본이 림업, 목재가공업, 채굴업이다.

통나무생산량은 해마다 230만립방메터에 달하고있다. 그중 가장 값진 목재의 하나인 오쿠메나무의 한해생산량은 190여만립방메터로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오쿠메나무는 가봉의 특산물로서 주로 고급합판생산에 쓰이고있다.

이 나무가 있는 면적은 이 나라 령토의 약 75%를 차지하고있다.

팔프원료가 많기 때문에 종이공업도 발전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망간, 우라니움, 금, 금강석 등이다.

1979년에 1,1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여 아프리카원유생산국들중에서 5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적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바나나, 땅콩 등이다.

축산업은 거의 없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강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7천키로메터, 배길은 1천 700키로메터이다.

제3차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철도건설과 항만설비의 확장을 예견하고있는데 1980년에 남동부광산들과 항구를 련결하는 철도가 부설된다.

주요항구는 젠틸항과 리브르빌항이며 오웬도에 새로 큰 무역항을 건설하였다.

비행장은 아프리카나라들중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데 23개의 비행장중 3개는 국제비행장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통나무 및 그 가공품, 망간, 우라니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강재,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 등이다.

1974—1975학년도에 초등학교는 734개, 중등학교는 57개, 전문학교는 12개였다. 1개의 종합대학이 있다.

도시들에는 기독교가 우세하며 종족에 따라 서

로 다른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봉통신

신문 가봉마떵, 악쮸알리떼 가보내즈, 가봉 도슈르듀이, 르 빠뜨리오뜨, 류니옹

방송 가봉방송, 가봉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5월 12일에 우리 나라와 가봉사이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해 5월에 오마르 봉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월 9일 우리 나라 대사와 만난자리에서 봉고대통령은 가봉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넓이 34만 2,000km²

인구 150만명(1979년 6월)

수도 브라자빌(주민 31만명)

자연 및 주민

꽁고는 아프리카대륙의 중남부 대서양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덮여있다.

적도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2~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00~1,600mm이다.

주민의 97%가 반투족이며 피그미족도 약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반투어도 널리 쓰인다.

정 치

인민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 1979년 7월 8일 153명을 선거, 그중 로동당이 69명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1979년 3월 31일—)

부장리사회 위원장 데니 싸쑤 느게쏘(1979년 3월 31일—)

정부 1979년 4월 4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루이스 실뱅 고마(1975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2월 31일 창건, 위원장 데니 싸쑤 느게쏘, **로동조합총련맹, 농업근로자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혁명녀성동맹**

꽁고는 1880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 8월 15일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8월 13~15일에 애국적인민들이 전국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켜 율루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에서 승리하였다.

꽁고에서는 8월 15일을 《8월혁명》승리의 날(국경절)로 기념하고있다.

1968년 7월 31일 당시 군총사령관이던 느구아비가 정권을 잡고 전국혁명리사회를 창설하고 헌법을 폐기하였으며 집권당이였던 민족혁명운동당의 정치국을 해산하였다.

1969년 12월 31일에는 꽁고로동당을 창건하고 꽁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77년 3월 느구아비가 국내반동들에게 암살되고 꽁고민족인민군 총참모장이였던 조아심 이옴비 오빵고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9년 3월 31일에 진행된 꽁고로동당 제3차비상대회에서 데니 싸쑤 느게쏘가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부장리사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이해 7월 8일에는 인민민족회의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헌법에는 꽁고인민공화국이 자주독립국가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지적되여있다.

헌법에는 집권당이며 유일당인 꽁로로동당이 꽁고사회의 정치조직의 최고형태로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현저히 높일것이 지적되여있다.

또한 꽁고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이 민족적독립, 평화, 쁠럭불가담의 원칙과 평화와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인민들과 정부들과의 협조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꽁고인민공화국은 진보적인 나라들 우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꽁고대통령이 1979년 7월에 가봉, 12월에 알제리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6월에 앙골라대통령이 꽁고를 방문하였다.

이해 8월 꽁고의 수도 브라자빌에서 전아프리카청년운동 제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땅콩 등 열대성작물과 강냉이, 벼, 사탕수수 등이다.

1978년에 2천 600톤의 커피와 3천 100톤의 코코

아를 생산하였다.

꽁고에서는 국영농장과 농업협동조합들의 조직, 묵은 땅의 개간과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농업이 발전하고있다.

270개의 농업협동조합들과 20여개의 국영농장들이 창설되였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꽁고에서의 림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홍나무, 경나무 등 진귀한 공업용목재들이 많이 생산되여 해마다 50만립방메터의 목재를 수출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채광공업과 목재가공공업,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독립이후기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채광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로부터 14%로 늘어났다.

꽁고에서는 주로 금, 연, 아연, 주석, 동, 원유, 천연가스 등이 채굴되고있다. 특히 원유채취량이 늘어나고있다.

1979년에 19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국영회사들이 창설되고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물고기가공공장, 국영목재종합공장 등 40여개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79년에 꽁고의 남부 무욘드지지역에서 부엔자수력발전소와 송시설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7만 4천키로와트에 달한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50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1만 1천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통나무, 커피, 코코아, 바나나, 땅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식량, 소비품 등이다.

1965년에 학교들이 국유화되여 어린이들의 거의 모두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중등학교수는 70여개, 학생수는 7만여명, 초등학교학생수는 35만명에 이르고있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예산가운데서 170억아프리카프랑이상의 자금을 교육부문에 돌리고있다.

브라자빌에 있는 5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20여개의 병원이 있다.

1만 3천명당 1명의 의사가 차례지고있다.

이 나라에는 국립음악무용단을 비롯하여 108개의 예술단체와 소조들이 있다.

주민의 50%가 원시종교, 40%가 기독교를 믿으며 약간의 회교도가 있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뚬바(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라부아 아프리깬, 꾸리에르 드 아프리끄, 브라자빌로와, 쁘머 쥬르날 드 브라자빌,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꽁고, 라스맨, 무웨며

방송 꽁고 《혁명의 소리》방송, 브라자빌방송, 꽁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 두 나라 사이에 과학기술협정,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으며 또한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 및 방송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 1978년 5월 29일에는 경제,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8년 7월 25일 꽁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꽁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연구소조》 등이 무어졌다.

1973년 8월과 1978년 5월에 꽁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2월 2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와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및 영화감상회가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의 주최로 꽁고의 브라자빌에서 진행되였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넓이 234만 5,409km²
인구 2,809만명(1979년)
수도 킨샤사(주민 25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무더운 적도열대성기후이며 강수량이 많다.

년평균기온은 24～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500～2,000mm이다.

주민은 200여종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중 반루계 종족이 80%이상을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그밖에 스와힐리어를 비롯한 여러민족어도 쓰고있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270명이며 임기는 5년, 1977년 10월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 (1965년 11월—, 1977년 12월 다시 선거됨)

정부 1979년 3월 6일 내각개조, 제1국무위원(총리) 보 볼리꼬 로꽁가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운동 1967년 5월에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창건자, 위원장 현대통령 모부투, **근로자전국동맹**

19세기 70년대에 벨지끄의 침략을 받아 1908년에 그의 식민지로 되였던 자이르는 1960년 6월 30일에 독립을 쟁취하고 빠뜨리스 루뭄바를 총리로 하는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독립후에도 이 나라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집요한 파괴음모책동으로 5년동안이나 일시적인 분렬과 혼란이 조성되였다.

1965년 11월 당시 군사령관이던 모부투가 혼란된 정세를 수습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후 자이르는 1967년 6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족회의를 일원제로 고쳤다.

자이르는 독립후에 《아프리카화》의 구호를 들고 식민지시대에 부르던 나라이름과 지방이름, 사람이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이름들을 아프리카식으로 고쳤으며 국가적인 명절도 새로 정하였다. (1965년 11월 24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있다.)

1977년 12월 2일 대통령선거에서 모부투가 자이르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1977년 3월과 1978년 5월 샤바주의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폭동이 있었으나 정부군은 미국, 프랑스, 벨지끄를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지지와 군사원조밑에 이를 진압하였다.

1979년 8월 자이르는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자이르대통령이 1979년 3월에 중국, 4월에 아랍추장국련방, 6월에 잠비아, 9월에 벨지끄, 앙골라,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6월에 앙골라대통령이 자이르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취공업과 열대농작물생산이다.

《중부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우는 자이르에는 코발트, 우라니움, 동, 주석, 금, 아연, 은, 망간, 원유 등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1977년에 코발트 1만 208톤을 생산하여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동은 1978년에 38만톤 생산되였다.

1979년에 125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또한 1977년에 아연 5만 1,049톤, 카드미움 246톤, 은 849.2키로그람, 금 112키로그람을 생산하였다.

동광은 국가예산수입의 80%, 수출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세멘트, 뜨락또르, 기름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여 돌아가고있다.

또한 새로운 광산들이 개발되고 그 생산능력이 높아지고있다.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부침땅은 300만 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야자, 바나나, 목화, 담배, 고무이며 강냉이, 벼 등도 심고있다.

동부지대에서는 소, 양, 돼지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운수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광산지대에만 철길이 집중되여있다. 꽁고강은 배길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우라니움, 동, 금강석 등의 광물류(수출총액의 80%)와 커피, 목화, 고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광산기계를 비롯하여 각종설비, 식량,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의 절반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외 주민들은 기독교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엘리마(정부기관지), 에뼁자, 쌀롱고, 베또나 베또, 모쟈, 디무까이, 맘뱅가

방송 꽐레그방송, 레오방송, 자이르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12월에 모부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넓이 2만 7,834km^2

인구 440만명(1979년 6월)

수도 부줌부라(주민 9만명)

자연 및 주민

부룬디는 르완다의 남쪽에 있으며 탄자니아와 자이르에 접하고있다. 고원의 나라로서 골짜기가 많다.

기온은 그리높지 않으며 비교적 서늘하다. 년평균기온은 23~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00~1,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바후투족(85%)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바투치족과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

은 피그미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키룬디어이며 상업용어로 스와힐리어도 쓴다.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립법 및 집행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1976년 11월 10일—)

정부 1978년 10월에 내각개조, 총리 은잠비마나 에두아르드(1976년 11월 11일—)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9년에 창건, 1979년 12월 제1차전국대회에서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를 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지도자로 선거, **근로자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부룬디는 1890년에 르완다와 병합하여 《르완다—부룬디》로서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22년부터는 벨지끄의 위임통치령으로, 그후 미제의 부추김밑에 1946년 12월부터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부룬디는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갈라져 봉건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66년 11월 28일 반동적인 군주제도가 뒤집혀지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선포후 부룬디에서는 이 나라에 오래전부터 뿌리깊이 남아있던 전통적인 지배부족인 바투치족과 바후투족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여왔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으로 더욱 심화되였다.

1969년 10월 미제와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사촉에 의한 반정부음모가 있었으며 1972년 봄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왕권지지자들에 의한 바후투족들의 반란이 일어나 수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976년 11월 1일 군인들에 의하여 미촘베로 정권이 전복되고 부룬디민족군 제1부총참모장이였던 대좌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가 조직되였으며 제2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제2공화국선포후 부룬디정부는 민족적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분야에서 정의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1979년 12월에 진행된 민족통일진보당 제1차전국대회에서는 부룬디에서 진보적인 사회—경제개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부룬디공화국대통령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를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지도자로 선거하였으며 당면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그를 당의 유일후보로 선출하였다.

대회는 공화국의 최고국가기관인 군대장교들로 구성된 최고혁명리사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민족통일진보당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하였다.

1979년에 국내반동들과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및 전복음모를 짓부시기 위하여 정부는 부룬디인민에게 분렬정신을 고취하고 반정부폭동을 선동한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외국인선교사 12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부룬디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에 기초하여 이웃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부룬디대통령이 1979년 3월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부룬디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국과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로므니아와는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며 인구의 90% 이상이 농사를 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차, 목화 등 전통적인 열대수출작물이며 강냉이, 벼, 콩 등 알곡작물도 심고있다.

1년에 커피는 1만 6천톤, 강냉이는 14만톤, 콩은 40만톤정도 생산된다.

정부는 부룬디의 최고목적이 필요되는 식량을 모두 자체로 해결하는데 있다고하면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이고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이와함께 농업협동조합들을 묶고 농업협동조합들에 농기계와 비료, 영농자재들이 공급되고있다.

1978년에 소 77만 9천마리, 염소 57만 1천마리가 있었다.

공업은 금, 주석을 캐내는 채취공업과 커피, 차, 목화 등의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철길은 없으며 자동차운수와 탄가니카호를 통한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수출품의 95%가 농축산물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차, 집짐승, 축산물가공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제품, 일용품, 연료 등이다.

커피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1979년현재 5천 800여명의 중등학교학생을 비롯하여 14만 6천 400여명의 학생들이, 그밖에 950여명의 대학생들이 있다.

주민의 60%가 기독교를, 그밖에 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플라슈 앵포르

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에라 레볼류시옹, 미긴베, 앵포르 부룬디, 부룬

디 크레떠앵, 인똠, 우부무에, 러누보

방송 부룬디방송, 코르다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3월에 두 나라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1월 31일에 조선통일지지부룬디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부룬디인민들속에서는 부룬디《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1976년 12월)와 부룬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1977년 4월)가 결성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으로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가 1979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인 23일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파학 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일반협정이 조인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파의 련대성군중집회가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파 조선통일지지부룬디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979년 6월 25일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10월에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르 완 다

(르완다공화국)

넓이 2만 6,338km²
인구 490만명(1979년 6월)
수도 끼갈리(주민 6만명)

자연 및 주민

르완다는 아프리카대륙의 중부내륙지대에 자리잡고있으며 1천개의 산봉우리들파 호수들이 잘 어울려있는 아름다운 고원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적도근처의 나라이나 높은 지대에 있어 기후는 비교적 서늘하다. 년평균기온은 2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900∼1,500mm이다.

주민은 바후투족이 90%,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바투치족이 9%이며 그밖에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피그미족 등이 있다.

반투어계의 르완다어가 프랑스어와 함께 공용어로 되고있다.

정 치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임기는 5년, 대통령 하비아리마나 쥬베날(1973년 7월 1일—, 1978년 12월 24일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전국혁명발전운동**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5년 7월 5일 창건, 창건자, 위원장 하비아리마나 쥬베날

벨지끄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던 《르완다—부룬디》가 1962년 7월 1일 르완다공화국파 부룬디왕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3년 7월 5일 민족군및경찰부장이였던 하비아리마나 쥬베날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독립이후 정권을 잡고있던 까이방다정부를 전복하고 제2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르완다 정부와 인민은 《평화, 통일, 발전》의 구호밑에 민족적 화목파 통일을 강화하며 식량수요를 자체로 해결할것을 중요한 파업으로 하는 제2차5개년(1977—1981)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르완다공화국은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 인민들파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9년 9월 르완다는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르완다대통령이 1979년 2월에 케니아, 8월에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5월에 프랑스대통령이 르완다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파 목축업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정부는 제2차5개년(1977—1981)계획기간에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식량수요를 충족시킬것을 주요한 파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특히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커피와 차, 바나나 등 공예작물만 심던 농업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감자, 벼, 강냉이, 밀을 비롯한 알곡작물을 많이 심고있으며 그 재배면적을 늘이고있다.

한해에 감자 17만톤, 강냉이 7만톤, 밀 3천톤, 벼 2천 700톤 정도 생산된다.

또한 주요외화원천으로 되고있는 커피, 차, 바나나, 목화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르완다의 여러 농촌지역들에는 40여개의 집단촌

들이 조직되여있다.

북부고산지대에 자연방목지를 가지고 있어 집짐승기르기에 아주 유리하다.

주요집짐승은 소(63만마리), 염소(68만마리), 양(24만마리), 토끼(11만마리), 돼지 (7만마리) 등이다.

공업의 기본은 광업이며 주요광물은 주석, 동 등이다.

경제의 《르완다화》가 추진됨에 따라 주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개발되고 그 채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다.

커피, 차, 사탕, 우유제품, 금속, 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중소규모가공공장들의 수는 130여개에 이르고있다.

1978년 4월 정부는 농산물가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두개의 기관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6천 5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차, 목화, 주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운수수단, 기계설비, 천 등이다.

1978년에 초등학교는 2천개, 학생수는 42만 5천여명이며 중등학교는 20개, 학생수는 1만 5천여명이였다. 종합대학과 사범대학은 각각 1개, 대학생수는 1천여명에 달한다.

1979년현재 병원수는 20여개, 그 침대수는 4천 893대이다. 수십개의 진료소와 보건쎈터들도 있다. 르완다에서는 인구 5만 5천명당 1명정도의 의사가 차례지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르완다통신

신문 임바호(정부기관지), 라렐레브, 끼니아마쩨까, 르완다 까르레프르 아프리끄, 트라히프로

방송 르완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10월 14일 르완다의 수도 끼갈리에서 조선통일지지르완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8년 6월 17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9년 8월 24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8년 6월에 르완다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9월 르완다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1월에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과 9월에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이 르완다를 방문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넓이 23만 6,036km²
인구 1,322만 5,000명(1979년)
수도 캄팔라(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우간다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서 적도를 가로타고앉아있는 내륙국이다.

호수가 많은 나라로서 동남부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빅토리아호가 있다.

적도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1.5°C, 년평균강수량은 1,500~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99%)이 아프리카사람이며 그밖에 인도, 파키스탄, 구라파 사람들도 살고있다.

공용어로 영어를 써왔으나 1973년 8월부터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선포하였다.

정 치

립법회의 1979년 10월 6일 우간다민족해방전선 전국협상위원회에 기초하여 조직, 130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고드프레이 루콘파 비나이사(1979년 6월 20일—)

정부 1979년 11월 19일 내각개조,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우간다민족해방전선 (집권당) 1979년 3월 26일 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고드프레이 루콘파 비나이사, **전국로조조직, 전국녀성리사회**

189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한 우간다는 1896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2년 10월 9일 《영련방》내에서 4개왕국의 련방으로 독립하였으며 1967년 9월에는 4개 세습왕국이 철폐되고 단일한 우간다공화국이 창건되였다.

1971년 1월 25일 륙군사령관이였던 이디 아민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이 수립된후 우간다에서는 아민대통령의 독재강화와 경제적혼란에 의한 반아민기운이 높아가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였다.

1979년 4월에 아민정권이 무너지고 룰레를 대통령으로 하는 림시정부가 수립되였다.

6월 20일 민족해방전선의 자문리사회에서는 룰레가 민족해방전선의 존재와 직권을 인정하지 않

고 있다는것을 까밝히고 다수가결에 의해 그를 민족해방전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직에서 해임시켰으며 이전 사법부장인 비나이사를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으로 선거하고 잠정정부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새 정부는 우간다의 종족적 및 지역적 관념을 고려하여 4개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선출된 부장 24명, 부부장 20명으로 구성되였다.

1979년 10월 12일에 발표된 우간다민족해방전선 정치선언에서는 나라의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

① 우간다민족해방전선은 공화국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보장한다.

② 민족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간다민족해방전선은 외국독점체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리익을 보호한다.

③ 대외정책분야에서 우간다는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킨다.

1979년 12월 12일 우간다는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방위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두 협정에 조인하였다.

우간다대통령이 이해 9월에 탄자니아, 10월에 자이르를 방문하였다.

이해 8월에 우간다는 1971년이래 단절되였던 잠비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9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부침땅의 4분의 3에 커피와 목화를 심는다.

1979년현재 우간다의 알곡재배면적은 560여만헥타르에 이르고있는데 그 가운데서 논면적이 약 3만 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차, 목화, 담배, 벼, 밀, 강냉이, 조, 수수 등이다.

1977—1978농업년도에 커피는 23만 5천톤, 차는 3만톤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을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3개년(1977—1979)계획기간에 이 부문에 350만쉴링을 돌려 여러 대상건설을 진행하였다.

1979년현재 49개의 뚝이 건설되고 648개의 우물을 팠다.

먹이풀이 풍부한 동남부고원의 초원지방에서는 소, 염소, 양을 많이 기르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주석, 금, 린회석, 망간, 코발트, 철광석 등이다.

동광산지인 킬렘베에서는 매년 1만 5천톤의 동을 생산하고있다.

주요가공공업은 방직, 커피가공 공업이다.

1978년에 4천 570여만평방메터의 천을 생산하였다.

운수에서는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1천 20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2만 9천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수출총액의 84%),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금속 및 그 제품 등이다.

학령아동의 45%에 달하는 10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다.

민족간부양성기지로서 마케레레종합대학이 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도이며 회교도는 6%, 나머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우간다 통신(1978년 5월에 창설)

신문 우간다 타임스(정부기관지), 보이스 오브 우간다, 오무쿨 렘베즈, 피플, 우간다 네이슌, 문노, 토피크

방송 우간다방송, 우간다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8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0월 16일에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에티오피아

(사회주의에티오피아)

넓이 122만 1,900km²

인구 3,178만명(1979년)

수도 아디스 아바바(주민 116만 7,000명, 1980년 3월)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는 에티오피아는 령토의 3분의 2가 고원지대이다.

지형이 높은 관계로 기후는 비교적선선하다. 년평균기온은 13~2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300mm이다.

주민은 암하라족(50%)과 갈라족(40%)이 기본이며 그외 소말리아족과 산가리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이나 영어와 아랍어도 널리 쓰이고있다.

정　치

림시군사행정리사회 1974년 9월 12일 구성, 위원장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1977년 2월 11일—), 위원장이 국가수반겸무력총사령관

정부 위원장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근로자당 창건준비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로조총련맹**

에티오피아는 1869년부터 이딸리아,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로, 1889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이딸리아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과 영국과 프랑스 대 이딸리아의 대립은 제1차에티오피아전쟁(1895—1896년)을 일으켰으며 결과 에티오피아는 독립국으로 되였다. 1935—1941년기간에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되여 있었다.

1974년 9월 12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에티오피아에서는 3천여년간 내려오던 군주제가 끝장나고 림시군사행정리사회가 수립되였다.

혁명승리후 사회주의에티오피아인민은 《혁명적인 조국이냐, 죽음이냐》의 구호를 들고 군주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시면서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있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1978년 10월 29일에 경제발전전국혁명운동 최고리사회를 창설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1979년 2월 3일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민족경제발전깜빠니야의 시작을 선포하는 대규모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3월에 진행된 림시군사행정리사회, 정부및 각기관, 국, 사회단체대표들의 회의에서 국영농장과 협동경리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토의하고 농촌지역에서 사회경제적개혁과정을 다그칠데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1979년 12월에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축성하여야 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에티오피아근로자당창건위원회를 내올데 관한 림시군사행정리사회의 법령이 발표되였다.

1979년에도 소말리아와의 령토적분쟁이 계속되였다.

대외관계에서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 위원장이 1979년 11월에 민주예멘을 방문하였다.

이해 1월에 케니아대통령이, 5월에 민주예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9월에 쏘련내각총리가, 11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이해 1월에 케니아와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경제, 기술 및 과학협정, 무역협정, 도로, 운수 및 교통협정, 5월에 민주예멘과 경제,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에티오피아—예멘합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9월에 쏘련과 경제,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의정서, 11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민주예멘과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과 경제, 과학및기술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해 3월에 에티오피아는 마로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이며 그밖에 강냉이, 밀, 보리,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커피는 이 나라의 주요수출작물이며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1978년에 19만톤의 커피를 생산하였으며 7만 3천톤이상의 커피를 수출하였다.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들이 국유화되고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운영되고있다.

농사방법을 개선하고 관개시설 등을 건설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고있다.

1978년에 약 1만 2천 100헥타르에 이르는 서부지역의 묵은 땅을 개간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집짐승을 제일 많이 가지고있으며 축산물이 커피다음가는 주요생산물로 되고있다.

소는 2천 800만마리, 양과 염소는 2천 500만마리, 락타는 약 100만마리, 가금은 4천 500만마리정도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망간, 동, 류황, 운모, 돌소금, 니켈, 철광석 등이다.

공업부문에는 가죽이김공장, 사이잘삼가공공장, 사탕정제공장, 방직공장, 목재공장, 도자기공장들이 있다.

사탕은 1978년에 14만 6천 500여톤, 돌소금은 1977년에 6만 7천톤 생산하였다.

사이잘삼을 리용하여 비줄, 구럭 등을 만들고 참대나무로 여러가지 세공품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전하고있다.

14개의 국영회사가 있다.

운수에서는 소, 말, 당나귀가 주요교통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집짐승, 가죽, 돌소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을 비롯한 일용품, 기계 및 수송기재, 금속제품, 건재 등이다.

초등 및 중등학교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에

따라 820개의 각급 학교들이 국유화되였다.

1978년에 첫 림업대학이 창립된것을 비롯하여 혁명승리후 5년동안에 2,500여개의 학교가 건설되였다. 이 기간에 학생수는 11% 장성하였다.

84개의 병원과 110개의 보건중심, 1천 133개의 진료소와 기타 의료기관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530명의 의사를 포함한 9천 700여명의 의료일군들이 일하고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티오피아통신

신문 아디스 자멘, 에티오피언 헤랄드, 아디스 스와르, 쿼티디아노 에리트레아, 산데크 알라마트친, 에메오뻬 드오츄르듀이, 바리싸

방송 에티오피아방송, 에티오피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6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11월 10일에 우리 나라 회사와 에티오피아 회사들사이의 항공봉사협정이 체결되였다.

1977년 5월 16일에 두 나라간의 과학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해 5월 20일에 에티오피아조선친선및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에서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이해 6월에 우리 나라대표단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지 부 티

(지부티공화국)

넓이 2만 2,000km^2

인구 27만명(1979년)

수도 지부티(주민 13만명)

자연 및 주민

지부티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사이에 끼여있다.

메마른 사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년평균기온은 30°C, 년평균강수량은 13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파르(에티오피아)족과 이싸(소말리아)족이며 그 밖에 아랍사람과 구라파사람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65명, 1977년 5월 8일 선거 결과 이싸계 33명, 아파르계 30명, 아랍사람 2명 차지

대통령 하싼 굴레드 아프티돈(1977년 6월 27일—)

정부 1978년 10월 2일 15명으로 구성, 총리 바르카드 구라드 하마두

정당, 사회단체; **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이싸계), **아프리카인민독립동맹**(이싸계), **지부티해방운동**(아파르계) 1977년 12월 비법화, **민족독립동맹**(아파르계), **인민해방운동**(아파르계), **민주청년**

1977년 6월 27일 아파르 이싸가 100여년간의 프랑스식민지로부터 지부티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하싼 굴레드 아프티돈이 지부티공화국의 첫대통령으로 되였다.

5월 8일 독립을 앞두고 지부티에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한편 프랑스는 6월 27일 지부티와 《군사방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협정들을 맺고 제놈들의 4천 500명에 달하는 침략군대를 지부티항구에 주둔시키고있다.

지부티정부는 이스라엘배들이 자기 나라 항구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였으며 이스라엘에 제공하였던 모든 편의를 취소하였다.

지부티는 대외적으로 중립과 쁠럭불가담, 선린우호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지부티대통령이 1979년 12월에 중국과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지부티는 이해 1월에 중국, 6월에 토이기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소(1만 8천마리), 양(9만 5천마리), 염소(56만 1천마리), 락타 등이다.

농업에서는 관개시설이 되여있는 수도와 일부 지역들에서 과일과 남새를 주로 심고 종려와 커피도 재배하고있다.

한해에 6천∼7천톤정도의 소금을 생산한다. 물이 전혀없는 반사막지대에는 화장품원료와 약품으로 쓰이는 유향이 많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운모, 석고, 류황 등이다.

공업기업소로서는 조선소및선박수리, 가스압축,

식료가공, 가죽공장 등이 있다.

공업제품과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주로 바다소금과 커피, 생가죽을 수출한다.

해마다 700톤의 물고기를 잡고있다.

이 나라의 자원과 농작물은 보잘것없으며 항만과 철도가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되고있다.

지부티항은 세계적인 자유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그리고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통하여 지중해와 구라파를 련결하는 지리적위치로 하여 군사전략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수도 지부티와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하는 긴 철길이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무역물자수송의 60%가 이 철도에 의존하고있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르 레베이 드 지부티

방송 지부티방송

소 말 리 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넓이 63만 7,657Km²
인구 350만명(1979년 6월)
수도 모가디쇼(주민 4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쪽끝 인도양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 케니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이 나라는 사철 메마르고 몹시 무더우며 기온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년평균강수량은 해안지방에서 300~500mm, 내륙지방에서 200~3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소말리아족이며 그밖에 아랍, 인도, 에티오피아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소말리아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의원수 171명, 1979년 12월 30일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76년 7월 1일—, 1980년 1월 24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80년 1월 28일 새 정부 구성,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1976년 7월 1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총비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직업총동맹, 혁명청년동맹, 민주녀성조직**

소말리아는 19세기 80년대에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세지역으로 나뉘여 강점당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0년 6월 26일에 영령소말리아가, 6월 30일에는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독립을 이룩하고 같은해 7월 1일 두 지역이 통합하여 단일한 소말리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는 1977년 6월 27일 지부티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1969년 10월 21일 소말리아륙군이 혁명을 일으켜 친미반동적인 에갈정권을 뒤집어엎고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정당들을 해산하였으며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6년 7월 1일 사회주의혁명당이 창건되여 최고혁명리사회가 가지고있던 모든 권력을 넘겨받았다.

소말리아는 단일당사회주의국가로 선포되였다.

1979년 8월 25일 소말리아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새 헌법은 유일당체제하에서 선거되는 인민회의와 종교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있다.

새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집권당인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명된후 6년에 한번씩 선거를 받아야 한다.

이해 12월 30일에 소말리아 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1980년 1월 24일에 진행된 제1차인민회의에서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하였다.

오가덴지역을 둘러싸고 1977년 7월에 일어난 에티오피아와의령토적분쟁은 1979년에도 계속되였다.

소말리아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소말리아대통령이 1979년 7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알제리, 애급, 수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과 농업이다.

인구의 80%가 유목 또는 반유목을 위주로 축산업을 하고있다.

축산물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락타, 닭이며 인구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가 높은 나라의 하나로 되고있다.

1979년현재 집짐승은 3,000만마리에 달한다.

축산물생산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국가기관들이 조직되였으며 방목지와 목장들을 새로 더 꾸리고 가축방역사업이 강화되고있다.

인구의 15%가 농사를 하고있다.

소말리아에서는 3개년(1979—1981)계획을 세우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국영농장들이 조직되고있다.

정부는 경지면적을 늘이는 사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를 벌리고있다 .

경지면적은 70만헥타르이상에 달한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사탕수수이며 그밖에 강냉이, 땅콩, 벼, 수수, 목화 등이다.

1978년에 식량생산량은 12만 6천톤에 이르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방침에 따라 수력발전소들과 방직공장, 원유정제공장 등 270개의 중소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여러가지 경공업공장들이 세워져 돌아감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생활필수품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다.

1978년공업총생산액은 근 6억소말리아쉴링에 이르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자동차길은 1만 7천 200여키로메터이다.

내륙지방에서는 락타가 운수수단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과 바나나이며 이것이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1978년에 150만마리의 산 집짐승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에 수출하였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이다.

초등무료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초등및중등학교수는 880여개, 기술학교수는 13개이며 이 학교학생수는 22만명이다.

1978년에 총학교수는 1, 400개로 늘어났고 학생수는 30만명에 달하였다.

10개의 학부와 200여명의 소말리아인교원, 3,000명의 학생을 가지고있는 국립종합대학이 있다.

교과서와 학습참고서들 지어는 문예 및 정치서적들까지 소말리아어로 출판되고있다.

1972년에 소말리아글을 일반화한후 1979년현재까지 200여만명의 주민들이 글을 읽고 쓸줄 알게 되였다.

70여개의 병원과 220여개의 진료소가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와 사회적혜택들이 보장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소나통신

신문 히지그다 옥토바르(정부기관지), 선봉, 호르 쎄드

방송 모가디쇼방송, 소말리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12월 17일에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 1972년 5월 23일에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7월 9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모가디쇼에서 조인되였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건설된 모가디쇼기술종합전문학교가 1978년 7월에 준공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집회가 1979년 4월 14일 모가디쇼기술종합전문학교에서 진행되였다.

1972년 5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4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10월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이 소말리아를 방문하였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넓이 58만 2,646km²

인구 1,577만 8,000명(1979년)

수도 나이로비(주민 63만명)

자연 및 주민

케니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다. 적도선에 놓여있으나 무덥지 않으며 서늘하다.

년평균기온은 20°C, 년평균강수량은 750~1,000mm이다.

주민의 95%는 6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흑인들인데 그중 키쿠유족, 캄바족, 루오족, 발루야족 등이 많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총의석 168석, 1979년 11월 8일 선거 진행, 모두 아프리카민족동맹성원이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다니

엘 티. 아라프 모이(1978년 10월 10일—, 1979년 11월 8일 재선)

정부 1979년 11월 28일 24명으로 된 새 내각을 구성,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민족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0년 3월 창건, 위원장 다니엘 티. 아라프 모이(1978년 10월 6일에 선거), **로조중앙조직**(28개의 부문별 로조포함)

19세기말 케니아를 강점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95년에 이 나라를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케니아인민은 1922년부터 민족해방투쟁을 벌려 1963년 6월에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해 12월 12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9년 11월 8일 독립한 이래 4번째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다니엘 티. 아라프 모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11월 28일 24명으로 된 새 내각이 발표되였다.

케니아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케니아대통령이 1979년 1월에 에티오피아, 5월에 탄자니아, 6월에 영국, 9월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2월에 르완다대통령이 케니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케니아는 에티오피아와 《호상방위조약》을 갱신하고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르완다와는 전반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6%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제충국, 커피, 차, 사이잘삼, 목화 등 수출을 위한 공예작물이며 강냉이, 밀, 보리도 심고있으나 식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차생산에서는 세계적으로 세번째자리를 차지하며 제충국은 세계총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차는 1979년현재 5개주의 12개군에서 재배하고있다. 차잎가공공장이 62개 있다.

1978년에 차는 9만 3천톤, 1977년에 커피는 10만 1천톤, 사탕수수는 193만 6천 900여톤, 사탕은 18만 1천여톤 생산되였다.

기후조건이 좋고 먹이풀이 많은 내륙고원 지방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힐정도로 양, 소, 말 등을 많이 놓아기르고있다.

산림자원이 많으며 10여개의 종이공장들에서 생산된종이는 국내수요의 80%를 충족시키고있다.

1979년현재 13개의 방직공장과 7개의 뜨개옷공장, 350개의 옷공장이 있다.

이밖에 농산물과 축산물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이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5개도시에 집중되여있다.

지하자원가운데서 채굴되고있는것은 금, 은, 동, 철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차, 사이잘삼, 제충국, 고기 및 그 가공품,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금속가공품, 원유, 운수수단, 천, 일용품 등이다.

독립후 교육분야에 해마다 국가예산의 30%이상을 투자한 결과 1979년현재 어린이의 90%이상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초등학교는 8천개, 학생수는 300만명, 중등학교는 987개, 학생수는 약 25만명에 달한다.

또한 2개의 종합대학과 17개의 교원대학, 8개의 기술대학이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들에서는 스와힐리어를 쓰고있으며 스와힐리어로된 교재들도 편찬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와 회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 네이슌, 타이파 레오, 썬데이 네이슌, 타이파 케니아

방송 케니아의 소리방송, 케니아의 소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탄 자 니 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넓이 94만 5,087km²
인구 1,736만 4,000명(1979년)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87만명, 1978년 8월)

자연 및 주민

탄자니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중부, 동부해안에 있는 탄가니카와 그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36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잔지바르(펨바섬 포함)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1,000～1,500m높이의 고원으로 되여있다.

중부지방은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동

아프리카고원으로 이루어지고 북부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쟈로산이 있다.

동부에는 세계적으로 큰 호수들인 빅토리아호, 탄가니카호, 니아사호 등이 있다.

년평균기온은 22~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8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12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반투계흑인이며 그밖에 마사이족, 아랍, 인도, 파키스탄, 구라파 사람들도 산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련합공화국의 최고립법기관인 동시에 탄가니카내정문제에 관한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204석, 임기 5년, 1975년 10월 26일 선거, 잔지바르혁명리사회 의원전원이 민족회의 의원으로 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탄가니카대통령을 겸한다.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1964년—, 1975년 10월 26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80년 1월 5일 내각개조, 총리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자니아혁명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7년 2월 5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과 아프리카쉬라지당이 통합하여 결성,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1961년 12월 9일, 1963년 12월 1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각각 독립한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1964년 4월 26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국방, 경제, 문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자치를 실시한다.

1967년 2월 5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대회에서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 《아루샤선언》을 발표하고 《우쟈마아》라고 불리우는 농업협동체건설과 기업 및 공장의 국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로선을 제시하였다.

1977년 2월 5일 《아루샤선언》 10돐기념경축대회에서 대통령은 1천 300만명이 7천 684개의 《우쟈마아》에 망라되였다고 총화하면서 탄자니아에서 《우쟈마아》운동은 실제상 끝났다고 선포하였다.

1979년 4월 11일 탄자니아정부군과 우간다민족해방전선군의 공격에 의하여 우간다수도 캄팔라가 함락되고 아민정권이 붕괴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계속되여오던 국경분쟁은 일단락되였다.

탄자니아정부는 쁠럭불가담의 원칙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탄자니아대통령이 1979년 7월에 알제리, 9월에 영국, 벌가리아, 12월에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에 케니아대통령이, 7월에 영국녀왕이, 8월에 르완다대통령이, 9월에 우간다대통령이, 10월에 모잠비끄국가수반이, 12월에 베르데갑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탄자니아는 1979년 9월에 벌가리아와 경제, 과학기술, 무역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12월에 우간다와 우간다의 방위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두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해 12월에 탄자니아는 모잠비끄와 공동으로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루부마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90%가 농사하고있다.

부침땅은 령토의 10%정도인 4천만에이커이다. 그의 약 70%에 사이잘삼이 재배되고있다. 사이잘삼생산량은 세계사이잘삼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사이잘삼생산지는 북부지방인데 해마다 수십만톤 생산되고있다.

탄가니카에서는 사이잘삼, 커피, 목화가, 잔지바르에서는 정향, 야자, 사탕수수 등이 난다.

잔지바르섬에는 약 600만그루의 야자나무와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는 약 400만그루의 정향나무가 있는데 정향생산은 세계생산량의 80%에 이르고있다.

잔지바르수입의 80%가 정향의 수출에서 얻어지고있다.

1978—1979년도에 4만 9천톤의 커피와 1만 7천톤의 차를 생산하였다.

커피에서 얻어지는 화폐수입은 탄자니아총화폐수입의 40%를 차지하고있다.

1978년에 31만포대의 목화도 따들이였다.

자연먹이를 리용하여 소, 양, 염소 등을 기르고있다.

탄자니아에서는 민족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공장들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최근 10년어간에만도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강철압연공장, 방직공장, 농기구공장, 제약공장을 비롯한 30여개의 큰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국영부문은 특히 아루샤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1979년현재 공업부문의 국영기업소수는 200개에 달하고있다.

1979년에 이 나라의 서북부일대에서 동과 니켈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또한 수도로부터 약 300키로메터 떨어진 쑹고쑹고섬에서는 약 30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정부는 현경제발전5개년(1977—1981)계획기간에 총 투자액의 약 30%를 공업발전에 돌렸다.

운수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있다.

1979년현재 도로의 총길이는 4만 5천키로메터에 달하고있다.

대외무역은 주로 다르 에스 살람의 항구를 통하여 진행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정향, 사이잘삼, 차, 야자,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화학제품, 석탄, 각종기계류, 운수기재 등이다.

이 나라에는 국립종합대학, 교원대학, 농업대학, 상업대학 등 31개의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하여 47개의 의학학교와 15개의 농업학교가 있다.

독립이후 1979년까지 약 130개의 학교들이 창설되였다. 초등학교학생수는 300만명에 달하고있다.

1970년부터 1979년현재까지 성인교육사업을 통하여 약 200만명이 문맹을 퇴치하였다.

1979년현재 148개의 병원과 194개의 보건쎈터, 2천 205개의 진료소가 있다.

보건일군수는 독립당시에 비하여 30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새 농촌마을건설운동을 벌렸는데 1979년현재 8천 210개의 새 농촌마을이 건설되였으며 여기에서는 농촌주민의 90%이상이 살고있다.

새 농촌마을들에는 초등학교와 진료소, 생활편의시설들이 꾸려지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탄자니아통신(쉬하타)

신문 썬데이 뉴스, 데일리 뉴스(정부기관지), 우후루, 음잘렌도, 잔지바르 가제트, 아프리카 크웨트, 판 아프리카

방송 탄자니아방송, 탄자니아잔지바르방송, 탄자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4월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에 니에레레대통령에게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1973년 10월 10일 다르 에스 살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를 1979년에 탄자니아에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1979년 7월 탄자니아의 수도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68년 6월에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6월에 잔지바르농업대표단, 8월에 교육대표단, 10월에 군사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모 잠 비 끄

(모잠비끄인민공화국)

넓이 78만 3,030km²
인구 1,003만명(1979년)
수도 마뿌또(주민 95만명)

자연 및 주민

모잠비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인도양기슭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남북의 차이가 심하며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며 북부는 열대성기후이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가물다. 1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26°C, 북부에서 30°C이며 7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15°C, 북부에서 2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바다가지방에서 1,000～1,500mm, 내륙지방에서 500～700mm이다.

모잠비끄에는 진귀한 동물이 많으며 이름난 17개소의 사냥터가 있다.

주민의 98%가 반투족이며 그밖에 약간의 백인이 살고있는데 그의 90%가 뽀르뚜갈사람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나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계의 스와힐리어를 쓴다.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수 226명, 의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셀(1977년 12월—)

대통령 사모라 모이세스 마셀(1975년 6월 25일—)

정부 1980년 4월 3일 내각 일부 개조, 정부수반은 대통령이 겸한다. 총리부를 두지 않고 있다.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2년 6월 25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7년 2월 맑스-레닌주의적인 전위당으로 선포,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 **청년조직, 녀성조직**

모잠비끄인민은 1960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75년 6월 25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모잠비끄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날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이 모잠비끄인민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6월 26일에는 새 헌법이 발포되였다.

모잠비끄인민은 1977년 2월에 있은 모잠비끄해방전선 제3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강령에 따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를 마련하고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변혁과정을 다그치기 위해 1979년 7월에 토지법을 발포하여 외국회사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들을 국유화하고 그 자리에 국영기업소들과 협동조합들을 창설하고있다.

정부는 독립후 토지, 대외무역, 은행들과 큰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보건, 교육 및 집소유권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1977년 2월에 민병부대들이 조직되였으며 1978년 3월부터 의무병역제가 실시되였다.

1979년 5월에는 인민경찰을 창설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모잠비끄는 1979년에도 거듭되는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무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켰다.

모잠비끄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월 마뿌뜨에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교부장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모잠비끄대통령이 1979년 10월에 탄자니아, 12월에 이라크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 3월에 탄자니아대통령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과 잠비아대통령이, 8월에 자메이카총리가 모잠비끄를 방문하였다.

모잠비끄는 이해 2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4월에 로므니아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12월에 이라크와 경제무역분야에서 협조하며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두개의 협정을 맺었다.

이해 12월에 모잠비끄는 탄자니아와 공동으로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루부마강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해 8월에 모잠비끄는 자메이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 수산, 축산, 림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호두, 목화, 사탕수수, 사이잘삼, 야자, 바나나, 땅콩, 강냉이, 밀 등이다.

호두는 《모잠비끄의 금》으로 불리우고있으며 해마다 12만 5천톤정도 생산한다.

모잠비끄는 호두수출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77—1978년도에 목화는 8만톤, 레몬은 2만 3천 500톤생산되였다.

1979년에 1만 8천 500톤의 차와 21만 4천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1979년현재 100여만명의 인구를 망라한 1천여개의 협동촌과 3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5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창설되여 운영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등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공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모잠비끄에는 방직공장, 일용품공장, 금속기계공장들이 있으며 가공공업으로서 규모가 작은 야자, 땅콩, 목화씨를 원료로 하는 기름공장과 사탕, 비누, 세멘트, 유리, 종이 공장들이 몇개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한데 기초하여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1977—1978년에 공업생산총액은 20%, 공업부문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은 15% 높아졌다.

1978년에 50만톤의 세멘트가 생산되였다.

1979년현재 중요한 국영부문기업소가 40개나 된다.

철광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우라니움, 금, 은, 동, 크롬, , 니켈, 흑연,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이 매장되여있다.

모잠비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다.

3천 700키로메터의 철길과 3만 7천 1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

주요수출품은 호두, 목화, 땅콩, 차, 레몬 (약 1만톤수출)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천, 운수수단, 금속제품 등이다.

마뿌뜨항이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배통과능력은 1천 400만톤이다.

1979년현재 초등학교는 7천개, 학생수는 150만명이며 중등학교는 130개, 학생수는 100만명에 달하고있다.

마뿌뜨종합대학학생수는 1천여명이다.

1979년에 있은 제1차전국문맹퇴치운동기간에

13만명이상의 어른들이 글을 배웠다.

1980년에 진행될 제2차전국문맹퇴치운동기간에는 30만명의 근로자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건의료기관들이 사회화되고 녀성들이 병원에서 해산방조를 받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일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모잠비칸 레볼루숀(모잠비끄해방전선기관지), 노며씨아스, 노며씨아스 다 베이라

방송 모잠비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6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7월에 우리 나라와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을, 1978년 5월 21일에는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과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 7월 24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수도 마뿌또에서 조인되였다.

1976년 9월 모잠비끄정부는 수도 마뿌또의 중앙거리의 하나인 종합대학의 앞거리를 《김일성거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1979년에 모잠비끄에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이해 1월 모잠비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사모라 모이세스 마쎌대통령이 1971년 9월, 1975년 3월, 1978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1월에 모잠비끄정부건설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9월에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모잠비끄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넓이 11만 8,484km²
인구 586만 2,000명(1979년)
수도 좀바(주민 6만명)

자연 및 주민

말라위는 아프리카대륙동부에 자리잡고 탄자니아, 모잠비끄, 잠비아에 둘러싸여있는 내륙국이다.

이 나라는 열대지역에 놓여있으나 날씨는 무덥지 않다. 여름과 메마른 겨울이 엇바뀌며 낮은지대와 높은지대는 상당한 기온의 차이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들이며 기타 구라파, 아세아 사람들도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의원수 85명, 임기는 5년, 1978년 6월 29일 선거

대통령 1970년 헌법수정법에 의해 종신대통령제,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1964년 7월 －)

정부 1979년 12월 31일 내각개조, 대통령이 농업및천연자원부, 외교부, 사법부, 공공사업부 및 공급부의 부장직을 겸임

정당, 사회단체; **대회당**(집권당) 1970년 9월 당대회에서 반다를 종신대통령으로 결정, **사회주의동맹**, **로조대회**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한 말라위는 니아살랜드로 불리워 오던 나라이름을 본래의 이름인 말라위로 고쳤으며 1966년 7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반다대통령은 《아프리카화》정책의 한 고리로서 아세아사람들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이다.

경제, 사회문화

말라위는 농업국가로서 주민의 90%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업은 주로 차, 담배, 목화, 커피, 땅콩, 사탕 등 수출작물생산에 치우쳐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차, 담배 등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공업과 방직공업이다.

석회석, 돌솜, 보크사이트, 석탄, 금, 철광석, 망간, 금강석 등이 매장되여있으나 그 일부만이 수공업적으로 채굴되고있다.

령토의 20%를 덮고있는 말라위호수로부터 잡은 물고기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

운수로는 살리마에서 시작되여 모잠비끄로 통하는 철길이 있으며 수도에는 철길이 없다. 니아사호를 통한 배길을 많이 리용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말라위 뉴스(대회당기관지), 디스 이즈 말라위(정부기관지), 모니, 타임스

방송 말라위방송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넓이 75만 2,614km²
인구 564만 9,000명(1979년)
수도 루사카(주민 43만명)

자연 및 주민

잠비아는 아프리카대륙 남부에 있는 내륙국으로서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900~1,200m의 고원지대이다.

열대지대에 위치하고있으나 지대가 높은 관계로 무덥지 않다.

이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120m높이의 빅토리아폭포가 있다.

년평균기온은 18~24°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750~1,000mm이다.

주민은 카프에트족, 벰바족, 바르트세족, 룬다족 등 73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125명이며 임기는 5년, 1978년 12월 12일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케네스 다비드 카운다(1964년 8월—, 1978년 12월 12일 4선)

정부 1979년 1월 2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다니엘 무치와 리술로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9년 11월 창건, 위원장 케네스 다비드 카운다, **로조대회**, **민족통일독립청년운동**

잠비아는 1891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4년부터는 식민지로 되였다가 1953년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 편입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잠비아는 1963년 12월에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1964년 1월에 《내부자치권》을 가졌고 1964년 10월 24일에 독립을 이룩하였다.

이와함께 북로데시아라고 불러오던 나라이름을 잠비아로 고치고 공화국을 세웠다.

독립후 잠비아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군사적도발과 간섭, 경제적봉쇄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이룩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79년 11월 잠비아군대와 인민은 잠비아에 군사경제적압력을 강화하여 짐바브웨애국전선에 대한 지지를 그만두게하려는 목적밑에 감행한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였다.

놈들은 잠비아의 수출입화물의 40%이상을 나르는 탄자니아—잠비아철도를 파괴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12개다리를 파괴하였다.

11월 20일 카운다대통령은 적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로데시아에 대한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인민들에게 어느때나 동원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고 짐바브웨인민의 위업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11월 22일 6천명의 군중이 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영국반동정부의 지원을 규탄하여 영국대사관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렸으며 11월 23일과 24일에는 잠비아주재 영국고등판무관사무소를 까부시고 영국고등판무관놈을 내쫓았으며 잠비아에 있는 영국회사 《론로》의 잠비아지사들을 국유화할것을 요구하고 영국에로의 잠비아의 동수출을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11월 27일 잠비아정부는 잠비아에 배정된 석유를 로데시아괴뢰정부에 넘겨주려고 공모한 17개의 영국회사들에 30억딸라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잠비아의 요청에 따라 11월 24일 유엔안보리사회는 잠비아에 대한 로데시아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본 잠비아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잠비아정부는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0월에 잠비아, 앙골라, 자이르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호상안전보장에 관한 협정과 경제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에 앞서 잠비아는 1월에 중국과 과학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잠비아대통령이 1979년 4월에 모잠비끄, 6월에 보쯔와나와 앙골라, 9월에 꾸바,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6월에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 위원장이, 10월에 자이르대통령과 앙골라대통령이 잠비아를 방문하였다.

잠비아는 1979년 8월에 우간다와, 9월에 니까라과, 이란 및 그레네이더와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잠비아는 세계적인 동생산국이며 광업이 국민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동매장량과 채굴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코발트생산량에서는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이 나라의 동광석은 품위가 높으며 다른 유용광물이 많이 포함되여있다.

한해에 70여만톤의 동을 제련하고 있다.

동은 잠비아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국민총생산액의 근 절반과 외화수입의 90%이상을 담당한다.

동(1976년에 85만톤 생산)과 코발트 이외에 철광석, 연, 아연, 우라니움, 크롬, 금, 은, 금강석 등이 생산된다.

정부는 동파 코발트생산을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광물들을 더 개발할데 대한 조치도 취하고있다.

이밖에 수력발전소,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원유정제공장, 화학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1964년에 7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1977년에 88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1979년현재 수력자원에 의한 년간전력생산량은 50억키로와트시에 달한다.

인구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1979년현재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14%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기장, 땅콩, 밀, 사탕수수, 담배, 목화 등이다.

《토지혁명》, 《농업혁명》의 구호밑에 토지개혁이 실시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있으며 국영농장들과 협동조합들을 창설하고있다.

또한 관개시설들이 건설되고 경지면적이 늘어나고있다.

단위당소출을 높이기 위해 좋은 종자를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다.

부침땅의 75%에 해당한 약 100만헥타르의 땅에서 해마다 6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하고있다.

1978년에 5천톤의 담배와 1만 1천톤의 목화씨가 생산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180만마리), 양, 염소, 돼지 등이다.

특히 소를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곳에 국영소목장들과 우유가공공장들이 많이 일떠섰다.

날집짐승마리수는 110만마리이상에 이르고있다.

잠비아정부는 제3차5개년(1979—1983)계획기간에 민족경제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것을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3만 4천 900여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동, 코발트, 철광석, 연, 아연 등을 비롯한 광물과 담배,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설비, 천을 비롯한 일용품과 식량 등이다.

초동학교학생수는 약 100만명이다.

잠비아종합대학은 300명의 교원과 3천여명의 학생을 가지고있다.

1979년에 잠비아종합대학에서만도 600명의 각부문의 전문가들을 키워냈다.

1979년현재 이 나라에는 82개의 병원과 675개의 진료소가 있다.

병원침대수는 1만 9천 500대에 이르렀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타임스 오브 잠비아(민족통일독립당기관지), 잠비아 메일(정부기관지), 잠비아 데일리 메일, 잠비아 뉴스

방송 잠비아방송, 잠비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18일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12월 12일에 우리 나라와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잠비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조》 등이 조직되여있다.

국제상품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1979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사이에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진행되였다.

1979년 6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우리 나라 전람회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짐바브웨

(짐바브웨공화국)

넓이 38만 970km²
인구 714만명(1980년 2월)
수도 솔스베리(주민 65만 6,000명)

자연 및 주민

남부아프리카의 중부에 자리잡고있으며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몹시 무더우며 최고 38°C를 넘는다.

년평균강수량은 500~1,000mm이다.

남부의 림뽀뽀강지류들과 북부의 잠베지강기슭에는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어 농업생산에 유리하다.

주민의 대부분(686만명)이 반투어계통의 흑인(아프리카인)이며 그밖에 구라파인(24만 4,000명)과 혼혈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1980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 진행, 총의석 100석중 80석은 아프리카인들이 차지(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이 57석, 짐바브웨아프리카인인민동맹이 20석,《통일아프리카민족회의》가 3석을 차지), 나머지 20석은 《로데시아전선당》이 차지(런던평화협정에 따라 백인들에게 7년간 주기로 하였다.)

대통령 카나안 바나나(1980년 4월 11일—)

정부 1980년 3월 11일 백인 2명을 포함한 23명으로 구성, 총리겸국방부장 로버트 지. 무가베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자누) 1963년 8월에 창건, 위원장 로버트 지. 무가베(총리), **짐바브웨아프리카인인민동맹**(자푸) 1961년 12월에 창건, 위원장 죠수아 느코모(내무부장), **짐바브웨애국전선** 1976년 10월에 민족동맹과 인민동맹이 통합하여 결성, 공동위원장 로버트 지 .무가베, 죠수아 느코모,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회의**(인종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아프리카인조직), 위원장 시톨레, **짐바브웨민주당**, **통일아프리카민족회의**(인종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아프리카인조직), 위원장 무조레와, **로데시아전선당**(인종주의자들의 정당), **통일민족련방당**, **짐바브웨민족전선**, **아프리카로조대회**

짐바브웨가 영국의 식민지로 된것은 19세기말부터이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95년에 남부아프리카의 잠베지강남부고원지대를 강점하고 저들의 두목놈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로데시아》라고 고쳐 불렀다.

1923년에는 영국의 《자치령》으로, 1953년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중앙아프리카련방》에 편입되였다.

그후 잠베지강이북의 북로데시아는 1964년에 잠비아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남로데시아(짐바브웨)만이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65년 11월 11일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케하고 백인인종주의자들이 통치하는 《로데시아공화국》을 조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짐바브웨인민은 짐바브웨애국전선의 두리에 뭉쳐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오랜 기간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의 빛나는 결실로서 이번 선거에서의 확고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짐바브웨에서 식민지통치와 인종주의적억압이 종말을 고하고 짐바브웨인민앞에 민족적독립과 자주적인 새생활창조의 넓은 길이 열리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짐바브웨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백인인종주의《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1966년 4월부터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짐바브웨에서 더는 인종주의통치를 유지할수 없게된 제국주의자들과 백인인종주의자들은 짐바브웨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로데시아문제의 《내적해결안》이란 교활한 기만술책을 꾸미였다.

1979년 4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이른바 《흑인다수파통치에로의 이행》에 관한 《선거》를 실시하고 흑인괴뢰정권인 《짐바브웨—로데시아정권》을 조작하였다.

짐바브웨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인 짐바브웨애국전선이 배제되고 흑인괴뢰들을 내세운 이 《짐바브웨—로데시아정권》은 짐바브웨인민으로부터 배격을 받았을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조정안》이란것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짐바브웨애국전선의 지도밑에 무장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짐바브웨인민의 근 15년간에 걸치는 무장투쟁의 결과로 1979년 12월 21일 런던에서 짐바브웨애국전선, 영국, 로데시아괴뢰정부사이에 로데시아에

관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였다. 이에 따라 완전한 정화가 실시되고 1980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짐바브웨의 합법적독립을 위한 국회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에 9개의 정당 및 그루빠들이 자기의 립후보를 내세웠는데 선거참가자의 63%가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립후보를, 24%가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립후보를 지지하여 투표하였다.

그리하여 짐바브웨애국전선에 속해있는 이 두 조직은 총 100개의 국회의석 가운데서 압도적다수인 77석(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57석,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20석)을 차지하였다. 이전 괴뢰정부 총리였던 무조레와파는 겨우 3석밖에 차지하지못하였다.

나머지 20석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런던평화협정에 따라 백인들에게 7년간 주기로 하였다.

선거결과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위원장인 로버트 지. 무가베에 의하여 새 정부가 구성되게 되였다.

1980년 4월 18일 수도 솔스베리에서 짐바브웨공화국이 선포되였다.(4월 18일을 독립절로 기념)

이로써 짐바브웨에 대한 80여년간의 영국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고 아프리카대륙에서 50번째의 독립국가로, 세계에서 161번째의 독립국가로 되였다.

새 짐바브웨정부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로데시아》라는 이름을 없앨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전 이름은 공식적으로 《짐바브웨》로 불리워지게 된다.

짐바브웨인민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자기 힘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사회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총리 무가베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쁠럭불가담운동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농업과 채굴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담배재배가 기본(농업총생산액의 80%)이며 이밖에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밀, 수수 등이 있다.

축산업과 림업도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집짐승은 뿔난집짐승과 양, 염소, 돼지를 기르고 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크롬, 석탄, 철광석, 니켈, 라디움, 동 등이며 돌솜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해마다 크롬광 70만톤, 돌솜 10만톤, 석탄 500만톤, 동 2만~2만 2천톤, 금 18톤, 니켈 7천 500톤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라디움의 80%를 채취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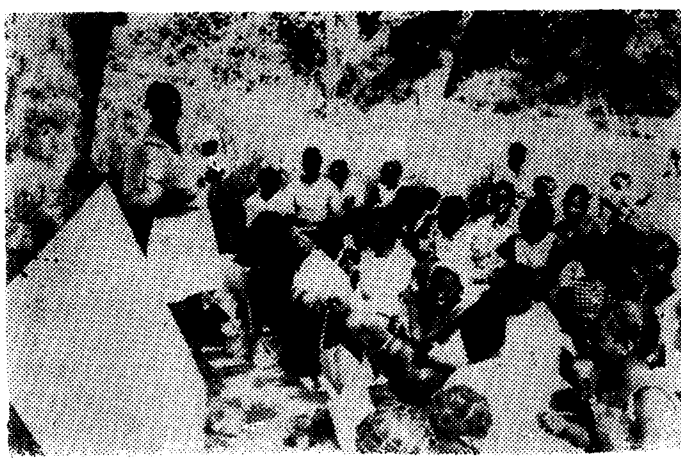
가공공업에서는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이밖에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운수의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철길은 3천 250키로메터이며 자동차길은 6만 9천 400키로메터이다. 솔스베리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크롬, 돌솜, 라디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등이다.

새 정부는 식료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일부 다른 상품들에 대한 세금을 15%로부터 10%까지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토지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조치도 취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종교를, 백인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짐바브웨 피플즈 보이스(짐바브웨애국전선기관지), 크로니클, 썬데이 메일

방송 《짐바브웨목소리》방송, 짐바브웨방송, 짐바브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80년 4월 18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대사급 외교대표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1978년 5월에 짐바브웨애국전선공동위원장이며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위원장인 로버트 지. 무가베(현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8월에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앙 골 라

(앙골라인민공화국)

넓이 124만 6,700km²
인구 654만 3,000명(1979년)
수도 루안다 (주민 약 8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있는 앙골라는 잠비아, 자이르, 나미비아와 잇닿아있다.

년평균기온은 17~28°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남부내륙지방에서 750~1,000mm, 북부내륙지방에서 1,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97%)이며 세부적으로는 4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있다.

전국적인 공용어는 반투어이나 매개 종족은 자기의 언어를 쓴다.

정 치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 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정치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성원들, 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정치국이 선출한 여러명의 정부부장들로 구성, 대내외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 죠세 에두아르도 도스 싼또스(1979년 9월 20일—)

정부 1979년 11월 8일 정부개조, 대통령이 정부수반, 무력총사령관을 겸한다. 1978년 12월 총리와 부총리의 직책을 폐지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로동당**(집권당), 1977년 12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1956년 12월 9일에 창건된 인민해방운동을 인민해방운동—로동당으로 고침, 위원장 죠세 에두아르도 도스 싼또스, **전국근로자동맹, 청년조직, 녀성조직**

앙골라는 1482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은후 1885년에 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앙골라인민은 1956년 12월에 창건된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의 지도밑에 1961년 2월 4일부터 14년동안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75년 11월 11일 독립을 이룩하고 앙골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7년 12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제1차대회에서는 《당의 기본전략적목적이 앙골라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영부문을 발전시키며 이 부문을 민족경제의 주도적부문으로 전변시키는것을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당의 경제강령에 따라 1978년 2월 혁명리사회제1차회의에서는 외국인회사들과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1978년부터 3개년경제발전계획수행에 들어갈것을 제기하였다.

1979년 9월 10일 앙골라대통령 아고스띠노 네또가 중환끝에 서거하였다.

이해 9월 20일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죠세 에두아르도 도스 싼또스가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위원장, 앙골라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앙골라인민은 남부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무장도발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나가고있다.

앙골라정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앙골라대통령이 1979년 1월에 꾸바, 6월에 자이르와 꽁고, 5월에 잠비아, 12월에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이해 2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이, 4월에 로므니아대통령과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12월에 산로메 프린시페대통령이 앙골라를 방문하였다.

앙골라는 이해 1월에 중앙아프리카, 6월에 아르헨띠나, 인도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5%가 농사를 짓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사탕수수, 사이잘삼, 강냉이, 조, 수수, 땅콩, 나무감자, 목화 등이다.

커피는 수출총액의 35%를 차지한다.

주민들의 기본식량으로 되여있는 강냉이, 조, 수수, 나무감자 등은 중부지역과 바다가 벌방지대에서 주로 심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돼지, 염소이며 주로 남부지역에서 기르고있다.

앙골라에는 36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여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금, 원유, 철광석, 동, 연, 아연, 망간 등이다.

금강석생산량은 한해에 200만~220만카라트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주요한 재부인 원유는 나라의 화폐총수입의 60%를 차지하고있다.

1979년에 9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남부지역의 까싱가에서 1950년대에 철광석매장지가 발견된후 1967년부터 로천채굴이 시작되였

다.

그의 매장량은 60∼70%의 품위를 가진 철광석이 9천만톤, 35∼40%의 품위를 가진 철광석이 4억톤에 달하며 해마다 600만∼700만톤의 품위 높은 철광석이 원광대로 수출된다.

가공공업의 중심지는 루안다와 로비또이다.

루안다에는 원유가공, 방직, 화학, 종이, 담배, 사탕, 신발 공장들이 있다.

로비또는 식료공업의 중심지로서 제분, 통졸임, 고기및소젖가공공장외에 세멘트공장과 조선소도 있다.

앙골라에서는 주요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적통제가 확립된 결과 1979년현재 금속제품, 합판, 천, 사탕생산의 100%, 금강석채취의 77%, 신발생산의 절반이상, 식물성기름생산의 37%, 세멘트생산의 4분의 1이 국영부문에서 나오고있다.

앙골라의 수출품의 95%가 농산물과 광물류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금강석, 철광석, 원유, 사이잘삼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소비품, 기계류, 공업제품 등이다.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00만명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공부하고 있다.

앙골라국립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수는 1천여명에 달한다.

보건사업발전을 위하여 의료일군양성소들을 내오고있다.

1977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무상치료가 실시되고있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앙골라프레스

신문 워또리아 오우 모르떼(인민해방운동—로동당기관지), 죠르날 디 앙골라(정부기관지), 디아리오 데 루안다

방송 앙골라방송, 벵구엘라방송, 앙골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11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8월 15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조인되였다.

1968년 9월과 197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앙골라대통령 아고스띠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6월 앙골라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나 미 비 아

(서남아프리카)

넓이 82만 4,292km²
인구 100만명(1979년 6월)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7만명)

자연 및 주민

나미비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날씨는 무덥고 메마르며 비가 적게 내린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이고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50∼500mm이다.

주민의 90%가 오밤보족, 부슈멘족, 호텐토트족 등 아프리카흑인이며 백인이 약 10만명 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어를 쓰며 백인들은 영어와 독일어를 쓴다.

정 치

나미비아는 19세기말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5년 7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조작한 남아련방에 강점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련방은 《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자기 령토에 비법적으로 병합시켰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6만명의 강점군을 비롯한 수많은 폭압력량을 나미비아의 도처에 배치하여 놓고 나미비아인민들의 사소한 움직임도 억누르고있다.

놈들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70여만명의 원주민들을 살기어려운 척박한 북부와 동부지대에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령토의 3분의 2에 해당한 지역을 《경찰지대》로 선포하고있다.

1979년현재 집단수용소에만도 1만 5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갇혀있다.

나미비아인민들은 1966년 5월부터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무장투쟁을 시작하여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비법적인 강점과 지배,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라의 전지역에서 놈들에게 심대한 군사,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고있다. 그들은 전투작전을 점차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에로 확대해나가면서 전과를 올리고있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무장력은 1979년 한해동안

에 적장병 약 1,500명을 소멸하고 19대의 적비행기를 격추하였으며 77대의 적자동차를 비롯한 기동기재들을 파괴하였다.

나미비아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데 질겁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내부조정》과 《아프리카인 다수파에로의 정권이양》에 대해 떠들면서 나미비아인민의 진정한 대표인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배제하고 나미비아에 괴뢰정권을 조작해냄으로써 나미비아인민의 해방투쟁을 말살해 보려고 꾀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1978년 12월에 일방적으로 제헌회의선거(50명)를 강행하고 1979년 5월 8일에는 제헌회의에 의원들을 추가(15명)하여 정식 국민의회로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잠정정부를 수립한다고 떠벌였다.

5월 31일 유엔총회에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놈들에 대한 경제적제재를 가할것을 결정하였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 삼 누죠마는 1979년 5월에 나미비아인민은 나미비아문제의 신식민주의적 해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인종주의자들의 강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할때까지 무장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당, 사회단체로서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 4월 23일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삼 누죠마, **국민당**(집권당)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정당, **민주턴할동맹**, **통일당**, **나미비아근로자민족련맹**, **서남아프리카로조**, **청년동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취공업과 축산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채취공업이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아프리카에서 연생산은 제1위, 카드미움은 제2위, 아연은 제3위를 차지한다.

금강석은 로천에서 캐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 그밖에 우라니움, 동, 철광석, 류황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자원은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독점체들이 략탈해가고있다.

토지의 90%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콩 등이며 공예작물도 재배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해마다 300만매의 가죽을 수출한다.

항구들과 광산지대를 련결시키는 철길이 있다.

어린이 사망률은 40%에 달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게마이네 짜이룽, 오피씨알 가제트 오브 사우즈 웨스트 아프리카, 윈드후크 에드버타이저

방송 《나미비아의 소리》방송, 아르에스에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였으며 투쟁대오내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였다.

이해 3월 24일 탄자니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5년 9월 3일 애굽 및 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대표부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애굽의 수도 까히라에서 결성하였다.

1977년 2월 18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65년 7월과 1973년 7월, 1975년 11월 세차례에 걸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위원장 삼 누죠마를 단장으로 하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보 쯔 와 나

(보쯔와나 공화국)

넓이 60만 372km²

인구 70만명(1979년 6월)

수도 가보로네(주민 3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보쯔와나는 아프리카대륙의 남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3분의 2가 무연한 벌판인 사막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월에 21∼27°C, 7월에 16°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480∼6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이며 가장 큰 종족은 보쯔와나족(베추아족)이다. 주민의 98%가 흑인이다.

공용어는 반투어의 하나인 보쯔와나어와 영어이다.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36명이며 그중 32명은 총선거로, 4명은 민족회의에서 선거, 임기는 5년, 1979년 10월 20일 총 선거결과 민주당이 30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민족회의와 함께 립법권을 행사, 대통령 쎄레쩨 카마(1966년 9월—, 1979년 10월 23일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1962년에 창건, **인민당** 1960년에 창건, 민족주의정당, **독립당, 민족전선, 로조대회**

보츠와나를 침략한 영식민주의자들이 1885년에 이 지역을 두개로 갈라 북부는 저들의 《보호령》으로, 남부는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영령베추아날랜드》로 불러왔다.

1966년 9월 30일에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을 이룩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 이름을 보츠와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보츠와나인민은 인종주의자들의 포위속에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통일》의 구호를 들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1979년에도 이 나라 인민은 남부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빈번한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였다.

1979년 10월 20일 보츠와나에서 독립이래 두번째로 진행된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승리하여 카마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정부는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9년 6월에 잠비아대통령이, 7월에 영국녀왕이 보츠와나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한다.

소고기수출국이며 축산물이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보츠와나소고기회사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살장의 하나로서 하루평균 1,000마리의 소를 잡고있다.

1979년에 소는 300여만마리, 염소는 100만마리, 양은 40만마리에 이르렀다.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병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수의사양성소, 검역소들을 새로 내오고 우물파기, 종축개량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에 9개의 시범목장, 21개의 축산업지도기관을 설치하고 소의 개량과 과학적인 방목 및 관리방법을 일반화하고있으며 가물지역에서 집짐승들의 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50여개의 우물을 팠으며 100개의 뚝을 건설하였다.

부침땅은 약 800만헥타르이나 거의 농사를 지을수 없고 동북지방에서 강냉이, 수수, 콩, 밀 등을 심는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강석, 니켈, 석탄, 망간 등이다.

현 5개년(1976/1977—1980/1981)계획기간에 지하자원개발에 큰 힘이 돌려지고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금강석광맥이 발견되여 수출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1979년에 오라파금강석광산확장공사를 끝냈다.

1978년에 288만카라트, 1979년에는 450만카라트의 금강석을 생산하였다.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련결하는 철길의 일부가 이 나라의 동부국경선을 통과(650키로메터)하고있다.

1979—1980회계년도에 철길건설에 약 1천 800만뿔라의 자금을 쓰기로 하였다.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7천 80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집짐승가죽, 소고기, 고기가공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류, 원유제품 등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20%이상을 교육발전에 돌리고있다.

1979년현재 초등학교는 450여개, 학생수는 근 14만명에 달하며 중등학교는 18개, 학생수는 1만 2,000명이였다.

1979년현재 교원수는 4천 900명에 달하고있다.

독립이후 8개의 대학이 새로 문을 열었다. 1979년현재 건설중에 있는 교원대학까지 합하면 교원대학만 하여도 4개나 있게 된다.

이 나라에는 12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치료기관들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리사니오(민주당기관지), 마사(인민당기관지), 무오파(민족전선기관지), 데일리 뉴스, 쿠틀와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보츠와나공화국대통령 쎄레쩨 카마가 1976년 8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넓이 122만 3, 409km²
인구 2,779만 9,000명(1979년)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82만 5,7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남쪽끝에 있다.

대서양과 인도양에 면한 3면이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여있고 내륙의 대부분은 1,400m이하의 분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남부지역은 아열대성기후, 동부해안지대는 습한 열대해양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7월에 18°C, 1월에 25°C이다.

한해강수량은 1,000mm이상이나 서부지방은 60~7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그밖에 백인, 혼혈인, 아세아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아프리칸어와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6명, 임기는 5년, 하원은 171명, 임기는 5년

대통령 마라이스 빌죠엔(1979년 6월 13일—)

정부 1979년 6월 14일 새 정부 구성, 총리 피 보사

정당, 사회단체; 남아프리카공산당 1921년 7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공산당, 1950년에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해산당하였다가 1960년에 다시 조직, 전국위원장 유스프 모함메드 다두,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해방투쟁조직, 1912년 1월에 창건, 위원장 올리버 탐보, **아자니아인민조직** 1977년 4월에 창립, **아프리카흑인동맹**, **국민당**(집권당), **자유진보당**, **남아프리카인도인대회**,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남아프리카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948년에 조작한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인종주의자들은 《남아련방》으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1961년 5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바꾸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저들의 통치지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350여가지의 인종주의적이며 파쑈적인 악법들을 만들어놓고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야수적인 폭압정책을 실시하면서 서방나라들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군사적잠재력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1979년현재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병력수는 무려 40만 5천명에 달하고있다.

1979—1980회계년도에 20여억딸라를 군사비로 설정하고 최신형 대량살륙무기를 구입하고 남아프리카의 여러곳에 비행장건설을 비롯한 군사기지들을 신설확장하였으며 통신 및 감시체계를 개건하였다.

1979년 영국에서만도 3척의 군함과 100대의 군용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살인무기를 끌어들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국내에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1979년현재 이 나라의 감옥들에서는 20여만명의 정치범들이 신음하고있다.

놈들의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아프리카인민들은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시위, 파업, 폭동 등 각종형태의 대중투쟁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1979년을 무장투쟁을 강화하는 해로 선포하고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제놈들의 인종주의정권을 부지하기 위하여 잠비아, 앙골라, 모잠비끄 등 나라들에 대한 무장간섭과 학살만행을 감행해오던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1979년 11월 중순부터 잠비아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거듭 감행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취공업과 보잘것없는 농업이다.

남아프리카는 세계 금매장량의 65%, 크롬광은 72%, 백금은 60%, 망간은 50%, 바나디움은 50%, 금강석은 50%, 우라니움은 25%, 돌솜은 14%를 차지하고있다. 생산량에서 금은 자본주의 세계생산량의 70%(1978년 생산량 700톤), 금강석은 세계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이밖에 동, 철광석, 석탄 등도 매장되여있다.

이 자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아프리카에는 1,600여개의 외국회사들이 활동하고있다. 그 가운데 영국회사는 600여개, 미국회사는 500개, 서독회사는 400여개, 프랑스회사는 85개, 화란회사는 57개이다.

남아프리카에 대한 미국독점체들의 자금투자총액은 167억딸라에 달하고있다.

1979년에만도 약 20억딸라가 투자되였다.

영국의 자본수출은 총 70억파운드에 달하고있는

데 1978년 한해동안에만도 거의 6억 5천만파운드에 이르렀다.

1979년현재 남아프리카에서 군수공업과 경제부문을 뒤받침하고있는 영국독점회사의 자매회사들은 1천여개 있다. 일본독점회사들도 남아프리카의 주요 항구, 철도를 건설해주고있으며 기계설비들을 공급해주고 있다.

1978년에 남아프리카에 대한 서독의 투자액은 무려 6억 2천 730만마르크에 이르렀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8%밖에 안되며 그중 90%는 소수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목화,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남아프리카는 세계 제2의 양모생산국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금,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과 식료품, 양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운수수단 등이다.

인종차별로하여 대학에서 아프리카인학생들의 비률은 0.05%, 중학교에서는 1%미만이다.

의료시설도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차례지지 않으며 농촌의 흑인거주지들에서는 병원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수많은 흑인들이 영양실조, 전염병 등으로 무리로 죽고있다. 이곳에서는 주민 4만 4천명에 의사 1명이 차례지고있다.

1979년 한해동안에만도 새로 태여난 전체 아프리카인어린이의 25%가 죽었다.

흑인학생들이 근 3분의 2가 결핵환자이다.

남아프리카의 공업및농업부문에서 해마다 35만명이상이 각종 로동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불구자로 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고있다.

남아프리카에서 10～15살의 흑인어린이 약 65만명이 백인농장주들의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있다.

1979년현재 실업자수는 약 300만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종교를,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남아프리카통신

신문 이꿀루레꼬(공산당기관지), 세챠바(민족대회기관지), 트란스버러(정부계), 아거스, 썬데이 타임스, 란드 데일리 메일, 스타, 파이낸셜 메일

방송 남아프리카방송

스위질랜드

(스위질랜드왕국)

넓이 1만 7,363km²

인구 50만명(1979년 6월)

수도 음바바네(주민 2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스위질랜드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감비아 다음으로 작은 나라로서 남아프리카의 동북쪽에서 모잠비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는 내륙국이다.

기후는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85%가 스워지족이며 그밖에 줄루족이 14%, 구라파사람이 1% 있다.

주민은 스와힐리어를 쓰고있으나 문자는 없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왕 소브후자 2세, 국가원수이다. 국왕이 국내에 없을때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한다.

정부 총리 마페부 들라미니(1979년 10월 사망)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집권당) 왕당파들의 정당, **민족해방대회당**(1975년 11월 비법화), **스위질랜드진보당, 스위질랜드통일전선, 스워리모**(스워질랜드해방운동) 1978년 8월에 창건

스워질랜드는 190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1906년부터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8년 9월 6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정권을 잡고 의회정치를 실시하다가 1973년 4월 국왕 소브후자 2세가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해 9월 국왕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75년 11월 제일 큰 야당인 민족해방대회당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당수를 투옥하였다.

흑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며 령토의 대부분은 방목지로 리용되고있다.

주민의 8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오렌지, 땅콩, 감자 등이며 수출작물로서 목화와 담배도 심는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다. 돌솜, 철광석, 석탄, 금, 은, 주석 등이 채굴된다.

질좋은 목재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돌솜과 사탕이며 그외 집짐승, 털

가축, 목재, 담배, 목화 등이다.
원주민들의 40%가 원시종교, 그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움비키(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스위질랜드
방송 스위질랜드방송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넓이 3만 355km²
인구 130만명(1979년 6월)
수도 마세루(주민 23만 7,800명)

자연 및 주민

레소토는 아프리카대륙의 제일 남쪽,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해발 2,300~3,000m에 이르는 바스토고원이 차지하고있다.
7월평균기온은 15°C, 1월평균기온은 25~26°C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들인데 그중 바스토족이 80%, 줄루족이 20%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반투어와 줄루어도 쓴다.

정 치

국왕 모쉐슈 2세
정부 총리 레아부아 죠나탄(196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민족당(집권당) 위원장 레아부아 죠나탄, **대회당, 마레마틀로우자유당, 로조대회**

레소토는 19세기 전반기에 남부아프리카나라들에 침입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스토고원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1868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된 레소토는 1966년 10월 4일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바수톨랜드로 불리여오던 나라 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치였다.
1970년 1월 27일 독립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되자 총리인 죠나탄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국왕을 연금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3년 4월 잠정국회가 열리였다.
1974년 1월 대회당의 정변시도가 있었으나 진압되였다.
레소토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있으며 특히 인종주의자들의 야만통치를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부침땅면적이 매우 적은(10%)조건에서 양털생산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이 주도적부문을 이루고있다.
동부지방에서는 밀을, 서부지방에서는 강냉이를 주로 심고있다.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양, 염소, 소를 기르고있다. 특히 양털을 비롯한 축산물들은 여러나라에 수출되고있다.
정부는 종자개량사업을 비롯하여 그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제2차 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투자된 자금의 30%이상이 농업발전에 돌려졌다.
정부는 지방의 원료들을 리용하는 공업대상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금강석을 비롯한 철광석, 돌솜, 석탄 등 나라의 자연부원을 채취하기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고있다.
1977년에 레찡—테라이금강석매장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제3차5개년(1980—1984)계획기간에는 교육, 보건, 농업, 가공공업,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자금의 많은 몫이 돌려지게 된다.
1978년에 마세루에 사범대학이 세워졌다. 해마다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이 교육사업에 돌려지고있다.
교통은 매우 불편하며 남아프리카와 수도 마세루를 련결하는 철길이 있을뿐이다.
주민의 7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느케투(민족당기관지), 레소토타임스
방송 레소토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80년 7월 19일 우리 나라 정부와 레소토왕국정부는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 협조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두 나라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말 가 슈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넓이 59만 6,000km²

인구 834만 9,000명(1979년)
수도 안따나나리부(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말가슈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약 300키로메터의 모잠비끄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양에 있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말가슈섬과 그 주변의 자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해있으나 산이 많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 무덥지 않다. 여름(1월)의 최고기온은 36°C이다. 동북부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나 서남부에서는 한해강수량이 300mm에 불과하다.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통로에 있기 때문에 인종구성이 복잡하다.

주민은 말라이족과 아프리카족으로 이루어진 말가슈사람이 99%를 차지하며 기타 프랑스, 중국, 인도, 희랍사람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이다.

정　　치

최고혁명리사회 1977년 7월 31일 12명으로 새로 구성, 위원장 디디에 라찌라까

민족인민회의 최고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 의원수 137명이며 임기는 5년, 1977년 6월 30일 선거에서 혁명수호민족전선이 전의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1975년 12월—)

정부 1977년 8월 4일 구성, 총리가 정부수반이다. 총리 데지레 라꼬또아리자오나

정당, 사회단체; 혁명전위 1976년에 조직, 총비서 디디에 라찌라까, **혁명수호민족전선**(혁명전위를 비롯한 5개의 좌익정당을 망라한 통일전선체), **독립대회당, 사회주의동맹, 사회민주당, 민족당, 통일당, 혁명근로자직업련맹, 혁명청년조직**

1896년 8월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된 말가슈는 1958년 10월 14일에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75년 2월 11일 리챠드 라찌만드라바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암살되고 외교부장이던 디디에 라찌라까가 최고혁명리사회위원장, 국가및정부수반으로 임명되였다.

1975년 12월 30일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이 선포되고 사회주의혁명헌장(정부강령)과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8년 5월에는 말가슈사회주의혁명헌장에 따라 국유화한 기업체들과 새로 창설되는 기업체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장악과 지도를 목적으로 한 《사회주의적기업에 관한 헌장》이 발표되였다.

1979년에 사회주의혁명헌장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망계획이 작성되였다.

전망계획은 3단계로 나뉘여 수행하게 되는데 첫단계는 1978년부터 1984년까지로 정하고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것이며 둘째단계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로 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셋째단계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고있는데 이 기간에는 사회주의경제를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말가슈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을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9년 2월에 말가슈는 세이쉘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해 11월에 말가슈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에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밀, 사탕수수, 땅콩, 커피, 바나나, 코코아이며 그밖에 와닐라(향료), 나무감자, 사이잘삼, 담배, 목화 등이다.

제1차계획의 마지막해인 1980년에 가서 한해에 벼는 230만톤, 강냉이는 16만 8천톤, 나무감자는 200만톤, 사탕수수는 135만 6천톤, 커피는 10만 3천톤을 생산하게 된다.

커피는 1978—1979년도에 7만 2천톤 생산하였다. 코코아는 한해에 약 2천톤 생산된다.

와닐라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집짐승도 많이 기르고 있다.

1979년현재 약 720만마리의 소, 각각 65만마리의 양과 돼지, 100만마리 이상의 염소가 있다.

국영축산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축산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있다.

100헥타르이상 소유하고있던 외국인들의 토지는 국가가 장악하였다.

농촌에서는 토지혁명이 실시되고 사회주의형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지고있다.

사회주의적인 농업협동조합수는 51개에 달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들에서는 4천여명의 농민들이 약 1만 5천헥타르의 땅을 가꾸고있다.

반사회주의적인 농업협동조합이 30여개 있다.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굴공업과 농산물가공

가죽, 목재, 담배, 목화 등이다.

원주민들의 40%가 원시종교, 그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움비키(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스워질랜드

방송 스워질랜드방송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넓이 3만 355km²

인구 130만명(1979년 6월)

수도 마세루(주민 23만 7,800명)

자연 및 주민

레소토는 아프리카대륙의 제일 남쪽,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해발 2,300~3,000m에 이르는 바스토고원이 차지하고있다.

7월평균기온은 15°C, 1월평균기온은 25~26°C 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들인데 그중 바스토족이 80%, 줄루족이 20%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반투어와 줄루어도 쓴다.

정 치

국왕 모쉐슈 2세

정부 총리 레아부아 죠나탄(196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민족당(집권당) 위원장 레아부아 죠나탄, **대회당, 마레마톨로우자유당, 로조대회**

레소토는 19세기 전반기에 남부아프리카나라들에 침입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스토고원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1868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된 레소토는 1966년 10월 4일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바수톨랜드로 불리여오던 나라 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치였다.

1970년 1월 27일 독립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되자 총리인 죠나탄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국왕을 연금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3년 4월 잠정국회가 열리였다.

1974년 1월 대회당의 정변시도가 있었으나 진압되였다.

레소토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있으며 특히 인종주의자들의 야만통치를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부침땅면적이 매우 적은(10%)조건에서 양털생산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이 주도적부문을 이루고있다.

동부지방에서는 밀을, 서부지방에서는 강냉이를 주로 심고있다.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양, 염소, 소를 기르고있다. 특히 양털을 비롯한 축산물들은 여러나라에 수출되고있다.

정부는 종자개량사업을 비롯하여 그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제2차 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투자된 자금의 30%이상이 농업발전에 돌려졌다.

정부는 지방의 원료들을 리용하는 공업대상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금강석을 비롯한 철광석, 돌솜, 석탄 등 나라의 자연부원을 채취하기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1977년에 레쩽—테라이금강석매장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제3차5개년(1980—1984)계획기간에는 교육, 보건, 농업, 가공공업,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자금의 많은 몫이 돌려지게 된다.

1978년에 마세루에 사범대학이 세워졌다. 해마다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이 교육사업에 돌려지고 있다.

교통은 매우 불편하며 남아프리카와 수도 마세루를 련결하는 철길이 있을뿐이다.

주민의 7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느케투(민족당기관지), 레소토 타임스

방송 레소토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80년 7월 19일 우리 나라 정부와 레소토왕국정부는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 협조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두 나라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말 가 슈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넓이 59만 6,000km²

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26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수도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말가슈전국위원회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이 진행되였다.

1976년 6월과 197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9월에 말가슈무역은행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3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9월에 경제대표단이 말가슈를 방문하였다.

모 리 셔 스

(모리셔스공화국)

넓이 2,045km²
인구 87만명(1976년)
수도 포트 루이스(주민 15만명)

자연 및 주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대륙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섬으로부터 동쪽으로 800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아름다운 화산섬의 나라이다.

때때로 열대태풍이 일어난다. 년평균기온은 2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260mm이다.

주민중 인도와 파키스탄사람이 67%, 혼혈인과 구라파사람이 30%, 중국사람이 3%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프랑스어도 많이 쓴다.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70명, 1976년 12월 20일에 진행된 선거결과 루사운동이 34석, 독립당(레이버당과 회교행동위원회로 구성된 련립세력)이 28석, 사회민주당이 8석을 차지

총독 대리 디. 바란쵸베

정부 1976년 12월 30일 구성,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1967년—, 1976년 12월 다시 선거됨)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련립집권당) 1936년에 창건, **사회민주당**(련립집권당), **회교행동위원회**(련립집권당), **루사운동** 이 당의 기본투쟁강령은 정권을 인민의 손에 넘겨 착취없는 《정의로운 무계급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총비서 뿔베랑제, **민주동맹, 로동련맹, 로동대회,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모리셔스는 16세기초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 1598년에는 화란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후 171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1810년부터 160년간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967년 8월 12일부터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68년 3월 12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정부는 1971년부터 나라의 경제적락후성과 빈궁, 문맹을 청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10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6년 12월 20일 독립후 처음으로 진행한 총선거에서 이전에는 국민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던 모리셔스루사운동이 승리하였다. 그런데 레이버당과 회교행동위원회로 구성된 련립세력(독립당)이 사회민주당과 새 련립정부를 구성하였다.

1977년 5월 국민회의는 나라의 령해를 12마일로,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설정할데 대한 제안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79년 2월에 모리셔스총리가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부침땅의 94%가 사탕수수밭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30%이상을 차지하는 사탕은 1976년에 80만톤을 생산하였다.

사탕수수 다음가는 농작물은 차인데 생산된 차의 75%가 수출되고있다.

이밖에 커피, 담배, 향료 등 공예작물과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들도 심고있다.

사탕공업은 모리셔스의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의 하나로서 여러 곳에 사탕공장이 있다.

경제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관광업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자동차길은 1천 323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수출총액의 90%), 차, 당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공업원료, 원유제품, 기계류, 공업제품 등이다.

이 나라에는 1개의 종합대학과 350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체로 양성한 모리셔스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구라파혈통의 백인들은 기독교, 인도사람은 힌두교, 나머지는 회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액숀, 아드방스, 로브, 락시옹, 더 네이숀, 썬데이 뉴스

방송 모리셔스방송, 모리셔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3년 3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1월에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리셔스위원회》가, 1976년 11월 15일에는 조선통일지지모리셔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 모리셔스에서 《김일성동지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이 도서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꼬 모 르

(꼬모르회교련방공화국)

넓이 2,171km²
인구 40만명(1979년 6월)
수도 모로니(주민 1만 6,300명)

자연 및 주민

꼬모르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기슭과 말가슈사이의 모잠비끄해협북부에 위치하고있다.

이 나라는 4개의 주요섬들인 그란드 꼬모르, 안쥬앙, 모헬리, 마요뜨와 기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습도가 높고 년평균기온은 23°C이다.

주민은 꼬모르족과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아랍어이다.

정 치

정치—군사리사회 1978년 5월 23일 창설, 7명으로 구성

대통령 아호메드 아브달라흐 아브데레만(1978년 10월 22일—),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정부 총리 아브델라히 모하메드(1978년 5월 17일—)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운동 1963년에 창건, 사회주의당, 민주동맹, 인민민주회의

1841년부터 꼬모르를 침략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12년에 이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꼬모르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꼬모르는 1975년 7월 6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정부는 꼬모르령토의 한부분인 마요뜨섬을 계속 강점하고있다.

1978년 10월 1일 꼬모르를 회교련방공화국으로 선포할데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으며 10월 22일에는 아호메드 아브달라흐가 6년간의 임기로 꼬모르회교련방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 목축업, 림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와닐라, 커피, 사이잘삼, 코코아, 바나나 등이며 목화, 담배, 벼, 감자류도 심는다.

꼬모르는 향료의 원료인 와닐라생산이 유명하여 《향기로운 섬》이라고 불리우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와닐라기름, 담배, 커피, 코코아, 사탕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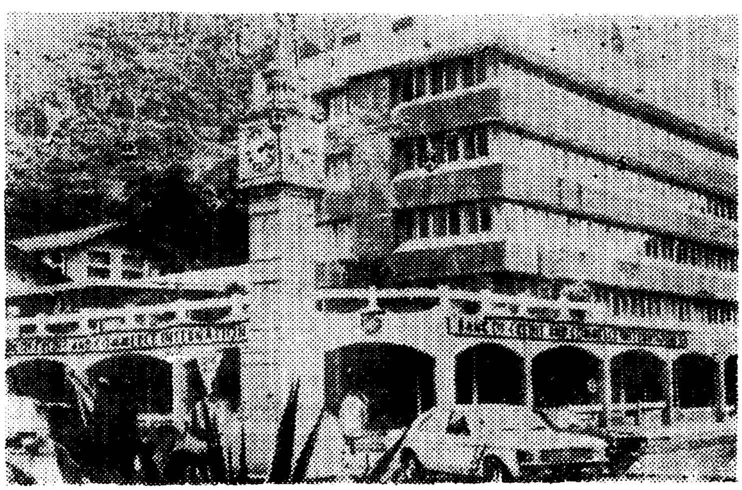
1975년 1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8월 8일 꼬모르수도에서 《조선통일지지꼬모르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세 이 쉘

(세이쉘공화국)

넓이 444km²
인구 10만명 (1979년 6월)
수도 빅토리아(주민 1만 4,5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쪽 인도양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세이쉘은 9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나라이다. 사람들이 살고있는 섬은 46개이다. 그 가운데 마헤섬이 제일 크며 주민의 80%가 여기에서 살고있다.

수도 빅토리아시는 국제해상운수의 중요한 정박항구로, 중계장소로 되고있다.

적도가까이에 위치하고있어 날씨는 몹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므로 농사에 유리하다.

년평균기온은 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300∼3,8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프랑스,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나 민족어도 쓰고 있다.

정 치

민족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23명, 1979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대통령 프란스 알버트 레네(1977년 6월 5일—, 1979년 6월 26일 다시 선거됨)

정부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세이쉘인민진보전선**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7년 6월에 창건, 1979년 11월 제1차대회진행, 위원장 프란스 알버트 레네, **전국로동자동맹**

1976년 6월 28일 세이쉘은 162년간의 영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민주당과 인민통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며 제임스 아르 맨참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7년 6월 5일 련립정부의 총리였던 프란스 알버트 레네가 맨참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되였다.

6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세이쉘정부는 《사회주의원칙》의 구호밑에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978년 9월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과 지원밑에 감행된 정변음모사건을 적발분쇄하였다.

1979년 3월 새 헌법이 채택되고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세이쉘인민진보전선 위원장 프란스 알버트 레네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10월에 정부는 나라가 독립되기전에 마헤섬에 세워진 위성감시소에 대한 미국의 특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세이쉘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존재를 청산하기 위한 첫 조치로 되였다.

11월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지원밑에 외국고용병들과 반정부세력들이 조작한 반정부음모책동을 적발분쇄하였다.

레네대통령은 정부의 진보적정책을 질식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절대로 진보적정책을 완화시키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여 6천명의 군중들이 시위를 벌리고 대통령의 《사회주의원칙》을 찬동하였다.

11월 세이쉘인민진보전선 제1차대회에서는 국가기관과 로조청년 및 소년단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대회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며 특히 의료봉사체계를 국유화하고 이 분야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12월 5일 레네대통령은 외국함선들의 세이쉘입항을 제한하며 제3세계나라들로부터의 군사적협조만을 받아들일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쁠럭불가담정책을 재천명하고 반정부음모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경고하였다.

정부는 세이쉘령토의 한 부분인 디에고 가르시아와 마시라섬들에 설치된 미제의 군사기지를 철폐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으며 레유니옹, 마요뜨섬들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확장놀음을 규탄배격하고있다.

세이쉘대통령이 1979년 7월에 유고슬라비아와 베닌, 9월에 알제리와 꾸바를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세이쉘은 말가슈와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8월에 세이쉘은 웰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코프라, 종려, 향료 등이며 이것은 수출총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농업부문에서는 가까운 년간에 식량을 자급자족할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1977년에 소는 2천 300마리, 돼지는 1만마리이상, 닭은 12만 8천마리이상 있었다.

이 나라의 주변바다에는 다랑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다.

정부는 12마일령해와 200마일경제수역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여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고있다.

1977년에 8만 7천톤의 다랑어를 잡았다.

공업으로는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여있다.

레네정부는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국영부문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제국주의독점체들과 자본가들의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토지를 분배하며 특히 어업활동을 장려하고있다.

정부조치에 따라 국영농장들과 건재생산기업소, 원료가공기업소들이 창설되고 수산협동조합들이 무어지고있다.

관광업수입은 해마다 1천 750만딸라에 달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주로 자동차와 배로 짐을 나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코프라, 종려, 향료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사탕, 천 등이다.

《교육을 진정으로 인민적인것으로 되게하자》라는 구호밑에 민족교육사업을 내밀고있다.

1979년현재 35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중등학교, 5개의 종합기술 및 전문학교, 1개의 기술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다.

학령아동의 90%이상에 달하는 1만 4천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교원의 90%가 세이쉘사람으로 꾸려졌다.

1979년 국민소득은 총 5억 5천만루피에 달하였다.

주민의 90%가 기독교를 믿으며 그밖에 회교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1979년 9월 정부통신사 창설

신문 피플(인민진보전선기관지), 네이숀

방송 세이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8년 5월 7일 우리 나라와 경제및과학기술,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해 7월 3일 이 나라 수도에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세이쉘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8년 5월에 프란스 알버트 레네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5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세이쉘을 방문하였다.

레 유 니 옹

(프랑스식민지)

넓이 2,510km²

인구 50만명(1979년 6월)

행정중심지 쌍드니(주민 9만명)

레유니옹은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의 마스카렌제도에 있는 원추형의 섬이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주민의 4분의 3이 구라파사람들이며 그밖에 인도, 말가슈 사람들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이 나라는 164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1815년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1946년부터는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통치하고있다.

레유니옹에는 원자잠수함들과도 련계를 취할수 있는 프랑스—미국의 출력이 높은 8개의 《오메가》 해상탐지기중에서 그 하나가 이 나라에 설치되여있으며 프랑스군의 인도양 서남부지역참모부도 여기에 있다.

이 나라 인민은 레유니옹공산당의 지도밑에 프랑스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0월 《녀성들과 사회적진보》라는 지역토론회가 이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공산당**(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과 **로동총련맹**이 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하며 사탕생산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나무감자, 커피, 담배,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사탕공업을 제외한 공업은 거의 없다.

프랑스독점체들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사탕과 알콜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운수는 철도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인구의 85%가 기독교를 믿는다.

신문으로는 떼무아나쥐(공산당기관지), 쥬르날 드 질드 라 레유니옹, 라 데모끄라씨, 레 꾸리에 듀 뻬쁠이 있고 **방송**으로는 레유니옹방송이 있다.

쎄트헬레나

(영국식민지)

넓이 122km²

인구 6,500명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쎈트헬레나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열대권에 속하나 산이 많아 기후는 서늘하다.
주민은 구라파사람(영국, 화란, 뽀르뚜갈 사람의 후손들)이 대부분이며 아프리카, 중국 사람 등도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1673년 영국의 식민지로 된 쎈트헬레나는 1956년 6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영국총독이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이 섬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해군함대의 기지로 리용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이 섬에 드나드는 짐배들의 봉사부문에서 일한다.
아마재배가 기본이며 기타 남새, 과일 등도 심는다.
몇개의 아마가공공장과 레스공장이 있다.
아마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무역은 영국이 독점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신문으로는 뉴스 레뷰(주간지)가 있고 방송으로는 쎈트헬레나방송이 있다.

까 나 리 아

(에스빠냐식민지)

넓이 7,273km²
인구 100만명
행정중심지 산따끄루스데떼네리페(주민 13만 5,000명)

까나리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 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키로메터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서양교통의 요충지이다.
기후는 따뜻하나 메마른 편이며 비교적 네계절이 구분된다.
주민의 대부분이 베르베르족에 속하는 까나리아족이고 그밖에 에스빠냐, 독일 사람 등이 산다.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 까나리아는 에스빠냐총독이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1976년 11월 1일부터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는 이 나라 인민은 까나리아자결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독립과 인민의 자유, 사회주의》의 구호에 따라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까나리아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을 벌리고있다.
1971년 4월 26일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정당으로는 **까나리아자결독립운동**(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에 결성된 투쟁조직, 알제리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하며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바나나, 옥파, 사탕수수, 포도, 감자, 귤 등이다.
집짐승으로는 소, 염소, 양, 락타를 기른다.
공업부문에는 원유정제, 세멘트, 화학, 선박수리, 식료, 수산물가공 공장 등이 있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가 이 섬에 석유땅크를 건설해 놓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물고기통졸임, 남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연료와 천 등이다.

라틴아메리카

꾸　　바

(꾸바공화국)

넓이 11만 4, 524km²
인구 950만명(1977년)
수도 아바나(주민 190만명)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에 있는 꾸바섬과 그 주변에 있는 1,60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열대해양성기후에 속한다. 7월의 평균기온은 28°C, 1월의 평균기온은 21°C이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가물철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마철이다.

주민의 72.8%는 백인이며 혼혈인(14.5%), 흑인(12.3%), 인디안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인민주권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약 500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1976년 11월 2일 선거, 민족회의 휴회기간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은 민족회의가 선거한 국가리사회(성원 31명)이다.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국가수반이다. 위원장 피델 까스뜨로 루쓰(1976년 12월 3일—)

정부 1976년 12월 3일 구성,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 (1959년 2월 16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62년 3월 8일에 《7월 26일운동》, 인민사회당(공산당),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을 창건하였다가 1963년초에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침, 1965년 10월 2일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침,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전국소농협회, 혁명수호위원회**

꾸바는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미제에 강점당하였다.

1902년 5월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미제는 1903년에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해군기지로 만들었으며 1906—1909년까지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1952년 3월에 미제는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꾸바인민은 1953년부터 피델 까스뜨로의 지휘밑에 무장투쟁을 벌려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승리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형제적꾸바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간섭, 봉쇄정책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새생활창조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변을 이룩하였습니다.》

혁명승리후 꾸바에서는 1959년 5월, 1963년 10월 두차례의 토지개혁과 1960년 8월, 10월에 산업국유화가 실시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1960년에 《제1아바나선언》, 1962년에 《제2아바나선언》을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삘라야 히론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한 꾸바인민은 1962년 10월 《까리브해위기》때에도 미제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켜냈다.

1975년 12월 꾸바공산당 제1차대회에서는 제1차 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사탕수수와 목축업을 위주로하는 농촌경리발전에 기본을 두면서 현대적인 농업을 위한 공업적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차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1976년에 각급 인민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진행하고 그해 12월에 혁명정부가 행사해오던 립법권을 인민주권민족회의에 넘기였다.

1979년 4월 지방인민주권기관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7월에 진행된 인민주권민족회의 회의에서는 새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으며 최고인민재판소, 최고검찰소 및 주인민주권회의들의 사업총화보고들과 인민주권민족회의 운수및체신 상설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피델 까스뜨로는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며 생산규정의 위반행위를 묵과하지 말며 요구성을 높이며 생산조직문제의 해결에서 형식주의를 허용하

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1979년 12월에 진행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꾸바의 경제형편과 1979년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찬동하였으며 다음해로 예견된 꾸바공산당 제2차대회의 준비정형과 그와 관련된 조직문제들을 토의하고 당대회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의 기본규정들을 확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980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지시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이 지적되였다.

꾸바는 1979년 1월에 라오스와 자유입국사증에 관한 협정, 중국과 1979년도 무역의정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7월에 인도와 경제, 무역관계의 촉진을 위한 협정, 8월에 앙골라와 어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에 꾸바는 또고(1월), 그레네이더(4월) 수리남(5월), 레소토(6월), 수단(6월), 니까라과 민족재건정부(7월), 자이르(8월), 이란(8월), 쎄인트 루씨아(8월), 에꽈도르(8월), 르완다(9월), 요르단(9월)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총리(1월), 앙골라대통령(1월), 뽈스까총리(3월), 벌가리아국가쏘베트위원장(4월)이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피델 까스뜨로가 5월에 메히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에서 사탕수수재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이며 그밖에 벼, 강냉이, 콩, 땅콩, 감자, 귤, 커피, 레몬, 코코아, 파이내플, 나무감자, 담배, 목화, 남새류 등이다.

1979년에 799만 2천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닭, 돼지 등이다. 가장 많은 집짐승인 소는 1975년에 545만마리였다.

혁명승리후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3개의 종합수산사업소와 새로운 항들이 건설되였으며 농어잡이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어선들의 수가 늘어났다.

혁명승리후 지난 20년동안에 년간수산물생산량이 10배이상 늘어났다. 1978년에 물고기생산량은 21만 3천 100톤이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사탕공업이다. 1979년현재 148개의 사탕공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건설된지 수십년씩되는 실정에서 공장들을 잘 정비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고있다.

사탕은 외화수입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사탕공업외에 채취, 전력, 야금, 세멘트, 화학, 원유가공, 농축산물가공 공업 등이 있다.

채취공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니켈은 매장량(1천 800만톤)이 풍부하며 생산량은 세계에서 세번째이다. 린회석, 홍토암, 보크사이트 매장지들을 새로 발견하였다.

전력공업발전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는데 1975~1979년사이에 63만 3천키로와트능력의 새로운 6개의 발전기가 조업하였다. 전력생산량은 혁명전에 비하여 거의 4배로 늘어나 1979년에 약 75억키로와트시에 이르렀다.

흑색야금및기계공업부산하 기업소들에서는 1978년에 사탕수수운반차 3천대, 써레 약 2천 500대, 제초기 750대, 무개화차 424대, 종합수확기 160대를 만들었다.

1980년 2월현재 세멘트생산량은 년산 300만톤수준에 이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과 니켈을 비롯한 광물류, 잎담배와 그 가공제품, 커피, 물고기제품, 열대과일이며 수입품은 원유와 그 가공제품, 강재, 기계설비, 쌀 등이다.

1979년 8월현재 34개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60가지의 직종에서 일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1979년에 학생수는 350만명이였다.

1979년 11월에 255개의 큰 병원과 370여개의 종합진료소, 129개의 구강병원, 1만 5천명의 의사가 있었다.

출판보도;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공산당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방송 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8월 6일 경제및과학기술협정,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6년 6월 16일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가 결성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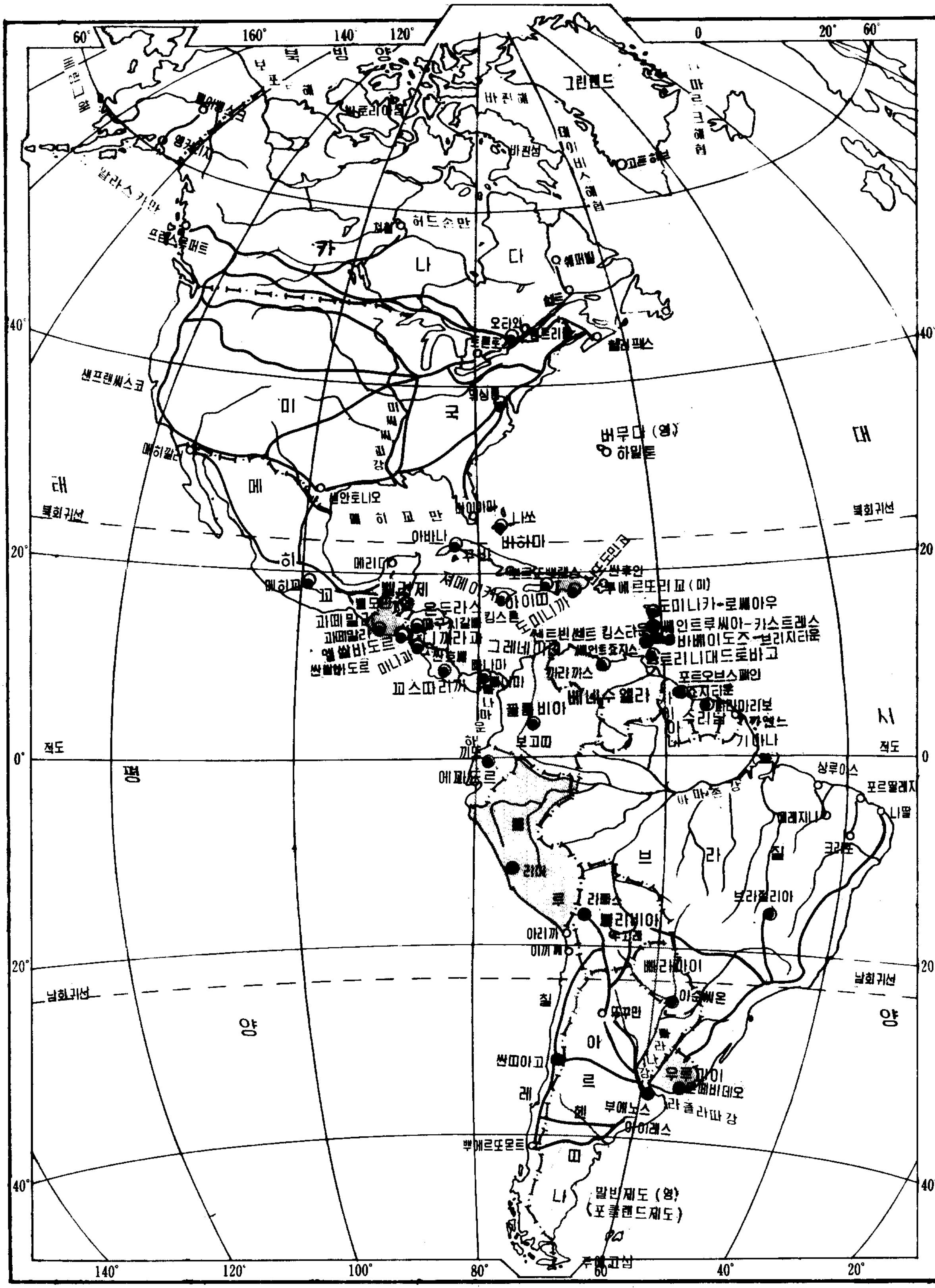
꾸바에는 조선인민과의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와 《영웅조선도서관》, 《보천보도서관》, 《만경대기계직장》 등이 있다.

1979년 1월 24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1979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가, 11월 17일 아바나에서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1980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9년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1월), 정부무역대표단 (11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꾸바의 정부무역대표단(1월), 정부대표단(7월), 공산당 당일군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에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특사가 우리 나라에 왔다. 1979년 4월 꾸

아메리카



북 빙 양
그린랜드
바핀해
데이비스해협
허드슨만
카
나
다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미
국
미씨씨피강
워싱톤
버무다 (영)
하밀톤
쌘프랜씨스코
메히꼬만
아바나
나쏘
바하마
메히꼬
꾸바
쏸후안
뿌에르또리꼬 (미)
도미니카-로쎄아우
쎄인트루씨아-카스트레스
바베이도즈-브리지타운
트리니대드토바고
포트오브스페인
혼두라스
킹스톤
니까라과
그레네이다
까라까스
베네수엘라
꼬스따리까
빠나마
꼴롬비아
보고따
기아나
적도
에꽈도르
아마존강
브
라
질
브라질리아
레시페
삐
루
리마
라빠스
볼리비아
아리까
남회귀선
북회귀선
빠라과이
아쑨씨온
칠
레
아
르
헨
띠
나
싼띠아고
우루과이
몬떼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라쁠라따강
뿌에르또몬트
말비나제도 (영)
(포클랜드제도)
대
서
양
태
평

바공화국 외교부는 미국과 남조선이 벌린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서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는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조선꾸바단결위원회에 전문을 보내여왔다.

메히꼬

(메히꼬합중국)

넓이 197만 2,546km²
인구 약 7,000만명(1979년)
수도 메히꼬(주민 1,400만명, 교외인구포함, 1979년)

자연 및 주민

북아메리카대륙의 남부에 자리잡고 과떼말라, 벨리제, 미국과 잇닿아있다.

한해평균기온은 낮은 지대에서 27°C, 중간 지대에서 24°C, 높은 지대에서 18°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 000～2,500mm이다.

주민은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 50% 이상, 인디안이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에스빠냐혈통의 백인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 60석, 임기 6년, 하원의석 400석, 임기 3년, 1979년 7월 1일 하원선거에서 립헌혁명당이 296석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6년, 대통령 호쎄 로뻬스 뽀르띨료(1976년 12월 1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19년 11월 창건, 총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 1929년 창건, 집권당, **인민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혁명당, 국민행동당, 혁명정의당, 민주당, 사회로동자당, 독립농민중앙, 메히꼬근로자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메히꼬는 152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하였다.

1910년부터 1917년사이에 《메히꼬혁명》(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립헌혁명당정치가 50여년동안 계속되고있다.

1976년 7월 4일에 있은 국회 및 대통령선거에서 립헌혁명당출신의 뽀르띨료가 당선되여 12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78년 《국가적문제토의에서 야당에 보다 많은 발언권을 주기로》하는 《정치개혁》에 따라 하원의석을 400석으로 늘이고 100석을 작은 야당들이 차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비합법적상태에 있는 소수파당들도 정치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으며 선거에 참가할수 없었거나 립후보를 낼수 없었던 소수파정당들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되였다.

1979년 7월 1일 하원선거에서 립헌혁명당이 296석, 국민행동당이 4석을 차지하였으며 100석은 작은 야당들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로동자당, 민주당이 처음으로 총선거에 립후보자들을 내놓았다.

1979년 2월 메히꼬시에서는 로동자, 농민, 대학생, 각계층 대표들 2만여명의 참가하에 원유와 가스 등 자연부원을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으며 11월에는 미국에 대한 원유공급을 늘일데 대한 미제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1979년 4월 3일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메히꼬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지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평화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메히꼬는 1979년 5월 20일 니까라과 소모사독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9년에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4월),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5월), 웰남총리(9월), 미국대통령(2월), 프랑스대통령(2월)이 메히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메히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비교적발전한 농업—공업국가이다.

로력자의 절반이상이 농사하며 부침땅은 전령토의 10%정도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땅콩, 밀, 보리, 참깨, 목화,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사이잘삼, 고무나무 등이다.

1978—1979년도에 34만 4천헥타르의 땅에 목화를 심었으며 150여만퉁구리(1퉁구리는 230키로그람)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커피는 1977—1978년도에 22만 2천톤을 생산하였다.

농촌에는 농업협동조합(《에히도》)과 국영농장이 있으며 토지개혁에 의하여 300만호(1977년)가 땅을 받았다.

1979년 6월현재 이 나라에는 80개의 관개지역이 있는데 그 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4분에 1에 해당한다.

1979년 5월 7일에 1979년도 농업발전계획이 발표되였는데 농업발전의 중심은 식량생산을 늘여 식량에 대한 수요를 자급자족하는것이다.

1979년에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40억뻬소였

다.

축산부문에도 《에히도》가 조직되였다. 1977년에 소 3천여만마리, 돼지 1천 400여만마리가 있었다.

메히꼬는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1978년말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4척의 고기배를 바다에 띄웠으며 1979년초까지는 100개의 수산업대상들이 건설되였다.

새우, 정어리, 다랑어, 멸치, 굴, 조개, 해초류등이 있다. 1978년에 80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잡은 새우의 80%는 수출한다.

이 나라에는 약 4천 400만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일부 가공공업이다.

원유, 천연가스, 은, 연, 류황, 동 등이 채취된다.

1979년에 원유매장량은 401억바렐이였으며 원유생산량은 8천만톤이였다.

원유, 광업, 원유화학, 전력, 철도 등은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흑색금속, 화학, 세멘트, 자동차 공업이 생겨났으며 원유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토대가 미약하다.

1979년 3월현재 공업부문로동력의 80%가 중소규모공업부문에서 일한다.

1979년 3월 새로 건설한 신문지공장이 조업하였다.

1978년에 5억 2천 700만뻬소의 자금을 들여 여러항을 개건확장하였으며 1979년에 20여개의 항을 꾸리는데 3억 8천 800만뻬소를 돌렸다.

주요수출품은 과일, 커피, 사탕, 고기,목화, 광물, 강냉이 등이며 수입품은 흑색금속, 자동차 및 그 부속품, 기계설비, 양털, 비료, 화학제품, 종이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63.6%, 수입의 66.4%를 미국이 차지하고있다.

1978년에 20개의 사범학교와 국립사범대학을 창설하였으며 1979년 3월 15일 국립교원대학이 건설되였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오뽀씨시온(공산당기관지), 엘 나씨오날(정부기관지), 엘 뽀뿔라르, 엘 디아, 라 쁘렌싸, 엘 우니베르쌀, 노베다데스, 엑쎌시오르

방송 메히꼬방송, 메히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4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메히꼬를 방문하였으며 1월 29일에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검열위원회 위원장이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과 떼 말 라

(과떼말라공화국)

넓이 10만 8,889km²
인구 626만명(1976년)
수도 과떼말라(주민 87만명)

자연 및 주민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메히꼬, 벨리제, 온두라스, 쌀바도르와 잇닿아있다.

령토의 70%가 해발 1,000～3,000m의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으며 화산이 많다.

기후는 적도철바람기후로서 무덥다. 한해평균기온은 25～30°C(높은 지대 15～20°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3,000mm이다.

주민은 인디안 54%, 혼혈인 36%, 백인 8%로 구성되였다. 중미나라들중 인디안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주민의 절반은 마야어를 쓴다.

정　치

국회(국민회의) 일원제, 의원 61명, 임기 4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4년, 대통령 로메오 루까스 가르씨아(1978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까를로스 곤살레스, **립헌민주당**(집권당), **혁명당**(집권당), **국민해방운동, 기독교민주당, 자치로조련맹, 로조리사회, 애국로동청년**

과떼말라는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으며 1839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독립후 1898년에 미제에 강점당하였다가 1944년에 해방되였다.

1954년 미제의 부추김에 의한 군사정변이 있은 후 친미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되고있다. 파쑈독재자들은 1954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을 6만여명이나 살해하였으며 1979년에만도 2천여명을 학살하였다. 놈

들은 《꼬만도—6》이라는 특별부대를 조직하여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일삼고있다.

파떼말라인민은 파쑈독재를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1979년 10월 수도에서는 수만명의 로동자, 농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독재정권의 테로와 탄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약 15만명이 참가하였다.

파떼말라인민의 투쟁은 3대륙인민단결기구,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 세계민주청년련맹 등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3분의 2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의 약 70%는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와 대농장주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1975년에 커피 16만 2천톤, 목화 9만 9천톤, 강냉이 92만톤, 벼 4만 5천톤이 생산되였다.

령토의 60%가 산림지대이며 목재로 쓰이는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공업부문에는 소규모의 광산,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수력발전소, 직물공장, 신발공장, 열대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가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 등이며 수입품은 일반기계, 수송수단, 화학제품, 금속제품, 천, 생활필수품, 식량 등이다.

실업자와 반실업자수가 100만명이상을 헤아리며 300만명의 근로자들이 굶주리고있다.

5살미만의 어린이의 75%가 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있다.

15살이상 주민의 60%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엘 그라피꼬

방송 파떼말라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쌀 바 도 르

(엘 쌀바도르공화국)

넓이 2만 1,393km²

인구 450만명(1979년)

수도 싼 쌀바도르(주민 47만 1,800명)

자연 및 주민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파떼말라, 온두라스와 잇닿아있다.

수도의 평균기온은 23°C이다.

주민의 78%는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며 나머지는 인디안과 백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군사—민간합동위원회 최고권력기관, 성원 5명(군인 2명, 민간인 3명), 1979년 10월 18일 구성

정부 1979년 10월 22일 군사—민간합동위원회가 임명한 성원들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30년 3월 28일에 창건, 1932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1979년 5월 제7차대회 진행, 총비서 호르헤 샤피끄 한달, **기독교민주당, 《2월 28일인민동맹》, 민족혁명운동, 민족민주련맹, 인민혁명단**(로동자, 농민, 학생 련합단체), **근로자전국련맹, 혁명청년동맹**

쌀바도르는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으며 1841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내전과 군사정변이 잦았으며 력대로 친미독재자들이 통치하고있다.

1977년 7월에 집권한 로메로정부의 파쑈통치에 의하여 1979년 2월에 1천여명이 집단수용소와 감옥에 갇혀있었으며 1972년부터 1979년 9월까지는 5천명의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1979년 9월 14일 수도에서 약 1천여명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10월 15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2명의 군인(대좌)으로된 군사위원회가 구성되였으며 18일에는 민간인 3명을 더 포함시켜 5명으로 군사—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 18일 군사—민간합동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1980년에 실시할것이라고 하였으며 10월 22일에는 내각을 임명하였다.

군사정부는 반정부시위에 나선 인민들을 탄압하며 파쑈테로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1980년 1월 22일 10만여명의 로동자, 농민, 학생들은 사회적개혁조치를 담보한 군사정부가 개혁을 실시하지 않은데 항의하여 시위를 벌렸다.

1980년 1월 21일 로동자, 농민, 학생 련합단체인 인민혁명단은 30여개의 교회를 점거하였으며 1월 29일 《2월 28일인민동맹》성원들은 군사정부의 요직들을 차지한 기독교민주당의 사무소를 점거하고 17명의 인질들을 붙잡아두었으며 군사—민간합동위원회 성원들의 사임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4%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농촌주민의 91%가 부침땅의 20%를, 주민의 2%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부침땅의 6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목화, 사탕수수, 사이잘삼이며 그밖에 강냉이, 수수, 벼, 콩 등이다.

1975—1976년도에 커피 273만 9천낀딸, 목화 361만낀딸이 생산되였다.

커피는 농산물생산액의 40%, 외화총수입의 50%를 차지한다. 수출작물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공업은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약간의 식료공업,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사탕, 사이잘삼, 축산물, 섬유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밀, 기계류, 운수수단, 화학제품, 강재 등이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라 쁘렌싸 그라피까

방송 쌀바도르방송, 중앙아메리카텔레비죤방송

온 두 라 스

(온두라스공화국)

넓이 11만 2,088km²
인구 338만명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31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파떼말라, 쌀바도르, 니까라과와 잇닿아있다.

한해평균기온(수도)은 제일 높을때 32°C, 제일 낮을때 20°C이며 한해강수량은 바다가지방에서 5,000mm이다.

주민의 90%이상은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며 그밖에 인디안, 흑인, 백인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최고리사회 최고권력기관, 1978년 8월 7일 300여명의 장교들로 구성, 뽈리까르뽀 빠스 가르시아가 지도자로 됨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7년에 창건,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에 다시 조직, 총비서 리고베르또 빠딜리아 루스, **국민당**(보수당), **자유당**, **혁신통일당**, **근로자총련맹**, **전국농민동맹**

온두라스는 152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메히꼬, 중미련방에 들어갔다가 1839년에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100여년동안 국민당과 자유당이 엇바뀌가면서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1971년 3월에 1932년후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 국민당정부가 수립되였다.

1972년 12월 군사정변으로 아렐라노가 정권을 장악하고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였으나 1975년 4월에 정변이 일어나 이 성과는 말살되였다.

1978년 8월 군사정변으로 수립된 가르시아정부는 이전 멜가르 까스뜨로정권의 정책을 계속할것이라고 하였으며 1980년 4월 20일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1979년 12월 농민들이 토지개혁실시를 위해 투쟁하였다. 농민들의 련합체인 농민통일전선은 성명에서 정부는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여야 하며 리행되지 않을경우 농민들은 대토지소유자들의 땅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주로 수출작물을 심는다.

미제독점회사들과 전체 인구의 5%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부침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이며 그밖에 사탕수수, 벼, 강냉이, 콩, 담배 등이 있다. 1975년에 바나나 150만톤, 커피 5만 1천톤, 담배 6천톤, 강냉이 22만톤, 벼 약 1만 6천톤이 생산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채취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수출총액의 3분의 2차지), 커피, 목재, 광물류 등이며 수입품은 각종 소비품과 공업원료, 기계류 등이다.

10살이상주민의 60%이상이 글을 모르며 인구의 87%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있다.

출판보도;신문 라 가세따, 엘 뿌에블로, 꼬르레오 델 노르떼

방송 온두라스방송, 온두라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13일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가, 1976년에 조선통일지지온두라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6월 온두라스의 수도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지역대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온두라스국립자치종합대학 총장이 기본보고를 하였다.

니 까 라 과

(니까라과공화국)

넓이 13만km²
인구 250만명(1979년)
수도 마나과(주민 50만명, 1979년 7월)

자연 및 주민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온두라스,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있다.



한해평균기온은 25～28°C이며 한해강수량은 동부에서 2,000～4,000mm, 서부에서 1,000mm이다.

주민은 에스빠냐혈통의 백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10만명정도의 흑인파 3만명정도의 인디안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민족재건정부리사회 최고지도기관, 성원 5명, 1979년 6월에 조직

민족재건정부 1979년 6월 17일에 정부구성을 발표, 1979년 12월 27일 내각개조

정당, 사회단체;사회당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창건, 총비서 알바로 라미레스, **싼디노민족해방전선**, **《12인그루빠》**, **싼디노로조중앙**(1979년 9월 창설), **싼디노청년동맹**

니까라과는 1522년부터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으며 183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초에 또다시 미제에 강점되였다.

1926년에 싼디노장군이 무장투쟁을 벌려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냈다.

미제는 니까라과를 예속시키기 위해 국내반동들을 사촉하여 싼디노를 암살하고 1936년에 소모사친미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소모사는 40여년간에 걸쳐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반공》을 기본정책으로 내놓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포악한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였다. 소모사의 통치기간에 학살된 애국자들의 수는 무려 10만여명이나 되며 특히 1978년 9월부터 1979년 7월까지에는 4만여명이 학살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88페지)

니까라과에서는 소모사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무장투쟁과 함께 광범한 계층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앙양되였다.

1959년부터 무장투쟁을 벌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은 1977년 9월 18일 니까라과 전령토에서 반동정부군을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넓은 지역에서 유격투쟁을 벌렸다.

1979년에 들어와서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무장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4월부터 여러 도시들에 대한 공격작전을 벌려온 싼디노민족해방전선 부대들은 6월에 들어와서 레온시를 비롯하여 20여개, 7월 6일까지는 30여개의 도시와 읍들을 해방하였다.

1979년 6월 17일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 수립을 발표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국가방위군이 견지하고있던 마지막 지탱점인 그라나다시를 점령하고 18일밤 수도 마나과에 들어갔다.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호소에 따라 6월초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여 수도에서는 상공기업소와 기관의 90%가 일을 중지하였으며 주요도시들은 혼란상태에 빠졌다.

소모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니까라과인민의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6월에 《안데스조약》5개국은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여 소모사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26개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니까라과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979년 7월까지만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모사독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안데스조약》성

원국외에 약 30여개 나라들이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를 승인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공산당 및 근로단체들, 쁠럭불가담국가 뉴욕조정위원회, 3대륙인민단결기구, 세계평화리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여 니까라과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책동을 규탄하고 니까라과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7월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는 세계 60여개 나라들과 일련의 국제기구들에서 온 대표들이 니까라과인민과의 련대성국제회의를 가졌다.

독재자 소모사는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1982년전에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싼디노민족해방전선부대들의 총공격과 인민들의 투쟁, 세계진보적력량의 강력한 항의를 막을길이 없게되자 7월 17일 미국으로 도망쳤다.

7월 17일 림시대통령으로 되였던 프란시스꼬 우르꾸요도 18일밤에 과떼말라로 도망쳤으며 소모사의 앞잡이로 복무하던 고위관리들과 수백명의 장교들도 외국으로 달아났다. 그리하여 40여년간에 걸친 소모사독재통치는 끝장났으며 7월 19일 니까라과혁명은 승리하였다.

7월 20일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 성원전원이 수도 마나과에 도착하였다.



정부는 소모사의 소유였던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며 림시혁명재판소를 창설하며 국가방위군을 해산하고 그것을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정규군으로 교체하며 독재정권의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와 최고재판소를 해산할데 대한 법령, 식료품의 분배, 운수사업의 조직, 사회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8월 22일에는 《니까라과사람들의 담보및권리》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국가가 나라의 주요산업에 인민이 직접 참가하는것을 담보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민은 동등하며 거주지선택의 자유, 입출국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로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혁명승리후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기관들이 조직되고 도시들에서는 지방인민주권기관 선거를 진행하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은 싼디노당을 창건하기위한 준비사업을 밀고나가고있다.

8월 23일에는 싼디노민족해방전선 유격대를 골간으로 하는 싼디노인민군이 창건되였으며 국가안전기관, 싼디노로조중앙, 싼디노청년동맹 등이 창설되였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소모사도당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장, 기업소, 상업쎈터, 대중보도수단들을 국유화하며 토지개혁기관들을 조직하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니까라과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대외정책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공존 및 온갖 형태의 외국의 지배와 강요 및 간섭을 반대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50%이상이 농촌에서 살고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토지개혁기관들을 조직하고 소모사와 이전 관리들의 땅을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혁명승리후 약 3달동안에 70여만헥타르의 땅을 분여하였다.

정부는 국영농장과 국가의 방조를 받는 농업협동조합을 농업생산조직의 기본형태로 규정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들에 종자와 농기계를 대주는 등 방조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또한 레온시에 시범적으로 50여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1980년에 이 나라에서는 전해에 비하여 3배이상이나되는 약 30간에이커의 땅에 목화를 심을것을 계획하였으며 1980—1981년도에 약 1억 2천만딸라어치의 목화를 생산할것을 예견하고있다.

1979년에 4만톤이상의 커피를 생산하였다.

가공공업에서 주되는것은 고기가공과 사탕생산, 농산물가공 등이며 식료품생산의 약 50%는 고기

가공제품과 사탕이다.

동광석은 광물총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민족경제의 전통적인 부문이며 화폐수입의 원천이다.

혁명승리후 전국수산연구소가 창설되였으며 수산협동조합들을 조직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목화씨, 커피, 사탕, 고기, 새우, 목재, 동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류와 철제품 등이다.

혁명승리후 6달동안에 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20%이상이 국유화되였으며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은 공업총생산액의 40%를 담당하고있다.

1980년 2월현재 국영공업부문에는 98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며 농업의 5분의 1과 수산업, 광업의 거의 전부가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정부는 7개의 개인은행을 국유화하고 4개의 외국은행(미국은행 3개, 영국은행 1개)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으며 소모사일당의 별장과 주택 159채를 몰수하였다.

정부는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세를 40~50% 낮출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실업을 없애기 위하여 특별실업기금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민의 70%가 글을 모르는 실정에서 문맹퇴치사업을 새 사회 건설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1980년을 문맹퇴치의 해로 선포하였다.

소모사독재정권시기의 초등학교학생수가 37만 8천명이였다면 1980년 3월에는 49만 5천명에 달하였다.

같은기간에 중학생수는 10만명으로부터 12만 5천명으로, 대학생수는 1만 6천명으로부터 2만 8천명으로 늘어났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니까라과통신(1979년 10월 창설)

신문 바리까다(싼디노민족해방전선기관지), 라 노떼씨아, 라 나씨온

방송 싼디노방송, 니까라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8월 2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넓이 5만 700km²

인구 202만명(1976년)

수도 싼 호쎄(주민 23만명)

자연 및 주민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니까라과, 빠나마와 잇닿아있다.

령토의 75%가 산림지대이며 그 절반이상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중부의 산악지대는 따뜻하고 해안지방은 무덥다. 해안지대에서 한해평균기온은 25~27°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3,000mm이다.

주민구성에서 에스빠냐혈통의 백인, 인디안과 백인의 혼혈인들이 97.6%, 흑인이 1.5%, 원주민이 0.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 57명, 임기 4년, 1978년 2월 5일 총선거결과 통일당이 27석, 민족해방당이 23석, 《통일인민》이 6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4년, 대통령 로드리고 까라소 오디오 (1978년 5월 8일—)

정당, 사회단체;인민전위당 1931년에 창건된 공산당을 194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통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의 련합), **사회당, 근로자당, 민족해방당, 민족통일당, 민족독립당, 근로자총련맹, 민주근로자련맹, 선진청년단체**

꼬스따 리까는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으며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2월에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떨어져나왔다.

1978년 2월 대통령 및 립법회의 선거에서 통일당의 후보 까라소가 승리함으로써 1948년부터 30년간 집권해오던 민족해방당이 정권에서 물러났다.

5월 8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까라소는 취임연설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유화정책을 더욱 강력히 밀고나갈것이라고 하였다.

1975년 6월에 립법회의는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던 이전 헌법조항을 없애고 인민전위당을 포함한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으며 1978년 총선거에 인민전위당, 사회당, 근로자당을 망라하는 좌익정당련합인 《통일인민》이 이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가하여 국회의석을 차지하게 되였다.

꼬스따 리까는 1979년 7월에 자기 나라에 와있는 미국직승기들을 끌어가도록 미국에 요구하였다.

1979년에 대통령이 메히꼬(5월), 니까라과(8월)

를 방문하였다.

이해 1월 세네갈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주민의 4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1975년에 약 8만 8천톤의 커피, 135만톤의 바나나, 약 6천톤의 코코아가 생산되였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7%이다.

경공업에서는 사탕공업과 그밖의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세멘트, 종이, 합성수지, 원유가공, 질소비료, 아연도철판, 자동차조립부문은 미국, 일본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또한 미제는 보크사이트채굴과 원유탐사부문에 침투하였다.

일본독점재벌은 《합영》의 이름밑에 12개의 회사를 장악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바나나, 소고기, 목화,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이다.

1976년에 커피, 바나나, 소고기가 수출의 61%를 차지하였다.

1977년의 실업률은 5%였다.

천주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쀼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나시온(보수계)

방송 꼬스따 리까방송, 꼬스따 리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4월 13일 꼬스따 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가, 1976년 4월 14일 조선통일지지꼬스따 리까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빨럭뿔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1979년에 꼬스따 리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9년 6월에 꼬스따 리까종합대학 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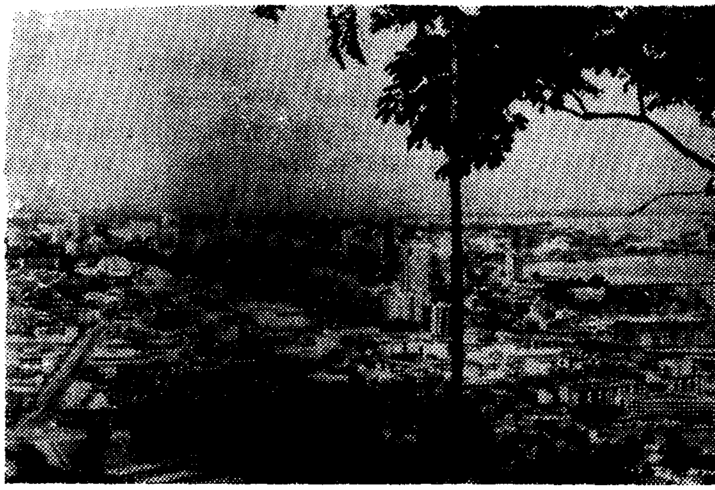
빠나마

(빠나마공화국)

넓이 7만 7,082km²(운하지대 포함)

인구 180만명(1979년)

수도 빠나마(주민 45만명)



자연 및 주민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련결하는 지대에 자리잡고 콜롬비아,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 있다.

나라의 중부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빠나마운하가 있다.

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5~28°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500~3,700mm이다.

주민은 혼혈인 65%, 흑인 13%, 백인 11%, 원주민 10%로 구성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임기 3년, 의원 505명, 505개의 《자치체》(공동체)들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1978년 8월 6일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6년, 대통령 아리스떼데스 로요(1978년 10월 11일—)

정부 1978년 10월 11일 구성

정당, 사회단체; **빠나마인민당** 1930년에 조직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민족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빠나마당**, **광범한 인민전선**(1978년 창건), **혁명민주당**(1978년 창건), **공화당**, **사회민주당**, **민족동맹**, **《제4세력》**, **전국근로자회의**,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농민조합련맹**, **녀성련맹**, **학생련맹**

빠나마는 300여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꼴롬비아에 통합되였으며 1903년 11월 3일 독립하였다.

미제는 1903년 11월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빠나마에 강요하여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운하를 건설할 1천 432평방키로메터의 땅을 빼앗아냈다. 그후 1904년부터 1914년사이에 빠나마인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운하를 건설하였으며 운하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이 지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빠나마운하는 길이 81.6키로메터, 너비 91.5～300메터, 물깊이 13.5메터이며 갑문식(갑문수 3개)으로 되여있다.

1979년까지 50만척이상의 배들과 30억톤의 물동이 이 운하를 통과하였으며 미제는 운하통과세로 400여억딸라의 리윤을 얻었다. 그러나 미제는 빠나마정부에 한해에 겨우 230만딸라를 땅값으로 넘겨주었다.

미제는 빠나마운하지역을 침략과 전쟁, 착취와 략탈을 위한 군사, 정탐 기지로, 파괴, 암해 활동의 본거지로 리용하여왔다. 또한 운하지대에 총독을 두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만명의 침략군대를 주둔시켰다.

운하지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진정한 민족적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빠나마정부와 인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미제는 1977년 9월 7일 13년동안이나 끌어온 새로운 빠나마운하조약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78년 6월 16일 이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되였다.

새 빠나마운하조약은 197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였다. 조약에 따라 미제는 빠나마운하지대의 많은 부분을 곧 빠나마에 넘겨주고 1999년말까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완전히 넘겨주게 되였다.

빠나마는 운하지대의 태평양항구 발보아와 대서양항구 끄리스또발의 항구시설과 두 대양을 련결하는 철도와 비행장, 건물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였다.

10월 1일 이 지역에서 미국기발이 내려지고 빠나마기발이 올라갔다. 그러나 미제는 《새 조약이 효력을 가진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무력사용과 《비상시》의 미국군함들의 우선적인 통과권한은 의연 존재한다고 떠들고있으며 이 지역에 1만명의 미군을 가진 5개의 군사기지들과 미군사령부를 그대로 두었다. 또한 《새 빠나마운하조약》에 지적된 《빠나마—미국공동운하관리위원회》성원 (5명)지명을 지연시키고있다.

1979년에 대통령이 베네수엘라(6월)를 방문하였으며 에꽈도르대통령(7월), 윁남총리(9월)가 빠나마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 빠나마는 수리남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6월에 니까라과 소모사독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정부는 대지주와 미독점회사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몰수하여 국영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을 묶고 그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방조를 주고있다.

300여개 (1978년)의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있다.

정부는 1978년에 국영농업및축산업리사회, 벼국가위원회를 내왔다.

1979년에는 농업에서 국영부문을 강화하고 대외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며 식료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발전 3개년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바나나, 커피, 사탕 등 농산물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농공련합기업소를 창설하고 관개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파이내플, 코코아, 담배, 벼, 강냉이 등이다.

1977—1978년도에 300만톤의 사탕수수를 생산하였다.

수산자원으로는 왕새우, 멸치, 청어 등이 많다. 정부는 수산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물고기생산을 수천톤수준으로부터 1만톤 수준에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고있다. 1978년에 4천 500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공업부문에서도 국영 및 협동 부문의 몫을 늘이기 위하여 주요경제부문의 국유화와 함께 국내원료로 운영하게 될 국영기업소들과 중소규모의 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1978년에 《바야노》세멘트공장과 《라 에스뜨렐랴》수력발전소가, 1979년에는 치리끼주에 4만 5천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와 바까모떼항이 건설되였다.

공업에서는 정유공업과 사탕공업이 중심으로 되고있으며 경공업제품도 생산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풍부한 산림자원뿐아니라 금, 철, 수은, 류황, 동 등 지하자원이 많다. 1979년에 치리끼주의 쎄로 꼴로라도지역에서 동매장지가 발견되였는데 정광으로 해마다 약 18만톤씩 50년동안 캘수 있는것으로 예견되여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사탕, 커피, 물고기제품, 고기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를 비롯한 원료와 연료, 강재, 기계제품, 의약품, 천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빠나마화》가 실시되고있는데 1979년에 국가예산의 5분의 1을 교육부문에 돌리였으며 농업 및 축산전문학교가 창설되였다. 50여만명의 학생들이 각급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문맹률은 약 21%, 실업률은 약 25%이다.

주민의 95%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엘 빠나마 아메리카, 마뚜띠노, 끄리띠까, 라 에스뜨렐랴 데 빠나마, 도미니깔, 라 쁘렌싸, 엘 빠이스

방송 빠나마방송, 빠나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에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가, 1976년 4월 22일에 조선통일지지빠나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빨치산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1979년에 빠나마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9년 9월에 빠나마인적자원육성및리용협회 위원장이며 빠나마녀성련맹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바 하 마

(바하마련방)

넓이 1만 3,935km²
인구 20만 6,000명(1976년)
수도 나쏘(주민 10만명)

자연 및 주민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에 있는 약 700여개의 섬들과 2천 400여개의 작은 섬 및 암초들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사는 섬은 30여개이다.

해양성열대기후이며 따뜻하다. 평균기온은 1월에 20～22°C, 7월에 28°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섬들에 따라 다르나 보통 1,100～1,600mm이다.

주민의 86%가 흑인이며 나머지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16명, 하원의원 38명, 임기 각각 5년

총독 국가수반, 총독 미로 바트러

정부 총리 린드 오. 띤들링(1967년—)

정당, 사회단체;**진보자유당**(집권당), **사회당**, **로동당**, **민주당**, **레이버당**, **자유국가운동**, **바하마로조련맹**

바하마는 1783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으며 1964년 1월 7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1973년 7월 10일에 독립하였으며 나라이름을 바하마련방으로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관광업과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이다. 관광수입이 국가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도마도, 바나나, 파이내플, 귤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제품, 과일, 물고기, 통나무이며 수입품은 식량, 원유, 기계 등이다.

출판보도;**신문** 오피셜 가제트, 바하미언 타임스, 바하머스 픽토리얼, 가디언, 바하미언 레뷰 매거진

방송 바하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져 메 이 커

넓이 1만 1,525km²
인구 206만명(1976년)
수도 킹스톤(주민 61만 4,000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꾸바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26°C, 산지(1,500m이상)에서 18°C이다.

북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나 나머지 지역은 메마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800～2,000mm이다.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그밖에 혼혈인 (15%), 인도인, 백인(1%)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21명, 총독이 임명, 하원의원 60명, 직접선거제, 임기 각각 5년, 1976년 12월 15일 총선거결과 인민국가당이 47석, 레이버당이 13석 차지

총독 국가수반, 총독 클리포드 캄프나길

정부 1979년 12월 내각을 개조, 총리 마이클 맨리(1972년—)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인민국가당**(집권당), 위원장 마이클 맨리, **로동당** 1978년 12월 창건, 총비서 트레보르 문로, **레이버당**, **자유인민운동**, **인민정치당**, **인민국가당청년조직**, **진보력량련맹**(1979년 9월 결성)

져메이커는 15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

었으며 1670년부터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 들어갔다가 1961년 10월에 떨어져나왔으며 1962년 8월 6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72년 2월과 1976년 12월에 있은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승리하여 마이클 맨리를 총리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맨리정부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배격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 광업부문을 비롯한 경제의 주요명맥을 틀어쥐고 착취와 략탈을 일삼는 외래독점체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지위를 강화해나가고있다.

1978년 4월에 킹스톤에서 국내반동들의 반정부시위와 폭동이 있었다.

1979년 9월에 국내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할 목적으로 진보력량련맹이 결성되였다. 이 련맹에는 인민국가당, 공산당, 레이버당과 여러 청년, 학생, 녀성 단체들과 나라의 기타 사회단체들이 들어있다.

1979년 7월 인민국가당청년조직대회에서는 현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울 진보적청년들의 결의가 표시되였으며 모든 진보적청년들이 통일을 이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까리브지역나라들의 진보적청년조직들의 전선창설을 지지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자메이카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9년에 총리가 쏘련(4월), 모잠비끄(8월), 리비아(10월), 이라크(10월)를, 9월에 윁남총리, 기네대통령이 자메이카를 방문하였다.

1979년 8월에 모잠비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보크사이트채굴과 알루미나 생산이다.

보크사이트매장량은 20억톤(1976년)에 달하며 그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1978년에 보크사이트생산량은 1천 173만톤이였으며 수출량은 644만톤이였다.

1979년현재 4개의 알루미나공장이 있는데 그 생산능력은 늘어나고있다. 클라렌돈에 있는 알루미나공장의 생산능력은 조업초기의 8만톤으로부터 56만톤으로 늘었으며 1978년에 알루미나 수출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9만톤이나 더 많은 212만톤이였다.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보크사이트회사들에 대한 국가적통제의 확립, 은행재산에 대한 국가의 장악, 개인공장의 국유화와 국영보크사이트협회, 국영공업발전회사, 국영무역회사 등을 창설하였다.

정부는 방직공업, 야금공업, 원유화학공업에 힘을 넣고있다.

소규모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소규모의 공장, 기업소수가 1976년에 218개였던것이 1979년에 와서는 1천 600여개에 달하였다.

독립후 새로 생긴 세멘트공업은 해마다 5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정부는 경제발전5개년(1976—1980)계획기간에 농업및공업발전을 위하여 5억 5천만자메이카딸라의 자금을 돌렸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난날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귤, 담배 등 수출용작물만 심어왔으나 독립후 강냉이, 벼, 감자, 콩 등 알곡작물을 심고있으며 10개의 국영농장들이 꾸려졌다.

1978—1979년도에 34만톤의 사탕을 생산하였으며 1978년에 바나나수출량은 9만 5천톤이였다.

이 나라에서는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콩, 남새를 1979년현재 거의 자급자족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사탕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공업제품, 연료, 원료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가 63%, 사탕이 10%를 차지한다.

1973년에 문맹퇴치운동이 시작된이래 약 20만명이 문맹에서 벗어났으며 1979년현재 11만 8천여명이 8천개의 문맹퇴치소들에서 공부하고있다.

1979년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약 40만명있었다.

주민들중에는 영국교회파가 많으며 천주교도도 있다.

출판보도; 신문 트란페트(인민국가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자메이카(레이버당기관지), 파블리크 오피니언, 데일리 글리너, 자메이카 데일리 뉴스
방송 자메이카방송, 자메이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6월 1일 조선통일지지자메이카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넓이 2만 7,750km²
인구 500만명(1979년)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46만명)

자연 및 주민

꾸바의 동남쪽에 있는 아이띠섬의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으며 동쪽은 도미니까와 잇닿아있다.

열대해양성기후이다.

한해강수량은 2,000mm를 넘는 곳이 있는가하면 500mm 안되는 곳도 있다.

주민은 흑인 90%, 프랑스혈통의 혼혈인 10%로 구성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흑인비률이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주민의 90%는 크레올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58명, 임기 6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후계자의 지명권과 국회의장 파면권을 가진다. 대통령 쟝 끌로드 듀발리에 (1971년 4월 22일—)

정부 1979년 11월에 개조

정당, 사회단체;공산주의자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이 모체가 된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1968년 12월에 창건,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레네 떼오도르, **국민통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당, 전국로동자련맹, 기독교로조련맹, 로조통일전선, 통일공산주의청년**

아이띠는 에스빠냐, 프랑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804년에 독립하였으며 1806년에는 세계에서 첫 흑인공화국을 세웠다.

1847년부터 1915년까지 거의 70년동안에 반동통치배들간의 권력쟁탈전으로 82차례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56년에 친미독재자 프랑수아 듀발리에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71년 4월에는 그의 아들 쟝 끌로드 듀발리에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듀발리에군사독재정권은 국내에서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법화하고 애국자들을 체포, 학살하였으며 다른 나라로 내쫓았다.

듀발리에독재정권이 통치하여온 20여년동안에 수만명의 애국자들이 학살되였으며 인구의 약 5분의 1이 아이띠를 떠났다.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에 파쑈악법《출판법》을 조작하였는데 이 법에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을 비평하는 기자는 3년까지의 감금형을 받거나 1천딸라의 벌금을, 최고재판소 성원이나 정부고관들을 비난했을때는 12달동안의 감금형과 200딸라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여 있다.

아이띠인민들과 애국자들은 친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공산주의자통일당은 모든 애국적인 반독재력량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이상이 농사를 하고있다.

주민의 1%밖에 안되는 지주들과 미제독점회사들이 부침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바나나, 사이잘삼, 사탕수수 등이다.

공업에서는 보크사이트, 동을 캐는 채취공업이 기본이며 세멘트, 방직, 사이잘삼가공, 사탕, 식료 공장들이 있다.

관광업에서 적지않은 외화수입을 얻는다.

1979년현재 이 나라에 있는 230개의 공업기업소들가운데서 150개가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소유이며 나머지 80개는 미국—아이띠의 합영으로 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사탕(수출액의 33%), 사이잘삼, 보크사이트(수출액의 18%), 동, 과일 등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의 대부분과 식량이다. 수출의 절반이상과 수입의 3분의 2를 미국이 독점하고있다.

1979년현재 주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이며 89%의 주민들이 글을 모른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여있으나 농촌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온 《뷰도교》라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마딴, 누보몽뜨, 아이띠 쥬르날, 르 나떼오날

방송 아이띠방송, 아이띠텔레비죤방송

도 미 니 까

(도미니까공화국)

넓이 4만 8,734km²
인구 500만명(1978년 8월)
수도 산또 도밍고(주민 92만명)

자연 및 주민

꾸바의 동남쪽 아이띠섬의 동쪽 3분의 2를 차지하고있으며 서쪽은 아이띠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한해평균기온은 25～27°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주민은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60%, 백인 28%, 흑인 11%로 구성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프랑스어와 영어도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27명, 하원의원 91명, 임기는 각각 4년, 혁명당이 상원에서 13석, 하원에서 48석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4년, 대통령 안또니오 구즈만 페르난데스(1978년 8월 16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44년에 창건되여 1965년까지 인민사회당으로 불러오다가 그후 공산당으로 고침, 1947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1977년 11월 9일에 합법화, 총비서 나르씨쏘 이싸꼰데, **혁명당**(집권당), **개혁당, 《6월 14일혁명운동》, 해방당, 민족화해운동, 민주통합운동, 기독교사회혁명당, 근로자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련맹**

도미니까는 1821년 독립이전까지 에스빠냐,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844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미제가 이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었다.

1965년 4월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후 1974년 5월 선거에 이르기까지 개혁당의 발라게르가 미제의 재정적 뒤받침밑에 세번에 걸쳐 협잡선거를 벌려 대통령을 하였다.

1978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혁명당의 페르난데스가 당선되여 8월 16일 취임하였다.

1979년에 로마법왕(1월), 서독총리(4월)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로동인구의 3분의 2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부침땅의 절반을 450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담배, 벼, 강냉이, 감자, 고구마 등이다.

공업은 사탕공업, 채광공업이 기본을 이루며 약간의 가공공업이 있다.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코아》는 45～48%의 알루미니움의 함유량을 가진 보크사이트를 해마다 100만톤씩이나 략탈해가고있다.

사탕생산량은 120만톤(1975년)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수출총액의 50%이상 차지), 커피, 코코아, 보크사이트,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설비 등이다.

로동인구의 40%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주민의 36%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엘•이•헤14(《6월 14일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 라 따르데

방송 도미니까방송, 도미니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8년에 조선통일지지도미니까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2월에 조선통일지지도미니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 미 니 카

(도미니카련방)

넓이 751km²

인구 8만명(1978년)

수도 로쎄아우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8,38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고 백인은 5%, 인디안은 100명정도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프랑스어도 쓴다.

정 치

국회 총의석 21석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 오릴리어스 마리(1980년 2월—)

정부 1979년 6월 7명으로 구성, 총리 올리버 제임스 세라핀(1979년 6월 21일—)

정당, 사회단체;레이버당, 통일인민당, 자유당, 로동자련맹

도미니카는 1763년 《빠리조약》에 의하여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으며 1783년에는 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67년 3월 1일부터 내부자치가 실시되였으며 1978년 11월 3일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하였다.

독립후 패트릭크 론란드 존을 총리로 하는 반동정부가 수립되였으며 1979년 5월에는 로조활동과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는 《비상법》과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법화하는 《로동법》을 발표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5월 29일 로동자련맹 등 여러 로조들은 정부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여 3주일간 파업을 벌렸다.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파업자들은 국회를 포위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반동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탄압하자 파업자들은 야당과 합세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대통령과 정부각료들, 21명의 국회의원중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사임하였다.

1979년 6월 국회는 제너 아머를 대통령대리로, 세라핀을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총리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1980년 2월 국회는 지방장관이였던 오릴리어스 마리를 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새 정부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까리브공동체성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오렌지, 코코아, 감귤류, 사탕수수, 야자, 포도 등이다.

로동인구의 절반이상이 바나나를 재배하고있다. 해마다 약 6만톤의 바나나를 생산한다.

정부는 묵은땅을 개량하고 관개수리시설들을 건설하는 등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탕, 과즙 등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카 크로니클, 도미니카 헤랄드, 스타

방송 도미니카국영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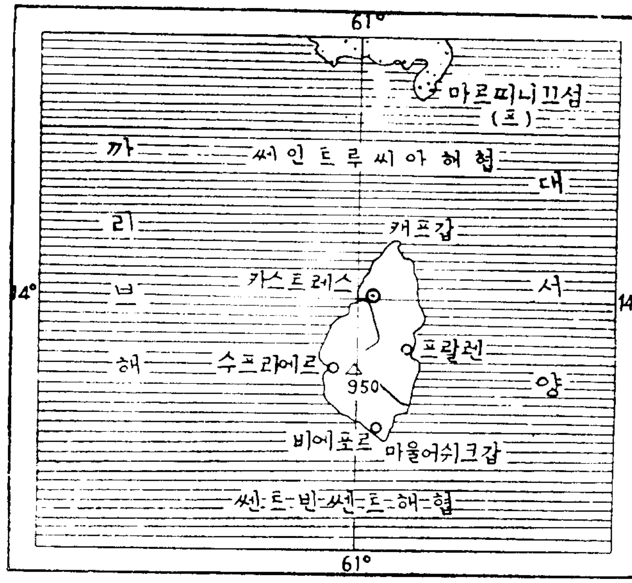
1979년 9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쎄인트 루씨아

넓이 616km²
인구 11만 5,000명(1979년)
수도 카스트레스(주민 4만명, 1979년)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화산이 분출하여 생긴 섬으로서 기복이 심하며 열대림으로 덮여있고 경치가 아름답다.

열대해양성기후이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며 백인은 5%정도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 10명, 정부가 임명하는 의원 3명, 검사총장 등으로 구성, 임기 5년, 1979년 7월 2일 총선거 진행, 레이버당이 12석 차지

총독 알렌 루이스

정부 총리 알란 루이시(1979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통일레이버당, 통일로동당, 로동당, 로동자총련맹**

쎄인트 루씨아는 1763년의 《빠리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관할하에 들어갔으며 19세기초에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67년 3월 1일부터 내부자치가 실시되였으며

1979년 2월 22일 독립하였다.

독립후 통일레이버당정부가 구성되였으나 1979년 7월 2일 총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승리하여 레이버당정부가 구성되였다.

정부는 사회경제개혁강령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고 가공공업과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실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였다.

쎄인트 루씨아는 1979년 8월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5월 22일 미주국가기구에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이 농업이며 절대다수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야자, 포도, 귤 등이다.

이 나라의 주요수출작물이였던 사탕수수는 생산이 점차 떨어져 1964년부터는 바나나생산으로 넘어갔다.

1978년에 바나나 4만 6천여톤, 야자 5천 400여톤, 코코아 90여톤을 생산하였다.

축산업과 수산업도 발전시키고있다.

1978년에 젖소 1만 1천마리, 돼지 1만 8천마리, 양 8천마리, 가금 5만마리였다.

정부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곳에 수산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라시키고있다.

공업적토대가 없고 약간의 경공업만이 있다. 정부는 공업발전계획을 내놓고 제철소들을 비롯한 보다 큰 규모의 공업대상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고 있다.

국가수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관광업은 국가의 장악밑에 진행되고있다.

1979년에 90여개의 인민학교와 4개의 중학교, 5개의 병원이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9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80년 4월 6일 조선통일지지쎄인트 루씨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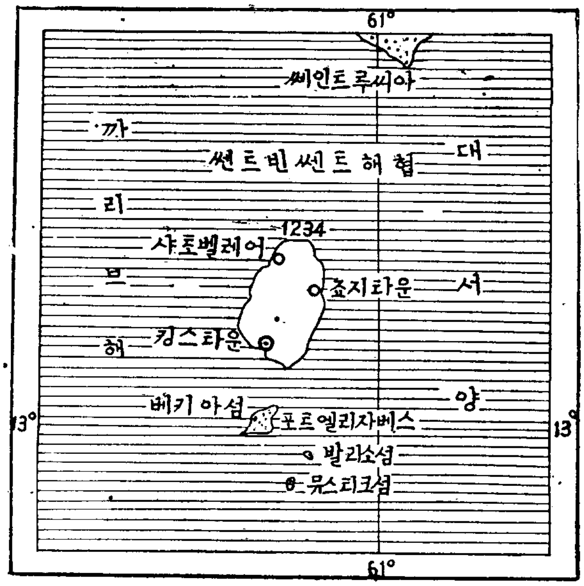
쎈트 빈쎈트

넓이 398km²

인구 10만 6,300명(1979년 10월)

수도 킹스타운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열대해양성기후이다.

1979년 4월과 5월에 화산이 분출하였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총의석 13석, 1979년 12월 5일 선거결과 레이버당 11석, 신민주당 2석 차지

총독 시드니 간—만로(1979년 10월 27일—)

정부 총리 아르. 밀톤 케이토(1979년 10월 27일—)

정당;레이버당(집권당), 신민주당, 인민정치당

쎈트 빈쎈트는 15세기말에 발견된후 수세기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침입을 받았다. 17～18세기에는 약 5번이나 이 나라들의 지배가 바뀌였으며 19세기말에는 영국의 식민지통치밑에 들어갔다.

1969년에 영국의 식민지체계내에서 자치권을 얻었으며 1979년 10월 27일에는 독립을 이룩하였다.

12월 5일 독립후 처음으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독립후 첫 총리로 된 케이토는 쎈트 빈쎈트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까리브해나라들과 세계의 기타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하였다.

이 나라는 까리브해지역경제공동체 성원국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쎈트

빈쎈트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목화, 땅콩, 코코아 등이다.

국민소득의 94%가 농업에서 얻어지고있다.

어업과 농산물가공공업도 한다.

1979년 4월 13일 화산분출로 경지면적의 절반이 화산재로 덮였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바나나 한가지에서만도 약 360만딸라의 외화를 잃었다.

바베이도즈

넓이 431km²
인구 25만명(1976년)
수도 브리지타운 (주민 11만명)

자연 및 주민

소안띨제도의 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열대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낮에 25°C, 밤에 15°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500mm정도이다.

주민구성은 흑인(77%), 혼혈인(18%), 백인(5%)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총독이 임명하는 립법의원(상원)은 21명, 하원은 24명, 임기 5년

총독 국가수반, 총독 디톤 워드

정부 총리 존 마이클 죠프레이 만닝함 아담즈(1976년 9월 3일—)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민주로동당, 국민당, 로동자동맹**

바베이도즈는 1627년부터 영국식민지로 있다가 1966년 11월 28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민주로동당이 3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하여 15년간 정권을 잡고있었으나 1976년 9월의 선거에서 레이버당이 다수표를 얻어 아담즈정권이 수립되였다.

정부는 1979년에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의 해군기지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1979년 6월 니제르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1월 영국총리가 바베이도즈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까리브해공동체의 4대 사탕생산국의 하나이다. 한해에 130만톤의 사탕을 수출한다.

정부는 처녀지및묵은땅 개간사업,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묵은땅들에 파일재배종합기업소 창설 등을 예견한 농업발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공업발전5개년(1978—1982)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8년에 대상건설에 대한 투자액은 760만바베이도즈딸라였다.

1977년 가공공업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2.9% 늘어났으며 1978년현재 9개의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수출품은 사탕, 당밀, 람술이며 기계류, 식량등을 수입한다.

여러개의 보통교육학교들과 서인도대학 문리학부와 바베이도즈자치대학이 있다.

출판보도;신문 비컨(레이버당 및 로조 기관지), 바베이도즈 뉴스, 바베이도즈 옵써버, 트루즈

방송 바베이도즈방송, 까리브해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7년 12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레네이더
(그레네이더공화국)

넓이 345km²
인구 11만명(1979년)
수도 쎄인트 죠지스(주민 2만 8,000명)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의 동남부에 있는 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이며 경치가 아름답다.

주민의 80%가 흑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하는 사투리도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15

명, 1976년 12월 7일 선거 진행

총독 국가수반, 총독 레오 데 게일

정부 1979년 3월 인민혁명정부 구성, 총리 모리스 비쇼프(1979년 3월—)

정당, 사회단체;《뉴쥬얼운동》1973년에 조직, **통일레이버당, 국민당**

그레네이더는 200년간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1967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였으며 1974년 2월 7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1년에 총리로된 게이리는 경찰정보정치를 실시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강화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면서 파쑈정권과만 관계를 맺고있었다.

1973년에 조직된 《뉴쥬얼운동》은 게이리정권의 파쑈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뉴쥬얼운동》지도자 비쇼프는 1979년 3월 13일 게이리가 군사《원조》를 요청하려 미국으로 간 기회를 리용하여 《뉴쥬얼운동》의 무장성원(약 7천명)들로 군대병영을 습격하여 군대를 투항시키고 방송국을 장악하였으며 이전 각료의 대부분을 체포하였다.

1979년 3월 16일에는 14명으로 구성된 림시내각을 발표하였으며 비쇼프가 총리로 되였다.

비쇼프는 림시정부의 주요과업은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며 반동정권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국내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와 민병을 조직하고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인민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세금의 면제, 상품가격의 제정, 남녀평등권의 보장, 민주주의적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그를 민족적리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것을 계획하고 추진시키고있다.

1979년에 그레네이더는 꾸바(4월), 윁남(7월), 잠비아(9월), 쏘련(9월), 알제리(9월), 니까라과(10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농업이 기본이다.

주요농작물은 육두구(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육두구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세계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으나 독립후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 수입원천이 줄었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인디안

방송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5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7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80년 4월 5일 조선통일지지그레네이더위원회가 결성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트리니대드 토바고공화국)

넓이 5,128km²

인구 108만명(1976년)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9만 3,900명)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 남쪽에 있는 트리니대드와 토바고의 두개 섬으로 이루어졌다.

트리니대드섬의 3분의 1은 무성한 열대림이다. 수도 남쪽 96km 떨어진 곳에 질좋은 피치로 가득찬 《피치호》가 있다.

이 나라는 열대성기후에 속하지만 그리 덥지 않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548mm이다.

주민은 흑인 47%, 인도인 36%, 혼혈인 16% 그밖에 백인, 중국계인으로 구성되였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31명, 임명제, 하원의원 36명, 임기 5년, 1976년 9월 선거결과 인민민족운동 24석, 통일로동전선 10석, 민주민족대회 2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 에리스 클라크(1977년 1월 29일—)

정부 1976년 9월 22일 구성, 총리 에리크 윌리암즈(1962년—)

정당, 사회단체;인민민족운동(집권당), **통일로동전선, 민주민족대회, 민주로동당, 자유당, 인민민주당, 로동대회, 원유로동자로조**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에스빠냐, 영국 등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89년에 영국의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76년 8월 1일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76년 9월 13일 새 헌법에 의한 첫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인민민족운동정부가 구성되여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종속적관계를 끊기로 하였으며 9월 24일을 공화국절(국경절)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영국독점회사 《쉘》을 비롯한 외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국영회사들을 창설하였다.

이 나라는 까리브해지역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공업, 피치생산이다.

원유는 주로 바다밑유전을 중심으로 채취되고있는데 1977년에 원유생산량은 8천 360만바렐이였다. 해마다 1억 3천만바렐(수입원유포함)을 정제하여 수출하고있다.

1978년에 국영피치회사를 창설하였으며 피치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있다. 피치는 한해에 13만 6천톤정도 생산한다.

천연가스회사, 세멘트공장, 발전소를 비롯한 중공업기업소들도 있다. 1978년에 전력생산능력은 51만 7천키로와트였다.

1979년현재 발전소(능력 8만 8천키로와트), 신발공장 (하루 250켤레의 구두), 코코아가공공장(년 270여톤)이 건설되였으며 비료공장(년 65만톤), 철강종합기업소(년 45만~50만톤)를 건설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수출작물만 심던 낡은 농업구조를 마스고 알곡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1977년에 발벼면적은 2만 4천에이커였다.

1978회계년도에는 관개시설에 1억트리니대드 토바고딸라를 돌리였다.

주요농작물은 벼, 콩, 강냉이, 감자,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그 제품(수출총액의 80%) 피치, 목재 등이다.

이 나라에는 470개의 초등학교, 100여개의 중학교, 5개의 교원양성소, 1개의 대학이 있다.

보건부문에는 3천여명의 의료일군들과 16개의 병원, 진료소들이 있다.

주민구성에 따라 각이한 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이브닝 뉴스, 가디언, 엑스 쁘레쓰

방송 트리니대드방송, 트리니대드 토바고텔레비존방송

꼴 롬 비 아

(꼴롬비아공화국)

넓이 113만 8,914km²

인구 2,589만명(1977년 2월)

수도 보고따(주민 330만명, 교외인구포함, 1977년)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북서부에 자리잡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꽈도르, 뻬루, 빠나마와 잇닿아있다. 북서부의 산악지대에 5,000m이상의 활화산과 사화산이 있다. 위도상으로는 열대권내에 들어있으나 해발 1,500m이하는 열대, 2,500m까지는 아열대, 3,000m까지는 온대이다.

한해평균기온은 열대, 아열대지역에서 22~23°C, 온대지역에서 16~22°C이다.

한해강수량은 태평양기슭과 아마존강류역에서 3,000mm, 산지대에서 10,000mm, 북동부에서 150~200mm이다. 3개월을 주기로 장마철과 가물철이 반복된다.

주민의 68%는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며 백인 (20%), 인디안(7%), 흑인(5%) 등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 118석, 임기 4년, 하원 210석, 임기 2년, 1978년 2월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4년, 대통령 훌리오 쎄싸르 뚜르바이 (1978년 8월 7일—)

정부 1978년 8월 7일 자유당과 보수당의 련립정부 구성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30년 7월 17일 창건,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부터 합법화,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자유당**(집권당), **보수당**(집권당), **인민자유혁명운동, 전국인민동맹, 기독교민주당, 로조련맹, 근로자동맹, 전국농업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민주녀성동맹, 자유청년련맹**

꼴롬비아는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왔다. 이 나라 인민들은 1810년 7월 20일(독립기념일)폭동을 일으켰으며 1819년 8월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보수당과 자유당간의 정권쟁탈전으로 여러차례의 내란을 겪었다. 1956년 3월에는《반공법》을 채택하고 파쑈독재를 강화하였다.

1974년 4월과 1978년 2월, 6월의 국회 및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하였다. 1978년 8월 7일 자유당출신의 훌리오 쎄싸르 뚜르바이가 대통령으로 되고 자유당 7명, 보수당 5명, 군인 1명으로 되는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다. 1979년에만도 5천여명의 애국자들이 체포고문당하였다.

콜롬비아인민들은 1948년부터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고있는데 1970년부터 넓은 지역에서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독재정권에 타격을 주고있다. 1979년 8월현재 약 2천명의 무장성원들이 활동하고있다.

1979년에 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민주전선을 조직하여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투쟁할것과 1980년 지방참사회선거와 국회선거, 1982년 총선거에서 공동립후보들을 내세우기로 하였다.

1979년 6월에 대통령이 메히꼬,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1979년 1월에 이라크, 윁남, 알제리, 마로끄, 나이제리아, 12월에 알바니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과 채굴업이다. 주민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강냉이, 벼, 밀, 감자, 코코아, 담배 등이다.

세계적인 커피 생산 및 수출국이다. 커피생산(한해에 약 60만톤)에서 브라질다음이며 그 품질에 있어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원유생산이다. 원유생산량은 5천 340만바렐(1976년)이다. 원유회사들의 주권의 절반은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금, 보크사이트, 석탄, 철, 취옥 등이다.

석탄매장량은 180억톤(추정)으로서 남미에서 가장 많다. 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수출총액의 50%이상), 바나나, 원유와 그 가공품, 목화, 사탕, 축산물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공업원자재, 식량 등이다.

인구의 40%이상이 글을 모르며 실업률은 약 10%이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엘 엑쓰뻭따도르(자유당계), 디아리오 오피씨알(정부기관지), 엘 씨글로(보수당계), 엘 띠엠뽀(자유당계), 라 레뿌블리까(보수당계), 엘 솔, 엘 보고따노

방송 콜롬비아국립방송, 콜롬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콜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가, 1976년 5월 13일 조선통일지지콜롬비아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9년 4월 조선통일지지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인 콜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6월 자유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3월에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월 23일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콜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콜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해 3월에 있은 자유청년련맹 제3차 전국대회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1979년에 이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넓이 91만 2,050km²
인구 1,312만 2,000명(1978년 1월)
수도 까라까스(주민 30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 가이아나, 브라질, 콜롬비아와 잇닿아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안헬폭포(높이 1,054m)가 있다.

한해평균기온은 25~29°C이다. 한해강수량은 북부지방에서 2,000~3,000mm, 중부지방에서 1,000mm정도이다.

주민의 65%는 혼혈인이며 백인(20%), 흑인(8%), 인디안(7%)이 있다. 인구의 약 10%가 외국 이주민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 49석, 하원의석 200석, 임기는 각각 5년, 1978년 12월 선거진행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5년, 대통령 루이스 에레라 깜삔스(1979년 3월 12일—)

정부 1979년 3월 12일 25명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31년 2월 지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루빠가 조직된후 1937년 8월에 창건,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기독교사회당**(집권당), **민주행동당**, **좌익혁명**

운동, 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인민선거운동, 공화민주련맹당, 혁명당, 근로자통일중앙, 로조총련맹, 농민련맹, 근로자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베네수엘라는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7월 5일에 독립하였으며 1930년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32페지)

베네수엘라인민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깔데라정부(1969—1974년)는 1971년 7월 모든 원유회사들의 전체 재산을 리권기간이 만료되는 차례로 보상없이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8월 천연가스의 채취 및 개발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1972년에는 1969년 미제가 강요한 예속적인 《통상조약》(1972년 6월 기한만료)을 폐기하는 등 일련의 반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뻬레스정부(1974—1979년 3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가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내놓고 경제의 《베네수엘라화》를 실시하였다. 1974년 《정부경제강령》에서는 미독점체들에게 장악되여있는 철광 및 야금 기업소들과 외국원유회사들을 국유화할것을 제기하고 1975년 1월에 철광업을, 1976년 1월에는 원유공업을 국유화하였으며 그해 3월에는 원유와 그 제품의 판매를 국가가 장악할데 대한 법령을, 1977년 5월에는 일련의 주들에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깜삔스(1979년 3월 12일 취임)는 《미국은 원유수출국가기구성원국들로부터 많은 량의 원유를 눅은 값으로 제마음대로 받는데 습관되여 왔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가 겪고있는 곤난을 빚어낸 주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하였다.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9년에 도미니카총리 (1월), 빠나마대통령(6월)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원유공업과 광업이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 및 수출국이다.

원유매장량은 180억바렐(1976년)이다. 원유수출은 수출총액의 92%, 외화수입의 65%를 차지한다. 하루평균원유생산량은 235만바렐(1979년)이며 하루평균원유수출량은 200만바렐(1979년)이다. 1979년에 원유생산량은 1억 2천 500만톤이다.

정부는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의 원유회사들을 국유화한데 이어 이미 있는 원유산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매장지를 찾아낼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1978년에 술리아주를 포함한 6개주의 4만평방키로메터이상에 달하는 지역에서 원유탐사사업이 진행되였다.

원유와 철광석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자금은 국가예산의 58%를 차지한다.

오리노꼬강남부에 약 25억톤의 철광석 매장지가 있다. 1975년의 철광석생산량은 2천 410만톤이였으며 1980년까지에는 해마다 3천 200만톤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1978년에 술리아주의 뻬리하산악지대에서 동(100만톤이상), 따치라주에서 석탄(800만톤), 린광(1천 500만톤)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제강, 방직, 합성수지, 유리, 원유화학 공업이 있으나 아직 미약하다. 공업기업소들의 대부분은 새로 건설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다. 국가가 15억 볼리바르를 투자하여 건설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수는 1979년에 3천 600개였다.

수도 까라까스주변에 206만 5천키로와트시의 수력발전소건설(1979년)이 끝났으며 이 지역의 건설이 완공되면 총 9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주민의 4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1977년 5월 법령에 의해 일부 주들에서 몰수한 지주들의 토지 26만 7천헥타르는 농민공동체들에 넘어갔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1978년에 동부지역에서는 크고작은 저수지 87개를 건설하고 90여개의 우물을 파서 35만헥타르의 땅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으며 우나레강류역에 1천 600헥타르의 땅을 적실수 있는 4개의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목화, 사탕수수, 벼, 강냉이, 수수 등이다.

1978년에 총 170만톤의 벼, 강냉이, 수수를 생산하였다. 1978—1979년도에 커피생산량은 5만 7천 500톤이며 1978년에 바나나수출량은 2천톤이였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그 가공제품, 철광석, 커피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공업제품 등이다.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취하고있으나 경제는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예속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9년 3월에 대외빚은 255억딸라였다.

미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00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교육분야에서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 38만 7천 3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는 학교들이 건설되였다. 1979년 1월현재 초등 및 중등학교학생수는 1973년에 비하여 131만 5천명이나 늘어났다. 1천 420개(1978년)의 문맹퇴치소에서 많은 성인들이 공부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엘 나씨오날, 엘 문도,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라 따르데

방송 베네수엘라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5월 28일 조선통일지지베네수엘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1월 30일 조선통일지지베네수엘라위원회가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197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가 이 아 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넓이 21만 4,969km²
인구 81만명(1978년)
수도 죠지타운(주민 2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동부에 자리잡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과 잇닿아있다.

날씨는 사철 무덥다. 한해평균기온은 26~28°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의 50%는 인도계인이며 흑인(32%), 혼혈인(10%이상), 원주민인 인디안(2만명정도), 약간의 백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 53명, 임기 5년, 1973년 7월 선거결과 인민민족대회당이 37석, 인민진보당이 14석, 통일력량당이 2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국회에서 선거, 임기 6년, 대통령 아써 총(1970년 3월—)

정부 1973년 7월 22일 구성, 총리 린든 포베스 쌤프손 번함(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인민민족대회당(집권당) 1955년에 창건, 지도자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 **인민진보당, 통일력량당, 가이아나해방자당, 인민민주주의운동당, 인민진보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운동, 로동총평의회, 사회주의녀성혁명운동**

가이아나는 16세기말부터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14년 《런던협약》과 1815년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66년 5월 2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70년 2월 23일 가이아나협동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이아나협동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고있는 생기발랄한 신흥세력나라입니다.》

가이아나는 독립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의 파괴전복음모를 짓부시면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협동적사회주의》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의 기본명맥이 국유화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 협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민족경제의 토대가 다져지고있다.

1977년 8월 인민민족대회당 제2차대회에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 및 국가 규률을 세우며 민족적단결을 위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1979년 8월 제3차대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2년동안의 당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정부는 1978년 7월 국회에 헌법개정권을 주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자의 97%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1978년에 진행될 총선거를 새 헌법작성과 관련하여 15개월 연장하였으며 1979년 10월 다시 1년간 연장하였다.

가이아나는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까리브지역나라들을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파의 단결파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9년 9월에 기네대통령이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1979년 6월 25일 니제르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농업이다. 채취공업의 몫은 국민총생산액의 20%이다.

공업부문에서는 보크사이트채굴 및 그 가공 공업이 기본이다. 보크사이트채취는 세계 제5위이다.

1978년에 450만톤의 보크사이트를, 22만 3천 500톤의 알루미나를 생산하였다.

1979년 6월 약 8천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보크사이트광산이 새로 조업하였는데 이 광산은 1981년에 가서 이 나라 보크사이트생산량의 40%를 담당하게 된다.

보크사이트공업, 림업, 사탕공업, 조선업 등 경제의 주요부문들에는 국영회사들이 조직되여 운영되고있다.

1979년에 경제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협동부문포함)은 80%였다. 보크사이트와 사탕생산은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정부는 수력발전소, 방직공장, 알루미니움공장, 수산물공장 등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을 다그치고있는데 1979년 2월에는 년 23만 6천갈론의 생산능력을 가진 초산공장파 원거리통신소가 건설되여 일을 시작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망간, 금, 금강석, 몰리브덴, 원유 등이다.

령토의 약 5분의 4가 1천여종의 열대나무숲으로 덮여있다. 이러한 자연부원에 기초하여 통나무들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림업종합기업소(한해통나무생산능력 4만여립방메터)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목재가공공업은 국가의 통제밑에 들어갔다.

1978년에 1천 70만가이아나딸라어치의 목재를, 1979년에는 5만 950립방메터의 목재를 수출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사탕생산에만 치우치던 식민지적단작경리를 없애고 농업을 다각화하며 논면적을 늘이고 관개시설을 건설하며 좋은 종자를 심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특히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 벼생산관리국도 내왔다. 1979년 10월현재 농촌에 약 200명의 전문가, 기술자들이 있다. 450만헥타르의 비옥한 땅이 있으나 1979년 현재 약 10%만이 리용되고있다. 협동조합은 1천 400여개이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벼, 귤, 바나나, 커피, 강냉이, 담배, 밀, 콩, 감자, 목화, 코코아, 남새 등이다.

1978년에 벼생산량은 20만 5천톤이며 1985년에 가서는 35만톤을 계획하고있다. 1975년에 강냉이 1천 200만폰드, 감자류 6천 300만폰드를 생산하였다.

축산업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있다. 1971년부터 축산업발전 12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집짐승으로서는 소, 양, 돼지, 염소 등이다. 1979년 2월에 소는 30만마리이상, 양은 20여만마리가 있었다.

수산부문에서는 조선소들이 국유화되고 수산협동조합파 어선대들이 조직되여있다.

1979년에 20여개의 수산협동조합파 많은 어선대, 1천 300여척의 작은 고기배, 5개의 수산물가공공장이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니움, 사탕, 목재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연료, 식량 등이다. 1976년에 수출총액에서 보크사이트와 사탕이 각각 34%를 차지하였다.

교육기관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고있다. 1977년에 518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22만명이였다. 가이아나대학(종합대학)파 협동조합대학이 있다.

인도인들은 힌두교와 회교를, 백인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뉴 네이슌(인민민족대회당기관지), 선더(인민진보당기관지), 썬(통일력량당기관지), 가이아나 크로니클, 데일리 크로니클, 그라피크, 이브닝 포스트, 미러, 썬데이 크로니클

방송 가이아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5월 6일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가, 1977년 7월 20일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4월 무역협정파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1978년 4월 27일 경제및과학기술,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수산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7년에 아써 충대통령이, 1978년에 번함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4월 12일 가이아나에 있는 인민책방일군들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이해 7월 17일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뉴 암스테르담지부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이아나총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979년 6월 28일

가이아나에서 있었다.

1979년에 가이아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2월 수도에서 인민민족대회당, 사회주의청년운동, 사회주의녀성혁명운동 등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많은 근로자들의 참가하에 1979년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5월 수도에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있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0월 로동총평의회 제26차년차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인민민족대회당, 사회주의청년운동, 사회주의녀성혁명운동,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대표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들의 참가하에 10월 죠지타운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인민탄압책동을 규탄하는 군중집회가 있었으며 11월에 남조선에서 《유신헌법》을 비롯한 온갖 반인민적악법들의 즉시철페를 요구하여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와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가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이해에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과 분렬, 파쑈와 독재를 반대하는 가이아나일반로조의 성명,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의 성명, 남조선에서의 이른바 《대통령선거》를 규탄하는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뉴암스테르담지부의 성명 등이 있었다.

1979년 4월 9일 수도 죠지타운시청에서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있었다.

1979년 8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가이아나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서기장인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서기장(5월), 가이아나인민민족대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며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보건, 주택및 로동부장(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 리 남

(수리남공화국)

넓이 16만 3,265km²
인구 44만명(1976년)
수도 파라마리보(주민 15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동부에 자리잡고 가이아나, 브라질, 기아나와 잇닿아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무덥고 습기가 많다.

한해평균기온(수도)은 26~28°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300mm이다.

주민은 흑인(42%), 인도인(35%), 인도네시아인(17%)이며 그밖에 백인, 인디안들도 있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며 주민들은 각기 자기 민족어를 쓰기도 한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 39명, 임기 4년, 1977년 10월 31일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 수반, 대통령 요한 페리에르

정부 1980년 3월 13명으로 구성, 총리 헨크 친아쎈 (1980년 3월 14일—)

정당, 사회단체;통일민주당, 수리남국민당, 인도네시아롱일농민당, 국민진보당, 수리남인민당, 민주공화당, 진보로동자조직, 광업로동자동맹

수리남은 1667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으며 1816년부터 화란령가이아나로 불리여오다가 1948년에 나라이름을 수리남으로 고쳤다.

수리남은 1954년에 자치권을 쟁취하였으며 1975년 11월 19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수리남공화국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11월 25일 독립하였다.

독립후 집권하여온 헨크 아론정부는 1980년 2월 25일 군사정변으로 전복되였으며 3월 14일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였다.

수리남은 1979년 9월에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79년 5월에 빠나마와 꾸바, 10월에 스위스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0%가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감자, 남새,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이다.

공업에서 보크사이트채굴과 그 가공공업 그리고 금채취가 큰 몫을 차지한다.

한해에 약 600만톤의 보크사이트를 생산하며 300만톤의 보크사이트와 그 가공제품을 수출한다.

가공공업은 소규모의 알루미니움가공공장, 목재및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니움, 사탕, 커피, 목재 등이며 식량, 기계,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실업률은 15%정도이다.

출판보도;신문 데 와레 티즈드, 데 웨스트, 수리남

방송 수리남방송, 수리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8년 1월 30일 수리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2월 27일 수리남조선친선협회와 수리남민주공화당이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제안과 조치들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5월 수리남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80년 1월 28일 수리남조선친선협회를 수리남조선친선및련대성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에 과 도 르

(에과도르공화국)

넓이 28만 3,561km²
인구 754만 3,000명(1978년)
수도 끼또(주민 65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북부, 적도상에 자리잡고있으며 꼴롬비아, 뻬루와 잇닿아있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5°C(고원지대 13°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50mm(고원지대 1,500mm)이다.

주민의 80%는 혼혈인과 인디안이며 백인(10%), 흑인(5%) 등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69명, 1979년 4월 선거진행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5년,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1979년 8월 10일—)

정부 1979년 8월 10일 구성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6년 5월에 창건된 사회당을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뻬드로 안또니오 싸아드, **《인민력량통일》**당(집권당), **사회혁명당, 보수당, 민주인민동맹**(좌익력량련합), **근로자총련맹, 공산주의청년**

에과도르는 1532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2년 5월 24일에 독립하였다. 1830년에 공화국이 선포된후 1965년까지 정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났으며 대통령이 50여차례나 바뀌고 헌법이 10번이상 고쳐졌다.

1972년 2월 친미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집권하였으며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이 취해졌다.

1976년 1월에 창설된 최고지도리사회의 민정이양계획에 따라 1978년 7월 16일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으나 후보자들중 누구도 절대다수의 지지표를 얻지못하여 1979년 4월에 제2차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인민력량통일》당의 립후보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가 당선되여 8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내각을 구성하였다.

1976년 1월이래 나라를 통치하여온 군사정부는 1979년 8월 7일에 사직하였다.

1979년 7월에 대통령이 빠나마를 방문하였다.

에과도르는 1979년 8월에 꾸바, 1980년 1월에 윁남,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6월에 에과도르는 니까라과의 소모사독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정부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여러곳에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있다.

1973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한후 1975년까지 34만 6천헥타르, 1976년에 28만 8천헥타르의 대토지소유자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농민들은 협동조합을 무었으며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았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야자, 감탕이, 밀, 벼, 콩, 나무감자 등이다.

한해에 평균 250여만톤의 바나나, 6만톤의 커피를 생산한다.

세계에서 바나나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1976년에 그 수출액은 1억 4천 300만딸라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 채취및가공 공업이다.

정부는 미제원유독점회사《텍사코 갈프》를 비롯한 외래 원유독점회사들을 장악하고 국영원유회사를 창설하며 원유자원을 개발하고 원유화학기업소들을 건설하고있다.

1979년말 확증된 원유매장량은 16억 4천만바렐이였다. 이해 첫 열달동안에 원유수출에서 얻은 수입은 수출총액(16억 2천만딸라)의 46%를 차지하였다.

원유공업외에 세멘트, 비료, 금속 등 중공업기업소들과 식료가공품, 농산물가공품, 옷, 가죽,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1979년 8월현재 중소규모의 공업기업소수는 2천여개이며 그생산액은 공업총생산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동, 원유, 아연, 철, 석탄, 망간 등이다.

산림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산림면적은 령토의 68%이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목화, 원유이며 수입품은 기계류와 차량, 화학제품, 식량, 공업용원자재, 소비품 등이다.

1979년현재 대외빚은 40억딸라를 넘는다.

주민의 29%가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리꾸리오(보수당기관지), 엘 꼬메르씨오,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엑스쁘레쏘

방송 에꽈도르방송, 에꽈도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2월 7일 에꽈도르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5월 17일 조선통일지지에꽈도르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9년 2월 사회혁명당 정치고문이며 조선통일지지에꽈도르위원회 명예위원장이 1월 23일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빨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이 나라의 **《볼룬따드》**출판사가 197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뻬 루

(뻬루공화국)

넓이 128만 5,216km²

인구 1,700만명(1979년 3월)

수도 리마(주민 430만명, 1977년 11월)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으며 에꽈도르, 꼴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잇닿아있다.

해안지방과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고원이다.

평균기온은 바다가지방에서 22°C, 산지대에서 13°C이다. 북쪽의 일부지역을 내놓고는 비가 적게 내려 물이 매우 귀하다.

주민은 인디안(50%), 혼혈인(39%), 백인(11%)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께추아어이다.

정 치

혁명리사회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나라의 최고지도기관, 대통령과 륙해공군사령관들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 프란씨스꼬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쎄루띠(1975년 8월 30일—)

정부 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의 역할 수행, 총리 뻬드로 리츠떼르 쁘라다(1979년 1월 31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8년 10월 17일 창건된이래 38년동안 지하에서 활동, 1968년 10월부터 합법화, 1979년 11월 제7차대회 진행,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로동자농민학생인민전선, 인민민주주의련맹, 사회혁명당, 맑스-레닌주의사회혁명당, 기독교민주당, 미주혁명인민동맹, 인민당, 기독교인민당, 인민행동당, 근로자총련맹, 농민총련맹**(1979년 3월에 결성), **공산주의청년동맹, 인민녀성동맹**

뻬루는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7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68년 10월 3일 애국적군인들의 정변으로 친미반동정부가 뒤집혀지고 군사정부가 수립되였다.

군사정부는 공장, 광산 등의 국유화와 토지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경제적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1979년 3월 9일 국내공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537가지의 공업제품수입을 금지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1978년 6월에 100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헌회의는 1979년 7월 민간정부를 세우는데 기초로 될 새 헌법을 발표하였다. 새 헌법에는 누구든지 《공직을 빼앗아 가진자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위헌적인 정부들이 체결하는 협정과 계약들은 무효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지난 50년간에 군대가 6번이나 집권한 이 나라에서 군사정변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새 헌법은 1980년 7월에 민간정부가 선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79년 8월 정부는 총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법령에 따라 1980년 5월 18일에 총선거를 진행하며 여기에서는 임기 5년인 대통령과 2명의 부대통령, 60명의 상원의원, 180명의 하원의원을 선거하게 되여있다.

뻬루근로자들은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부당한 해고를 중지시키며 불가인상을 반대하여 1979년 1월 9일부터 72시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렸다.

군사정부는 1979년 1월 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파업을 탄압하였다.

1979년에 뻬루대통령이 아르헨띠나(6월), 브라질(10월)을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서독총리(4월)가 뻬루를 방문하였다.

뻬루정부는 1979년 7월 니까라과민족재건정부를 승인하였으며 8월에 일본과 기술협력협정을 맺었다.

정부는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민족적자주권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채취공업, 수산업, 농업이다.

군사정부가 수립된후 광업과 원유가공공업을 비롯한 경제의 주요부문은 국가가 장악하고있으며 외국회사들에 대한 국가적통제가 강화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동, 은, 비스무트, 연, 원유, 아연, 주석 등이다.

비스무트생산량(1974년에 21만 3천톤)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1976년에 은 1천 244톤, 동 22만 3천톤이 생산되였다.

1979년현재 원유매장량은 40억바렐(추산)이며 하루평균생산량은 20만바렐, 하루수출량은 약 7만 4천바렐이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식료가공, 축산물가공, 목재, 금속, 화학, 방직, 물고기가공, 원유 공업 등이 있다. 가공공업총생산액에서 물고기가공공업(물고기가루, 물고기기름, 통졸임 등), 식료가공공업, 방직공업이 60%이상을 차지한다.

1978년에 1천 200톤의 능력을 가진 유색금속압연공장이 새로 조업하였다.

뻬루는 세계적인 어장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생산및수출국이였다. 1971년까지만도 한해에 1천 5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1, 2위를 다투었으나 해류의 변동으로 1972년부터는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1978년에는 330여만톤밖에 안되였다. 안초비(멸치의 일종)잡이가 기본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자의 45%가 일한다.

정부는 1976년 6월까지의 토지개혁의 첫단계에서 부침땅의 57%를 몰수하여 28만 6천호에 나누어주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벼, 감자, 사탕수수, 목화, 커피 등이다.

축산업부문에서는 농촌주민의 약 20%가 일한다. 집짐승은 소, 양, 돼지, 라마 등이다.

정부는 1978—1980년경제발전계획기간에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 있다.

산림면적은 7천 600만헥타르이며 1978년에 10만 6천헥타르의 땅에 나무를 심어 산림자원을 조성하였다.

주요수출품은 광물류, 물고기류와 그 제품, 원유와 그 제품, 사탕, 커피, 목화, 털 등이며 수입품은 원료와 반제품, 기계설비, 건재 및 화학제품, 식량 등이다. 1976년에 수출총액의 40%는 동, 아연, 은, 철광석이 차지하였다.

1979년 10월현재 대외빚은 100억딸라(추산)이며 이해 8월에 일본으로부터 75억 9천 100만엔의 차관을 들여오기로 하였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글 모르는 사람을 없앨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뻬루에는 1만명(1978년)의 의사가 있는데 그 70%이상이 수도에서 일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안데스통신(대외보도), 뻬루통신(국내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엑스쁘레쏘, 라 쁘렌싸, 라 끄로니까, 울띠마 오라, 엘 꼬메르씨오, 꼬르레오, 라 인두스뜨리아

방송 뻬루국립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12일 우리 나라와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하기로 하였다.

1970년 8월 13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1976년 4월 13일 조선통일지지뻬루위원회, 1979년 9월 8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치끌라요지부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9년 4월 11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넓이 851만 1,965km²
인구 1억 2,000만명(1979년 10월)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89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부에 자리잡고있다.

땅이 크기때문에 열대, 아열대, 온대권에 다 속한다.

한해강수량은 아마존강상류지방에서 3,000mm, 하류지방에서 2,500mm, 브라질고원남부의 해안지대에서 2,000mm이상이다.

주민은 백인 61.7%, 혼혈인 26.5%, 흑인 11%

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66명, 임기 8년, 하원의원 364명, 임기 4년, 1978년 11월 15일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전체 국회의원들과 주의회대표들로 구성되는 선거단이 선출, 임기 6년, 대통령 호아오 바쁘띠스따 피게이레도(1979년 3월 15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2년 3월 25일 창건, 1965년 10월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루이스 까를로스 쁘레스떼스, **국가혁신동맹(집권당), 브라질민주운동, 공업로동자전국련맹, 상업일군전국동맹, 륙운로동자전국련맹, 전국학생동맹**

브라질은 16세기초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822년 9월 7일에 독립하고 1891년에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선포하였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군사정변후 계속 군사정권이 수립되고있다. 1978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를 벌렸으나 정보국장관인 호아오 바쁘띠스따 피게이레도가 당선되여 이전 군사독재통치를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피게이레도는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1979년 6월 27일에 1964년 군사정변후 만들어낸 《국가안전법》위반으로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령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사령에서 정치적리유로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79년에 브라질인민들은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며 생활처지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여러곳에서 시위와 집회, 파업 등을 벌렸다. 8월 14일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는 약 7천명이, 이에 앞서 싼 빠울로에서는 약 5천명이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특히 《제한된 대사》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렸다.

9월에 싼 빠울로에서는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할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으며 12월에는 전국학생동맹이 당국의 비법화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이해 5달동안에만도 약 120만명이 임금을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한 83건의 파업이 있었으며 9월 12일에는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 25만명의 야금로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1979년에 서독총리(4월), 에스빠냐총리(8월), 뻬루대통령(10월)이 브라질을 방문하였다.

1979년 6월에 니까라과소모사독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된 농업—공업국가이다. 인구의 4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민의 2%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80%의 부침땅과 넓은 방목지를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바나나, 강냉이, 벼, 밀, 콩 등이다.

한해에 커피생산량은 100만～160만톤으로서 세계 커피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978—1979년도에 코코아생산량은 29만톤이였다.

1977년에 사탕수수 1억 4천만톤, 1978년에 콩 980만톤을 생산하였다.

1979년에 브라질에서는 가물과 큰물로 농업생산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농촌경리가 많이 파산당하였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 금속, 화학, 광업 등이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은 주로 광산, 제철, 자동차, 기계, 세멘트 공업 등에 침투하였다.

미국독점자본이 공업의 60%, 광물자원의 80%이상을 장악하고있다.

미국회사들이 브라질에서 짜낸 리윤은 1973년에 1억 9천 840만딸라였는데 1978년에는 5억 8천 60만딸라에 이르렀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망간, 보크사이트, 원유 등이다. 산림자원과 수력자원이 많다.

1978년에 강철생산량은 1천 200만톤이였다.

하루원유생산량은 16만 4천바렐이며 매일 약 100만바렐의 원유를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공업제품, 커피, 콩, 철광석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이다.

1978년에 대외빚은 420억딸라였으며 1979년 9달동안에 국제수지적자는 63억딸라였다.

1979년 10달동안에 통화팽창률은 57.6%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15년이래 가장 높은것이였다.

1979년 1월에 브라질의 11개 큰 도시들에서 물건값이 5.2% 올랐다.

학교에 못가는 어린이들의 수가 590만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아헨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죠르날 도 브라질, 오 글로보, 오 에스따도 데 싼 빠울로(무소속), 디아리오 데 브라질리아, 디아리오 데 노띠씨아스

방송 브라질문화방송, 브라질전국텔레비죤방송

볼리비아

(볼리비아공화국)

넓이 109만 8,581km²
인구 579만명(1976년)
수도 수끄레(법적수도, 주민 9만명)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70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내륙국이며 브라질, 뻬루, 칠레, 아르헨띠나, 빠라과이와 잇닿아있다.

동부벌방지대는 열대성기후이고 중부의 낮은 지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한해강수량은 북쪽에서 1,300~1,600mm, 남쪽에서 800mm이다.

주민의 60%는 인디안이며 혼혈인(28%), 백인(12%) 등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총의석 144석, 1979년 7월 국회선거에서 민족혁명운동련합(민족혁명운동당을 비롯한 중립계정당들의 련합)이 64석, 인민민주동맹(좌익민족혁명당, 좌익혁명당 등의 련합)이 46석, 민족민주동맹(우익정당들의 련합)이 22석, 공산당은 민족혁명운동련합과 인민민주동맹에 각각 포함되여 9석을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림시대통령 리디아 게일레르(1979년 11월 16일—, 임기 1년)

정부 1979년 11월 20일 19명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50년 1월 17일에 분산되여있던 맑스주의소조들을 련합하여 창건, 1967년 4월부터 1977년 10월까지 비법화, 1979년 4월 제4차대회 진행, 제1비서 호르헤 꼴레 꾸에또(상원의원), **민족혁명운동당, 좌익민족혁명당, 좌익혁명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로동자중앙**

볼리비아는 1532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태평양전쟁(1879—1883)과 그란차꼬전쟁(1932—1935)으로 넓은 지역을 빼앗기고 바다가 없는 나라로 되였다.

독립후 미제의 간섭과 반동지배층내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60여차례나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교체가 190여번이나 있었다.

1979년에만도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였으며 5번에 걸쳐 내각이 개조되였다.

1978년 11월 24일 군사정변으로 빠딜라가 정권을 잡고있었다.

1979년 7월 1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으나 후보자들중 누구도 압도적과반수를 얻지못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였다.

국회는 7번에 걸쳐 투표하였으나 후보자들중 누구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필요한 73표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회는 8월 6일에 상원의장 왈떼르 게바라 아르제를 1년임기의 림시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1월 1일 륙군대좌 알베르또 나뚜스츠 부스츠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게바라정부를 전복하고 군사독재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한편 그는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한 나뚜스츠의 군사정변은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정당들과 로조들은 나뚜스츠를 《모험가, 반역자, 파쑈분자》라고 규탄하면서 나뚜스츠의 군사정권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로동자중앙은 나뚜스츠의 군사정변에 항의하여 11월 1일에 시작한 총파업을 계속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군대내의 다른 파들도 군사정변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나뚜스츠파의 군대들과 그를 반대하는 군인 및 파벌들사이에는 무장충돌이 계속되였으며 정변후 1주일동안에만도 충돌에서 73명이 희생되였다.

군사정변은 주변《동맹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안데스조약》성원국들은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라틴미주의 사회여론은 《민주주의적안정에 잠재적인 위험》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나뚜스츠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집권후 1주일만에 사임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국회는 11월 16일에 상원의장인 리디아 게일레르(녀자, 51살)를 1년임기의 림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게일레르대통령은 11월 19일 국회의 주요세력이며 중간로선을 주장하는 민족혁명운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19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새 정부는 나라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며 1980년 5월초로 예견된 전국적인 선거를 준비할것이라고 하였다.

게일레르정부는 나라의 복잡한 정세와 파벌들사이의 권력투쟁으로 집권초기부터 정치적위기를 겪고있다.

1979년에 볼리비아인민들속에서는 군사독재와 미제의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 파업이 있었다.

1월 19일 수도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파시즘을 반대하는 약 4만명의 근로자들의 시위, 10월 미국이 국제시장을 통하여 볼리비아의 주석생산과 판매에 커다란 손실을 주려는 책동을 반대하는 수도 종합대학 학생들의 반미시위와 집회, 11월 1일 군사정변을 반대하는 총파업이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로동인구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부침땅의 80%이상이 농촌인구의 10%도 안되는 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벼, 사탕수수, 목화, 담배, 귤, 바나나, 파이내플 등이다.

야생고무가 많이 생산되며 그 생산량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주석, 동, 원유, 천연가스 생산이다.

주석과 안티몬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 중석생산량은 세번째이다.

1976년에 주석은 3만 3천 500톤생산되였다. 원유생산량은 하루 평균 3만 5천바렐이다.

가공공업으로는 식료가공, 섬유 공업이다. 그밖에 사탕, 제분, 신발, 세멘트, 원유가공 공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주석, 동, 원유, 천연가스, 열대과일 등이며 수입품은 채굴설비, 각종기계, 수송수단, 식량(식량수요의 70%), 먹는기름, 흑색금속제품, 화학제품, 천, 기타 소비품이다.

수출총액에서 주석은 30%, 동은 60%를 차지한다.

1979년 8월에 대외빚은 30억딸라였다.

항시적인 식량난으로 70%의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1979년 1월현재 6살아래 어린이들가운데서 근 44만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있다.

주민의 약 60%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쁘레쎈시아, 엘 디아리오(무소속), 울띠마 오라(무소속)

방송 볼리비아방송, 볼리비아텔레비죤방송

빠 라 과 이

(빠라과이공화국)

넓이 40만 6,752km²

인구 300만명(1979년 8월)

수도 아순씨온(주민 53만 9,000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으며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띠나에 둘러싸여있는 내륙국이다.

동부지역의 3분의 2는 온대에 속하나 기후는 아열대성기후에 가까우며 서부지역은 열대권에 속한다.

한해강수량은 동부지역에서 2,000mm, 서부지역에서 8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계와 원주민의 혼혈인이며 챠꼬족이 약 4만명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며 일반주민들은 뚜삐—과라니어도 널리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30명, 하원의원 60명, 임기 각각 5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5년,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1954년—, 1978년 6선)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위원장 안또니오 마이다나,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민족공화련맹**(꼴로라도당) 집권당, **《민족민주주의화해》련합** 1979년 1월 급진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자유혁명당이 련합하여 결성, **2월혁명당, 근로자총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빠라파이는 1535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 독립하였으며 184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빠라파이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침투가 강화되였으며 친미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되고있다.

1954년에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력량에 대한 테로와 폭압통치를 강화하였다.

친미파쑈도당은 1954년부터 25년동안 《계엄령》을 실시하면서 공산당원들을 포함한 애국자 37만 5천명을 잡아가두고 고문 학살하였다.

빠라파이 공산당과 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월에 야당련합인 《민족민주주의화해》련합이 결성되였다. 이 련합은 계엄령의 해제, 정치범 석방, 총선거 실시, 폭압기구 철폐, 무력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고있다.

9월에는 여러 도시들에서 독재정권의 테로와 탄압을 반대하는 대중적시위가 있었다.

빠라파이는 1979년 2월 일본과 기술협력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는 농목축업과 림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민의 75%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의 75%(1979년)를 1천 500명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콩, 담배, 강냉이, 벼, 밀, 사탕수수, 커피 등이다.

산림면적의 약 20%를 개발하여 가구 및 건축용재를 생산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식료가공, 방직 공업이며 그밖에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는 원유, 채취 공업 등이 있다.

1979년에 공업과 대외무역의 80%, 은행자본의 90%이상을 외래독점자본이 가지고있었다. 특히 원유공업의 100%, 우라니움과 기타 광물의 채취는 미제가 독점하고있다.

전체 공장수의 80%는 규모가 작은 공장들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콩, 고기와 그 가공제품, 담배, 양털, 통나무, 타닌엑스(염료), 식물성기름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 운수수단, 식량, 흑색금속류, 연료, 천, 화학제품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목화가 20%, 콩이 19%, 고기가 12%, 담배가 8%를 차지한다.

1979년에 대외무역에서 적자는 2억딸라에 달하였으며 이해 상반년에 통화팽창률은 60%였다.

1979년에 국민소득의 10%가 인구의 95%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차례졌다. 로동능력을 가진 주민의 30%가 실업자이다.

빠라파이는 사망률, 특히 아동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다. 기아와 질병으로 하여 아이들 1천명당 140명이 죽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아델란떼(공산당기관지), 빠뜨리아(꼴로라도당기관지), 라 리베르따드(자유당계), 라 뜨리부나(중립계), 엘 뿌에블로(2월혁명당기관지), 에이비씨

방송 빠라파이국립방송, 빠라파이텔레비존방송

칠　　레

(칠레공화국)

넓이 75만 6,945km²
인구 1,066만명(1977년)
수도 싼띠아고(주민 38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남쪽 태평양기슭에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한해평균기온은 북부지역에서 19°C, 중부지역에서 15°C, 남부지역에서 6°C이다.

한해강수량은 중부지역에서 340mm,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2,000～3,000mm이다.

주민은 혼혈인 66%, 백인 25%, 인디안 5%로 구성되여 있다. 그밖에 이딸리아, 영국, 독일 등 구라파계통의 이주민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군사위원회 1973년 9월 륙해공군, 경찰 사령관들로 구성, 행정, 립법권 행사, 위원장 아우구스또 삐노체뜨 우가르떼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1974년 12월 17일 군사위원회는 삐노체뜨를 대통령으로 임명

국가평의회 국가정치전반에 관한 자문기관, 1976년 7월 1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계대표 16명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1973년 9월부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 금지,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사회당, 사회민주당, 급진당, 인민통일련합, 좌익혁명운동, 기독교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민족당, 인민사회동맹,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칠레는 1541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 9월 18일 독립하였으며 1818년에는 공화국으로 되였다.

1973년 9월 11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륙군사령관 삐노체뜨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공산당, 사회당을 망라한 인민통일정부를 뒤집어엎고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였다.

정권을 가로챈 군사파쑈도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놈들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각종 악법들과 탄압기구들을 만들어 좌익력량과 수많은 인민들을 고문 학살하고있다.

군사정권집권기간 약 4만명이상의 인민들이 죽었거나 집단수용소에서 고문당하였으며 6천여명의 칠레인민들이 감옥과 비밀수용소에 갇혀있다.

1979년현재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인민들의 수는 2천 500명이나 된다.

군사정부는 1979년 3월 8일에 5년이상 실시하여온 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하였다. 또한 이

해에 프랑스와 서부독일로부터 땅크, 포, 반땅크로케트탄을 끌어들였으며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태평양의 칠레연해에서 미제와 함께 해군군사연습을 하였다.

1979년에도 칠레인민들은 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수백명의 인민들은 《군사정권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밑에 진보적인 력량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빈궁과 기아를 끝장내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행방불명된 2천 500명의 칠레인들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세계진보적력량은 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을 규탄하였으며 칠레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칠레는 1979년 5월에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는 광업이 기본이다. 동은 한해에 100만톤정도 생산되며 이것은 국민소득의 4분의 1, 수출총액의 80%이다.

이 나라의 특산물인 초석은 세계생산량의 95%, 요드는 90%이며 그밖에 철광석, 석탄, 원유, 기타 희유금속들이 난다.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밀은 한해에 100만톤정도 생산된다.

삐노체트정권은 인민통일정부가 3년동안에 해놓은 진보적인 경제개혁의 성과들을 짓밟고 《자유경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놈들은 국유화된 480개의 공장, 기업소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에게 돌려주었으며 900만헥타르이상의 토지를 대토지소유자들에게 되넘겨주었다.

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경제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1978년에 경영난으로 365개의 기업소들이 문을 닫았으며 농업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20%나 줄었다. 1979년현재 공업과 농업 생산은 1970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1979년에 외국에 진 빚은 10억딸라이며 군사정변후 1979년까지에는 67억딸라이다.

200여만명의 주민들이 기아와 빈궁속에 시달리고있다. 1979년현재 450만명의 로동인구중 10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이고있다.

1979년에 통화팽창률은 약 40%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1973년 9월이후 일체 진보적출판물의 발행이 금지되였다.

신문 우니다드 안떠파씨스따(지하에서 발간), 라 리베라씨온(민주주의항쟁운동기관지—지하에서 발간)

방송 칠레방송, 칠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1일 우리 나라 정부와 칠레인민통일정부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 11일 군사정변후 우리 나라 외교부는 칠레에서 파쑈적인 반동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우리 나라 정부가 9월 18일부터 칠레와의 국가적관계를 중단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넓이 277만 6,889km²
인구 2,700만명(1976년)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89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남쪽에 자리잡고있다. 칠레와 잇닿아있는 서쪽의 안데스산줄기를 제외한 전체지역은 고원과 벌이다.

동북부의 열대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지역이 온대성기후이다.

1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8°C, 남부에서 10°C이며 7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0°C, 남부에서 2°C이다.

한해강수량은 북동부 바다가지역에서 1,600mm, 서부와 남부에서 100~300mm이다.

주민의 97%가 구라파이주민들의 후손인 백인(크레올)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36만명(1970년)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군사위원회 1976년 3월 3군사령관들로 구성된 최고권력기관, 대통령을 임명 혹은 해임하며 군대의 고위지휘성원, 최고재판소, 중요국가기관 성원들을 임명, 위원장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1976년 3월 24일—, 총사령관 겸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대통령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1976년 3월 29일—)

정부 1976년 3월 29일 군인 6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1976년 3월에 발표된 《국가재조직령》에 의하여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 금지, **공산당** 1918년에 사회당좌파가 조직한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헤르니모 아르네도 알바레스, **근로자혁명당** 총비서 루이스 마떠니, **정의운동**(뻬론당), **사회당**,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인민급진공민동맹**, **진보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로동총련맹**, **로조행동통일및조절운동**, **공산주의청년동맹**

아르헨떠나는 1516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816년 7월 9일 독립하였으며 1826년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73년 10월에 대통령으로 된 뻬론이 1974년 7월에 죽고 부대통령이였던 그의 부인 마리아 이싸벨 마르떠네스 데 뻬론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6년 3월 24일 뻬론정권이 전복되고 3군사령관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하고있다.

군사정권의 탄압에 의하여 1979년현재 행방불명된 사람은 1만 5천명이나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감옥에 갇혀있거나 죽었다.

아르헨떠나인민은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아르헨떠나는 1979년 6월에 앙골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 영국과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두 나라는 1963년 포클랜드제도분쟁후 외교관계가 단절되여 있었다.)

아르헨떠나는 비글해협의 령유권문제로 칠레와 분쟁을 벌리고 있다.

1979년 10월에 아르헨떠나대통령이 일본을, 6월에 뻬루대통령이 아르헨떠나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아르헨떠나는 농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가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쁠라따강류역의 기름진 벌을 가지고있으나 대토지소유자들과 외국독점체들이 부침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콩, 보리, 호밀, 귀밀, 감자, 아마, 해바라기, 땅콩, 목화,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부침땅이 많은데 비하여 알곡생산은 낮은 수준에 있다.

1978년에 콩은 250만톤, 1979년에 밀은 800만톤 생산되였다.

집짐승으로는 소, 돼지, 양, 닭을 많이 기른다. 1976년에 양털은 16만톤, 1978년에 소고기는 319만 2천톤 생산되였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농축산물가공제품과 그밖에 강철, 금속제품, 자동차, 원유제품, 소비품 등의 생산이 기본이다.

미제독점체들을 비롯한 외국독점체들이 공업생산의 40%를 차지하고있는데 미제독점자본은 자동차, 야금, 원유 등 기간공업에 침투하였다.

1979년 10월에 일본으로부터 100억엔의 차관을 들여오기로 하였다.

수출품의 75%는 농산물(밀과 밀가루, 강냉이)과 축산물(고기, 양털, 가죽)이다.

기계설비, 수송수단, 강재, 연료, 화학제품, 광물류 등을 수입한다.

정부의 반인민적교육정책으로 루한시종합대학이 문을 닫고 대다수 교육기관들에서의 입학생수는 줄어들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국가예산의 겨우 7%밖에 안된다.

1979년 11월에 문맹자(18세이상)비률은 6.5%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뗄람

신문 누에스뜨라 빨라브라(공산당기관지), 노띠시아스, 끄로니까, 오삐니온, 라 쁘렌싸, 라쏜, 끌라린

방송 아르헨떠나국립방송, 아르헨떠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군사독재정권은 1977년 6월 14일 일방적으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우 루 과 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넓이 17만 7,508km^2
인구 314만명(1976년)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20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남부 대서양기슭에 자리잡고 브라질, 아르헨떠나와 잇닿아있다.

기후는 따뜻하다.

한해평균기온은 17°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1,000～1,500mm이다.

주민의 90%이상이 백인이며 인디안과 혼혈인도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민족리사회 1976년 6월 12일 25명의 민간인들과 22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최고립법기관, 대통령을 선출,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5년, 대통령 아빠리씨오 멘데스(1976년 9월 1일—)

정부 1976년 9월 구성

정당, 사회단체;1973년 6월 27일부터 두 부르죠아정당(꼴로라도당파 블란꼬당)을 제외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 **공산당** 1920년 9월 21일 창건, 1973년 12월 1일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사회당**

우루과이는 1516년부터 뽀르투갈, 에스빠냐 등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4월에 독립하였으며 1830년 11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2년 미제는 이 나라에 《군사협정》을 강요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반동적군부세력은 1973년 6월 보르다베리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실권을 장악하였다.

반동적군부세력은 1976년 6월 12일 보르다베리를 대통령자리에서 내쫓았다. 9월 1일에 취임한 멘데스는 이전 반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실시하면서 폭압기구를 늘여 진보적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독재정권은 국가예산의 약 60%를 인민탄압기구를 강화하는데 돌렸다.

우루과이에서는 40명중 1명이 감옥이나 집단수용소에 갇혀있거나 들어갔다나온 사람들이며 약 70만명이 놈들의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

1979년초에만도 1천 500명이 체포되고 30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 1979년에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의 수는 약 7천명이였다.

우루과이의 각계층주민들은 반동정부의 탄압만행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주요부문이 축산업과 그 제품가공이다. 고기와 양털 생산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띠나 다음이다. 한해에 고기는 약 24만톤, 양털은 7만 5천톤 생산된다.

부침땅의 92%는 목축에 리용되고있는데 그의 절반이상과 집짐승의 80%를 대농목장주들이 차지하고있다.

공업에서는 고기, 양털, 빠터, 치즈, 사탕, 제분 등 축산물과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소고기, 원료가죽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 목화, 강재, 비료, 기계설비, 건재, 알곡, 생활필수품이다.

친미파쑈독재의 후과로 경제형편은 계속 악화되고있다. 1978년에 대외빚은 17억딸라에 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의 사이에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1979년 첫 5달동안에만도 물건값이 27% 올랐으며 뻬소의 가치는 30%나 떨어졌다.

실업자는 로동인구의 13%(1979년 10월)이며 주민의 41%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엔아이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엘 데바떼, 빠이스(블란꼬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

방송 우루과이방송, 우루과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67년 10월에 우루과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벨 리 제

(영국식민지)

넓이 2만 2.965km²

인구 16만명(1979년 11월)

행정중심지 벨모판(주민 4,000명)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메히꼬, 과떼말라와 잇닿아있다.

한해평균기온은 24∼27°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의 75%이상이 흑인과 혼혈인이며 인디안은 17%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에스빠냐어도 쓴다.

벨리제는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62년 5월 영국식민지로 되였으며 1964년 1월 《자치정부》(총리 죠지 프라이스)가 수립되였다.

국방, 외교 등 중요정치적실권은 영국총독이 틀어쥐고있다.

이 나라는 1972년부터 벨리제(이전 영령온두라스)라고 부른다.

1979년 11월 21일선거에서 인민통일당이 승리하여 다시 집권하였다.

정당, 사회단체들로서는 **인민통일당**(집권당), **통일민주당**, **로동자련맹** 등이 있다.

1979년에 조선통일지지벨리제위원회가 결성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림업이다. 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인 이 나라는 질좋은 나무들과 염료용나무 등 다양한 산림자원이 있다.

림업, 농업,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약 4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귤, 벼, 야자, 바나나, 고무 등이다. 한해에 사탕 5만톤, 귤 4만 5천톤을 생산한다.

사탕공장, 과일가공공장 등 작은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사탕(수출의 50%), 귤, 과일즙, 목재 등을 수출하고 식량, 기계류,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 국민학교 이외에 21개의 중학교와 3개의 전문학교가 있다.

출판보도;신문 벨리제 타임스(인민통일당기관지), 아만달라, 더 비컨

방송 벨리제방송

버 무 다

(영국식민지)

넓이 53km²
인구 5만 5,000명(1977년)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1만명)

미국의 뉴욕 동남쪽 1,080키로메터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36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산호섬이며 사람이 사는 섬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습한 열대성기후이다. 3월평균기온은 16.7°C, 8월평균기온은 26.7°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350mm이다.

주민의 62%가 흑인이고 나머지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버무다는 1684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미제는 1940년에 99년간의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이 군도의 3개의 섬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영국총독이 대외관계와 국방, 치안을 틀어쥐고 있다.

임명제의 상원과 선거제의 하원이 있으며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당의 당수가 총리로 된다. 총리는 내정만 본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버무다통일당**(집권당), **진보레이버당**, **민주당**, **산업동맹**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감자, 남새, 바나나, 귤 등이다.

주민들은 관광업, 상업, 보험업을 많이 한다.

꽃과 과일을 수출한다.

이 섬은 선박들의 연료 및 먹는물 공급기지로 리용된다. 주요섬들사이는 다리로 련결되여있다.

출판보도;신문 미드 오우션 뉴스, 로이열 거제트

방송 버무다방송, 버무다텔레비죤방송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넓이 8,897km²
인구 320만명(1976년)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79만 1,500명, 교외인구포함)

까리브해의 대안띨제도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섬과 비에께스섬, 꿀레브라섬, 모나섬들로 이루어졌다.

한해평균기온은 바다가지대에서 27°C, 산간지대에서 20°C이다. 한해강수량은 동북지역에서 5,000mm, 서남지역에서 750mm이다.

주민의 80%가 에스빠냐혈통의 백인이며 그밖에 흑인과 혼혈인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이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7명, 하원의원은 51명이며 임기는 4년, 《자치권》테두리내에서 립법권을 행사, 최고립법권은 미국국회에, 최종재판심의권도 미국최고재판소에 속한다.

지사 집행권을 행사하며 협상리사회를 책임진다. 임기 4년, 지사 까를로스 로메로 바르쎌로(1976년—)

협상리사회 지사가 임명하는 9명의 각료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해산, 1946년에 재건되였으나 현재 비법화, 총비서 프란꿀린 이리자리, **사회당**, **신진보당**(집권당),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인민민주당**, **국가공화당**, **인민당**, **근로자련맹**, **자유근로자련맹**

뿌에르또 리꼬는 1509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부터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미제는 1952년 7월 25일 이 나라에 이른바 미국

의 《자유련합주》로서 《내부자치권》을 주고 식민지 통치를 계속하고있다.

1976년 11월 2일 총선거결과 친미적인 신진보당이 지사를 비롯한 중요한 직책들을 독차지하였다.

미제는 1979년 12월현재 이 나라에 13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인민탄압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비에께스섬을 미해군폭탄투하연습장으로 전변시켰다.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미제의 통치를 반대하고 미군과 군사기지의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0월 수도 싼 후안에서는 미군의 철거를 위하여 싸우다 체포된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의 란폭한 전횡을 규탄하고 정치범들을 당장 석방하며 자유와 독립에 대한 뿌에르또 리꼬인민의 권리를 존중할것을 요구하여 반미시위를 벌렸다.

경제는 수출용 농산물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담배, 바나나, 커피 등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방직, 화학, 식료가공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이 경제의 85%(1979년)를 틀어쥐고 해마다 25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1978년에 미국기업체들의 수는 124개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끌라리다드(사회당기관지), 엘 임빠르씨알, 엘 문도, 싼 후안 스타, 엘 디아

방송 뿌에르또 리꼬방송, 뿌에르또 리꼬텔레비죤방송

앙 길 라

(영국식민지)

넓이 90km²
인구 6,000명

까리브해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에서 동쪽으로 240키로메터 떨어져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며 영어를 쓴다.

앙길라는 서구라파 여러 나라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세기부터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75년 11월 13일 《자치권》을 쟁취하였으나 국방, 대외, 사법, 재정 등 실권은 여전히 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주민들은 사탕수수와 약간의 열대작물을 재배하며 물고기도 잡는다.

앙길라는 사탕과 과즙 및 소금을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버 진

(미국식민지)

넓이 344km²
인구 10만명
행정중심지 샬로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까리브해의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띨제도사이에 있는 4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고 혼혈인과 백인도 있다.

미제는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있던 전략상 중요한 이 섬을 1917년 3월에 2천 500만딸라를 주고 빼앗았다.

경제의 기본은 관광업과 시계, 보석가공, 방직 등의 경공업이다.

주민들은 사탕수수, 남새, 목축업, 물고기잡이도 한다.

버 진

(영국식민지)

넓이 152km²
인구 1만 1,000명
행정중심지 로드타운(주민 3,500명)

미령버진군도의 동북쪽에 있는 36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영국총독이 통치한다.

주민들은 관광업과 물고기잡이를 하며 파일 및 남새를 가꾼다.

안 티 구 아

(영국식민지)

넓이 442km²
인구 7만명
행정중심지 쎈트 죤스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동부에 있는 섬나라이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된 안티구아는 1967년 2월 27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다.
1976년 2월에 진행된 총선거결과 비어 버드를 총리로 하는 새 자치정부가 섰다.
경제의 기본은 관광업과 원유정제업이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일, 담배 등이다.

과 들 루 쁘

(프랑스식민지)

넓이 1,779km²
인구 36만명
행정중심지 바스떼르(주민 1만 8,000명)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북쪽에 있는 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3,000mm이다.
주민의 98%는 흑인과 혼혈인이며 프랑스혈통의 백인(2%)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1816년에 프랑스식민지로, 1946년에는 프랑스의 한개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공산당(1958년에 창건), **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로동총련맹**이 있다.

경제에서 사탕수수재배가 기본이다. 사탕수수농장의 70%이상을 프랑스인들이 거머쥐고있다.
그밖에 바나나, 커피가 난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에뗀쎌(공산당기관지)

마르띠니끄

(프랑스식민지)

넓이 1,102km²
인구 37만명
행정중심지 포르 드 프랑스(주민 약 10만명)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가운데, 도미니카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주민의 98%는 흑인과 혼혈인이며 백인(2%)이 있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전멸되였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마르띠니끄는 163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1946년 3월에는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형식상 《해외령의회》를 두고 통치한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공산당(1957년에 창건), **《공화국을 위한 민주주의자동맹》, 진보당, 통일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이 있다.

사탕수수농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밖에 바나나, 커피, 코코아, 파이내플도 가꾼다.
공업부문에서는 사탕수수가공과 람술제조업이 기본이다.
사탕, 바나나, 람술을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출판보도;신문 르 꽁바, 르 꾸리에, 라 쁘띠뜨 빠뜨리

화란령서인도제도

넓이 961km²
인구 24만명(1976년)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5만명)

베네수엘라의 북부 까리브해에 있는 쿠라싸오, 아루바, 보나이레, 사바, 산 에스타시오 등 6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80%이상은 흑인이다.
공용어는 화란어, 영어이며 에스빠냐어도 쓴다.

이 제도는 1634년에 화란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4년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다.
1977년 6월 민주당, 통일전국인민당, 아루바애국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주요농작물은 귤이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보내오는 원유를 여기에서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판다.

기 아 나

(프랑스식민지)

넓이 9만 1,000km²
인구 6만명(1976년)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3만명)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동부에 자리잡고 브라질, 수리남과 잇닿아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28°C이다.
주민은 인디안, 흑인, 백인(프랑스인의 후손)등

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기아나는 1674년에 프랑스의 속령으로 되였으며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임명한 지사가 실권을 쥐고있다. 지사밑에 15명으로 된 총무회가 있다. 프랑스의 상하량원에서 형식상 각각 1개의 의석을 가진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기아나사회당, 사회당, 인민동맹당, 비식민지화운동, 로조런맹 등이 있다.

보크사이트와 목재 자원이 많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나무감자, 바나나, 파이내플, 코코아, 벼, 강냉이 등이다.

사탕, 람술, 목재가공 공장 등이 약간 있다.

주로 목재, 사탕, 람술, 왕새우를 수출하고 식량, 기계류, 원유제품, 세멘트 등을 수입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라 쁘레스 드 기아나

방송 기아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말빈제도(포클랜드)

(영국식민지)

넓이 1만 2,000km²
인구 1,900명
행정중심지 포트 스탠리(주민 약 1,000명)

말빈제도는 남미대륙의 남쪽끝 마젤란해협 동쪽 480키로메터지점의 바다가운데 있는 2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인이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35년에 아르헨띠나의 소유로 인정되고있던 이 섬에 침입하여 140여년간이나 지배하면서 포클랜드라고 불러왔다. 한편 아르헨띠나는 이 섬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 여기에 자기의 군대 200여명(1976년)을 두고있다.

1976년 9월 유엔비식민지화위원회는 말빈제도를 아르헨띠나에 속하게 하기 위한 협상을 다그칠것을 아르헨띠나와 영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77년 2월부터 두 나라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양기르기와 양털처리부문에서 일한다. 이 제도에는 약 62만마리의 양과 약 1만마리의 소가 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의 《포클랜드제도회사》가 경제의 80%를 장악하고있다.

구 라 파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넓이 2,240만 2,200km²
인구 2억 6,450만명 (1980년 1월)
수도 모스크바 (주민 801만 1,000명, 1979년)

자연 및 주민

쏘련은 구라파대륙의 동부와 아세아대륙의 중부 및 북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12개나라와 잇닿아있다. 세계 륙지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쏘련령토는 60%가 벌이며 20%는 높은벌과 산지, 나머지는 사막, 반사막, 진펄로 되여있다. 쏘련령토의 북부는 한대 (16%), 중부는 온대(80%), 남부의 일부는 아열대(4%)에 속하므로 기온의 지역적차이가 심하다. 2월에 동부의 웨르호얀스크에서 령하 67.8°C까지 내려갈 때 크림반도의 남해안은 령도이상이다. 강수량 역시 지역적차이가 심하다. 서부에서 한해강수량은 500~600mm, 중앙아세아에서는 80mm이다. 1979년 8월에 원동지방에서 강한 태풍이 불었다.

쏘련은 다민족국가로서 로씨야족(53%), 우크라이나족(20%), 백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등 120여개의 민족과 준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어이다.

정 치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량원—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 임기는 각각 5년, 련맹쏘베트는 전련맹적으로 쏘련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민족쏘베트는 각 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금의 최고쏘베트는 제10기로서 1979년 3월에 선거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1977년 6월 16일—, 1979년 4월 재선)

정부 1979년 4월에 구성, 총리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1964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7월 30일 창건, 1976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5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1963년 10월—)

직업동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청년단체위원회, 녀성위원회, 쏘련로병위원회

1917년 11월 7일 로씨야로동계급은 레닌의 지도밑에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새형의 쏘베트국가를 창건하였다. 1922년 12월에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결성하였다.

1925년 12월 쏘련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로선, 1927년 12월 제15차대회에서 농업집단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쏘련은 제1차, 제2차 5개년(1928~1932, 1933~1937)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

1975년까지 쏘련인민은 9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76년부터 제10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9년 3월 4일 쏘련에서는 제10기 최고쏘베트 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1,500명의 대의원들이 선거되였다.

이해 4월 17일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쏘련최고쏘베트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다음날인 4월 18일에는 쏘련최고쏘베트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엘. 이. 브레쥬네브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꼬씌긴을 새 총리로 다시 임명하였으며 19일에는 새 쏘련정부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승인되였다.

1979년 11월 27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80년도 쏘련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과 1980년도 쏘련국가예산과 1978년도 쏘련국가예산 집행에 대하여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28~30일에 열린 최고쏘베트 회의는 1980년도 쏘련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과 1978년도 쏘련국가예산집행에 대하여 토의하고 1980년도 쏘련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쏘련인민검열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들을 채택하였다.

이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오지리수도 윈에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최고쏘베트 상

임위원회 위원장인 엘. 이. 브레쥬네브와 미국대통령 카터사이의 회담끝에 쏘련—미국사이에 제2차공격용전략무기제한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이해에 중앙구라파주둔 쏘련군대축소에 관한 쏘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12월 5일 1,500명의 쏘련군대와 전투기술기재들이 제1차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 사업은 1980년 9월에 끝나게 된다.

이해 10월에 쏘련은 니까라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엘. 이. 브레쥬네브가 벌가리아(1월), 웽그리아(5~6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10월)을 방문하였으며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3월),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3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5월), 유엔사무총장(5월), 인도총리(6월), 수리아대통령(10월), 앙골라대통령(12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세계 공업총생산액의 20%(1979년), 세계 공업제품의 5분의 1을 생산한다. 전력, 원유, 가스, 석탄, 강철, 선철, 세멘트, 화학섬유, 모직천, 모피, 목재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 혹은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망간, 석탄, 원유, 가스, 동, 아연 등이며 산림자원(세계 산림면적의 5분의 1),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최근 아제르바이쟌의 새 원유및가스매장지를 비롯하여 많은 지하자원매장지들이 탐사되였다.

공업은 자체의 연료와 원료에 의거하는 중공업이 70%이상을 차지한다. 그 주요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이다.

1979년에 인민경제에 대한 기본투자액은 전해보다 1% 많은 1,310억루블리였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연료동력기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1979년에 전력은 1조 2,390억키로와트시가 생산되였다. 그중 500억키로와트시는 원자력발전소(1979년현재 10개 있음)에서 생산되였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원유, 석탄, 가스 등이다. 1979년에 원유는 5억 8,600만톤, 가스는 4,070억립방메터 생산되였다. 가스수송관은 13만 키로메터이다.

이해에 쏘련은 1억 4,90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여 세계 첫자리를 계속 유지하였다.

기계제작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동력기계, 운수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정밀기계, 전자및전기기구, 선박, 각종 공장설비 생산이다. 최근 원자력발전설비와 야금, 화학, 석유및가스공업부문에 쓸 종합설비, 기계장치생산들이 현저히 늘어났다. 1979년에 400여종의 각종 자동차 약 220만대와 뜨락또르 약 60만대가 생산되였다. 이해에 또한 계산, 계획, 운전에 필요한 자동화된 장치들 450여가지를 생산하였다.

기계공업은 낡은 구조의 제품생산은 하지않고 새로운 설비와 기구들을 생산하는 원칙이다.

기계제작및금속가공공업에서는 공업총생산액의 26%이상을 생산하고있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비료,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농약, 인조섬유 등이다. 쏘련은 최근 수십년동안 광물질비료생산에서 세계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75년에 9,000만톤을 생산하였다. 1980년에는 그보다 5,300만톤 더 생산할것을 예견하고있다. 화학섬유는 100만톤이상(1979년)생산되였으며 이해에 800가지이상의 화학일용품이 생산되였다.

경공업은 식료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28개부문이 있다. 1929~1978년사이에 1,200여개의 경공업공장이 건설되였다. 식료공업의 주요부문은 제분, 고기가공, 빵, 사탕, 양조, 통졸임, 기름, 물고기가공 등이다.

1979년에 쏘련의 공업제품생산은 3.4% 높아졌으며 공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은 2.4% 장성하였다. 또한 200여개의 대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3,500가지의 새품종제품의 계렬생산이 시작되였다.

공업은 모스크바주변과 레닌그라드, 도네쯔, 우랄지역, 꾸즈네쯔, 백로씨야, 우크라이나 지역들에 집중되여있다. 지금 씨비리지방에 새 공업지구들이 많이 창설되고있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며 공예작물, 축산업, 과수업도 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3분의 1정도이며 그 가운데서 36%는 씨붙임땅이고 나머지는 먹이풀재배지와 방목지이다. 관개된 면적은 1,670만헥타르이다.

1979년말현재 쏘련에는 2만 6,000개의 집단생산경리와 2만개이상의 국영농업기업소가 있었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호밀, 보리, 귀밀, 강냉이 등이며 주요공예작물은 목화, 아마, 삼, 사탕무우, 해바라기, 담배, 차 등이다. 밀, 목화, 감자, 사탕무우생산은 세계에서 제1위이다. 알곡생산은 현5개년계획의 4년간(1976~1979년)에 년평균 2억 9,000만톤에 이르러 1971~1975년간의 평균 알곡생산보다 15% 더 높았다. 이 해에 생목화는 가장 높은 수준인 916만톤 생산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1978년 1월현재 큰뿔난집짐승은 1억 1,250만마리, 돼지는 7,300만마리, 양과 염소는 1억 4,620만마리

있었다.

물고기생산량은 1,045만톤(1976년)으로서 세계 제3위이다.

산림자원은 7억 4,700만헥타르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 해에 200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여 약 1,000만명의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살림집의 약 3분의 1이 농촌주민지들에 건설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쏘련철도망의 길이는 세계철길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전기화된 철도는 4만키로메터이며 전기기관차가 50% 이상된다. 전국적으로 30개의 모든 간선의 전기화 및 내연기관화가 거의 끝나고있다.

해상운수도 발전되여 세계 여섯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무역구조에서 공업시설품의 수출이 큰몫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설비, 원유및원유제품, 철광석, 천연가스, 강재, 목재, 일부농산물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와 설비, 소비품, 농기계, 알곡이다. 쏘련상선대의 배수량은 2,120만톤이 넘는다.

쏘련의 과학은 이 해에 공업과 농촌경리에 1,500가지의 새로운 자료와 기술공정을 넘겨주었다. 또한 우주공간에 대한 연구와 인민경제 및 과학발전의 도움을 위한 위성과 과학기구들을 수십개나 쏴올렸다. 과학자수는 130만명(1978년)이다.

1979년에 9,800만명이 여러가지 교육형태에 망라되였다. 모든 어린이들은 10년제중등교육을 받으며 학생수는 3,900만명이다. 이해에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교육교양에 국가예산의 10%에 달하는 240억루블리를 돌렸다. 전국에는 60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880개의 대학이 있다.

이 해에 주민 한사람당 실질소득은 3% 늘어났으며 3,100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이 올라갔다. 국가는 4,300억루블리 이상되는 이 해의 국민소득가운데서 5분의 4를 인민생활에 돌렸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뻬엔

신문 쁘라우다(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부기관지)

잡지 꼼무니쓰뜨(공산당정치리론잡지)

방송 모스크바방송, 모스크바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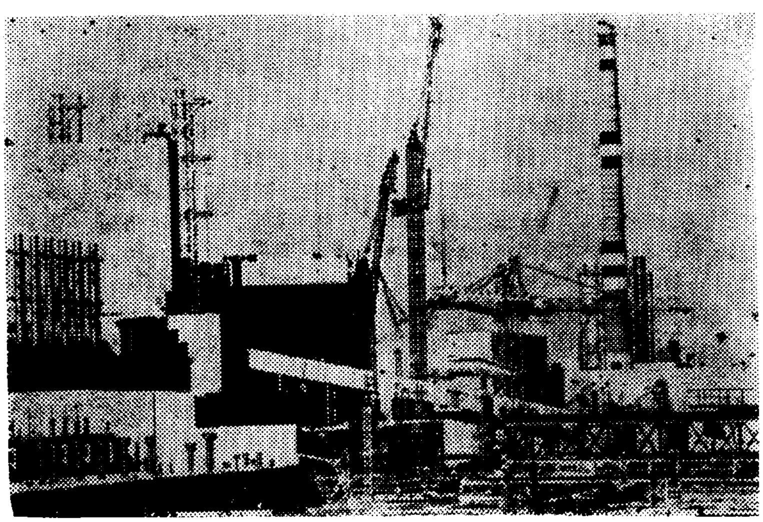
1949년 3월에는 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및항해조약, 1961년 7월에는 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7년 10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1970년 9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58년 7월 6일에는 쏘조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인민의 3.1인민봉기 60돐에 즈음하여 야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 6~7월사이에 있은 조선인민파의 런대성월간에 모스크바, 알마 아따, 울라지보쓰또크, 하바롭쓰크 기타 많은 도시들에서 집회, 모임, 친선야회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모스크바를 비롯한 쏘련의 각지들에서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9년에 조선로동당대표단(6월) 이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쏘련공산당 당일군대표단(9월)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쏘련의 우쓰찌 일림쓰크 팔프공장 건설장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넓이 31만 2,677km²
인구 3,540만명 (1979년말)
수도 와르샤와 (주민 150만명)

자연 및 주민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잇닿아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이다. 령토의 80%이상이 벌이다.

기후는 동구라파대륙성기후와 서

구라파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있으나 대체로 따뜻하다. 한해 평균기온은 7~9°C이며 한해 강수량은 700mm이다. 1979년에 동북부와 중부지방에서 봄눈녹이로 수백년래의 큰물이 났다.

주민의 98%가 뽈스까사람이며 그밖에 백로씨야사람, 우크라이나사람, 체스꼬사람, 슬로벤스꼬사람, 독일사람 등이 있다. 주민의 58%(1979년말)에 해당하는 2,050만명이 도시에서 산다.

공용어는 뽈스까어이다.

정 치

쎄임 최고주권기관, 대의원 460명, 임기 4년, 쎄임은 국가주권의 최고협의기관으로서 국가수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쏘베트를 선거한다. 현 쎄임은 제7기로서 1976년 3월 21일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1972년 3월—)

정부 1980년 2월 내각개조, 총리 에드와르드 바뷰흐(1980년 2월 18일—)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전신은 1918년 12월 16일에 창건된 공산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1942년 1월 4일창건), 사회당과 합하여 통일로동당으로 됨, 1980년 2월 제8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리사회**

뽈스까는 1944년 7월 22일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밑에서 해방되여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섰다.

그후 뽈스까인민은 1945~1947년까지 부르죠아정권을 되살리려던 반동세력을 진압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47년 1월 19일 총선거로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으며 1952년 7월에 헌법이 채택되였다.

뽈스까인민은 6개년(1950~1955년)계획의 성과적수행으로 나라를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다섯차례의 5개년계획을 거쳐 1976년부터 통일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1979년 4월 11일에 열린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지방공업의 사회화된 부분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6월 12일에 열린 전원회의는 농촌경리의 발전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10월 19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8차당대회에서 토의하게 될 테제초안《사회주의뽈스까의 가일층의 번영과 뽈스까인민의 발전을 위하여》를 토의하고 1980년 2월 11일에 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에 열린 쎄임회의들에서는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정부의 총화보고를 토의하고 전반적의무병역법수정안을 승인(6월 28일회의)하였으며 나라의 동력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정부의 계획을 승인(10월 25일회의)하였다. 또한 1980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과 예산안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강령에 대하여 토의(12월 1일회의)하였다.

1979년 11월에 뽈스까는 니까라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에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가 벌가리아(1~2월), 쏘련(3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5월), 프랑스(9월)를 방문하였으며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2월), 인도총리(6월), 프랑스공산당 총비서(12월)가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력청탄), 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선박공업 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석탄채굴이다. 인구 한사람당 석탄채굴량이 세계 제3위(1978년)이다. 주요산지는 상부씰레지아탄전이며 여기에서 이 나라 석탄총생산량의 90%가 생산된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탄광들의 종합적기계화에 힘을 넣고있다. 1979년현재 종합적기계화된 채탄장들에서 생산한 석탄이 70%에 달한다.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화력에 의거하고있다. 전력의 약 70%는 석탄을 리용하여 생산하며 27%는 갈탄, 3%는 수력자원으로 생산한다. 1979년에 《꼬제니쩨》 화력발전소 10호타빈이 조업하였다.

화학공업은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에서 8.9%(1977년)를 차지한다. 화학공업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합성섬유 등의 생산이 위주가 되고있으며 일용화학제품, 석유화학공업, 제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기계공업에서는 선박, 차량, 광산기계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동차, 뜨락또르, 각종 공작기계, 야금설비, 정밀공학기구 등도 생산한다. 1979년에 기계공업은 6% 장성하였으며 전해보다 더많은 건설기계, 가공기계, 뻐스, 화물차를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야금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10%(1977년)를 차지한다. 1980년초에 강철생산의 25%를 담당하는 《까또비쩨》야금종합공장의 제2계단공사가 시작되였다.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방직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방직공업에서는 면천, 모직천, 아마천을 많이 생산하며 식료공업에서는 사

탕, 고기및우유가공과 제분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뽈스까에서는 1979년까지 10년동안 450개의 대규모공업기업소와 수천개의 중소규모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고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였다. 이 기간에 국민소득은 85% 장성하고 공업생산액은 130%로 늘었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며 씨불임땅의 60%에 알곡을 심는다. 부침땅은 약 1천 5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쌀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아마 등이다.

이 나라는 세계 3대감자생산국의 하나이다. 한해에 4천 660만톤(1978년)의 감자를 생산한다. 아마재배면적은 8만헥타르(1978년)이다.

축산업에서는 돼지와 가금을 많이 기르며 젖소, 말, 양도 기른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 해상운수, 강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남부지역에 조밀하게 뻗어있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 철도전기화와 륜전기재현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현 5개년계획(1980년까지)기간에 2,000km의 철도전기화를 완성하며 짐함수송을 3배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1979년에 공업지대인 쒤레지아로부터 시작된 397km의 새철도공사가 끝났다. 뽈스까해운회사는 115척의 짐배로 구성되였는데 1979년에 23척을 새로 보충받았다. 지금 많은 항구들을 개건, 확장하고있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6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아연, 콕스탄, 섬유제품, 기계, 선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공업원료, 알곡 등이다.

각급학교학생수는 800만명이상이다.

농촌들에는 3천 200여개의 치료기관이 있다. 1979년에 보건비지출은 90억 즐로띄에 달했다.

1970년대에 약 900만명의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1979년 건설투자액의 27%가 살림집건설에 돌려졌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신문 뜨리부나 류드(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쁘라찌(직맹기관지), 쉬딴다르 므워디호(사회주의청년련맹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기관지), 쥐쎄 와르샤비, 젠니크 류도븨

잡지 노웨드로기(통일로동당리론잡지), 쥐쎄 빠르띠(통일로동당생활잡지)

방송 뽈스까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에는 무역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72년 10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9년에 뽈스까통일로동당 당일군대표단(2월), 직맹대표단(8월), 사회주의청년련맹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5월), 로동신문사대표단(6～7월),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4～5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10만 8,178km²
인구 1,676만명(1979년 10월)
수도 베를린 (주민 110만 6,260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가운데 자리잡고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련방공화국과 잇닿아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이다.

이 나라는 습윤한 해양성기후에서 온화한 대륙성기후로 넘어가는 지역에 놓여있으며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크다.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0～3°C, 7월에 16～19°C이며 한해강수량은 600～8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며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정 치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434명의 대의원과 66명의 베를린대표들로 구성된다. 인민의원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지금의 인민의원은 1976년 10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1976년 10월—)

정부 1976년 11월 1일 구성, 총리 윌리 슈토프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하여 창건, 1976년 5월 제9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족민주당, 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1949년 10월 7일에 창건되였다.

1946～1949년 기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60년까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였다. 민주

독일인민들은 1976년부터 독일사회통일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1979년 4월에 진행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활동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총화보고와 절박한 국제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또한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들을 찬동하였다.

이해 6월에 진행된 인민의원회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앙골라, 모잠비끄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일련의 법안을 토의하고 채택하였으며 선거법을 수정하였다.

이해 5월 20일 지방주권기관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여 10월 6일 수도에서는 경축회의가 진행되였으며 7일에는 민족인민군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이해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나우루(4월 15일), 니까라과(7월 20일)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현재 128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1979년에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가 1월에 인도, 2월에 리비아, 앙골라, 잠비아, 모잠비끄, 11월에 벌가리아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 5월에 베르데갑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6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위원장, 짐바브웨애국전선 공동위원장(느코모), 10월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갈탄(채굴량에서 세계1위), 카리염, 우라니움, 철, 콕스, 원유 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 갈탄이 기본이다. 갈탄은 동력공업의 연료와 화학공업의 원료로 리용된다. 갈탄은 이 나라 전력생산의 80%를 담당한다.

금속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기계공업에서는 광산및야금설비 등 중기계로부터 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기계들을 생산하고있다. 최근 광학기계와 정밀기계생산이 늘어나고있다.

화학공업에서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생산은 세계에서 손꼽힌다. 이밖에 류산, 염산, 수소탄산소다, 카리비료, 질소비료, 린비료를 비롯한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

경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한다.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섬유공업과 식료공업이다.

농업은 사회총생산액의 10%를 차지하며 농업의 3분의 2는 축산업이다. 농작물의 헥타르당 평균수확고는 3.45톤이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고기와 우유생산이 거의 4배, 닭알생산은 11배 늘었다.

주요농작물은 밀,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등이며 주요집짐승은 돼지, 소, 가금류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현재 상선대는 200척의 큰 짐배로 구성되여있다. 이해에 대외무역은 12% 늘어나 1천 90억마르크에 달하였다.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11%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기계공업설비와 금속공업제품, 화학제품, 경공업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원료, 농산물, 식료품 등이다.

1979년에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 기술혁신운동,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기술혁신운동에는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망라되여 국가에 약 45억마르크나 리득을 주었으며 그 경제적효과성은 1978년에 비해 5% 높아졌다. 이 해에 또한 공업총생산량은 4.8% 늘고 로동생산능률은 4.4% 높아졌다.

1979년에 국민소득은 1978년에 비해 5% 더 많은 1,611억 4,000만 마르크였다.

1978년현재 5,882개의 중등및전문학교에서 253만 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전국에는 1만 2,733개의 국립대중도서관이 있다.

근로자들의 80%가 생산현장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해마다 480만명이 의료일군들의 검진을 받는다.

1971∼1979년사이에 124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거나 새로 꾸려졌으며 이해만도 50만명의 주민들의 주택조건이 개선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 기관지), 쏘씨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트리뷰네(직업동맹기관지), 베를리네르 짜이퉁

잡지 아인 하인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웨크(사회통일당생활잡지)

방송 독일민주주의공화국방송, 베를린 웰레방송, 도이췌 페른 쎄풀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에는 경제및문화협정, 1971년 2월에는 라지오및텔레비죤 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9월에는 서로 법률상 방조를 줄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1978년 10월 9일에는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1월 15일에는 령사협약에 대한 비준서 교환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독일사회통일당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 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0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0돐기념 행사에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6월), 직맹대표단(6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넓이 12만 7,870km²
인구 1,518만 4,000명(1978년말)
수도 쁘라하 (주민 약 120만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의 가운데 자리잡고 쏘련, 웽그리아, 오지리, 서부독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뽈스까와 잇닿은 내륙국이다. 전령토의 약 60%가 해발 300~700m의 낮은 언덕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나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고 겨울은 그리 춥지않다. 한해평균 기온은 9°C이며 한해 강수량은 800mm이다.

주민의 기본은 체스꼬사람(65%)과 슬로벤스꼬사람(29%)이며 그밖에 웽그리아사람, 우크라이나사람, 뽈스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체스꼬어와 슬로벤스꼬어이다.

정 치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의 량원제, 임기 5년, 인민의원 대의원은 전련방적인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수는 200명이다. 민족의원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에서 각각 75명씩 선거하여 150명으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량원합동회의에서 선거, 임기 5년, 대통령 구스따브 후싸끄(1975년 5월—)

련방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 창건, 1948년 6월 28일 사회민주당과 합당, 1976년 4월 제15차대회 진행,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사회당, 인민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1945년 5월 9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뒤집어엎으려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음모를 짓부셔버리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냈다. 2월사변후 정부는 산업, 은행, 상업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60년 7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고쳤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1975년까지 5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6년부터 당 제15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9년 3월 21~22일에 진행된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제15차대회결정집행정형과 농업및식료공업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0~11일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80년도 인민경제발전의 기본과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해에 진행된 련방회의 회의들에서는 정부의 정강실행정형을 토의(4월)하였으며 1978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와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고 찬동(6월)하였다. 또한 1980년도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전기공업부창설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회보장법을 수정및보충(12월)하였다.

10월에 진행된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 량원합동회의에서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해에 구스따브 후싸끄대통령이 뽈스까(2월), 수리아 (5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6월)을 방문하였으며 인도총리(6월),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9월), 오지리대통령(3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 및 농업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90%에 달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갈탄, 력청탄, 철, 망간, 동,

돌소금, 안티몬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제작공업이며 그밖에 흑색금속공업, 연료동력공업, 합성화학공업, 천 및 구두생산이다. 6차5개년(1976~1980)의 첫 4년동안에 기계제작공업과 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생산이 늘어났다. 공업에서 기계제작공업이 거의 30%를 차지하며 기계제작공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의 5분의 1(1977년)을 차지한다. 1979년에 기계제품생산은 1978년에 비해 6.6% 장성하였다. 기계제작공업에서는 여러가지 금속절삭기계, 전기및내연기관차, 자동차, 뜨락또르, 발동기,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연료동력공업에서는 석탄, 갈탄, 력청탄생산이 기본이며 이것은 동력자원의 85~90%를 차지한다. 1979년에 석탄과 갈탄은 1억 2,470만톤(세계제2위) 생산되였다. 현 5개년계획의 첫4년간에 국내원료에 의거한 동력생산은 약 20% 늘어났다. 최근 원자력공업이 발전하고있는데 그 중심지인 야쓸롭쓰께—보구니쩨핵발전소에서의 발전량은 21억키로와트시로서 이 나라 전력총생산의 3.2%에 해당된다.

흑색금속공업도 발전되였으나 원료의 60%는 수입에 의존한다. 1979년에 1,48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화학공업에서는 합성섬유, 가소물, 소다, 류산, 화학비료, 인조고무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전령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만 헥타르가 산림이다. 년간 통나무생산은 1천 750만 립방메터이다.

경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섬유공업과 구두생산이며 그밖에 유리, 도자기, 종이생산과 목재가공업이다. 식료공업에서는 제탕공업과 맥주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총생산액에서 42%가 축산에서 얻어진다.

주요집짐승은 젖소, 말, 돼지, 양, 가금류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42%에 해당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프, 아마 등이다. 1979년에 알곡생산량은 910만톤이며 헥타르당 평균생산량은 3.47톤이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전국의 철도전기화 및 내연기관화가 완성되고있다. 1979년현재 철도총연장길이의 20%가 전기화되였다. 이 나라는 내륙국이지만 해상상선대(13척의 배로 구성)를 가지고있다. 이 상선대는 매해 150만톤의 짐을 나른다. 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70%이상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설비, 유리제품, 사탕, 호프, 경공업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철광석, 유색금속광물, 화학공업원료, 원유제품, 목화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기계및설비가 거의 절반이며 수입총액에서 거의 절반이 원료이다. 대부분의 원료와 에네르기의 수요는 쏘련을 비롯한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의 장기협정에 기초하여 충족한다.

1979년에 인민경제에 대한 투자는 1978년에 비해 1.6% 장성하였으며 국민소득은 2.6~2.8%장성하였다. 이 해에 공업생산은 3.7% 장성하였으며 농업총생산은 3.9% 낮아졌다. 정부는 6차5개년계획기간에 60여개의 큰 인민경제대상과 64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계획하고있다. 현 5개년계획의 4년동안에 살림집은 52만 3천세대 건설되였다.

6만 4,000명의 대학생들이 매해 3억크로나의 장학금을 받는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오르비스》통신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직맹운동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스워보드네슬로보, 리도바 데모크라씨에

잡지 노바 미쓸(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4년 12월 21일에 경제 및 기술협조를 위한 협정을,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9년 7월 27일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26돐에 즈음하여 쁘라하에서 조선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당일군대표단(10월), 체스꼬슬로벤스꼬혁명직맹운동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5월)하였다.

웽 그 리 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넓이 9만 3,030km²

인구 1,071만명(1980년 2월)

수도 부다뻬슈뜨 (주민 208만 3,000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가운데 자리잡고 쏘련,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오지리,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잇닿은 내륙국이다. 령토의 80%가 벌과 낮은 언덕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온대대륙성을 띠며 여름은 길고 무덥고 겨울은 춥다. 한해 평균기온은 10~11°C이며 평균강수량은 서쪽지방에서 800mm, 동쪽지방에서 500mm이다.

주민은 96%이상이 웽그리아사람(마쟈르족)이며

그밖에 슬로벤스꼬사람, 로므니아사람, 독일사람, 유고슬라비아사람 등이 산다.

공용어는 웽그리아어이다.

정 치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352명, 국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의 국가회의는 1975년 7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1967년 3월—)

정부 총리 라자르 죄르지(1975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전신은 1948년 6월 공산당(1918년 11월 20일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1956년 11월에 당의 이름을 사회로동당이라고 고쳤다. 1975년 3월 제11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웽그리아는 1945년 4월 4일 파쑈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9년 8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1946～1949년간에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56년 10월 웽그리아인민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일으킨 반혁명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75년까지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현재 사회로동당 제11차대회가 제시한 제5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9년 3월 28일에 진행된 웽그리아사회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대외활동에 관한 보고, 국내정치생활의 일부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로동당이 대외정치활동에서 군비경쟁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종류의 대량살륙무기생산을 금지시키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6월 28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는 절박한 국제정세문제, 쏘련당 및 정부대표단의 웽그리아방문결과 그리고 1979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토의하였다.

11월 1일에 열린 전원회의는 사회로동당 제12차대회소집과 관련한 정치및조직문제에 대한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의 보고를 청취하고 1980년 3월 24일에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6일에 진행된 전원회의는 1979년도 웽그리아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와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초안 및 국가예산안을 토의하였다.

이해에 진행된 국가회의 회의들에서는 국가재정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채택(6월)하였으며 1972년에 채택된 보건법의 집행정형과 의료적봉사를 더한층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인민검열기관들의 활동을 토의(9월)하였다. 또한 1980년도 웽그리아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12월)을 승인하였다.

1979년 3월 웽그리아는 웽그리아쏘베트공화국창건 60돐을 기념하였다.

이해에 웽그리아는 니까라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3월), 벌가리아(6월)를 방문하였으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레쥬네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당및정부대표단(5～6월), 유엔사무총장(7월), 서독총리(9월), 뽀르뚜갈대통령(3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채굴공업, 금속공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철, 천연가스, 원유, 갈탄, 우라니움 등이다.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26%를 차지한다. 생산되는 중요기계는 공작기계, 광산용기계, 건설및도로용기계, 운수기계 등이다.

화학공업은 공업총생산액에서 16.3%(1978)를 차지한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화학비료와 카바이트생산, 원유가공 및 합성섬유생산이다. 의약품생산이 빨리 늘어나고있다. 지난 25년간에 의약품생산은 100배로 늘어났으며 1979년에 30가지의 의약품을 새로 생산하였다.

채굴공업에서는 석탄과 보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고있다.

1979년에 석탄은 2천 570만톤, 보크사이트는 300만톤, 원유는 200만톤 생산되였다.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화력에 의거하는데 1979년에 245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피복공업, 식료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9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해에 웽그리아에서는 중기계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인민경제대상들을 조업하였다.

정부는 공장, 기업소들에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큰힘을 넣고있다.

웽그리아근로자들은 이 해에도 사회주의경쟁과 절약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히 이 나라 근로자들은 해마다 7만～8만건의 합리화안을 받아들여

국가에 년평균 40억포린트의 리득을 준다.

이해에 국민소득은 1978년에 비해 1.5% 늘어나 5천 500억포린트에 이르렀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약 60%이며 3분의 2는 알곡작물재배지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1978년에 670만톤 생산)와 밀이며 그밖에 보리, 사탕무우, 감자, 해바라기, 담배, 목화, 포도를 비롯한 파일과 남새 등을 재배한다. 축산업에서는 소, 양, 돼지를 많이 기른다.

정부는 현 5개년계획기간에 43～44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계획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에 수도로부터 껠레비아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가 끝났다. 웽그리아에는 현재 1,400km의 철도가 전기화되였다.

대외무역에서는 세계 100개이상의 나라들과 경제적련계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니움, 압연강재, 공작기계, 자동차, 전기기구, 피복제품, 의약품, 식료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 가스, 콕스, 철광석, 목화, 목재 등이다.

1979년에 전해에 비해 보건비지출은 13%, 교육비지출은 8% 각각 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웽그리아통신)

신문 네프싸바드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자르 이휴샤그(공청기관지), 마자르 넴쩨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방송 부다뻬슈뜨 제1방송, 부다뻬슈뜨 제2방송, 웽그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6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9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5돐에 즈음하여 1979년 3월 이 나라에서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 2월 24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웽그리아 텔레비죤방송사이에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해에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3월)하였으며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웽그리아를 방문(6월)하였다.

로 므 니 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넓이 23만 7,500km²
인구 2,213만 5,000명(1979년말)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70만 7,000명, 교외 인구포함, 1977년초)

자연 및 주민

발칸반도의 동북쪽 흑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대륙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10°C, 한해강수량은 600～700mm이다.

부꾸레슈띠동쪽 90키로메터지점 까르빠띠산에서 1977년 3월 4일 지진(7.2메르칼리)이 있었고 브란챠지역에서 1979년 8월 8일 새벽 3시경에 지진(리히터척도로 4)이 있었다.

주민은 대부분이 로므니아사람(88%)이며 웽그리아사람, 독일사람,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로므니아어이다.

정　치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349명, 지금의 대민족회의는 제8기로서 1980년 3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력의 최고사령관, 대통령은 대민족회의 회의에서 선거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겸한다.

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74년 3월—)

정부 총리 일리에 베르데쯔(197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됨,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이름을 다시 공산당으로 고침, 1979년 11월 제12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민주통일전선, 직업총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반파쑈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파쑈독일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1947년 12월 30일 군주제도를 철폐하고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65년 8월 21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로므니아는 토지개혁(1945년 3월), 산업국유화(1948년 6월)를 비롯한 민주개혁을 수행하고

1948년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제1차 5개년(1951~1955)계획과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5개년(1956~1960)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1974년 11월 공산당 제11차대회에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강령을 제시하였으며 1976년부터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에 착수하였다.

1979년 11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로므니아공산당 제1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11차대회로부터 제12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의 로므니아공산당의 활동과 당의 앞으로의 과업에 관한 보고를 찬동하였으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981~1985년계획 및 1990년까지의 전망에 관한 제12차대회 지시문, 과학연구, 기술발전, 기술진보의 도입을 위한 1981~1990년계획 및 2000년까지의 기본방향, 에네르기연구와 개발을 위한 1981—1990년계획 및 2000년까지의 기본방향, 도들의 균형적발전계획 등 대회의 주요문건, 또한 규약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9년 1월 30일에 있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회의는 1978년계획수행에 관한 보고와 1978년 나라의 경제사회발전유일국가계획수행에 관한 공보초안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농업생산협동조합들에 대한 융자보고를 승인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9년 7월에 진행된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1981~1985)계획에 관한 지시문초안과 1990년까지의 로므니아 사회경제발전의 주요방향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1979년 7월 25일에 진행된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연료소비량을 할당하며 자동차대를 잘 리용할데 대한 조치들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정치집행위원회는 자동차대수를 줄이며 자동차대당 휘발유최대소비한계를 낮추고 휘발유가 많이 드는 자동차들을 교체하며 운행거리를 제한하며 국가적및사회적소유에 속한 자동차를 사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대책들을 세웠다.

12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에서는 1980년도 재정계획초안과 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대민족회의가 인민쏘베트 대의원선거에 관한 사회주의통일전선 전국리사회의 제안들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1979년 9월 니까라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해 필리핀과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 쌍무적교류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1월), 카나다와 로므니아에 대한 원자로판매에 융자하기 위한 차관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5월), 뉴질랜드와 무역및경제협조협정(5월), 웰남과 항공운수협정(6월), 중국과 사회과학협조에 관한 협정(11월)을 체결하였으며 물리, 화학, 전자학, 생물학분야에서 쏘련학자들과 로므니아학자들 사이에 과학기술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의정서(9월), 요르단과 쌍무협조의정서(12월)에 조인하였다.

1979년에 로므니아대통령이 벌가리아(2월), 리비아(4월), 가봉(4월), 앙골라(4월), 잠비아(4월), 모잠비끄(4월), 부룬디(4월), 애급(4월), 수단(4월), 에스빠냐(5월), 쏘련(8월), 수리아(8월), 토이기(8월)를 방문하였다. 이해 기네대통령(7월과 10월),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10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11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국민소득의 약 60%는 공업부문에서 창조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돌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이다.

공업에서 주요부문은 원유공업과 천연가스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이며 그밖에 흑색금속, 전력, 목재가공공업 등이 있다.

원유공업에서는 원유채취및정제가 기본이다. 원유생산량은 1979년에 1천 230만톤으로서 구라파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1979년에 271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와 3천 270만톤의 석탄이 생산되였다.

1979년 공업생산에서 화학공업과 기계제작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42.7%였다.

화학공업에서 제일 발전한것은 석유화학공업이다.

그밖에 화학비료, 화학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가소물 공업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1979년에 화학비료생산량은 252만톤이였다.

기계공업에서는 1979년에 생산이 전해에 비하여 11.7% 늘어났다. 특히 공작기계, 계산기 공업에 필요한 기술설비생산이 급속히 늘어났다.

이 부문에서 5개년(1976~1980)계획기간의 첫4년동안에 700개의 생산단위가 조업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의 총생산에서 41%는 새로 혹은 다시 설계하여 만든 제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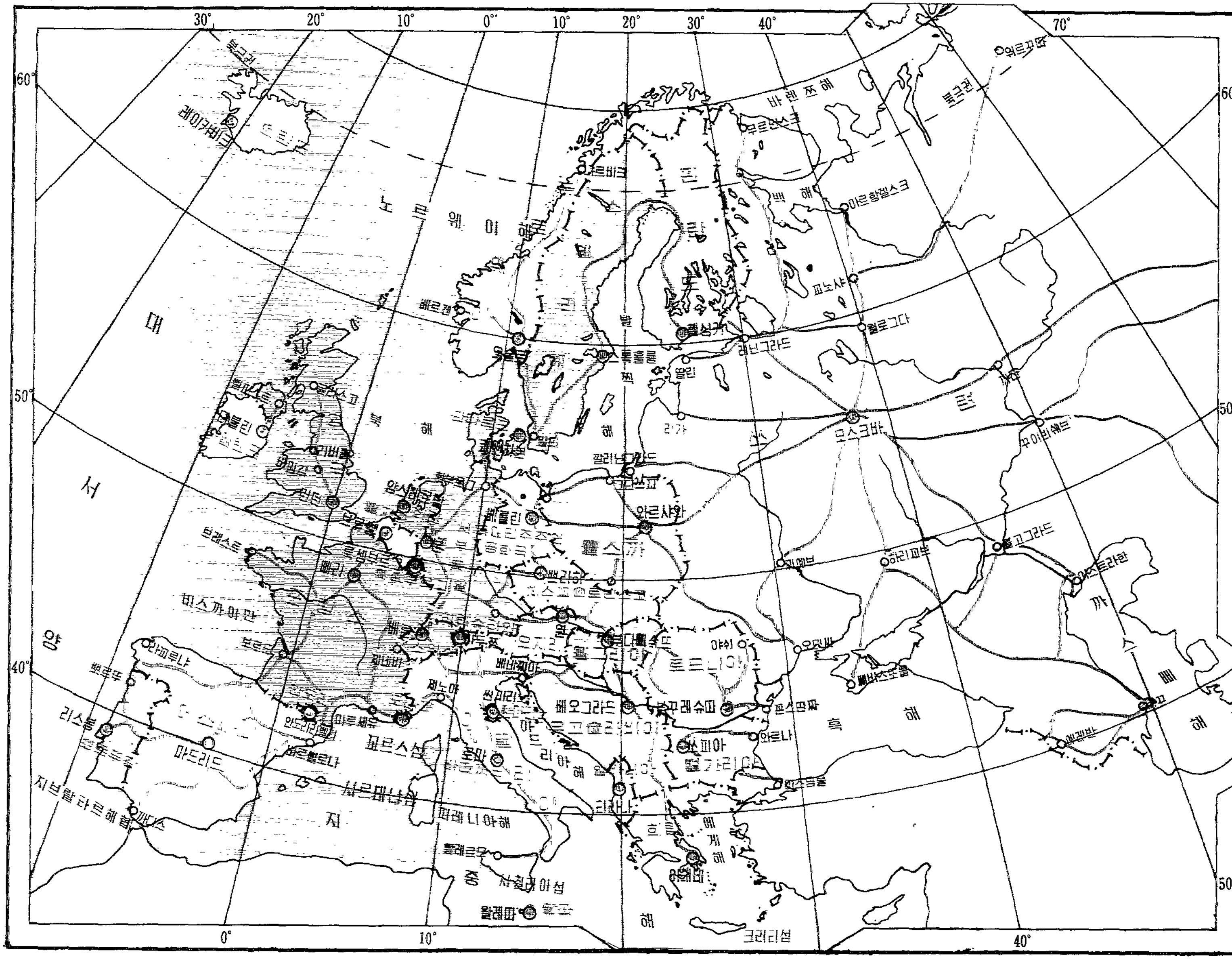
1979년에 강철생산량은 1천 290만톤이였고 6만 2천여대의 뜨락또르, 3만 3천여대의 화물자동차, 6만 7천여대의 승용차를 생산하였다.

1979년 전력생산량은 649억키로와트시였다.

경공업생산액은 공업총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업, 가축및목재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식료공업도 비교적

구 라 파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북극권
백해
북해
대서양
비스까이만
흑해
까스삐해
지중해
아드리아해
에게해
띠레니아해
지브랄타르해협
코르스섬
사르데냐섬
시칠리아섬
크리티섬
레이캬비크
무르만스크
아르항겔스크
볼로그다
레닌그라드
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베르겐
리가
모스크바
꾸이비셰브
깔리닌그라드
와르샤와
베를린
볼가그라드
아스뜨라한
하리꼬브
끼예브
오데싸
세바스또뽈
바꾸
에레반
런던
더블린
리버풀
브레스트
빠리
보르도
마드리드
리스봉
라꼬루냐
까디스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아
로마
베오그라드
부꾸레슈띠
쏘피아
와르나
이스딴불
띠라나
아테네
빨레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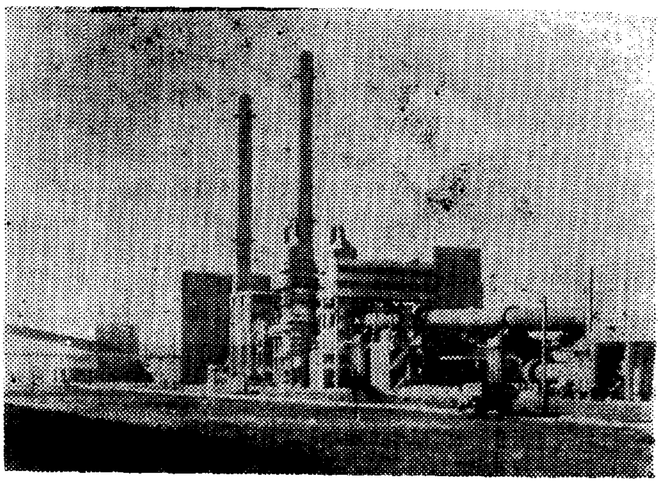
발전하였다.

1979년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약 2천가지의 고성능설비, 기계, 기구를 갱신하였다.

1976년이래 만들어낸 새로운 현대적인 제품은 총생산물의 37.8%를 차지하였다.

1979년 공업총생산액은 1978년보다 8% 장성하였다.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6.4% 높아졌다.

공업부문에서는 기계와 설비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의 75%이상을 자체로 보장하고있다.



알바—율리아에 건설되고있는 내화물공장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을 위주로 한 농산업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63%이며 그 가운데서 70%가 알곡작물재배지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와 밀이며 그밖에 보리,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남새 등이다.

1979년에 알곡생산량은 1천 928만톤이였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강하천운수가 중요하다. 해상운수도 발전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제품, 원유가공설비, 뜨락또르, 차량, 화학제품, 선박, 농기계, 전기기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원료, 반제품, 연료,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이다.

1979년에 대외무역은 1978년에 비하여 19.1% 늘어났다.

8～9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450만명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쁘레쓰

신문 쓰끈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및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공청기관지), 아뻐라레아 빠뜨리에이(인민군기관지)

잡지 룹따 데 클라써(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부꾸레슈띠방송, 부꾸레슈띠중앙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에는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0년 8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1971년 11월에는 민사, 가족및형사사건들에서 법률상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과 령사협약, 1972년 7월에는 보건및의학과학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75년 5월에는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1977년 5월에는 우편및전기통신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4월 3일에는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로므니아를 방문하시였다.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1971년 6월과 1978년 5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1월 23일에 발표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챠우쉐쓰꾸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여왔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부꾸레슈띠시당위원회와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부꾸레슈띠의 쁘뻬라목재가공련합기업소회관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중앙집회가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부꾸레슈띠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기념집회와 군인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9년에 로므니아 《죠르제 에네쓰꾸》교향악단(5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에 우리 나라 정무원총리(9월), 평양시친선대표단(12월), 국립교향악단(5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벌 가 리 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넓이 11만 912km²

인구 882만 5,000명(1977년말)

수도 쏘피아 (주민 105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발칸반도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희랍, 토이기와 잇닿아있으며 동쪽은 흑해에 면해있다. 전령토의 3분의 2가 해발 500m 이하의 낮은 지대이다.

기후는 북부지대는 온화한 대륙성기후를 띠며 남부는 해양성을 띤다. 한해평균기온은 12~13°C 이며 한해 평균강수량은 6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는 벌가리아 사람이다.

공용어는 벌가리아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400명, 지금의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6년 5월에 선거되였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의 최고주권기관은 인민회의가 선거하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쉽꼬브(1971년 7월—)

정부 총리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5월 창건, 전신은 1891년 8월 2일에 창건된 사회민주당, 1976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제11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또도르 쉽꼬브,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위원회**

벌가리아인민은 1944년 9월 9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파쑈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웠으며 1946년 9월 1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벌가리아인민은 토지개혁(1946년 3월), 산업국유화(1947년 12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추진시켰다.

벌가리아인민은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라를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1976년부터 벌가리아인민은 당 제11차대회가 제시한 제7차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9년 1월 9일 쏘피아에서 벌가리아 당, 국가, 경제기관 및 사회단체 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9~1980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수행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979년에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조직의 개선과 농업에 대한 계획적지도문제를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을 채택(3월)하였으며 공화국에서의 교육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테제초안을 토의하고 채택(7월)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로임, 수당금 및 기타 수입을 인상하며 도매 및 소매가격을 옳게 정하며 그 효능을 높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결정을 토의하고 찬동(11월)하였으며 1980~1981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초안과 1980년도 국가예산안을 토의찬동(12월)하였다.

이해 4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인민쏘베트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내각과 최고재판소의 일부 구성변경에 관한 제안을 찬동하였다. 10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당 제11차대회결정과 전국 당 대표자회결정에 맞게 나라의 립법체계를 가일층 개선발전시키는것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을 토의 비준하였다. 또한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1980~1981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과 다음해 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미국제 중거리핵미싸일을 서구라파에 배치할데 대한 나토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3월 25일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1979년 3월 벌가리아전국농업—공업련합동맹이 창립되였다.

1979년에 벌가리아는 니까라과와 외교관계(11월)를 맺었다.

이해에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쉽꼬브가 메히꼬(4월), 꾸바(4월), 체스꼬슬로벤스꼬(9월), 희랍(4월), 토이기(7월), 윁남(9월), 캄보쟈(10월), 라오스(10월), 로므니아(10월)를 방문하였으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여 21차례의 수뇌자회담을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및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2 이상에 달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크롬 등이다.

공업에서 기계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 동력공업 등 중공업이 큰몫을 차지하며 그것은 공업총생산액에서 49.8%(1978)를 차지하였다.

금속공업에서는 유색금속공업이 큰몫을 차지하며 연, 아연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흑색금속공업은 공업제품총생산액의 약 6%를 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은 이나라 공업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생산의 30%, 수출량의 47%가 기계제품이다. 기계제작공업에서 중요한 부문은 자체의

유색금속공업에 의거한 전기기계, 운수기계, 배무이, 농기계생산이다. 1979년에 기계생산은 1978년에 비해 7.8% 장성하였다. 최근에 전자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화학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12%를 차지하며 인민경제에서 4번째자리를 차지한다. 화학공업에서 기본은 화학비료, 탄산소다, 가성소다, 의약품 등이며 그밖에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액체원료, 화학일용품도 생산하고있다.

경공업에서의 기본은 식료공업과 방직공업이다. 식료공업은 이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부문의 하나로서 공업총생산액의 23.7%, 수출총액의 23.5%를 차지하며 공업총생산액과 수출총액에서 기계공업다음 간다.

방직공업에서는 면천과 모직천의 생산이 중요하다. 수도 쏘피아는 이 나라의 공업중심지로서 공업분야에서 들어오는 리득의 20.5%를 담당한다.

벌가리아에서는 현 5개년계획기간에 100여개의 공업대상건설을 예견하고있는데 1979년에 여러개의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1979년에 국민소득은 7.2%, 공업총생산은 6.6% 각각 늘었다.

농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45%이며 그의 60%에 알곡을 심는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담배, 목화, 해바라기, 사탕무우, 장미 등이며 그밖에 도마도, 딸기, 사과, 포도 등도 많이 재배한다. 인구 한사람당 잎담배(1978년에 총17만톤), 해바라기생산은 세계 제1위이다. 장미꽃생산도 유명하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에서 약 35%를 차지한다.

현 5개년계획기간에 40만세대이상의 살림집이 건설되게 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에 새로 148km의 철도를 전기화함으로써 전기화된 철도의 총연장길이는 1,470km이다. 수도 쏘피아로부터 부르가스에 이르는 철도의 전기화도 이 해에 끝났다. 수상운수에서는 흑해와 두나이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포도, 남새, 식료품과 기계및 설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원유, 화학제품, 일용품 등이다. 1979년에 대외무역류통액은 150억레브에 달함으로써 전해의 지표를 114%로 초과했다. 수입화물수송량의 90%와 수출화물수송량의 50%는 벌가리아상선대가 담당하고있다.

1977년현재 24개의 고등교육기관과 약 250개의 중등전문학교가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베떼아(벌가리아통신), 쏘피아통신

신문 라보뜨니체쓰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떼체쓰뜨벤 프론트(인민회의및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 물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 아르미야(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보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벌가리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쏘피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에는 무역협정, 1969년 12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직에 관한 협정, 1970년 12월에는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71년 7월에는 두 나라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 7월 28일에는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가 1973년 10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쏘피아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1979년 6월 쏘피아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반미공동투쟁월간과 관련하여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벌가리아정부대표단(11월), 적십자회대표단(7월), 외교부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알 바 니 아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만 8,748km²
인구 259만 4,600명(1979년 1월)
수도 티라나 (주민 24만명)

자연 및 주민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를 끼고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잇닿아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m이상되는 높이에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에 속하나 바다가지방과 동부산악지방사이의 차이가 심하다. 평균기온은 7월에 24~28°C, 1월에 4~8°C이며 한해 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1979년 4월 15일 7시 19분에 약 8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슈꼬드라, 레쟈주들과 미르디따, 디베르, 끄루야, 마뜨, 뿌까, 뜨로뽀야주들에서 피해를 입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알바니아사람이며 그밖에 희랍사람, 토이기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알바니아어이다.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대의원수 264명,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정부 1978년 12월에 구성, 총리 메호메트 쉐후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 1948년 11월 제1차 당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민주주의전선,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1944년 11월 29일 알바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투쟁을 벌려 파쑈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1976년 12월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고쳤다.

1976년부터 알바니아인민은 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1976～1980)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1979년 1월 29～30일에 진행된 알바니아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78년도 계획과 제6차 5개년계획의 3년분계획의 수행 및 1979년 과제실현을 위한 조치들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보고를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해 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1978년도 계획및국가예산초안에 관한 내각의 보고를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기타 일련의 법안을 비준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인민위원회에 관한 법, 새 형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들을 비준하였다.

1979년 11월에 알바니아는 나라의 해방 및 인민혁명승리 35돐을 기념하였다.

이해 10월에 알바니아는 꼴롬비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채취공업이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등도 발전하고있다. 경제에서 공업이 약 65%(1976년)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동, 철, 크롬, 니켈 등이다.

채취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원유채취이며 품위가 높은 크롬광과 동광, 천연피치가 채굴된다. 1975년에 원유는 250～300만톤, 크롬광은 90만톤(세계 제4위)생산되였다.

기계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13%(1977년)를 차지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계부속품과 여러가지 농기계, 디젤발동기, 각종 기계설비와 정밀기구 등이 생산되고있다.

화학공업에서는 과린산염, 질소비료, 무수탄산소다와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고무, 합성수지, 의약품, 향료 등을 생산하는 경화학공업도 발전하고있다.

경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경공업부문에서 중요한것은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65만헥타르이며 그 가운데서 50%가 관개된 땅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호밀, 귀밀, 벼, 목화, 담배, 사탕무우, 아마, 삼, 올리브, 포도, 귤 등이다. 씨붙임땅의 60%에 강냉이를 심는다.

축산업은 농산물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과 염소이며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에서 구라파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크롬광, 철광석, 동제품, 원유, 피치, 올리브기름, 남새, 잎담배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기계, 농기계, 기타 공업제품이다.

교육부문에서는 8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알바니아통신(아따)

신문 제리 이 포뽈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 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방송 티라나방송, 알바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7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9년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협조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알바니아정부무역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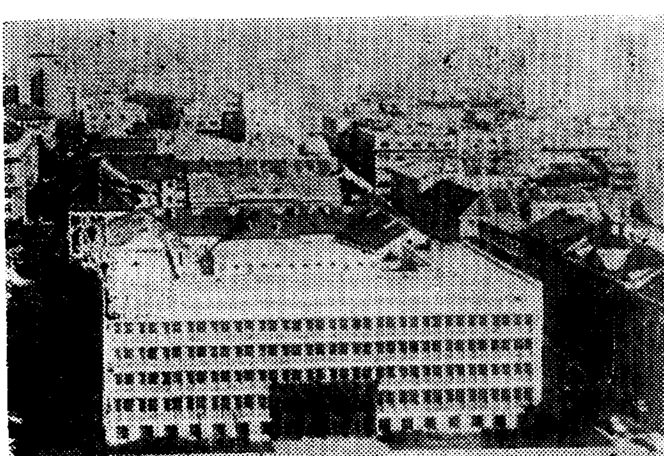
넓이 25만 5,804km²
인구 2,226만 2,000명 (1980년 1월 1일)
수도 베오그라드 (주민 134만 5,000명, 1976년 말)

자연 및 주민

발칸반도의 서북부에 자리잡고 벌가리아, 로므니아, 웽그리아, 오지리, 이딸리아, 알바니아, 희랍과 잇닿아있으며 서쪽은 아드리아해를 끼고있다. 기후는 지역적차이가 심하나 대체로 겨울은 습하고 따뜻하며 여름은 메마르고 무덥다. 아드리아해기슭의 좁은 지대는 지중해성기후이며 두나이강기슭의 벌방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00~1,000mm이다. 1979년 4월 15일 7시 20분에 체르노고리아의 남부지방들에서 70년래에 가장 큰 지진(리히터 6.4도, 메르칼리9도)이 발생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쎄르비아, 체르노고리아 및 마께도니아에서 큰물이나 피해를 입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가맹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로 된 다민족국가이다. 주민은 쎄르비아사람(40%), 호르바찌아사람, 슬로베니아사람 등 남슬라브족들이며 이밖에 1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쎄르비아—호르바찌아어, 마께도니아어, 슬로베니아어이다.



류블랴나시

정 치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45년 11월—, 1980년 5월 4일 사망)

국가상무위원회 (집체적대통령제)최고지도기관, 임기 5년, 매개 가맹공화국들과 자치주대표 각각 1명, 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국가상무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가수뇌부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련방내에서 가맹공화국들과 주들의 리해관계를 조절한다. 지금의 국가상무위원회는 1979년 5월에 선거되였다.

련방의회 최고립법및자치기관, 임기 4년, 련방의회와 가맹공화국 및 자치주의회로 구성

련방집행리사회(내각)1977년 3월 15일 구성, 위원장 베셀린 쥬라노위츠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 공산당으로 창건, 1952년 11월 제6차대회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침, 1978년 6월 제11차당대회에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를 종신위원장으로 결정,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인민해방투쟁투사련합동맹**

1945년 5월 15일 유고슬라비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파시스트강점자들을 쳐부시고 민족해방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45년 11월 29일 유고슬라비아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해방후 유고슬라비아인민은 1956년까지 공업화의 기초를 닦았으며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공업화를 촉진시켰다.

1970년 10월에 있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차대표자회의는 국가상무위원회(집체적대통령제)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1년 6월 30일 련방의회 민족의원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하며 련방공화국과 가맹공화국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문제, 국가상무위원회 설치, 이에 망라될 각 가맹공화국과 자치주대표들의 인원수문제를 헌법상으로 규정하였다. 새 헌법은 련방공화국의 권한을 가맹공화국과 자치주들에 대폭 분권화하였다. 그러나 대외정책과 무력은 의연히 련방의 수중에 남아있으며 중요한 모든 문제는 전체 가맹공화국들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채택된다.

1979년에 유고슬라비아는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일련

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이 운동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3월 22일에 진행된 국가상무위원회와 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국제정세와 유고슬라비아의 대외정책,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웃나라들과의 선린관계와 전면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해 4월 5일에 진행된 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쁠럭불가담정책을 더한층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와 공산주의자동맹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해 5월 15일 련방의회 량원합동회의는 국가상무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와 찌또대통령의 연설을 찬동하였다.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회의는 《1977년 찌또대통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고위급인사들과의 상봉들은 쁠럭불가담운동에서와 쌍무적관계에서 완전한 그리고 광범한 정치적협조를 촉진하고 공고화시킨 계기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1979년에 진행된 련방의회 회의들에서는 현5개년(1976～1980)계획수행에 관한 보고를 찬동(6월)하였으며 1980년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승인(12월)하였다.

1979년에 유고슬라비아는 공산당창건 60돐(4월 19일)과 공산당중앙위원회구성 40돐(5월 1일)을 기념하였다.

이 해에 유고슬라비아는 령해를 10마일로부터 12마일로 확장할것을 결정(3월)하였으며 쌀바도르(12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찌또대통령은 1979년 2월에 쿠웨이트, 이라크, 수리아, 요르단을, 5월에 쏘련과 알제리를, 6월에 리비아와 말따를, 11월에 로므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인도총리(6월), 뽀르뚜갈대통령(6월), 기네대통령(7월), 세이쉘대통령(7월), 말리대통령(9월), 이딸리아대통령(10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8월에 진행된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찌또대통령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연, 아연, 동, 갈탄, 원유, 천연가스, 철,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은, 안티몬, 수은 등이다. 최근에 매장량이 풍부한 갈탄, 철광석, 원유, 크롬광, 니탄 등 새로운 지하자원매장지들이 탐사되였다. 1979년에 갈탄과 무연탄은 4,340만톤, 연 11만 5,000톤, 아연 8,000톤, 알루미니움 18만톤, 안티몬 2,400톤, 보크사이트 약 240만톤 생산되였다. 또한 모빌유 12만톤, 공업용기름 11만톤이 정제되였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원유공업, 화학공업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 농기계, 전자및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 여러가지기계를 많이 만들어내고있으며 필요한 설비의 3분의 2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1980년에 뜨락또르생산은 8만대를 예견하고있다.

전력공업은 국내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 원유를 연료로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지금 전국도처에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있다.

금속공업도 발전하였다. 쎄르비아는 이 나라 유색금속공업중심지이다.

화학공업은 갈탄, 천연가스, 원유, 석회, 린 등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고있다. 해마다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하는데 1980년에는 350만톤의 화학비료생산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4년간 750km의 송유관이 건설되여 1979년에 조업하였는데 5개의 원유공장들에 원유를 보내준다.

경공업에서는 면방직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신발, 종이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대중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5개년 (1976～1980)계획기간에 사회총생산액의 년평균 장성률은 6%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약 50%가 일한다. 부침땅은 1천 470만 7,000헥타르이며 1980년말에는 44만대의 뜨락또르가 여기에서 일할것을 예견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포도, 오얏, 사과, 담배, 해바라기, 삼 등이다. 1979년에 강냉이는 1천만톤, 사탕무우 590만톤, 기름절 9만 3천톤 생산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1979년에 8천600만톤의 화물이 수송되였다. 철길의 3분의 1이 전기화되였다. 강하천운수회사에는 317척의 짐배가 있다.

아드리아해에서는 3만 7,500톤(1978년)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다. 어선대에는 각종 고기배 205척(1978년)이 있다.

대외무역은 개별적기업체들이 진행하고있으며 국민소득의 27%가 수출에서 얻어진다.

주요수출품은 기계류, 전기기구, 유색금속, 의복, 신발, 목재, 밀, 코르크, 고기, 우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전기기구, 자동차, 화차, 원유 및 그제품, 흑색금속, 알곡 등이다.

교육부문에서는 8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꼼무니스트(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보르바(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쁠리쩌까, 웨

체르니에 노보스며

잡지 쏘찌알리즘(공산주의자동맹기관잡지)

방송 베오그라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자그레브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류블랴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 두나라사이에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71년 9월에 서로 대사급 외교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1975년 4월 9일 자그레브시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75년 5월에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6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시였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가 1977년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79년 6월 25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유고슬라비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협회 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3월, 5월), 군사대표단(10월)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일군대표단(6월),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대표단(6월),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핀 란 드

(핀란드공화국)

넓이 33만 7,009km²

인구 477만 1,229명(1979년 12월)

수도 헬싱키(주민 48만 7,000명, 1979년 4월)

자연 및 주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을 차지하고 쏘련, 노르웨이 등과 잇닿아있다. 륙지의 71%가 산림이며 그 사이에 6만여개의 호수가 있다.

하지무렵에는 남부에서 낮시간이 19시간이나 되며 북부에서는 낮이 73일동안 계속되고 12월말부터는 51일동안 밤만 계속된다.

2월의 평균기온은 남부에서 −6°C, 북부에서 −14°C이며 7월에는 각각 14°C와 18°C이다. 한해 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500mm, 남부에서 750mm이다.

주민의 92%가 핀란드사람이며 7%가 스웨리예사람이다.

북쪽에 약 2천 500명의 랍족이 있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임기 4년, 의원수 200명, 1979년 3월 총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52석, 중심당이 36석, 인민민주련맹(공산당 35석, 민족련합당 45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국민투표에서 선출된 선거인 300명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56년—, 1978년 3월 1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79년 5월 26일 사회민주당, 중심당, 스웨리예인민당, 인민민주련맹의 4개당으로 련립정부 구성, 총리 마우노 꼬이비스또 (사회민주당, 1979년 5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에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싸아리넨, 총비서 아르보 아알또 **인민민주련맹** 1944년에 조직,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좌익통일전선조직, 공산당이 이 련맹의 이름으로 국회에 참가, 위원장 깔레비 끼비스퇴, **사회민주당, 중심당, 자유당, 스웨리예인민당, 민족련합당, 사회주의로동당, 인민통일당, 로동조합총련맹,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중앙련맹**

핀란드는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에 가담하여 쏘련을 침공하였다. 1940년에 쏘련과 강화조약을, 1948년에 쏘련과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전후 핀란드에서는 좌익세력과 중간파 및 우익세력들사이의 정치투쟁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들호상간의 의견대립으로 정부가 자주 바뀌였다.

1979년 3월 18일과 19일 총선거에서 집권당이던 사회민주당은 2석을, 중심당은 3석, 인민민주련맹은 5석을 잃었다.

5월 26일 사회민주당의 마우노 꼬이비스또를 총리로 하는 사회민주당, 중심당, 스웨리예인민당, 인민민주련맹의 4개 당으로 구성된 중간좌파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2월 국회는 서구라파에 대한 나토의 새로운 핵무기전개제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산림자원이 풍부하므로 목재를 원료로 한 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수력자원이 있을뿐이고 지하자원은 거의 없다.

공업에서 기본은 목재가공공업이며 팔프생산은

서구라파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신문용지, 합판, 제재목도 많이 생산된다. 핀란드의 가구와 목제품은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있다.

제재, 종이 및 팔프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 수출의 85%를 이룬다. 최근년간 핀란드에서는 금속, 기계, 선박건조공업의 비중도 커가고있으며 세멘트, 선철, 합금, 압연제품 등이 생산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9%밖에 안되며 주로 젖소기르기를 위주로하는 축산업을 하고있다.

소젖, 빠터, 치즈, 고기 등 축산물이 농산물수출액의 90%를 차지한다.

밀, 보리, 호밀,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을 생산하나 알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목재, 팔프 등을 많이 수출하며 석탄, 석유, 기계류를 수입한다.

기독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95%가 신자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스티티—에프엔비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공산당기관지), 헬싱키 사노마트(중립), 쏘시알 데모그라티 (사회민주당기관지), 매드보르가르블라데트(스웨리예인민당기관지), 폴또피스테(자유당기관지), 우우시 수오미(민족련합당기관지)

방송 핀란드방송, 핀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0월에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1967년 3월 23일 핀란드조선협회가, 1976년 4월 8일에는 조선통일핀란드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을 기념하여 핀란드의 사난 떠에출판사에서 수령님의 교시발취집《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이 출판사에서는 이것을 포함하여 32제목의 로작을 출판하였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 성명을 지지하여 2월 2일 핀란드조선협회와 조선통일핀란드련대성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7일 인민민주련맹 바르시나이스 쑤오미지부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여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체사상연구핀란드위원회》는 9월 5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9월 9일에는 헬싱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기념보고회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9년 8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핀란드에서 공연하였다.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넓이 44만 9,964km²

인구 830만 4,000명(1979년 12월말)

수도 스톡홀름(주민 64만 9,700명, 1979년 12월)

자연 및 주민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에 자리잡고 노르웨이, 핀란드와 잇닿아있다. 국토의 55%가 산림지대이며 호수가 10만개나 된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지만 난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편이다. 북쪽에서는 겨울이 7개월동안, 남쪽에서는 겨울이 4개월동안 계속된다. 북쪽에서는 12월초부터 1월 10일경까지 해가 비치지 않으며 5월말부터 53일동안은 해가 지지않고 낮이 계속된다. 스톡홀름의 평균기온은 1월에 2.5°C, 7월에 17°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500~600mm이다.

주민의 99.7%는 스웨리예사람이며 북쪽에 핀란드사람과 랍족이 약간 있다.

언어는 스웨리예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이며 임기는 3년, 의원은 349명, 1979년 9월 16일 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154석, 보수당이 73석, 중앙당이 64석, 인민당이 38석, 공산주의자좌익당이 20석을 각각 차지

국왕 까를 구스타프(1973년 9월—)

국가수반이나 실권은 없다.

정부 1979년 10월 12일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의 련립정부 수립, 총리 토르비에른 팰딘 (중앙당 당수)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라르스 웨르네르, **사회민주당** 당수 팔메, **중앙당, 인민당(자유당), 보수당, 로조중앙련맹, 사무원로조중앙조직,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민추청년동맹, 좌익녀성동맹**

스웨리예에서는 1976년 총선거에서 44년간 정권을 잡고있던 사회민주당이 지고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의 3당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나 당들사이의 의견충돌로 1978년 10월 련립정부는 무너지고 인민당이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1979년 9월 16일 국회선거에는 집권당이였던 인민당파 야당인 중앙당, 보수당, 사회민주당, 공산

주의자좌익당을 비롯하여 13개의 정당들이 참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선거결과 인민당이 1석, 중앙당이 22석을 잃은 반면에 보수당이 18석, 사회민주당이 2석, 공산주의자좌익당이 3석을 늘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당정부가 무너지고 10월 12일 중앙당 당수 펠딘을 총리로 하는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의 3당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정책연설에서 팰딘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재확인하였으며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위하여 국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북구라파나라들파 제3세계나라들파의 정치, 경제적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1979년 6월 1일 국회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로서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에 투자를 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파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스웨리예는 북부지방의 풍부한 철광석과 산림자원 및 수력자원에 기초하여 금속가공, 기계, 목재, 팔프, 종이, 선박 공업이 발전되였다.

림업파 철광석채굴에 기초한 공업생산은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이상,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철광석매장량은 북구라파나라들중 제일 많으며 철광석은 질이 좋아 서구라파에 많이 수출된다.

특수강생산이 유명하며 볼베아링생산은 세계에서 제1위이며 자동차, 전기기계, 가구, 도자기, 유리제품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

농촌경리에서 축산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한다. 특히 소젖제품생산이 발전되였다.

부침땅은 령토의 10분의1밖에 안되며 그의 70%에는 집짐승먹이작물들을 심는다.

목재, 철광석, 기계, 자동차, 선박, 전기기계, 베아링, 종이, 팔프 등을 수출하며 식료품, 연료, 직물 등을 수입한다. 도로, 운하가 발전되였으며 철도는 대부분 국유화되여있다.

국교는 기독교(신교)이며 주민의 95%가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신문합동통신

신문 니 다그(공산주의자좌익당기관지), 다겐스 뉴헤데르(자유당기관지), 아프톤 블라데트(사회민주당기관지). 스벤스가 다그 블라데트(보수당계), 조선통보(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방송 스웨리예방송, 스웨리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1975년 11월 18일에 조선통일지지스웨리예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9년에 스웨리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와 교시발취집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가 각각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67돐을 경축하여 스록홀름에서 3월 30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모임이 진행되였으며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 경축집회가 스록홀름에서 진행되였다.

이해 스웨리예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월 31일에 언웰드비크시에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성명을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다. 6월 14일에는 스록홀름에서 조선인민파의 련대성모임을 가지고 미국대통령 카터와 일본총리 오히라, 남조선박정희독재자에게 보내는 성명 《조선의 자주적민족통일을 위하여》를 채택하였다.

4월에 스록홀름에서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있었으며 9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스웨리예에서 공연하였다.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으며 10월에 스웨리예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노 르 웨 이

(노르웨이왕국)

넓이 32만 4,219km²
인구 408만명 (1979년 12월)
수도 오슬로 (주민 48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70%가 산지와 호수, 만, 섬들이며 벌은 적다.

해류의 영향으로 위도상 위치에 비해 따뜻한 편이다. 1월의 평균기온은 바다가지역이 0°C, 내륙지방이 −10°C∼−15°C이다. 7월에는 11°C∼17°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바다가지역이 2,000∼3,000mm, 내륙지방은 3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사람들이며 핀란드, 스웨리예사람들이 약간 있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임기는 4년, 의원수는 155명, 그중 4분의 1로 상원, 4분의 3으로 하원을 구성한다. 임기중 국회를 해산하거나 총선거를 실시할수 없다. 1977년 9월 선거결과 레이버당 76석, 효이레당 41석, 기독교인민당 22석, 중앙당 12석, 벤스트레당 2석을 차지

국왕 올라브 5세 (1957년 9월—)

정부 1977년 9월 레이버당정부 구성, 1979년 10월 5일 내각개조, 총리 오드바르 노르들리 (레이버당, 1976년 1월—)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3년 11월 4일 창건, 1979년 6월 10일 당대표자회 진행, 위원장 마르틴 구나르 크누트센, **레이버당** (집권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좌익당** 1979년 3월 제3차대회 진행, 위원장 베르게 프레, **효이레당** (보수당),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벤스트레당** (자유당), **새인민당** 자유당에서 떨어져나온 당, **로조중앙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레이버청년동맹**, **녀성동맹**

노르웨이는 1905년에 스웨리예—노르웨이련맹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다. 1940년 4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나토성원국이다. 오슬로교외에 나토북부사령부가 있다. 《유엔군》파견을 위해 분견대를 상시적으로 두고 국제적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엔군》부대를 파견하고있다.

1935년부터 거의 40년간 레이버당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당세력들간의 의견대립과 내부분렬로 여러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3년부터 레이버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있으나 1977년 9월 국회선거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레이버당과 국회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좌익련합(공산당, 사회인민당 등)이 16석으로부터 2석으로 후퇴함으로써 국회에서 야당과 1석의 차이로 소수파정권을 유지하고있다. 1979년 9월 지방선거에서 레이버당이 많은 의석수를 잃었으며 10월 5일 내각이 개조되였다.

1979년 5월 29일 보수당, 기독교인민당, 농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80대 75로 부결되였다.

1978년 9월에 정부는 인플레극복을 위하여 임금과 물가를 1979년말까지 동결하는 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해상운수, 수산업, 목재가공업, 선박공업, 금속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광물자원은 적다. 수력발전을 유일한 동력자원으로 하고있었으나 1968년후 북해에서 10억톤(추정)의 매장량을 가진 석유발과 50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매장지가 발견되여 새로운 동력자원을 가지게 되였다. 공업은 수력자원(전력생산의 90%)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발전시키고있다.

알루미니움생산에서 세계5위(서구라파에서 2위)를 차지하며 팔프(세계 8위)와 선박건조에서도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되고있다.

석유, 제철, 선박 공업은 국가가 장악하고있으며 주요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비률이 높아지고있다.

수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이루고있으며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은 수출한다.

대구, 청어(생산량의 절반), 고래 등을 많이 잡고있는데 그 생산량은 1977년에 318만톤이였다. 통나무생산량은 1975년에 97만 7천립방메터였는데 그 절반은 팔프생산에 리용된다.

농경지는 령토의 3%밖에 안되며 보리, 밀, 감자 등을 심으나 생산성이 낮다.

밀, 남새, 과일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해운업이 발전된 나라로서 상선대보유수는 1976년에 2천 56척(2,633만톤)이였다.

국교는 기독교이다.

출판보도 ; 통신 엔티비(노르웨이통신)

신문 프리헤텐(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 블라데트(레이버당기관지), 다그 블라데트(자유당계), 모르겐 블라데트(보수당계), 쏘시알리스티스크 폴케파르티(사회인민당기관지), 아프텐 포스텐, 클라스 캄펜

방송 노르웨이방송, 노르웨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2월 8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1972년 2월 28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1976년 3월 17일 조선통일지지노르웨이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11월 16일에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청년조선통일지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에 노르웨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또한 문헌집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노르웨이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단

체들은 공동으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오슬로에서 모임을 가지고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련합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가지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오슬로에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국대회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북조선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을 전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슬 란 드

(이슬란드공화국)

넓이 10만 3,000km²
인구 22만 3,000명(1978년 1월)
수도 레이캬비크 (주민 8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북극권에 접한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얼음강, 화산, 온천이 많다.

난류의 영향으로 날씨는 따뜻하다. 평균기온은 1월에 2~3°C, 7월에는 10.9°C이다. 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2,000mm이상, 북부에서 400~500mm이다. 여름에는 백야가 계속된다.

주민은 단마르크와 노르웨이에서 이주하여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언어는 이슬란드어이나 단마르크어도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임기는 각각 4년, 의원수 60명(상원 20명, 하원 40명) 그중 49명은 선거하며 11명은 비례제에 의하여 매개 정당들에 의석수를 나누어줌. 1979년 12월 2일 선거결과 독립당 21석, 진보당 17석, 사회민주당 10석, 인민동맹 11석, 무소속 1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 4년, 대통령 크리스찬 엘자른(1976년 8월 재선)

정부 1979년 12월 진보당, 인민동맹, 사회민주당련립정부 구성, 총리 스타인그리무르 헤르만쏜(진보당)

정당, 사회단체; 인민동맹 1938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한 통일사회당을 1968년에 해산하고 이해 이당을 모체로 인민동맹을 창건, 위원장 라그 나르 아르날스, **자유좌익당** 1969년에 인민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된 당, **진보당, 독립당** (보수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전투적사회주의조직**

이슬란드는 1918년에 단마르크의 주권밑에서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이슬란드는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1944년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에 미제와 《방위협정》(기지대여협정)을 맺었다. 이에따라 케플라비크에 미제의 해공군기지가 설치되였으며 2천 9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이슬란드에서는 미군기지문제, 경제문제, 인민생활문제를 둘러싸고 정권이 바뀌여지고있다.

1971년 6월부터 1974년 4월까지 정권을 잡고있던 좌익련립정부(인민동맹, 진보당, 자유좌익당 포함)는 인민동맹의 주장을 받아들여 1976년까지 미군기지를 철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수립된 독립당과 진보당의 련립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군기지의 계속유지를 주장하였다.

1978년 6월의 총선거후 진보당, 인민동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으나 경제적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지않아 사임하고 10월 15일 사회민주당과 독립당의 련립정부(잠정 내각)가 구성되였다.

1979년 12월 2일과 3일 총선거가 진행되여 진보당 위원장 헤르만쏜을 총리로 하는 진보당, 인민동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수산업이다. 이 나라 연해는 세계적인 어장으로 되고있다. 주로 대구와 청어가 많이 잡힌다. 크고작은 95개의 물고기가공공장이 있으며 물고기가루, 통졸임, 물고기기름을 생산한다. 이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배수리공장, 조선소들이 있다. 지하자원은 없고 전력은 얼음강의 물을 리용한 수력발전으로 얻고있으며 또한 이 전력으로 돌리는 알루미니움공업이 있다.

대외무역이 국민총생산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그 가공품이며 수출액의 80~90%를 차지한다. 알곡, 연료를 비롯하여 공업제품은 거의나 수입한다.

출판보도; 신문 우르신(인민동맹주간지), 알리두 블라디드(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군 블라디드(독립당기관지), 티민(진보당기관지)

방송 레이캬비크방송, 이슬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9년 4월 23일 이슬란드조선친선및련대

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레이캬비크에서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단 마 르 크

(단마르크왕국)

넓이 4만 3,069km²
인구 511만명(1978년)
수도 쾨벤하븐(주민 14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북쪽, 북해에서 발찍해로 드나드는 통로에 있다. 유틀란드반도와 그 가까이의 약 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부독일과 잇닿아있다. 유틀란드반도는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중앙구라파대륙을 이어주는 다리로 되여있다. 기후는 대서양의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온화하고 습한 해양성기후에 속한다. 평균기온은 2월에 0°C, 7월에 16°C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혈통의 단마르크사람이며 언어는 게르만어계통의 단마르크어를 쓴다.

정 치

국회 1원제, 의원수 179명, 임기 4년, 1979년 10월 23일 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69석, 자유당이 22석, 보수인민당이 22석, 진보당이 20석, 사회인민당 10석, 급진자유당이 10석, 좌익사회주의당이 6석, 민주중앙당이 6석, 기독교인민당이 5석, 기타 5석, 페레르비제도와 그린랜드에서 각각 2석

국왕 국가수반, 국왕 마르그레테 2세녀왕(1972년 1월—)

정부 1979년 10월 26일 사회민주당정부 구성, 총리 안케르 헨리크 에르겐센(1979년 11월 재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11월 9일창건, 위원장 요르겐 옌센, **사회민주당**(집권당), **자유당, 보수인민당, 진보당, 사회인민당, 급진자유당, 민주중앙당, 기독교인민당, 좌익사회주의당,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동맹**

단마르크는 1849년에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제1차대전시기에 중립을 유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에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나토(1949년), 《구라파공동시장》(1973년)에 가담하였다.

전후 여러차례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제1당으로되여 (1973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제1당) 정권을 잡고있었다. 1977년 2월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1978년 8월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민주당파 자유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련립정권은 1979년 9월에 사임하고 10월 23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38.3%로서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3월 15일 70만명이상의 공무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11월 8일과 9일에는 수도에서 수만명이 서구라파에 미국의 중거리로케트핵무기를 배치하는것을 반대하는 호소문서명수집운동에 참가하였다.

9월 22일 단마르크는 자기 나라 령토에 미군용기를 배치할데 대한 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공업과 농업이 발전한 자본주의나라이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을 위주로 하고있는데 축산물생산이 농업총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국토의 3분의2가 농경지인데 그 대부분이 방목지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로 리용되고있다.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고기, 빠터와 닭알을 수출하는 나라의 하나이다. 젖소 한마리의 년평균 소젖생산량은 4천500~5천키로그람에 이르고있으며 돼지도 품종이 좋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다.

토지는 풀과 모래가 많으며 주로 밀, 귀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농업이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있으나 1963년부터 공업생산액이 농업을 넘고있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의 몫은 농업의 4배이며 1977년의 공업제품수출은 총수출의 77%를 차지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선박, 세멘트, 전자기구, 자동조종설비, 식료품가공설비, 화학공업설비, 가구생산이 발전하였다. 식료공업이 공업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

수력자원과 광물자원은 거의나 없고 공업원료와 연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최근년간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여 개발되고있다.

수산업은 연해와 북해, 발찍해를 중심으로 하고있는데 대구, 청어, 숭어 등을 많이 잡는다.

철도는 70%가 국영이며 섬과 섬을 련결하는 철다리가 있다.

해상운수와 해상무역이 발전하였다.

주민의 97%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르비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아크 투

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베를링스케 티덴데(보수당계), 폴리티겐(급진자유당계)

방송 단마르크방송, 단마르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10월 10일에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가, 1976년 5월 11일에 조선통일지지단마르크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7돐에 즈음하여 제2차단마르크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코펜하븐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트리오출판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인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0월에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해 단마르크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근로자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 성명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2월 21일 코펜하븐에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단마르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국회의장은 2월 18일 우리 나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 공산당중앙위원회(2월 14일)와 좌익사회주의당 집행위원회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각각 전문을 보냈다.

사회인민당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문을 보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15일 랑게랜드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6월 25일에 성명을, 사회민주청년동맹은 6월 18일에 결의를 발표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6월 25일 미국정부에 항의문을 보냈다. 항의문은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조작책동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1979년 3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단마르크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는 단마르크사회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코펜하븐과 지방도시들에서 공연하였다.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넓이 24만 8,107km²(서부베를린 480km²를 제외)
인구 6,151만명 (1977년 11월)
수도 본 (주민 30만명)

자연 및 주민

중앙구라파에 자리잡고있다. 북부지역은 벌방지대이며 남부지역은 알프스산줄기와 잇닿은 산악으로 이루어져있다.

기후는 전반적지역에서 따뜻한 대륙성기후에 속하나 북해기슭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를 나타낸다. 한해평균기온은 9°C, 한해평균강수량은 69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정 치

국회 2원제, 련방의회(최고립법기구)와 련방참의원(각주정부대표들의 합의기구)으로 구성, 련방의회 의원은 496명, 결의권없는 서부베를린대표 22명 참가, 임기 4년, 1976년 10월 총선거결과 사회민주당 214석, 자유민주당 39석, 기독교민주당 190석, 기독교사회동맹 53석 차지

련방참의원 의원은 41명, 서부베를린의 결의권없는 대표 4명 참가, 의석은 각주 인구비례로 분배되며 주정부가 대표를 임명한다. 각주의 리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참여, 외교정책과 련방사업의 정책에서는 참의권만 가진다. 의장은 주정부 총리가 운데서 선출, 임기 1년, 대통령이 없을때 그 직책을 맡아본다.

대통령 국가수반, 련방의회 의원들과 그와 같은 수의 각주 대표들로 구성된 련방대회의(1,036명)에 의하여 선거, 임기 5년, 대통령 칼 카르스텐스 (1979년 7월 1일—)

정부 1976년 12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련립정부 구성, 총리 헬무트 슈미트(1976년 12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독일의공산당 1968년 9월에 창건, 위원장 헤르베르트 미스,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동맹, 독일로조총련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후 독일은 포츠담협정에 의하여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국에

점령되였다. 포츠담협정은 독일을 통일적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협정을 파기하고 1949년 9월 서부독일땅에 독일련방공화국을 조작하고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 길로 이끌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서부독일에서 군국주의세력이 되살아나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나라의 군사화와 파쑈화를 다그치면서 나토의 기본 《돌격대》로서의 서독련방군을 50만명이나 유지하고있으며 군대의 《현대화》를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군사비지출은 10년동안에 2배로 늘어나 1979년에 366억6천마르크에 이르렀으며 1980년에는 예산의 4분의1이상을 군사비로 할당하여 377억마르크에 이르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1979년 9월 련방의회는 련방군을 새무기체계로 장비하기 위한 지출이 1980년에는 7% 더 늘어날것이라고 하였으며 국방부의 국방백서에서는 중거리핵탄두 미싸일의 장비강화를 나토군에 호소하였다.

10월 2일 서독과 미국은 군사예산을 실질적으로 3% 늘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서독은 군사비지출이 나토에서 미국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군비경쟁을 다그치면서 1월과 9월에는 서독땅에서 나토군의 군사연습소동을 벌려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켰다.

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서독에서는 100여개의 신파쑈집단이 제멋대로 활동하고있으며 1978년에만도 400여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갖은 음모책동을 꾸몄다.

1979년에 서독인민들은 나치즘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2월 도르트문드에서는 《파시즘을 타도하라!》는 구호밑에 반파쑈집회와 대중적인 시위가 있었으며 5월에도 나치즘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시위들이 여러곳에서 있었다. 6월 17일 함부르크, 브래멘, 하부작소니아,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에서는 사회계 대표들이 서독에 있는 모든 나치스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킬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7월 3일 련방의회는 나치스범죄자를 포함한 살인죄의 시효를 철폐할데 대한 법안을 찬성 253, 반대 228로 가결하였다.

1979년에 애급대통령(3월), 핀란드대통령(5월), 싱가포르총리(6월), 세네갈대통령(7월), 중국총리(10월)가 서독을 방문하였다.

10월 24일 중국과 서독이 경제및문화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2개의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9년 4월에 서독총리가 브라질, 페루, 도미니까공화국을, 5월에 벌가리아, 7월에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자본주의적공업국이다. 공업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 아연 등이 있으며 공업에서는 강철, 기계, 화학, 섬유, 전자기구, 자동차, 선박공업이 주요부문을 이루고있다. 공업의 대부분은 라인강류역에 집중되여있다.

석탄매장량은 약 500억톤으로 추산하고있으며 자르, 루르 등 라인강연안이 주산지이다.

1979년 한해동안에 서독의 에네르기소비량중에서 석탄은 석유다음으로 29%를 담당하였다.

서독에는 산림자원이 많은데 산림면적은 720만헥타르로 추정되고있다.

서독경제는 115개의 대독점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이 독점체들의 총류통액은 약 5천억마르크로서 이 나라 공업기업소들의 총류통액의 68%에 해당한다.

최근년간 자본주의경제의 전반적침체를 반영하여 서독에서는 설비투자가 저조하고 조업률이 떨어졌다. 강철, 선박건조, 건설업계의 침체가 심하였다. 1979년 상반년에만도 2천 762개의 회사들이 파산당하였다.

농업인구는 1978년에 282만 1천명이였다. 부침땅은 1977년에 749만 7천헥타르, 관개면적은 31만 1천헥타르였다. 농업은 총생산액의 2.7%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과일 등이다.

서독은 세계적인 호프생산국으로서 세계호프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한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있다.

1978년에 알곡생산량은 2천 394만 3천톤이였으며 밀은 811만 8천톤, 보리는 854만 2천톤, 감자는 1천 51만톤, 사과는 178만 3천톤 생산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위기를 겪고있는데 1979년에 소농경리의 파산건수는 2만 8천 500개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제품이며 석유, 화학제품, 기계 등을 수입한다.

실업자수는 1979년에 평균 100만명선을 오르내렸다. 서독녀성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자들보다 25～30% 낮은임금을 받으며 녀성실업률은 남자보다 2.8%나 더 높다.

로동자들에 대한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1978년에만도 146만건의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하여 2만명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서독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마약중독자만도 4만명이 있는데 특히 청년들속에서 마약중독자가 늘어나고있다. 1978년에 마약으로 죽은 400명중 260명이 18～25살까지의 청년들이였다.

주민의 51%가 신교를, 45%가 천주교를 믿는

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독일의공산당기관지), 디벨트(정부계),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케르니쉐르 룬트샤우(기독교민주당계),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사회민주당계)

방송 8개의 방송망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2월 1일 서독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주최로 듀쎌도르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2월에 서독의 도르트문드에서 있은 세계민청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서독에 갔다.

오 지 리

넓이 8만 3,849km²

인구 750만명(1977년)

수도 윈 (주민 158만 9,000명, 1977년 12월)

자연 및 주민

오지리는 구라파대륙의 중앙부에 동서로 길게 자리잡은 내륙국이다.

령토의 75%가 동부알프스산줄기로 되여있으며 동부와 동남부에 분지가 있다. 호수가 많고 두나이강이 동서로 흐르고있다.

수도의 1월평균기온은 −2°C, 8월에 20°C이다. 벌방지대에서의 한해평균강수량은 500∼800mm이다. 주민의 98%는 독일계인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국민의회 (하원)의원은 183명, 임기 4년, 련방의회(상원) 의원은 58명이며 전국 9개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의회대표로 구성, 최종결의권은 국민의회가 가진다. 1979년 5월 6일 국민의회 선거결과 사회당이 96석, 인민당이 76석, 자유당이 11석 차지

대통령 루돌프 키르슈슐레게르 (1974년 7월 8일), 임기 6년, 직접선거로 선출

정부 1979년 6월 사회당정부 구성

총리 브루노 크라이스키 (1970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뮤리, **사회당** (집권당), **인민당, 자유당, 국가민주당, 민주진보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민주녀성동맹**

오지리는 1918년에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19년에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오지리는 1938년에 파쑈독일에 병합되였다. 제2차 대전후에는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공동관리밑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에 의하여 대오관리리사회사업은 폐지되고 이해 10월 26일 오지리국회는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전후 21년간 사회당과 인민당의 련립정권이 계속되다가 1966년 총선거에서 인민당이 과반수를 얻어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1970년후 3차에 걸친 선거에서 사회당이 련이어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였다. 그러나 사회당은 1978년말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표를 잃었으며 원자로 조업을 위한 국민투표에서도 필요한 수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회 임기 5개월을 앞당겨 1979년 5월 6일에 선거를 진행하게 되였다. 선거에서 우익정당들인 자유당과 인민당은 련합세력으로 사회당과 대결해나섰다. 치렬한 대결속에서 벌어진 선거결과 사회당이 51.2%로서 또다시 집권하게 되였다.

1979년 7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아라파트가 오지리를 방문하고 오지리총리와 회담하였다. 이에 반대항의하여 이스라엘은 윈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2월 서독대통령 쉘이 오지리를, 오지리대통령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오지리는 발전된 자본주의공업국이다. 철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목재 등 자원이 많다. 채굴공업은 국민총생산의 33%를 차지한다. 특히 흑연(39만 5천톤—1975년), 마그네사이트 (126만 5천톤—1975년)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공업에서는 강철 (406만8,000톤—1975년), 방직, 제지, 화학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강철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은 대부분 국유화되여있다.

농업부문에서 인구의 약 20%가 일하고있으며 농산물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축산이 큰 몫을 이루고있다.

주로 기계, 강철, 화학제품, 목재제품, 종이, 천 등을 수출하고 석유, 식료품, 수송용기재를 수입한다.

관광업이 주요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아이바르테르 짜이퉁(사회당기관지), 폴크스 블라트(인민당기관지), 데에프페—텔레그람(민주진보당기관지), 노이에프론트(자유당기관지)

방송 오지리방송, 오지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74년 12월 17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5월 10일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가, 1976년 4월 22일에 조선통일지지 오지리위원회가 결성되였다. 그리고 오지리조선친선협회가 조직되였다.

1979년 5월 8일 우리 나라 정부와 오지리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윈에서 조인되였다.

오지리공산당 윈위원회의 주최로 7월 5일 윈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10월 8일에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일과 관련한 반미군중집회가 윈에서 진행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1월 23일부성명을 지지하여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오지리민주녀성동맹, 오지리법률가협회가 이 위원회에 전문을 보내왔으며 오지리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에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희 랍

(희랍공화국)

넓이 13만 1,944km²
인구 917만명(1976년 7월)
수도 아테네 (주민 280만명, 대아테네)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쪽에 있는 희랍반도와 에게해의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섬들의 총넓이는 약 2만5,000km²이다.

국토의 80%는 산지이며 길고 굴곡이 심한 해안선에는 만과 항구들이 많다.

기후는 아열대 지중해성으로서 겨울에도 따스하고 습도가 높으며 여름에는 건조하다.

수도의 년평균기온은 17.6°C, 겨울에 9°C이다. 가장 더울때 32°C이다.

1979년 7월에는 44°C라는 높은 온도의 열파가 두번이나 들이닥쳐 수많은 사망자까지 냈다.

서부지역을 제외하면 한해 강수량이 400mm밖에 안된다.

주민의 90%이상은 희랍사람이며 그밖에 토이기사람, 유태사람이 산다.

공용어는 희랍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이며 의원은 300명, 1977년 11월 20일 선거결과 신민주당이 173석, 전희랍사회주의운동이 92석, 민주주의중앙동맹이 15석, 공산당이 11석, 전국민주동맹이 5석, 신세력중앙동맹이 2석, 좌익통일세력이 2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신임으로 선거, 대통령 콘스탄티노스 차초스(1975년 6월—)

정부 1977년 11월 28일 신민주당정부 구성, 총리 콘스탄틴 카라만리스(1974년 11월 2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 1947년에 지하에 들어갔다가 1974년에 합법화, 총비서 하릴라오스 플로라키스, **공산당(국내)**1968년에 결성, 총비서 바비쓰 드라꼬뿔로스, **통일민주좌익당, 전희랍사회주의운동**(사회당), **좌익통일세력, 신민주당**(집권당), **민주주의중앙동맹, 전국민주동맹, 신세력중앙동맹, 로동총련맹, 민주녀성동맹, 희랍공산주의청년**

1830년에 희랍왕국이 형성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에 해방되였다. 1946년에 군주제가 다시 수립되여 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희랍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1952년에 나토에 가입하고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다.

1973년 6월에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1974년 총선거후 계속 신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있다.

희랍정부는 1974년 7월 토이기가 끼쁘로스를 침공하였을때 미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 리유로 나토의 군사기구에서 탈퇴하였으나 미국과는 여전히 군사조약을 유지하고있다.

1976년 4월에 희랍은 7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국과 4년기한의 새 군사기지협정을, 1977년 7월에는 새 《방위협조협정》을 맺었다.

1979년 5월에 희랍은 나토의 군사기구에 희랍을 다시 끌어넣기 위한 나토의 제안을 배격하였다. 희랍은 동서대충돌의 경우를 제외하고 희랍군대가 희랍군 사령부의 휘하에 남아있게 될 특수한 지위를 요구하고있다.

1979년 5월 28일 희랍은 구라파공동체가입협정에 조인하였으며 6월 28일 국회는 이 조약의 비준을 승인하였다(198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토이기와는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는 조약을 맺을데 관한 회담을 2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결말을 보지못하였다.

1979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희랍정부수반으로서의 첫공식방문으로 총리가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중국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2월에 총리가 수리아, 3월에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11월에 이라크, 인도, 타이를 방문하였다. 이해 4월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가 희랍을 방문하였다.

희랍인민들은 나토에서의 완전탈퇴, 외국군사기지들의 철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는데 10월 카니아시에서는 군중집회를 열고 크리트섬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들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중적인 투쟁이 있었다.

5월 10일에는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10만명의 교원, 공무원들의 파업, 7월 3일에는 항공회사 근로자들의 파업 등이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전통적인 농업국이였으나 최근년간 공업화가 추진되고있다. 농업인구는 인구의 40.5%이며 주로 밀, 사탕무우, 담배, 올리브, 포도, 귤 등을 심고있다. 양봉업이 유명한데 1975년에 1만 1천톤의 꿀을 생산하였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갈탄, 니켈, 마그네시움, 쇠돌, 크롬, 동, 석고 등이 있다.

에게해의 해저유전개발이 추진되여 1978년부터 연 250만톤의 원유생산을 내다보고있다.

공업은 서구라파에서 뒤떨어진 편이며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방직, 식료가공, 화학공업, 선박건조, 화학비료, 기름짜기, 알루미니움, 야금공업 등이 있다.

해운업이 경제에서 큰몫을 담당하고있는데 한해여기에서 얻는 외화수입액은 약 2억딸라에 달한다. 상선등록총톤수는 2천 366만톤(3천 132척)이다.

1978년의 대외무역적자는 43억딸라에 이르러 재정형편을 악화시켰다.

희랍에서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과정에 일어난 사고로 22만명의 로동자들이 죽었다.

100만명이상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있으며 학비를 당하지 못하여 소학교를 그만둔 어린이수는 30만 7천명에 달한다.

주민의 97%는 희랍정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통신

신문 리조스파스티스(공산당기관지), 아클로폴리스, 엘레프토로스 코즈모스, 네아폴리티아, 아브기, 에쏘르 미씨, 카티메리니

방송 아테네방송, 피르고스방송, 국립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8월 29일 아테네에서 희랍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전희랍사회주의운동 위원장은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2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련대성전문을 보내였다.

희랍공산당(국내)중앙위원회는 7월 17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전문을 보내왔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넓이 157km²
인구 3만명(1978년)
수도 바두쯔 (주민 4,000명)

자연 및 주민

리히텐슈타인은 오지리와 스위스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며 그들은 독일어를 쓴다.

정 치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 (1938년 7월—)
국회 15명으로 구성된 1원제 국회, 임기 4년
정부 총리, 부총리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임기 6년
정당, 사회단체;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기독교사회당, 로동자동맹

제1차대전후 스위스와 맺은 조약에 의하여 국방, 외교는 스위스가 대행하고있다.

제2차대전시기 독일군에 강점되였다가 전후에 해방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같이 《중립》을 표방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 및 목축업과 금속가공업, 면방적공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포도, 과일, 남새류이다.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치(이발)를 잘 만드

는 나라로 알려지고있으며 우표판매와 관광업이 재정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화폐는 스위스프랑을 쓰고있다.

주민들은 카톨릭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리히텐슈타인통신

신문 리히텐슈타이네르 파테르란드(조국동맹기관지), 리히텐슈타이네르 폴크스블란트(시민진보당기관지), 데르 리히텐슈타이네르 (기독교사회당 주간지)

스 위 스

(스위스련방)

넓이 4만 1,288km²
인구 629만 8,000명(1979년 1월 1일)
수도 베른 (주민 16만 8,000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의 복판에 자리잡고있는 내륙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중남부일대는 알프스산줄기로서 4,000m이상의 높은산들이 4개나 있다. 호수와 얼음강이 많다. 날씨는 일반적으로 서늘하지만 지대에 따라 기온은 다르다. 낮은 지대에서는 7월에 평균 20°C, 1월에는 1°C이다. 년강수량은 북부의 평지에서 1,000mm, 남부산기슭에서 2,000mm이다.

주민은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로망슈혈통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

단일한 국어가 없고 주민의 65%가 독일어, 18%가 프랑스어, 12%가 이딸리아어, 그밖에 로망슈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상원(전주의회)과 하원(국민의회)으로 구성, 전주의회 의원은 44명(각주에서 2명), 선거방법과 임기는 각 주가 결정, 국민의회 의원수는 200명이며 임기는 4년

1979년 10월 21일 국민의회선거결과 사회민주당(51석), 급진민주당(51석), 기독교민주당, 국민당이 200석중 169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7명의 정부각료들이 륜번제로 선출된다. 임기 1년

대통령 한스 후에를리만 (1978년 12월—)

련방회의(정부)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각료들로 구성, 임기 4년, 각주는 2명이상의 각료를 별수 없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사회당좌파가 합당하여 1944년 10월에 창건 명예위원장 쟝 뱅쌍, 총비서 아르망 마냉, **스위스진보조직** 총비서 에두아르드 하프네르, **자주사회주의당** 총비서 웨르네르 까로비오, **사회민주당, 급진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인민당, 독립당, 자유민주당**

합스부르그왕조(오지리)의 속령이였던 스위스는 1315년에 오지리군을 물리치고 독립하였다.

1815년에 윈회의에서 국경이 확정되고 《영구중립》이 선포되였으며 1874년에 현재의 22개주로 련방이 완성되였다. 스위스는 중립이라는데로부터 일부 유엔기관들의 성원국으로는 되고있지만 어떤 군사동맹에도, 유엔에도 들어가지않고있다.

스위스는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성원국으로 활동하고있다. 1979년 3월 스위스내각은 유엔에 가입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국회와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다.

스위스에서 주요정책적문제들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결될수 있다.

1979년 10월에 수리남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스위스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공업원료의 대부분은 외국에 의존하고있으며 공업제품생산의 70～80%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석탄, 석유는 전혀 없고 최근년간 우라니움광맥이 발견되여 원자력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주요공업제품은 시계, 이바퀴 등 정밀기계, 기계공구, 화학제품, 가공식료품, 수예품이다. 특히 정밀기계가 세계에서 이름이 있으며 시계생산은 한해에 4천 719만개(1975년)에 이르고있다.

또한 경무기, 중무기, 로케트무기들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있는데 1977년에 무기수출액이 2억5천만딸라에 달하였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기때문에 농경지가 적다. 농업인구는 7.9%(1975년)이며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70%이상에 이르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이며 소와 돼지, 닭을 많이 기른다. 알곡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기계, 금속제품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그밖에 화학제품(21%), 시계(8%), 치즈 등을 수출한다.

농산물, 석유, 목재는 수입한다.

관광수입이 큰몫을 차지하는데 1975년에 외국인관광객은 194만명이였다.

1979년에 생계비는 5%이상 올랐으며 특히 식료품, 옷, 일용품값과 봉사료가 뛰여올랐다.

주민의 52%는 기독교, 46%는 천주교를 믿는

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지

신문 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라 부아 우브리에르(로동당 주간지),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중립계), 가제트 드 로잔느(자유민주당계), 리베라 스땀빠(사회민주당기관지), 나찌오날 짜이퉁, 쮸르날 드 제네브

방송 스위스방송, 로잔느방송, 쮸리히방송, 스위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4일 우리 나라와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74년 12월 2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4월 10일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베른)가, 4월 13일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6년에는 남조선에서의 민주수호스위스법률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에 스위스로동당 총비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로동자, 사무원, 학생 등 광범한 계층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스위스진보조직 총비서이며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문을 보냈다.

5월 17일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결렬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 정치국은 7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전문을 보냈다.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이 딸 리 아

(이딸리아공화국)

넓이 30만 1,250km²
인구 5,700만 1,000명 (1979년 12월)
수도 로마 (주민 34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남쪽 지중해의 한가운데로 길게 뻗은 반도와 약 7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대부분(5분의 4)이 산지로 되여있으며 화산이 많아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1979년 9월 19일 이딸리아의 중부일대에서 세기 5.8바르의 지진이 있었으며 9월 초에는 구라파 최대의 활화산인 씨칠리아섬의 에뜨나산이 20년만에 폭발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되였다.

기후는 아열대 지중해성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비가 적게 오며 겨울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 한해평균기온은 10°C(씨칠리아섬은 최고 45°C)이며 한해강수량은 북쪽에서 2,000mm, 남쪽에서 8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족(98%)이며 그밖에 독일사람, 슬로베니아사람, 프랑스사람 등이 있다.

국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정 치

국회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상하량원제, 상원은 정원 315명과 7명의 종신의원으로 구성, 하원은 630명, 임기는 각각 5년, 1979년 6월 3일 2년 앞당겨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원	하원
기독교민주당	138	262
공산당	109	201
사회당	32	62
사회운동	13	30
사회민주당	9	20
공화당	6	16
급진당	2	18
자유당	2	9
기타	4	12

대통령 상하량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싼드로 뻬르띠니(1978년 7월—)

정부 1979년 8월 4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당의 3당련립정부 구성, 총리 프란쎄스꼬 꼬씨가(기독교민주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1979년 3월 15차당대회 진행, 당원수 180만명,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기독교민주당(집권당), 사회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공화당, 급진당, 프로레타리아민주통일당, 로동총련맹, 로조련맹, 근로자기독교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1870년에 이딸리아의 통일이 이룩되였다.

1922년에 무쏠리니의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여 1937년에 침략적인 일, 독《반공》협정에 가담하였다. 1940년에 이딸리아는 파쑈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쏘련군대의 섬멸적타격과 이딸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전개된 반파쑈인민항쟁에 의하여 1943년 7월에 무너졌다.

1946년 6월에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전후 공산당과 사회당, 기독교민주당의 련립정

부가 세워졌으나 1947년 5월 우익반동들은 정부에서 공산당출신각료들을 배제하고 기독교민주당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그후 기독교민주당이 단독 또는 련립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이딸리아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면서 나토와 서구동맹, 구라파공동시장 등에 가담하고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반동지배층의 정치적위기와 함께 나라의 정치생활에서 공산당의 진출이 급격히 강화됨에 따라 기독교민주당의 통치력은 점차 약화되고있다.

1978년 3월 기독교민주당은 공산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화당과의 정책협정을 맺고 국회다수파정당들에 의거하는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 정부는 구성상 기독교민주당의 단독정부이기는 하나 국회다수파에 망라되여있는 5개정당들이 모두 여당의 자격으로 정부의 정책작성과 그 집행에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였다.

그후 공산당은 기독교민주당정부가 자기의 공약을 지키지않는것으로하여 여당에 대한 국회에서의 지지를 철회하고 다수파에서 떨어져나왔다. 이리하여 기독교민주당소수파정부는 1979년 1월 31일 총사직하였다.

3월 20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공화당으로 내각을 꾸리고 국회의 신임을 요청하였으나 제2당인 공산당과 제3당인 사회당의 반대로 신임안은 149대 150으로 부결되여 이 내각도 성립되지 못하였다. 공산당은 종전의 립장을 변경하여 기독교민주당 단독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입각을 요구하였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4월 2일 국회를 해산하고 6월 3일 새로 국회선거를 진행하였다.

국회선거결과 공산당과 기독교민주당은 1976년의 선거때보다 약간의 의석수를 잃었으며 사회민주당, 자유당, 급진당은 의석수를 더 얻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의연히 기독교민주당 다음가는 제2당의 지위를 계속 차지하게 되였다.

선거후 대통령은 공산당과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과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 들고나옴으로써 정치적위기는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8월 4일 7개월간의 위기끝에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당의 련립정부가 성립되였다.

1979년에 이딸리아에서는 생존의 권리와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5월 8일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500만의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킨데 이어 6월 19일에는 공업, 농업, 상업, 철도, 국가기관, 병원, 민항부문의 로동자들 1천 400만명이 임금인상과 새로운 단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총파업을 벌림으로써 사회경제생활의 전반을 혼란상태에 빠뜨렸다.

임금인상과 실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은 방직, 건설, 금속, 화학, 운수, 체신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을 휩쓸었으며 5월 15일에는 200여만의 공무원들이 파업함으로써 국가기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고 비행장업무가 활동을 중지하였다.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1월부터 10월까지만도 1억 5천 330만로동시간을 잃었다. 이것은 1978년보다 3배 늘어난것으로 된다.

1979년 7월 서독총리 슈미트, 11월에 중국 국무원총리 화국봉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4월 23일 이딸리아는 중국과 경제협조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이딸리아의 북부지역은 대규모공업과 자본주의적 농촌경리가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남부지역과 섬들에서는 주로 뒤떨어진 소농경리를 하고있다. 제노아, 밀라노, 또리노를 련결하는 북부의 3각지대에 모든 공업기업소와 로동자의 80%이상이 집중되여있다.

이딸리아경제에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생산성에서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격차, 북부와 남부 지역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국민총생산에서 남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1인당 국민소득은 북부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국가자본이 참가하는 대기업(혼합경제)이 경제의 기초부문에서 큰 비중(45～50%)을 이루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산업부흥공사는 강철, 선박, 기계의 기간부문으로부터 금융, 통신, 항공, 방송을 포괄하고있으며 탄화수소공사는 석유, 천연가스부문을 장악하고있다. 또한 민간공업으로 피아트(자동차), 《메르니》(흑색금속), 안쌀도(군수공업)등 대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있다. 여기에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도 침투되여있다.

천연자원이 적으므로 연료, 원료는 주로 수입하여 강철, 자동차, 화학제품, 천 등을 생산한다.

최근년간 북부지역에서 천연가스의 개발이 추진되여 주요한 동력원천으로 보고있다.

석유정제능력은 서구라파에서 제1위(2억1천만톤), 강철생산량은 2위, 자동차생산량은 제4위를 차지한다. 농업은 다른 부문보다 뒤떨어져있으며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의 10%밖에 안된다. 농업인구는 1978년에 707만 6천명이였다. 부침땅은 923만 5천헥타르이며 그중 관개면적은 285만헥타르였다. 주요농작물은 밀, 벼, 강냉이, 포도, 감람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못하며 수요의 3분의 1은 수입한다. 알곡은 1천 767만톤(1978년), 포도는 1천27만톤생산(1977년)되였다. 감람은 세계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한다.

포도술생산은 프랑스와 1, 2위를 다투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 포도술, 올리브기름, 기계설비, 화학제품이며 수입품은 공업원료와 연료, 알곡 등이다. 관광수입이 주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이딸리아경제는 1979년에도 심한 위기를 겪었다.

1979년 4월에는 강철생산량이 전해 4월에 비하여 7.6%, 자동차생산은 이해 상반년기간에 1.5% 줄었다. 통화팽창률은 이 한해동안에 20%, 대중소비품값은 18%, 농산물값은 10%나 뛰여올랐다.

1979년말에 완전실업자는 170만명, 반실업자는 85만명을 헤아렸다.

이딸리아에는 6만 5천명의 마약중독자가 있으며 1979년에 마약의 후과로 죽은사람은 전해에 비하여 2배나 더 많았다. 중독자의 90%이상은 18~20살의 청년이다.

인구의 약 20%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 아기트, 아스뜨라

신문 우니따(공산당기관지), 꼬리에레, 델라쎄라, 메싸제로, 일 죠르노, 보체 레뿌블리까나(공화당기관지), 라 스땀빠(중립계)

방송 라지오방송,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10월에는 남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7월에는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이딸리아대외무역연구소 사이에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3월에 마젠따시에서 주체철학연구소가 결성되였다.

1979년에 이딸리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당사상사업에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또한 우니따출판사에서는 이해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해 이딸리아인민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렸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2월 5일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련맹 전국위원회가, 2월 9일에 이딸리아로동총련맹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통일지지이딸리아위원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의 평화적통일위업실현에 온갖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에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10월 25일 이딸리아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로마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이딸리아의 국회 상, 하원 의원 103명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9일에는 이 나라의 4천 556개의 중소행정단위들과 3천 191만명의 주민들을 망라하는 주요지역 및 주리사회 위원장들과 대도시 시장들이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가 리행되도록 노력할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공동으로 편지를 보내였다.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국회상원무소속 좌익그루빠 원내총무, 부총무를 비롯한 국회상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이딸리아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련합회의를 열고 남조선사회의 파쑈독재제도를 규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련대성운동을 계속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1979년 6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딸리아공산당의 초청으로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바 띠 까 노

넓이 0.44km²

인구 1,000명(1975년)

자연 및 주민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시의 서북쪽언덕에 자리잡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이다. 대부분이 성벽으로 둘러쌓여있다. 주민의 85%는 이딸리아사람이며 에스빠냐사람들도 있다.

정 치

바띠까노는 1929년 2월 이딸리아정부와 법왕청사이에 맺은 《라떼라노》조약에 따라 이딸리아의 파쑈독재자 무쏠리니가 법왕청구역에 토대하여 만들어낸 법왕주권의 종교도시이다.

법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있으며 자체의 군대와 대학, 화폐를 가지고있다.

바띠까노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교회를 두고 30만명을 넘는 목사와 100만명의 수도승을 가지고있다. 바띠까노의 세력밑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 있는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독점자본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그 나

라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또한 여러가지 이름의 기독교단체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자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공화국)

넓이 60.57km²
인구 2만 340명(1977년 1월초)
수도 싼 마리노(주민 4,500명)

자연 및 주민

중부이딸리아의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이딸리아의 령토로 둘러싸여있는 이 나라는 서북쪽으로부터 동남쪽의 길이가 3km, 해발높이가 749m이다.

날씨는 따뜻하고 풍경이 아름답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사람이며, 이딸리아어를 쓴다.

정 치

대평의회 일원제의 립법기관, 임기 5년, 의원수 60명, 6개월에 한번씩 대평의회에서 선출되는 공동수석행정장관이 국가원수와 정부대표로 된다.

1978년 5월 28일 선거결과 공산당이 16석, 사회당이 8석, 통일사회당이 7석, 사회민주당이 2석, 기독교민주당이 26석, 공화국옹호위원회 1석차지

국가회의(정부) 2명의 공동수석행정장관과 10명의 각료로 구성된 행정기관, 1978년 7월 17일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위원장 에르메네질도 가스뻬로니, 총비서 움베르또 바를리,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사회민주당, 공화국옹호위원회,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로동총련맹, 로동총련맹**

싼 마리노는 1263년에 공화국을 창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공화국이다. 2차대전시기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에 해방되였다.

1945년부터 1957년까지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정권을 쥐고있었으나 반동집단에 의해 무너지고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였다.

1976년 3월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섰으나 사회당이 공산당을 정부에 참가시킬것을 요구하여나섬으로써 1977년 11월 련립정부는 무너지고 정부위기가 계속되여왔다.

1978년 5월 28일 총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이 26석으로서 제1당으로 되였으나 공산당, 사회당, 통일사회당의 좌익련합세력이 31석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7월 17일 공산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관광업과 우표업이 국민소득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치가 좋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데 1977년에 그수는 250여만명에 이르렀다. 그중 80%는 이딸리아사람들이였다. 우표는 색채가 아름답고 구도가 정교로워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주요생산물은 밀, 포도, 강냉이, 올리브, 도자기, 모직천 등이다. 이딸리아경제와 련결되여있어 화폐도 이딸리아리라를 쓰고있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말 따

(말따공화국)

넓이 316km²
인구 32만 2,100명(1976년)
수도 왈레따(주민 1만 8,300명)

자연 및 주민

지중해가운데 있는 섬나라이다.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3개섬에만 사람이 산다. 섬의 대부분은 암석으로 되여있다.

사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며 한해에 450~500mm의 비가 온다. 년평균기온은 24°C이며 겨울에도 0°C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계통의 혼혈인이다.

공용어는 말따어와 영어이나 이딸리아어도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이고 65명으로 구성, 임기 5년, 1976년 선거결과 레이버당이 34석, 국민당이 31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에서 선거, 대통령 안톤 부티지에그 (1976년 12월—)

정부 1976년 9월 레이버당정부 구성, 1979년 7월 9일 내각 개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에 창건, 위원장 안또니 발다끼노, **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기독교로동당, 진보립헌당, 민주민족당, 반제전선, 로조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말따는 1814년부터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있

다가 1964년 9월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71년 6월부터 레이버당이 집권하여 반제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레이버당정부는 수립되자 영국인총독을 내쫓고 말따인으로 교체하였으며 영국인들이 경영하던 공업기업소의 관리권을 빼앗아 말따인에게 넘겨주었다.

1971년 11월 정부는 말따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여온 《나토지중해사령부》를 내쫓고 미제의 해군함선들의 말따항구 리용을 금지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영국이 강요한 낡은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총독제를 없애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78년 7월에 영국방송국, 11월에 영국문화쎈터를 페쇄하였다. 1979년 3월 31일 영국과 맺은 군사기지사용협정의 기한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말따령토안의 영국군사기지가 완전히 철페되였으며 말따에 주둔하고있던 영국군의 마지막부대 500명이 철거하였다.

말따정부는 지중해지역의 평화를 주장하며 지중해연안나라들과의 친선협조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리비아, 알제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

1979년 3월과 10월에 리비아와 말따 수뇌자들의 호상방문이 있었으며 3월 28일 알제리와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해 6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7월에 기네대통령이 말따를 방문하였으며 말따총리가 7월에 수리아, 이라크, 9월에 쿠웨이트, 아랍추장국련방을 방문하였다. 8월 8일 몽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선박공업, 배수리공업, 방직공업이 경제에서 큰 몫을 이루고있으며 로동인구의 60%이상이 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이 약 45%를 차지한다. 말따정부는 조선소, 화물중계항시설건설을 포함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시키고있다. 특히 1980년도에는 예산의 많은 몫이 마르싸록크항의 방파제건설과 도로건설에 돌려지고있다. 가공공업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방직공업제품은 1978년에 6천 860만말따파운드어치 수출되였다. 자원으로는 석재밖에 없다.

농업에서는 밀, 보리, 감자, 목화, 포도, 남새류를 재배하고있다.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힘쓰는 한편 식량수입을 점차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바다를 끼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해상운수와 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외화수입에서 관광업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관광객수는 해마다 4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천, 신발, 포도술 등을 수출하고 공업제품, 연료, 식량 등을 수입한다.

카톨릭교가 국교이며 종교의 영향력이 크다.

출판보도; 신문 말따 뉴스, 일혤시엔(레이버당기관지), 일 빼쁠루(국민당기관지), 데일리 뉴스(국민당계), 말따 타임스(보수계신문), 오리존트(로조련맹기관지)

방송 말따라지오방송, 말따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말따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4월 15일 조선통일지지말따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5월 31일 우리 나라 정부와 말따정부사이에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979년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말따정부는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0일 말따총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레이버당 당원들과 말따인민은 7월 3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1979년 3월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말따의 드레곤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3월 말따를 방문하였다. 말따정부경제대표단이 10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이 말따를 방문하였다. 3월 31일 말따에서 외국군사기지를 페쇄하는 기념행사에 우리 나라 부총리가 참가하였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넓이 24만 4,030km²
인구 5,583만명(1978년)
수도 런던 (주민 697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만섬, 아일랜드섬의 동북부지역인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기후이다. 안개가 끼고 맑은날이 드물며 비가 많이 내린다. 런던의 한해 평균기온은 9.9°C, 최고 17°C이며 제일 낮을때에 4°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793mm이다.

1979년 12월 26일 잉글랜드북부 스코틀랜드남부 지역에서 50년만에 가장 큰 지진(리히터척도로

세기5)이 있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앵글로색손족이며 주로 잉글랜드에서 산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켈트족이 많이 산다.

국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왕 국왕은 본토와 해외령 및 일부 영련방성원국들의 국가원수, 정치적실권은 없다. 국왕 엘리자베스 2세 녀왕 (1952년 2월—)

추밀원 국무에 관한 국왕고문관들의 집합체, 고문관들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내각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추밀원은 의회의 소집을 권고한다.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일정한 수가 없고 국왕이 임명하는 왕족, 귀족, 상소재판기관의 법관, 교회의 주교 등으로 구성, 하원에서 채택한 법안을 지연시킬수는 있어도 부결시킬수 없다. 1979년 5월 현재 1천 142명, 하원은 립법권을 행사하며 635명으로 구성, 임기 5년, 1979년 5월 총선거 결과 보수당 339석, 레이버당 268석, 자유당 11석, 통일북아일랜드유니오스트당 10석, 스코틀랜드민족당 2석, 웨일즈민족당 2석, 기타 3석

정부 1979년 5월 5일 보수당정부 구성, 총리 마거리트 태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 창건, 1979년 11월 제36차대회 진행, 위원장 믹크 맥가히, 총비서 고든 맥클난, **레이버당, 보수당**(집권당), **자유당, 통일북아일랜드유니오스트당, 스코틀랜드민족당, 웨일즈민족당,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제2차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를 비롯한 침략적인 군사동맹들과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을 꾸며냈으며 주요국제문제들에서 미제를 추종변호하고있다. 2차대전후 약화된 영제국주의는 옛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보존해보려고 날뛰였으나 많은 식민지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대영제국》은 볼꼴없는 력사의 퇴물로 되였다.

영국에서는 력대적으로 보수당과 레이버당의 량당정치가 실시되고있다.

1974년 2월 총선거후 성립된 레이버당정권은 경제정책의 파탄으로 그후 보결선거에서 련이어 패배하여 통치능력을 잃고 소수파정부로 굴러떨어졌다. 소수파여당으로 전락된 레이버당은 1977년 3월 자유당과 《정책협의협정》을 맺고 자유당의 지지에 의거하여 겨우 의회를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자유당이 레이버당과의 《정책협의협정》을 1978년 7월말까지 유지하고 해소함으로써 레이버당정권은 완전히 소수파정부로 되였다.

1979년 5월 3일 총선거에서는 레이버당이 307석으로부터 268석으로 국회의석이 줄어들고 2당이던 보수당이 282석으로부터 339석의 단독과반수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

1979년에 영국근로자들은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상반년동안에만도 238만명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기계제작공업, 선박공업부문의 200만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벌려 사회경제적혼란이 일어났으며 독점자본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북아일랜드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는데 1월 11일에는 유조차운전수들의 파업으로 휘발유와 석유의 공급이 전면적으로 끊어져 영국군에 출동명령을 내려 연료수송을 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영국정부는 11일 《지역대책특별위원회》라는것을 설치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8월 12일 런던에서는 정당들과 로조 및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밑에 수많은 주민들이 영국침략군의 북아일랜드강점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1979년에 영국정부는 짐바브웨에서 저들의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지반을 유지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1979년 9월에 있은 로데시아문제에 관한 런던회담에서 영국은 짐바브웨애국전선측을 따돌리고 로데시아괴뢰들과 일방적인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발악하였으며 11월에는 괴뢰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 《정권》에 지지를 줄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해 12월 로데시아에 관한 평화협정이 조인된후에도 짐바브웨에서의 총선거에서 애국전선의 승리를 가로막기 위하여 《특별기금》까지 창설하여 괴뢰들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짐바브웨인민을 대표하는 애국전선이 압도적다수를 쟁취함으로써 짐바브웨에서 애국전선의 합법적정부가 수립되였다. 이리하여 짐바브웨를 영원히 지배하려던 영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파탄되였다.

1979년 10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고 두나라간의 교육문화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민용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공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총생산에서 가공공업이 90%를 이루고있으며 수출의 80%는 공업제품이다.

공업에서는 강철, 기계, 자동차및항공기제작, 차량, 선박, 섬유 공업이 주요부문으로 되고있다. 공업은 런던주변과 버밍감에 집중되여있다. 방직공업은 영국서북부, 기계, 항공기공업은 벨파스트가 중심지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석회석, 화성암,

석고, 점토, 연광, 주석, 유모혈암, 중정석, 돌소금 등이 있다.

북해유전이 197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1978년에 5천 400만톤의 석유를 채취하였다.

농업에서는 축산이 5분의 4를 차지한다. 농업인구는 1978년에 120만 5천명이였다. 식량의 절반은 수입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콩, 감자 등이다. 1978년에 밀은 645만톤, 보리는 983만톤, 감자는 707만 2천톤 생산되였다.

축산에서는 고기, 우유, 치즈, 빠터 등을 생산한다. 1978년에 소고기는 102만8천톤, 가금고기는 69만2천톤 생산하였다.

수산업은 북해, 아일랜드 앞바다,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앞바다에서 한다. 청어, 대구, 가오리, 연어, 새우 등을 잡는데 1978년 어획고는 127만 5,000톤이였다.

산림면적은 87만 8,120헥타르이며 팔프, 건축용재에 필요한 목재제품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경제의 침체상태는 1979년에도 계속되여 4.4분기만도 346개의 회사가 파산되였으며 1980년 1월에 실업자는 147만 620명으로 늘어나 로동력의 6.1%에 달하였다.

1979년에 통화팽창률은 17.4%에 이르렀으며 식료품값은 6%, 봉사료금은 2.5% 올랐다. 소농경리의 실질수입은 17%나 떨어졌다.

영국에서는 해마다 5만세대가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고있으며 100만세대가 초보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있지않은 집아닌집에서 살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엑스췌인지 텔레그라프

신문 모닝 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가디언(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보수우파계), 타임스(중립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신문), 데일리 메일(보수계)

방송 비비씨방송, 비비씨텔레비죤방송, 아이티에이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영국조선무역회가 결성되고 같은해 11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1976년에 영국조선위원회,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 (7월 10일)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9년 10월에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 성원들인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하원 의원들은 10월 3일 평양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 일 랜 드

(아일랜드공화국)

넓이 7만 283km²
인구 335만 5,000명(1979년 8월)
수도 더블린 (주민 66만 3,000명)

자연 및 주민

아일랜드는 북해에 있는 아일랜드섬의 중부와 남부 및 서북부를 차지하고있다.

흐린날이 많고 짙은 안개가 자주 낀다.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6~7°C, 7월에 13~16°C이다. 한해강수량은 중부와 동부지역에서 750~1,000mm,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1,500~2,000mm이다. 얼음강의 흐름으로 생긴 호수가 많다. 아일랜드에서 1979년 11월 30일에 많은 모래비가 내렸는데 코크시에서만도 모래비가 6만톤이 내렸다.

주민의 대부분이 켈트족혈통의 아일랜드족이다.

언어는 켈트어계통의 아일랜드어와 영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하원의원은 148명, 상원의원은 60명, 임기는 5년, 1977년 6월 16일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84석, 통일당이 43석, 레이버당이 17석, 무소속이 4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패트릭 힐러리(1976년 11월—)

정부 1979년 12월 11일 구성, 총리 잭 린치(1977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75년 3월에 북아일랜드공산당과 아일랜드로동당이 합당, 1979년 2월 17차대회 진행, 총비서 마이클 오리오르단, **공화당**(집권당), **통일당**, **레이버당**,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 **신페인당**, **공화운동**, **로동련맹**

아일랜드는 12세기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밑에 있다가 1921년 12월 6일 《아일랜드자유국》으로 되였다. 이때 아일랜드 32개주가운데서 신교도가 많이 사는 북동지방의 6개주를 제외한 26개주만 아일랜드에 속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원래 하나였던 이 나라는 더블린을 수도로 하는 아일랜드와 벨파스트를 행정중심지로 하는 북아일랜드(영국의《령지》)로 갈라졌다.

1937년에 아일랜드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49년 4월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7년 6월 16일 총선거결과 공화당이 통일당파 레이버당의 여당련합을 누르고 5년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다.

공화당정부는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며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군의 철거를 요구하고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는 로마카톨릭교다수파주민들과 신교도소수파주민들사이의 교파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에 1만 4천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제품(빠터, 소젖가공, 고기가공), 담배, 맥주, 방직 등 경공업이다.

야금, 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농기구, 화학비료, 석유, 전력 등 공업이 있으나 규모가 적고 토대도 미약하다.

주요농작물은 집짐승먹이작물과 사탕무우, 아마 등이다. 알곡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과 축산물가공제품이며 석탄, 자동차, 비료, 알곡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48% 차지)이다.

실업자는 1979년 1월에 10만 3천명이였다.

주민의 95%는 카톨릭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아일리쉬 프레스, 글레아스(공산당기관지), 유나이티드, 아일리쉬맨(신페인당계), 이브닝 프레스, 아일리쉬 타임스

방송 아일랜드방송, 아일랜드텔레비죤방송

화 란

(화란왕국)

넓이 3만 6,900km²
인구 1,388만명 (1977년 12월)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72만 8,746명)
왕궁, 정부소재지는 헤그(46만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서독, 벨지끄와 잇닿아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해발 100m 미만의 낮은 지대이며 4분의 1은 바다물면보다 낮다. 바다물면보다 낮은 지대는 해안선을 따라 너비 40～50m의 방파제로 둘러싸여있다. 날씨는 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하며 겨울에도 해안에서 령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강수량은 년평균 650～700mm이다.

주민은 화란사람, 프라망사람, 프리즈사람들로 나눌수 있으나 대부분은 게르만족혈통의 화란사람이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75명이며 임기는 6년, 3년마다 11개주의 주의회에서 반수를 개선, 법안제출권은 없음. 하원의원은 150명이며 임기는 4년, 1977년 5월 선거결과 기독교민주세력과 자유민주인민당이 77석 차지

국왕 율리아나녀왕 (1948년—)

정부 1977년 12월 기독교민주세력과 자유민주인민당의 중간우파련립정부 구성, 총리 안드레아스 판 아흐트 (1977년 12월 19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 창건, 위원장 행그 후크스트라, **기독교민주세력**(련립집권당) 1976년에 이전 카톨릭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련합이 결성한 공동선거강령그루빠, **자유민주인민당** (련립집권당), **레이버당, 급진정치당, 민주주의자—66, 국가개혁당, 사회민주당, 개량주의정치동맹, 농민당, 로조련맹, 카톨릭로조련맹, 기독교로조련맹**

화란은 1814년에 독립하여 왕국을 형성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에 해방되였다. 화란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냈다.

나토와 구라파공동체 성원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미제에, 경제적으로는 서독, 프랑스, 영국, 벨지끄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있다.

화란은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미제에 의존하고있다. 1979년 12월 20일 국회는 화란과 기타 서구라파 나라들에 새로운 핵무력을 배치할데 대한 나토의 계획을 거부할데 대한 야당의 제안을 부결하고 미제의 전쟁책동에 가담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11월 15일과 23일에는 암스테르담, 24일에는 유트레히트에서 수천명군중이 홰불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1월에는 수도와 기타 도시들에서 미제의 중성자폭탄생산을 규탄하여 대중적인 시위들이 있었다.

4월에 방글라데슈대통령이 화란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 화란총리가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 경제에서 공업생산이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석유, 천연가스, 화학, 금속, 기계, 선박, 식료 공업이다. 선박공업은 수출과 주문생산을 목적으로하며 기계공업은 배의 엔징, 부속품, 유전설비, 전기기계 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공업은 미, 영, 서독 자본에 얽매여있으며 나토의 주요군수공업기지의 하나로 되고있

다. 공업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한다.

화란은 전통적인 농축산국이며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부침땅의 3분의 2는 초원파 집짐승먹이재배지이다. 축산제품으로는 치즈, 빠터, 통졸임, 소젖가루 등을 생산한다.

농업은 집약화, 기계화되고있다. 밀은 헥타르당 약 5톤, 보리는 4톤, 감자는 33톤 생산한다.

화란에서는 원예화초재배를 많이 한다.

북해어장을 끼고있어 수산업도 경제에서 큰 몫을 이루고있다. 또한 국민소득에서 해운업의 몫이 많으며 국내운수에서는 철길과 운하를 많이 리용한다.

축산제품, 원유제품, 화학제품, 강철, 기계, 선박 등을 수출하며 식료품, 기계류, 원유, 기타 원료들을 수입한다. 수입의 80%, 수출의 95%는 서구라파 특히 구라파공동체에 의거하고있다.

주민의 40%가 카톨릭교, 30%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피

신문 드 바아르 하이트(공산당기관지), 오피니에(레이버당기관지), 크리스텔리크 히스토리쉬웨그 블라트(기독교력사련합기관지), 암스테르담《뉴스네트》, 헤트파롤

방송 피오비방송, 에이브이아르오방송, 화란세계방송, 화란텔레비죤방송

벨 지 끄

(벨지끄왕국)

넓이 3만 513km²
인구 984만 1,000명 (1979년 1월 1일)
그중 외국인 10%
수도 브류쎌 (주민 110만명, 교외인구 포함, 그중 외국인 22.4%)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북쪽에 있다. 해발 100m 이하의 땅이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온대해양성기후로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러나 항상 흐려있다. 평균기온은 1월에 3°C, 7월에 17～18°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00～800 mm이다.

주민은 북부에 사는 화란계 프라망인(55%)파 남부에 사는 프랑스계 왈롱인(44%)으로 구성되여있다. 북부에서는 화란어(프라망어), 남부에서는 프랑스어(왈롱어)가 공용어로 되고있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181명, 임기 4년, 하원의원수 212명, 임기 4년, 1978년 12월 총선거 결과 기독교사회당 82석(프라망파 57, 왈롱파 25), 사회당 58석, 자유진보당 22석, 개혁자유당 15석, 인민동맹 14석, 프랑코폰민주전선 11석, 왈롱인련맹 4석, 공산당 4석, 기타 2석

국왕 보도앙 1세 (1951년—)

정부 1979년 4월 3일 기독교사회당 (프라망파, 11명), 사회당 9명, 프랑코폰민주전선 2명으로 련립정부 구성. 총리 윌프레드 마르텐스 (1979년 4월 2일—, 프라망파기독교사회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 4일 창건, 1979년 3월 23차 전국대회 진행. 위원장 루이스 반게이트, **기독교사회당**(련립집권당), **사회당**(련립집권당), **프랑코폰민주전선**(련립집권당), **인민동맹, 자유진보당, 개혁자유당, 왈롱인련맹**(프랑스어계), **로동총련맹, 기독교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벨지끄는 1830년에 화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후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9월에 해방되였다.

벨지끄에서는 정치가 력사적으로 각이한 언어를 쓰고있는 프라망인파 왈롱인들사이의 대립과 알륵을 축으로하여 움직이고있다.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파 언어적인 정당이 있지만 전국적인 정당도 왈롱파와 프라망파로 갈라져있다. 이리하여 정책적문제를 둘러싼 의견상이로 자주 정부위기를 겪고있다.

1977년 4월 총선거후 기독교사회당을 중심으로 사회당, 인민동맹, 프랑코폰민주전선의 4당련립내각이 구성되였으나 각이한 언어지역들에 자치권을 주고 이에 기초하여 벨지끄련방을 형성하자는 사회당과 왈롱인련맹의 주장으로 련립정부는 1978년 10월 11일 무너지고 관리내각이 조직되였다. 12월 17일 또다시 선거가 실시되였으나 프라망인파 왈롱인사이의 론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총선거후 정치위기가 계속되여오다가 1979년 4월 3일 기독교사회당(프라망파)위원장 마르텐스를 총리로 하는 기독교사회당, 사회당, 프랑코폰민주전선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벨지끄는 나토, 서구동맹, 구라파경제공동체 성원국으로서 브류쎌에는 나토의 본거지인 《나토리사회》와 《나토군구라파합동사령부》가 있으며 미국 및 서구라파 나라들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화란 및 룩셈부르그와는 동맹을 맺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

1979년에 벨지끄에서는 임금인상파 실업을 반대

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2월에 들어서면서 벨지끄의 국경도시 아류스에서는 벨지끄, 프랑스, 룩셈부르그의 야금로동자들이 《실업을 없애라!》, 《완전취업을 보장하라!》는 구호밑에 대중적인 시위를 벌리고 2월 16일 세나라 로동자들이 총파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6일 벨지끄의 룩셈부르그주에서는 수천명의 야금로동자들이 로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벌렸다. 이밖에도 7월에 브류쎌과 기타 주요도시들의 전신전화 및 체신업무를 마비시킨 체신부문 근로자들의 파업 등이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벨지끄는 석탄생산지대를 기반으로하여 강철, 화학, 유리, 세멘트, 금속가공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자원은 적고 경제전반에 걸쳐 대외시장에 많이 의존하고있다. 유색금속가공공업은 수입광석에 전적으로 의거하고있으며 주로 동, 연, 아연, 주석을 가공하여 수출한다.

방직공업, 원유가공,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전자공업도 발전하고있다. 그러나 주요경제부문은 7개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는데 《소시떼 제네랄》은 동제련의 90%, 아연생산의 80%, 석탄및야금공업의 40%, 은행자본의 절반을 독차지하고있다. 공업부문에는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1천여개의 회사를 틀어쥐고있다.

최근년간 벨지끄에서는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간공업인 강철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문에서 기업체들의 파산건수가 늘어나 1979년 1월부터 11월까지만도 2,600개이상이 파산되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는 경영활동의 20%가 줄었으며 방직공들가운데서 실업자는 65%나 늘어났다. 이리하여 이해말에 실업자는 31만 1천명이상에 이르렀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7%밖에 안되며 취업인구의 1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사탕무우, 감자, 아마 등이다.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약 60%를 이루며 부침땅의 절반에는 집짐승먹이작물을 심는다.

벨지끄는 무역국으로서 국민총생산의 50%는 수출한다.

주요수출품은 강철, 기계, 차량이며 금속제품, 원유, 식량 등은 수입한다. 특히 최근년간에는 무기수출이 많아졌는데 1979년 10달동안에는 그것이 120억딸라에 달하였다. 주요무역대상국은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벨지끄에서는 해마다 50만건의 교통사고가 나 세계에서 꼽히고있다.

주민의 90%가 카톨릭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끄통신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가제트 반앙트베르빵, 볼크스 가제트, 쩩메스 도쥬르듀이, 피플

방송 벨지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 벨지끄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11일 조선통일지지벨지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8월에는 조선통일지지벨지끄 프라망지역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0월 11일 조선통일지지 벨지끄위원회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8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브류쎌과 지방도시들에서 진행되였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넓이 2,586km²
인구 36만명(1977년초)
수도 룩셈부르그 (주민 8만 8,000명)

자연 및 주민

벨지끄, 서부독일, 프랑스사이에 끼여있는 내륙국이다.

1월의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0°C이며 남부에서 2°C, 7월평균기온은 전국적으로 17.3°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750~800mm이나 북부산지에서는 1,000mm를 넘는다.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사람이며 프랑스사람, 독일사람, 이딸리아사람도 많이 산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도시에 몰켜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공문서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쓴다.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5년, 의원수는 59명,

1979년 6월 10일 총선거결과 공산당 2석, 기독교사회당 24석, 사회로동당 14석, 민주당 15석, 사회민주당 2석, 기타 2석

대공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대공(국왕) 쟌 (1964년—)

정부 1979년 6월 11일 기독교사회당정부 수립
총리 웨르네르 (1979년 6월 1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위원장 레네 우르바니, 명예위원장 도미니크 우르바니, **민주당**(이전 자유당), **기독교사회당**(집권

당), 사회로동당, 사회민주당, 로동자로조련맹, 기독교로조련맹

룩셈부르그는 1815년에 대공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에 해방되였다.

나토와 구라파경제공동체 성원국으로서 자기 나라 병력을 나토에 밀어넣고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서구라파나라들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1979년에 룩셈부르그 남부에 2개의 미군사기지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룩셈부르그땅에서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벨지끄, 룩셈부르그 구분대들의 참가밑에 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이웃나라들인 화란, 벨지끄와 《관세동맹》, 《경제동맹》을 맺고있다.

룩셈부르그는 구라파금융중심의 하나이며 수도에는 외국은행들과 금융기구들이 집결되여있다.

1979년 6월의 총선거결과 사회로동당과 민주당의 련립정부가 물러나고 50년이상 정권을 잡고있던 기독교사회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룩셈부르그는 풍부한 철광석자원에 토대하여 채굴공업과 야금공업이 일면적으로 발전되였다.

강철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25%를 차지하며 인구 한사람당 년평균강철생산량은 15톤에 이르고있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야금공업은 《아르베드》(프랑스자본과 련결된 독점체)와 《쏘씨에떼 제네랄》(벨지끄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으며 나토의 군수공업에 복무하고있다.

농업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6%밖에 안되며 여기에서는 주민의 10%가 일하고있다. 농업생산에서는 축산업이 80%이상을 차지한다. 원예업, 포도재배업 등을 많이 한다.

룩셈부르그는 규모에서 런던 다음가는 구라파금융중심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상업은행을 포함한 108개은행과 42개의 개인경영보험회사가 등록되여있으며 증권시장, 5천개의 경영증권을 가진 주식회사들이 있다. 구라파자본시장에서 30%의 서독마르크와 12%의 구라파딸라의 경영업무는 룩셈부르그에서 진행되고있다.

강철, 압연제품, 선철, 철광석, 섬유, 포도술 등을 수출하고 석탄, 기계, 알곡, 식료품 등을 수입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짜이퉁 품 레트쩨부르게르 폴레크(공산당기관지), 레쩨부르게르 쥬르날(민주당계), 룩셈부르게르 보르트, 타게 블라트

방송 룩셈부르그방송, 룩셈부르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6월 9일 룩셈부르그조선통일지지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8월에 룩셈부르그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넓이 55만 1,208km²
인구 5,318만 3,000명 (1978년 1월)
수도 빠리(주민 230만명, 대빠리는 1,000만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는 프랑스는 본토와 꼬르스섬을 비롯한 주변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일반적으로 따뜻하다. 동북부는 기온의 차가 적으며 남부는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도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11°C, 년평균강수량은 500∼700mm이다.

1979년 5월 2일 프랑스의 대부분지역에서 때아닌 추위가 들이닥치면서 빠리와 동부및중부지역들에 눈이 내리는 등 34년만에 처음보는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났다.

주민의 기본은 켈트족계통의 프랑스사람들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알사스 로렌지방에서는 독일어를 쓴다.

정 치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여있다. 국민의회는 립법권을 행사하며 의원은 491명, 임기 5년, 참의원의원은 283명, 임기 9년, 3년마다 의원의 3분의1을 개선한다. 간접선거제, 하원과 같은 법안의 심의권을 가지며 지방자치체의 리익과 외국에서 사는 프랑스인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1978년 3월 국민의회 선거결과 공화국련합 148석, 민주주의련합 137석, 사회당 103석, 공산당 86석, 급진운동좌파 10석, 기타 7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총리를 임명해임하고 정부를 조직하며 법령에 서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대통령은 없다.

대통령 발레리 지스까르 데스땡(1974년 5월 27일—)

정부 1978년 4월 6일 제3차 바르내각 성립, 총리 레이몽 바르(1976년 8월 27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 창건, 1979년 5월 제23차대회 진행, 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사회당** 1969년 7월 창건, 1979년 4월 5차대회 진행, 제1비서 프랑쑤아 미떼랑, **공화국련합**(드골파), **민주주의련합**(공화당, 사회민주중간파, 급진당 등으로 구성), **좌파급진운동, 통일사회당, 로동총련맹, 프랑스민주주의로동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프랑스에서는 1789～1794년 부르죠아혁명으로 1천년동안 내려오던 봉건제도가 철폐되였다. 1792년 9월 제1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그때부터 1958년까지 4개공화국이 존재하였다. 1958년 10월 새 헌법이 채택되고 드골을 초대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수립되였다. 1974년 5월 공화당 당수 데스땡이 제5공화국의 3대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데스땡은 집권후 국제수지의 개선, 인플레억제 등을 약속하였으나 프랑스의 정치경제위기는 계속되였다. 통화팽창률은 높아지고 국제수지는 악화되였으며 실업자대렬은 늘어나 큰 사회적문제로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진행된 1976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의 《좌익련합》이 《우익련합》세력을 누르고 압도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데스땡은 8월 쉬라크대신 바르를 총리로 임명하였으나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프랑스인민들은 일자리의 보장과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각곳에서 들고일어났다.

1979년 2월 9일 북부로랑의 강철생산중심지인 롱위에서는 《강철공업의 재편성》을 위하여 2만명의 로동자들을 해고시키려는 당국의 계획을 반대하여 파업자들이 1천500톤의 철광석을 실은 화물렬차에서 그것을 끌어내려 철길에 부리워놓음으로써 빠리 룩셈부르그 기간철도를 봉쇄해버렸다. 이날 릴지방의 강철로동자들은 빠리에 밀려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로렌, 노르, 빠드깔레현의 탄부들도 련대성파업을 벌렸다. 5월 17일에는 260만근로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 사회경제생활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근로자들의 이와같은 파업투쟁은 1월에 41개현에서 366건 있었으며 9월에는 전력, 가스, 방직부문을 비롯한 여러부문들에서 도합 1천200여건이나 있었다.

프랑스는 국방력증강 5개년(1977～1982)계획에서 군사비를 1977년의 580억프랑으로부터 1982년에는 1천 140억프랑으로 늘일것을 예견하고 그간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1979년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한 보고에서는 프랑스의 핵무력이 3년동안에 배로 늘어났으며 1985년까지에는 핵무기보유수를 그 2배로 늘일것이라고 하였다.

1979년 7월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무르로아산호섬에서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다.

1979년 4월 데스땡은 쏘련을 방문하고 장기경제공업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80～1990년) 등 4개협정에 조인하였다. 5월에는 르완다, 수단, 희랍,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하였다. 10월에 중국 국무원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두나라간의 경제관계의 발전을 예견하는 문건, 령사관을 개설할데 대한 공동선언에 조인하였다. 9월에 요르단국왕이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공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60%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 카리, 석유, 아연, 연 등이 있다. 석탄은 동북부, 철광석은 로렌, 안류, 노르만지지방에 많다. 특히 동부의 철광석과 쁘로방스지방의 보크사이트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강철, 화학, 방직, 자동차, 기계 공업이 주요공업부문으로 되고있으며 빠리, 세느강하류, 알사스로렌, 릴, 마르세이유, 리옹 지역에 공업이 집중되여있다.

최근년간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사이의 경쟁으로 하여 여러 공업부문이 위기를 겪고있다.

석탄생산은 1979년에 52년보다 60%나 줄어 19만명의 탄부들이 해고되였으며 광산은 62년래 30개나 폐쇄되여 2만명의 광부들이 해고되였다. 수많은 공작기계공장, 조선소들이 문을 닫아 1979년 4월까지만도 4천 300여개의 기업소들이 폐쇄되였다.

프랑스는 구라파에서 첫째가는 농업생산국으로서 알곡, 포도, 우유 등을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에 수출하고있다. 농업생산에서 50%는 축산물이다.

1977년에 물고기생산량은 75만톤이였으며 정어리, 대구, 연어, 고등어, 새우 등을 잡는다.

주요수출품은 화학제품, 강철, 기계, 알곡, 직물, 자동차, 포도술 등이며 석탄, 콕스, 양모, 목화, 석유, 목재, 동, 고무, 과일, 남새 등을 수입한다.

프랑스에서는 1976년후 통화팽창률이 해마다 거의 10%에 이르고있다. 대외무역적자는 1979년에 101억프랑이였다.

물건값은 1979년에 평균 13.1% 올랐는데 그중 약값은 12.6%, 옷값은 15.7%, 식료품값은 9.9% 비싸졌다. 로동자들의 구매력은 평균 1.3～3.3% 떨어졌으며 농민수입은 6년째 계속 낮아지고있다.

대토지소유주들에게만 리득을 주는 《구라파공동시장》의 부당한 농업정책과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사이의 치렬한 경쟁으로 해마다 12만개의 소농경리가 파산되고있다. 실업자는 1979년 1월에 전후 최고를 기록하였는데 10월에는 그 전해같은시

기에 비하여 10%나 늘어나 147만명이상에 달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로동재해로 해마다 2천명이 죽고 10만명이 불구자로 되고있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프랑스 누벨(공산당주간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쀠블리끄 프랑쎄즈(정부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오로르(우익계), 프랑스수아르(보수계), 피가로(보수계), 몽드, 꽝바

방송 구라파 제1방송과 그밖에 2, 3, 4방송이 있으며 3개의 텔레비죤방송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5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빠리에 개설되였다.

1969년 12월 8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28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에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와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프랑스국회의원 43명은 6월 25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를 위하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14명의 사회당소속 국회의원과 인사들이 추가로 수표하였다.

7월 15일에는 98명의 프랑스시장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20일 〈프랑스사회주의조선연구소조〉는 조선정세와 관련한 결의를 발표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3월 14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사회당 전국비서국은 10월 16일 남조선파쑈도당의 야당 및 인권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3일에는 프랑스 시장, 부시장, 평의원들 82명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동결시키고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여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9년 5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프랑스공산당 23차대회에 참가하였다. 6월에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빠리에서 공연하였다.

모 나 꼬

(모나꼬왕국)

넓이 1.4km²
인구 3만명(1976년)
수도 모나꼬 (주민 1만명)

자연 및 주민

프랑스의 동남쪽, 이딸리아와의 국경가까이의 지중해 연안에 있다. 3개지구로 나뉘여있으며 건물로 들어차있다.

경치가 좋으며 사철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열대식물이 많이 자라고있다.

주민은 모나꼬사람, 프랑스사람, 이딸리아사람들로 이루어지고있다.

언어는 프랑스어와 모나꼬어를 쓴다.

정 치

국왕 레니에 3세
국회 18명의 의원들로 구성, 임기 5년
정부 총리 샤르르 바레리오

모나꼬는 1861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으며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되였다. 실제상 프랑스의 〈보호〉밑에 있다.

경제, 사회문화

관광업, 우표판매, 담배 등의 수출이 재정원천으로 되고있다.

모나꼬는 유람지, 도박장으로 이름난 곳이나 모나꼬사람들이 도박을 하는것은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프랑스가 관세권을 가지고있다. 공민권은 모나꼬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티

신문 쥬르날 드 모나꼬 (정부기관지)

방송 몬떼 까를로방송, 몬떼 까를로텔레비죤방송

안 도 라

(안도라공국)

넓이 465km²
인구 2만 7,000명(1975년)

수도 안도라 라벨라 (주민 9,000명)

자연 및 주민

프랑스와 에스빠냐국경사이의 동부삐레네이산줄기에 있는 산악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해발 3,000m인 험한 산속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부락으로 이루어졌다.

날씨는 춥고 1년치고 절반은 깊은 눈에 덮여있다. 공용어는 라틴어의 일종인 까딸루냐어이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정 치

안도라는 옛날부터 《안도라중립계곡》이라고 불리였다. 프랑스와 에스빠냐는 안도라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싸워오다가 1278년에 이 나라를 저들의 공동관리밑에 넣었다. 그리하여 쌍방이 안도라에 각각 상주대표를 두고있다.

립법권은 임기 4년인 2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총평의회에 있다.

행정권은 총평의회가 임명하는 장관, 부장관에게 있다.

외교권은 사실상 프랑스가 대표하고있다.

군대는 없고 치안유지를 위한 15명의 경찰대가 있다.

경제, 사회문화

국가수입은 관광업과 《국제선전방송》에 의한 상품광고선전에 의존하고있다.

해마다 400만을 헤아리는 관광객들이 스키장과 천막야영소 등에 찾아든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무역 및 상업회의소들을 두고 이웃나라들과 거래하고있다. 옛날부터 두 나라의 자유관세지역의 특권을 가지고있으며 소득세가 없다.

주민들은 축산업과 담배, 보리, 남새 등을 재배한다. 프랑스와 에스빠냐와의 교통망이 발달하고 있다. 주민의 90%이상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뽀블레 안도라

방송 안도라방송

에 스 빠 냐

넓이 50만 4,750km² (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 포함)

인구 3,740만명(1979년 5월)

수도 마드리드 (주민 360만명, 1977년)

자연 및 주민

구라파의 서남쪽 지중해와 대서양사이의 이베리아반도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복잡한 지형의 영향을 받아 남북의 차이가 심하나 대부분지방에서 대륙성을 띠며 겨울에 령하 20°C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45°C까지 오른다. 바다가지대는 사철 따뜻하다.

강수량은 한해에 1,500~2,000mm이며 내륙지대에서 5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 에스빠냐인이나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베로, 켈트, 로마, 아랍 등 여러 인종과의 혼혈을 이루고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까스띨랴어)이다. 동북부에는 까딸로니아어, 북부에서는 바스끄어가 많이 쓰인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48명(그중 41명은 국왕이 임명), 하원의원은 350명

1979년 3월 1일 총선거결과 민주중심련합 168석, 사회로동당 122석, 공산당 23석, 국민동맹 9석, 까딸루냐사회통일당 9석, 바스끄국민당 7석 차지

국왕 후안 까를로스 부르봉 (1975년 11월 22일)

정부 1979년 4월 5일 민주중심련합의 단독내각구성, 총리 아돌포 쑤아레스 곤살레스 (1976년 7월 7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5일 창건, 1939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77년 4월 9일 합법화,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사회로동당** 1979년 5월 제28차대회 진행, 총비서 펠리뻬 곤살레스, **민주중심련합**(집권당), **사회인민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국민동맹**, **까딸루냐사회통일당**, **바스끄국민당**, **로동자위원회**(공산당소속로조), **로동총동맹**, **씬디깔로동자동맹**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에 군주제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36년 2월에 진행된 총선거에서는 인민전선이 승리하여 공산당을 포함한 인민전선정부가 구성되였다.

1936년에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지지밑에 프랑꼬도당이 반혁명무장반란을 일으켜 1939년에 독재정권을 세우고 1947년에 에스빠냐를 군주제국가로 선포하였다.

1975년 11월에 독재자 프랑꼬가 죽고 1978년 12월에 의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9년 3월 1일에는 1977년 6월에 진행된 40년만의 총선거에 이어 프랑꼬정권이 무너진이후 두번째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민주중심련합이 과반수인 176석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어 소수단독정권을 유지하게 되였다.

4월 3일에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사회로동당과 공산당이 많은 지지를 얻음으로써 사회로동당은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발렌씨아 시장을, 공산당은 꼬르도바 시장 등 주요 도시들의 시장자리를 차지하였다.

1979년 2월에 에스빠냐에서 직물공장로동자들과 건설로동자들 50만명이 1개월이상에 걸치는 전국적인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투쟁을 벌렸으며 4월에는 북부지방의 몇개도시들에서 20만명의 바스끄인들이 자치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대외적으로 에스빠냐는 서구라파접근정책과 친미로선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또한 지중해연안국가들이 단결, 협조하고 지중해의 주인이 될것을 주장하고있다.

1976년 1월 에스빠냐는 1953년의 《에스빠냐—미국방위협정》을 《에스빠냐—미국우호협조조약》으로 승격할데 대하여 미국과 합의하였다.

1977년 7월에는 구라파경제공동체가입을 신청하였으며 공동체는 이를 접수하고 회담을 시작하였다. 1977년 11월 에스빠냐는 구라파위원회의 20번째 성원국으로 되였다.

1979년에 총리가 알제리 (4월), 브라질 (8월), 프랑스(11월)를 방문하였으며 로므니아대통령(5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9월)이 에스빠냐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자본주의적공업국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철광석, 수은 등이 있으며 석탄은 1천 80만톤, 철광석은 860만톤 정도 생산된다.

공업부문에서는 강철, 자동차, 화학, 기계, 선박건조, 세멘트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으며 그밖에 농산물가공공업, 방직공업 등이 있다. 공업에서 전기, 군수공업은 미제가, 광업, 선박, 야금공업은 영국, 방직공업, 기관차 생산은 서독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농업인구는 1978년에 664만 4천명이였으며 부침땅은 1977년에 1천 563만헥타르, 그중 관개면적은 289만 3천헥타르였다.

농산물생산은 서구라파에서 프랑스, 서독, 이딸리아 다음가며 밀, 보리, 감자가 기본이다. 농업총생산액에서 알곡과 과일이 3분의2를 차지한다.

1978년에 사과는 95만1천톤 생산되였다.

주요수출품은 광물류와 유색금속(동, 알루미니움), 선박, 기계류, 가죽제품, 섬유, 올리브기름 등이며 석유, 화학제품, 고무, 기계 등을 수입한다.

1978년 3월말현재 완전실업자는 92만 7천500여명이였다.

세계에 이름난 투우술은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적색채를 나타내며 이것은 관광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에프이

신문 문도 오브레로 (공산당기관지), 엘 쏘씨알리스따(사회로동당기관지), 우니온 델, 뿌에블로, 마드리드

방송 국립방송, 에스빠냐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9년 9월에 에스빠냐공산당총비서를 비롯한 광범한 에스빠냐인민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진행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1979년 1월에 에스빠냐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5월에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에스빠냐사회로동당 제28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넓이 9만 2,200km²
인구 945만명 (1976년 7월)
수도 리스봉 (주민 150만명, 교외포함)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남부에서 지중해성, 북부에서 해양성을 띤다. 년평균기온은 16°C, 강수량은 700~1,000mm이다. 1979년 2월중순에 리스봉에서 100년만에 처음보는 무더기비로 큰물이 났다. 8m높이의 파도와 시속 170km이상의 바람이 서부해안을 휩쓸어 1만명이상이 집을 잃었다.

정 치

국회(공화국회의) 일원제, 의원수 263명, 임기 4년, 1979년 12월 2일 의원 250명을 선출하는 중

간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민주주의동맹(사회민주당, 사회민주중심당, 군주인민당의 련합)이 125석, 사회당이 73석, 인민통일동맹 (공산당, 민주운동, 민주주의좌익중심의 련합)이 47석, 인민민주동맹이 1석을 차지, 1980년 10월 15일에 국회선거가 진행된다.

대통령 안또니오 라말료 에아네스(1976년 7월 14일), 국가수반, 임기 5년

혁명리사회 대통령의 자문기관, 대통령, 총참모장, 부총참모장, 3군참모총장들로 구성

정부 1980년 1월 3일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중심당의 《민주주의동맹》정부 구성, 총리 푸란씨스꾸 싸 까르네이루(사회민주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 6일 창건, 1926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74년 4월 혁명후 합법화, 1979년 5월에 제9차대회 진행. 총비서 알바로 꾼할, **사회당** 1979년 3월 제3차대회 진행, 총비서 마리오 쏘아레스, **뽀르뚜갈민주운동, 민주주의좌익중심, 사회민주중심당, 사회민주당** 1974년 4월혁명후 인민민주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76년 10월 사회민주당으로 개칭, **군주인민당, 인민민주동맹, 기독교민주당, 혁명적사회당, 인떼르신디깔중앙로조**(근로자총련맹)

1974년 4월 25일 뽀르뚜갈에서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 1926년부터 이 나라를 통치하여온 파쑈독재정권이 무너졌다.

1976년 4월 2일 새 헌법이 발포되고 4월 25일 처음으로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사회당정부가 수립되였으나 정당들사이의 의견상이로 여러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8년에 정부위기가 계속되다가 11월에 무소속인물들로 구성된 모따 삔또내각이 조직되였다.

삔또정부는 4월혁명후 실시하던 《토지개혁》에 관한 헌법조항들을 수정하면서 《협동농장》의 토지를 이전 대토지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삔또정부는 독점자본가들과 반동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경제를 파탄에로 이끌어갔으며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시켰다.

삔또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은 인민들의 불만을 더욱 높였으며 각 정당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1979년 3월 북부공업도시인 오뽀르또와 쁘라가에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토지개혁을 고수하자》, 《민주주의적인 새 정부를 수립하자》, 《삔또정부 물러가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반정부시위를 벌리였으며 리스본과 기타 도시들에서도 10여만명이 《긴축예산》조치와 농업정책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사임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3월 22일 공화국회의는 총리가 제출한 1979년도 《긴축예산안》을 부결하였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1979년 6월 4일 공화국회의에 삔또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삔또정부는 조직된지 6개월만에 총사직 하지 않을수 없었다.

7월 19일 대통령은 루르데스 삔따씰고(녀자)에게 중간 총선거를 할때까지의 파도정부 구성을 위임하였다. 9월 11일 공화국회의가 해산되고 12월 2일 기한전 중간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우익세력들을 대표하는 사회민주당파 사회민주중심당, 군주인민당들이 《민주주의동맹》이라는 간판밑에 공동명의로 출마하였으며 집권당이였던 사회당은 단독으로 참가하였다.

좌익세력을 대표하여 공산당, 민주당, 민주주의좌익중심이 인민통일동맹의 공동명의로 참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인민민주동맹, 기독교민주당, 혁명적사회당 등 10여개 당파들이 참가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주의 동맹》이 125석을 차지함으로써 사회민주당의 당수를 총리로 하는 민간인정부가 구성되여 1980년 10월 14일에 있을 국회선거전까지 집권하게 되였다.

새 정부는 《정강》에서 경제체제를 개편하고 구라파경제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문제에서는 현농업체제를 개편하고 새《토지계약법》을 내오며 《국가의 토지를 개인농민들과 기타 농업회사들에 넘겨준다》고 하였다.

대외정책에 대하여서는 《구라파경제공동체》가입을 촉진시키며 나토에 《충실》할것이라고 하였다.

1979년에 뽀르뚜갈은 중국(2월), 오만(10월)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에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해 대통령이 2월에 기네—비싸우, 3월에 벌가리아, 로므니아, 웽그리아, 6월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뽀르뚜갈은 6월 18일 미국과 아조레스군도에 있는 라제스미공군기지의 사용기한을 1983년까지 연장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비교적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나 식료품의 절반은 수입한다.

령토의 40%가 부침땅이지만 대부분이 올리브, 포도, 과일 등 수출용작물재배에 치우치고있다.

1974년 4월혁명후 정부는 대규모적인 개인토지소유제도를 끝장내기 위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116만 3천여정보의 토지를 400여개의 농장에 분배하였다. 또한 대토지소유자들의 사냥터로 리용되던 수십만정보의 유휴지들을 개간하여 부침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파종면적이 26만 3천정보나 늘어났으며 알곡생산이 20만톤이상, 도마도는 10만 8,200톤 늘어났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지역에서 35만 2천마리의 집짐승과 1만 4천 520대의

농기계와 농기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1979년까지의 2년동안에 분배된 116만 3천정보의 토지가운데서 8만 8천정보가 이전 대토지소유자들에게 넘어갔다.

이 기간에 250여대의 뜨락또르, 47대의 수확기, 800대의 농기계와 농기구, 50개의 각종 건물과 2만여마리의 집짐승을 협동농장으로부터 빼앗아냈다.

공업으로는 석탄, 동, 주석 등의 채굴공업외에 식료가공공업 (포도술, 정어리통졸임, 올리브기름) 등이 있다. 비료, 세멘트, 선박, 기계공업 등도 있다.

이나라 코르크생산은 세계코르크생산량의 절반을 이루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르크, 포도술, 올리브기름, 목재제품, 정어리통졸임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강재, 식료품, 알곡, 직물, 기계류 등이다.

1978년의 무역적자는 13억1천 400만딸라, 외국의 빚은 50년래의 최고기록인 900억에스꾸도(1딸라=25에스꾸도)에 달하였다. 정부는 1979년에 석유와 식료품값은 전해에 비해 20% 올리고 인민들로부터 받아내는 소득세와 공공료금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1979년에 실업자는 10만명이였으며 아프리카의 이전 식민지들에서 돌아온 뽀르뚜갈인 43만명중 11만2천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해외로 떠나게 되였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노쁘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도 고베르노(정부기관지), 뽀르뚜갈쏘씨알리스따(사회당기관지), 우니따디(민주운동기관지), 배플(로조기관지), 디아리오 데 노띠시아스

방송 뽀르뚜갈방송, 뽀르뚜갈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1월 19일에 조선의 민주주의적평화통일지지뽀르뚜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9년 3월 17일 리스봉종합대학에서 《김일성주의연구뽀르뚜갈소조》가 결성되였다.

7월 27일 뽀르뚜갈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에서의 외국군대의 무조건 철거,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즉시 재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회담에 미국이 속히 응해나설것 등을 요구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재개되고 조선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때까지 부단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0월 30일에는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들과 정계인사들이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규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뽀르뚜갈위원회는 10월 1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해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한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리스봉과 지방도시들에서 1월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뽀르뚜갈을 방문하였다.

지브랄타르

(영국직할식민지)

넓이 6.5km²
인구 3만명(1977년)

지브랄타르는 구라파의 서남쪽 이베리아반도의 맨 남쪽,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주민은 이딸리아, 뽀르뚜갈, 에스빠냐사람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에스빠냐어이다.

지브랄타르는 원래 에스빠냐의 항구였으나 1701년부터 3년간 진행된 에스빠냐《왕위계승전쟁》후 《유트레히트조약》에 의하여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영국은 지브랄타르에 륙해공군기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

지브랄타르는 자유항이며 해마다 4천척의 배들이 드나들고있다. 또한 관광지로서 해마다 14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든다.

지브랄타르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북 미

카 나 다

넓이 997만 6,139Km²
인구 2,374만 2,000명(1979년 10월 1일)
수도 오타와(주민 70만명)

자연 및 주민

북미대륙의 북쪽에 있다. 북쪽령토의 절반이상은 북극권안에 들어가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우에 있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춥다.

북부는 겨울이 7~8개월이나 되며 여름은 짧고 봄파 가을이 거의 없다. 대서양파 태평양 남쪽기슭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곳의 평균기온은 1월에 −15°C, 7월에 20°C이다.

호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다. (진펄을 포함한 호수넓이는 령토의 10%)

주민의 44.6%는 영국계인, 28.7%는 프랑스계인(그중 4분의 3이 케베크주에서 산다) 그밖에 독일계, 우크라이나계, 이딸리아계, 중국계 사람들이 산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27만 6천명, 에스키모는 1만 8천명 있다.

민족구성이 복잡하기때문에 언어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되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각 민족들은 자기의 언어를 쓴다. 1977년 8월 케베크주 의회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은 104명이며 총독이 임명한다. 각주별로 의원이 선출된다. 법안은 상하량원파 영국녀왕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된다. 임기는 75살까지이다. 하원의원은 282명(1979년 5월 총선거부터 의원수를 개정)이며 임기는 5년.

1979년 5월 22일 총선거결과 진보보수당 136석, 자유당 114석, 신민주당 26석, 사회신용당 6석을 차지하였으나 12월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해산. 1980년 2월 18일 총선거 실시

총독 쥴스 레제, 정치적실권은 없다.
정부 1980년 2월 18일 자유당정부 구성.
총리 피에르 엘리오트 트루도
하원의원만이 내각성원으로 될수 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1980년 1월 24차대회 진행, 총비서 월리암 카슈탄 **신민주당, 자유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케베크당** 1968년에 창건, 케베크주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프랑스계카나다인들의 정당, **민족동맹, 로동대회, 공산주의청년동맹**

카나다는 1931년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카나다는 미제의 침략파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냈다.

카나다는 미제와 《공동방위협정》(1975년에 5년간 연장)을 맺고 《북미공중방위사령부》에 가담하였다.

카나다에서는 력대적으로 두 부르죠아정당들인 자유당파 진보보수당의 두당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1979년 5월 22일 총선거에서 진보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1968년부터 정권을 잡고있던 트루도의 자유당정부가 물러나고 6월 4일 클라크를 총리로 하는 진보보수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진보보수당은 자유당파 22석의 차이로 국회에서 제1당으로 되였으나 단독파반수를 이루지 못한 소수파여당으로되여 처음부터 국회운영에서 난관에 부딪쳤다.

한편 클라크정부의 반인민적인 시책파 대미추종정책은 카나다의 경제를 더욱 파국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인민들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12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클라크정권에 대한 지지률은 5월의 36%로부터 28%로 급격히 떨어졌다. 클라크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가운데 신민주당은 12월 12일에 클라크정부가 제출한 새해 《긴축예산안》은 《소득세감세》의 선거공약을 뒤집어놓을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12월 13일 정부불신임안은 130대 133표로 가결됨으로써 16년만에 성립된 진보보수당정권은 7개월도 못되여 총사직하였다.

헌법에 기초하여 하원이 해산되고 1980년 2월 18일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결파 자유당이 다수표(146석)를 얻어 정권을 잡고 트루도가 다시 총리로 되였다.

1979년 6월 3일 온타리오주와 서드베리주에서 1만 1천700명의 니켈광산로동자들이 이 나라 력사상 가장 오랜 8개월동안의 파업투쟁에서 승리하여

임금을 올릴데 대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였다.

이해 카나다당국이 태평양연안 카나다수역에 비법적으로 들어와 농어를 잡던 미국의 뜨랄선 19척을 억류함으로써 미국과 카나다간에 《농어전쟁》이 폭발하였다. 미제는 로골적인 위협공갈에 매달리면서 카나다의 농어수입을 중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카나다는 자본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중요공업은 종이, 자동차, 금속가공, 고무, 사탕, 항공기, 전자기, 방직 공업이다. 특히 종이공업과 유색금속공업이 큰 비중을 이루고있다.

중공업은 온타리오주, 경공업은 케베크주가 중심으로 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백금(생산량 세계제1위), 우라니움, 석탄, 금, 동, 아연, 류황, 원유 등이다.

공업은 미국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약 500억딸라의 미국자본이 들어와 자동차공업의 95%, 고무공업의 80%, 원유공업의 71%, 화학공업의 75%를 통제하고있다.

수출액은 국민총생산액의 거의 27%를 차지하는데 그 수출총액의 70%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다.

1979년에 미국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줄고 국내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리하여 공업생산이 내려가고 체화품이 늘어났으며 상품계약이 줄어들었다. 1979년 2.4분기 국민총생산액은 1.4분기보다 2.8% 떨어졌다.

인플레률은 9.1%, 년평균실업률은 7.3%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상반년에 년률로 9%이상 올라갔다.

농업인구는 1978년에 131만 2천명이였다. 농업생산은 국내총생산의 3.6%(1977년)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밀을 비롯한 알곡생산과 축산물생산을 주로 하고있다. 1978년에 밀생산량은 2천 100만톤(세계 5위)이였다.

국토의 44%가 산림이다. 신문용지생산량은 세계신문용지수요량의 42%에 해당한다.

세계 3대어장에 속하는 좋은 어장을 끼고있어 수산업을 많이 한다.

태평양연안에는 가재미, 대구, 청어, 새우, 연어 등이 많다. 수산물수출은 세계 제3위이다.

주요수출품은 신문용지, 밀, 팔프, 니켈, 우라니움, 알루미니움, 천연가스, 원유 및 원유제품,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강철제품, 기계공구, 석탄, 화학제품이다.

주민의 75%가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언 프레스

신문 카나디언 트리뷴(공산당기관지), 토론토스타, 썬데이 썬, 글로브 앤드 메일

방송 씨비씨방송, 씨비씨텔레비죤방송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넓이 936만 3,123Km²

인구 2억 2,220만 6,000명(1980년 2월 1일)

수도 워싱톤(주민 75만 6,500명)

자연 및 주민

북미대륙 중앙부의 본토와 서북부의 알라스카, 태평양상에 있는 하와이제도로 이루어졌다. 본토는 온대이지만 동서, 남북간의 기온차이가 크며 남부는 아열대성기후를 띤다. 기온은 같은 위도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년평균강수량은 서해안에서 2,000mm, 중부지방에서 500mm이하이다.

동부지방에서는 8, 9월에 심한 태풍이 불며 비가 많이 온다.

주민의 87%이상이 백인(구라파 특히 영국계 이주민들의 후손)이며 11.5%가 흑인(아프리카흑인노예의 후손)이다. 그밖에 원주민(인디안),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유태인(600만명)등이 살고있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은 매개주에서 2명씩 6년임기로 선거된 100명으로 구성, 2년에 한번씩 3분의 1을 개선, 의장은 부대통령이 겸임, 상원은 법안심의외에 각료, 대사, 련방재판소 정부기관 간부 등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을 승인하며 조약의 비준, 승인권을 가진다.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각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 임기 2년, 하원은 조약의 비준승인권은 없으며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한다. 1978년 11월에 하원선거, 상원의 3분의 1을 개선.

1980년 1월 정당별 국회의석수

	상원	하원
민주당	58	276
공화당	41	159
무소속	1	0

대통령 국가 및 정부수반, 그가 임명하는 장관들로 정부를 구성, 임기 4년, 3선은 금지, 선거는 11월에 하여 다음해 1월 20일에 취임.

대통령 제임스 엘 카터 (1977년 1월 20일), 국무장관 싸이러스 밴스 (1980년 4월 28일 사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위

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 홀, 민주당(집권당), 공화당, 세계로동자당, 자유당, 사회로동당, 사회당, 미합동로조,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흑인단체),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단체

1979년에 카터정권은 대내외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집권초기에 들고나왔던 모든 기만적인 정책적구호들을 집어던지고 침략과 전쟁준비책동을 로골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에서 사회적불안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1979년에 미국에서는 대내경제위기가 심화됨으로써 사회적불안이 더욱 커졌으며 지배층안의 모순과 알륵관계가 심각화되였다.

카터는 이해 다음기 대통령자리를 노리는 제놈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인플레대책》, 《에네르기대책》 등을 들고나와 심각화되고있는 국내경제형편을 완화시켜보려고 발악하였으나 그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인플레는 의연히 심각한 문제로 되였다. 이해 소비품값은 13.3% 올랐으며 물건값이 급격히 뛰여오름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끊임없이 내려갔다.

실업률은 1월의 5.8%로부터 8월에는 6%로 높아졌다.

이밖에 경제위기는 7월 석유생산국들의 석유가격대폭인상, 딸라가치저하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형편은 미국내의 사회적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것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카터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데서 나타났다.

4월부터 6월에는 화물자동차운전수들의 장기간의 파업을 비롯하여 미국국제기계공 및 항공운수로동자협회 산하 1만 8천명로동자들의 55일간의 파업이 있었으며 8월에는 전기독점회사의 하나인 《웨스팅하우스 엘렉트릭 코퍼레이슌》회사산하 기업소의 3만 9천명로동자들의 3주일간의 파업이 있었다.

8월 22일에는 자동차공업부문 로동자, 사무원 150만명이 대중적해고와 정부의 에네르기정책에 항의하여 들고일어났다.

특히 이해에 들어와 심각해진 연료위기로 하여 5월부터 6월기간에 걸쳐 워싱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주 등에서는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름으로써 사회적불안과 카터정권에 대한 불만은 더 높아졌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카터에 대한 지지률은 1978년 1월의 51%로부터 1979년 1월초에 28%, 9월초에는 19%로 떨어졌다.

이해 미지배층안의 모순과 알륵관계는 더욱 심화되였다.

카터의 《연유공급제와 가격통제제도》, 《금리정책》, 《에네르기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회와 행정부사이에 알륵이 심하게 나타났다.

5월에 하원 민주당의원총회에서는 《원유가격규제의 단계별철페》에 관한 카터의 제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17일 카터는 개각놀음에서 행정부 각료들의 절반이상을 해임조동시켰다. 그리고 미국회에서 설립된 법안이 1913년이래 가장 적은 14건밖에 안되였다는 사실 등은 지배층내의 정치세력들간의 알륵관계가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었다.

침략과 전쟁 책동

미제는 1979년에도 제놈들의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정책에서 찾으면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979회계년도에 1천 289억딸라에 달하는 력사상 최대의 군사예산을 세우고 무력증강과 살인무기개발을 다그쳤다.

군비경쟁에 매달린 미제는 《동맹국》들과의 《협조강화》를 표방하면서 침략적인 군사동맹체계를 정비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벌렸다.

1979년 10월 17일 미국방장관 브라운은 《미일한군사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어들어 미제의 《군사적지원과 방위공약》을 확인한데 이어 10월 19일에는 일본에 가서 《미일한3각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책임분담증대》를 요구하여나섰다.

8월에는 일본방위청장관 야마시다를 미국에 불러들여 일본과 남조선,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남조선의 《세관계가 안정되는것이 아세아평화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미, 일《한》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할데 대하여 떠벌였다.

미제는 또한 나토의 핵무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 개발한 핵무기인 《퍼싱》형 로케트와 순항미싸일을 구라파나라들에 전개하려고 책동하였으며 10월 15일에 《나토방위계획위원회》는 나토성원국의 군사비를 년 3%씩 높이며 이를 1986년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미제는 중근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분쟁조정》이라는 구실밑에 이 지역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반제혁명력량의 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이란황제정권과 중근동지역의 군사조약인 쎈토가 무너지자 미제는 이로 인한 저들의 정치군사경제적손실을 메꾸어보려고 이 지역에 제5함대를 창설배치하며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하여 유사시에 투입하기 위한 책동을 벌렸다. 또한 놈들은 이란

황제 파흐라비를 미국에 끌어들여 이란혁명정권을 교살하기 위한 정변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11월 4일 이란인민들이 미국대사관을 점령하고 강력한 반미투쟁을 벌리자 미제는 미국에 있는 이란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란에 대한 석유수입금지와 상품수출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7함대를 아라비아해에 끌어들여 대대적인 군사적 위협공갈작전을 벌렸다.

미제는 나미비아문제에 제국주의자들을 끌어들여 나미비아인민의 유일한 대표인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배제하고 친미반동정권을 세우려고 책동하면서 나미비아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방해하였다.

짐바브웨문제의 해결에서도 미제는 애국전선정부의 창건을 각방으로 방해하면서 괴뢰정권을 세워 저들의 영향하에 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이해 니까라과에서 친미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쎄인트 루씨아, 그레네이더, 도미니까, 메히꼬, 빠나마 등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는것을 막아보려고 이 지역에 《까리브해합동순찰군》을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바베이도즈에서 그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제의 이와같은 책동은 세계인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으며 미제는 이해 더욱더 고립되였다.

《두개 조선》 조작책동

1979년에 미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정책을 보다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6월 29일 남조선에 기여든 카터는 기만적인 《철군》의 간판마저 완전히 집어던지고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을것을 담보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킬데 대하여 떠들어댔다. 남조선행각후 카터는 7월 20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지상군철수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힘》의 방법으로 《두개 조선》을 실현해보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미제는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10월에 있은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의 군사력을 더욱 늘일데 대한 흉계를 꾸미면서 특히 1982년부터 남조선군수공장들에서 전투기 《에프 5이》를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동의하고 동시에 남조선에 배치되여있는 제놈들의 공군무력을 《에이 10에이》추격기 24대로 구성된 비행대로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놈들은 괴뢰들에게 무기를 납입하는데 가로놓인 모든 제한을 없애기로 약속하였다.

미국회에서는 10월에 남조선괴뢰들에게 3억 4천 200만딸라어치의 《군사원조》를 주기로 하였으며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괴뢰들의 군사비를 더 늘이도록 백방으로 추동하였다.

미제는 1978년 10월 1일부터 1979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남조선괴뢰들에게 3억딸라어치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적극 다그쳤다.

7월 31일 호노룰루에서 있은 《미일안보실무급협의회》에서 미제전쟁광들은 조선에서 《긴급사태에 대처》할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할 계획까지 짜놓고있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이 전쟁계획을 념두에 두고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조선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제는 오끼나와, 하와이 등지로부터 미해병대와 미제 25보병사단을 투입하며 이것으로 모자라면 미국본토로부터 미군전투부대를 드리밀것이라고 떠벌렸다.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는데서도 나타났다.

3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7만 8천여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79》라는 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을 벌렸으며 8월에는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동최대의 기지》로 전변된 오끼나와와 그 주변 해역에서 미제7함대와 해병대의 전후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렸다. 또한 핵탄두를 실을수 있는 《비—52》 전략폭격기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2~3차례씩 괌도의 기지로부터 남조선에 들어와 폭격훈련을 하고있는 사실 등은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준비의 한 고리였다.

경제, 사회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284페지)

1979년에 미국경제는 자본주의세계전반을 뒤흔든 경제파동에 휩쓸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덕이였다.

미국경제전반을 휩쓸고있는 심각한 위기는 이 나라 경제의 《3대기둥》으로 불리우는 자동차, 건설, 강철 공업부문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3대자동차회사들의 생산량은 그 전해보다 9.9% 줄어들었으며 1979년 12월에는 생산이 그 전해 같은시기에 비하여 30.1%나 떨어졌다. 이해 각 자동차제조회사들의 자동차판매대수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부닥쳤던 1975년의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건설부문에서는 살림집건설이 전해에 비해 25%나 줄어들었으며 강철공업에서도 그 생산이 해마다 13%씩 내려간 1973—7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이 줄어들고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 등으로 기업운영이 마비되거나 파산당하였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네랄 모터스》회사는 산하공장 9개를, 두번째로 큰 《포드》회사에서도 산하공장의 13개중 11개를 페쇄하고 6만 5천명의 로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파산됨에 따라 그와 련관된 중소기업체 20만 3천여개가 문을 닫았다.

또한 3만 7천여개의 소농경리가 파산되였으며 그들이 걸머진 빚의 총액은 1979년말현재 거의 2천억딸라에 달하였다.

미국경제위기는 만성적인 재정금융위기가 더욱 첨예화되여 경제운영에 혼란을 조성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최근 몇해동안 해마다 300억~500억딸라씩이나 국가예산의 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대외무역에서도 이해 291억 3천만딸라나 되는 적자를 내여 절대적인 자금부족을 낳게 하였다. 국가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재정금융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재정부족을 메꾸어보려고 오래전부터 엄청난 돈을 마구 찍어냄으로써 년간 통화팽창률은 13.3%라는 33년이래 제일 높은 수자를 기록하였다.

1979년에 소비품값은 13.3% 올랐으며 휘발유값은 52.2%, 연료용석유값은 56.5%, 집세는 15.8% 비싸졌으며 운임은 18.2%, 식료품값과 치료비는 10% 올랐다.

미국인들의 실질수입은 5.3%나 떨어져 구매력은 4%이상 낮아졌다.

미국근로자들은 해마다 자기 임금의 30%를 세금으로 바치고있다. 20년간 미련방당국이 근로자들로부터 빼앗아낸 세금액은 2배나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주및지방세금은 거의 600% 뛰여올랐다. 이해 12월현재 미국의 매사람당 빚은 1천 402딸라로서 전해보다 13% 더 많았다.

실업자는 1979년말에 공식적으로 등록된것만도 600만이며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들을 합하면 1천 200만명이 넘는다.

미국에서는 로동재해로 1978년에 4천 500명이 죽었으며 로동자 매 11명중 1명이 불구로 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30%가 공해로 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으며 해마다 공해병으로 10만명이 죽는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리고있는 어린이는 1760만명이나 되며 1979년에 굶어죽은 어린이수는 4천명이였다.

농장들에서는 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뉴욕과 그 주변도시들에 있는 기업소와 상점들의 35%는 10살도 못되는 어린이를 고용하고있다.

특히 흑인어린이들의 처지가 비참한데 그들의 25~30%가 중학교에 못가고있으며 사망률은 백인의 2배나 높다.

흑인들의 수입은 백인수입의 57%밖에 안되며 실업률은 백인보다 거의 2배나 높다.

1979년 12월현재 흑인실업률은 11%였다.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행위가 일어나 사람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미국에는 40개의 《3케이단》본부와 25개의 신파쑈테로조직이 15개주에서 활동하고있다. 이리하여 매달 약 600명이 무장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매 40분에 한건의 살인사건, 매 2분 30초에 한건의 무장강탈사건이 일어나고있다. 1979년에 뉴욕에서만도 1천733명이 살해되였다.

성인문맹자수는 2천 300만명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해방통신

신문 워커스 월드(공산당기관지), 데일리 월드, 뉴욕 타임스, 워싱톤 포스트, 가디언(무소속좌익주간지), 뉴욕 헤랄드 트리뷴,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방송 엔비씨방송, 씨비에스방송, 에이비씨방송 엠비에스방송, 《미국의 소리》방송, 엔비씨텔레비죤방송, 씨비에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에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다. 1975년 1월 24일 뉴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이 연구소조는 월간잡지 《주체》를 발행하고있다.

1976년 5월 20일에 조선통일지지가디언위원회, 6월 6일에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 6월 24일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등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뉴욕에서 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전문을 보내왔다.

이해 가디언출판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빨찌산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 가디언 8월 23일부는 미국과 일본의 반동적인 영화제작업자들이 남조선당국자들과 공모하여 제작하는 반공모략영화 《인천》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규탄하였다.

5월 6일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12만 5천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군과 모든 핵무기를 즉시 끌어내가라!》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당장 취소하라!》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취소하라!》, 《조선통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조선으로부터 핵탄두와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라!》라는 요구를 담은 서명수집운동을 벌렸으며 6월 25일에는 뉴욕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11월 3일 뉴욕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투쟁을 지지하는 사회계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11월 12일에는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조선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비상위원회》를 조직하고 뉴욕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뉴욕에 있는 이름있는 민주법률가들은 7월에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끝장낼것과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편지를 카터에게 보냈다.

그 린 랜 드

(단마르크령)

넓이 217만 5,600Km²
인구 5만명 (1976년)
행정중심지 고트하브 (주민 8,600명)

북빙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80%이상이 얼음으로 덮여있다.

주민은 에스키모족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4천 500명의 구라파인들이 있다.

1380년에 단마르크령토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단마르크의 한개주로 되였다.

1979년 1월 국민투표에 의하여 자치권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자원, 외교, 국방은 단마르크가 쥐고있다.

미제는 1951년 4월 단마르크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고 이 섬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설치하고있다.

북부에서는 농에잡이를 하며 중부에서는 어업, 남부에서는 목축을 한다.

서해안에서 바다밑유전이 발견되여 개발되고있다.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넓이 768만 6,810km²
인구 1,424만 8,500명(1978년 6월)
수도 캔베라(주민 21만 6,000명)

자연 및 주민

오스트랄리아대륙과 타스마니아섬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40%가 열대성기후(북쪽)이고 나머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평균기온(멜보른)은 1월에 20°C, 7월에 9°C이다.
한해강수량은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250mm, 동부비다가와 산비탈지역에서 1,000～2,000mm이다.
주민의 95%이상이 영국이주민후손들이며 원주민은 약 5만명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64명, 임기 6년,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 하원의원 124명, 임기 3년, 1977년 12월 10일 선거결과 자유당과 지방당련합이 86석, 레이버당이 38석 차지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총독 젤만 코웬(1977년 12월—)
정부 1977년 12월 19일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정부 구성, 1979년 12월 내각 개조, 총리 존 말콤 프레이저(자유당 당수, 1975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1979년 6월 제26차대회 진행, 위원장 쥬디만디, **자유당**(집권당), **지방당**(집권당), **레이버당, 사회당, 민주당, 로동조합리사회, 공산주의청년운동, 부녀련맹**

1901년 1월 11일에 오스트랄리아대륙내의 분산적인 6개의 영국식민지가 통합되여 오스트랄리아련방이 창설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1926년에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1931년에 독립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 아스파크 등에 가담하였으며 영국과 《영련방5개국방위조약》, 미국과 공군및해군기지제공에 관한 군사협정을 맺고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는 1977년에 핵무기를 실은 미제의 군함들의 오스트랄리아기항에 동의하였으며 1979년에는 시드니의 남단에 새로운 잠수함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78년에 미제해적선의 기항을 반대하는 다윈항만로동자들의 파업(7월)이 있었으며 1979년에는 로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여 퀸슬랜드주의 항만로동자들의 파업(1월), 전국부두로동자들의 파업(7월)이 있었다.
1979년 9월에 200마일어업수역을 선포(11월 1일 효력발생)하였다.
1979년에 오스트랄리아총리가 인도(1월), 필리핀(5월), 나이제리아(7월)를 방문하였으며 영국총리가 오스트랄리아(6월)를 방문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이해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5월), 일본과 어업협정(10월)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채취공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철, 석탄, 금, 연, 아연, 주석, 보크사이트, 중석, 망간 등이다.
1979년현재 남부에서 매장량이 10만 350톤으로 추산되는 우라니움광산이 개발되고있다.
주요산업의 50～80%는 구미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농업에서는 밀생산과 축산업이 기본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벼, 사탕수수, 목화, 담배, 사과, 포도 등이다.
1978—1979년도 밀재배면적은 1천 20만헥타르

였으며 밀생산량은 1천 800만톤이였다.

양마리수와 양털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제일 많으며 고기도 많이 생산한다. 1976—1977년도에 양털생산량은 73만톤으로서 세계생산량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소고기는 1978년에 213만톤 생산하였다.

양털생산량의 90%는 수출(수출총액의 10%)한다.

주요수출품은 밀, 양털, 빠터, 고기, 광물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천, 원유와 그 가공제품, 금속, 화학 제품이다. 농축산물이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1979년 1월에 실업자수는 49만 3천 500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이피, 에이유피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 헤랄드, 오스트랄리안, 멜보른 헤랄드, 시드니 데일리 텔레그라프

방송 오스트랄리아방송, 오스트랄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교류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9년 6월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제26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뉴 질 랜 드

넓이 26만 8,675km²

인구 311만 5,000명(1978년 1월)

수도 웰링톤(주민 34만 9,600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오스트랄리아의 동남쪽에 있는 두개의 큰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 평균기온은 7월에 북쪽섬에서 12°C, 남쪽섬에서 5°C이며 1월에 북쪽섬에서 19°C, 남쪽섬에서 14°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200mm이다.

주민은 영국인의 후손이 기본을 이루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20만명정도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임기 3년, 의석수 92석, 1978년 11월 25일 선거결과 국민당 49석, 레이버당 42석, 사회신용당 1석 차지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총독 키스 홀리오크

정부 1978년 12월 13일 국민당정부 구성, 총리 로버트 다비드 멀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빅터 윌콕스, **국민당**(집권당), **레이버당, 사회통일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뉴질랜드는 1840년부터 영국식민지로 있다가 1907년에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되였으며 1947년에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 아스파크 등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여 핵무기를 실은 미제군함들의 뉴질랜드기항에 동의하였다.

1978년 1월과 1979년 1월에 미핵잠수함이 뉴질랜드에 기항하였다.

뉴질랜드인민은 미핵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1979년 1월 오클랜드에서 일부 주민들은 100여척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미핵잠수함이 오클랜드항에 들어오지 못하게 배길을 가로막았으며 수많은 주민들은 륙지에서 시위를 벌렸다.

뉴질랜드총리가 1979년 6월에 영국을, 10월에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바레인, 아랍추장국을 방문하였다.

1979년에 뉴질랜드와 로므니아사이에 무역및경제협조협정(5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상품교환및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10월)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작물은 밀이며 양털, 고기 등 축산물이 수출총액의 60%이상을 차지한다. 1976년에 양은 5천 640만마리, 소는 676만 9천마리였다.

공업에서는 젖가공품, 기름제품, 가죽제품 등 수출을 위한 축산물 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오스트랄리아, 미국, 일본 등이다. 수출품은 양털, 고기, 빠터 등

축산물이며 수입품은 기계류, 흑색금속제품, 섬유제품 등이다.

1978회계년도에 무역수지적자는 4억 2천 400만뉴질랜드딸라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남부태평양통신

신문 도미니온, 뉴질랜드 헤랄드,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방송 뉴질랜드방송, 뉴질랜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조직되였다.

1979년 8월에 뉴질랜드 국회의원 와린 프리어가, 9월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파푸아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자주국가)

넓이 46만 1,696km^2

인구 282만 9,000명(1976년)

수도 포트 모레스비(주민 약 8만명)

자연 및 주민

오스트랄리아의 북쪽에 있는 뉴기니아섬의 동쪽절반과 주변에 있는 60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하므로 해발 1,000m까지의 지역은 무덥다. 한달평균기온은 25～28°C이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은 약 1천개의 종족들로 이루어졌다.

700개의 언어가 있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석수 109석, 임기 3년

총독 토레 로코로코

정부 총리 미챠엘 토마스 쏘마레(1977년 8월—)

정당; **광구당**(집권당), **인민진보당**, **민족당**, **통일당**

파푸아 뉴기니아인민은 오스트랄리아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73년 12월 1일에 《자치권》을 쟁취하였으며 1975년 9월 16일 독립하였다.

독립후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을 제한통제하며 백인관리들의 특권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1977년 8월 광구당과 인민진보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나 1978년 11월 인민진보당이 떨어져나왔다.

1979년 12월 파푸아 뉴기니아 총리가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6월에 인도네시아대통령이 파푸아 뉴기니아를 방문하였다.

이해 4월 파푸아 뉴기니아는 싱가포르와 항공운행협정을, 6월에 인도네시아와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사한다.

독립후 국영농장이 조직되고있다. 또한 농업연구소들과 시험농장들이 꾸려지고있으며 묵은 땅을 개간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코프라, 바나나, 벼, 강냉이, 고구마, 감자 등이다.

1977—1978년도에 2만 8천톤의 코코아를 생산하였다.

소규모의 가공공장들이 건설되여 돌아가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 은, 망간, 주석, 연, 아연, 보크사이트, 니켈, 석탄, 원유 등이다. 부겐빌섬의 동광산에서 나는 동은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동과 기타 광물, 코코아, 커피, 차, 코프라, 고무, 목재 등이다.

1979년현재 파푸아 뉴기니아인민은 경제발전제1차 4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화폐단위는 키나이다. 주민의 약 10%만이 돈을 쓰고있다.

학령아동의 50%가 초등학교에 다닌다.

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라에 뉴스, 파푸아 뉴기니아포스트—코리어, 아우오 뉴스, 원토크

방송 파푸아 뉴기니아전국방송, 뉴기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솔로몬제도

넓이 2만 8,446km²
인구 21만 1,000명(1979년)
수도 호니아라(주민 1,500명)

자연 및 주민

태평양서남부 파푸아 뉴기니아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는 솔로몬제도는 9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한해평균기온은 26~28°C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멜라네시아인(94%)이며 그밖에 뽈리네시아인, 미크로네시아계인과 약간의 구라파인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그외 종족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38명, 임기 4년
총독 영국녀왕이 임명, 총독 코린 알란
정부 총리 피터 케닐로레아

솔로몬제도는 1893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마당으로 리용되였다. 전후 솔로몬제도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976년 1월 4일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78년 7월 7일에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9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한해에 1천 850톤의 쌀이 생산된다.

주요농작물은 야자, 코코아, 심황(황색염료, 건위제, 조미료 등으로 쓰임), 생강, 담배 등이다.

주변해역에서는 다랑어, 고등어를 잡는다. 통나무도 생산된다.

야자기름공장을 비롯한 작은 규모의 제재, 합판, 통졸임 공장 등이 있다.

무역 및 상업 부문에서는 화교들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1977년 상반기에 야자기름수출액은 186만 5천딸라였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렌넬섬에 3천만톤 매장되여있다), 린회석, 니켈 등이다.

이 제도에는 11개의 비행장이 있는데 9개는 정부가 운영하고 2개는 개인이 운영하고있다.

77개의 종교학교, 265개의 지방리사회학교(소학교와 같음), 10개의 중학교가 있다. 그밖에 호니아라기술대학과 2개의 교원양성학교, 《팔디에대학》이 있다.

주민의 95%가 기독교를 믿는다.

나 우 루

(나우루공화국)

넓이 21km²
인구 7,200명(1976년)
수도 나우루(주민 4,000명)

자연 및 주민

태평양서남부 길버트제도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계통의 원주민이며 그밖에 다른 섬에서 온 이주민과 중국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나우루어와 영어이다.

정　치

국회 일원제, 총의석 18석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3년, 대통령 함메르 데 로바트(1978년 5월 15일—)
정당; 나우루당

나우루는 1888년에 독일식민지로 된 이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 일본 등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1947년에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으며 1968년 1월 31일 영련방준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나우루는 1977년 11월부터 1978년 5월사이에 정치적불안정으로 하여 대통령선거가 세번 진행되였다.

나우루는 1979년 4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린광석채굴이며 전령토의 5분의 4에 린광석이 깔려있다. 국가수입의 85%가 린광석수출에서 얻어진다. 오스트랄리아딸라를 쓴다.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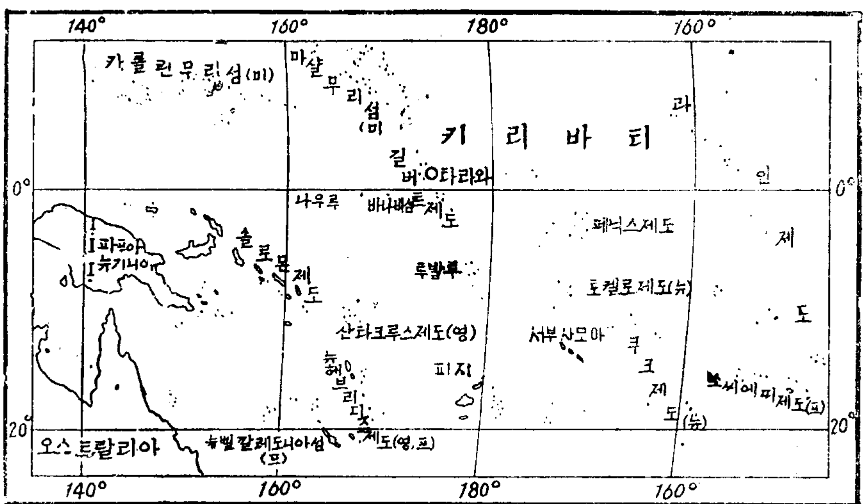
출판보도; 불레찐
방송 나우루방송

키 리 바 티

(키리바티공화국)

넓이 861km²
인구 약 5만 5,000명(1979년 7월)
수도 타라와(주민 1만명, 1979년)

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의 동남부에 있는 길버트제도, 라인제도, 페닉스제도, 바나바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들은 작은 산호섬이다.



열대성기후이다. 무덥고 습기가 많으며 강수량은 비교적 적다.

키리바티는 87년동안의 영국식민지통치와 2년반동안의 자치제를 끝장내고 1979년 7월 12일 독립하였다.

정권은 민족지도부가 쥐고있다.

대통령으로는 이에레미아 타바이가 되였다.

우리 나라는 이해 7월 키리바티공화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야자, 열대과일, 코프라를 생산하며 물고기잡이를 한다.

린산염채취가 경제에서 기본이다. 바나바섬에 린산염이 많다.

투 발 루

넓이 24km²
인구 9,000명(1978년 10월)
수도 푸나푸티

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동남쪽에 있는 9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8개의 섬에만 사람이 산다.

주민의 대부분이 뽈리네시아인이다.

투발루는 1892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16년에 영국식민지 길버트—엘리스제도에 포함되였다.

1974년 8—9월에 길버트—엘리스제도에서 갈라지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였으며 1975년 10월 1일 엘리스제도가 갈라져나와 나라이름을 투발루라고 하였다.

투발루는 1978년 10월 1일에 독립하였다.

총리로는 토알리피 라우티가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코프라재배이다.

피　　지

넓이 1만 8,272km²
인구 60만명(1978년)
수도 수바(주민 약 8만명)

자연 및 주민

태평양서남부의 멜라네시아동남쪽끝에 있는 여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이 높을때 28°C, 낮을때 20°C이다.

한해강수량은 동부지역에서 3,000mm, 서부지역에서 1,500mm이다.

주민은 피지인(43%)과 인도계인(51%)이며 그밖에 구라파인, 중국인, 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멜라네시아어, 힌디어도 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상원의원은 22명, 임기 6년, 하원의원은 52명, 임기 5년, 1977년 9월 25일 하원선거에서 동맹당이 36

석 차지

총독 1970년 헌법에 의하여 영국녀왕을 대신하는 국가수반, 총독 죠지 카코바우

정부 총리 라투 세루 카미세세 마라(1977년 9월 25일 재선)

정당; **동맹당**(집권당), **민족련맹당**

피지는 187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970년 10월 10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77년 3월선거에서 민족련맹당이 승리하였으나 내부의견상이로 9월 25일 다시 선거한 결과 동맹당이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야자, 바나나, 감자, 고구마, 나무감자, 땅콩, 생강, 벼 등이다.

공업부문에는 사탕, 세멘트, 목재가공, 농산물가공 공장들과 기타 작은 규모의 수리소들이 있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야자기름, 금, 망간, 목재 등이며 식량, 천, 기계설비들을 수입한다.

피지인들은 기독교,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피지 타임스, 쟈이 피지, 열라이언스 뉴스 매거진, 피지 로이얼 거제트

방송 피지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4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서부사모아

(서부사모아독립국)

넓이 2,842km²

인구 15만 1,200명(1976년)

수도 아피아(주민 3만 2,200명)

자연 및 주민

태평양에 있는 뽈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서쪽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열대성기후로서 3월평균기온은 26.4°C, 7월평균기온은 25.1°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4,500～5,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사모아인(뽈리네시아족)이며 그밖에 혼혈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사모아어와 영어이다.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 47명, 임기 3년

국가수반 말리에또아 타누마필리 2세

정부 총리 투푸올라 타이시 에피(1979년 3월 28일 재선)

서부사모아는 1899년부터 독일식민지로 있다가 1919년에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7년에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으며 1962년 1월 1일 독립(독립절은 6월 1일)하였다. 1970년 8월 28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되였다.

서부사모아는 태평양지역에서 모든 핵무기시험의 중지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서부사모아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특히 태평양지역나라들 및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가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코프라, 바나나 등이다. 그밖에 감자와 고구마도 심는다.

많은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있으며 조개와 낙지는 수출도 한다.

공업은 독립후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열대농산물과 물고기를 가공하는 식료공장들이 있다.

정부는 1979년현재 농업발전에 중심을 두고 공업도 발전시킬것을 예견한 제3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바나나, 코프라, 수산물,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사탕, 천, 고기, 기계류 등이다.

1976년에 195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중학교가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피아 애드버타이저, 사모아 타임스, 사발리

방송 서부사모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8년 6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통 가

(통가왕국)

넓이 699km²
인구 10만명
수도 누쿠알로파(주민 2만 6,000명)

자연 및 주민

태평양의 남부, 피지의 동남쪽에 있는 15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이며 바람이 세게 분다.
한해평균기온은 22°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1,2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통가인(뽈리네시아족)이다.
공용어는 통가어와 영어이다.

정 치

립법회의 귀족의원 7명과 평민의원 7명으로 구성
국왕 국가수반,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 (1965년—)
정부 총리 파타페히 투이펠레하케(왕자)

190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통가에 이른바 《우호조약》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70년 6월 4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코프라, 바나나, 파이내플, 고구마, 감자 등이다.
목재가공공장과 작은 농산물가공공장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통가크로니클(정부계)
방송 통가방송

괌 섬

(미국식민지)

넓이 549km²
인구 11만 5,000명(1979년)
행정중심지 아가냐

태평양서부 마리아나제도의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섬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6~27°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3,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이며 그밖에 필리핀인, 일본인, 혼혈인 등이 있다.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그해 12월 10일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괌섬은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다가 1944년에 미제가 다시 강점하였다.
미제는 이 섬에 공군 및 해군기지들을 설치하고 아세아침략과 태평양에서 지배권을 쥐기 위한 전초기지로 리용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고구마, 감자, 코프라, 코코아, 파이내플,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많은 주민들이 미제의 군사기지들에서 일하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뉴헤브리디즈제도

(영국, 프랑스 공동통치령)

넓이 1만 4,763km²
인구 9만 3,000명
행정중심지 빌라

태평양의 솔로몬제도 동남쪽에 있는 약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은 멜라네시아인(8만명이상)이며 뽈리네시아인, 혼혈인 등도 산다.
민족고유어와 함께 공용어로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쓴다.

이 제도는 1886년부터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통치를 받았으며 1906년에는 놈들의 《공동통치령》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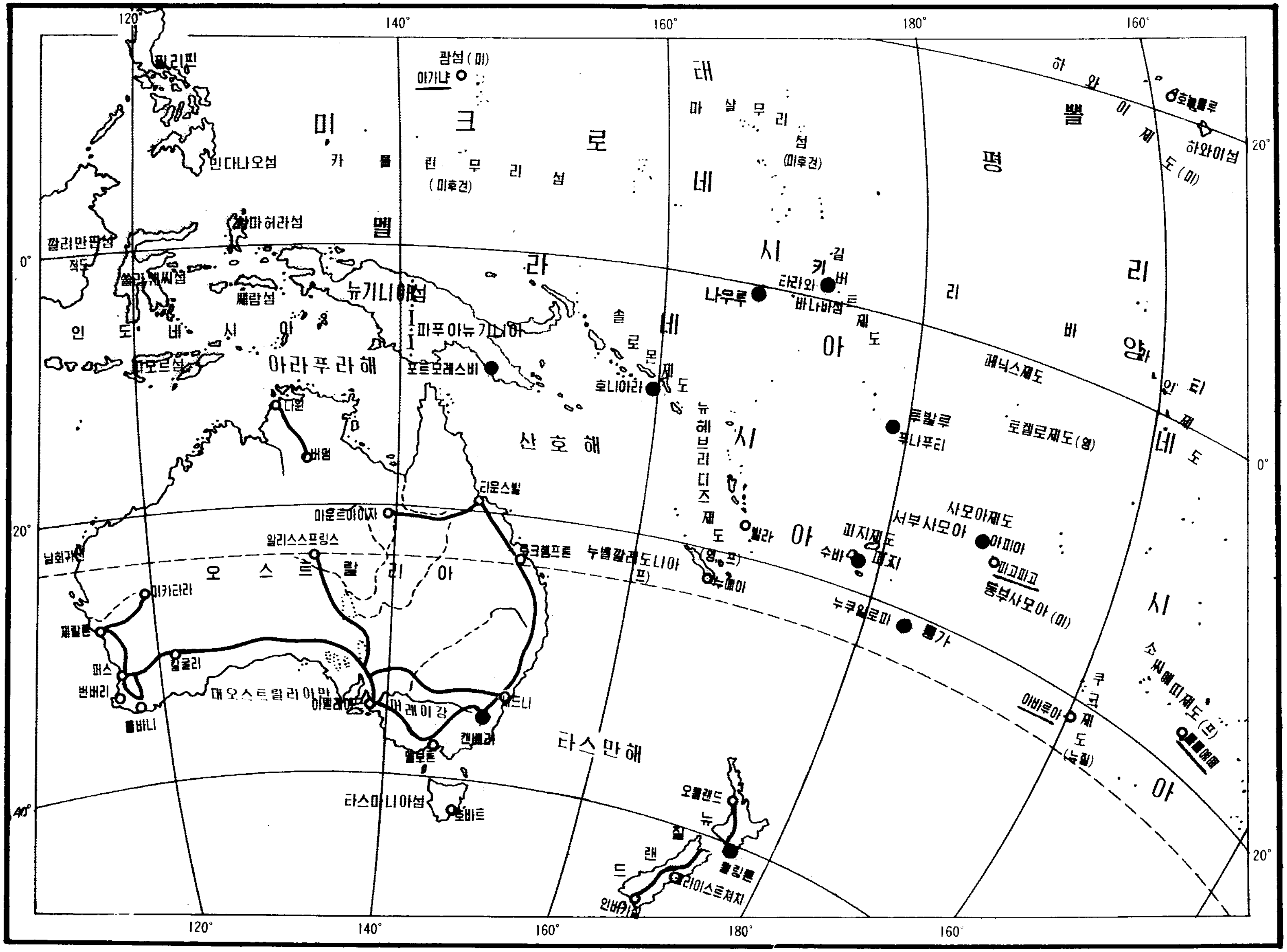
주요생산물은 코프라, 코코아, 커피, 물고기, 망간광이다. 축산업도 한다.
화페는 오스트랄리아딸라와 프랑스의 프랑을 쓴다.

누벨 깔레도니아

(프랑스해외령)

넓이 1만 9,103km²
인구 13만 5,000명(1977년)

대 양 주



미 크 로 네 시 아
멜 라 네 시 아
폴 리 네 시 아
대 평 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 롤 린 무 리 섬
(미후견)
괌섬(미)
아가냐
마 샬 무 리 섬
(미후견)
하와이제도(미)
호놀룰루
하와이섬
인 도 네 시 아
뉴기니아섬
파푸아뉴기니아
포르모레스비
아라푸라해
티모르섬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나우루
타라와
길버트제도
바나바섬
페닉스제도
뉴헤브리디즈제도
빌라
투발루
푸나푸티
로켈로제도(영)
산호해
사모아제도
서부사모아
아피아
파고파고
동부사모아(미)
피지제도
수바
피지
누벨깔레도니아
누메아
누쿠알로파
통가
쿡제도
(뉴질)
아바루아
소씨에떼제도(프)
오 스 트 랄 리 아
다윈
베델
타운스빌
마운트아이자
앨리스스프링스
로크햄프톤
미카타라
제랄톤
퍼스
번버리
칼굴리
대오스트랄리아만
아델라이드
머레이강
캔베라
시드니
멜보른
타스만해
타스마니아섬
호바트
뉴질랜드
오클랜드
웰링톤
크라이스트처치
인버카길
120°
140°
160°
180°
160°
20°
0°
40°

행정중심지 누메아

멜라네시아의 남부에 있는 긴 섬들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0°C안팎이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이 프랑스의 백인후손들이며 기타 소수민족이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누벨 깔레도니아는 186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8년에는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형식상의 협의기관인 《해외령의회》를 두고 통치한다.

정당으로는 깔레도니아동맹당, 누벨 깔레도니아당, 누벨 깔레도니아다인종운동당 등이 있다.

니켈, 크롬, 철광석 채취가 기본이며 해안지대에는 제련소들이 있다. 코프라, 커피, 가죽, 목재 등도 생산된다.

주민의 40%이상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물로서는 불레찐을 발간한다.

동부사모아

(미국식민지)

넓이 197km²
인구 3만 1,000명
행정중심지 파고파고

태평양에 있는 뽈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동쪽을 차지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뽈리네시아인이며 3천명 정도의 혼혈인과 백인들이 산다.

동부사모아는 서부사모아와 한나라였다.

미제는 1899년에 독일이 서부사모아를 강점하자 나머지 동부사모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파고파고에는 미제의 해군기지가 있다.

미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립법권과 행정권을 쥐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코프라, 코코아,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량 극 지 방

북 극 권

개 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의 북쪽 일부와 북빙양이 속하는 북위 66도 30분 이북지역을 말한다.

넓이는 약 2천 500만평방키로메터인데 그중 바다넓이는 약 1천 435만평방키로메터이다.

얼음면적은 210만평방키로메터이며 대부분이 두께 3메터이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곳은 5천 219메터이다.

15세기말 《지리적발견》이후 북극권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으며 19세기 후반기부터 북극권내의 륙지에 대한 탐험이 시작되였다.

1909년 4월 6일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달하였으며 1969년 5월에는 북극권대륙횡단(걸어서 5천 800키로메터)에 성공하였다.

1926년에는 슈삐쯔베르겐—북극점—알라스카의 횡단비행이 실현되고 1937년 5월 21일 쏘련의 대형비행기가 북극점의 얼음우에 착륙하였다.

북극권내의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는 파학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1977년 8월 17일 쏘련원자쇄빙선 《아르끄찌까》호가 북극의 지리학적극점에 도달하였다.

기 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권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철(1~3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령하 40도, 대륙연안에서 령하 30도이다. 가장 더운철 (7~8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0도, 대륙연안에서 5~9도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약 200~400미리메터이다.

원래 찬기후를 가지고있는 북극지방이 최근년간 점점 더 차지고있다. 북극지방이 더 차지는 과정은 1940년경부터이며 1958년경부터는 얼음산면적이 빨리 늘어났고 온도도 낮아졌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이 총체적으로 12% 더 넓어지면서 온도도 더 낮

아지게 되였다.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된다.

주 민 약 12만명이다.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빵그바지방 및 그린랜드지방에는 에스키모인(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예드족(약 2만명), 구라파의 북쪽에는 랍족이 있다. 그밖에 뚜크치족, 아메리카인디안이 있다.

자 원 석탄, 원유, 철, 동, 금, 은, 백금, 니켈, 흑연, 베릴리움, 빙정석, 돌소금, 돌솜, 우라니움 등이 있다.

북극지방의 대표적인 동물인 백곰(북극곰)은 약 2만마리(추산)있다.

1977년 6월에 북극지역 에스키모인 대표들의 첫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북극지역에서의 연해원유 및 가스채취에 관한 유일규정에 합의하도록 모든 정부에 호소, 온갖 종류의 군사행동을 그만둘것, 북극인구정책의 수립, 국제북극연안지역관리 및 지방적으로 실시되는 야생동물을 관리할데 대하여 권고하였다.

남 극 권

개 관 지구의 제일 남쪽끝에 있는 대륙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위 60도 이남지역을 말한다.

넓이는 1천 320만평방키로메터이며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2만 4천 700키로메터이다.

1820년에 로씨야의 탐험대가 남극대륙을 발견하였으며 1894년에 노르웨이탐험대가 이 대륙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1911년 12월 14일에는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점에 처음 들어갔다.

1957년 11월부터 1958년 3월까지 남극점을 지나 대륙을 횡단하였다.

1955년부터 쏘련, 미국, 영국, 일본 등 12개나라가 남극에 관측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고원지대로 되여있으며 여러곳에 4천 500~6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있다.

남극권은 83%가 눈파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세계의 눈파 얼음 총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메터, 최고 4천 480메터나 된다.

1958년 1월에 관측된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메터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메터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파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5메터지점이다.

기 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도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령하 5도이며 가장 추운철(6~7월)에는 령하 50도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에는 대륙동부에서 령하 88.3도를 기록하였다.

귄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않는 지대(500평방키로메터)가 있으며 최고기온은 8.3도, 최저기온은 령하 5.5도이다.

1977년 8월 2일 남극에서 기온이 력사상 처음으로 6.7도였다.

남위 50도이남의 모든 지역은 년중 폭풍이 일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초당 30메터이상되는 날이 한해에 300일이나 된다.

1년에 한번의 낮파 밤의 변화가 있다.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자 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라니움, 망간, 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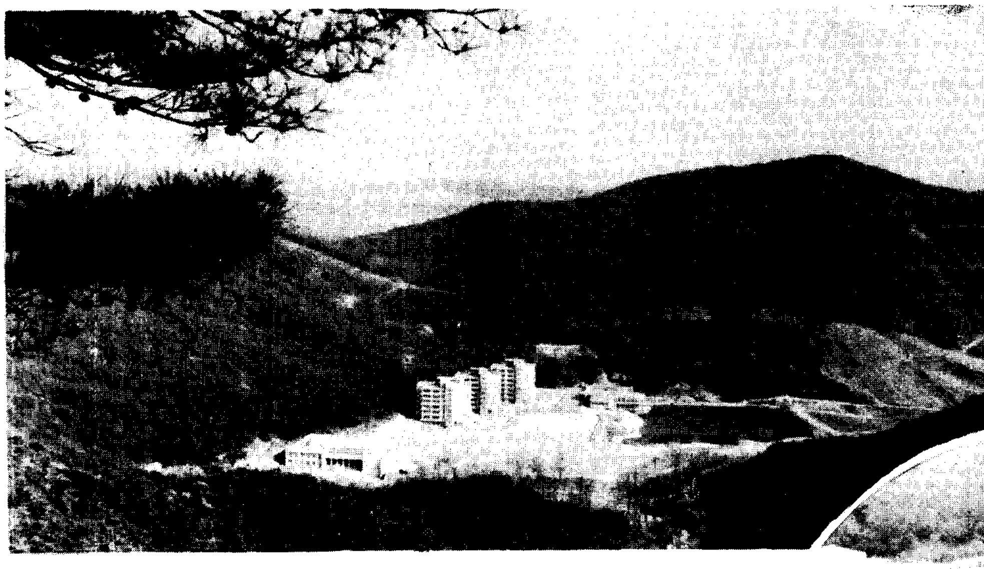
펭긴새가 많으며 또한 고래, 오끼아미, 대구 등도 있다. 세계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권에서 난다.

식물은 300여종이 발견되였다.

이 대륙은 남극조약(12개 나라가 참가, 1959년에 조인되고 1961년에 효력발생)에 의하여 《령유권주장의 동결》, 《군사적리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등 평화적리용을 위한 세가지 원칙이 세워졌다.

1977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제9차남극조약협의회에서는 생물자원문제를 둘러싸고 론의하던 끝에 1978년에 남극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약을 맺을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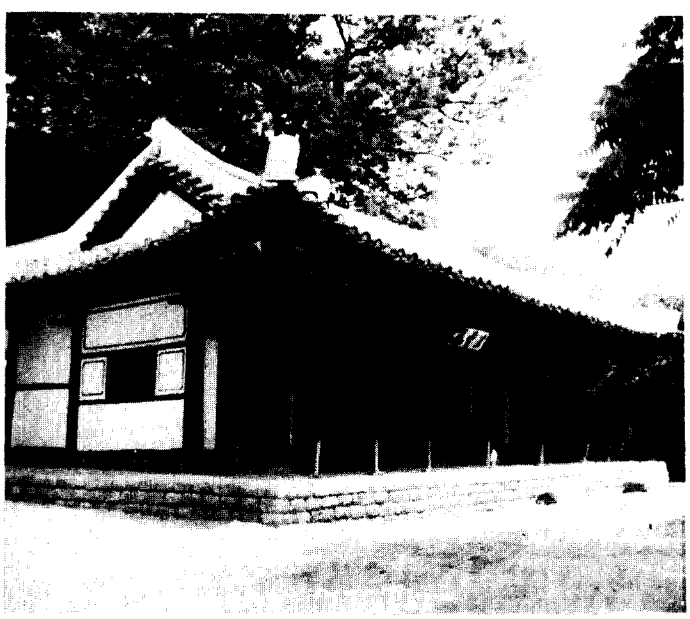
1978년 2월 27일 캔베라에서 열렸던 남극조약협의회특별회의는 해양자원의 《보전》뿐아니라 《합리적리용》도 조약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수도의 문화휴양지 룡악산의 일부



↑ 소년단원들은 해마다
룡악산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다.



룡악산의 력사유적



석왕사 료양소 약수터



력사유적—대성산남문

우리 나라의 력사

(해방전)

우리 나라는 인류의 려명기에 그 뿌리를 내린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25페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은 아득한 원시시대로부터 오랜 발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세아대륙동쪽의 넓은 지역에서 원시사회의 첫시기부터 투쟁과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원시유적은 1966년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에서 드러난 구석기전기에 해당하는 60~40만년전의 석회암동굴 유적이다.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이 잡아먹고버린 29종의 짐승뼈화석과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깨뜨려서 만든 석기들이 발견되였다.

이 유적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유적의 하나이다. 그때 사람들을 원숭이에서 갓 벗어난 사람이라 하여 《원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인류의 첫 사회조직인 원시무리를 뭇고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자연과 투쟁하면서 살아나갔다.

검은모루의 원인다음단계의 사람(《고인》)은 1977년과 1973년에 발견된 평양시력포구역 대현동유적과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동굴아래층유적에서 드러난 사람머리뼈와 이발화석을 남긴 《력포사람》, 《덕천사람》과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1기문화층을 남긴 사람들을 들수 있다.

그리고 1972년 승리산유적웃층에서 알려진 사람아래턱뼈화석을 남긴 《승리산사람》과 굴포문화2기문화층을 남긴 사람들은 《고인》 다음단계의 《신인》들이였다.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땅에서 구석기전기, 중기, 후기의 인류진화발전의 순차적과정을 거쳐 면면히 살아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력사에서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5,000년기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반도와 료하류역의 넓은 지역에서는 우리의 조상으로 되는 같은 갈래의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살았다. 그들은 이미 반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집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신석기시대에 모계씨족공동체제도는 그 발전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후 기원전 2,000년대전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은 자연과의 오랜 투쟁과정에서 금속과 그것을 녹이는 기술을 알게 되고 정착농업을 기본생산활동으로 삼았다. 이 시기 모가장적가족제도가 부계씨족—종족공동체로 바뀌여지면서 원시공동체사회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씨족 및 종족의 재산은 점차 소수의 우두머리들에게 집중되고 재부와 권세를 독차지한 지배층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마침내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권력기관인 국가기관을 만들어내였다. 이때로부터 인류력사는 계급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관계의 력사로 바뀌였다.

우리 나라 력사상 첫 계급국가는 고조선과 부여, 진국이였다.

기원전 8~7세기이전에 성립된 고조선은 매우 발전된 노예소유자국가였다. 국가성립초기의 무덤들인 강상무덤과 루상무덤에 100여명의 노예들이 따라묻힌 사실과 무덤의 껴묻거리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률들은 고조선의 노예제도가 매우 가혹하였으며 당시 노예제경리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조선은 남쪽으로 조선반도의 중부지역, 서쪽으로는 오늘의 대릉하계선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이 일대는 아세아대륙의 가장 오랜 문화발상지의 하나였다. 고조선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쯤부터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고대동방문화를 꽃피운 찬란한 금속문화를 창조하였다. 특히 비파형단검과 그것을 더 발전시킨 좁은놋단검은 구조와 모양이 독특하고 세련되였으며 당시 이와 대비할만한 단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또한 직경 약 0.25mm의 청동실을 뽑아 그물치레거리를 정교하게 만들 정도로 청동가공술이 세계기술발전사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기원전 3~2세기에는 질좋은 강철제품들도 생산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멸망할때까지 여러번 그 서쪽의 침략자들과 싸웠다. 당시 이 나라는 다만 《조선》이라고 불리웠으나 종전부터 이를 후세의 리씨조선왕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고조선이라고 불러오고있다.

고대국가인 부여는 기원전 5세기경에 고조선의 동북쪽에, 진국은 기원전 4세기이전에 중부조선이

남지역에 세워졌다.

기원전 1세기초엽부터 기원후 2세기초중엽사이에 우리 력사에서는 노예소유자국가들이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와 6개가야가 성립됨으로써 봉건사회의 단계에 들어섰다.

제일 먼저 성립되였고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였던 봉건국가는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기원전1세기초엽 고조선지역이였던 혼강류역의 흘본땅에서 부여족의 한 갈래가 세운 나라이다. 그때로부터 668년에 이르는 근 800년간 고구려는 넓고 풍요한 령토와 높은 생산력, 강력한 군사력과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크게 번영한 동방의 대강국, 선진문명국으로서 이름을 떨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성실히 배웠고 용감성으로 단련되였기때문에 높은 민족적긍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닐수 있었으며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172년 한나라, 246년 위나라, 342년 연나라 침략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특히 7세기에 들어와 아세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의 300만대군을 살수(료동반도의 소자하일대)에서 격멸(살수대승리)하고 그후 당나라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도 물리쳐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켰다. 한창 강성하던 시기 고구려는 자기의 령토를 북으로는 료하류역으로부터 만리장성넘어까지, 남으로는 한강류역에 이르는 광대한 령역을 포괄하고있었다.

고구려는 427년 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긴후 더욱 발전하였다. 새로 건설된 평양성은 둘레가 약 40리나 되며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획되고 동서남북으로 정연하게 네거리를 냈으며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있었다.

고구려보다 좀 뒤늦게 기원 1세기중엽에 한강류역 오늘의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봉건국가가 형성되였다. 백제를 세운것은 고구려계통사람들이였다. 백제는 고구려가 아직 그 세력을 남쪽으로 뻗기이전시기에 있어서는 반도내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신라는 2세기초중엽에 오늘의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역에서 6개의 봉건세력들이 련합하여 형성한 봉건국가였다.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땅에 많이 진출하여 선진문화를 그곳에 전파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세력—소국들을 이루면서 그곳의 력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나라시기 우리 선조들은 비록 여러 나라로 갈라져 살았으나 오랜 조상때부터 피줄이 같았고 같은 말을 썼으며 생활과 풍습도 같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였다.

세나라시기 문화도 발전하였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은 우수한 민족유산을 남기였다.

천수백년이 지나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고대동방회화의 표본인 고구려고분벽화들과 안학궁, 대성산성, 평양성, 정릉사와 같은 기세충천하고 대담한 고구려사람들의 기상을 상징한 규모방대한 건축문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천문대인 신라의 첨성대와 호화찬란한 귀금속공예품들, 일본땅에서 국제적보물로 평가되고있는 수많은 유적유물을 남긴 백제의 건축, 공예, 조각, 문화 등은 우리 선조들의 창조의 력사를 고스란히 전하여주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며 당시 인민들의 과학적창조력과 슬기로운 예술적재능을 반영하고있다.

7세기후반기에 이르러 세나라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조선반도에서는 신라의 력량이 강화되였다.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660년에 백제를 통합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후에는 그 남쪽지역을 통합하였다.

당나라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고구려, 백제인민들은 남쪽에서는 7세기중엽까지 신라인민들과 합세하여 침략군을 압록강이남지역에서 몰아냈으며 북쪽에서는 료동지방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698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되였다.

이리하여 10세기초까지 우리 강토에는 발해와 후기신라의 두 봉건국가가 남아있게 되였다. 당시 세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지못하고 통일위업이 중도반단으로 끝난것은 전적으로 외세의존에 매여달린 신라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정책의 죄악적후과였다.

발해는 220여년동안 존재하면서 옛고구려와 대등한 넓은 령토와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으며 농업, 사냥, 수공업, 대내외상업이 높이 발전하여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위력을 떨치였다. 한편 대동강류역이남지역을 차지한 후기신라는 새로운 경제, 문화적발전을 이룩하여 발해와 함께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륭성하는 봉건국가의 대렬에 서있었다.

발해와 후기신라의 문화도 우리 나라 봉건시대를 장식하는 찬란한것이였다. 동방에 이름을 날린 발해의 자색자기와 발해도시들의 규칙적이며 질서정연한 면모, 270년동안 19건이나 혜성을 관측한 후기신라시기의 천문기상학의 발전, 류례없는 큰 종인 봉덕사종을 만든 야금기술과 금속공예, 지금까지 가장 오랜 나무판인쇄물을 남긴 인쇄문화, 중세건축조각문화사상 대걸작으로 알려지고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석굴암의 조각상들을 비롯한 문화유적유물들은 세계문화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력사에는 9세기후반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비교적 오래동안 전개된 농민폭동의 시기를 거쳐 10세기초에는 지방봉건할거세력들에 의하여 태봉국, 후백제, 후기신라의 후삼국시기가 한때 존재하였다. 이 시기 봉건세력들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생산은 파괴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때에 후기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봉건국가를 건립한것은 고려였다.

고려(918—1392년)는 첫통일국가였다. 수도를 개성에 정하고 개경이라고 하였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하여 나라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 봉건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재편성, 재정비되였으며 대외적지위도 매우 높았다. 고려(코레아)라는 나라이름이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말로 외국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된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외래침략자를 물리치는 싸움이 련속적으로 벌어진 시기였다. 10세기말 11세기초 3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 13세기 30년초엽부터 근 30년간 몽골(원)침략자의 6차례에 걸친 침입, 14세기후반기의 왜구, 홍두적의 침입 등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을 승리적으로 쳐물리침으로써 고려인민은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다. 반침략투쟁과 함께 12세기후반기～13세기초 전국적인 대농민폭동을 비롯하여 반봉건투쟁도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고려인민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문화발전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있었다. 세계에서 맨 먼저 발명한 금속활자,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려자기, 아름답고 웅건한 건축물 그 밖에 선박기술, 화약무기, 문학 등 고려문화는 중세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392년 고려왕조를 뒤엎고 정권을 쥔 리조봉건왕조는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 당시 나라이름은 조선이였으나 고대의 고조선 및 우리 나라에 대한 통칭으로서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리조 또는 리조조선이라고 부른다. 수도는 오늘의 서울에 자리잡고있었다.

15세기에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토지가 많이 개간되고 농업생산에서도 수확고가 높아졌다. 수공업생산과 광산개발, 상업과 무역도 전시기에 비하여 발전하였다. 훈민정음을 새로 지은것과 세계최초의 측우기를 발명한것을 비롯하여 이 시기 봉건문화도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16세기말 일본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침입이 있었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을 용감히 맞받아싸워서 침략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리순신장군의 수군은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놈들을 바다우에서 무리로 쓸어눕혀 조국의 영예를 지켜냈다. 전쟁에서 입은 파괴는 심하였으나 전후 근면한 우리 인민은 봉건적질곡아래서도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17세기후반기부터 상품화페관계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18세기중엽이후는 광산, 금속가공업을 비롯한 일부 수공업부문들에서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형성발전되였다.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형편을 반영하여 일부 진보적량반들에 의하여 실학이 발생하였다. 실학은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언어, 문학, 풍속 연구와 《쓸모있는》학문탐구를 주장하면서 자연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 실천의 방법을 존중함으로써 당시 조건에서는 진보적의의를 가지였다. 봉건통치배들내부에 당파싸움이 치렬해지고 19세기초엽부터는 특수한 문벌이 정치를 독판치는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리조봉건체제는 특히 부패타락하였다.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는 19세기6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억제하던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반침략반봉건투쟁으로써 시작되였다.

조선인민은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평양근방까지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태워버림으로써 근대사의 첫 페지를 장식하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였다. 애국적 우리 인민은 같은 해에 프랑스함대와 1868년, 1871년의 미국함대의 침략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다.

1876년 미제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조선침략에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반식민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반침략투쟁도 더욱 강화되였다. 1882년(임오)군인폭동은 일본군국주의침략자와 그에 아부굴종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슬기로운 폭동이였다.

1884년 김옥균의 지도아래 개화사상가들의 정치세력인 개화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으로 알려진 이 부르죠아혁명은 나라의 봉건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발전을 지향한 진보적인 운동이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의 압박과 예속에서 벗어나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애국적인 성격을 띤 혁명이였다. 그러나 부르죠아혁명은 외래침략자들 및 그와 결탁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탄압과 개화운동지도자들의 계급적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다음에도 외래침략자들과 부패무능한 봉건사대주의통치배들을 반대하는 갑오농민전쟁(1894년)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혁신관료들이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의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군사, 재정적원조밑에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이길수 있은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905년 11월에는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가장 야만적인 강압적 방법으로 조선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 5조약》을 강요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강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하게된것은 사대주의에 물젖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여러 당파로 갈라져 제각기 큰나라를 섬기면서 권력싸움만 일삼았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강점이후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국내각지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운동을 벌리였다.

1919년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애국적기개와 민족자주정신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나 탁월한 령도자가 없이는 그리고 외세의존의 방법으로는 결코 민족적독립도 나라의 해방도 인민의 자유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민족운동이 종말을 고한다음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점차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발전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서고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는데 따라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으나 당지도부내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파벌싸움과 일제의 탄압으로 창건된지 3년만에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일제강점후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면서 실패와 파란곡절을 겪고있을 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민족을 새력사의 려명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반일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운동의 본질적약점을 분석하시고 지원의 혁명적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올바른 발전의 길을 밝히시였다. 그리하여 1917년 3월에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서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한 혁명조직이였으며 그 조직규모와 활동범위도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3.1운동후 1920년대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길을 개척하시면서 불면불휴의 혁명투쟁을 계속하시다가 1926년 6월 5일 혁명의 큰 뜻을 이루지못하시고 애석하게 서거하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되여 또다시 엄중한 혼란속에 빠지게 되였다. 특히 일제의 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합법적투쟁의 온갖 가능성이 말살되였다.

조선인민은 선행한 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서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할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을 확고한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시면서 1926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혁명활동을 적극 벌리시게 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발전하는 새력사를 창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정에 조선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확고부동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능숙한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 반혁명무력을 혁명무력으로 타승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반제민족해방투쟁,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고 거기에 당창건준비사업과 통일전선운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15성상에 걸쳐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오직 인민대중의 힘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기회주의를 물리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간 영광스럽고도 복잡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령도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불요불굴의 의지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백전백승하는 투쟁방법과 투쟁경험을 주는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조선로동당과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이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지상락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의 가장 뛰여난 지리대상

제일 높은 산	백두산(장군봉)	2,750m
제일 큰 벌	평양언덕벌 재령벌 호남벌	각각 500km²
제일 높고 큰 고원	개마고원	평균높이 1,000~1,200m 이상 넓이 20,000km²
제일 크고 깊은 바다	조선동해	넓이 982,600km² 최대깊이 3,669m
제일 굴곡이 심한 바다	조선남해	지절률 8.81%
소금기가 제일 많은바다	조선동해	34‰
제일 큰 섬	제주도	1,857.1km²
제일 큰 밀물과 썰물 차	아산만	11.08m
제일 큰 만	동조선만 서조선만	
제일 높은 년평균기온	제 주 제 주	14.7°C 15°C(1919년)
제일 낮은 년평균기온	포 태 포 태	0.6°C —2.4°C(1963년)
제일 높은 기온	대 구	39.6°C(1939년 7월 21일)
제일 낮은 기온	중 강	—43.6°C(1933년 1월 12일)
제일 많은 년강수량	고성(장전) 고성(장전)	1,579.7mm 3,150.3mm(1954년)
제일 적은 년강수량	종 성 무 수 골	502mm 208.5mm(1924년)
제일 많은 하루강수량	신 의 주	587.1mm(1958년 8월 4일)
제일 센 바람속도	웅 기	38.3m/초(1950년 12월 30일)
제일 길고 큰 강	압 록 강	길이 821km 류역넓이 62,638.7km²(중국포함)
제일 큰 자연호	서 번 포	16.59km²
제일 큰 인공호	수 풍 호	365km²
제일 높은 폭포	대승폭포	100m
제일 높은 온도의 온천	웅진온천	98~100°C
제일 큰 관개체계	평남관개	관개면적 100,000정보

력사적인 화페교환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새돈을 발행할데 대하여》(1979. 4. 6)와 화페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79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온 나라 모든 지역에서 력사적인 화페교환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50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의 나날에 천명하신 주체적인 재정은행강령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민족화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12월에 화페개혁을 단행하시여 자주적인 민족화페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돈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1959년 2월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화페교환을 실시하시여 화페제도를 공고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우리 나라 화페제도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재정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하였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고 화페류통규모가 날로 커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옳게 반영하고 사상예술면에서나 인쇄기술면에서 보다 훌륭한 새 돈을 발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새 돈의 발행으로 우리 인민은 바로 사회주의 새 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담은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민족화페를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단 몇장의 화페속에 집대성하여 훌륭히 형상한 새 돈은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였다.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현실을 반영한 훌륭한 주체화페를 받아안게된 전체 근로자들은 화페교환사업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정령에 의하여 중앙은행은 새 돈을 발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낡은 돈과 새 돈을 1대 1의 비례로 제한없이 모두 바꾸어주도록 하였다.

시(구역), 군의 리, 읍, 구, 동들에는 화페교환소들이 조직되여 인민들이 짧은 기간에 편리하게 돈을 바꿀수 있도록 화페교환업무를 수행하였다.

해당부문일군들은 주민들속에서 새 돈의 발행과 화페교환사업이 가지는 의의, 돈을 바꾸는 원칙과 방법, 절차를 알기쉽게 해설하여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제때에 빠짐없이 돈을 다 바꾸도록 온갖 편의를 보장하여주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전지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돈을 바꾸어주는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실시된 화페교환사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화페교환에 관한 규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돈을 바꾸어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돈을 바꾸어줄 때에는 나라의 재정이 좀 긴장하기때문에 제한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있는대로 다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제1조 이 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돈을 바꾸어주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화페교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화페류통을 원활히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안에 있는 모든 공민과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1959년에 발행한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짜리 돈(이 아래부터는 낡은 돈이라고 한다)을 1979년 4월 7일부터 1979년 4월 12일사이에 새로 발행한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짜리 돈 (이 아래부터는 새 돈이라고 한다)과 바꾸어야 한다.

제3조 화페교환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실시한다.

1. 화페교환은 금액에 제한없이 낡은 돈 1원에 대하여 새 돈 1원의 비례로 실시한다.

2. 공민에 대한 화페교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화폐교환소에서 실시한다.

3. 공민은 가지고있는 낡은 돈을 한번에 다 새 돈과 바꾸어야 한다.

4. 공민은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고있는 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수 없다.

5. 공민은 거주지역에 있는 화폐교환소에서 바꾸어야 한다.

출장, 이동작업 그밖의 리유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곳에 가있는 공민은 해당지역의 화폐교환소에서 바꿀수 있다.

6. 군인과 군부대 및 사회안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구에 거주하는 공민은 이 규정 제4조 4에 따라 조직하는 화폐교환소에서 바꾸어야 한다.

7. 새 돈을 바꾸어받으려고 하는 공민은 공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화폐교환은 세대단위 또는 개별적공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며 합숙,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민과 군인은 집단적으로 교환할수 있다.

9. 공민은 화폐교환을 할 때에 바꾸어받을 새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금할수 있다.

10.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1979년 4월 6일현재로 가지고있는 낡은 돈을 1979년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필요한만큼 새 돈을 찾아 써야 한다.

11. 우리 나라에 와있는 다른 나라 대표 기관및 공민과 협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 은행기관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돈은 따로 정한데 따라 바꾼다.

제4조 중앙은행은 화폐교환소를 다음과 같이 내와야 한다.

1. 화폐교환소는 시(구역), 군의 리, 읍, 구, 동을 단위로 하여 내와야 한다.

2. 화폐교환소에는 소장, 부기원, 출납원, 선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화폐교환소는 《○○시(구역), 군 제○○호 화폐교환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한다.

4. 군인을 위한 화폐교환소를 따로 내와야 한다.

제5조 화폐교환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맡은 지역안의 공민들에 대한 화폐교환사업과 그에 따르는 업무를 정확히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2. 주민들속에 화폐교환사업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하며 인민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3. 화폐교환과정에 나타난 못쓰는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

4. 돈의 보관관리와 화폐교환소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5. 화폐교환사업이 끝나면 자기 사업결과를 총화하여 중앙은행지점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조 화폐교환소는 중앙은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은 화폐교환기간에 바꾸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낡은 돈을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8조 이 규정을 어기고 화폐교환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에 손실을 준 사람에게는 물질적,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지운다.

1979년에 수여된 국가표창

《김일성훈장》

평양외국어대학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총련 1명

《김일성상》

백두산창작단	1명

《김일성청년영예상》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초급사로청위원회

공업부문	53명
농업부문	1명
학 생	12명
사로청일군	8명
과학부문	1명
문화예술부문	1명
사적부문	1명
보건부문	1명
편의봉사부문	1명

《김일성소년영예상》

평 양 시	26명
평안남도	23명
평안북도	24명
자 강 도	17명
량 강 도	7명
함경북도	12명
청 진 시	7명
함경남도	22명
강 원 도	15명
황해남도	18명
황해북도	10명
개 성 시	4명

공화국영웅

조 선 인 민 군	1명

로력영웅

공 업 부 문	17명
과학, 문화 부문	8명

국기훈장제1급

신문 《자강일보》
신포수산사업소 뜨랄 108호
양화수산사업소 뜨랄 112호
양화수산사업소 뜨랄 113호
평양시 서포닭공장
평양시 하당닭공장
평양영화대학
원산 제2사범대학
신문 《강원일보》
과학원식물학연구소
농업과학원토양학연구소
외국문출판사
농업과학원 경성분원

공훈광부칭호	4명
공훈전력공칭호	4명
공훈지질탐사원칭호	3명
공훈열관리공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13명
공훈설계가칭호	9명
공훈기계제작공칭호	1명
공훈어부칭호	11명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7명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	1명
공훈인쇄공칭호	5명
공훈로동정량원칭호	4명
공훈로동안전원칭호	2명
공훈사양공칭호	2명
공훈도시관리공칭호	2명
공훈계산원칭호	3명
공훈보육원칭호	4명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	2명
공훈판매원칭호	1명
공훈료리사칭호	3명
공훈과학자칭호	6명
인민배우칭호	10명
공훈배우칭호	37명
인민예술가칭호	11명
공훈예술가칭호	13명
공훈체육인칭호	6명
공훈기자칭호	2명

새기술혁신의봉화상

(금메달)	6명
(은메달)	2명

과학상	4명
3.1월간상	1명

근위칭호

단천마그네샤공장
리원광산
제31화학공장건설사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철도근위칭호 (2급) 청진철도국 명간역
(3급) 개천철도국 희천전철대
개천철도국 서부역
청진철도국 진화기관차대
모범교육군칭호 평안북도 의주군
평양시 서성구역
선봉 2급칭호 함경남도 신흥군 동곡협동농장
붉은기칭호
함경남도 허천군 허천읍협동농장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성원협동농장
김룡철동무가 일하는 농장
함경북도 어랑군 봉강협동농장
함경북도 어랑군 팔경대협동농장
〃 〃 향전협동농장
〃 온성군 하삼봉협동농장
〃 웅기군종합농장 신회분장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협동농장
〃 〃 교원협동농장
〃 라남구역 룡암협동농장
〃 부령구역 사하협동농장
〃 〃 석막협동농장
〃 부윤구역 어유협동농장
〃 경성군 오상협동농장
리히일동무가 일하는 농장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

번호	단 위 이 름	국 가 표 창	정령 날자
1	함경남도 신흥군 창서협동농장	근위1급칭호, 국기훈장제1급	2.15
2	함경남도 오로군 전동협동농장	〃	〃
3	평안북도 의주군 룡운협동농장	근위2급칭호, 국기훈장제1급	〃
4	청진시 청암구역 직하협동농장	선봉1급칭호, 국기훈장제1급	〃
5	량강도 신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풍양작업반	〃	〃
6	함경북도 어랑군 수남협동농장	선봉2급, 국기훈장제1급	〃
7	함경북도 길주군 봉암협동농장	〃	〃
8	만수대창작사	계관근위칭호,국기훈장제1급	4.10
9	강선제강련합기업소 강철 제1직장		〃
10	락원기계공장 주철직장		〃
11	신포수산사업소 《은파산》호		〃
12	생장림산사업소 석개작업소		〃
13	강원도 고산자동차사업소	근위칭호,국기훈장제1급	9.7
14	함경남도 단천군 광천식료공장	〃	〃
15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합성직장		〃
16	청진철도국 청진객화차대 렬차검사중대		〃
17	개성방직공장 제1직포직장		〃

새로 제정된 명예칭호, 절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 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79년 5월 31일)에 의하여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 칭호가 새로 제정되였다.

이 칭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15년이상 로동정량사업과 로동안전사업을 직접 맡아하면서 우리 당의 로동정책관철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다음과 같은 일군들을 수여대상으로 한다.

1. 사회주의로동법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해마다 계통적으로 높였으며 그 성과를 일반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장, 기업소의 로동정량일군

2.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끊임없이 갱신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정량사업과 관련한 책들을 집필하여 로동정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로동정량제정일군

3.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로동안전규률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줌으로써 해당 단위에서 한건의 재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장, 기업소의 로동안전일군

4. 로동과정에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구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높은 존경을 받는 로동안전일군

공훈로동정량원, 공훈로동안전원 칭호 추천사업은 해당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로동행정부가 맡아하며 이 칭호를 수여받는 일군들에게는 명예칭호증서와 로력훈장이 수여된다.

공훈계산원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79년 10월 9일)에 의하여 공훈계산원칭호가 새로 제정되였다.

이 칭호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15년이상 계산사업을 맡아하면서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다음과 같은 일군들에게 수여한다.

1. 계산업무를 기계화하고 선진적인 계산조직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계산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기계설비들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옳게 관리하고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운영함으로써 계산작업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 성과를 일반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계산소, 계산실일군들과 전문계산원

2.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 과학, 기술 계산자료들을 능숙하게 계산처리하며 계산일군들을 키우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이 있는 계산일군

공훈계산원칭호 추천사업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중앙통계국에서 맡아하며 이 칭호를 받는 일군에게는 공훈계산원칭호증서와 로력훈장이 수여된다.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79년 10월 23일)에 의하여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가 새로 제정되였다.

이 칭호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화학공업부문에서 15년이상 계속 일하면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와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다음과 같은 일군들에게 수여한다.

1. 화학제품의 생산설비와 장치물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끊임없이 개조하며 그것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관리운영하여 설비사고를 없애고 그 리용률을 계통적으로 높임으로써 기업소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 모범을 보인 로동자, 기술자

2.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많이 제기하고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으며 기능공양성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로동자, 기술자

3.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화학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로동자, 기술자

공훈화학제품제조공칭호를 받는 일군에게는 이 칭호증서와 로력훈장이 수여된다.

화 학 공 업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79년 10월 16일)에 의하여 화학공업절이 새로 제정되였다.

정령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학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해방직후인 1945년 12월 6일 몸소 흥남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화학공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력사적인 날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6일을 화학공업절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군사정전관계

군사정전위원회

제392차회의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3월 22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며 우리측을 반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하면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1979년 3월 9일 10시경과 17시 30분경 남조선군대는 림진강하류인 성동리와 대동리에 있는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그 맞은편 우리의 군사통제지역인 림한리일대의 주민지역에 두차례에 걸쳐 각각 수십발의 대구경기관총사격을 가하여 주민가옥을 파괴하고 평화적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적들은 또한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을 요새화하고 그곳에 땅크와 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중장비들을 집결시키고 비무장지대안의 넓은 지역을 불태우며 군용직승기를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적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1979년 1월 11일~3월 18일까지의 사이에 무려 4,600여건에 달하였다. 1978년 한해 동안의 적들의 군사적도발과 적대행위는 무려 2만 3,600여건에 이르렀다.

우리측은 우리가 상대방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적군사행동과 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기로 제의한 3월 1일부터 미군과 남조선군대는 《사상최대규모》의 련합훈련인 《팀 스피리트—79》를 벌려놓은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미국이 남조선군대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대며 군사적도발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제393차회의 1979년 6월 26일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데 대하여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남조선군대는 6월 17일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30호 동남쪽 950메터지점부근에서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 8일에는 적측 군용비행기 1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상공에 침입하였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 있는 남조선군대는 여러곳에서 대구경기관총으로 우리측 지역에 800여발의 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대가 3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사이에 감행한 정전협정과 합의 위반행위는 무려 6천 200여건에 달한다.

한편 미국은 《보완조치》라는 구실밑에 미국으로부터 대전차토우미싸일과 개량형호크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들과 땅크, 함선, 각종 규격의 포 등 수많은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군대에 넘겨주었다.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준 이러한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는 1978회계년도에 무려 10억 4천만딸라분에 달하며 1979회계년도의 여덟달동안에는 1억 8,900만딸라분에 달하고있다.

적들은 1979년 1월부터 6월까지 78차에 걸쳐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로 군사분계선상공에서 동서를 횡단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36차에 걸쳐 74대에 달하는 《비52》전략폭격기들을 괌도로부터 남조선상공에 날려보내여 《지형익숙훈련》과 폭격연습을 감행하였다.

우리측은 조선의 영구분렬과 《두개 조선》조작, 대화의 파탄, 새 전쟁준비—이것이 미국의 진짜 속심이며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분렬책동과 새 전쟁 준비책동을 계속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은 유엔의 결의와 자신의 《공약》대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완전히 철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94차회의 7월 31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비무장지대안에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 무력을 끌어들이며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항의규탄하였다.

남조선군대는 7월 20일 14시 55분경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33호 동쪽 400메터 지점부근에서 엠16자동소총으로 우리측 초소를 향해 여러발의 총탄을 쏘아대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대가 비무장지대에서 감행한 이와 같은 총사격행위는 1979년 6월 23일~7월 26일까지의 사이에 50여건이나 되며 여러가지 비법행위는 같은 기간에 1,6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서 정전협정 및 합의 위반행위는 90여차,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도발과 위반행위는 30여건이였다.

우리측은 미국이 미군철수의 《공약》을 뒤집어엎고 《평화》의 가면조차 벗어던진채 로골적인 전쟁

준비에 날뛰고있으며 상전의 모략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 역시 민족안에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며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고 조성된 사태를 바로잡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구조건을 내놓고 그 리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 적측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모든 적대적도발행위와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전투기지화하는 범죄행위를 무조건 즉시 중지하고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군사인원들과 무기, 작전장비들을 비무장지대밖으로 끌어내가며 비무장지대안에 구축한 요새진지들을 모두 파괴할것.

둘째, 적측은 남조선에서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며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더욱더 전변시키려는 범죄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것.

셋째, 적측은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모든 신형무기 및 작전장비들과 함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지체없이 무조건 끌어내감으로써 정전협정 제 60항의 요구와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를 리행할것.

제395차회의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8월 31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다.

남조선군대는 8월 18일 전선동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측에 총사격을 가하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8월 31일에도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엠—16》자동소총으로 10여발의 총탄을 쏘아댐으로써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쌍방간의 무장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이 위험한 도발행위가 무장충돌에 이르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측 인원들의 자제력때문이였다.

남조선군대의 이 총사격행위는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 쌍방간의 대립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군상층부에서 조직하고 지휘한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동이였다.

적들이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서 감행한 정전협정과 합의 위반행위는 7월 27일～8월 26일까지의 사이에 1,700여건에 달하였다.

우리측은 카터가 미군의 《철군동결》조치를 취한 후 적들이 《단기작전》과 핵전쟁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미제는 조선침략야망과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버리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96차회의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10월 2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우리측 연해상공에 침입시켜 정탐활동을 강화하며 군사적도발행위를 악랄하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적측은 9월 20일 낮 12시 13분경 동해의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넘어 우리측 연해상공에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고성동쪽 연해상공으로부터 함경북도 무수단과 서수라 연해상공까지 비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이날 13시 47분경 서수라앞 해상에 나타나 우리측 연해상공에 침입한 적측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는 함경북도 무수단 연해상공을 거쳐 고성동쪽 연해상공을 비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적측은 이보다 앞서 9월 5일, 7일, 17일 그리고 14일에는 하루동안에 2차에 걸쳐 동해의 우리측 연해상공에 《에스아르—71》 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에스아르 71》의 정탐행위는 9월한달동안에만도 7차에 달하였다.

적측은 또한 10월 1일 우리측 옹진반도 연해상공에 또다시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측은 미군의 이러한 연해상공침입이 조선에서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적측의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위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주독립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정전협정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우리측은 적측이 비무장지대에서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하여서도 규탄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은 9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서 30여차나 총사격행위를 감행하였으며 8월 27일～9월 26일사이의 한달동안에 무려 1,980여건의 도발과 위반행위들을 저질렀다.

제397차회의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10월 22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우리측 연해상공에 련이어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안에서 군사적도발을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적들은 10월 11일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강원도 고성동쪽 7마일 해상령공에 침입시켜 함경북도 서수라연해상공까지 비행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6시 21분경에는 또다시 서수라동쪽연해상공에 침입시켜 서남방향으로 비행하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적들은 10월 13일에 동해의 고성동쪽연해상공과 서해의 강령반도연해상공에, 10월 20일에는 고성앞 우리측 연해상공에, 10월 3일, 5일, 10일에는 각각 동해의 우리측 령해상공에, 10월 5일, 10일에 서해의 옹진반도와 강령반도앞 우리측 령해상공에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적들의 이와 같은 정탐과 적대행위는 카터의 남조선행각후 더욱 본격화되고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79년에는 2배가 훨씬 넘는다.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도발을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10월 12일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에서 완전무장한 220명의 남조선괴뢰군은 진지를 차지하고 우리측을 향하여 공격하는 극히 엄중한 군사훈련을 벌려놨으며 10월 8일에는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은 이밖에도 비무장지대안에 숱한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요새진지를 구축하고 군사훈련을 벌리며 제정된 식별표식이 없는 군사인원들과 차량들을 끌어들이는 등 정전협정과 합의 위반행위가 9월 27일～10월 16일까지의 기간에 1,200여건에 달한다.

우리측은 적들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설을 퍼뜨리면서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는 음흉하고 교활한 《침투사건》날조극의 본질을 까밝히면서 만약 적들이 우리 나라에서 긴장성이 격화되고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기를 바라는것이 아니라면 모든 적대적인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第456次회의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1월 1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괴뢰군이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를 유린하고 군사적도발과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는데 대하여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은 12월 24일 하루동안에 세차례나 우리측에 조준사격을 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이 비무장지대안에서 감행한 각종 정전협정과 합의 위반행위는 1978년 10월 21일～1979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4,300여건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남쪽부분과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범죄건수는 340여건에 달한다.

우리측은 새 전쟁 도발책동의 한고리인 비무장지대에서의 이와 같은 군사적도발과 적대행위들을 무조건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것을 적측에 요구하였다.

第461次회의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12월 12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12월 7일 11시경 대덕산 서남쪽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에 무장인원들을 침입시켰으며 15시 47분경에는 같은 지역 상공에 군용직승기까지 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측은 미국측의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며 긴장성을 조성하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지역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거듭 담보하였다.

우리측은 미국측이 이번에 감행한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한데 류의하면서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우리측지역에 침입하였다가 죽은 미군시체 1구를 넘겨주며 미국측 군사인원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과 장구류들은 돌려주지 않을것이라고 통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시체인도와 관련한 실무적문제가 토의된데 이어 우리측이 인수증을 받고 미군시체를 적측에 넘겨주었다.

군사정전위원회 경무관회의

11월 17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도발과 위반행위들을 감행한데 대하여 항의규탄하였다.

적들은 11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동쪽에 위치한 적측초소부근에서 4차에 걸쳐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우리측인원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악담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였다.

적들은 11월 7일, 9일, 11일에도 공동경비구역안에서 류사한 도발행위를 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우리측을 정치적으로 모독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적들은 또한 합의된 수보다 더 많은 무장인원들을 공동경비구역안에 끌어들이며 제정된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는 등 각종 도발과 위반사건이 10월 17일～11월 16일까지 18건에 달하였다.

우리측은 적들이 다시는 그러한 범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약, 콤뮤니케, 공동보도, 협정,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비싸우공화국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 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비싸우공화국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려는 념원을 반영하여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체약고위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국제관계에서 공인된 다음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발전시킨다.

1.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진다.
2. 매개 나라는 나라의 크기와 발전수준, 사회경제제도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연부원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자원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개발리용할 자주적권리를 가진다.
3. 매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매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족적단결을 반대하거나 령토완정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인정한다.
5. 매개 나라는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6. 매개 나라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존중한다.

제 2 조

체약고위쌍방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며 자기 민족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전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 조

체약고위쌍방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보건, 체육의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부단히 강화발전시키며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한다.

제 4 조

체약고위쌍방은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체약고위쌍방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인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 운동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 6 조

체약고위쌍방은 한 나라를 두개로 분렬시키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시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존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 7 조

체약고위쌍방은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의 공간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착취없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 8 조

체약고위쌍방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

과 국제사변들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들에서 두 나라가 서로 긴밀히 지지하며 협조하도록 한다.

제 9 조

체약고위쌍방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반적인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가있는 외국군대와 외국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군사쁠럭들을 해체하며 비핵지대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협조한다.

제 10 조

체약고위쌍방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한다.

제 11 조

이 조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만약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이 조약을 페기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의 효력기간은 자동적으로 10년간씩 계속 연장된다.

이 조약은 1979년 11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서명되였으며 조선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이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공동콤뮤니케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레네이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쎄인트 죠지스에서 조인

8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니까라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과 대사급외교대표를 교환하는데 합의한 공동콤뮤니케 마나과에서 조인

9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쎄인트 루씨아 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대사급외교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카스트레스에서 조인

9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도미니카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대사급 외교대표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로쎄아우에서 조인

공동보도

3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79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한데 대하여 공동보도

3월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97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한데 대하여 공동보도

9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가 1979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한데 대하여 공동보도

협정, 의정서, 계획서 조인

1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농업및식료공업부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과 1979—198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쏘피아에서 조인

1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애급아랍공화국 정부사이의 1979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까히라에서 조인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꾸바공화국 정부사이의 1979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하쉐미트요르단왕국정부사이의 무역협정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조인

1월 26일 조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31차회의 결정서 평양에서 조인

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사이의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뉴델리에서 조인

2월 6일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8차회의 합의서가 조인됨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와 아프가니스탄의 바크타르통신사 사이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카불에서 조인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사와 가나통신사 사이의 통신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체스꼬슬로벤스꼬라지오방송국사이의 1979~1981년도 라지오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 쁘라하에서 조인

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월 24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웽그리아텔레비죤사이에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 부다페슈트에서 조인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9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3월 6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사이의 1979—198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베를린에서 조인

3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및과학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과 1979—1980년도 사업계획서 베를린에서 조인

3월 15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벌가리아과학원사이의 1979—1980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쏘피아에서 조인

3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에 기초한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부룬디공화국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협조에 관한 일반협정 평양에서 조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부룬디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기술적협조에 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3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3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정실행에 대한 1979—1980년도사업계획서 부다페슈트에서 조인

4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두 나라 정부들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따라불스에서 조인

4월 8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핀란드방송주식회사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 사이의 1979년도 상품호상납입및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정 리행을 위한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디마스끄에서 조인

5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바마코에서 조인

5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오지리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윈에서 조인

5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 베오그라드에서 조인

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따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왈레따에서 조인

6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 말가슈의 수도에서 조인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사이의 무역협정 평양에서 체결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과학원 사이의 1979—1981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튜니지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6월 25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유고슬라비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협회 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예멘아랍공화국 두 나라 방송기관들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사나에서 조인

7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모가디쇼에서 조인

7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에 보건, 의학 및 제약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1979—1980년도계획서 베오그라드에서 조인

7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모잠비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마뿌또에서 조인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앙골라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루안다에서 조인

8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끼갈리에서 조인

8월 28일 1979년도 조중 두 나라 국경철도회의 의정서 심양에서 조인

9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정부사이의 1979—1980년도 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서 암만에서 조인

9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리행

을 위한 1979—198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바그다드에서 조인

9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1980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부꾸레슈띠에서 조인

10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80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베를린에서 조인

10월 4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쏘련과학원사이의 1980—1981년도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모스크바에서 조인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의 1980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울란 바따르에서 조인

10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기네인민혁명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과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평양에서 조인

10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인민혁명공화국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10월 18일 조선중앙통신사와 또고통신사사이의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 로메에서 조인

10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9차회의 의정서 베이징에서 조인

10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80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80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1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기네—비싸우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

11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꾸바공화국 정부사이의 1980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아바나에서 조인

11월 26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사이의 1980—1981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해당한 의정서,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9차회의 의정서 조인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과학기술협조상설위원회 제11차회의 의정서 티라나에서 조인

외교부 무력부 성명

7월 10일 외교부대변인은 미국대통령 카터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른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당국회의》를 떠벌인데 대하여 그를 규탄하여 성명

2월 28일 인민무력부대변인이 남조선과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 적대적군사행동을 정지하기로 한 3월 1일부터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부득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성명에 따라 취하기로 예정한 군사적조치들을 보류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천명하여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보도

1월 31일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공식태도를 표명하여 성명

6월 26일 조국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싶다고 한 남조선의 신민당 김영삼총재의 발언을 기꺼이 환영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민주공화당총재와도 그가 원한다면 만날용의가 있으며 남조선의 그 어떤 정당, 단체 대표들이나 당국자들, 개별적인 사들과 언제나 만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확언하여 성명

7월 22일 미국대통령 카터가 7월 20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1981년까지 동결시킨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그를 전면적으로 규탄하여 성명

12월 7일 1979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끝낸데 대하여 보도

사회단체 성명, 보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반영한 4개항목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안하여 성명

1월 2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측이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명을 발표한데 류의하여 실무급대표들의 회담을 가능한한 4월초순으로 앞당겨 소집할것을 제의하여 성명

2월 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이 남북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의하여 성명

2월 1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이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파견될 우리측 련락대표 성원들을 발표하여 보도

2월 1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대변인이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우리측 련락대표들을 2월

17일 낮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하며 남측에서 어떤 명의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든지 그들을 남측 련락대표로 간주하고 만날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2월 24일 조선탁구협회 대변인이 第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통일팀을 만들어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조선탁구협회대표단 구성을 발표하여 성명

3월 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대변인은 남조선측이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계속하며 반공소동과 전쟁소동을 더욱 악랄히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월 12일 조선탁구협회대표단은 남조선측이 제4차회담에서 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별개팀으로 참가하겠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데 이어 쌍방회담을 결렬시키고 일방적으로 회담장에서 나가버린것과 관련하여 판문점에서 성명

3월 24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와 조선탁구협회가 통일팀구성을 위한 네차례의 회담이 남조선측의 그릇된 태도로 하여 진척되지 못하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제5차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여 성명

3월 27일 북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이 제4차련락대표접촉을 4월 2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여 성명

4월 1일 북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이 4차접촉제의에 대답이 없는 남조선측에 회담참가여부를 통지하여 줄것을 기대하여 성명

4월 2일 북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이 회담참가여부를 알려줄데 대한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없고 회담장에도 나오지 않은 남조선측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고 4월 10일에 쌍방련락대표접촉을 계속 가질것을 제의

4월 2일 조선탁구협회 대변인이 쌍방 탁구협회대표들의 제5차회담제의에 남조선측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회담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별접촉이라도 가질것을 희망하여 성명

4월 10일 북측 정당, 사회단체및당국련락대표단이 남측이 북과 남사이의 접촉을 결렬시키려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4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당국자들이 군사분계선 전구간에 걸쳐 대규모의 철근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4월 18일 조선탁구협회 대변인은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쌍방 제5차회담을 경기시작 전날까지 임의의 시각에 판문점에서 열것을 다시한번 남측에 제의하여 성명

5월 2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민주인사 김대중에 대한 남조선통치배들의 랍치행위의 진면모가 다시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련합성명

6월 26일 조선학생위원회가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통치배들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8월 13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일자리를 요구하여 롱성을 벌리고있던 로동자들에 대한 남조선통치배들의 폭압만행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폭행을 감행한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8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 로동자들에게 폭압만행을 감행한 남조선파쑈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9월 13일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신민당총재단의 직무집행권한을 박탈하고 그 활동을 정지시킨 남조선파쑈도당의 폭거를 규탄하여 성명

9월 14일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야당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야당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야당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18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가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박정희파쑈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19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야당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21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당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9월 2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통일혁명당을 말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10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통일혁명당 재건사건》에 관련시켜 7명의 각계 인사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구형하는 등 통일혁명당을 말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10월 2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부산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반《정부》시위와 폭동에 대한 박정희파쑈도당의 폭압을 규탄하여 성명

1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및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대변인이 제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공동체육단을 무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측에 전달하는 련락원파견과 관련하여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第103호 남조선괴뢰도당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총력안보》니 《자주국방》이니 떠들면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기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1.9)

第104호 남조선측이 대화와 평화통일에 배치되게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5. 3)

第105호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통일에 역행하여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해안의 안면도부근에서 대규모의 해상사격훈련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발표(5. 16)

제106호 남조선당국자들이 박형규목사, 이전 《동아일보》기자 안종필 등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계속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5. 17)

제107호 남조선통치배들이 5월 21일밤부터 22일 새벽사이에 북으로부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서울시내에서 미친듯한 군사훈련을 벌린것을 규탄(5. 23)

제108호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평화통일에 배치되게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계속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6. 2)

제109호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교살행위를 더욱 극심하게 벌리고있는것을 규탄(6. 13)

제110호 남조선통치배들이 6월을 이른바 《반공강화의 달》로 정하고 도처에서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6. 22)

제111호 남조선파쑈도당이 7월 5일 경찰무리를 동원하여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이 당의 기관지 《민주전선》의 인쇄원판과 신문을 압수하는 등 야당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7. 7)

제112호 남조선당국자들이 7월 10일과 12일에 또다시 신민당기관지를 압수하는 깡패행위를 저지른것과 관련하여 발표(7. 15)

제113호 남조선파쑈도당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부 정치범들에 대한 《가석방》놀음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발표(7. 19)

제114호 남조선괴뢰도당들이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날조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반공모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을 규탄(7. 26)

제115호 남조선통치배들이 7월 30일과 31일 또다시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기관지 《민주전선》과 이 신문편집주간 등을 압수, 구속한것과 관련하여 발표(8. 3)

제116호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이 8월 9일 남조선 강원도 삼척일대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24명의 애국적인민들을 이른바 《간첩활동》으로 체포구금한것을 규탄(8. 11)

제117호 남조선파쑈도당이 신민당청사를 습격하고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들에게 집단적폭행을 감행한데 이어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는것을 규탄(8. 19)

제118호 남조선파쑈도당이 20일에 또다시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에 관련시켜 항의시위에 나선 서울시내 학생들을 탄압하고 체포투옥한것을 규탄(8. 25)

제119호 남조선괴뢰들이 이른바 《민방위훈련 상반년총화》라는 이름밑에 남조선각지에서 일제히 전쟁훈련을 벌려놓고있는것을 규탄(8. 29)

제120호 남조선파쑈도당이 개학을 앞두고 진보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9. 1)

제121호 남조선파쑈도당이 《가석방》하였던 신부 함세웅 등 량심적인 인사들을 다시 체포투옥하고 있는것을 규탄(9. 8)

제122호 남조선파쑈도당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여 집회를 가지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총칼로 탄압하는것을 규탄(9. 10)

제123호 박정희괴뢰도당이 9월 20일과 21일 무장경찰을 내몰아 민주주의를 주장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총칼로 탄압하고있는것을 규탄(9. 25)

제124호 박정희괴뢰도당이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크리스챤 아까데미사회교육원》학계인사 7명에게 7년까지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한 범죄행위를 규탄(9. 26)

제125호 남조선파쑈도당이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9. 30)

제126호 남조선 괴뢰국무총리놈이 지방행각놀음을 벌리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헐뜯으며 우리를 비방하는 용서못할 망발을 늘여놓고있는것을 규탄(10. 25)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대표단
(1979년)

대표단이름	방문한 나라	날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	말따	3.25—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로므니아	9.19—9.22
조선로동당대표단	뽀르뚜갈	2.24—3.12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리예, 핀란드	2.24—3.26
	말리	3.24—4.10
	메히꼬	4.10—5.5
	프랑스, 에스빠냐 탄자니아, 잠비아, 수리아, 웽그리아, 쏘련, 이딸리아	6.13—7.2
	오스트랄리아	6.14—6.29
	가이아나	8.11—9.8
	로므니아	11.17—11.26
	또고, 베닌, 가나	11.22—12.24
	부룬디	12.18—1980.1.7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	로므니아, 뽈스까	5.9—5.28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	6.13—7.5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유고슬라비아	10.30—11.24
	벌가리아, 유고슬라비아	11.27—12.19
조선로동당 친선참관단	중국	7.17—7.27
당및국가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0.4—10.9
당및정부대표단	소말리아	10.16—10.29
	알제리	10.28—11.5
정부대표단	유고슬라비아	3.6—3.19, 5.7—5.21
	세이쉘	5.26—6.11
	쏘련	8.14—8.20
정부친선대표단	리비아	8.28—9.10
정부무역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3.6—3.20
	애급	1.9—2.1, 3.12—3.28
	수리아	6.30—7.14
	중국	8.22—8.28
	알제리, 말레이시아, 이라크	8.29—10.8
	파키스탄, 로므니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9.5—10.6
	몽골	10.3—10.16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10.30—11.19
	꾸바	11.11—11.24
정부경제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1.27—12.22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뽀르뚜갈, 요르단, 벌가리아	6.27—7.23
외교부대표단	상아해안, 리베리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끼쁘로스	4—6.2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7.3—7.21
조선몽골친선협회대표단	몽골	6.20—7.13
조쏘친선협회대표단	쏘련	6.23—7.8
조선수리아친선협회대표단	수리아	8—9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중국	11.13—11.27
일본방문조선친선대표단	일본	6.12—6.27
평양시친선대표단	벌가리아, 로므니아	11.17—12.10
직맹대표단	중국	3.24—4.10
	독일민주주의공화국	6.19—6.27
	쏘련, 웽그리아	6.19—7.11
화학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1.17—12.2
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	일본	1.23—
사로청대표단	중국	2.20—3.6
	아프가니스탄	4.21—5.9
	독일민주주의공화국	5.30—6.10
	쏘련, 로므니아	9.20—10.10

대표단이름	방문한 나라	날자
농근맹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2.10—2.26
	로므니아	7.14—7.25
녀맹대표단	이라크	2.28—3.17
		5.1—5.19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5.9—5.21
	중국	9.29—10.16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	이라크	2.28—3.20
조선소년단지도일군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	4.19—5.11
교육대표단	중국	11.13—11.27
과학원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2.27—3.20
력사학자대표단	쏘련	7.28—8.13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중국	10.9—10.23
	쏘련	10.23—11.5
	알바니아	11.29—12.24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	뽈스까	4.21—5.12
공업기술총련맹전기통신및전자공학협회대표단	쏘련	5.12—6.8
영화인동맹대표단	쏘련	5.9—6.1
영화대표단	쏘련	1.30—2.6
	중국	9.4—9.21
	쏘련	9월
문화인대표단	인도	1.26—2.13
체육대표단	쏘련, 쿠웨이트	1.23—2.9
보건대표단	유고슬라비아	7.13—7.26
기자동맹대표단	웽그리아, 로므니아	3.28—5.4
기자대표단	이라크	7.13—7.26
로동신문대표단	뽈스까	6.19—7.8
	쏘련	8.16—9.8
	중국	9.8—10.5
	프랑스, 이딸리아, 에스빠냐	9.1—10.9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10.4—11.9
중앙통신사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	4.19—5.5
	중국	10.30—11.16
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2.6—3.12
	벌가리아, 알제리	5.7—6.18
직맹잡지대표단	쏘련	10.21—11.2
수산대표단	쏘련	2.6—2.19, 12.8—1980.1.14
건재공업부대표단	쏘련	6.6—6.24
군사대표단	모잠비끄	9.18—10.3
	알제리	10.24—11.10
조선인민군정치일군대표단	쏘련	10.11—10.20
군사대표단및조선인민군친선참관단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10.15—10.29

국제회의, 토론회, 축전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

대표단 이름	회의이름및장소	날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꾸바)	9.2—9.17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꾸바)	8.26—9.17
정부대표단	유엔무역개발회의 《77개국 그루빠》제4차부장회의 (탄자니아)	2.4—2.26
	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대회(필리핀)	4.28—5.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외교부장비상회의(모잠비끄)	1.19—2.12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외교부장회의(스리랑카)	5.23—6.13
기자동맹대표단	쁠럭불가담나라기자조직들의회의 (이라크)	1.16—2.4
학생위원회대표단	쁠럭불가담나라학생조직들의 제1차대회(말따)	1월

대표단 이름	회의이름및장소	날자	대표단 이름	회의이름및장소	날자
중앙통신사대표단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조정위원회회의(유고슬라비아)	11.11—12.3	올림픽위원회대표단	국제올림픽위원회 제81차총회 (우루파이)	3.27—4.13
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제1차쁠럭불가담나라 텔레비죤축전(유고슬라비아)	9.26—10.20	보건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제32차총회(스위스)	5.1—6.2
의회그루빠대표단	국제의회동맹리사회 제124차회의 (체스꼬슬로벤스꼬)	4.11—4.25	적십자대표단	발전도상나라들을 위한 국제적십자 제1차의료봉사토론회(쏘련)	5월
	국제의회동맹 제66차총회 (베네수엘라)	9.6—10.13	영화대표단	제11차모스크바국제영화축전(쏘련)	8.14—9.3
직맹대표단	세계직련뷰로 제21차회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1.17—11.26	경제학자대표단	제3세계경제가협회 토론회 (알제리)	10.4—10.22
사로청대표단	전아프리카청년운동 제5차대회(꽁고)	8.4—8.27	공업기술총련맹기계공업협회대표단	제8차국제측정공학동맹대회(쏘련)	5.12—6.15
녀성대표단	국제아동의해에즈음한세계대회(쏘련)	9.5—9.13	기상수문대표단	세계기후대회 (스위스)	2.7—3.9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1979년)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중 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영초	5.26—6.1
	정부문화대표단	5.29—6.8
	료녕성 당일군대표단	7.14—7.28
	공산당 친선방문단	10.12—10.27
	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9.10—9.27
	공산주의청년단대표단	6.15—6.29
	공회대표단	9.14—9.22
	제1차 친선참관단	5.11—6.6
	《인민일보》대표단	5.15—6.8
	재정금융대표단	5.25—6.16
	녀성일군대표단	6.5—6.20
	농업대표단	6.22—7.11
	교육대표단	6.15—6.30
	신화통신사대표단	9.7—9.22
	은행대표단	9.25—10.6
	제2차 친선참관단	9.28—10.19
	영화대표단	9.28—10.17
	의학교육대표단	11.13—11.28
	려행유람사업관리총국대표단	11.16—11.21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몽 골	대인민후랄대표단	6.14—6.21
	협동무역대표단	3.2—3.10
일 본	《자주의 회》대표단	3.24—4.16
	학자대표단	3.27—4.13
	참관단	4.30—5.8
	자유민주당소속 참의원 의원과 그 일행	5.8—5.15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대표단	5.15—5.25
	전일본자치단체로동조합대표단	5.15—5.25
	오끼나와현 친선및련대성대표단	5.15—5.22
	총평민간단산회의대표단	6.5—6.16
	나가노현친선및련대성대표단	6.19—6.28
	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6.19—6.27
	전일본 교통운수로동조합협의회대표단	6.19—7.3
	도꾜지방로동조합평의회대표단	6.8—6.19
	신자유구락부대표단	6.27—7.3
	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6.29—7.17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대표단	6.30—7.12
	청년단협의회대표단	7.3—7.17
	문화계녀성대표단	7.10—7.24
	《자주의 회》대표단	7.22—8.9
	사회당청년활동가대표단	7.24—8.3
	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7.27—8.14
	간또지방로동조합평의회련락협의회대표단	8.7—8.21
	총평 쥬고꾸 도까이지방로동조합련합대표단	8.14—8.24
	학자대표단	8.14—8.31
	후꾸시마련대성대표단	9.14—9.25
	아시가가은행대표단	9.25—10.2
	다이도 생명보험회사대표단	9.28—10.5
	사까이 미나조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9.28—10.9
	니이가다현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대표단	10.16—10.25
	총평 청년로동자대표단	10.19—11.2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대표단	10.20—11.1
	총평 큐슈지방대표단	10.30—11.9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녀성대표단	10.23—11.6
말레이시아	정부경제대표단	6.6—6.10
	부미뿌트라은행대표	9.25—10.2
타 이	타이왕국 친선촉진대표단	9.6—9.16
	씨엠 상업은행대표단	9.25—10.2
스리랑카	정부대표단	6.27—6.29
버 마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총리	7.13—7.18
네 팔	기자대표단	6.12—6.22
방글라데슈	문화대표단	3.14—3.24
	국회대표단	7.24—7.31
	청년대표단	8.7—8.14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인도	《주체사상연구학회》서기장이며 신문《인디안 타임스》주필	1.20—1.26
	친선대표단	3.3—3.9
	《주체사상연구학회》서기장과 부인	9.10—9.25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	9.15—9.29
파키스탄	민족은행대표	9.25—10.2
이라크	군사대표단	9.14—9.20
	통신사대표단	9.17—9.25
수리아	신문《다르 디마스끄》출판사사장과 그 일행	9.27—10.11
요르단	국회대표단	5.21—5.29
	정부교육대표단	10.1—10.5
예멘	기자대표단	1.1—1.11
팔레스티나	해방인민전선대표단	11.26—12.4
애급	대통령특사	3.2—3.6
수단	인민회의대표단	7.10—7.21
리비아	공업대표단	1.29—2.3
	보건대표단	2.5—2.13
	안전대표단	3.30—4.10
뛰니지	정부문화대표단	6.11—6.16
	데스투르사회주의청년대표단	6.8—6.16
말리	정부대표단	5.25—5.29
기네-비싸우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11.1—11.9
기네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꾸 투레	10.9—10.14
시에라레온	전인민대회당대표단	8.21—8.28
가나	정부대표단	3.20—3.23
	통신사 총사장	2.14—2.17
베닌	대통령의 특사와 그 일행	6.19—6.27
	인민혁명당대표단	9.21—10.2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최고군사리사회성원인 나이제리아군 최고사령부참모장 쉐후 무싸야르 아두아와 그일행	4.24—4.28
	기자대표단	6.18—7.3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주체사상파로작연구 나이제리아교원동맹라고스주위원회》 대표단	7.16—7.31
부룬디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 대좌	3.20—3.23
	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	10.9—10.16
르완다	군사대표단	9.21—9.25
소말리아	정부대표단	4.10—4.13
모잠비끄	정부건설대표단	11.12—11.20
짐바브웨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대표단	8.28—8.31
앙골라	외교부장과 그 일행	6.18—6.23
말가슈	무역은행대표	9.24—10.2
탄자니아	군사친선대표단	10월
	잔지바르농업대표단	5.25—6.16
	교육대표단	8.3—8.25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꾸 바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특사	4.25—5.1
	정부무역대표단	1.19—1.24
	정부대표단	7.2—7.5
	공산당 당일군대표단	10.1—10.9
그레네이더	정부대표단	7.1—7.7
가이아나	가이아나에 있는《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서기장인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서기장	5.9—5.14
	공보부 기자대표단	8.14—8.21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총리의 딸부부	10.1—10.9
	보건, 주택및로동부장과 부인	10.5—10.12
수 리 남	수리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5.5—5.12
콜롬비아	자유당대표단	6.25—7.3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인 콜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부부	4.12—5.8
	국회하원 의원	4.21—5.8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 종합대학 총장	6.22—6.30
빠 나 마	빠나마인적자원육성및리용협회 위원장이며 빠나마녀성동맹 위원장	9.13—9.22
쏘 련	영화인동맹대표단	3.26—4.3
	정부무역대표단	4.9—4.19
	건축가동맹대표단	5.21—6.5
	적십자및적반월협회련맹대표단	6.4—6.12
	직맹잡지대표단	6.4—6.12
	신문《쁘라우다》대표단	6.11—6.26
	싸할린주당위원회대표단	7.5—7.12
	직맹대표단	8.6—8.14
	과학원천문학대표단	8.27—9.11
	공산당 당일군대표단	9.17—9.25
	무역은행대표단	9.24—10.2
	어문학자대표단	10.15—10.30
	농업근로자직맹대표단	10.15—10.23
	과학기술협회대표단	10.29—11.6
	쏘조친선협회대표단	11.5—11.13
	영화대표단	11.5—11.20
	영화대표단	12.3—12.11
	모스크바시직맹대표단	12.10—12.18
	쏘련내각 국가영화위원회대표단	12.17—12.25
뽈 스 까	통일로동당 당일군대표단	2.26—3.2
	직맹대표단	7.30—8.3
	무역은행대표단	9.24—10.2
	사회주의청년련맹대표단	11.12—11.17
	과학원대표단	11.19—11.27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금속로동자직맹대표단	5.21—5.29
	과학자대표단	6.18—7.3
	신문《노이에스 도이췰란드》대표단	8.20—8.28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무역은행대표단	9.24—10.2
	영화대표단	10월
	홈볼트종합대학대표단	10.15—10.23
	기자동맹대표단	11.12—11.20
	홈볼트종합대학대표단	11.26—12.11
체스꼬슬로벤스꼬	무역은행대표단	9.24—10.2
	혁명직맹운동대표단	10.4—10.6
	공산당 당일군대표단	10.15—10.23
	정부무역대표단	10.22—10.30
웽그리아	정부무역대표단	2.26—3.6
	정부대표단	3.25—3.30
	적십자회대표단	6.11—6.19
	신문 《네프싸바드샤그》대표단	9.24—10.2
	민족은행대표단	9.24—10.2
	문화대표단	11.5—11.13
로므니아	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2.27—3.6
	민항대표단	4.9—4.13
	공산당 당일군대표단	5.8—5.15
	사회주의통일전선대표단	5.22—5.29
	과학원대표단	6.5—6.12
	신문《쓰끈떼아》대표단	7.24—8.7
	영화대표단	8.21—8.28
	기자리사회대표단	8.28—9.11
	무역은행대표단	9.25—10.2
	전국농업생산협동조합동맹대표단	10.2—10.9
	소년조직일군대표단	10.2—10.9
	로므니아 조선친선협회대표단	10.8—10.23
	텔레비죤촬영단	10.30—11.13
벌가리아	외교부대표단	7.9—7.13
	적십자회대표단	7.9—7.14
	공산당 당일군대표단	10.1—10.9
	정부무역대표단	10.22—10.30
	정부대표단	11.26—12.1
알바니아	정부무역대표단	9.4—9.8
유고슬라비아	텔레비죤촬영단	1.2—1.19, 4.4—4.13
	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	4.27—5.4
	인민기술대표단	5.8—5.12
	영화대표단	5.25—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대표단	6.11—6.16
	공산주의자동맹일군대표단	6.18—6.26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대표단	6.19—6.27
	유고은행대표	9.24—10.2
	노비싸드시건축가대표단	11.2—11.6
핀 란 드	방송대표단	4.2 — 4.10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핀 란 드	신문《쑤오멘바》주필	5.7—5.15
	신문《리이또》주필	5.7—5.15
스웨리예	경제대표단	10.12—10.26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대표단	10.19—11.3
단마르크	사회인민당 위원장과 부인	9.3—9.13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	9.17—10.3
서부독일	도이쯔은행대표	9.25—10.2
	게메인 위르쯔챠프르은행대표	—〃—
	인베스트숀상업은행대표	—〃—
	히포위체셀은행대표단	—〃—
	드레즈드너은행대표	—〃—
	자유독일청년동맹대표단	10.29—11.6
	자유독일직맹대표단	10.29—11.6
오 지 리	통제은행대표	9.24—10.2
	신용은행대표	—〃—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대표단	10.8—10.23
영 국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대표단	9.24—10.4
	영국—로므니아은행대표	9.25—10.3
	영국 아바나국제은행대표	9.25—10.2
	모르간은행대표단	—〃—
	바클라이즈은행대표	—〃—
벨 지 끄	브류쎌람버르은행대표	9.25—10.3
프 랑 스	크레디 리오네은행대표	9.24—10.2
	프랑스 북구라파상업은행대표	—〃—
	프랑스 구라파련합은행대표	—〃—
	프랑스—로므니아은행대표	9.25—10.2
	상업신용은행대표	—〃—
	상공신용은행대표	—〃—
말 따	정부경제대표단	10.22—10.26
화 란	알지멘은행대표단	9.25—10.2
이딸리아	로마가극극장대표단	9.27—10.3
카 나 다	몬트리올은행대표	9.25—10.2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은행대표	9.25—10.2
뉴질랜드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8.28—9.8
	국회의원	8.10—8.17
국제기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사무국대표단	1.19—1.30
	국제체육기자협회 탁구분파 서기장	1.19—2.6
	국제탁구련맹 위원장	3.13—3.20
	유엔사무총장	5.2—5.3
	국제민용항공기구 극동및태평양지역사무소 대표일행	8.17—8.24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서기장과 그 일행	9.6—9.22
	유엔개발계획대표단	9.11—9.18
	세계민주청년련맹대표단	9.17—9.20

나라이름	대표단 이름	날 자
국제기구	세계직련잡지 《세계직맹운동》책임서기	9월—
	세계발명및저작소유권기구 부총국장	10.8—10.16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장	10.22—11.5

세계및아세아지역주요선수권대회
(1979년)

선수권대회 이름	장 소	날자	선수권대회 이름	장 소	날자
국제공개탁구선수권대회	영국	1.11—1.13	세계까야크선수권대회	서독	8월
국제공개정구선수권대회	뉴질랜드	1.6—1.8	제24차 세계현대5종경기선수권대회	웽그리아	8.12—8.16
제1차세계바드민톤선수권대회	일본	1.19—1.21	제2차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일본	8.25—9.7
세계녀자속도빙상선수권대회	화란	2.3—2.4	제1차 세계컵수영선수권대회	일본	8.29—9.13
제73차세계속도빙상선수권대회	노르웨이	2.10—2.11	1979년도국제녀자청소년체조경기선수권대회	일본	8.25—8.26
제69차세계휘거선수권대회	오지리	3.13—3.18	세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	미국	8.28—8.29
1978—1979 세계스키선수권대회	일본	3.18—	제1차 세계컵청소년지상호케이선수권대회	프랑스	8.23—9.2
제7차년례세계자유레스링선수권대회	미국	4.1	세계올림픽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	체스꼬슬로벤스꼬	9월
국제호케이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	4.13—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영국	9월
국제속도빙상선수권대회	카나다	—4.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딸리아	10월
국제공개정구선수권대회	애급	4월	제9차아세아자전거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	10.7—10.13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선	4.25—5.6	제10차 세계청소년자전거선수권대회	아르헨띠나	10.6—10.13
세계수구선수권대회	유고슬라비아	4.29—5.6	제1차 세계컵쟁탈아마츄어권투선수권대회	미국	10월
제25차로므니아 국제륙상선수권대회	로므니아	6.2—6.3	제2차 세계청소년녀자송구선수권대회	유고슬라비아	10.15—10.22
1979년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일본	6월	세계청소년남자송구선수권대회	단마르크	11월
제4차아세아권투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	6.6—6.10	국제군대배구선수권대회	희랍	10월, 11월
제29차 국제군대축구선수권대회	쿠웨이트	6.3—6.14	제9차 아세아청소년정구선수권대회	타이	10.22—10.28
제1차 세계컵쟁탈 바드민톤선수권대회및 제2차세계바드민톤선수권대회	중국	6.10—5.20	국제휘거선수권대회	일본	10.26—10.28
제30차 세계활쏘기선수권대회	서부베를린	7.16—7.20	제1차 아세아레스링선수권대회	인도	11.8—11.11
1979년도 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	일본	8.15—8.17	제2차 아세아송구선수권대회	중국	11.2—11.8

선수권대회 이름	장 소	날자	선수권대회 이름	장 소	날자
제33차 세계력기선수권대회	희랍	11.3—11.11	제10차 아세아롱구선수권대회	일본	11.30—12.12
제10차국제군대배구선수권대회	희랍	10.24—10.31	국제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	일본	12.15—12.16
제4차 국제바드민톤선수권대회	인도	11월	제2차 아세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바레인	12.16—12.25
제2차 아세아배구선수권대회	홍콩	12.5—12.13	국제정구선수권대회	오스트랄리아	12월
제20차세계유술선수권대회	프랑스	12.6—12.9	세계청소년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	핀란드	12월

1979년에 수립된 세계신기록(일부)

경기종목	신기록자	신기록(괄호안은 종전기록)
력기 52kg급		
끌어올리기	한경시 (조선)	111kg (110kg)
추겨올리기	유리크 싸르끼싼(쏘련)	152.5kg (151.5kg)
56kg급		
끌어올리기	다니엘 누니에스(꾸바)	212.5kg (212kg)
2종경기	—〃—	382.5kg
60kg급		
추겨올리기	울라뜨미르 꼴로브꼬(쏘련)	166.5Kg
끌어올리기	라디예브 라디예보브(벌가리아)	125kg
2종경기	—〃—	280kg (277.5kg)
67.5kg급		
추겨올리기	뱌체쓸라브 안드레예브(쏘련)	181kg (180.5kg)
75kg급		
끌어올리기	윅또르 부그로브(쏘련)	155.5kg (152kg)
2종경기	알렉싼드르 뻬르비(쏘련)	345kg
82.5kg급		
추겨올리기	유리크 와르다냔(쏘련)	212.5kg
2종경기	—〃—	382.5kg
끌어올리기	블라고이 블라고예브(벌가리아)	176kg (175.5kg)
90kg급		
끌어올리기	알렉쎄이 힐라쥬브(쏘련)	170.5kg (170kg)
100kg급		
추겨올리기	아담 싸이들라예브(쏘련)	225.5kg
끌어올리기	다비드 리게르 (쏘련)	180.5kg
2종경기	—〃—	405Kg
110kg급		
끌어올리기	레오니드 따라민꼬(쏘련)	186kg (185.5kg)
추겨올리기	유리자이쩨브(쏘련)	238kg
륙상및마라손		
60M실내장애물달리기(녀자)	웨라 꼬미쏘바(쏘련)	7.89초
400M장애물달리기	슈미트 (서독)	47.85초
100M실내달리기(녀자)	마를리스 게르(독일민주주의공화국)	11.29초
1,500M실내달리기(녀자)	나딸리아 마리네쓰꾸(로므니아)	4분 03초
200M달리기	삐에또로 멘네아(이딸리아)	19.72초 (19.83초)
〃 (녀자)	마리타 코호(독일민주주의공화국)	21.71초
400M달리기	—〃—	48.59초
800M달리기	세바스티얀코에(영국)	1분42.33초
1마일달리기	—〃—	3분48.95초

경기종목	신기록자	신기록(괄호안은 종전기록)
2,000M달리기(녀자)	후이까 (로므니아)	5분35. 5초
2.5kM특수종목	로져(미국)	1시간14분11.8초
10KM단거리마라손	그레테 와이쯔(노르웨이)	31분15.4초
20KM—〃—	다니엘 바우지스타(메히꼬)	1시간18분45초
100마일(약160KM)마라손)	리치(스코틀랜드)	11시간51분11초(12시간 12분 38초)
4×100M이어달리기(녀자)	마리타 코흐, 로미 슈나이데르, 잉그리드 아우에르슈왈드, 마리에스 게흐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42.09초
—〃—(남자)	로버트손, 글란스, 콜린즈, 라타니(미국)	38.30초(39.32초)
장대뛰기(실내)	덴 리플리(미국)	5.63M
창던지기(녀자)	루트 푸히스(독일민주주의공화국)	69.52M (69.32M)
3,000M속도빙상	이시하라 다쯔오(일본)	5분9.2초 (5분14.40초)
수영		
100M자유형	바르바라 크라우스(독일민주주의공화국)	54.90초
200M자유형	—〃—	1분56.80초
200M배헤염	쎄르게이 꼬뿔라꼬브(쏘련)	1분49.83초
200M가슴헤염(녀자)	리나 까슈쥐쩨(쏘련)	2분28.36초 (2분31.09초)
200M나비헤염(녀자)	메아리 미가(미국)	2분09.77초
—〃—(남자)	바싸로(미국)	2분03.29초
400M배헤염(녀자)	리나 까슈쥐쩨(쏘련)	3분51.41초
—〃—(남자)	울라지미르 쌀리니꼬브	3분51.40초 (3분51.41초)
800M배헤염	쎄르게이 쌀니꼬브(쏘련)	7분56.49초 (7분61.49초)
사격		
녀자표준권총사격경기	카오 킹 (중국)	593점(592점)
10M공기보총사격경기	쏘련 씨비리군관구	1,539점
소구경권총사격경기(30발)녀자단체전	둔쌴, 두인쉔, 가오짠민(중국)	1762점(1755점)
고무동력모형활공기직선거리비행	포문빈(중국)	678.93M (100.07M)

1979년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선수들

△ 유리크 와르다냔 (쏘련력기선수)

△ 마리타 코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녀자 달리기선수)

△ 세바스티얀 코에 (영국달리기선수)

세 계 인 구

(단위—명)

년 도	인 구 수	년 도	인 구 수
기원이 시작될때	2억 700만	1971	37억 600만
1650	5억	1972	37억 8,200만
1750	6억 9,700만	1973	38억
1850	11억 2,000만	1974	38억 9,000만
1920	17억 5,000만	1975	39억 6,800만
1930	20억	1976	40억 4,500만
1950	25억	1977	41억 2,400만
1960	30억	1978	42억 5,800만
1965	33억 5,500만	1979	43억 3,600만
1970	36억 3,200만	1980. 5	44억 1,500만

※ 최근 30년동안 년평균 6,000여만명씩 늘어났다.

인구가 많은 나라

(1980년) (단위—명)

나 라	인 구 수	나 라	인 구 수
중 국	9억 5,680만	인도네시아	1억 5,190만
인 도	7억 7,570만	일 본	1억 1,613만 (1979)
쏘 련	2억 6,450만	브 라 질	1억 1,917만 〃
미 국	2억 2,220만		

※ 인구가 제일 빨리 장성하는곳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이고 가장 뜬곳은 서구라파나라들이다. 서독파 스위스, 영국, 오지리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주민수가 줄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실업자수

나 라	1979년		1980년	
	실업자수(명)	실업률(%)	실업자수(명)	실업률(%)
미 국	620만 (11)	6	820만 (5)	8
일 본	116만 (9)		118만 (4)	
영 국	139만 500	5.8	152만 3,000(4)	6.3
프랑스	134만 9,900	6.1	148만 5,000(4)	6.2
서 독	87만 6,100	3.4	103만 6,500(1)	4.5
이딸리아	162만 9,600	7.6		7.8

(※ 괄호안의 수자는 월을 표시함)

세계원유매장량

(1978년) (단위—톤)

구 분	매 장 량	구 분	매 장 량
총매장량	878억	라틴아메리카, 북미	103억
중 동	506억	아프리카	79억
구 라 파	134억	아세아, 대양주	54억

주요 원유생산국들의 생산량과 매장량

(1979년) (단위—톤)

№	나라	생산량	매장량	№	나라	생산량	매장량
1	쏘 련	5억 8,500만	97억	9	중 국	1억 800만	
2	사우디 아라비아	5억 1,000만	227억	10	리비아	1억 100만	34억
3	미 국	4억 7,900만	※40억 3,100만	11	아랍추장국련방	8,900만	47억 2,600만
4	이라크	1억 7,500만	44억 4,200만	12	카나다	8,600만	※8억 1,600만
5	이 란	1억 4,500만	80억 8,000만	13	베히꼬	8,000만	※14억 2,500만
6	쿠웨이트	1억 3,000만	90억 6,800만	14	인도네시아	8,000만	※15억 100만
7	베네수엘라	1억 2,500만	※24억 6,600만	15	영국	7,900만	※13억 7,600만
8	나이제리아	1억 1,400만	27억	16	알제리	6,100만	10억

1979년 세계원유생산량은 32억 5,100만톤으로서 새 기록을 창조, 1978년에 비하여 5%증가 ※표식을 한 나라는 1977년현재 매장량

세계적인 원유소비량

1979년에 세계적인 원유소비량은 31억톤(1978년보다 1%증가)

그중 4분의 3을 다음의 10개 나라들에서 사용

나 라	소비량(톤)
미 국	8억 7,400만
쏘 련	4억 4,000만
일 본	2억 6,500만
서 독	1억 4,700만

그밖에 프랑스, 이딸리아, 영국, 중국, 카나다, 에스빠냐이다.

세계 알곡 총생산량

(단위—톤)

년 도	총생산량
1977—1978	10억 8,500만
1978—1979	11억 8,000만
1979—1980	11억 3,000만(추산)

※ 세계알곡재고량 1979년에 2억톤이였다.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백만톤)

지표	1970	1975	1977	1978	지표	1970	1975	1977	1978
알곡	1213	1363	1467	1559	과일	229	256	256	265
벼	308	360	372	379	사과	21	30	29	31
강냉이	261	324	351	363	포도	56	60	54	56
밀	318	355	386	437	남새	…	308	320	325
보리	139	150	173	189	목화	11.7	12.3	14.1	13.5
두류	45	44	48	51	담배	4.7	5.4	5.7	5.9
감자	312	286	294	304					

세계 주요 집짐승마리수

(단위—백만마리)

지표	1970	1976	1977	1978	지표	1970	1976	1977	1978
소및물소	1126	1340	1345	1346	염소	394	423	429	436
젖소	199	202	204	206	닭	5368	6003	6161	6445
말	67	62	62	…	오리	133	156	155	…
돼지	628	679	706	732	게사니	59	86	90	…
양	1063	1051	1046	1056					

1979년도 우리 나라 기상개관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어 력사에 보기드문 많은 눈이 내렸는가 하면 이상 한파, 태풍에 의한 센바람과 무더기비 등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났다.

1979년에는 기온의 변화가 변덕스러웠으며 겨울철기온이 몹시 높았다.

그러므로 년평균기온은 0~12°C로서 평년보다 0.5~1.5°C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과 동해안북부지방은 평년보다 0.5~1.0°C, 북부내륙지방과 동해안중부지방은 1.0~1.5°C정도 높았다.

한해강수량을 보면 봄,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렸으므로 자강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지방은 평년의 110~130%, 동해안북부지방은 100~105% 정도였는데 강원도해안지방에서는 140~150%에 달하는 많은 량이였다. (표1)

1979년 기상조건을 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3~6°C 높았는데 이것은 100년동안에 한두번 나타날수 있는 높은 온도였다.

2월에 들어서면서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2월 1~5일 기간의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7~9°C나 낮았으며 이 기간에 우리나라 대부분지방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관측되였다.

그러나 2월중순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다시 높아진 관계로 2월에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4°C높았다.

1~2월 강수량을 보면 우리 나라 거의 모든지역에서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는데 특히 눈이 많이 내린 강원도해안지방은 평년의 5~6배에 달하는 300~400mm의 많은 량이였다.

봄철 3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1.5~3.0°C 높았다. 그 결과 봄철의 시작은 평년보다 10~20일이나 빨랐다.

그러나 4월중순경부터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4월평균기온은 북부내륙지방에서는 1.5~2.0°C, 기타지역은 0.5~1.0°C정도 낮았으며 5월에도 평년보다 0.5°C정도 낮았다.

1979년에는 봄철강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3월에는 자강도 북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년의 150~300%, 4월에는 전반적지역에서 평년의 200~28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러나 5월에는 개성지방과 강원도 해안지방을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는 평년의 40~70%밖에 안되는 적은 량의 비가 내렸다.

여름철에도 강수량이 많았다.

특히 6월에는 장마가 평년보다 10일이상이나 빨리 시작된 관계로 북부내륙지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년의 2~3배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7월에는 대동강 하구와 동해안 북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평년의 70~80%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8월에는 청천강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년의 130~18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여름철기온을 보면 동해안지방은 평년보다 0.5~1.0°C 높았으나 기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0.2~1.0°C정도 낮았다.

가을철에는 기온의 변화가 매우 변덕스러웠다.

9월에는 평년보다 0.5~1.0°C정도 낮았으나 10월에는 1.8~2.0°C나 높았다.

11월에는 중순에 밀려온 한파로 인하여 기온이 몹시 낮아졌으며 따라서 11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5~1.5°C, 일부 지역에서는 2.0°C나 낮았다.

가을철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평년의 20~80%밖에 안되는 적은 량이였다.

특히 평양, 개성 지방과 동해안 북부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평년의 20~40%정도였다. (표2)

12월에는 특히 중순과 하순에 기온이 높아서 평년보다 2~4°C 높았다.

강수량은 서해안지방은 평년보다 많았으나 그외 대부분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었다.

적산온도

1979년에는 봄철이 비록 일찌기 시작되였으나 그후 기온이 낮았다.

서해안지방에서는 적산온도가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봄, 여름철기온이 높았다.

동해안지방은 적산온도가 많았다. (표3)

하루평균기온 5°C이상 적산온도는 2,000~4,100°C범위로서 동해안지방에서는 평년보다 100~150°C, 서해안지방은 10~80°C 많았으나 북부내륙지방에서는 약간 적었다.

하루평균기온 10°C이상 적산온도는 1,500~3,900°C 범위로서 동해안지방은 100~250°C, 서해안지방은 10~100°C 많았으나 북부내륙지방 특히 량강도지방이 적었다. (표3)

이상기후현상

1979년에도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가물과 무더기비, 강추위와 많은 눈 등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세계적범위에서 일어나고있는 기후변동은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어 태풍과 무더기비 등 이상기후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1979년에 일어난 이상기후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이상한파 10월과 11월초는 례년에 보기드문 따뜻한 날씨였는데 11월초순말부터 중순에 걸쳐 북쪽에서 불어온 강력한 한파에 의해 기온이 몹시

낮아졌다.

그리하여 11~15일기간에는 우리 나라 모든 지방에서 평년보다 11~13°C나 낮은 온도가 관측되였으며 14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평양, 사리원, 개성에서 −12°C, 신의주, 함흥에서 −14°C, 원산, 해주에서 −10°C, 청진에서 −11°C, 강계에서 −18°C, 혜산에서 −21°C 였다. 이것은 70년래 처음보는 낮은 온도였다.

2. 많은 눈 1979년 1월 하순에는 강원도 해안지방에 례년에 드문 많은 눈이 내렸다.

1월 2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월말까지 계속되였는데 이 기간의 쌓인 눈높이는 원산에서 155Cm, 안변에서는 200Cm나 되였으며 강수량은 원산에서 307.6mm나 되였다. 이것은 70년래 처음보는 많은 눈이였다.

3. 태풍과 무더기비 8월 16~18일기간에 군산만을 거쳐 동해안 북부를 지나간 태풍 10호에 의하여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많은 지역에서 15~20m/초의 강한 바람이 불고 200~300mm에 달하는 무더기비가 내린 지역이 많았다.

1979년에는 저기압에 의한 무더기비도 자주 내렸다.

7월말에 청천강 상류지역에서는 200~300mm의 무더기비가 내렸으며 8월초에는 황해남북도, 개성,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방에서 400~500mm에 달하는 무더기비가 내렸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1979년에 이상한파와 많은 눈, 태풍과 무더기비 등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히 나타났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은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력사상 처음보는 만풍년을 가져오게 되였다.

1979년도 한해평균기온과 강수량

(표1)

구분 / 지점	기온(°C)		강수량(mm)	
	기온	평년파의차	강수량	평년파의 대비(%)
평양	10.5	0.9	1,158.7	117
신의주	9.6	0.8	1,159.0	110
사리원	10.9	0.8	1,214.6	132
해주	11.4	0.7	1,435.1	128
개성	11.0	0.6	1,515.2	119
강계	7.2	1.0	908.0	95
혜산	3.9	1.0	648.4	105
청진	8.4	1.0	686.0	102
함흥	10.4	0.9	1,035.3	106
원산	11.5	1.1	2,070.4	145

가을철강수량(mm)

(표2)

구분 / 지점	강 수 량	평년파의대비(%)
평양	74.8	39
신의주	165.7	75
사리원	73.6	45
해주	130.4	65
개성	76.8	36
강계	135.6	75
혜산	55.3	52
청진	31.8	18
함흥	74.4	38
원산	276.4	79

평균온도(°C)

월 / 지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양	−2.6	−2.0	4.0	9.1	15.7	20.9	23.7	24.0	18.1	13.4	3.1	−1.4	10.5
신의주	−4.8	−3.0	3.3	8.4	14.8	19.5	22.8	23.9	17.6	13.4	1.4	−2.1	9.6
사리원	−1.7	−1.4	4.3	9.2	16.0	20.8	23.6	24.0	18.2	14.0	3.9	−0.3	10.9
해주	−0.3	−0.1	5.0	9.5	15.5	19.6	23.2	24.3	19.3	14.8	4.6	0.8	11.4
개성	−0.8	−0.8	4.7	10.0	15.1	20.0	23.3	24.2	18.7	14.2	4.0	0.0	11.0
강계	−9.0	−6.8	1.1	6.2	15.1	19.6	21.9	22.1	14.7	10.3	−1.9	−6.8	7.2
혜산	−14.4	−10.8	−2.8	3.1	12.5	17.3	19.7	19.3	11.8	7.2	−5.5	−10.9	3.9
청진	−4.3	−2.9	1.5	5.9	11.7	16.6	19.6	21.7	16.8	12.3	2.8	−0.5	8.4
함흥	−1.6	−1.3	4.3	8.6	14.8	19.6	22.1	23.4	17.6	13.4	4.1	−0.1	10.4
원산	−0.5	−0.1	5.1	9.5	15.6	20.0	22.7	23.8	18.3	14.5	6.0	2.5	11.5

강수량(mm)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양	11.6	21.3	53.1	144.2	47.9	205.3	296.0	283.6	55.1	12.6	7.1	20.9	1158.7
신의주	15.1	25.0	20.6	114.1	60.8	245.3	292.9	189.2	111.3	25.6	28.8	30.3	1159.0
사리원	57	31.2	57.9	119.0	34.3	256.5	184.4	426.3	48.3	9.9	15.4	25.7	1214.6
해주	7.2	28.3	52.8	140.3	57.5	317.0	220.8	438.0	54.4	21.9	54.1	42.8	1435.1
개성	15.0	38.6	58.9	126.2	85.1	280.8	260.4	527.0	36.9	15.4	24.5	46.4	1515.2
강계	15.3	10.0	22.9	98.0	44.8	139.3	295.0	137.3	79.3	36.6	19.7	9.8	908.0
혜산	13.2	6.4	38.9	61.0	32.5	84.4	140.2	207.4	36.9	11.3	7.1	9.1	648.4
청진	11.6	23.5	53.0	70.3	18.0	31.7	213.9	210.8	16.5	5.5	9.8	21.4	686.0
함흥	20.7	5.2	70.5	89.7	44.6	160.9	199.6	340.3	57.2	6.9	10.3	29.4	1035.3
원산	307.6	73.2	69.3	195.7	199.1	250.5	308.1	363.0	110.1	166.3	0.0	27.5	2070.4

하루평균기온 5°C및 10°C적산온도

(표 3)

지점 \ 구분	5°C		10°C	
	1979년도적산온도	평년파의차	1979년도적산온도	평년파의차
평양	4,002	49	3,730	76
신의주	3,823	65	3,543	83
사리원	4,045	13	3,773	29
해주	4,092	7	3,810	12
개성	4,064	25	3,799	62
강계	3,332	—56	3,101	—14
혜산	2,695	—27	2,265	—164
청진	3,239	120	28,65	99
함흥	3,847	155	3,542	164
원산	4,073	144	3,798	215

이상기후현상과 1979년 세계기상상태

1979년에 세계는 기상관측으로도 예측할수 없는 이상기후현상으로 큰 재난을 겪었다.

강추위와 많은 눈

1979년 1월초에 대서양의 비스까이만 남동부에서 발생한 강한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로 북극의 찬공기가 흘러든 결과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는 눈보라와 강추위가 들이닥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많이 쏟아진 눈파 강추위로 900여대의 뻐스가 다니지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혼란이 일어났고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보았다.

프랑스와 서부독일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는 10년래의 처음으로 되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이딸리아에서는 4메터의 눈이 쌓여 철길파 차길이 막혔다.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는 1월에 1873년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노르웨이의 부분적지역들에서는 기온이 령하 50도까지 내려갔다.

영국에서는 2월 며칠동안에 30년래의 처음보는 심한 추위로 모든 교통수단들이 멎는 등 큰 경제적혼란이 일어났다.

3월 22일에는 북극의 찬공기가 구라파지역에 내려오면서 영국에서도 기온이 령하 40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러한 한파는 30년래 처음보는것이였다.

5월초에도 영국에서는 때아닌 눈이 내렸는데 이것은 1931년이래 처음보는 현상이였다. 또한 기온이 령하로 내려가 작은 호수들은 다시 얼어붙었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경리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5월에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도 34년만에 처음보는 눈이 내렸다.

일본에서는 5월 13일밤부터 15일아침까지 눈이 내려 군마현과 나가노현을 련결하는 도로에는 35센치메터, 많은데서는 1메터 50센치메터의 눈이 쌓였다.

1979년에 추위와 눈보라는 아메리카지역에서도 있었다.

1월에 메히꼬만의 서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북극의 찬공기가 흘러들어온 결과 미국의 로스안젤스지역에서는 1934년이래 처음보는 눈보라가 있었다.

미국의 동부해안 여러주들에서는 2월 하순에 50센치메터이상의 눈이 내렸는데 이것은 50년래의 가장 많이 내린 눈이며 이로 말미암아 뉴욕과 워싱톤 그리고 플로리다주와 기타 주들에 있는 비행장들이 폐쇄되고 봉사망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주목되는것은 열대사막기후로서 최고기온이 58도까지 오르는 사하라사막지역에 1979년에 력사상 처음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이해 7월 하순 사철 더운 지대로 알려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와 나탈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200여명의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무더기비와 큰물

2월 중순에 브라질의 미나스쉐라이스를 비롯한 일부 도시들에서는 42일동안 내린 비로 큰물이 져 근 3,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200여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1만 2천여채의 집이 물에 잠겼다.

2월 중순에 뽀르뚜갈에서는 100년래의 큰물로 음료수공급이 끊어져 수천명이 물을 찾아 떼를 지어 떠났고 1만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 배들을 림시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였다.

5월에 빠라과이에서는 1905년이래 최악의 큰물이 났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빠라과이강이 넘쳐나 그 주변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2만 3,000명이상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브라질에서는 한개의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고 9천 500여명이 집을 잃었다.

카나다의 도슨씨타가 물에 잠겨 황페화되였으며 도슨씨타와 그 주변에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였다.

인도네시아 쟈바에서는 6월 상순에 큰물과 사태로 인하여 1,500여명이 집을 잃었다.

남부 탄자니아에서도 큰물로 2천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1천 700헥타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고 300채의 집이 파괴되고 한달동안이나 철도가 운행되지 못하였다.

메히꼬에서도 9월 중순에 4일동안 내린 비로 6만명이 집을 잃었다.

11월 22일에 남부인도의 타밀나두주에서 2주일간 계속된 큰물로 바이강이 범람하여 5만명이 큰물피해를 받았으며 4천헥타르의 논이 물에 잠겼다.

미국의 여러 지역들에 봄철홍수가 들이닥쳐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다.

더위와 왕가물

1월 3일 오스트랄리아에서는 70년래의 무더위가 있었는데 특히 눌라보르평원에서는 기온이 51.7도까지 올라감으로써 하늘로 날던 새들이 땅에 떨어지고 100여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1월 중순에 남아프리카, 로데시아의 일부지역에서는 왕가물이 들어 강냉이농사에서 하루에 15만톤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1월 상순 일본에서도 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5~8도나 높았으며 기온이 령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년간에 처음 있은 일이였다.

2월 상순 가물은 브라질의 남부주들에서도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강냉이, 목화 등 농작물의 70%가 피해를 보았다.

6월 상순 인도의 벵갈주에서 가물로 15개지구중 13개의 지구에서 10억루피(1억 2천 500만딸라)의 황마작물이 완전히 말라죽었다.

6월 30일 파키스탄의 판잡주에서는 최고기온이 51도를 기록함으로써 사람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

8월 인도에서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물이 들어 알곡작물의 60~70%가 피해를 보았다. 이것은 40년래의 처음보는 현상이다.

태풍과 센바람

3월 11일 일본의 홋가이도 도로꾸간또지방에서 하루종일 돌개바람이 휘몰아쳤는데 미야기현에서는 네살난 남자아이가 바람에 날려올라갔으며 도꾜도안에서만도 6명의 중상자가 났다.

이날 홋가이도지방에서 돌개바람의 최대속도는 34메터, 후꾸시마현과 도꾜에서는 25메터를 기록하였다.

5월 초에 상부애급에서도 2일동안 일어난 모래폭풍으로 어린이들이 죽고 200여채의 집이 파손되였다.

8월 16일 쏘련에서도 원동에서 불어오는 초속 38m의 강한 바람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아지고

지붕이 날아나고 전선대들이 부러졌다.

8월말 도미니까에서는 초속 66메터의 태풍(하리껜)이 휘몰아쳐 60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인구 1만 5천여명이 되는 미사보라는 읍에서는 마사지지 않은 집이 15동밖에 되지 않았다.

9월하순에 태평양우에서 발생한 955미리바르의 태풍 16호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9월 30일에 일본 규슈남부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꾸어 긴끼지방들을 중심으로 폭풍이 불고 무더기비가 내려 산 사태가 나고 강물이 붙어나 전국적으로 31개 도, 부, 현들에서 피해를 입었다.

10월 중순에는 태평양상에서 태풍 20호가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방향을 바꾸어 10월 19일에는 혼슈남부지역으로부터 북부지역으로 지나갔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규슈로부터 홋가이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43개 도, 부, 현들에서 피해를 받았다.

일식 및 월식 현상(1979년)

1979년에 지구우에서는 일식현상이 2번, 월식현상이 2번 있었다. 일식현상은 2번 다 우리 나라에서 볼수 없었고 월식현상은 2번 다 보였다. 아래에 1979년의 일식날자, 시간과 보이는곳, 그리고 그 자리표들을 소개한다.

1. 1979년 2월 26일 완전일식

—보인곳：우리 나라에서는 안보였다.
북아메리카, 대서양, 태평양의 북동지역, 피레네이반도, 영국의 섬들, 그린랜드의 남쪽에서 보였다.

—시각(력정시); 1979년 2월 26일 17시 22분 09초.5(지구중심에서 본 해중심과 달중심의 적경합의 시각)

—해를 지구중심에서 본 자리표;
적경, 22시 36분 46초, 23+9초.444(T－17시)
적위, －8°45′19″.2+56″.08(T－17시)
적도지평시차 8″.88
시반경 16′09″.09

—달을 지구중심에서 본 자리표
적경, 22시35분55초.56+146초.692(T－17시)－0초.089(T－17시)²
적위, －7°51′54″.6+649″.30(T－17시)+1″.48(T－17시)²
적도지평시차 61′09″.37－0″.643(T－17시)－0″.020(T－17시)²
시반경 16′39″.81－0″.175(T－17시)－0″.005(T－17시)²

2 1979년 8월 22일 가락지일식

—보인곳：우리 나라에서는 안보였다.
남아메리카의 남쪽지역, 남극지방 태평양의 남동지역, 대서양의 남서지역에서 보였다.

—시각(력정시)：1979년 8월22일17시52분38초.7

—해를 지구중심에서 본 자리표：
적경, 10시04분42초.0.8+9초.229(T－18시)
적위, +11°48′23″.7－50″.38(T－18시)
적도지평시차 8″.69
시반경 15′48″.82

—달을 지구중심에서 본 자리표：
적경, 10시04분55초.21+116초.328(T－18시)－0초. 055(T－18시)²
적위, +10°53′57″.9－465″.03(T－18시)－1″.35(T－18시)²
적도지평시차 53′57″.40－ 0″.127(T－18시)+0″.005(T－18시)²
시반경 14′42″.12－0″.035(T－18시)+0″001(T－18시)²

월 식

날자시각 (력정시)	보 인 곳	식의 요소	해	달
1979년 3월 13일 20시 49분 19초. 2 부분월식	시작되는것은 구라파주, 아세아주, 아프리카주, 오스트랄리아주, 남극지방, 북빙양, 인도양, 대서양의 동부, 태평양의 서부에서 보였다. 끝나는것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북동끝부분, 그린랜드, 구라파주, 아세아주(북쪽끝부분제	적경	23시 33분 06초. 749	11시33분06초.749
		적경의 한시간동안 변화량	+9초170	+115초558
		적위	－2°54′18″.27	+3°24′23″.90
		적위한시간동안 변화량	+59″.08	562″.07
		적도지평시차	8.″84	54′36″.38
		지심반경	16′05″.39	14′52″.82

날자시각 (력정시)	보 인 곳	식의 요소	해	달
	외), 아프리카주, 남극지방,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에서 보였다.			
1979년 9월 6일 10시41분 31초.8 완전월식	시작되는것은 깜챠트까, 북아메리카(그의 북동지역제외), 남아메리카, 오스트랄리아주(그의서쪽지역제외), 뉴질랜드, 남극지방, 태평양, 북빙양에서 보였다. 끝나는것은 북아메리카의 서쪽지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남극지방, 북빙양, 태평양, 인도양의 동쪽지역에서 보였다.	적경 적경의 한시간동 안변화량 적위 적위 한시간동 안변화량 적도지평시차 지심반경	10시58분15초.055 +9초.013 +6°34′59″.14 −55″.76 8″.72 15′52″.06	22시58분15초.054 +146초.982 −7°02′36″.91 +680″.06 1°01′23″.81 16′43″.74

우리 나라에서 보인 월식(우리 나라 시간)

	1979년 3월 14일	1979년 9월 6일
겉 그늘 가림시각	3시 10분.9	17시 20분.2
속그늘 가림시각	4시 28분.9	18시 17분.9
속그늘 가림시각 방위각	139°32′	48°22′
속그늘 다 가림시각	—	19시 31분.3
가장 깊은 가림	6시 08분.0	19시 54분.2
가장 깊은 가림 식분	0.86	1.1
속그늘 다 가림 끝	—	20시 17분.1
속그늘 가림 끝	7시 47분.2	21시 30분.5
속그늘 가림 끝 방위각	255°34′	277°50′
겉그늘 가림 끝	9시 05분.2	22시 28분.2

※ 방위각은 달의 북점에서 시작하여 동쪽, 남쪽, 서쪽순서로 돌아가면서 잰 각이다.
식분은 달이 가리워지는 직경과 달의 직경과의 비이다.

1979년도 세계지진일람

날자 월	날자 일	발진시간		지 진 지 역	지진크기 (M)
1	10	01	26	이란 동남부	6.1
	10	15	05	〃	6.2
	11	06	28	인도네시아 쑤마뜨라섬 남부	6.3
	16	09	50	이 란	6.9
	16	15	05	오스트랄리아 서남쪽바다	6.0
	25	04	08	태평양 남부 커마데크제도	6.2
	26	10	04	메히꼬 남부	6.7
	27	18	15	태평양 서남부 뉴헤브리디즈제도	6.3
	27	18	58	미국 알라스카 남쪽바다	6.0
2	11	22	22	필리핀 민다나오섬 남부	6.0
	13	05	34	미국 알라스카 동부	6.9
	16	00	31	태평양 서남부 뉴헤브리디즈제도	6.0

날자 월	날자 일	발진시간		지진지역	지진크기 (M)
	16	10	08	뻬루 남부해안	7.0
	20	06	32	일본 혼슈 동북부해안	6.9
	28	21	27	미국 알라스카 동남부	7.0
3	8	14	49	인도네시아 쑬라웨씨섬 북부	6.2
	14	11	07	메히꼬 서남부	7.9
	15	12	52	중국 쿵민 서남부	6.3
	16	15	35	인도네시아 쑤마뜨라섬	6.3
	29	02	01	중국 우루무치 서남부	6.0
	29	07	07	중국 칭하이성 남부	6.2
4	10	01	42	인도네시아 쑬라웨씨해	6.8
	14	10	00	태평양동남쪽에아스뗄섬남부	6.6
	15	06	19	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국경 아드리아해	7.0
	15	22	14	인도네시아 쑬라웨씨해	6.5
	19	22	47	인도네시아 쑤마뜨라섬 빠당 서부	6.4
	24	01	45	태평양 남부 통가 서부	6.1
5	1	00	39	필리핀 민다나오섬	6.0
	1	13	03	태평양 서남부 로얄타제도	6.8
	16	02	27	남아프리카 트리스탄다쿠나 제도	6.0
	20	08	14	미국 알라스카	6.2
	21	22	22	뻬루 서남해안	6.7
	24	17	23	아드리아해	6.4
	25	16	45	이슬란드 북해안	6.4
6	10	06	50	중앙아프리카—에티오피아 국경	6.4
	22	06	30	메히꼬 남쪽	6.6
	27	09	50	빠나마일대	6.1
7	1	20	38	빠나마—꼬스따 리까 국경	6.5
	8	08	55	태평양 남부 통가서남해안	6.0
	13	08	10	일본 혼슈남부 시모노세끼	6.0
	24	19	31	인도네시아 쟈바섬남쪽바다	6.7
8	5	00	53	태평양 남부 통가	6.1
	24	04	26	꼬스따 리까	6.5
	24	16	59	중국—몽골국경	6.0
	25	08	44	브라질동북쪽바다	6.6
	26	14	31	필리핀 루손섬북쪽바다	7.0
9	12	05	17	인도네시아 서부이리안북부	7.3
	29	18	37	인도네시아 쑤마뜨라섬빠당서남쪽바다	6.7
10	12	10	25	뉴질랜드남부해안	7.1
	15	23	17	미국캘리포니아 피닉스서부	7.0
	20	01	41	인도네시아 쟈바섬동부	6.0
	22	05	58	인도네시아 몰루까해	6.2
	23	09	51	태평양서남부 솔로몬제도	6.5
	27	14	35	과떼말라	6.8
	27	21	43	〃	6.6
11	2	15	53	인도네시아 쟈바섬	6.0
	13	19	04	인도네시아 쑤마뜨라섬남부	6.1
	14	02	21	이 란	6.9
	16	15	21	태평양 남부 피지	6.9
	16	18	10	뉴기니아섬	6.6
	24	19	19	태평양 남부 통가	6.2
	27	17	10	이 란	7.3
12	12	05	17	뉴기니아섬일대	7.3
	12	07	59	콜롬비아 보고따서부	7.5
	15	17	44	타이완섬(대만) 동쪽바다	6.5
	17	19	58	인도네시아 쟈까르따서북부	6.8

기후에서의 세계적인 기록들

구 분	세계적인 기록
가장 더운곳	에티오피아의 다로엘지구에서 1960～1966년사이에 한해 평균온도가 34.4°C였다.
가장 추운곳	남위 78°, 동경 96°에 자리잡고 있는 남극주 랭극의 한해 평균온도가 −57.8°C였다.
하루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곳	1952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도양의 레유니옹섬에 있는 시라보스에서 하루의 강우량이 1,870mm였다.
한해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곳	1960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인도 아쌈주의 체라푸쁘지에서 한해 강수량이 2만 6,461mm였다.
가장 습한곳	하와이의 카우아이섬에 있는 와이아레아산에서 1920년부터 1972년까지 매해 평균 강수량이 1만 1,455mm였으며 한해에 약 350일동안 비가 내렸다.

구　분	세계적인 기록
가장 건조한곳	칠레의 아타카마사막에 1971년현재 400년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해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곳	1971년 2월 19일부터 1972년 2월 18일까지 한해동안 미국 워싱톤주 레이너산에 있는 천당지역에 눈이 3만 1,102mm내렸다.
한해에 해가 비치는 시간이 가장 긴 지역	동부사하라에 해가 비치는 시간은 한해에 평균 4,300시간이다.
해가 비치는 시간이 가장 적은지역	북극에서 겨울에 해빛이 없는 시간이 186일이나 되여 기나긴 야밤상태에 처하게 된다.
가장 큰 우박	1970년 3월 9일 미국 칸사스주의 커펠빌에 내린 한덩이 우박의 무게가 750그람, 직경이 19cm였다.
바람이 가장 많은 지역	남극주의 죠지 5세해안에 있는 련방만은 지구상에서 바람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바다바람의 속도가 시간당 320km이다.

국내주요일지

(1979년 1—12월)

1 월

2일 《로동신문》이 사설 《새로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자!》를 실음

4일 꾸바혁명승리 20돐 평양시기념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양덕군 온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회답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대회 평양에서 진행 (12일까지)

13일 《로동신문》이 민주주의캄보쟈에서 빚어진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글을 발표

14일 수산부문에서 1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1978년말부터 시작된 1978년도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이 끝남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공화국 북반부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고 4개항목의 통일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

25일 《로동신문》이 사설 《온 민족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현실적인 방안》을 실음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월 21일에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시군중집회 시경기장에서 진행▶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이 남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 및 각계각층의 애국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조직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됨

28일 경공업위원회에서 1월분계획을 완수

29일 석탄공업총국에서 1월분계획을 완수

30일 건재공업부, 광업위원회, 전력공업부, 화학공업부, 자원개발부들에서 1월분계획을 완수

31일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공식태도를 표명하여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성명

2 월

3일 령대탄광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3대혁명소조원들, 과학원 채굴공학연구소 연구집단과 합심하여 새로운 채탄법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5일 남북조절위원회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제의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성명이 발표됨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발표됨

12일 수산전선의 어로전사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겨울철물고기잡이목표를 빛나게 돌파한 소식을 《로동신문》이 보도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란림시정부를 승인

16일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진행(25일까지)

17일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 판문점에서 진행

20일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열리는것을 계기로 북과 남이 통일팀을 만들어 출전할것을 제의하여 조선체육지도위원회와 조선탁구협회가 남조선측에 편지를 보냄▶새로 건설된 신안주—회천사이의 전기철도개통을 위한 모임 신안주 청년역에서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월 20일에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의 궐기모임들이 진행됨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쎄인트 루씨아를 승인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각지에서 기념강연회 진행▶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와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명부를 공시▶《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5돐기념 중앙사진전시회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림

27일 새로 건설된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소식이《로동신문》에 실림▶북과 남의 탁구협회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첫 회담을 가짐

3 월

1일 3.1인민봉기 60돐 평양시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3일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사업이 전국적으로 끝남 ▶ 전국직업동맹선전일군회의 평양에서 진행

5일 북과 남의 탁구협회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두번째 회담 진행

7일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두번째 접촉을 가짐 ▶ 전국로동자예술소조축전이 진행됨(19일까지)

9일 북과 남의 탁구협회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세번째회담을 가짐 ▶ 철도운수부문청년열성자회의 평양에서 진행(8일부터)

11일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진행,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고 100%가 찬성투표

12일 북과 남의 탁구협회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네번째 회담을 가짐

13일 각 시, 군들에서 인민회의 제1차회의 진행 (15일까지)

14일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우리측 련락대표들과 남측련락대표들사이의 제3차접촉 판문점에서 진행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군종합농장창설 20돐기념 과학토론회 옹기군에서 진행

19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피바다》공연 500회기념보고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웽그리아쏘베트공화국창건 60돐에 즈음한 평양시기념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21일 전국설비관리일군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92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25일 프랑스의 마씨에서 진행된 제5차에쏜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가 1위를 쟁취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9일까지)

4 월

1일 사로청중앙위원회 제19차전원회의 진행 (3. 31~4. 1일까지)

2일 발명가, 창의고안명수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일까지)

4일 해주항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5일 우리 나라 선수들이 쏘련에서 진행된 국제체조경기들의 륜경기에서 제 1, 2위를 쟁취

6일 새 돈을 발행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과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이 발표됨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환영하는 강계시군중대회 진행

8일 태성호에 물을 끌어넣는 물길확장공사가 완공된 소식이 《로동신문》에 실림

10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 공화국각지에서 영화상영순간 시작

12일 전국적으로 력사적인 화폐교환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남(4월 7~12일까지)

14일중앙사진전람회 평양체육관에서 열림 ▶ 평양애국옥당공장준공식 현지에서 진행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을 깊이 간직하고 더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로동신문》이 실음 ▶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만경대에서 성대히 진행 ▶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와 청소년학생들의 꽃배놀이 진행

19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19돐기념 평양시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24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47돐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25일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막식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27일 현대적인 평양산원건설착공식 현지에서 진행

5 월

1일 평양시근로자들이 외국의 벗들과 같이 릉라도에서 5.1절을 뜻깊게 보냄 ▶ 5.1절경축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있는 외국손님들과의 친선련환모임 대성산, 모란봉 유원지들에서 진행

5일 미주지역해외교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6일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전에서 우리 나라 선수 2위를 쟁취

11일 보통강기슭에서 창광원착공식 진행

15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월 14일에 주신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18일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 전국과학토론회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진행

21일 삼지연못가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식 성대히 진행, 삼지연혁명사적비제막

22일 신사동혁명사적비와 청봉헌시비 제막식 현지에서 진행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 삼지연읍광장에서 성대히 진행, 경축연회와 근로자들의 야회도 현지에서 진행

24일 하쉐미트요르단왕국독립 33돐기념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25일 뽈스까에서 있은 제10차《쉐찐상》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권투선수단이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쟁취하고 평양에 돌아옴

27일 전국적으로 강냉이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냄

31일 주은래동지의 동상과 기념비 제막식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진행 ▶ 전국적으로 벼모내기가 끝남

6 월

1일 어린이보육교양법실시 3돐과 6.1국제아동절 29돐을 기념하는 친선오락경기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

2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아세아륙상경기대회 녀자 1,500메터 달리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1, 2위를 쟁취, 녀자 3,000메터달리기에서 1, 3위를 쟁취

3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 15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4일 보천보전투승리 42돐기념 량강도보고회 가림천기슭 광장에서 진행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공장 종업원들의 결의모임들과 함흥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9일까지)

9일 반일 6.10만세시위투쟁 53돐 평양시기념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단천지구 광업련합기업소와 광업건설련합기업소산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의 결의모임 진행(7일부터)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야청년탄광철도인입선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진행(15일까지) ▶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성천—장상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8일 조선로동당과 남조선신민당의 책임있는 대표들사이의 접촉을 위하여 량당련락대표들의 예비적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인 김일동지가 담화를 발표

19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철도국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21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전기화공사를 맡아할데 대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학생들의 궐기모임 진행 ▶ 청진철도국, 함흥철도국, 개천철도국을 비롯한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 진행(20일부터)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진시와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책시, 라진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과 함경북도내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의 결의모임 진행 (27일까지) ▶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활쏘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승

24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평성시, 원산시, 개성시에서 군중 대회와 시위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진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청진조선소, 제2금속공장건설련합기업소에서는 종업원결의모임 진행

25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평양시군중대회와 시위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청진시, 혜산시, 함흥시, 신의주시, 사리원시, 해주시, 강계시들에서도 군중 대회와 시위 진행

2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93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29일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 룡등탄광, 천성청년탄광, 평양종합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들을 진행 (22～29일)

30일 우리 나라 전람관이 잠비아국제시장에서 금컵 쟁취

7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장—룡암, 어룡—룡문 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구장청년역에서 진행

3일 《〈평화〉의 간판으로 가리워진 음흉한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한 론평원의 글을 《로동신문》이 실음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지원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 1979년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발표됨

5일 니까라과인민들과의 련대성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9일 몽골인민혁명 58돐기념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10일 김종태동지의 희생 10돐 평양시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1일 미국이 남조선의 진해항을 극동에서의 미제 7함대 주요기지로 만들려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벗겨진 〈평화〉의 가면》이라는 론평원의 글을 《로동신문》이 실음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건—직동, 학산—매봉, 평남신창—천성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대건역에서 진행

19일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 관한 보도가 발표됨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니까라과림시민주주의정부를 승인

22일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1981년까지 동결시킨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이 발표됨 ▶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온 남조선류학생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25일 전국철도기관차부문열성자회의 평양에서 진행 (26일까지), 철도수송전사들 《5.18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에 궐기 ▶ 우리 나라 력기선수가 제7차여름철쏘련인민체육대회 력기경기에서 새로운 세계기록을 수립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26돐에 즈음하여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기념집회 진행

29일 직총중앙위원회 제17차전원회의 진행

3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94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 못가—리명수사이 철도전기화공사가 끝남,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못가역에서 진행

8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혜산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4일 남조선괴뢰군병사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5일 서독주둔 미제침략군에 복무하던 남조선병사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6일 정주기관차대, 평양역, 청진객화차대, 삼봉철길대, 고무산전철대 등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 진행 (4일부터)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고원지구 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집회 사로청중앙회관에서 진행

14일 남조선녀성로동자들에 대한 남조선파쑈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 로동녀성들의 성토대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6일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활쏘기경기대회 평양에서 진행(17일까지)

19일 은률광산 3대혁명소조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자행식예비벨트콘베아를 계속 늘여 능금도와 웅도사이를 성과적으로 련결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17일 전국기자대회 평양에서 진행 (18일까지)

20일 로므니아해방 35돐 평양시기념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2일 전국공예전람회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열림

25일 통일혁명당창건 10돐기념 평양시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전국농촌경리기계화부문일군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3일부터)

29일 청진조선소에서 무어낸 1만 4천톤짜리 짐배 《대홍단》호 진수모임 현지에서 진행 ▶ 제17차민족체육경기대회 해주경기장에서 진행(25일부터)

3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전원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31일 197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새학년도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7배의 교실을 새로 건설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 군사정전위원회 제395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9 월

2일 1979년 중앙기관일군들 및 평양시 로동자, 사무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인민체력검정개막모임 모란봉경기장에서 진행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의주시 근로자들의 결의 모임 진행 ▶ 벌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승리 35돐기념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발표 한돐기념 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두돐기념 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14차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5일까지)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항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벨트콘베아수송선을 준공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8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

9일 공화국창건 31돐경축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성원국으로 됨 ▶ 체육절 30돐기념 체육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가 열림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다락밭을 많이 건설하기 위한 강동군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13일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이 새로 일떠섬

14일 타이왕국친선축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

시군중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5일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앞—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사이 도로공사가 공화국창건 31돐기념일을 계기로 완공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시 근로자들,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건설자들,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각각 진행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명년도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리원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시광장에서 진행

23일 第183차로 사회주의조국에 돌아오는 재일조선공민들 귀국선 《만경봉》호로 청진에 옴

24일 인도《주체사상연구학회》서기장을 환영하는 사회과학자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 第183차로 귀국한 재일동포들을 환영하는 청진시군중집회 진행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남도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해주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시광장에서 진행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 평양에서 진행 (25일부터) ▶ 무역은행창립 20돐기념 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0 월

4일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년간린비료생산계획을 끝냄

6일 전국열관리원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7일 第10차베를린상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쟁취

9일 만경대갈림길에서 평양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 진행

10일 락원기계공장에서 년간 굴착기생산계획을 끝냄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력영웅 백설희박사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평양에서 진행

13일 전국적으로 벼가을을 끝냄

14일 第14차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우리 나라 배우가 1등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담배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발표 10돐기념 과학토론회 진행

20일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긴급확대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18일 공장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와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희천공작기계공장종업원들의 궐기 모임 진행 ▶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사리원—정방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서사리원역에서 진행 ▶ 남포조선소에서 무어낸 2만톤짜리 짐배 《압록강》호 진수식 현지에서 진행 ▶ 군사정전위원회 第397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식물학연구소 일군들에게 보내시는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며 국가훈장을 수여하는 모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일본 니이가다현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대표단을 위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집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강계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27일 중국공예품전람회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열림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화력발전소 직통전기철도건설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9일 박정희역적이 26일저녁 총에 맞아 죽은것과 관련하여 《독재자의 말로》라는 론평을 《로동신문》이 실음

30일 농업과학원산하 농장과 토양학연구소 창립 20돐 기념보고회 평양에서 진행

11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과 그들의 사업을 지원한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낸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천군 석치협동농장과 6월 3일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땅찾기에서 모범을 보인 봉산군내의 지도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5일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62돐 평양시기념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8일 서해안지대의 또하나의 인공호수—룡호저수지 건설공사가 완공되여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장원 리제훈동무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활로를 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로동신문》이 실음

13일 전국통계일군회의 평양에서 진행(14일까지)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을 전달하며 기업소를 조업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천군 국영3월 8일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군 룡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금야청년탄광에서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끝냄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내의 협동농장 전체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4일 평양외국어대학창립 30돐기념보고회 진행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토산군 매봉협동농장과 합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룡천군내의 청년담배작업반원들과 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홍원군 룡신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로동신문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공산주의적혁신운동》이라는 글을 발표

29일 팔레스티나인민과의 련대성 평양시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2 월

1일 사로청중앙위원회 제20차전원회의 진행(3일까지)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옹진군 장송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인민대학습당 건설을 위한 평양시내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4일 외국문출판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7일 1979년 인민경제계획을 12월 6일까지 앞당겨 끝낸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발표됨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은파군 초구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 진행(12일까지)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성시 삼봉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12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1980년 10월에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가 발표됨 ▶ 동해어장에서 하루동안에 3만 800여톤의 물고기를 잡음

14일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자》라는 사설을 《로동신문》이 실음 ▶ 전국무역일군대회 평양에서 진행(사흘동안)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참—신명천사이철도전기화공사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신명천역에서 진행 ▶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 평양에서 진행(26일까지)

16일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 기념 중앙경축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남포사이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며 전기철도를 개통하는 모임 평양역에서 진행 ▶ 공산주의혁명전사 오중흡동지 서거 40돐 중앙추모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18일 청진시에 세운 재일동포들의 귀국유래비 제막식 현지에서 진행 ▶ 전국자연보호부문 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9일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분사구공장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3대혁명소조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을 전달하며 공장을 조업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흥군 서곡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압록강다이야공장 고무제품분공장 건설에 참가한 제52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을 전달하며 분공장을 조업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24일 교육과학연구원창립 20돐기념보고회 진행

25일 녀맹중앙위원회 제11차전원회의 진행(26일까지) ▶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7일 평양시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에 의하여 건설된 7월4일풍년비료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소식을 《로동신문》이 실음 ▶ 제22차올림픽경기대

회에 북과 남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우리측 편지를 판문점에서 남조선측에 전달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공업대학 교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며 국가훈장과 메달을 수여하는 모임 이 대학에서 진행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태석동지 서거 ▶ 강계공산대학강좌장인 로력영웅 박영철동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모임 진행

남조선주요일지

(1979년 1—12월)

1 월

1일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축하문을 올림

10일 서울괴뢰지방검찰청이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조희영을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반공법》에 걸어 구속

13일 괴뢰서울시 동대문경찰서가 김대중의 공보비서관 한하갑을 《긴급조치》위반에 걸어 구속

16일 미국에 있는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이 카터의 남조선방문결정을 비난하는 《출판물발표》를 공포

18일 박정희파쑈도당에게 부당하게 체포된 《정치범》가족 50여명이 서울시내 기독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정치범들의 무조건석방》을 요구하여 결의문을 채택

27일 일본에 있는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 등 8개 단체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북과 남의 대화문제에 관한 성명을 환영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2 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의 농민 1,500여명이 괴뢰경기도청당국에 공해산업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투쟁

10일 일본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와 《김대중선생구출대책위원회》가 괴뢰검찰당국이 김대중을 재구속했다가 석방한것과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

14일 서울시내 40여개의 인쇄회사에서 일하는 300여명의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

15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전역에서 이른바 제84차 《민방위의 날》훈련이라는것을 벌림

17일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택시운전수 40여명이 회사측에 30만원의 무단해고수당금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농성투쟁

20일 부산시 북구 감전동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로동자 1,200여명이 밀린임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26일 경기도 인천시 남구 도화2동에 살고있는 주민 70세대가 괴뢰당국의 강제주택철거조치에 항의

3 월

1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한미련합작전훈련》(팀스피리트—79)을 벌림

3일 미국의 워싱톤에서 남조선출신동포들이 《배달군인회》라는 반파쑈민주화단체를 결성

4일 전괴뢰대통령 윤보선, 전괴뢰대통령후보 김대중, 종교인 함석헌 등 3명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3.1운동 60돐에 즈음하여 《국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의 발족을 공표

5일 박정희파쑈도당이 새로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의 공동의장들인 함석헌을 취조위협하고 김대중을 자택에 구금

6일 부산시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의 로동자 1,500여명이 2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항의투쟁 ▶ 박정희파쑈도당이 김대중을 《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 끌어감

7일 남조선괴뢰도당이 윤보선을 그의 집에서 취조

8일 남조선파쑈도당이 《백범사상연구소》소장 등 2명이 《자유로이 통일문제를 표현할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하여 강제로 끌어감

16일 박정희괴뢰도당이 6명의 민주인사들을 감금한데 항의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명을 발표 ▶ 남조선의 시인 김지하의 어머니와 《민주청년인권협의회》에 망라된 20명이 《정치범》들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7일 인천항부두로동자 200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짐부리기거부투쟁에 일떠섬

19일 신민당소속 괴뢰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의원》인 손주항의 석방을 요구하여 결의안을 괴뢰국회에 들이밈

24일 민주통일당이 구속중인 괴뢰국회의원 손주항의 석방을 요구하여 대변인성명을 발표

28일 광주시 두암동 대창뻐스회사의 녀차장 176명이 부당한 몸수색과 인권유린행위에 항의하여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

4 월

3일 서울시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화학공장녀성로동자 600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9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뻐스차장 50여명이 회사측의 몸수색에 항의하여 차타기를 거부하고 롱성투쟁

12일 남조선의 작가, 시인 등 113명이 앓는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시인 량성우의 석방을 요구하여 성명

17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가발공장의 로동자 70여명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9일 신민당, 민주통일당이 4.19 19돐을 맞이하여 각각 성명

30일 이른바 《한일량국의 안보》를 위한 《한일의원안보협의회》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진행됨

5 월

1일 민주인사들인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의 이름으로 된 성명을 카터의 남조선행각과 관련하여 발표

4일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판자촌에서 불이나 155채의 판자집이 타고 850여명의 리재민이 남

7일 김대중이 《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 괴뢰서울지방검찰소에 끌려가 취조를 받음

8일 신민당이 괴뢰도당의 경제《정책》혼란상과 관련하여 대변인성명을 발표

9일 괴뢰서울지방재판소가 이전 《동아일보》기자 안종필 등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까지의 판결을 내림

11일 괴뢰서울형사고등재판소가 목사 박형규에게 징역 5년, 공민권정지 5년을 《언도》

12일 남조선괴뢰군 동해경비사령부직속 공병대대 3중대 2소대 소대장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18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가 김대중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성명

22일 서울시 강남구의 시내뻐스운전수 60명이 괴뢰도당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여 뻐스운행을 거부하고 롱성투쟁 ▶ 박정희파쑈도당이 21일밤부터 22일새벽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북〉의 공중, 지상 기습공격》에 대비한 《가정훈련》을 벌림, 박정희역적이 직접 《군사기동훈련》현장을 싸다니며 돌아봄

25일 서울시 29개의 택시회사소속 운전수 2,000여명이 괴뢰도당의 임금액인상조치에 항의하여 집단파업에 들어간지 4일만에 요구조건을 관철

26일 전라남도 장흥녀자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이 교원들의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등교를 거부

31일 남조선괴뢰경찰기동대가 김대중파 윤보선의 주택주변도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자택연금상태에 넣음 ▶ 신민당림시대변인이 김대중파 신민당총재 김영삼의 통행을 방해한 괴뢰경찰의 행위를 추궁하여 성명

6 월

3일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주민 1,000여명이 괴뢰도당이 부당하게 걷어들인 세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5일 괴뢰국회무소속의원들 9명이 신민당에 입당한다는 성명을 냄

7일 서울 종로구의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학생련맹》의 주최로 진행된 《인권강연회》에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려고 모였다가 괴뢰경찰에 의하여 저지당함

11일 감옥에 갇힌 《정치범》들의 가족 12명이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안으로 밀고들어가 《카터의 방문》을 반대하는 구호를 웨치며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 ▶ 신민당총재 김영삼이 서울외신기자구락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박정희괴뢰역적의 사임을 요구

12일 괴뢰도당이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린 《정치범》가족 11명에게 감금형을 들씌움

13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자기대사관구내에서 시위를 벌린 《정치범》가족들을 괴뢰경찰에 넘겨준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행위에 항의하며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보다 거세찬 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성명을 발표 ▶ 박정희괴뢰도당이 6.25를 계기로 제5회 《학도호국단격전지대행군대발단식》이라는 극악한 《반공》소동을 벌림

15일 부산시 부산지구 전포동에 있는 3개택시회사 운전수 52명이 임금액인상을 반대하여 롱성투쟁 ▶ 신민당이 《여야가 국민앞에 민주회복에 대한 서로의 립장을 밝힐》데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

18일 신민당이 조선로동당과 신민당사이의 회담을 제의한 김일부주석의 담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론평

23일 전괴뢰대통령 윤보선파 10여명의 민주인사들이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서울거리에서 시위를 벌림

25일 고려대학교의 학생 1,000명이 도서관에서 카터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한후 시위를 벌림 ▶ 재일교포민주인

사들과 일본인사들이 도꾜에서 카터의 남조선행각에 항의하여 군중집회와 시위를 벌리고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에 항의문을 제출 ▶ 윤보선이 김영삼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괴뢰도당의 행위를 비난하여 성명

28일 신민당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성명을 냄

29일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에 기여듬

30일 화란에서 공부하고있던 남조선류학생 고상문이 공화국의 품으로 넘어옴 ▶ 박정희역적놈과 카터놈이 1차회담을 가지고 쑥덕공론을 벌림

7 월

1일 박정희역적과 카터놈이 이른바 《공동성명》이란것을 발표

4일 남조선의 반체제인물 9명이 시인 김지하 등 8명의 문학작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외국인들에게 배포하다가 괴뢰도당에게 체포됨

5일 박정희파쑈도당이 괴뢰사복경찰 100여명을 동원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신민당 중앙당사를 습격

8일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인 초대형순양함 《오클라호마씨티》호가 인천항에 기여듬 ▶ 《한》미련합상륙작전연습 《레이 텍스79》가 포항근처해상에서 진행됨

9일 신민당이 괴뢰도당의 석유가격인상조치를 비난하는 대변인성명을 발표 ▶ 신민당이 괴뢰국회의 이른바 《평화통일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

10일 신민당대변인이 괴뢰경찰이 당기관지 《민주전선》호외를 압수해간데 항의하여 성명 ▶ 괴뢰당국이 석유값과 전기료금이 오르는데 따라 42개품종의 공업상품가격을 4.1%로부터 48%까지 올림

11일 신민당이 련석회의를 열고 석유류값을 낮추도록 괴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

12일 괴뢰도당의 석유류값인상에 항의하여 서울시내 350여대의 뻐스가 운행을 중지, 부산시내 택시운전수 1,500여명이 취업을 거부 ▶ 신민당은 괴뢰경찰이 인쇄중인 당기관지를 압수해간데 항의하여 성명

13일 신민당총재 김영삼 등 신민당소속 괴뢰국회 의원들이 서울시 중심거리에서 6,000부에 달하는 당기관지 《민주전선》을 가두판매

17일 부산시내 4개 택시회사 운전수 100여명이 입금액을 올린데 항의하여 취업을 거부

18일 서울 성동구 한양녀고학생 1,400여명이 괴뢰도당의 군사훈련에 항의하여 롱성투쟁 ▶ 신민당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민당《의원》 손주항의 석방요구안을 괴뢰국회에 냄 ▶ 미국정부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지상군 철수계획을 1981년까지 《동결》시킬것을 결정

21일 신민당대변인과 민주통일당대변인이 각각 괴뢰국회에서 한 괴뢰국무총리의 보고를 비판하여 성명

30일 서울시 동대문구 면복동에 있는 와이에취무역주식회사 종업원 300여명이 회사강당에 모여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 신민당총재 등 신민당소속《의원》들이 자기 당기관지 《민주전선》을 6,000여부나 가두판매 ▶ 신민당대변인이 여당측이 단독으로 괴뢰국회를 운영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 괴뢰경찰이 신민당중앙당사와 마포당사를 수색하고 이 당기관지 인쇄원판과 신문을 압수, 신문주간 문부식을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구속

31일 신민당대변인이 괴뢰도당의 당기관지압수행위에 항의하여 성명 ▶ 신민당정무회의가 야당의 참가없이 괴뢰림시국회를 끝낸 여당측을 규탄하여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8 월

1일 남조선파쑈도당이 괴뢰광주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신민당《의원》 손주항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리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

2일 신민당대변인이 손주항의 석방을 요구하여 성명

4일 남조선괴뢰군 1사단 15련대 2대대 5중대 1소대 3분대 사병 김용진이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옴 ▶ 해태제과회사 종업원 3,000여명이 8시간로동제를 요구하여 성명

6일 남조선출신인 이전 서부독일주둔 미제침략군 7군단 2기갑련대 1대대 씨중대 3소대 1등병 정러섭이 공화국의 품으로 넘어옴 ▶신민당대변인이 무더기비에 의한 남조선강원도 정선군의 피해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 괴뢰도당을 비난하여 성명

7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가 김대중사건발생 6돐에 즈음하여 《김대중을 원상회복시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8일 서울시내 용달차운전수 2,000여명이 괴뢰서울시당국의 용달차증차계획을 반대하여 롱성투쟁

9일 괴뢰도당이 남조선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해오던 진항식 등 24명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 ▶ 페업당한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 200여명이 마포 신민당사 4층강당에서 일자리를 요구하여 롱성투쟁 ▶ 신민당대변인이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응대도 없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여 성명

10일 신민당총재 김영삼 등 26명이 신민당사에서 와이에취무역회사 종업원들의 투쟁을 격려

11일 남조선파쑈도당이 경찰 2,000여명을 내몰아 마포신민당사를 습격하고 롱성중인 녀성로동자

들과 김영삼 등을 잡아감, 신민당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쎄지》를 채택 ▶ 《한국》기자협회가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을 취재하던 기자 14명을 탄압한데 대하여 괴뢰도당에 항의

12일 서울에 있는 11개의 신민당지구당 부위원장 17명이 모임을 가지고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에 대한 공화당《정권》의 폭행을 단죄하고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괴뢰도당의 신민당당사 습격때 매를 맞고 입원중인 신민당《의원》 박용만이 괴뢰국회의원사퇴서를 냄 ▶ 신민당이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 김경순이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

14일 인천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큰 폭발사고가 일어나 17억 7,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0여명이 중경상을 입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이 괴뢰도당의 신민당사 습격을 규탄하여 성명

15일 민주통일당당수 량일동 등 50여명이 괴뢰도당의 신민당사습격과 관련하여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걸고 신민당사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롱성을 벌림

17일 신민당 부산시 5개지구당 부위원장 등 150여명이 고김경순의 추도식을 가진뒤 부산시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무기한 롱성에 들어감 ▶ 새문안교회 대학생 50여명이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과 관련하여 철야단식기도에 들어감

18일 《한국량심범가족협의회》회원들이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 서부독일에 있는 교포단체 《재독한인로동자련맹》이 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성명

19일 신민당제주도지구당위원장 등 50여명이 지구당회의를 가지고 《8.11사건》의 책임이 괴뢰당국에 있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롱성에 들어감

20일 카톨릭농민회가 서울 명동에서 4,000여명의 신자들과 농민들의 참가밑에 집회를 가지고 괴뢰도당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연금상태의 해제를 요구하여 성명, 례배가 끝난다음 학생 300명이 시위 진행 ▶ 신민당림시대변인이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의 비극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씌우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비난하여 성명

23일 신민당림시대변인이 로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여 성명 ▶ 괴뢰대구고등법원원장 등 6명의 중견괴뢰법관들이 사표를 냄

24일 인천시내 택시운전수 900여명이 괴뢰도당의 입금액인상을 반대하여 싸운결과 요구조건 관철 ▶ 신민당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문제를 론의하고 당의 견해를 밝히는 4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25일 신민당이 고김경순추도식준비위원회를 구성 ▶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15명에 대한 괴뢰경찰의 무차별탄압에 항의하여 괴뢰도당에게 공개질문서를 들이댐

26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주최로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관에서 1,000여명의 참가밑에 《로동자와 농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림

27일 신민당총재 김영삼과 민주통일당총재 량일동이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합당을 공식선언 ▶ 김영삼이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도당의 신민당사침입사건과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의 진상에 관한 백서를 발표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괴뢰도당의 종교탄압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28일 신민당이 성명에서 재야인사와 종교계의 목사들에 대한 연금해제와 김경순추도식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괴뢰도당에 요구 ▶ 신민당, 민주통일당의 《의원》, 당원 1,000여명의 참가밑에 고김경순의 추도식을 진행

30일 미제침략군 제7함대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와 구축함 《레모》호가 침략군 5,000여명을 싣고 《관광휴양차》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쓰고 부산항에 기여듬

9 월

2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등 재일교포 8개단체 200여명이 도꾜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의 신민당사란입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짐

3일 남조선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학 학생들이 대학구내에서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삐라들을 뿌림

4일 대구시의 경북대학과 계명대학에서 각각 500~1,000명의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유신체제 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 요구를 담은 삐라를 뿌림

5일 신민당이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괴뢰당국의 《지방세법안개정안》을 반대하여 성명 ▶ 박정희괴뢰도당이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의 내용이 실려있는 신민당기관지 《민주전선》 450부를 압수 ▶ 신민당림시대변인이 괴뢰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

8일 괴뢰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림 ▶ 김영삼이 당확대긴급회의를 열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응한 앞으로의 대책을 토의, 뒤이어 《김총재의 체제》를 지지하는 결의문안을 채택

10일 전주에서 3,000여명, 목포에서 1,000여명이 천주교회에 모여 와이에취무역회사사건때 죽은 녀성로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가진후 《반정부비판집회》를 진행 ▶ 신민당총재 김영삼이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도당의 신민당총재단에

대한 《직무권한정지결정》을 규탄하고 《박정권타도운동》에 국군장병들이 지지해나설것을 호소

11일 서울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학구내에서 반《정부》집회를 가짐 ▶ 김영삼이 김대중, 윤보선 등을 만나 민주화운동을 강화하고 현《체제》를 타도하기로 합의

13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신민당청년국장과 훈련부차장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잡아감

15일 신민당이 괴뢰당국의 야당탄압과 인권유린행위에 항의하는 항의단을 구성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160여명이 반《정부》집회를 열고 《민주구국선언문》 약 200매를 뿌림

20일 서울 《국립》대학교 운동장에서 약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적권리회복, 경제개혁실시, 김영삼에 대한 탄압금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박정희괴뢰정권을 규탄하여 시위를 벌림

21일 괴뢰국회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싸움으로 란투극이 벌어지고 휴회결의안을 통과시킴

22일 박정희괴뢰도당이 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괴뢰국회의장에게 제출 ▶ 괴뢰서울지방법원이 《그리스챤아까데미 사회교육원 용공활동혐의사건》 관련자 7명에게 《반공법위반》혐의로 7년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을 내림

25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이전 고려대학교 로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림동규 등 7명의 각계 인사들을 《통일혁명당재건》사건에 관련시켜 체포구금하고 고문하던 끝에 림동규는 사형에, 기타는 무기형에 처하는 극악한 파쑈만행을 감행

26일 괴뢰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집을 잃게 된 서울시 성동구 주민 400여명이 프랑카드를 들고 롱성투쟁 ▶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2,000여명이 교회에 모여 《리화민주선언》을 랑독하고 시위를 벌림

27일 연세대학교 학생 5,000여명이 운동장에서 체육경기응원련습을 하는척하다가 《유신체제반대, 야당 신민당의 민주투쟁지지》라고 쓴 삐라를 뿌리며 시위를 벌림

28일 《국민련합》의 공동의장들인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이 《박정권의 말기증상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29일 남조선괴뢰륙군이 동해안지역에서 범죄적인 대규모상륙훈련을 진행

10 월

1일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택시회사 운전수 100여명이 괴뢰도당의 임금액인상에 항의하여 롱성

2일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 있는 출판사의 종업원 100여명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 ▶ 대구시 동구에 있는 태평섬유 종업원 134명이 6개월분의 밀린임금을 요구하여 항의투쟁 ▶ 신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영삼과 운명을 같이하여 투쟁하기로 결의

3일 박정희괴뢰도당이 김영삼을 괴뢰국회에서 《징계》한다고 궤칠 ▶ 신민당림시대변인이 여당측이 발표한 김영삼의 《징계사유》를 반박하여 성명

4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여당《의원》들로 담을 쌓고 40초동안에 날치기로 김영삼의 《징계동의안》을 통과시킴,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함 ▶ 신민당이 김영삼의 《의원제명》을 반대하여 성명

8일 신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삼의 《의원직제명》에 따른 《의원직총사퇴》문제를 토의

12일 신민당 경상북도 당원 100여명이 마포당사에서 《의원직총사퇴》를 요구하여 롱성을 벌리고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결의문을 채택 ▶ 신민당 《의원직사퇴문제협의회》가 《의원직총사퇴》를 결의하고 괴뢰국회에 내기로 합의

13일 신민당이 괴뢰국회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할것을 결의하고 66명전원이 괴뢰국회사무처에 사퇴서를 냄, 민주통일당총재 량일동파 《의원》들도 《의원직》사퇴서를 냄

16일 부산대학 학생 5,000여명이 교내에서 반《정부》집회를 열고 《민주선언문》을 채택 ▶ 서울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1,000명이 괴뢰경찰에 체포된 학생 2명의 석방을 요구하여 교내에서 반《정부》시위를 벌림

17일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 학생들과 시민 5,000여명이 반《정부》폭동에 궐기 ▶ 《한민통》일본 본부, 《민주통일협의회》 등 8개 단체가 부산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반《정부》시위와 폭동을 지지하여 성명 ▶ 신민당이 부산의 반《정부》투쟁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을 무어 18일 현지로 파견하기로 함

18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새벽 0시를 기하여 부산시 전구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 경남대학의 2,000명의 학생들이 시민들과 합세하여 반《정부》폭동에 궐기 ▶ 부산의 학생, 시민 2,000여명이 《비상계엄령》을 박차고 반《정부》시위를 계속 ▶ 괴뢰국방부장관과 미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이른바 제1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가지고 쑥덕공론을 벌림

19일 마산의 로동자, 대학생, 고등학생 5,000명이 어둠을 리용하여 시내중심거리를 행진하며 폭동에 궐기 ▶ 진주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한 학생시위가 벌어짐 ▶ 서울대학교 학생 400명이 부산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반《정부》집회를 가짐 ▶ 경상북도 대구와 충청북도 청주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유신》파쑈통치를 배격하는 삐라들을 뿌림 ▶ 박정희괴뢰도당이 반《정부》시위에 질겁하여 마산지구에 괴뢰군무장병력을 투입

20일 괴뢰도당이 마산시에 《위수령》을 내림

21일 괴뢰도당이 괴뢰군 락하산부대와 해병대 및 륙군을 마산중심지역에 들이밀어 위협시위를 벌림

23일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 반체제파인물들이 부산에서의 《계엄령》 철폐와 《민주헌법》의 제정등을 요구하여 성명

25일 대구의 계명대학 학생 500여명이 대학구내에서 반《정부》시위를 벌리고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26일 박정희역도가 저녁 6시경 괴뢰중앙정보부 식당에서 괴뢰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죽었음 ▶ 미국방부가 박정희역적의 사살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3만 8,000명에게 경계태세를 명령

27일 박정희역적의 사살과 관련하여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됨

11 월

3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민주화의 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 ▶ 재미교포들이 뉴욕의 중심거리에서 남조선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

5일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부산항에 기여듬

6일 《카톨릭정의와 평화위원회》가 괴뢰대통령대리 최규하에게 민주개혁, 김지하의 석방, 김대중의 민권회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냄

8일 전괴뢰대통령 윤보선이 최규하 등 괴뢰지도층의 사임을 주장

9일 신민당이 괴뢰국회에 제출하였던 전체 《의원》들의 사표를 철회하고 괴뢰국회에 나가기로 결정

11일 일본 교또의 교포학생 200명이 집회를 가지고 《유신체제》의 페기를 요구하는 9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12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10일에 있은 최규하의 《특별담화》를 강력히 비난하는 특별성명을 발표

13일 신민당이 민주개혁을 요구하여 성명 ▶《한국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민주회복을 요구하여 성명 ▶ 《한》미 련합군의 공중과 지상합동훈련이 중부전선에서 벌어짐

15일 민주주의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한 10여명의 반체제파인물들이 괴뢰경찰에 잡혀가고 윤보선이 경고를 받음

17일 《한미련합군사령부》가 괴뢰해군함대와 미제침략군 제7함대 군함들, 미공군기 등을 참가시켜 범죄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

22일 서울대학교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학생회 등 10개 단체대표들이 학교구내에서 회의를 열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성명을 채택 ▶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민주국민화해리사회》를 구성할것을 주장

24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을 비롯한 여러 반체제단체의 종교인, 학생, 학자, 문화인, 《정치범》의 가족들, 야당《의원》 등 각계인물 1,000명이 서울기독교청년회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잠정대통령선출저지국민대회》를 가지고 《거국민주내각구성을 위한 성명》을 발표

26일 서울의 서강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79학원민주화선언》이라는 삐라가 뿌려짐 ▶ 남조선의 여야당이 괴뢰국회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27일 연세대학교의 학생 약 1,000명이 대학교례배당에서 학원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학생선언》을 발표

28일 전라남도의 완주 《기독교련합회》, 《카톨릭사제단》 등 6개 단체의 주최로 약 3,000명의 학생, 시민들이 기독교민주회관에서 민주화요구집회를 가짐

30일 광주시의 전남대학에서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구내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반대》 등 내용을 담은 《학원민주화선언》을 채택

12 월

6일 신민당이 괴뢰대통령의 《선거》가 《국민》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최규하가 8개월내에 《국민들이 선거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것》과 《계엄령》 즉시 해제,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 ▶ 《한민통》일본본부를 비롯한 《민단》계단체들이 괴뢰대통령《선거》를 실시한데 항의하여 《유신》체제의 완전청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범

10일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항공모함 《코랄씨》호가 순양함 《스탠드리》호와 함께 휴가를 구실로 부산항에 기여듬

11일 서울시 강남구 삼파동에 있는 《한》일콜 택시운전사 100명이 회사측의 입금액인상에 항의하여 운행을 그만두고 롱성을 벌림

18일 괴뢰국무총리 신현확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와 만나 이른바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20일 신민당이 총재단회의를 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제10대괴뢰대통령 최규하의 취임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활동일지

(1979년 1~12월)

1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새해 1979년을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축하문을 드림

12일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1979년도 할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중앙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23일에 발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동모임을 가질것을 《민단》에 제의

2 월

18일 재일본조선인학교 모범교원집단운동 제6차 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3월 1일부터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 월

1일 3.1인민봉기 60돐을 기념하며 1월 23일에 발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8일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수여된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4 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총련간부강연회를 재일본조선회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도꾜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전시회가 열림

12일 총련부의장이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의 재입국 허가를 일본당국이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도꾜에서 축하연회를 차림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출판보도사상에 관한 재일본조선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연구토론모임 도꾜에서 진행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일곱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삼가 축하문을 드림

16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71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71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총련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19일 4.19인민봉기 19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9일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 제2세협의회가 결성됨

5 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의 보고모임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일곱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중앙보고대회 도꾜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13일 조국통일촉진오사까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대야유회가 5만 5천명의 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

15일 학우서방창립 30돐기념모임 도꾜에서 진행

20일 아이찌현동포들의 대야유회가 1만 7천여명의 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 도꾜에서 진행됨

23일 총련 부의장이 《한일의원련맹 제8차총회》를 규탄하여 담화 발표

25일 총련결성 24돐기념중앙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26일 어린이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재일조선녀성들의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륙상선수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9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4차분회열성자중앙대회 진행(30일까지)

6 월

8일 조일수출입상사 새 청사가 도꾜에 일떠섬

9일 조선대학교 교사준공 20돐기념 모임 진행

15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1기 제3차회의가 진행됨(16일까지)

16일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총련

중앙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22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20돐기념모임이 도꾜에서 진행됨

23일 조국통일촉진, 전민족대회실현을 위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오사까—도꾜간행진 시작(7월 5일까지)

24일 6.25 29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시위행진 진행, 각 지방대회도 일제히 진행

27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1기 제3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각 본부 집행위원회들이 이날부터 진행

7 월

5일 조국통일촉진, 전민족대회실현을 위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대회 진행

7일 1979년도 금강산가극단 및 총련지방가무단 신입단원강습회 수료모임 진행

14일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결성 20돐기념모임 및 학술보고회 진행

21일 총련중앙 부의장이 카터가 남조선주둔 미지상군의 철퇴계획을 중지할것을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를 규탄하는 담화 발표

23일 총련중앙 부의장이 일본방위청장관이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을 반대하여 담화 발표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 26돐기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 현대조선자수, 도자기전시회 오사까에서 진행

30일 남녀평등권법령발포 33돐을 기념하여 각지 녀맹조직들에서 각종 기념행사 진행

31일 총련이 8.15해방 34돐기념대회를 공동으로 가질것을 《민단》에 제의

8 월

3일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결성 스물다섯돐기념모임 진행

13일 제1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이 니이가다항을 출발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신민당청사를 습격하여 녀성로동자들을 탄압한 남조선괴뢰도당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4일 8.15조국해방 3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0일 남조선녀성로동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만행을 견결히 규탄하는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진행

24일 총련의 각지 강연구들에서 《박정희살인악당을 규탄하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자》란 제목의 강연회 일제히 진행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인 1973년 8월 31일교시 6돐기념 재일조선교육일군들의 모임 진행

28일 우리 나라의 려객선 《삼지연》호 환영모임 일본 니이가다항에서 진행

30일 대형려객선 《삼지연》호가 제2차재일동포 단기조국방문단을 태우고 니이가다항을 떠남

9 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기념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 준공모임 진행

3일 공화국창건 31돐기념 총련지방체육선수단중앙경기대회 진행(4일까지)

4일 총련교육일군들에게 수여된 공화국부교수학직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6일 남조선의 와이에취무역회사 녀성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조선문학예술인들의 《시랑송의 밤》이 있었음

8일 공화국창건 31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 공화국창건 31돐을 경축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연회를 차림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공화국창건 31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림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72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72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총련교육일군, 과학자, 학생들의 모임 진행

15일 제3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이 《삼지연》호 배편으로 니이가다항을 떠남 ▶ 제2차재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이 일본에 돌아옴

2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을 축하하여 연회를 차림 ▶ 제183차 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에 도착

21일 제183차귀국선 《만경봉》호가 귀국동포들을 태우고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에 주신 1978년 9월 21일교시 한돐을 기념하는 모임이 니이가다조선초중급학교에서 진행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신 1974년 9월 24일교시 5돐기념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결의모임이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신 1974년 9월 24일교시 5돐기념 조청반열성자대회가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28일 《통일혁명당의 재건을 기도》했다는 구실밑에 애국적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운 박정희

파쑈악당의 살인재판놀음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30일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예금액 5천억원을 돌파

10 월

10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4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 진행

15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창립 25돐기념 보고모임 진행

16일 1980년도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통일행동이 시작됨 ▶ 금강산가극단 4,000회기념특별공연 진행

18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지원하며 괴뢰도당의 파쑈폭압행위를 규탄하는 긴급모임 각지 총련 및 조청조직들에서 진행

20일 조국을 방문한 의학협회대표단 보고모임 진행

23일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공화국창건 31돐기념 재일조선중고급학교학생 중앙체육대회, 총련지방체육단 중앙경기대회 진행(26일까지)

11 월

2일 《광주학생사건》 50주년기념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진행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기념 1979년도 재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 도꾜에서 진행(18일까지) ▶ 공화국창건 31돐기념 제8차재일본조선학생미술전람회 진행

20일 《유신체제》의 즉시 철폐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9일 총련중앙대표들이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12 월

2일 지바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 준공모임 진행

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파쑈적인 《유신헌법》에 따라 어용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놀음을 벌리려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6일 총련과학자들에게 수여된 공화국박사학위증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 1979년도 총련지방가무단예술경연대회 진행(8일까지)

8일 남조선괴뢰도당이 파쑈적인 《긴급조치9호》를 해제하고 일부 정치범을 석방한것과 관련하여 그 기만성을 폭로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13일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20돐기념 사진전시회 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73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73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감사드리는 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진행

국제주요일지

(1979년 1~12월)

1 월

3일 유엔사무총장이 메히꼬를 방문(5일까지)

5일 쏘련공산당대표단과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 과들루쁘에서 미, 영, 서독, 프랑스 《수뇌자회의》 열림(6일까지)

7일 유엔사무총장이 2일간 꾸바를 방문

8일 중국과 지부티가 외교관계를 맺음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 인도를 방문(10일까지) ▶ 르완다대통령 하비아리마나 쥬베날이 5년간의 임기로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 새 내각을 구성, 대통령이 총리겸 국방부장을 겸임

9일 뻬루에서 3일동안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작

10일 니까라과에서 수만명이 10일간 반독재시위를 벌림

13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레쥬네브가 벌가리아를 방문(17일까지) ▶ 이란수도 테헤란에서 40만명의 시민들이 《황제에게 죽음을 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 황제 파흘라비가 자기의 《권한을 대신》하는 섭정리사회를 만들고 16일 외국으로 도망침

14일 베를린에서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그학살 60돐을 추모

15일 77개국그루빠아세아조 각료회의 진행 (17일

까지)

16일 타이총리 일본을 방문, 18일 공동콤뮤니케 발표

18일 민주예멘총리의 에티오피아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20일 우간다의 탄자니아공격으로 두 나라간에 전면전쟁 시작 ▶ 애급대통령 수단을 방문(21일까지)

21일 바그다드에서 쁠럭불가담나라 기자조직들의 제16차회의 진행(24일까지)

23일 아세아통신사기구총회 진행(25일까지), 대만통신사를 성원에서 제명 ▶ 룩셈부르그총리 중국 방문 (29일까지) ▶ 팔레스티나민족회의 제14차회의에서 민족통일강령 채택, 강령에서 《점령당한 령토에서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계속 확대하려는 확고한 결의》표명

25일 오스트랄리아총리가 인도를 방문(29일까지)

26일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회의 진행 (28일까지) ▶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이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호소문을 발표 ▶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총리와 오지리총리 회담 ▶ 토이기총리가 리비아를 방문(29일까지)

27일 일본 오사까에서 주체사상연구회들의 새해 합동회의 진행

28일 리베리아대통령 서독방문(30일까지) ▶ 수리아—이라크최고합동정치위원회 회의 진행, 두 나라를 단일국가로 통합할 방도를 토의(30일까지)

29일 케니아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31일까지),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31일 뽈스까당및국가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

2 월

1일 이란의 회교지도자 코메이니가 망명지인 빠리로부터 테헤란에 도착, 200만의 이란인민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 ▶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쿠웨이트, 이라크, 수리아, 하쉐미트요르단왕국을 방문(12일까지) ▶ 르완다대통령이 케니아를 방문(4일까지) ▶ 타이총리가 영국과 미국을 방문(7일까지)

2일 마뿌또에서 쁠럭불가담나라 조정위원회 비상회의가 끝남

4일 인도총리가 스리랑카를 방문(6일까지)

7일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샤들리 벤줴디드가 알제리대통령으로 선거됨

8일 중국과 뽀르뚜갈이 외교관계를 맺음

11일 이란에서 전인민적인 반정부폭동승리, 황제정권이 무너지고 국가권력이 림시정부수중에 장악 ▶ 미국방장관 브라운이 중동과 이란사태에 대하여 모의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도착

12일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 《77개국그루빠》제4차 부장회의 진행(16일까지) ▶ 챠드 수도에서 정부군과 북부무력군사이에 무장충돌

14일 미국대통령 카터가 메히꼬를행각(16일까지)

15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리비아를 방문(17일까지) ▶ 로므니아대통령이 벌가리아를 방문(18일까지)

17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앙골라를 방문(20일까지)

18일 이란림시정부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 이스라엘대사관을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넘겨줌

19일 방글라데슈총선거에서 지아우르 라흐만대통령이 창건한 민족당이 승리

20일 뽀르뚜갈대통령이 기네—비싸우를 방문(25일까지)

21일 구라파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이 중국방문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

22일 쎄인트 루씨아가 독립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모잠비끄를 방문 (25일까지)

23일 남북예멘국경지대에서 무장충돌 발생

24일 아일랜드공산당 제10차대회 개막 ▶ 수리아와 이라크가 남북예멘사이의 무장충돌을 중지시키고 중재할데 대한 공동발기 발표

27일 잠비아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28일까지)

28일 방글라데슈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 (3월 2일까지)

3 월

1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팀 스피리트 79》라는 최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을 감행(17일까지) ▶ 세계민청뷰로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하여 미국대통령에게 항의전문을 발송 ▶ 이스라엘총리가 미국을 방문(4일까지)

3일 루안다에서 전선국가수뇌자회의 개막

4일 버마대통령이 타이를 방문(5일까지)

5일 케니아의 수도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부장리사회의 폐막 ▶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쏘련을 방문 (7일까지)

8일 미국대통령이 애급—이스라엘《평화조약》을 성사시킬 목적밑에 애급(10일까지), 이스라엘(13일까지)을 방문

9일 쏘련총리가 인도를 방문(15일까지)

10일 베르데갑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13일까

지)

12일 루이스 에레라 깜삔스가 베네수엘라대통령으로 취임, 새 내각을 발표 ▶ 오지리대통령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15일까지)

13일 그레네이다에서 모리스 비쇼프가 지도하는 《뉴쥬얼운동》이 반동정권을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

14일 유고슬라비아가 령해를 10마일로부터 12마일로 늘임

16일 타이총리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18일까지) ▶ 희랍 총리가 유고슬라비아 (18일까지), 로므니아(20일까지)를 방문

17일 도미니까공산당 제2차대회 진행(20일까지) ▶ 부룬디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19일 뽀르뚜갈대통령이 벌가리아(21일까지), 웽그리아(26일까지)를 방문

20일 이딸리아에서 3당련립내각구성

21일 온두라스 수도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중앙아메리카지역대학생토론회 진행(23일까지) ▶ 타이총리가 쏘련을 방문 (27일까지)

22일 리베리아대통령이 프랑스(25일까지), 알제리(당일)를 방문 ▶ 산토메 프린시페총리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26일까지)

26일 워싱톤에서 애급—이스라엘《평화조약》조인

27일 이라크의 수도에서 아랍나라 외교부장 및 경제부장회의 진행(31일까지) ▶ 수리아, 이라크, 알제리, 이란, 까타르, 인도, 에스빠냐, 파키스탄, 레바논,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등에서 애급—이스라엘 《평화조약》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짐 ▶ 세계석유수출국가기구성원국(13개)들의 회의에서 원유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

28일 쿠웨이트에서 남북예멘국가수반들이 남북예멘통일에 관한 5개항목의 합의사항을 담은 콤뮤니케를 발표 ▶ 이란이 중앙조약기구(쎈토)에서 탈퇴 ▶ 말리에서 인민민족동맹 창립대회 진행, 무싸 뜨라오레를 당총비서로 선거 ▶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스리마일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을 띤 증기가 외부에 새여나온 범죄사건이 빚어짐

29일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애급에서 자기의 대표부를 폐쇄 ▶ 애급대통령이 서독을 방문(31일까지) ▶ 말레이시아국왕이 병으로 사망

30일 이딸리아공산당 제15차대회 진행 (4월 4일까지), 루이지 롱고를 위원장으로, 엔리꼬 베를링게르를 총비서로 선거 ▶ 벨지끄공산당 제23차대회 진행(4월 1일까지)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새 내각을 구성

4 월

1일 이란의 회교지도자 코메이니가 이란을 회교공화국으로 선포 ▶ 까히라주재 아랍나라 대사들 철수 ▶ 요르단이 애급과 외교, 정치관계를 끊음

3일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메히꼬를 방문(8일까지) ▶ 벨지끄에서 새 내각을 구성

5일 세계민청뷰로가 남조선에서의 4.19인민봉기 19돐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 유엔사무총장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8일까지) ▶ 나이제리아 국가수반이 앙골라를 방문(6일까지) ▶ 니까라과의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이 민족통일림시정부를 세울데 대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인민들을 총파업파 봉기에로 호소

6일 모잠비끄에서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끄 대통령들이 세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문제와 로데시아 총선거문제에 관하여 긴급협의 진행

8일 로므니아대통령이 리비아, 가봉, 앙골라, 잠비아, 부룬디, 수단, 애급을 방문(25일까지) ▶ 방글라데슈대통령이 타이, 말레이시아를 방문(12일까지) ▶ 미국도시들에서 핵반대시위가 벌어짐

10일 로데시아에서 괴뢰국회와 괴뢰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총선거》놀음 감행,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들과 전선국가들을 지원하는 국제회의 진행(13일까지) ▶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의 여러곳을 폭격,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하는 만행을 감행

11일 우간다민족해방군이 탄자니아군대와 함께 수도 캄팔라를 장악, 대통령이던 아민은 도주

13일 민주예멘총리가 벌가리아(17일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20일까지)를 방문 ▶ 우간다에서 새 림시정부 수립, 룰레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

14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진행 (16일까지)

16일 인도총리가 방글라데슈를 방문(18일까지)

17일 쁘라하에서 국제의회동맹회의 진행(22일까지), 군비철폐문제 등을 토의

18일 쏘련최고쏘베트 제10기 제1차회의 진행, 새 내각을 구성하고 최고쏘베트 법규를 채택, ▶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비호밑에 레바논의 우파기독교도세력사령관이 남부레바논에 《자유레바논》의 《독립》을 선언

21일 꼬뻰하븐에서 제2차단마르크전국주체사상토론회 진행(22일까지) ▶ 쿠웨이트정부가 애급파 외교 및 경제관계를 끊음 ▶ 국제탁구련맹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

22일 모리따니와 뽈리싸리오전선간에 모리따니가 점령하고있던 서부사하라를 뽈리싸리오전선에 넘겨주는데 동의하는 의정서 조인
▶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대한 무장도발을 감행

23일 베오그라드에서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 회의 개막

24일 오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쏘련을 방문

(29일까지)

25일 세계진련이 나라의 영구분렬을 위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새로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레바논정부 남부레바논정세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요청

26일 프랑스대통령이 쏘련을 방문(28일까지) ▶ 베닌대통령이 나이제리아를 방문(29일까지)

28일 북부예멘과 이란이 애급과 외교관계를 끊음 ▶ 볼리비아공산당 제4차대회 폐막

29일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희랍을 방문(30일까지)

30일 일본총리가 미국을 방문(5월 7일까지) ▶ 에스빠냐총리가 알제리를 방문(5월 1일까지)

5 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화국봉주석이 중국을 방문중인 유엔사무총장을 만남 ▶ 그린랜드가 단마르크로부터 자치권을 획득

2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1돐기념집회 일본에서 진행 ▶ 말레이시아총리가 중국을 방문 (5일까지) ▶ 서독총리가 벌가리아를 방문하고 공동선언에 조인

3일 영국에서 총선거 진행(4일까지), 보수당이 레이버당을 이기고 집권 ▶ 지부티가 애급과 외교관계를 단절

5일 영국에서 보수당당수 대처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

6일 오지리에서 총선거 진행, 사회당이 승리

7일 쌀바도르공산당 제7차대회가 비합법적으로 진행되였다고 보도 ▶ 핀란드대통령이 서독을 방문(11일까지) ▶ 유엔무역개발회의 제5차총회 마닐라에서 진행 (6월 3일까지)

9일 프랑스공산당 제23차대회 진행(13일까지), 마르쉐를 총비서로 재선 ▶ 일본총리가 필리핀을 방문(11일까지)

10일 서독총리가 영국을 방문(11일까지)

13일 이란회교혁명법정 의장이 파흐라비황제, 이전총리 등 파흐라비황제정권하의 주요인물들에게 결석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였다고 언명

14일 부다페슈트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외교부장회의 진행 (15일까지) ▶ 레바논대통령이 수리아를 방문(15일까지)

15일 유엔사무총장이 쏘련을 방문(16일까지)

16일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쏘련을 방문(21일까지)

17일 뿔스까통일로동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18일까지), ▶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메히꼬를 방문(18일까지), ▶ 에스빠냐사회로동당 제28차대회 진행(20일까지)

20일 메히꼬가 니까라과와 외교관계를 끊음 ▶ 꼬스따 리까대통령이 메히꼬를 방문

22일 쏘련총리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25일까지) ▶ 버마대통령이 방글라데슈를 방문(24일까지)

23일 프랑스대통령이 수단을 방문

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의 수리아 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25일 네팔에서 반정부시위, 총리가 사임, 국왕이 새 총리를 임명

26일 핀란드에서 새 련립정부 구성 ▶ 모리따니총리가 비행기사고로 사망

28일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31일까지)

29일 리비아와 알제리대통령이 애급—이스라엘 《평화조약》을 규탄

31일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리비아를 방문(6월 2일까지) ▶ 모리따니에서 전 국방부장이던 헤이달라흐가 새 총리로 됨

6 월

1일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비호와 조종밑에 로데시아에서 친미친서방반동두목인 무조레와를 《총리》로 하는 기만적인 괴뢰정부 조작 ▶ 잠비아대통령이 보쯔와나를 방문(5일까지)

2일 짐바브웨애국전선지도자들인 무가베와 느코모가 합동군사령부를 설치 ◀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브레쥬네브가 웽그리아를 방문하고 쏘련—웽그리아공동성명에 조인 ▶ 방글라데슈대통령이 쿠웨이트를 방문(4일까지)

4일 가나에서 아쿠포군사정권이 전복되고 제리 존 라우닝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혁명리사회 조직 ▶ 모리따니에서 모하메드 마흐무드 울드 룰리가 구국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 카나다에서 진보보수당내각이 구성됨 ▶ 인도네시아대통령이 파푸아 뉴기니아를 방문 ▶ 몽골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벌가리아를 방문(7일까지) ▶ 니까라과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총파업 시작, 마나과에서는 상공기업소와 기관의 90%가 일을 중지

5일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한 재일외국인위원회》가 미국대통령 카터의 남조선방문을 반대하여 호소문을 발표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말따를 방문

6일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교부장회의가 스리랑카에서 진행 (10일까지) ▶ 인도네시아대통령이 일본을 방문(9일까지) ▶ 서독총리가 미국을 방문(10일까지)

7일 애급에서 총선거 진행, 사다트대통령의 민족민주당이 승리

11일 인도총리가 쏘련을 방문(14일까지) ▶ 예멘아랍공화국 총리가 알제리를 방문(14일까지)

12일 케니아대통령이 영국을 방문(15일까지)

13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

14일 꾸바와 레소토가 외교관계를 맺음 ▶ 인도총리가 뽈스까를 방문(16일까지), 아르헨띠나대통령이 뻬루를 방문(17일까지)

16일 수리아—이라크 수뇌자들의 회담시작, 단일국가로 통합하는데 동의, 두 나라의 통합정치지도부의 창설을 발표(19일까지) ▶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레쥬네브와 미국대통령 카터가 윈에서 회담, 18일 쏘미 제2차전략무기제한조약(쌀트2)조인

18일 이란 림시정부가 새 헌법 초안을 발표 ▶ 웽그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20일까지) ▶ 인도총리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21일까지)

19일 빠나마가 니까라과와 외교관계를 끊음 ▶ 무싸 뜨라오레가 말리대통령으로 다시 취임

20일 우간다대통령 룰레가 사임, 새 대통령으로 비나이사가 임명

21일 인도총리와 서독총리가 회담

22일 도미니카에서 친영독재정권인 존정부가 무너지고 세라핀을 총리로 하는 새 림시정부 수립

23일 끼쁘로스대통령이 로므니아를 방문(26일까지) ▶ 리비아지도자가 수리아를 방문(25일까지)

24일 미국대통령 카터가 일미결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26일까지)

25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이 성명을 발표 ▶ 모스크바에서 쏘련총리와 서독총리가 회담 ▶ 리비아지도자가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를 방문(7월 2일까지) ▶ 바베이도즈와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음

26일 모스크바에서 쏘련, 영국 총리들이 회담 ▶ 뽀르뚜갈대통령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28일까지)

27일 앙골라의 수도에서 제6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대회 진행

28일 일본 도꾜에서 서방 7개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 서독, 영국, 이딸리아)의 총리 및 대통령들과 구라과공동체 위원장의 참가하에 《수뇌자회의》 진행

29일 제국주의전쟁두목인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을 행각 ▶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웰남을 방문(7월 4일까지) ▶ 석유수출국가기구회의에서 석유가격을 바렐당 14.54딸라로부터 18~23.5딸라로 올리기로 결정

7 월

1일 리비아지도자가 바레인, 아랍추장국련방,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8일까지)

2일 프랑스공산당 총비서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3일까지)

3일 수리아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5일까지) ▶ 일본공산당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9일까지)

9일 가나에서 인민민족당 지도자 힐라 리만이 대통령으로 당선 ▶ 버마총리가 중국을 방문(13일까지) ▶ 벌가리아 국가쏘베트위원장이 토이기를 방문(11일까지)

12일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티가 독립

14일 아프리카로조통일기구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15일 일본 지바시에서 《일본 교직원주체사상연구 제3차전국집회》진행

16일 탄자니아대통령이 알제리방문을 끝마침 ▶ 이라크의 바크르대통령이 사임, 후세인이 대통령직을 인수

17일 몬로비아에서 제6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21일까지) ▶ 인도네시아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18일까지)

19일 니까라과국가방위군이 싼디노민족해방전선에 완전히 투항, 니까라과혁명이 승리함

20일 니까라과에서 민족재건 정부성원들이 수도 마나과에 도착

23일 기네대통령이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말따를 방문(30일까지)

25일 일본방위청장관 야마시다가 남조선에 기여듦(26일까지)

27일 소말리아대통령이 애급을 방문 (28일까지)

28일 오스트랄리아총리가 나이제리아를 방문(31일까지)

29일 스리랑카공산당이 케이. 피. 데 실바를 총비서로 선거

30일 인도에서 챠우드리 싱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

31일 카나다총리가 까메룬방문을 끝마침

8 월

1일 제22차《영련방국가및수뇌자회의》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진행(7일까지)

2일 마로끄국왕이 서부사하라의 령유권야심을 표명

4일 이전 니까라과독재자 소모사도당이 바하마에서 쫓겨남

5일 모리따니와 뽈리싸리오전선이 《평화조약》 체결

6일 일본에서 진행된 197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26명의 외국대표들이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군대를 즉시 철거할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8일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 위원장의 뽀르뚜갈

방문이 끝남

9일 꾸바와 이란이 1975년도에 끊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

10일 스톡홀름에서 세계 자연환경, 인구 및 개발간의 호상관계토론회 폐막 ▶ 모리따니총리가 서부사하라문제 토의를 위해 마로끄를 방문(11일까지) ▶ 유고슬라비아대통령과 에스빠냐공산당총비서가 회담 진행

11일 나이제리아에서 알하지 쉐후 샤가리가 대통령으로 당선

13일 스리랑카총리가 중국을 방문(16일까지)

14일 모리따니와 알제리가 외교관계를 다시 맺음

18일 미국이 일본에서 2주일간의 대규모적군사연습을 시작

23일 니까라과에서 민족해방전선지도부를 개편, 나라의 유일한 무장력으로 싼디노인민군을 창건 ▶ 미국공산당 제22차대회 진행(26일까지), 거스 홀이 총비서로, 헨리 윈스톤이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 ▶ 모리따니가 서부사하라에서 자기군대를 최종적으로 철거시키기로 결정

25일 미국부대통령 몬데일이 중국을 방문(9월 1일까지) ▶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베닌방문을 끝마침

26일 네팔국왕이 중국을 방문 (28일까지)

27일 프랑스공산당 총비서가 알제리를 방문(9월 3일까지) ▶ 이스라엘정부대변인이 레바논에 대한 침략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강도적인 폭언을 줴침

29일 이스라엘전투기들 레바논수도 바이루트상공을 침입

9 월

3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진행(9일까지)

4일 오타와에서 세계식량리사회 제5차부장회의 진행(7일까지) ▶ 서독총리가 웽그리아를 방문(6일까지) ▶ 애급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7일까지)

7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프랑스를 방문(8일까지)

9일 제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을 채택하고 폐막 ▶ 로므니아의 수도에서 세계석유대회 진행(15일까지) ▶ 아프가니스탄인민민족당 총비서가 쏘련을 방문(11일까지)

10일 쏘련총리가 에티오피아를 방문(16일까지) ▶ 런던에서 로데시아문제에 관한 《제헌회의》가 짐바브웨애국전선, 영국, 로데시아괴뢰정부대표들의 참가하에 열림

11일 앙골라대통령 아고스띠노 네또가 병으로 사망

12일 벌가리아 당 및 국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15일까지) ▶ 웰남총리가 메히꼬, 니까라과, 빠나마, 쟈메이카를 방문(18일까지) ▶ 단마르크녀왕이 중국을 방문(21일까지)

13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에스빠냐(15일까지), 알제리(16일까지)를 방문

15일 탄자니아대통령이 벌가리아를 방문

▶ 말리공화국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18일 제34차 유엔총회 개막

20일 도스 싼또스가 앙골라대통령으로 취임

▶ 말레이시아총리가 쏘련을 방문(25일까지)

20일 중앙아프리카에서 보카싸정권이 무너지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선포됨

21일 웰남총리가 쏘련, 이라크를 방문 (25일까지)

24일 가나에서 8년간의 군사통치를 끝내고 민간행정부에 정권을 넘겨주는 《가나제3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하는 의식 수도에서 진행

26일 룩셈부르그대공이 중국을 방문(10월 5일까지)

29일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웰남을 방문하고 웰남—벌가리아 우호협조조약을 체결(10월 2일까지)

10 월

1일 빠나마운하지대에서 빠나마가 미국으로부터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받는 의식을 진행 ▶ 나이제리아가 13년만에 군사통치로부터 의회제민주주의통치로 이행, 샤가리가 새 대통령으로 됨 ▶ 본에서 서독—프랑스수뇌자회담 진행(2일까지)

2일 벌가리아 당및국가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4일까지) ▶ 민주예멘 총리가 북부예멘을 방문하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회담(4일까지)

3일 희랍총리가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희랍선언과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에 조인

4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레쥬네브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8일까지), 6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주둔 쏘련군대의 감축안을 발표

5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지도자 아라파트가 토이기를 방문(6일까지)

6일 뉴질랜드총리가 로므니아를 방문 (10일까지)

8일 아르헨띠나총리가 일본을 방문 (12일까지) ▶ 희랍총리의 웽그리아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12일 스웨리예에서 펠딘을 총리로 하는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3당련립내각을 구성

14일 기네대통령이 로므니아를 방문(15일까지)

15일 중국 화국봉주석이 프랑스, 서독, 영국, 이딸리아를 방문 ▶ 잠비아, 자이르, 앙골라가 호상불가침조약을 체결 ▶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 ▶ 영국, 서독, 프랑스 국방부장들이 군사적결탁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담 진행

18일 또도르 쥡꼬브가 로므니아를 방문(20일까지)

24일 예멘사회당 총비서가 쏘련을 방문(27일까지)

27일 쎈트 빈쎈트가 영국식민지통치를 벗어나 독립

11 월

1일 페루공산당 제7차대회 진행(4일까지)

2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벌가리아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4일 이란대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원들을 인질로 가둠, 파흘라비황제를 돌려보낼것을 미국에 요구

8일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 제네바에서 진행 ▶ 일본에서 제2차 오히라내각 구성

10일 영국공산당 제36차대회 진행(13일까지)

12일 이란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수출중지를 발표 ▶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지도자 아라파트가 쏘련을 방문(14일까지)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에티오피아를 방문(15일까지) ▶ 희랍총리가 중국을 방문(16일까지) ▶ 체스꼬슬로벤스꼬총리가 일본을 방문(15일까지)

13일 일본사회당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22일까지)

14일 잠비아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17일까지)

15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민주예멘을 방문하고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17일까지)

17일 인도네시아대통령이 스리랑카를 방문(19일까지)

19일 로므니아공산당 제12차대회 진행(23일까지)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 잠비아에 대한 무장침략을 감행 ▶ 인도네시아대통령이 방글라데슈를 방문(21일까지)

20일 잠비아대통령이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면전쟁을 선포 ▶ 튜니스에서 제10차아랍련맹수뇌자회의가 열림(22일까지) ▶ 웽그리아총리가 프랑스를 방문(22일까지)

21일 이란에서 30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반미시위 진행▶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확대, 미국외교일군들 일부 철수

23일 일본 고베시에서 제12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진행

24일 세계협조및문화련계인도협회가 군사분계선상에서 철근콩크리트장벽쌓기놀음을 벌리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유엔안보리사회가 잠비아에 대한 로데시아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측에 손해배상을 호소하는 결의 채택

25일 중국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의석을 회복

27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상설서기국비상회의에서 조선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28일 말가슈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31일까지)

29일 에티오피아국가수반이 민주예멘을 방문(12월 2일까지),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

12 월

2일 뽀르뚜갈에서 국회중간선거 진행 ▶ 리비아에서 반미시위자들이 미국대사관을 장악하고 불을 지름 ▶ 이란회교혁명리사회가 《전국동원부》를 내오고 군인들에게 재복무를 호소

4일 미제가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을 아라비아해에 또 파견

5일 쏘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1,500명의 첫 쏘련군부대들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가지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철수함 ▶ 일본총리가 중국을 방문(9일까지)

8일 모잠비끄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14일까지)

11일 베오그라드에서 쁠럭불가담국가방송기구협조위원회 제5차회의 진행

13일 인도와 방글라데슈가 국경분쟁을 끝낼데 대한 회담 진행

15일 이전 이란 황제 파흘라비가 미제의 조종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빠나마로 이동, 격분한 이란대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문화쎈터를 점거

16일 프랑스공산당총비서의 뽈스까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17일 아바나에서 《77개국그루빠》 성원국 부장급회의를 진행하고 22일 아바나선언을 채택 ▶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석유수출국가기구총회 진행, 석유가격문제와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관계문제를 토의

18일 빠나마대학생들이 이전이란황제가 자기 나라에 들어온데 항의하여 투쟁, 미국대사관의 미국기발을 찢어버림 ▶ 탄자니아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20일까지)

19일 앙골라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22일까지)

21일 민주주의캄보쟈에서 키에우 삼판을 총리로 임명 ▶ 짐바브웨애국전선지도자들과 로데시아괴뢰정부및영국정부대표들사이3자회담에서 전반적인 《평화협정》 조인, 1980년 1월 4일부터 완전정

화와 2개월후에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

22일 공고대통령의 알제리방문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 아랍사회부흥당 제7차수리아지역대회 디마스끄에서 진행(1980년 1월 6일까지), 아싸드대통령을 총비서로 선거

26일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회 진행(30일까지) 장 바프띠쓰뜨 바가자를 위원장으로 선거

27일 캄보쟈인민대표회의, 민주주의캄보쟈정부, 군대대표들의 련석회의에서 새 정부 및 국가기구 성원들을 임명

29일 뽀르뚜갈에서 새 내각 구성

30일 소말리아에서 1969년 10월이후 처음으로 선거 진행

조 선 중 앙 년 감(1980년)

낸 곳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 1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
인 쇄	1980년 10월 25일	발행 1980년 12월 5일

제 ㄱ—05135 값 5원 50전